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310-01

정책보고서 2018-25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김미곤 · 이태진 · 송태민 · 우선희 · 김성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미래 사회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송태민 삼육대학교 교수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수요는 크게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증가한다. 첫째,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의 증가, 둘째, 제도의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 셋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증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증가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매년 보건·복지·노동예산을 다른 부분의 예산증가율 보다 높게 편성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144.7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33.7%에 해당된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미성숙,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국민들의 복지욕구와 공급 간 조응성 미흡 등으로 복지 만족도 및 국민 행복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 및 행복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선순위별로 파악하여,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이다. 상기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사회보장 수요에 대한 분석과, 둘째, 미시적인 측면에서 국민·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상기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1,000명과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욕구와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총 170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 776,806건을 이용하여 보건복지에 대한 감성분석 등을 실시하고 미래 예측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보건복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내용이 사회보장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 욕구와 수요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및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연구진은 바라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민과 전문가들의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김미곤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송태민 교수, 이태진 연구위원, 우선화·김성아 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수행 중 수차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도움을 주신 각계전문가에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9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42
제2장 사회보장 관련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45
제1절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	47
제2절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82
제3장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93
제1절 기존 사회인식조사 선행연구	95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107
제4장 사회보장 인식조사 분석	111
제1절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	113
제2절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153
제3절 일반국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비교분석	213
제5장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정책 미래신호 예측	225
제1절 문제제기	227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29
제3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사회보장 정책 미래신호 탐색	242
제4절 소결	26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65
제1절 요약 및 함의	267
제2절 정책제언	276
 참고문헌	 281
 부록	 287
부록 1.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289
부록 2.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기초분석표	301
부록 3.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조사표	378
부록 4.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기초분석표	394

표 목차

〈표 2-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52
〈표 2-2〉 1980~2015년 가구규모 추이	56
〈표 2-3〉 1~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65
〈표 2-4〉 2007~2017년 주요국의 행복 수준	66
〈표 2-5〉 국가채무 추이	69
〈표 2-6〉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70
〈표 2-7〉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72
〈표 2-8〉 건강보험 재정 현황	78
〈표 2-9〉 연도별 노인진료비 추이	80
〈표 2-10〉 만성질환 진료비 현황	81
〈표 3-1〉 OECD 주요 국가의 정책 분야별 정부의 역할 인식	98
〈표 3-2〉 OECD 주요 국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	99
〈표 3-3〉 2010~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개요	100
〈표 4-1-1〉 보건복지정책수요 일반국민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4
〈표 4-1-2〉 조세 환상: 사회보장 확대 vs. 추가 조세 부담 의사	148
〈표 4-2-1〉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53
〈표 4-2-2〉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154
〈표 4-2-3〉 전문가 특성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전망)	157
〈표 4-2-4〉 연도별 사회보장(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158
〈표 4-2-5〉 전문가 특성별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 평가(전망)	160
〈표 4-2-6〉 연도별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평가	161
〈표 4-2-7〉 가난의 원인(개인 vs 사회구조)	162
〈표 4-2-8〉 집단 간 갈등의 정도	164
〈표 4-2-9〉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 분포	166
〈표 4-2-10〉 연도별 걱정거리(1~3순위)	167
〈표 4-2-11〉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168
〈표 4-2-12〉 지난 5년(2013~2017)의 정책영역별 성과 평가	171
〈표 4-2-13〉 정부가 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	173
〈표 4-2-14〉 전문가 특성별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인식	175
〈표 4-2-15〉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취약계층	176

〈표 4-2-16〉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우선순위	176
〈표 4-2-17〉 연도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선호	184
〈표 4-2-18〉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	186
〈표 4-2-19〉 연도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선호	187
〈표 4-2-20〉 연도별 저소득층 자립촉진 방안 선호	190
〈표 4-2-21〉 연도별 출산장려 정책 선호	191
〈표 4-2-22〉 연도별 아동 지원 정책 선호	193
〈표 4-2-23〉 연도별 노후 지원 정책 선호	195
〈표 4-2-24〉 연도별 장애인 지원 정책 선호	196
〈표 4-2-25〉 연도별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	199
〈표 4-2-26〉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201
〈표 4-2-27〉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	202
〈표 4-2-28〉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	203
〈표 4-2-29〉 주거복지의 수준 평가 항목	205
〈표 4-2-30〉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투자와 조세에 대한 인식	207
〈표 4-2-31〉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	207
〈표 4-2-32〉 연도별 사회보장(복지)재원을 마련 방안 선호	209
〈표 4-2-33〉 사회보장(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적절한 증세 방안(연도별)	210
〈표 5-1〉 사회보장 관련 온라인문서(버즈) 현황	237
〈표 5-2〉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238
〈표 5-3〉 사회보장 관련 분야와 대상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240
〈표 5-4〉 온라인 채널의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키워드 분석	243
〈표 5-5〉 온라인 채널의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순위변화(TF기준)	244
〈표 5-6〉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가시성(DoV) 평균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	247
〈표 5-7〉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확산성(DoD) 평균증가율과 평균문서 빈도	248
〈표 5-8〉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감정 분석과 대응방향	251
〈표 5-9〉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254
〈표 5-10〉 사회보장 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요인	256
〈표 5-11〉 사회보장 주요 정책의 연관규칙	259

그림 목차

[그림 2-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49
[그림 2-2]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50
[그림 2-3]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51
[그림 2-4] 2030년 주요 국가 기대수명	53
[그림 2-5]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53
[그림 2-6]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조	55
[그림 2-7]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55
[그림 2-8] 시기별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	57
[그림 2-9]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현 3단계	59
[그림 2-10] 지니계수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67
[그림 2-11]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68
[그림 2-12] 가계신용과 월세비중	69
[그림 2-13] OECD 주요국가 임시직의 비율(2014)	71
[그림 2-14] 세대 내 이동성 전망	72
[그림 2-15] 세대 간 이동성 전망	72
[그림 3-16] 빈곤(우)과 불평등(좌)의 장기 추이	76
[그림 3-17]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76
[그림 3-18]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77
[그림 3-19]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77
[그림 2-2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계획	79
[그림 2-21]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80
[그림 2-22]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4)	82
[그림 2-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84
[그림 2-24]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85
[그림 2-25] OECD 국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86
[그림 2-26] 20대 고용률 추이(2000~2013년)	87
[그림 2-27]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88
[그림 2-28]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	88
[그림 2-29]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89
[그림 2-30]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90

[그림 2-31]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	90
[그림 3-1] 2010~2014년 정부 신뢰도와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	96
[그림 3-2] 연도별 일반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소득계층 변화	101
[그림 3-3]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복지수준 인식	101
[그림 3-4]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성 인식	102
[그림 3-5] 조사대상자별 걱정거리	103
[그림 3-6] 조사대상자별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105
[그림 3-7] 조사대상자별 중요한 복지정책분야	106
[그림 3-8] 조세환상: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 대 조세납부의사	107
[그림 3-9]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구성	109
[그림 3-10]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구성	110
[그림 4-1-1] 삶의 만족도	116
[그림 4-1-2] 생활영역별 만족도	117
[그림 4-1-3] 사회신뢰	118
[그림 4-1-4] 거주지역 소속감 및 연대감	120
[그림 4-1-5] 갈등 수준 인식	122
[그림 4-1-6]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차이	123
[그림 4-1-7]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인식	125
[그림 4-1-8] 거주지역별 전반적 사회보장 수준 인식 차이	126
[그림 4-1-9] 소득이나 재산이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도	127
[그림 4-1-10] 주관적 소득계층별 소득이나 재산이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도 인식 차이	127
[그림 4-1-11] 현재와 5년 후의 걱정거리와 불안요인	128
[그림 4-1-12] 연령대별 현재와 5년 후의 걱정거리와 불안요인	129
[그림 4-1-13] 노후 준비 정도	131
[그림 4-1-14] 노후 준비하지 않는 이유	131
[그림 4-1-15] 경제활동상태별 노후 준비 정도	131
[그림 4-1-16] 연령대별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	132
[그림 4-1-17] 노후 준비 방법	132
[그림 4-1-18] 경제활동상태별 노후 준비 방법	133
[그림 4-1-19]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134
[그림 4-1-20] 연령대별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135

[그림 4-1-21]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 인구집단	135
[그림 4-1-22]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 취약집단	136
[그림 4-1-23] 소득보장 vs. 서비스보장	136
[그림 4-1-24] 연령대별 소득보장 vs. 서비스보장	136
[그림 4-1-25] 향후 5년 중점 소득보장 분야	137
[그림 4-1-26] 향후 5년 중점 서비스보장 분야	137
[그림 4-1-27]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138
[그림 4-1-28] 주관적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138
[그림 4-1-29] 일자리 창출 vs. 일자리 질 개선	139
[그림 4-1-30]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창출 vs. 일자리 질 개선	139
[그림 4-1-31] 일자리 창출 대상 집단	140
[그림 4-1-32] 일자리 질 개선 우선 정책	140
[그림 4-1-33]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창출 대상 집단	140
[그림 4-1-34]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질 개선 정책	141
[그림 4-1-35] 보육 및 아동 돌봄 우선 정책	141
[그림 4-1-36] 연령대별 보육 및 아동 돌봄 우선 정책	142
[그림 4-1-37] 교육 우선 정책	143
[그림 4-1-38] 교육수준별 교육 우선 정책	143
[그림 4-1-39] 주거 취약가구 우선 정책	144
[그림 4-1-40] 주거 점유형태별 주거 취약가구 우선 정책	144
[그림 4-1-41]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	145
[그림 4-1-42] 주관적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	145
[그림 4-1-43]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	146
[그림 4-1-44] 가구규모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	146
[그림 4-1-45]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147
[그림 4-1-46]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 추가 납부 의사	147
[그림 4-1-47]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 추가 납부 반대 이유	149
[그림 4-1-48] 가난의 이유: 개인의 책임 vs. 사회구조적 원인	149
[그림 4-1-49] 생활수준 변화 경험과 전망	150
[그림 4-1-50] 연령대별 생활수준 변화 경험과 전망	150
[그림 4-1-51] 우리 사회 평가	151

[그림 4-1-52] 주관적 소득계층별 우리 사회 평가	151
[그림 4-1-53] 미래 한국의 모습 중요도	152
[그림 4-2-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155
[그림 4-2-2] 사회보장 수준 점수	155
[그림 4-2-3]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전망)	156
[그림 4-2-4] 소득 및 재산분배 정도에 대한 점수	158
[그림 4-2-5]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 평가(전망)	159
[그림 4-2-6] 미래 사회의 희망 정도에 대한 점수	162
[그림 4-2-7] 미래 사회의 희망 정도에 대한 평가	163
[그림 4-2-8] 집단 간 갈등의 심도	164
[그림 4-2-9]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	165
[그림 4-2-10] 2018-2038년 걱정거리(통합순위)	168
[그림 4-2-11]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169
[그림 4-2-12] 지난 5년(2013~2017)의 정책영역별 성과 점수	170
[그림 4-2-13] 향후 정부가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점수	172
[그림 4-2-14] 향후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	174
[그림 4-2-15]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175
[그림 4-2-16] 향후 5년 동안의 소득보장 분야 중점 추진 정책	177
[그림 4-2-17] 향후 5년 동안의 서비스보장 분야 중점 추진 정책	177
[그림 4-2-18] 교육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78
[그림 4-2-19] 아동 돌봄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79
[그림 4-2-20] 성인 돌봄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79
[그림 4-2-21] 안전 보장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80
[그림 4-2-22] 권익 보장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80
[그림 4-2-23] 문화 및 여가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81
[그림 4-2-24] 환경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81
[그림 4-2-25]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추진 정책	182
[그림 4-2-26] 향후 5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183
[그림 4-2-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183
[그림 4-2-28]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85
[그림 4-2-29]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방안	187

[그림 4-2-30]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	188
[그림 4-2-31] 저소득층 자립 촉진 방안	189
[그림 4-2-32] 출산율 제고 방안	191
[그림 4-2-33] 아동지원 강화 방안	192
[그림 4-2-34] 노후 지원 방안	194
[그림 4-2-35] 장애인 지원 방안	196
[그림 4-2-36] 돌봄 대상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 방안	197
[그림 4-2-37]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	198
[그림 4-2-38] 일자리 및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	200
[그림 4-2-39] 좋은 일자리를 위한 개선 과제의 시급성	204
[그림 4-2-40]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204
[그림 4-2-41] 주거복지 속성의 중요도	205
[그림 4-2-42]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대 시급 분야	206
[그림 4-2-43] 사회보장재원 마련 방안	208
[그림 4-2-44] 증세 방안	210
[그림 4-2-45]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 분야	212
[그림 4-3-1] 조사대상자별 사회신뢰	213
[그림 4-3-2] 조사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의 분배	213
[그림 4-3-3] 조사대상자별 가난의 이유: 개인의 책임 vs. 사회구조적 원인	214
[그림 4-3-4] 조사대상자별 걱정거리 1순위	214
[그림 4-3-5] 조사대상자별 갈등 인식	215
[그림 4-3-6] 조사대상자별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216
[그림 3-4-7] 조사대상자별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중요도	216
[그림 4-3-8] 조사대상자별 사회보장 수준 평가	217
[그림 4-3-9] 조사대상자별 사회보장확대 중점 대상	217
[그림 4-3-10] 조사대상자별 사회보장확대 중점 취약계층	218
[그림 4-3-11] 조사대상자별 소득보장 vs. 서비스보장	218
[그림 4-3-12] 조사대상자별 소득보장 중점 정책	219
[그림 4-3-13] 조사대상자별 서비스보장 중점 분야	219
[그림 4-3-14] 조사대상자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220
[그림 4-3-15] 조사대상자별 노후지원정책	220

[그림 4-3-16] 조사대상자별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221
[그림 4-3-17] 조사대상자별 교육정책	221
[그림 4-3-18] 조사대상자별 주거 취약가구 정책	222
[그림 4-3-19] 조사대상자별 돌봄 대상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	222
[그림 4-3-20] 조사대상자별 사회서비스 정책	223
[그림 4-3-21] 조사대상자별 일자리 질 개선 정책	224
[그림 5-1] 사회보장 주제분류 분석 절차	232
[그림 5-2] 사회보장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	233
[그림 5-3]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의 수요(감정) 변화	239
[그림 5-4] 사회보장 관련 대상과 분야의 수요(감정) 변화	241
[그림 5-5]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변화	245
[그림 5-6] 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250
[그림 5-7] 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250
[그림 5-8]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 키워드 KEM(중요도)	253
[그림 5-9]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 키워드 KIM(확산도)	253
[그림 5-10]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사회보장 주요 정책의 중요도	255
[그림 5-11] 사회보장 정책 수요 예측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257

1. 서론

□ 연구 필요성

- 복지 만족도 및 국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선순위별로 파악하여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임.
- 국민들의 보건복지욕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객관적인 사회보장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책을 개발하고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는 예산 배정이 필요

□ 연구 목적

-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관련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수요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대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가구의 사회보장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차기 년도 사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조사 방법

-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100명의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웹메일(webmail) 조사
 - 일반국민조사
 -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면접조사
 - 표본추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
 - 신뢰수준: 95%±3.1%p

- 전문가조사
 - 조사방법: 웹메일(web mail)조사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성 분석과 미래예측

- 170개의 온라인 채널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롤러(Crawler)라는 로봇을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고 감성분석 등 실시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인 사회보장 인식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전문가 조사는 텔파이 조사이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약함. 따라서 전문가 조사의 경우 선행 연구와의 연도별 비교는 의미가 없음.
- 7번에 걸친 일반국민 조사의 경우 조사방식이 유선 전화조사→무선 전화조사→면접조사로 변경되어, 선행연구와의 연도별 비교에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편의 외에도 신뢰수준이 $95\% \pm 3.1\%$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조사의 경우 온라인 채널에 의견(흔적)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대한 인식분석이므로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보건복지 관련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가.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

□ 거대한 후퇴

-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실험이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등(2017)의 책이름처럼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상태에 직면하고 있음. 동서의 핵심 주장은 민주주의 후퇴와 신자유주의 득세로 요약됨

- 『거대한 후퇴』 저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후퇴하여, 포퓰리즘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치로 이행되면 경제주권의 약화, 사회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 인구역전 현상, 노인의 고령화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경제성장과 빈곤-불평등 변화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이후 사라졌음.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본 김미곤의 연구(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낙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됨. OECD의 마이클 포스터(2016)에 의하면, 지니계수가 1포인트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12% 포인트 감소

□ 노동시장과 빈곤-불평등 변화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읽는 열쇠 말은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원청/하청 등), 높은 자영업자 비율,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등임.
- 일자리 수급 전망
 - 인구구조라는 측면만 고려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일자리가 부족하고, 2030년 이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혁명과 통일이 일자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선다는 특이점 도달(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2045년에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 → 일자리 부족

□ 기술진보와 빈곤·불평등 변화

-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연결과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어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마치 여름 옷(2차 산업혁명)을 입고 겨울(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상태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공적이전과 빈곤·불평등 변화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약 14.1%(2012년)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들의 빈곤율 개선효과 약 59.9%보다 매우 낮은 수준
-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는 약 8.8%이나, OECD 평균은 약 31.1%임.
- 이러한 빈곤 및 불평등 개선정도는 향후 공적이전지출이 증가하면, 그 개선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론되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연금제도 성숙이 빈곤 및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하지만 일정 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저소득층들이 받는 급여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임.

나.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을 하락, 높은 비정규직 및 자영업 비율, 빈곤 및 분배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추론됨.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지라도, 제도 성숙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SOCX기준)은 2060년에 GDP 대비 약 25.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보사연 내부자료).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기 도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병수당 등이 도입된다면 이에 따른 복지수요는 증가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복지수요를 증가시킴.

□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이 필요

- 2000~2020년간 인구구조상 저부양비 기간이므로 동 기간 내에 세출구조 조정, 세금 인상 등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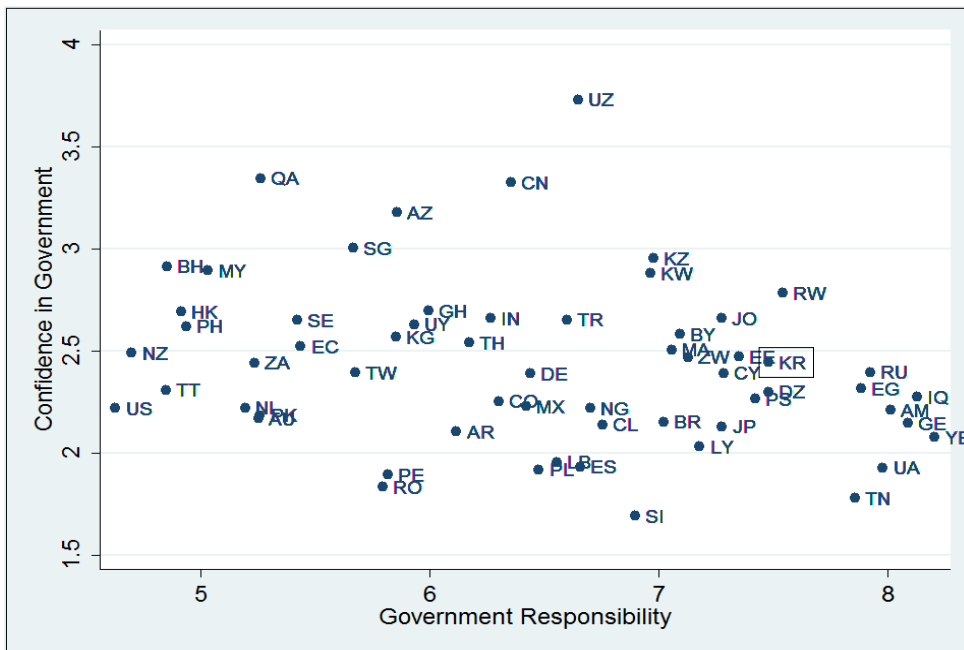
□ 주요 해외 사회인식조사는 세계가치관조사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이 있음.

- 세계가치관조사는 1981년부터 세계 일반국민들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 생활 및 정치적 생활의 추이를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
- 주요 조사내용은 보통 사람들의 신념, 가치관, 동기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 경제발전, 민주주의, 종교, 성평등, 사회적 자본, 행복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제6차 웨이브 조사는 2010~2014년 동안 각국에서 실시되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 문

항을 포함하고 있음.

- 다음 그림은 정부신뢰도 및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문항으로 포함한 국가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음.
- 두 지표 간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신뢰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요약그림 2-1] 2010~2014년 정부 신뢰도와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



주: 1) 정부 신뢰도(Confidence in Government)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전적으로 신뢰한다(4)'의 4점 척도의 평균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책임(Government Responsibility)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1)'~'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10)'의 11점 척도임.

2)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44점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은 7.48점임.

3) 이 그래프는 6차 웨이브(2010~2014년) 기간 동안 해당 문항을 조사한 60개국을 대상으로 함.

자료: WVS (2015). *World Value Survey 1981-2014 Longitudinal Aggregate v.20150418*, 2015.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Aggregate File Producer: JDSystems Data Archive, Madrid, Spain.

○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s, ISSP)은

사회과학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를 매년 지속적으로 다루는 다국적 협동 프로젝트임.

- 1972년에 시작된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모태로, 1983년 이후 가입국을 대상으로 공통 모듈의 조사표를 활용해 동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45개국이 참여하고 있음.¹⁾
- 2016년 조사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을 질문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건강서비스/노인 돌봄/교육의 서비스 제공 주체, 건강서비스/노후생활 보장/안보 영역의 정부효과성, 재정/일자리/규제/신기술개발/사양산업지원/근로일수 감축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문항을 포함
- 다음 표는 당해 연도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중 OECD 가입국 19개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정책 분야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임.
 - 대한민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실업급여와 환경 영역에서 정부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반면, 건강정책, 연금정책, 교육정책에서의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국의 정책 현황을 배제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1) 세부적인 참여국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북아메리카(멕시코, 미국), 남아메리카(볼리비아, 칠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유럽(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영국,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시아(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 태국),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요약표 2-1〉 OECD 주요 국가의 정책 분야별 정부의 역할 인식

(단위: 점, 순위)

국가	건강		연금		실업급여		교육		환경	
헝가리	4.64	(1)	4.02	(6)	3.37	(4)	4.18	(4)	3.75	(1)
아이슬란드	4.41	(2)	3.93	(9)	3.01	(13)	3.97	(7)	3.64	(7)
이스라엘	4.32	(3)	4.32	(1)	3.29	(6)	4.40	(1)	3.68	(5)
스페인	4.27	(4)	4.02	(5)	3.80	(1)	4.31	(3)	3.60	(8)
라트비아	4.23	(5)	4.23	(2)	3.31	(5)	4.06	(5)	3.19	(19)
슬로바키아	4.19	(6)	4.20	(3)	3.15	(9)	3.91	(9)	3.67	(6)
스웨덴	4.18	(7)	3.97	(7)	3.05	(11)	3.83	(11)	3.52	(11)
영국	4.18	(8)	3.71	(12)	2.72	(18)	3.92	(8)	3.41	(14)
슬로베니아	4.06	(9)	4.04	(4)	3.37	(3)	3.87	(10)	3.68	(4)
독일	4.03	(10)	3.91	(10)	3.27	(7)	4.33	(2)	3.73	(2)
덴마크	3.96	(11)	3.45	(19)	3.05	(12)	3.66	(15)	3.51	(12)
노르웨이	3.92	(12)	3.50	(17)	2.92	(16)	3.63	(18)	3.34	(16)
체코	3.88	(13)	3.93	(8)	2.83	(17)	3.61	(19)	3.32	(17)
대한민국	3.82	(14)	3.60	(16)	3.37	(2)	3.66	(16)	3.72	(3)
핀란드	3.81	(15)	3.65	(14)	2.96	(15)	3.65	(17)	3.31	(18)
프랑스	3.74	(16)	3.62	(15)	2.57	(19)	3.68	(14)	3.35	(15)
미국	3.73	(17)	3.72	(11)	3.13	(10)	4.05	(6)	3.41	(13)
일본	3.65	(18)	3.49	(18)	3.01	(14)	3.78	(13)	3.56	(10)
스위스	3.47	(19)	3.67	(13)	3.20	(8)	3.81	(12)	3.58	(9)

주: 1) 2016년 ISSP 정부의 역할 모듈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중 OECD 가입국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원자료를 역코딩하여 산출하여, '예산을 매우 삭감해야 함(1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5점)'의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3) '건강' 정책의 점수 및 순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것임.

자료: Group, I. R. (2018).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Role of Government V - ISSP 2016*.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4232/1.12994>

□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2016년 매년 보건복지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일반국민과 보건 및 복지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다음 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했음(신영석 등, 2010; 최성은 등, 2011; 김태완 등, 2012; 김미곤 등, 2014; 김미곤 등, 2015; 김미곤 등, 2016)

○ 비교가 가능한 주요 문항의 시계열적 결과는 전문가조사를 중심으로 3장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제시함.

□ 선행연구에 기반을 둔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는 크게 조사표 구성 및 완료 → 조사 실시 → 데이터 클리닝 및 기초분석 →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연구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가 참여했음.

□ 조사표 구성의 원칙

○ 본 조사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표의 구성에서 **배타성과 포괄성, 정책적 시의성, 응답 용이성, 미래지향성** 등의 원칙을 견지

○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구성 체계도



○ 전문가 인식조사 조사표 구성 체계도



4. 사회보장 인식조사 분석

가. 일반국민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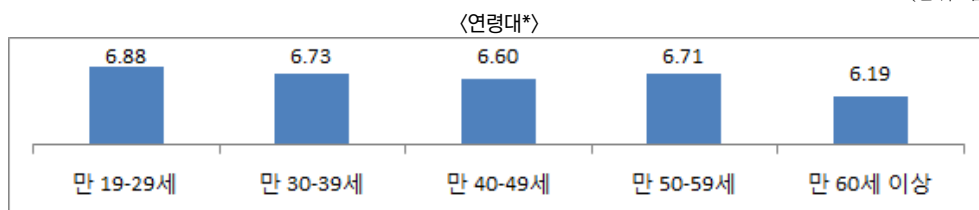
□ 2018년 일반국민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인의 삶의 만족은 6.6점 수준임.

○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은 연령대별로 40대가 낮은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Branchflower & Oswald, 2008; Stone, Schwartz, Broderick & Deaton, 2010)

-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확연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50대까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다가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특이한 경향을 보임.

[요약그림 4-1-1]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주 1)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0점)'~'매우 만족스럽다(10점)'의 11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의 평균 점수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주요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결과임.

- 건강의 만족도가 7.07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6.81점,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만족도가 6.75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생활수준 만족도는 6.32점에 불과함. 직업과 시간적 여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각각 6.60점과 6.32점으로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신뢰 수준은 6.33점 수준임. 시도의 시부 거주자의 사회신뢰 수준이 6.2점으로 가장 낮고, 시도의 군부 거주자 신뢰 수준은 6.31점, 광역시 거주자의 신뢰 수준은 6.49점으로 높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높아지고, 주관적 계층의식 또한 이와 일관된 경향을 보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신뢰 수준이 6.56점으로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인구가 6.34점으로 그 뒤를 이음. 고용주와 자영업자(6.06점), 실업자(6.00점),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5.94점)의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거주지역에의 소속감 및 연대감 수준은 6.41점 수준임. 집단별로는 여성(6.50점)에 비해 남성(6.32)이 낮고, 연령대별로는 30대(6.18점)와 60세 이상 노인(6.37점)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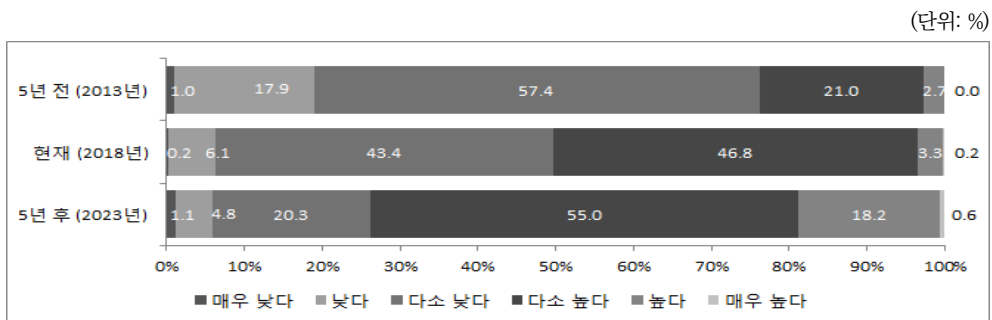
- 거주지역별로는 시도의 군부 거주자가 6.66점으로 가장 높고, 시도의 시부 거주자가 6.23점으로 가장 낮음.

□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집단들 간 갈등 수준은 경영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2.75점으로 가장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2.73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갈등이 2.6점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갈등, 고령자와 젊은이의 세대갈등, 지역 간 갈등은 각각 2.39점, 2.34점, 2.31점으로 나타났음.

○ 반면,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은 2.15점, 다른 문화와의 갈등은 2.29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5년 전과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 평가와 5년 후 사회보장 수준 전망을 보면, 전반적으로 ‘낮다’의 부정적인 견해가 감소하고 ‘높다’의 긍정적인 견해가 확대되면서 미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그림 4-1-2]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인식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5년 전과 현재의 소득 및 재산 분배 수준 평가와 5년 후 소득 및 재산 분배 수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견해가 다소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불평등하다’와 ‘다소 불평등’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감소하고 ‘다소 평등하다’와 ‘평등하다’의 긍정적 견해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 수준 전망과 같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

○ 현재 걱정거리의 1순위는 압도적으로 일자리(35.9%)인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은 신체와 정신건강(17.1%), 노후생활(15.0%), 자녀교육(14.2%) 순임.

- 2순위와 3순위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2순위에서는 신체와 정신 건강(24.8%), 노후생활(19.9%)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3순위에서는 환경과 안전이 각각 16.8%로 비교적 높음.
- 5년 후의 걱정거리 1순위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이 22.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체와 정신건강(21.0%), 일자리(20.1%) 순임.

□ 다음은 일반국민의 노후준비 정도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곧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이라는 의미임.

○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491명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8.9%로 높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도 34.6%에 이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2.0% 수준으로 나타남.

○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는 응답한 509명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이 20.0%이고, 부동산 운용이 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부수적인 방법은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이 41.9%로 가장 높고, 사적 연금이 21.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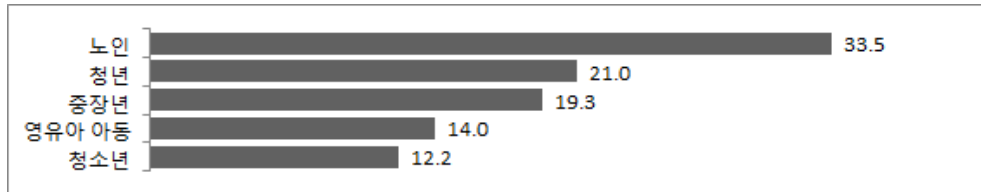
○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은퇴 후 취업 및 창업 지원(27.9%)과 소득 지원(21.3%) 등 생계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고, 돌봄 강화(16.6%), 여가활동 지원(11.7%), 장기요양서비스 확대(8.9%) 등 생활지원에 대한 선호 또한 비교적 높음.

□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인구집단으로는 노인이 전체의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21.0%), 중장년(19.3%) 등이 이음.

○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취약집단도 노인이 전체의 33.9%로 가장 높음. 그 뒤는 저소득층이 30.1%,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21.2%, 장애인이 13.9%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은 0.9%에 불과함.

[요약그림 4-1-3]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 인구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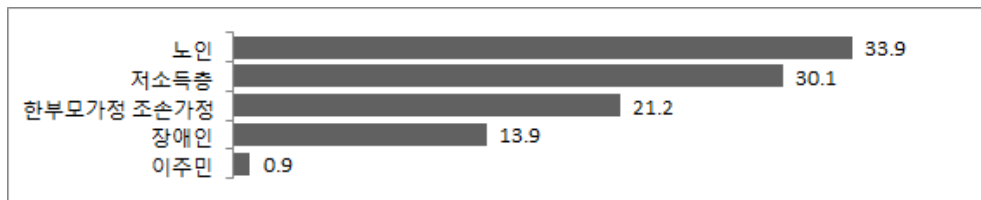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요약그림 4-1-4]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 취약집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응답자 4명 중 3명(74.2%)은 서비스보장에 비해 소득보장을 선호함.

○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확대 등 노인소득보장 강화가 23.7%로 그 뒤를 이음. 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고용분야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분야가 27.2%로 두 번째로 높음.

□ 사회보장 분야별 정책 선호는 다음과 같음.

○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가 전체의 29.4%로 높게 나타나고,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20.0%),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9.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16.4%)이 그 뒤를 이음.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일자리 질 개선이 3.55점(가중평균값), 일자리 창출이 3.45점(가중평균값)으로 나타나 일자리 개선이 미세하게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대상 집단은 청년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23.8%), 중장년(17.5%), 여성(13.1%)이 그 뒤를 이음.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우선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가 27.9%로 가장 높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 제고(21.2%),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13.9%)가 그 뒤를 이음.
- 보육 및 아동 돌봄 영역의 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방과후 학교 등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23.2%), 무상보육 확대(19.0%),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 지원강화(17.3%)가 그 뒤를 이음.
- 교육 정책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국공립 교육기능 강화(23.9%), 무상교육 확대(22.8%),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15.3%)이 그 뒤를 이음.
- 주거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임대료 주거비 지원(23.8%),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22.8%), 주거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15.1%)이 그 뒤를 이음.
-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에서는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29.7%), 지역 간의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19.5%),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13.1%)의 순임.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주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제공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21.9%),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19.9%), 동네의 원을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19.6%)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는 데에 반대하는지 혹은 찬성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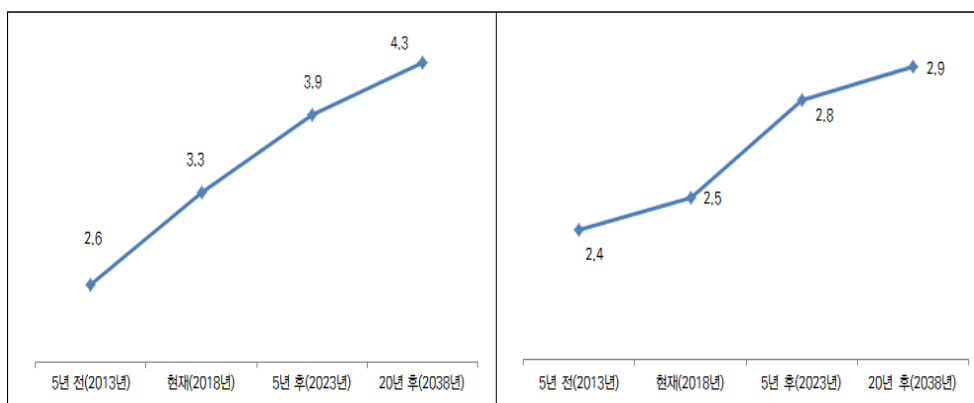
- ‘다소 찬성한다’가 51.9%, ‘찬성한다’가 25.8%, ‘매우 찬성한다’가 2.0%로 전반적인 찬성 의견이 전체의 80%에 가깝게 높게 나타남.
 - 그런데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한다’가 5.1%, ‘반대한다’가 17.8%, ‘다소 반대한다’가 45.1%로 부정적인 견해가 68.0%에 이름.
- 앞선 질문에서 사회보장 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응답자들이 선택한 반대 이유로는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높고,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1.0%,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17.1%로 그 뒤를 이음.
- 가난의 이유가 개인의 책임인지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가깝다는 응답이 63.1%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응답 36.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난 5년간 생활수준 변화 경험과 향후 5년간 생활수준 변화 기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73.1%에서 57.5%로 줄어들고, ‘다소 좋아졌다’가 12.5%에서 ‘다소 좋아질 것이다’가 22.5%로, ‘다소 나빠졌다’가 13.8%에서 ‘다소 나빠질 것이다’가 19.1%로 각각 증가해 균형을 맞춤.
-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인지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 5년 전과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5년 후를 전망한 결과,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에 가까운 점수의 응답률이 점차 증가해옴.
 -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범죄, 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와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나. 전문가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분석

-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가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5.3점으로 ‘보통’(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소득 및 재산의 분배 정도에 대한 평가는 과거 및 현재보다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는 5년 전 2.6점에 불과했으나, 2018년 현재 3.3점, 5년 후 3.9점, 20년 후 4.3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소득 및 재산의 분배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5년 전과 현재 각각 2.4점, 2.5점으로 평가하였으나, 5년 후 2.8점, 20년 후 2.9점으로 소폭이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요약그림 4-2-1] 사회보장 수준과 소득 및 재산분배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주: 사회보장 수준은 '①매우 낮다~⑥매우 높다'(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분배정도는 ①매우 불평등하다~⑥매우 평등하다(6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가난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가난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경우 1점, '전적으로 사회구조적 원인'

으로 볼 경우 6점으로 측정하였는데, 4점~6점에 전체 조사 대상자의 70%가 응답하였으며, 점수화하여 분석하면 평균 4점으로 나타남.

□ 한국사회를 불안이 가득한 사회인지, 희망이 가득한 사회인지에 대해 11점 척도 (0-10점)로 측정하였는데, 평균 5점 이하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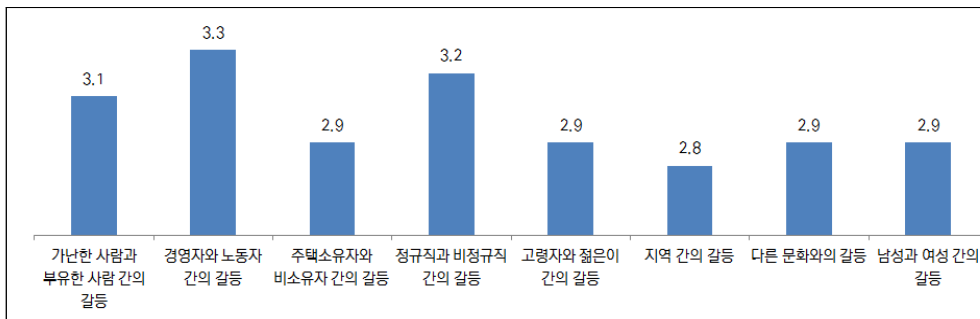
○ 다만, 현재와 5년 전을 3.9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5년 후, 20년 후 각각 4.3점, 4.6점으로 평가하여 우리사회가 점진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집단 간 갈등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보면 경제적 관계에서의 갈등이 다른 사회문화적 갈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3.3점)이 가장 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3.2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간의 갈등’(3.1점) 순으로 나타남.

[요약그림 4-2-2] 집단 간 갈등 점수

(단위: 점)



주: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로 측정된 값을 역코딩하였으며, '⑤선택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 9가지 중 전문가들은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를 현재 뿐 아니라 5년 후, 20년 후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상은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3.8점)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와 ‘미세먼지 등 공해걱정 없는 환경’(3.7점)이 선택됨.
-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로서 5년 전, 현재, 5년 후, 20년 후 시점 기준 모두 ‘일자리’라고 응답함.
 -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함께 ‘자녀교육’, ‘출산과 양육’, ‘노후생활’, ‘환경’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인식하고 있음.
 - 5년 전(2013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자녀교육’, 3순위 ‘노후생활’
 - 현재(2018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출산과 양육’, 3순위 ‘환경’
 - 5년 후(2023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노후생활’, 3순위 ‘환경’
 - 20년 후(2038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노후생활’, 3순위 ‘노후생활’
-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8년 현재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및 고용정책’(49%)을 꼽음.
 - 그러나 20년 후에는 일자리보다 ‘보존복지인구정책(39%)’과 ‘환경정책(22%)’이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됨.
- 지난 5년간 수행된 정책 중 전문가들은 건강보장 영역과 보육·양육 지원 영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정책 성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3.5점)’이며, 그 다음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3.3점)’와 ‘보육, 양육 지원 확대’(3.3점)로 나타남.
- 이어 19개의 정책분야 중 앞으로 정부가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은 결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5.3점)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 평가 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함.

□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로 1순위는 ‘일자리 창출’(34%), 2순위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26%)을 선택함.

○ 통합순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 해소’, ‘주택가격 안정’,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보장의 주요 대상 및 분야별 지원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확대 시 노인(44%)에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에도 저소득층(37%) 다음으로 노인(33%)을 중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우선을 두어야 하는 영역은 55%가 소득보장, 45%가 서비스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49%)’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보험, 치매국가 책임제 등) 건강보장·보건 의료 분야’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보장의 각 분야별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교육 분야: 사교육비 부담 완화(40%)
- 아동 돌봄 분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47%)
- 성인 돌봄 분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32%)
- 안전 보장 분야: 안전사고 예방 강화(29%)
- 권익 보장 분야: 범죄·안전사고 등 피해자 지원 확대(48%)
- 문화 및 여가 분야: 문화기반 시설 확충(34%)
- 환경 분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개선(69%)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46%)

□ 좀 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복지 및 인구, 일자리 및 주거지원, 사회보장재정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 각 정책별 목표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보건의료정책]

- 향후 5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38%)를 1순위로 꼽음.
- 다음으로 보건의료 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39%)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29%)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공공의료체계 확충(34%)
 - 공공의료체계 확충: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44%)

[복지 및 인구정책]

- 복지 및 인구정책 영역에서 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근로능력 저소득층의 자립촉진: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36%)
 - 출산율 제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31%)
 -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 지원 강화: 맞벌이 가구 등 취약아동의 돌봄 강화(32%)
 - 노후 지원: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24%),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24%)
 - 장애인 지원: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38%)
 - 돌봄 대상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59%)
- 한편,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자리 및 주거지원정책]

- 전문가들은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의 75%가 ‘청년’이라고 응답함.
- 일자리 정책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 중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질 개선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가중평균 일자리 창출은 2.7점, 일자리 질 개선은 3.3점).
- 일자리 및 주거지원정책 영역에서 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28%)
 - 일자리의 질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격차 완화(35%)
 - 주거취약계층 지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59%)
- 한편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9가지 속성 중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 속성은 ‘일할 기회의 제공’(69%)이었으며, 다음으로 시급한 속성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59%), ‘산업재해 등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59%)으로 나타남.
- 또한 주거복지 수준 평가를 위한 7가지의 항목에 대한 중요성 평가(중요, 매우 중요)에서는 ‘지불가능성’이 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정성’(80%), 안전성(78%) 순으로 나타남.

[사회보장재정]

-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로 ‘노인’(29%) 분야가 꼽혔으며, 사회복지 혜택과 조세에 대한 선호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함.
- 또한 같은 맥락에서, ‘①성장만이 중요하다’부터 ‘⑩분배만이 중요하다’까지 10점 척도로 성장과 분배 선호도를 물었을 때, 평균 5.7점으로 분배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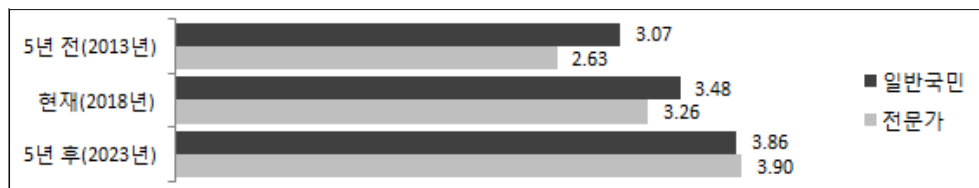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조세인상’(46%),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으로는 ‘자본소득세 인상’(31%)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재정이 우선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지속가능 사회 건설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비교분석

-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5.34/10점)에 비해 일반국민(6.33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와 5년 후 1순위 걱정거리의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현재 걱정거리의 1순위로 일자리를 선택하였음.
 -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선정한 5년 후의 걱정거리 1순위도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임.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5년 전에 비해 현재, 현재에 비해 미래 사회보장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 5년 전과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의 평가가 다소 인색했으나, 5년 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전망은 미세하게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국민에 비해 긍정적임.

[요약그림 4-3-1] 사회보장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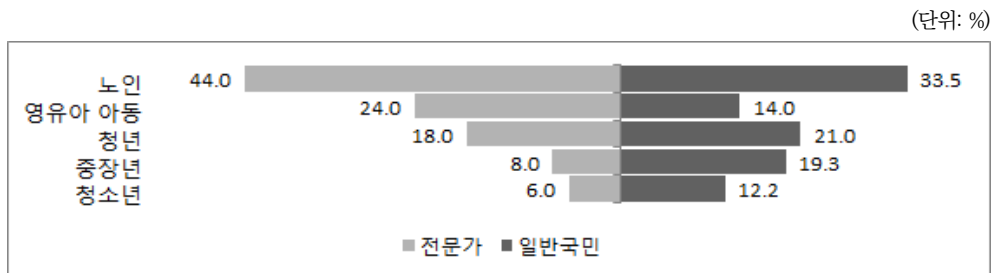


주: '매우 낮다 (1점)' ~ '매우 높다 (6점)'의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보장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그 중점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노인을 선택함.

○ 전문가는 노인을 이어 영유아와 아동, 청년을 사회보장확대 중점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나, 일반국민은 청년과 중장년을 선택한 비중이 높은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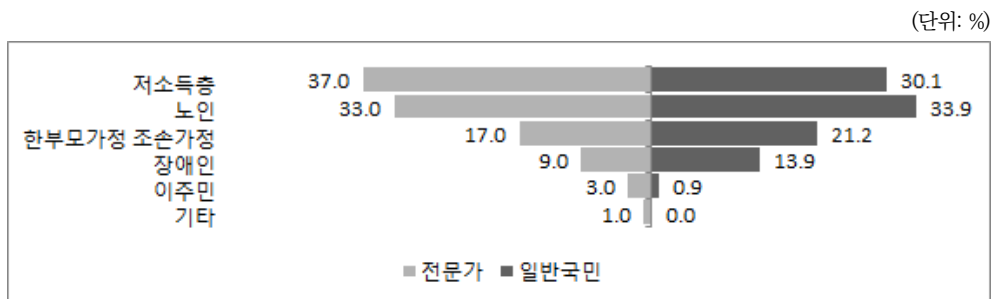
[요약그림 4-3-2] 사회보장확대 중점 대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확대 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취약집단으로 전문가는 저소득층과 노인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은 노인의 비중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요약그림 4-3-3] 사회보장확대 중점 취약계층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더 우선을 두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74.2%가 소득보장을 선호한 반면, 전문가는 55.0%가

소득보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보장 중점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 소득보장 강화가 그 뒤를 이음.
- 서비스보장의 중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43%가 건강보장과 보건의료분야를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은 고용분야를 선택한 비중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선순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임.
 - 그러나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분야와 고용분야를 강조하는 전반적인 경향은 일관됨.

□ 분야별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은 다음과 같음.

- 보건의료분야의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노후지원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과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의 소득보장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중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정책 중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 중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응답률이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주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을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는 국공

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국민은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5.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정책 미래신호 예측

□ 분석자료 및 대상

○ 본 분석에서는 153개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4개의 블로그(네이버, 티스토리, 네이트, 다음), 2개의 카페(네이버, 다음), 1개의 SNS(트위터), 16개의 게시판(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등)의 총 170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음.

- 중복도가 80% 이상일 경우 1개의 문서로 취급

○ 사회보장 관련 토픽의 수집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 7. 1~2018. 6. 30까지 해당 채널에서 요일별, 주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총 776,806건(2017년: 460,090건, 2018년: 316,716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음.

□ 분석결과1: 감성분석 결과

○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영역에 속하는 정책의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가 주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음.

- 긍정 감정이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응급의료, 사회서비스, 자립지원, 요양보험, 의료보장, 의료자원, 올림픽 등의 순임.

○ 긍정 감정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치매, 자살예방, 인공지능, 보건산업, 감염병정책,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건강증진,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4차산업혁명, 보육정책 등

이 2사분면에 속함.

○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경우,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과 정책 설계에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출산율, 아동학대, 기초연금, 복지급여, 사회보장, 부정부패, 출산정책임.

○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정책이 일반국민의 반감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므로(특히, 반대 감정이 더 높은 경우) 정책 설계를 보완 및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건강보험, 미세먼지, 보건의료, Metoo, 우울, 부정수급, 간병, 노인정책, 아동복지, 국민연금, 군복무, 여성혐오, 문재인케어임.

〈요약표 5-1〉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감정 분석과 대응방향

구분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정책 홍보 강화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1/4 분면	2/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주요 키워드	응급의료, 사회서비스, 자립지원, 요양보험, 의료보장, 의료자원, 올림픽, 무상	치매, 자살예방, 인공지능, 보건산업, 감염병정책,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보장, 건강증진,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4차산업혁명, 보육정책	출산율, 아동학대, 기초연금, 복지급여, 사회보장, 부정부패, 출산정책	건강보험, 미세먼지, 보건의료, Metoo, 우울, 부정수급, 간병, 노인정책, 아동복지, 국민연금, 군복무, 여성혐오, 문재인케어

주: 긍정 감정이 높은 순서로 배열한 것임.

□ 분석결과2: 키워드 미래 탐색

○ 이슈의 일반적 흐름은 잠재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낮은 상태)→약신호(빈도는 낮지만 증가율이 높은 상태)→강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빈도는 높지만 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태)로 이행

- 이 중에서 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강신호는 미세먼지, 아동복지,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 등임. 이들 정책 중 반대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 필요

- 현재는 빈도가 낮지만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약신호는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등임. 이중 반대 감정이

높은 문제인케어에 대해서는 정밀한 정책적 검토 필요

〈요약표 5-2〉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구분	잠재신호 (Latent signal)	약신호 (Weak Signal)	강신호 (Strong signal)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3/4 분면	2/4 분면	1/4 분면	4/4 분면
중요도 (KEM)	정신건강, 보건산업, 부정부패, 출산율, 인공지능, 감염병정책, 4차산업혁명, 치매, 자살예방	군복무, 문제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간병, 자립지원, 부정수급, 요양보험, 응급의료, 의료보장, 무상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 의료자원	출산정책,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아동학대, 장애인복지
확산도 (KIM)	정신건강, 보건산업, 출산율, 인공지능, 감염병정책, 4차산업혁명, , 치매, 자살예방, 간병, 자립지원, 요양보험	군복무, 문제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 의료자원, 아동학대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의료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부정부패
주요 신호	정신건강, 보건산업, 출산율, 인공지능, 감염병정책, 4차산업혁명, 치매, 자살예방	군복무, 문제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 분석결과3: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통한 주요 사회보장 정책 예측

- 랜덤포레스트의 중요도(IncNodePurity) 그림(Importance)를 살펴보면 사회보장 수요(찬성, 반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연관성이 높은) 정책은 ‘사회보장’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 그 뒤를 이어 출산정책, 국민연금,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건강증진,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보육정책, 의료보장, 보건의료, 요양보험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분석결과4: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사회보장 정책 수요 예측

- 원 뿌리인 사회보장에 대한 감정 비율을 보면, 사회보장에 대해 찬성은 79.0%,

반대는 21.0%로 나타났음.

- 여기에 사회보장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관련성이 깊은)인 ‘출산정책’이 추가되면, ‘출산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이전의 79.0%에서 63.5%로 감소한 반면, 반대는 이전의 21.0%에서 3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본문 그림 5-11 참조).
- ‘출산정책’이 없는 경우 찬성은 이전의 79.0%에서 80.0%로 증가한 반면, 반대는 이전의 21.0%에서 1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본문 그림 5-11 참조).

□ 분석결과5: 연관분석을 통한 정책요인 예측

- {사회보장, 일자리} → {찬성}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 신뢰도는 0.964, 향상도는 1.22로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사회보장, 일자리’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찬성할 확률이 96.4%이며, 이는 ‘사회보장, 일자리’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찬성할 확률이 약 1.22배 높아지는 것임.
- 연관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가 {찬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복지급여의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 사회보장} → {반대}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 신뢰도는 0.834, 향상도는 3.97로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국민연금, 사회보장’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반대할 확률이 83.4%이며, 이는 ‘국민연금, 사회보장’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반대할 확률이 약 3.97배 높아지는 것임.

□ 분석결과6: 비정형빅 데이터 분석과 인식조사 결과 간의 연계분석

- 전문가 조사결과 가장 우선 추진정책으로 나타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47%)에 정책적 관심과 배려 필요
 - 빅 데이터 분석 결과 아동복지관련 이슈는 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이고

(강신호), 전문가들도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대상 2위(참고 1위 노인)로 나타났다.

- 국민의 소득상승과 함께 삶의 질에 관련되는 건강문제에 정책과 관심 필요
 - 국민들의 현재 걱정거리 2위인 건강문제는 빅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건 의료가 강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이고,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응급의료가 약신호(빈도가 낮지만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 노후 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전문가 및 국민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5년 후 걱정거리 2위가 노후생활인데, 빅데이터 분석결과 국민연금은 강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이고, 감성분석 결과 반대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음(37.0%). 또한 노인정책과 기초연금도 상대적으로 반대 감정이 높은 점도 유의 필요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의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나. 정책제언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고, 소득 및 재산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지출 확대 및 불평등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복지수준이 낮은 것(67%)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분포가 불평등한 것(85%)으로 인식

○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

□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에 대한 치유 없이 복지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후약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의 축소,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등이 필요

○ 아울러 노동시장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으므로 경제정책기조를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에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으로 전환할 필요

□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현재는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인구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현재 가장 우선하여야 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일자리 및 고용정책을 들고 있으며(49%), 5년 후, 20년 후에 가장 우선하여야 하는 정책으로는 보건복지인구정책을 들고 있음(5년 후 31%, 20년 후 39%).

□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은 사회보장 각 영역의 중점 정책으로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확대 정책 필요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보육 및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교육정책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 확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

□ 높은 빈곤율과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필요

○ 일반적으로 연령대별 삶의 만족 수준은 40대가 낮은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확연히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

- 현재의 국민부담률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나는 복지욕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통합 기반 마련 필요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은 근거중심의 정책수립의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매년 체계적인 복지인식조사 및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필요
-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효한 표본수를 확보하고,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기법이 발달하고, 국민들이 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의 활용도가 높아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매년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

*주요용어: 사회보장정책 환경변화, 사회보장 인식,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및 목표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임.

- 상기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사회보장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둘째, 미시적인 측면에서 국민·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시적 측면의 사회보장 수요와 미시적인 측면의 국민·전문가 인식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양자에 대한 동시 분석이 필요

• 또한, 국민·전문가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데이터 분석이 필요. 예를 들면, 정형 데이터 분석과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조사와 전문가 조사 등

- 이러한 거시/미시 분석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뿐만 아니라 2019년 사회보장예산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필요

○ 사회보장 수요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증가

- 사회보장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수요의 증가

- 경제 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분배구조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의 환경변화는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경제 성장률의 하락,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빈곤 및 분배 악화 등이 사회 보장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부양비 증가, 의료 비 증가 등을 유발하여 사회보장 수요를 증가시킴.
-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대체됨으로써 사회보장 수요증가로 이어짐.
- 사회보장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태동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게 됨.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을 위에서 아래로(top-down),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래서 위로(bottom-up) 그 대상을 넓혀왔음. 그 결과 복지수요 또한 증가하였음.
 - 특히, 국민연금 경우 도입 시기(1988)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어 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면, 그 지출은 급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2005년 이후 도입된 보육제도, 장기요양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등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은 수요 증가를 유발하게 됨. 이는 (제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과 유사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도입되지 않은 건강보험에서의 상병수당 등이 도입 된다면, 이에 따른 복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수준과 경제수준 간의 선형적 관계를 발견하기 힘든 저복지 수준 상태였음.

- 이러한 요인에 대하여 이해경(1993)은 “국가복지의 발전을 경제성장에 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구주의적(instrumental)’으로 활용하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이후의 무상급식, 보육제도, 기초연금 등은 그 동안의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지수요는 증가하게 됨.

○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8년에 144.7조 원을 보건·복지·고용에 투입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안)은 전년 대비 7.1% 증가

- 전체 총지출 428.8조 원의 33.7%에 해당

○ 하지만 제도의 미성숙,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복지수요와 공급 간의 조응성 미흡 등으로 국민의 복지 만족도 및 행복도는 높지 않음.

- 해방 이후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은 ‘압축 민주화’, ‘압축 성장’, ‘압축 복지’로 요약될 수 있음.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통을 앓고 있음.
- 사회보장부문의 경우 외형적인 틀을 갖추고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성숙,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복지수요와 공급 간의 조응성 미흡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복지 만족도 및 행복도는 높지 않음.
-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12년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에서는 36개국 중 24위, '12년 이내찬 연구에서는 36개국 중 32위, '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지수에서는 30개국 중 26위로 나타나고 있음.
- '14년 김미곤 등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18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World Values Survey(2010-2014)에 의하면 조사대상 60개국 중 41위 수준임.

○ 복지 만족도 및 국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선순위별로 파악하여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임.

- 국민들의 사회보장욕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함.
- 그러므로 객관적인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보장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함. 이는 근거중심의 정책개발 및 예산배정에 해당됨.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차기년도 사회보장 정책수립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1,000명과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일반국민조사를 통해 전국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적 표본추출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단일 조사만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현시점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다각도로 확인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이러한 배경과 연구의 연속성 하에 추진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보장관련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수요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대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음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가구의 사회보장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차기년도 사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 내용증장기 보건복지관련 환경 분석과 그에 따른 보건복지 욕구 분석

○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 분석

- 경제 환경 변화 분석: 경제는 복지의 물질 토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성장률 전망 등을 주요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인구구조 변화 분석: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분석
- 노동시장 변화 분석: 1차 노동시장의 고른 분배가 2차 복지정책의 재분배를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비정규직 비율 등을 통계청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빈곤 및 분배구조 변화 분석: 분배구조의 악화는 직접적인 공공부조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중산층 축소 등과 관련되므로 빈곤율(상대적 빈곤율),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등을 분석
- 복지지출 및 국가부채 변화 분석: 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복지지출 추이 및 국가부채 변화 등을 정리

○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분석

- 경제 환경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노동시장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분배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복지제도 성숙이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기술의 발전이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연구 검토

- 보건복지 국민의식 및 수요관련 국외 문헌(세계가치관조사, 국제사회조사 등) 분석

- 동 연구의 선행 연구 성격을 지닌 신영석 외(2010), 최성은 외(201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5) 등의 연구의 주요 함의 분석
-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사회인식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사회보장인식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평가 분석
 - 미래전망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평가 분석
- 비정형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미래 수요 예측
 - 2017년 7월~2018년 6월 동안 총 170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 776,806건을 이용하여 보건복지에 대한 감성분석 등 실시
-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건의

2. 연구방법

- 사회보장 관련 환경변화 및 복지수요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일반국민조사 분석
 -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원 면접조사
 - (조사기간) 2018.7.7.~8.24.
 - (모집단) 2018년 6월 기준 주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
 - (표본추출) 2018년 6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취업여부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성인 남녀 1,000명 다단계 층화추출법
 - 단,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의 인구는 2018년 6월 기준 225,399명으로

비중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여 성별 연령별 취업여부별 표본 할당이 불가능하므로, 충청남도 표본에 포괄하여 조사를 실시함.

- (신뢰수준) $95\% \pm 3.1\%p$
- (조사기관) ㈜능률협회컨설팅

□ 전문가조사 분석

-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자기응답식 웹메일조사
- (조사기간) 2018.7.18.~8.16.
- (표본추출) 사회보장·경상 분야별 사회정책 전문가 풀을 이용한 100명 임의표집
- (조사기관) ㈜능률협회컨설팅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 (자료수집방법) 온라인 채널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크롤러, Crawler) 이용
- (자료수집기간) 2017년 7월~2018년 6월
- (자료수집기관) ㈜에스케이텔레콤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1. 기대효과

-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 배정에 활용함으로써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 구현에 기여
 - 욕구 및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시행은 근거 중심 정책의 첫 단추
 -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의 구현이 가능
-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파악 및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에 기여
 -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여건 변화, 노동시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분배상태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이 중장기 보건복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가구의 사회보장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차기 년도 사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국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공감대 형성

2.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인 사회보장 인식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전문가 조사는 델파이 조사이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약함. 따라서 전문가 조사의 경우 선행 연구와의 연도별 비교는 의미가 없음.
 - 일반국민 조사의 경우 선행연구(2010, 2011, 2012)는 유선 전화조사이었으나, 2014~2016년의 조사는 무선 전화조사로 수행하였고, 금번 2018년 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에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편외에도 신뢰수준이 $95\% \pm 3.1\%$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인식조사의 경우 조사 직전의 사회경제적인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 조사항목의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조사의 경우 온라인 채널에 의견(흔적)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대한 인식분석이므로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제 2 장

사회보장 관련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제1절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

제2절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2

사회보장 관련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

□ 본 장에서는 제4장에서 살펴볼 일반국민과 보건복지정책 전문가에 대한 미시적 복지수요를 검토하기 전에 거시적 측면의 보건복지관련 환경을 검토하여 미래 복지수요 흐름을 파악해보고자 함. 이를 위하여 제1절에서는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제1절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

1.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의 후퇴

가. ‘거대한 후퇴’의 양상

□ 복지국가는 평등주의 학자 코헨(Cohen, 1978)이 주장한 ‘실질적 자유(effective liberty)’를 찾고자 하는 인류의 거대한 사회실험임.

○ 우리는 지배원리가 다른 ‘민주주의+자본주의’라는 결합체 속에 살고 있음.

- 평등을 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1인 1표)와 효율을 우선 가치로 하는 자본주의(1주 1표) 간에는 필연적으로 가치 충돌이 발생함.

- 복지국가는 이러한 가치 충돌을 완화하는 기제 중의 하나임. 비스마르크(Bismarck) 이후 공산주의와의 체제경쟁이 복지국가 발생의 외적요인이라면, ‘가치 충돌 완화’는 복지국가 발생의 내적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제2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채택한 사회실험인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실질적 자유(effective liberty)’ 증진에 기여를 하였음.

□ 하지만,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실험이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등 (2017)의 책이름처럼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상태에 직면하고 있음.

○ 『거대한 후퇴』의 핵심 주장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요약됨.

-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치로 이행되고 있음.
 - 권위주의 정치로의 이행에 대하여 『거대한 후퇴』의 공동저자인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시장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한 포퓰리즘 정권들이 경제 주권의 쟁점을 문화 주권으로 치환하여 통치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주민 혐오, 민족주의국가, 문화적 다수결주의, 인종차별주의 등
-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국가 간 무한경쟁 → 승자와 패자 → 양극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해로 이어지고 있음.
 - 세계적인 양극화의 양상은 [그림 2-1]이 잘 보여주고 있으며,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지속성 저하는 [그림 2-10]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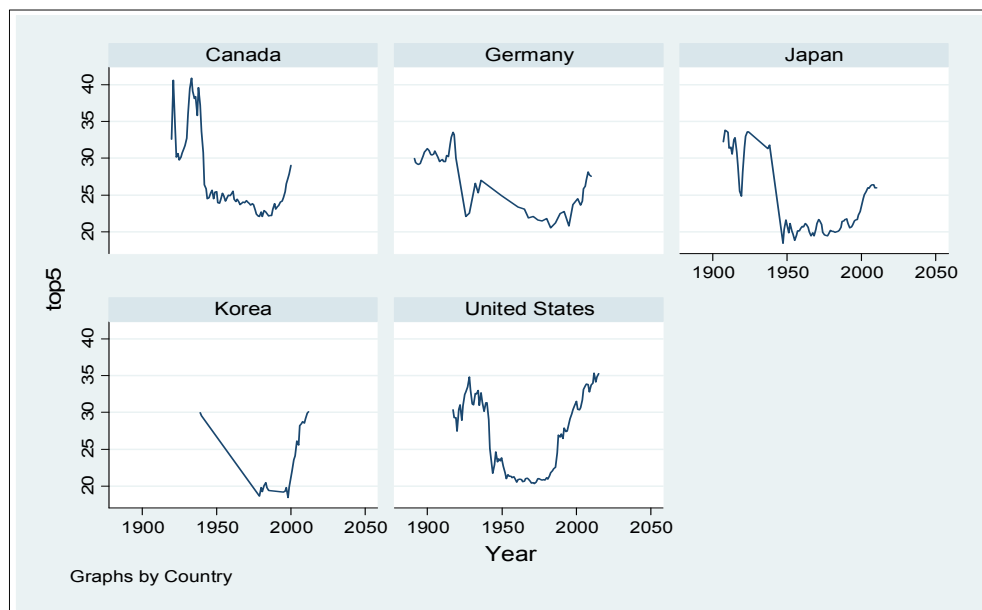
□ ‘거대한 후퇴’의 징후는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황금기(golden age) 동안에는 대부분 국가들의 불평등 수준은 매우 낮았음.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으나,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 높은 율의 조세체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등이 주요 요인이었음.
-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곤 및 불평등을 악화시킴. 승자독식, 국경 없는 무한 경쟁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는 승자와 패자간의 불평등과 패자의 빈곤화로 이어졌기 때문임.
-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지성인에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음.
 - 자본의 속성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신자유주의가 지닌 모순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대안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음
 - 신자유주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시장 소득기준의 빈곤 및 불평등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등이 분석한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황금시대(golden age) 시기에는 그 점유율이 매우 낮고, 1970년 후반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경우 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은 대공황시기보다 더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 농지개혁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IMF 경제위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원자료: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www.wid.world/#Database)에서 2016.7.12. 출력)

나. 예상되는 파장

□ 민주주의 후퇴는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를 약화시킴

○ 『거대한 후퇴』 저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후퇴하여, 포퓰리즘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치로 이행되면 경제주권의 약화, 사회정책의 후퇴로 이어

질 수 있음.

□ 한편, 신자유주의 득세의 결과인 양극화(불평등의 증가)는 건강사회문제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약화시킴.

- 불평등의 증가는 출산율 저하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그림 2-10 참조), 자살, 이혼 등의 각종 사회 병리현상을 초래함(Wilkinson & Pickett, 2011)
 - Wilkinson & Pickett(2011)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이 높은 미국의 경우 건강 사회 문제가 많고, 불평등 수준이 낮은 일본 및 북유럽국가의 경우 문제가 적음.

[그림 2-2]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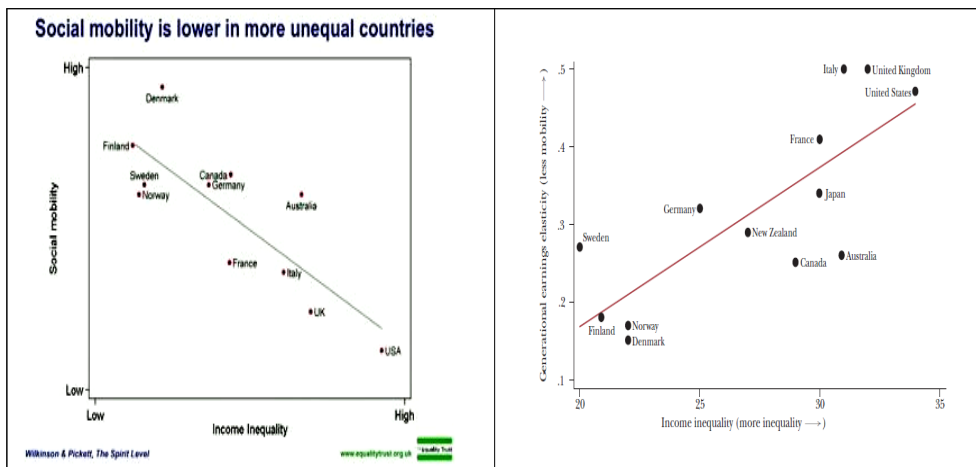
자료: Wilkinson & Pickett. (2011). p. 20.

- 또한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Wilkinson & Pickett(2011), Corak(2013))
 -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이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Wilkinson & Pickett(2011)의 연구 결과는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이태리, 영국, 미국)일

수록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음(그림 2-3 왼쪽 그림).

- 아래 오른쪽 그림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미국, 이탈리아)일수록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크고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스웨덴, 핀란드 등)일수록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낮은 것을 보여 주고 있음(Corak, 2013)

[그림 2-3]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자료: Wilkinson & Pikett(2011)

자료: Corak(2013) and OECD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 변화 양상

□ 초저출산 기조의 지속

- 저출산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급감하는 동시에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율이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은 약 1.0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초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3년('03~'05), 독일의 경우 4년('92~'95) 등 우리보다 단기간 지속되었음.

〈표 2-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구분	1960(A)	2010(B)	B-A	증감률(%)
프랑스	2.74	1.99	-0.75	-27.4
독일	2.37	1.39	-0.98	-41.4
일본	2.00	1.39	-0.61	-30.5
한국	6.00	1.23	-4.77	-79.6
스웨덴	2.20	1.98	-0.22	-10.0
영국	2.72	1.98	-0.74	-27.2
미국	3.65	1.93	-1.72	-47.1
OECD-30	3.23	1.70	-1.53	-47.3

자료: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social/soc/oecdfamilydatabase.htm)

○ 2013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7명이나, 우리나라는 평균에 비해 약 0.5명 낮은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만혼화(晩婚化)와 초산 연령의 노령화, 높은 양육비용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 기대수명의 상승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1세, 1990년 71.3세, 2013년 81.9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기대수명이 80세에 도달한 나라가 되었음.

○ 2017년 WHO 발표자료에 의하면 203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그림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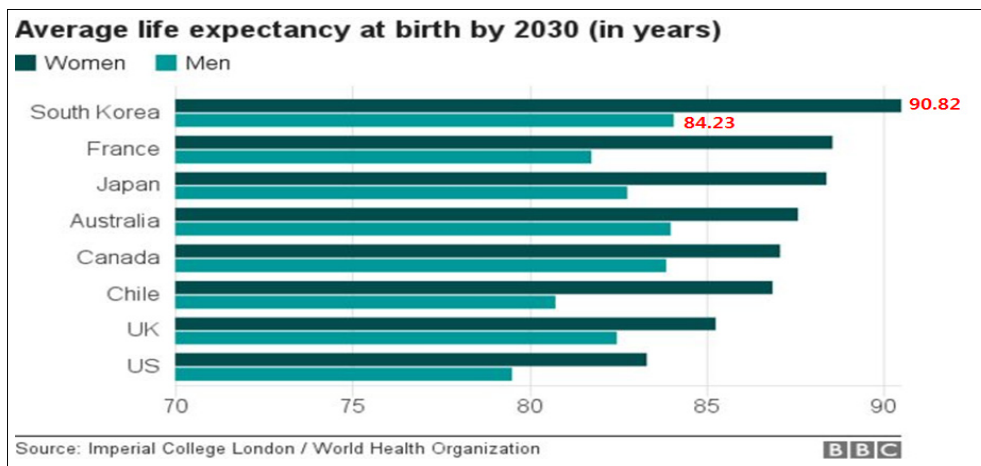
- 2030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여 90.82세, 남 84.23명. 평균기대 수명 90세 장벽을 최초로 돌파한 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됨.

○ 기대수명의 증가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 부분이나,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는 노인에게 대한 소득보장과 건강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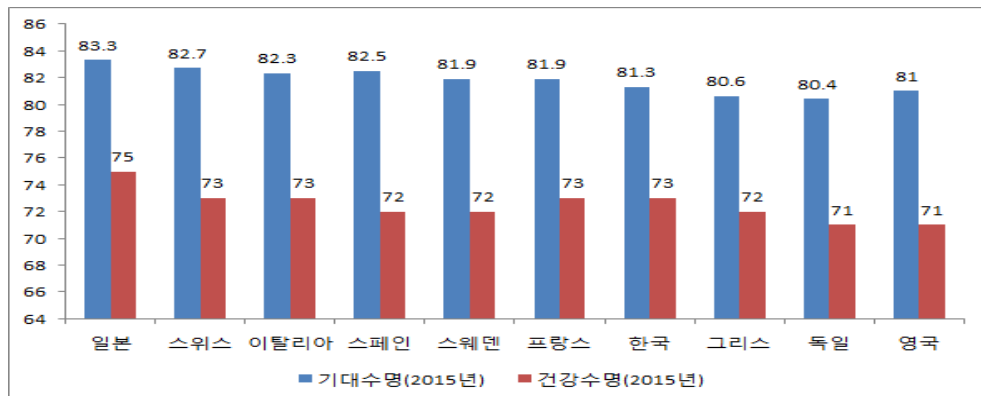
-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에 7년 내 외의 차이가 남
-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나 의료보장을 넘어 케어(care)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요구됨.

[그림 2-4] 2030년 주요 국가 기대수명



자료: Kontis, V., et al.(2017); BBC News(2017.2.22.) Life expectancy to break 90 barrier by 2030.

[그림 2-5]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자료: e-나라 지표(2017.8.8. 출력)

2. 인구구조 변화 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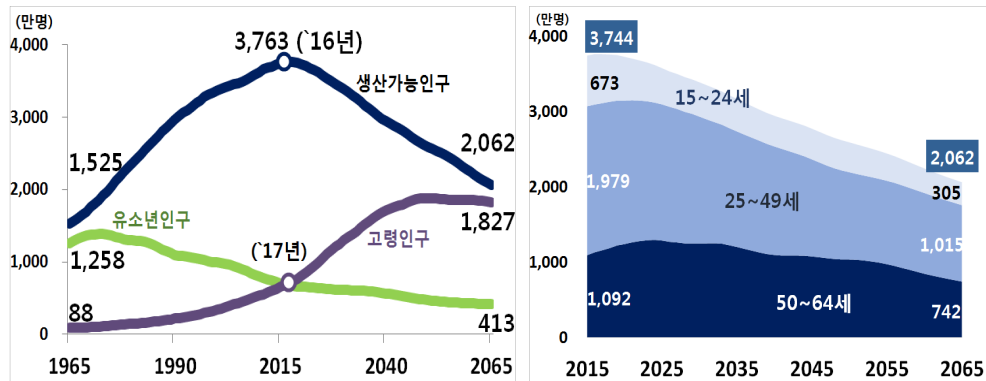
□ 인구고령화

-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초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1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1.0%(2015년 추계치는 13.2%)로 멕시코(5.9%), 터키(6.3%)에 이어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임(OECD 평균 14.8%)
 - 그러나 2017년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대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됨.
 - 또,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OECD 평균 25.8%)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초저출산으로 총인구는 2030년 52,160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는 43,959천 명으로 감소될 전망
- 2012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3.1%로 정점(생산가능 인구수는 2016년에 3,70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 진입하는 등 인구고령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삼식, 보사연 내부 발표자료)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는 2022년에 2,719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 핵심노동인구(24~46세)는 이미 2008년 2,075만 명을 정점에서 감소하고 있음.

[그림 2-6]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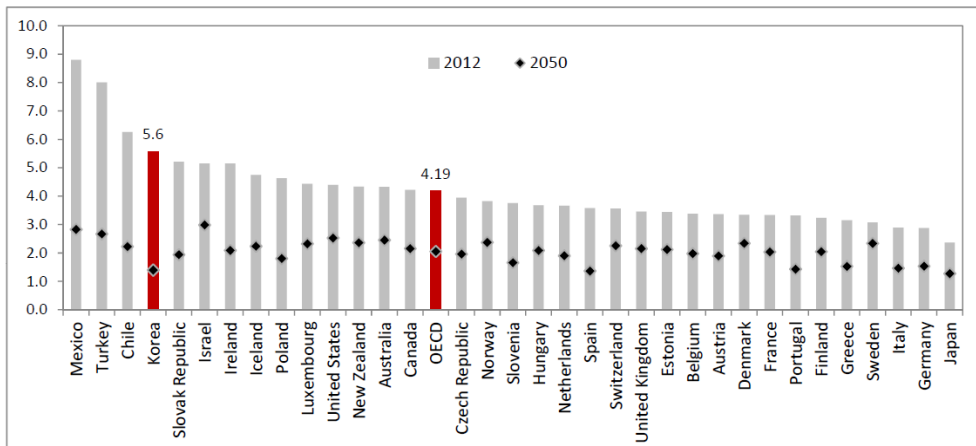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 노인부양비의 급등

-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부양비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기준으로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5.6명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젊은 국가에 속하지만, 2050년이 되면 1.4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그림 2-7 참조)

[그림 2-7]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자료: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 OECD publishing, p.95

□ 1인가구의 급증과 빈곤화

-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최빈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가, 그리고 2015년에는 1인가구가 최빈가구로 등장

〈표 2-2〉 1980~2015년 가구규모 추이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1인 가구	4.8	9.0	15.5	20.0	23.9	27.2
2인 가구	10.5	13.8	19.1	22.2	24.3	26.1
3인 가구	14.5	19.1	20.9	20.9	21.3	21.5
4인 가구	20.3	29.5	31.1	27.0	22.5	18.8
5인 가구	20.0	18.8	10.1	7.7	6.2	4.9
6인 가구	14.7	5.9	2.4	1.7	1.4	1.1
7인 가구 이상	15.2	3.9	0.9	0.6	0.5	0.3

자료: KOSIS(각년도) 인구총조사(2016.11.29. 출력)

○ 상대적으로 높은 1인가구의 빈곤율

- 2014년 1인가구의 절대빈곤율(경상소득기준, 전가구)은 30.9%, 상대빈곤율(중위 50% 가처분소득 기준)은 47.6% 수준임(정은희, 이주미, 2015, pp. 101~103)
- 동년도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경상소득기준, 전가구)이 7.7%, 상대빈곤율(중위 50%가처분소득 기준)이 13.3% 수준임(정은희, 이주미, 2015, pp. 101~103)을 감안하면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연도별 1인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6년 절대빈곤율(경상소득기준, 전가구)이 21.3%, 상대빈곤율(중위 50%가처분소득 기준)이 40.6% 수준이었던(정은희, 이주미, 2015, pp. 101~103) 점을 감안하면 연도가 지남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1인가구의 빈곤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2016년 기준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시행과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2046년에는 현재 대비 40%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될 것으로 전망(고제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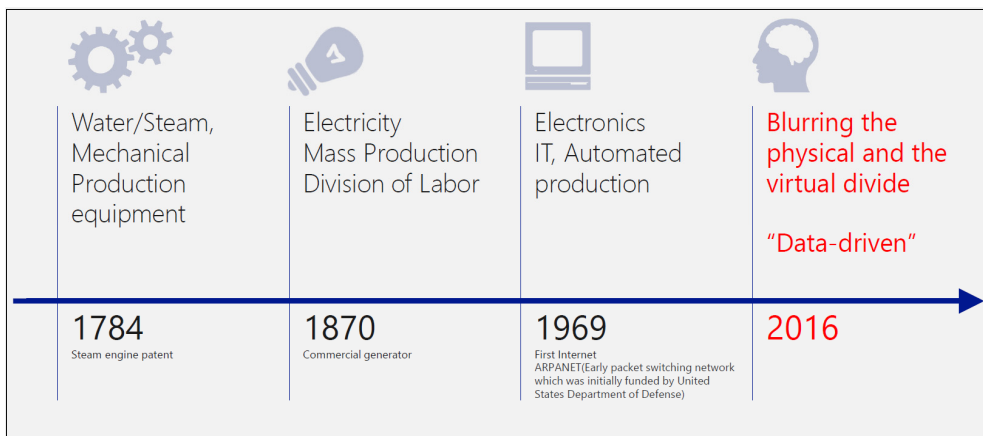
3. 4차 산업혁명

가. 4차 산업혁명이란

□ 4차 산업혁명(Schwab, 2016)의 정의

-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 데이터 교류 및 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이버-물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인터넷 서비스들을 함께 포괄하는 ‘기술과 가치 사슬(Value- Chain) 개념에 대한 총칭’(Hermann, Pentek, & Otto, 2016)
-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람인터넷(IoP: Internet of People)을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에 대한 해석(Deep Learning)을 토대로 적절한 판단과 자율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초지능적인 제품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성을 제고(하원규, 2015)
 -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기계적 생산설비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증가
 -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발명하면서 노동분업을 통해 대량생산
 - 3차 산업혁명은 IT와 전자기술을 통해 자동생산

[그림 2-8] 시기별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



자료: 최윤석. (2016).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에 따른 전략.

□ 4차 산업혁명의 특징

- 기존의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 to scale)이 작동되지 않고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의 상황 도래
- 거의 0에 가까운 한계 비용(Marginal cost): 기술의 발달 및 융합으로 추가생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거의 없음 -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

나.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

-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란 일반인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즉 소비자 중심 의료를 말함.
-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기기의 발전가능성은 의료접근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미국) 예약에 시간이 소요되고 고비용이 소요됨 → 따라서 미국은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를 이용하여 1차 진료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음(예시: 예약 연결 앱, 왕진 연결 앱 등)
 - (우리나라) 접근성이 뛰어나서 기기에 대한 효용의 한계가 있음 → 병원에 가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판단이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수요 존재 (예시: “열나요 앱” 등). 따라서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의사와 상담하기에 민망한 문제의 경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여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서 이러한 종류의 의료욕구에 대한 이용 빈도가 높음.
- 디지털 헬스 케어 서비스의 구현 3단계: 데이터 확보(Big Data), 데이터의 통합 및 분석(Artificial Intelligence), 예측 및 새로운 가치 창출(사람)

[그림 2-9]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현 3단계



주: 이연희, (2016). “보건복지 분야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현황과 과제” 중 <그림 2.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현 3단계>.

자료: http://www.yoonsupchoi.com/2015/06/03/apple_healthcare_ecology에서 2016. 3. 23. 출력.

□ 데이터 확보

-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패여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
- 핵심 데이터: 의료정보, 유전체 정보, 모바일 정보(이재훈, 2017)
 - (의료정보)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HR)이 도입되었으나 청구용이고 표준화되지 않아 정보교환이 쉽지 않음.
 - (유전체 정보) 유전체는 생식세포를 기준으로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음.
 - (모바일 데이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Fitbit, S-Health가 대표적

□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와 빅데이터(Big data)

-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하여 잠재력(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질병 예방, 보건의료 미래 수요 예측 등)을 발휘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중요한 자원임.

-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미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데이터의 효율적 이용 수단: 플랫폼

-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 내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창출
- (플랫폼의 핵심) 네트워크 효과 (참여자가 많을수록 가치 상승. 예시: VHS vs Beta)
- (플랫폼의 활용 예) Validic은 소비자들의 데이터와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결
 - Kaiser permante(의료기관), Cerner(의무기록회사) John Hancock(웰니스 운영 보험회사), 정밀의료 프로그램, 제약회사 임상시험 등과 연결

□ 인공지능

- 인공지능의 활용
 - 딥러닝을 통한 정확도 향상. 전자의무기록(EHR), 유전체 정보 등 복합적인 의료 데이터로 환자를 진단하고, 최적화된 치료법으로 수술, 치료 등을 수행
 - 방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특정 종류의 의료데이터를 해석하고 판독: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부작용이나 약리기전을 예측·분석하고, 최적화된 임상 시험 도출
 - 심전도, 혈압, 혈당 등 생체 데이터를 개인별 유전자 정보와 통합하여 정밀 의료 및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스마트 의료 제공
 - 보건의료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거나 예측
 - 그러나 전자의무기록(EHR) 시스템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치료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
 - 단일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수월하게 적용가능: 의료영상분석

- 영상분야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기존 진단시스템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 활용 사례

- Watson: 의료교과서, 저널 등을 습득 및 학습하고 의무기록, 검사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항암치료 방법 제시
 - 3년간 수천 명의 환자 케이스, 500종류의 저널, 120억 페이지의 의학 논문 및 연구결과를 학습
 - 현재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치료안 제시(미국, 중국, 인도, 태국, 일본, 유럽, 한국 등 50여개 암센터에서 활용)
- DeepMind: 암방사선 치료 시 암조직에 집중
- 루닛: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정확하게 결핵을 진단하는 알고리즘 개발
- 뷰노: 손 엑스레이를 통해 성장판 검사에 활용
- 삼성메디슨: 초음파 기기에 딥러닝을 활용한 진단 알고리즘 탑재 → 한 번 클릭으로 유방병변의 악성 양성 여부 판단

○ 인공지능을 의료에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 시간 절약 등 업무 효율성 증진: ex) 영상판독
- 의료의 질제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을 알려줘 치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기존의학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 발견: 저혈당 발생 예측(Watson과 Medtronic) - 혈당 데이터를 분석해 3시간 전에 저혈당 예측

○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

- 법, 제도, 사회적 인식 장벽 해결 필요
 - 인공지능 의료과실은 누가 책임?
- 인공지능이 내놓은 치료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국 인간 의사의 몫: 의사의 역할이 인공지능에 의해 바뀌거나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질 수 있음. 결국 의사수요는 감소할 것

- 인공지능이 보편화 → 환자 스스로 증상을 검색해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병원방문을 자제할 것임 → 병원과 상관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 의사의 역할 변화: 예방중심으로, 환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코치의 역할
- 따라서 의료진은 만성질환자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환자와의 소통 능력,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운동 영양 등 전문지식이 필요함 → 교육체계 재검토

□ 정밀 의료(Precision Medicine)

○ 정밀 의료란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개인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칭함.

○ 추진방법

-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 암유전체 발굴 및 확대
- 맞춤형 암치료법 및 예방법 개발
- 연구자료 공유를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 구축
- 정보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 정밀의료의 핵심

- 다양한 방식으로 임상연구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대규모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하는 것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IT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 중국에 비해 코호트 규모, 범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작은 조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질병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다. 4차 산업혁명과 복지제도

□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종말

○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임.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도 함. 문제는 기술 발전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숫자보다 감소되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점임.

- 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에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음(정원호, 2016)

• 즉, WEF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약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약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96)은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예견하였고, 미테랑 정부의 장관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기계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음.

○ 더 나아가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라는 저서에서 2045년경에 인공지능(AI)이 인간지능(HI)을 앞서는 특이점이 나타난다고 주장

- 만약 인공지능(AI)이 인간지능(HI)을 앞서게 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기계에 의하여 대체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노동(labour)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복지제도, 특히 사회보험 제도는 그 생명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 4차 산업혁명과 복지제도의 한계

○ 1,2차 산업혁명은 삶의 질제고, 노동권 착취, 제국주의 등장, 1,2차 세계대전, 소득격차로 인한 공산주의 등장, 복지제도 발전 등의 명암을 제공

- 오늘날의 복지제도(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작동 원리 간의 모

순을 보완하는 기제)는 제2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부분적으로 치유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한계가 부각되고 있음.

○ 3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글로벌 아웃소싱, 금융자본주의 심화,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증가,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 고용불안 야기 등의 부작용 노정

-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심화되면, 모순을 완화하는 기제(복지 등)가 강화되어야 하나, 신자유주의와 제3차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연명치료제인 복지의 역할은 오히려 감소. 이는 완전고용, 남성생계부양자(one bread earner) 등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에도 기인

○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연결이 확대되어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어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²⁾하고 있음.

- 3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간의 부정합성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들이(예: 출산 크레딧 등)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한계를 노정한 상태임.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양자 간의 부정합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걸맞은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마치 여름옷을 겨울에 입을 수 없듯이 2차 산업혁명(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어난 근대적 복지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겨울)을 맞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

2) 특이점(singularity) 이후 먼 미래 언젠가는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AI)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음. 어쩌면 현재의 홀로세(Holocene)에서 인간세(Anthropocene)로, 그리고 인공지능세로 지질학적 인대기가 정리될 수도 있음.

〈표 2-3〉 1~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구분	시기 (주도국가)	생산기술의 변화	주요 사회 변화
농업혁명	B.C. 8,000년	경작을 위한 농기구 사용, 가축 사육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 전환 -잉여생산물로 인한 계급사회와 중앙집권체제(왕국) 출현
1차 산업혁명 (제조업혁명)	1784년~ 19세기 (영국)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기계에 의한 생산방식	-초기 산업사회 진입에 따라 임금근로자 출현과 노동조합의 등장 -노동권 보호제도와 사회보험제도 탄생 -생산성 및 소득 향상, 인구 증가 -인구 이동과 도시화
2차 산업혁명 (제조업혁명)	1870년~ 20세기 중반 (미국)	전력과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생산	-노동의 분업화, 제품의 규격화에 의한 대량생산체제 등장과 대량소비시대 개막 -노동권 보호제도의 강화, 자본주의 발달, 중산층 증가, 양극화 -공산주의, 나찌즘, 파시즘, 제국주의 등장과 1,2차 세계대전 -수정자본주의의 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복지국가의 등장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1969년~ 21세기 초반 (미국)	디지털 기술,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전자통신기기, 자동화	-정보저장·처리능력의 획기적 향상, 전자상거래 도입·확산 -생산공정의 자동화 -탈산업화, 서비스 경제화, 지식기반경제 -글로벌화,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청년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중산층 감소, 양극화 심화, 복지국가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혁명)	2015년~ (미국, 독일)	인공지능(AI),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로봇공학, 유전공학, 3D 프린터, 증강현실기술 등의 대융합	-자동화, 무인화의 가속화와 공장/제품의 지능화 -제조업과 ICBM의 융합으로 맞춤형 생산서비스 활성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초지능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유연성 확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의 가속화, 고용의 질 저하, 대량실업과 빈곤의 장기화로 복지국가 위기 심화 우려

자료: 유길상, (2016).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워크샵 발표 자료집

4.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었음.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세계 11위 내외(1인당 GDP는 29위) 수준인 반면에 2017년 기준 삶의 만족도(행복수준)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58위,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32위(UN, 2018 세계행복보고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이러한 경제수준과 행복수준 간의 불일치는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에 이르

고 나면 행복수준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과 맥을 같이 함.

- 이는 또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외에 다른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

〈표 2-4〉 2007-2017년 주요국의 행복 수준

국가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핀란드			7.354 (8)	7.445 (5)	7.448 (5)	7.788 (1)
덴마크	7.834 (1)	7.683 (1)	7.788 (1)	7.589 (2)	7.514 (3)	7.594 (2)
노르웨이					7.603 (1)	7.579 (3)
아이슬란드				7.501 (3)	7.498 (4)	7.476 (4)
스위스		7.525 (3)			7.572 (2)	7.474 (5)
스웨덴	7.241 (9)	7.266 (6)	7.382 (7)	7.434 (7)	7.289 (10)	7.287 (10)
룩셈부르크		6.958 (13)	7.101 (15)	7.131 (15)	6.702 (18)	7.061 (15)
체코	6.500 (19)		6.331 (37)	6.698 (22)	6.608 (23)	6.790 (20)
우즈베키스탄		5.261 (60)	5.739 (53)	5.940 (46)	5.972 (46)	6.421 (25)
엘살바도르	5.296 (48)	6.839 (16)	4.741 (108)	6.325 (35)	6.018 (41)	6.339 (30)
사우디아라비아	7.267 (8)	6.148 (31)	6.700 (24)	6.495 (30)	6.345 (35)	6.294 (35)
이탈리아	6.574 (17)	6.334 (25)	6.057 (41)	6.009 (41)	5.848 (52)	6.199 (40)
코소보	5.104 (56)	5.891 (38)	4.860 (98)	6.126 (39)	5.077 (85)	6.149 (45)
아르헨티나	6.073 (27)	6.424 (23)	6.776 (23)	6.582 (27)	6.697 (19)	6.039 (50)
일본	6.238 (25)	5.845 (39)	6.263 (39)	5.959 (44)	5.880 (51)	5.911 (55)
자마йка			5.374 (68)	5.709 (58)		5.890 (56)
카자흐스탄	5.719 (34)	5.383 (56)	5.736 (54)	5.835 (51)	5.950 (48)	5.882 (57)
대한민국	5.767 (33)	5.648 (43)	6.947 (19)	5.959 (45)	5.780 (56)	5.874 (58)
에콰도르	4.996 (62)	6.022 (36)	5.795 (46)	6.019 (40)	5.964 (47)	5.840 (59)
파키스탄	5.671 (37)	5.208 (64)	5.267 (72)	5.138 (77)	4.823 (99)	5.831 (60)

주: 공란은 응답값이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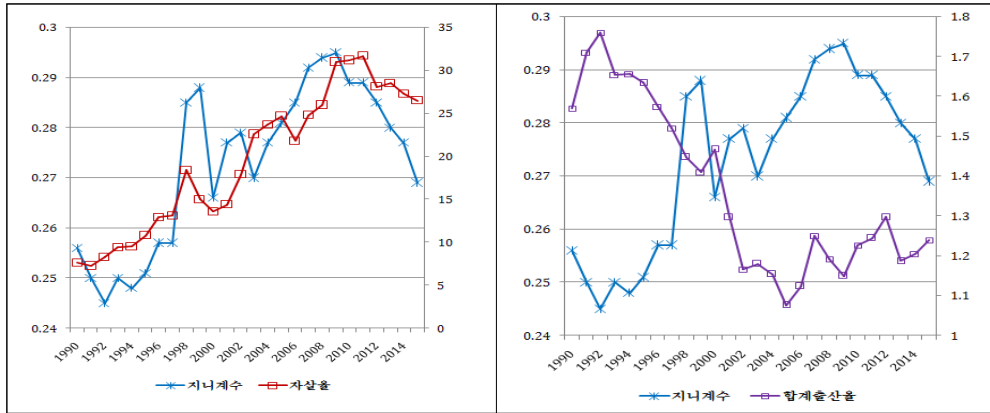
원자료: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2018). World Happiness Report 2018. Online Data.

□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자살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 불평등도(지니계수)와 자살률은 매우 유사한 패턴(상관관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니계수와 출산율은 역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도를 낮추고, 아울러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장기간 동안인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국임. 그리고 자살률은 OECD 1위임.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징조 중 하나임.

[그림 2-10] 지니계수·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자료: 여유진, (2017).

5. 성장 동력 약화

□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2014)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대에
서 2030년 후반에는 1%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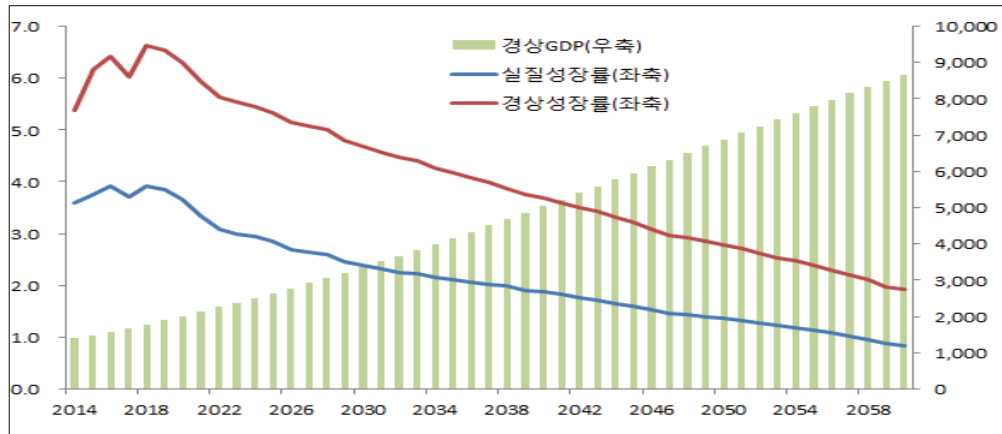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개인 차원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일차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

○ 수출주도와 부채주도성장의 함정

- 수출주도 부채주도 성장의 함정: 가계소득 위축 → 소비지출 둔화 → 투자부진 → 내수위축

[그림 2-11]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단위: 조 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2060년 장기 전망』, p.13.

□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증가는 잠재성장률 저하와 함께 가까운 미래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부상

○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민간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평가됨(국회예산정책처, 2015, pp. 9~10).

- 2016년 3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민간 사채 등을 제외하고도 1,290조 원을 넘어섬. 2016년 말에는 약 1,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소득 하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비율은 2012년 45.3%에서 2014년 68.7%로 23.4%p 증가,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22.3%에서 26.9%로 4.6%p 증가하여 가계의 원리금상환능력이 악화되었으며 가계부실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채무(D1)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0년 111.2조원(GDP대비 17.5%)에서 2018년에는 708.2조원(GDP대비 39.5%)까지 증가하였으며,

- 추계치가 밝혀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표 2-5〉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 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채무	111.2	247.9	392.2	591.5	626.9	660.2	708.2	749.1	793.0	835.2
(GDP대비, %)	(17.5)	(27.0)	(31.0)	(37.8)	(38.3)	(38.2)	(39.5)	(39.9)	(40.3)	(40.4)
중앙정부	100.9	238.8	373.8	556.5	591.9	627.4	675.1	716.8	762.1	802.4
지방정부 순채무	10.2	9.2	18.4	34.9	35.0	32.8	33.1	32.3	30.9	30.1
적자성 채무	42.0	100.8	193.3	330.8	359.9	374.8	411.6	441.2	475.3	513.8
금융성 채무	69.1	147.1	199.0	260.6	267.0	285.4	296.6	307.9	317.7	3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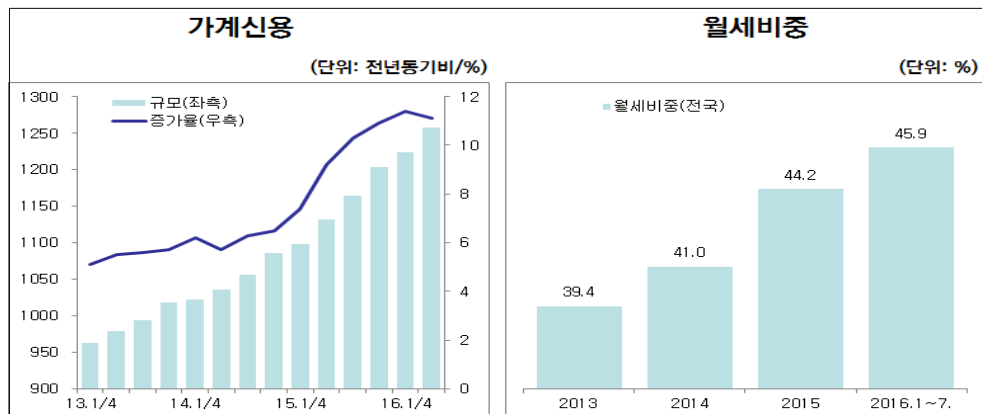
주: 2018년은 본예산 기준이고, 2019년 이후는 「17~21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의한 전망임.
 자료: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106)에서 2018.10.05. 인출)

□ 전세가격 급등/ 월세전환율 증가

○ 전세가격 급등과 월세전환율 증가로 인해 소비성향이 높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

- 2016년 7월 기준 월세비중은 약 46%에 이르고 있으며, 낮은 이자율, 집값의 상대적 안정세,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월세로의 전환가구의 경우 주거비부담 증가로 소비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2] 가계신용과 월세비중



6.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이중구조

-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읽는 열쇠 말은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원청/하청 등), 높은 자영업자 비율,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등임.
- 가장 대표적인 이중구조 중의 하나인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절반 수준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의 낮은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는 현재의 차별이 노후의 차별로 이어지는 이중 차별의 문제 발생

〈표 2-6〉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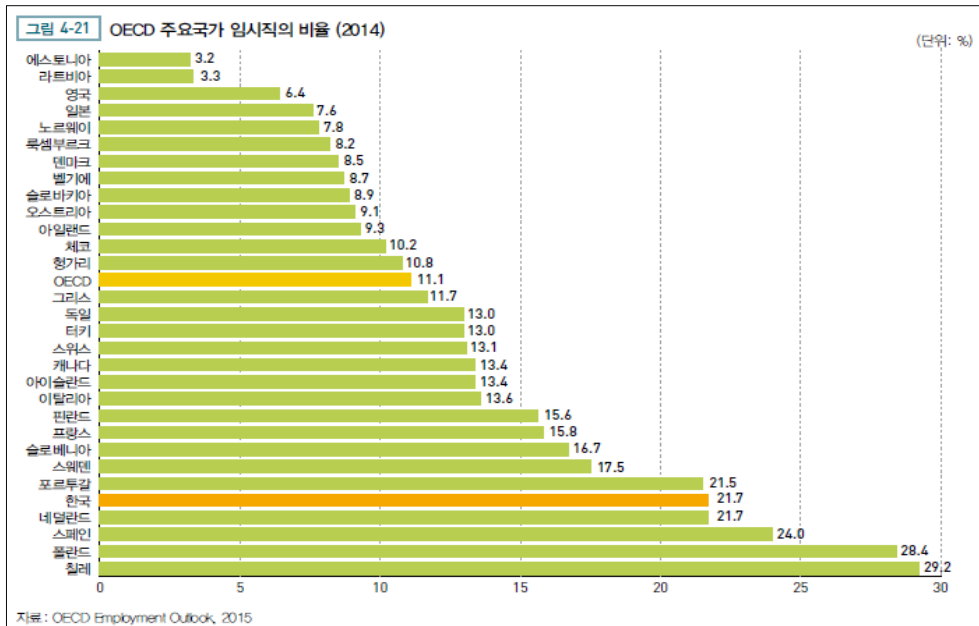
근로형태별	2015. 08			2016. 08			2017. 08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67.5	71.6	68.7	67.7	72.6	69.7	69.1	74.2	71.2
정규직	82.1	84.8	82.4	83.0	86.2	84.2	85.0	88.4	85.9
비정규직	37.0	43.9	42.6	36.4	44.9	42.9	36.6	45.3	44.1
한시적	54.6	64.2	60.6	53.3	65.2	61.1	52.4	64.8	61.5
기간제	58.5	69.6	64.8	55.6	69.2	64.0	53.2	67.3	62.5
비기간제	40.4	44.6	45.4	44.4	49.3	49.6	49.7	55.3	57.9
시간제	13.4	17.6	19.0	15.4	19.4	21.1	17.3	21.8	23.1
비전형	21.0	30.9	29.0	19.9	32.4	29.2	20.4	33.3	3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www.kosis.kr, 2018.10.5. 출력.)

□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저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미국 24.9%, 한국 23.7%로 나타나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음(e-나라지표, 2016)

[그림 2-13] OECD 주요국가 임시직의 비율(201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p.287.

□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낮은 사회이동 가능성

○ (고용률) 30대, 60세 이상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20대, 40대 등에서 하락하였음(통계청).

- 성별로 보면 남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3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음.

○ (실업자) 20대, 30대, 50대, 60세 이상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만 6천명 증가(통계청)

- (실업률) 20대, 30대, 5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표 2-7〉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분	2017. 5			2018. 5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 전 체 〉	43,902	26,992	61.5	44,141	27,064	61.3	238	72	-0.2p
15~29세	9,302	4,003	43.0	9,157	3,908	42.7	-145	-95	-0.3p
30~39세	7,510	5,647	75.2	7,390	5,616	76.0	-120	-31	0.8p
40~49세	8,554	6,785	79.3	8,460	6,697	79.2	-94	-88	-0.1p
50~59세	8,360	6,333	75.7	8,426	6,379	75.7	66	46	0.0p
60세 이상	10,177	4,225	41.5	10,708	4,465	41.7	531	240	0.2p

자료: 통계청

〈표 2-8〉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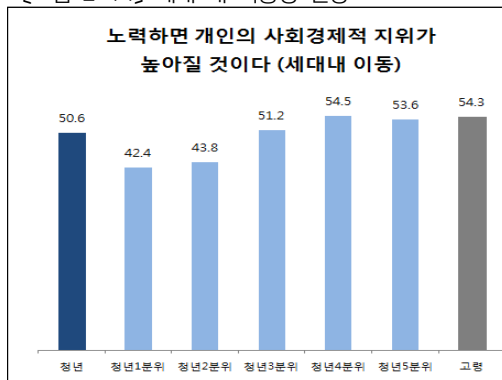
구분	'17.5월	'18.2월	3월	4월	5월
실업자(만명)	99.5	126.5	125.7	116.1	112.1
-전년동월대비증감(만명)	(-0.9)	(-7.6)	(12.0)	(-0.6)	(12.6)
실업률(%)	3.6	4.6	4.5	4.1	4.0
-15~29세(청년층) 실업률	(9.2)	(9.8)	(11.6)	(10.7)	(10.5)
-25~29세(청년층) 실업률	(8.5)	(8.2)	(10.5)	(10.5)	(10.3)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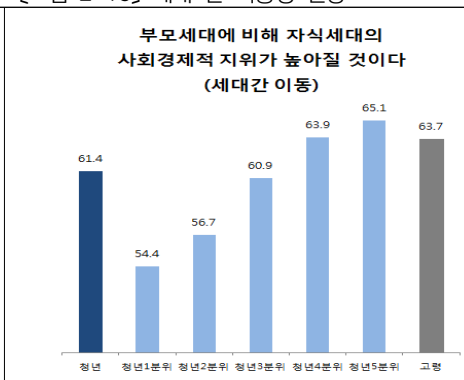
○ 낮은 사회이동 가능성

- (사회이동 가능성) 세대내·간 계층 상향이동 전망은 저소득 청년층일수록 기대 수준이 낮음(노인보다 낮음).

[그림 2-14] 세대 내 이동성 전망



[그림 2-15] 세대 간 이동성 전망



주: 청년 19~34세, 고령 60~75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 여유진 등(2016) 재인용

- (3포→n포→헬조선) 청년들의 감추어진 빈곤, 높은 실업률, 낮은 사회이동 가능성 등은 결혼, 출산 포기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음→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해

□ 일자리 수급전망

- 인구구조라는 측면만 고려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2030년 이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 필요. 2020년 중반까지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시사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선다는 특이점 도달하면(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2045년에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 → 일자리 부족

□ 노동시장과 복지

- 노동이 본(本)이라면 복지는 말(末)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분절화 등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불평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7. 사회이동성 저하

□ 추이 및 전망

- 한국은 1960~80년대에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달성했고, 세대 간 계층 대물림도 남미나 영미권보다 심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대 내 계층 상향이동은 물론 세대 간 계층 상향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비관론이 강함(김희삼, 2017).
- 장기적인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추이도 V자형 궤적, 즉 세대 간 학력 및 계층적 지위의 상관관계수가 현재 기성세대와 앞 세대 간에 크게 낮아졌다가,

현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김희삼, 2017).

○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저하 요인과 전망

- 김희삼(2017)은 세대 간 계층 이동성 저하 요인으로 역사 환경, 경제 환경, 사회환경을 들고 있음.
 - 역사 환경: 1990년대 초중반 이후 개방경제체제로의 전면적 이행, 금융화(제조업 쇠퇴), 노동절감적 기술발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 경제 환경: 기업규모별 격차 심화(경제적 개방의 이득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대기업과 자산소유계층에 집중),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및 비정규화, 제조업 근로자 퇴출(중국 효과), 영세 자영업의 구조적 몰락, 성장 둔화, 성장의 고용창출능력 감소, 플랫폼 기업의 잉여 흡수로 산업 재투자 축소
 - 사회 환경: 200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대학교육 공급 증대, 대학교육투자수익 저하(2000년대 들어 전문대 출신 50%, 4년제 대학교 출신 20%는 고졸 미만 임금), 대출자 임금의 양극화(명문대 프리미엄, 고액 연봉 증가 등 대출자간 격차 확대), 사교육경쟁 및 교육격차 심화(2000년 사교육 금지 위헌판결), 평준화 약화(특목고, 자사고), 대입전형의 복잡화(가정 배경, 부모의 정보력과 연줄 효과).
- 또한 소득불평등 증가는 경제활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제적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Wilkinson & Pikett, 2011; Corak, 2013).
- 결국, 상기와 같은 사회이동성 저하 요인들은 단기간에 변화될 가능성 낮고, 향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이동성 하락 추세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사회이동성 저하의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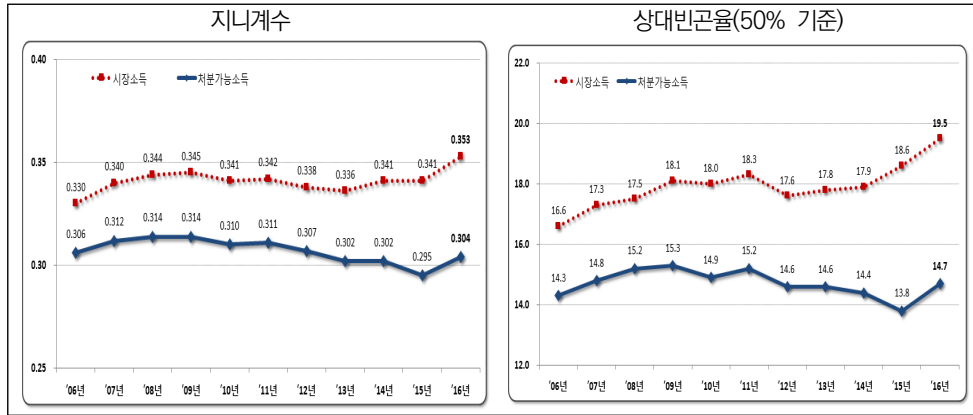
- 사회이동성 저하는 미시적·거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먼저 미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 사회이동성 저하는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개인 차원에서 희망의 상실과 맥을 같이함. 희망의 상실은 자살 등의 사회병리 현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부자는 대대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다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계급'이 됨을 의미
- 이 결과 거시적인 차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저하로 이어짐.

8. 보건복지 여건변화

가. 빈곤/불평등/사회갈등/사회병리 현상 증가

- 1965년 40.9%에 이르던 절대빈곤율(서상목, 1981)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감소하여 90년대 초반에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그러나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급증
- 1993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되어도 빈곤 및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즉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없는 사회로 전환됨.
-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이윤주도 성장 패러다임,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분절, 그리고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은 빈곤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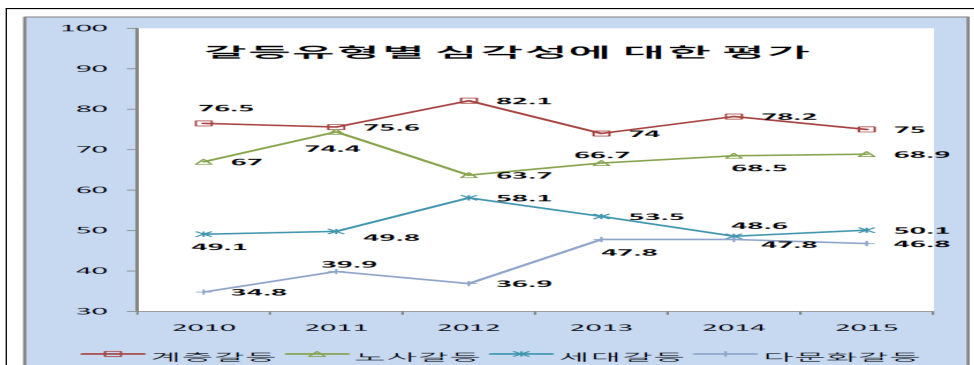
[그림 3-16] 빈곤(우)과 불평등(좌)의 장기 추이



자료: OEC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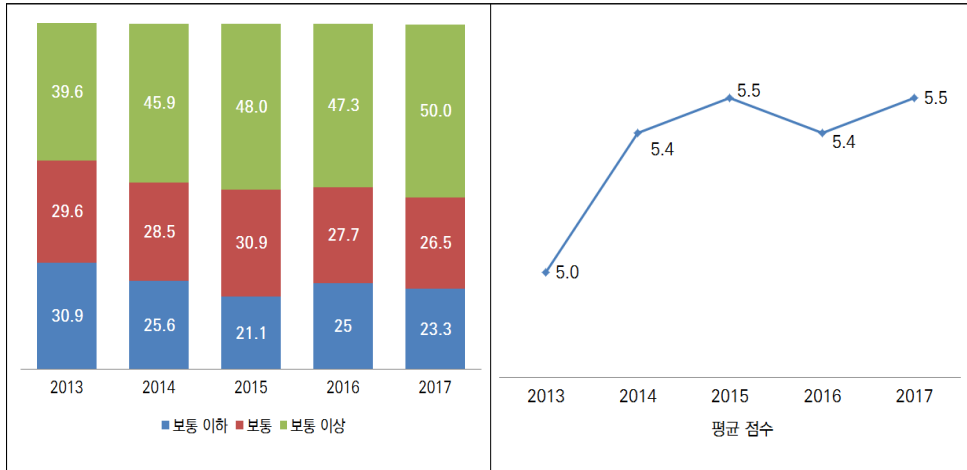
- 75% 이상의 국민들이 계층갈등을 ‘심각’(매우 심각 포함)한 수준으로 인식, 최근에는 다문화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또한 상승 추세
-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계층갈등의 경우 빈곤 및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감소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 및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층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13 39.6% → ’17 50.0%)과 평균 점수(‘13 5.0점 → ’17 5.5점)가 증가하여 재분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각년도)

[그림 3-18]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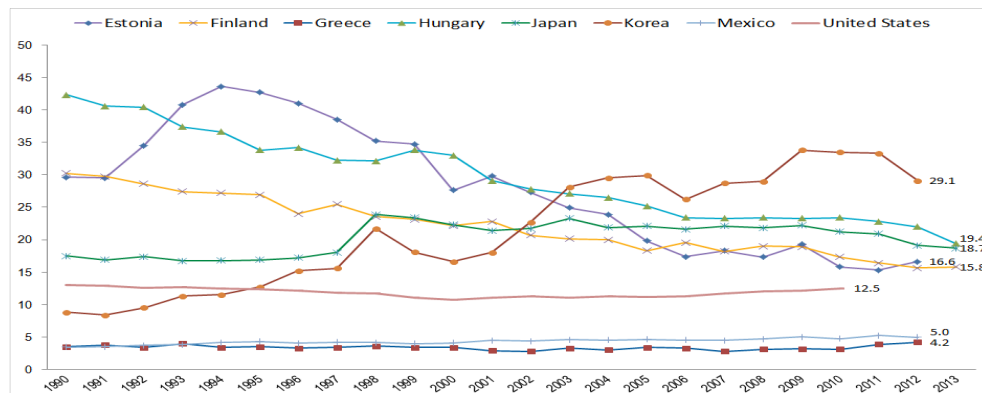


주: 납세 의향은 '㉠전혀 없다~㉠매우 많다'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각년도).

□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6년까지는 OECD평균보다 낮았음.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 시기는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였고, 현재 OECD 1위 수준임.

○ 이러한 추이는 자살이 생활의 궁핍과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을 시사함.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9.5%), 가정불화(13.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19]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 OECD Factbook 2015-2016. OECD publishing. p.207.

나. 건강보험 재정 여건

- 2010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 등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감소하여 종래의 급여비 증가율에 비해 대거 둔화되었으나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다시 대폭 증가
- 2009년 이후 지난 7년 동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8.9% 증가하였으나 향후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보험료부담 주체의 숫자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
- 지난 7년간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은 약 7.7%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많이 둔화되었으나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하면 급여비 증가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2-8〉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입	31,500	33,948	38,761	42,473	47,205	50,515	53,292	56,486
보험료수입	26,166	28,457	32,922	36,389	39,031	41,593	44,329	47,593
국고 지원	일반회계	3,656	3,793	4,071	4,335	4,800	5,295	5,200
	증진기금	1,026	1,063	956	1,007	998	1,518	1,891
기타수입	651	635	810	740	2,374	2,606	1,872	1,801
지 출	31,189	34,926	37,258	39,152	41,265	44,752	48,162	53,149
보험급여비	30,040	33,749	35,830	37,581	39,674	42,827	45,760	50,425
관리운영비	659	675	611	614	630	641	623	674
기타지출	488	501	817	956	960	1,283	1,778	2,049
당기수지	311	-977	1,502	3,321	5,940	5,762	5,129	3,336
누적적립금								약 20조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7). 2016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 저성장,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문재인 케어(보장성 확대계획)의 재정 계획: 2022년까지 총 30.6조 원 투입

[그림 2-2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계획

연도별 투입 재정							
구분	총계	'17	'18	'19	'20	'21	'22
신규	65,635	4,834	32,018	9,658	6,915	6,305	5,905
누적	306,164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

-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 본인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실질적 해소: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폐지하고, 상급병실은 2인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현재 약 23,460병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약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
-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신의료
기술은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액 재조정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 대형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함으로써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

다. 노인진료비 급증 예상

- 2016년 노인진료비는 전년대비 13.5%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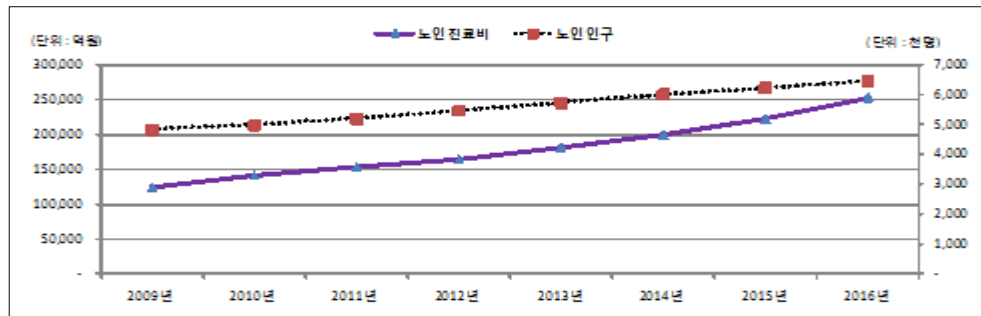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인구의 약 12.7%를 점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39.1%를 지출

〈표 2-9〉 연도별 노인진료비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체 인 구(천 명)	48,614	48,907	49,299	49,662	49,999	50,316	50,490	50,763
65세 이상 인구(천 명)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6,445
(비율, %)	(9.9)	(10.2)	(10.5)	(11.0)	(11.5)	(11.9)	(12.3)	(12.7)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125,442	140,987	153,961	166,237	181,128	199,974	222,673	252,692
(증가율, %)	(14.1)	(12.4)	(9.2)	(8.0)	(9.0)	(10.4)	(11.4)	(13.5)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 원)	2,650	2,861	3,030	3,108	3,224	3,399	3,625	3,983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 원)	825	895	944	977	1,024	1,096	1,167	1,287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7). 2016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그림 2-21〕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라.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 2016년도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년대비 11.4% 증가

- 2016년 기준 12개 만성질환 진료비는 약 26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 64.5조 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09년 이후 지난 7년간 연평균 8.1%씩 증가
- 12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질환, 신경계질환, 갑상선의 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표 2-10〉 만성질환 진료비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진료비				
	2009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전년 대비	연평균
계	151,141	233,721	260,447	11.4	8.1
고혈압	23,257	28,541	30,177	5.7	3.8
당뇨병	12,552	18,177	20,434	12.4	7.2
심장질환	11,814	17,977	20,666	15	8.3
대뇌혈관질환	14,205	23,801	25,279	6.2	8.6
악성신생물	33,728	51,743	59,247	14.5	8.4
간의질환	5,886	8,001	9,456	18.2	7
정신및행동장애	16,242	30,861	34,161	10.7	11.2
호흡기결핵	793	1,124	1,229	9.3	6.5
신경계질환	8,613	16,724	19,684	17.7	12.5
갑상선의 장애	1,832	2,658	2,921	9.9	6.9
만성신장병	9,517	15,683	16,914	7.8	8.6
관절염	12,702	18,433	20,279	10	6.9

자료: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7.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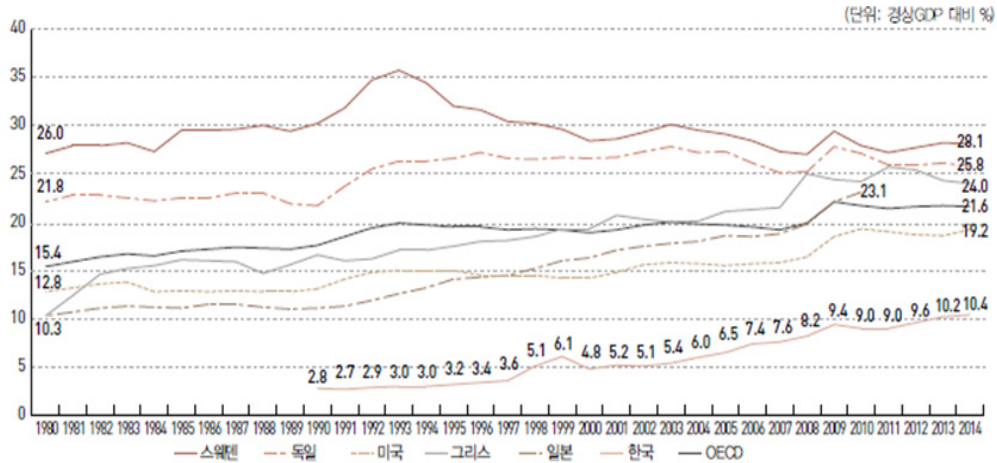
-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진료비도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재검토 필요

마. 보건복지 재정

- 보건의료비 및 복지재정 증가

- 노인의료비,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정책은 2025년(6.4%)에 2011년의 OECD 평균에 도달하고, 2040년에는 GDP 9.9%에 이를 전망(사회보장위원회, 2016)
- 우리나라의 GDP 대비 2015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6%로, 2011년 OECD 평균(21.4%)의 49.5% 수준이나, 2030년대 중반에는 OECD 1990년 평균(17.5%)에, 2040년대 중반에는 2011년 평균(2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사회보장위원회, 2016).

[그림 2-22]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4)



주: OECD SOCX의 각 국 자료는 1980~2014년까지의 자료임(단, 일본은 2012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p.617.

제2절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1. 경제 환경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므로 이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은 경제성장을 낮출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므로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 한편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이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사라졌음.

-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본 김미곤의 연구(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낙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도 산업·부문·계층이 잘되면 그 효과가 후발 산업·부문·계층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되었으나, 1993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고령화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며, 이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비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위험 요인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음.

-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 인구역전 현상, 노인의 고령화(8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의 증가)로 나타남.
- 이 결과 소비위축,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저해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를 초래

□ 부양비³⁾ 증가

○ 2000~2011년까지는 총부양비가 감소·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 최저를 기록한 후 증가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총부양률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010년 15.2%에서 2050년 71.0% 수준으로 급증(통계청, KOSIS)
- 부양비 증가는 가구의 생활수준 저하 및 실질적 빈곤 증가로 이어져, 복지수요를 증가시킴.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을 활용한 성장 모멘텀 확보 및 국민통합 기반 마련이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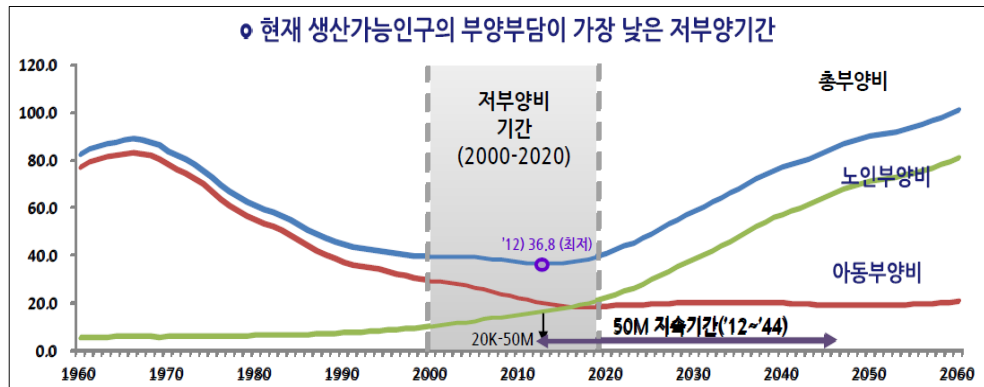
3)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 총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로 구성된다.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그림 2-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주: 저부양비 기간의 20K는 소득 2만불을, 50M은 총인구수 5천만 명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 사회보장부담 증가

○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각종 급여 지출 수준에 이미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또는 누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에 소진(국민연금재정추계위, 2018)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 건강보험 적자폭은 2015년 4.8조에서 2030년 47.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
-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0년 2.5조원(GDP 대비 0.23%)에서 2030년 13.8조원(GDP 대비 0.66%)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

3. 노동시장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잠재적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임(표 2-6 참조).

- 2016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정규직 82.9%, 비정규직 36.3%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후 빈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복지 수요 증가로 이어짐.
- 고용보험의 가입률도 정규직 84.1%, 비정규직 42.8%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경우 실업 시 최소한의 공적 안전망이 미흡한 상태임.

○ 2015년 8월 현재 정규직 평균임금은 269.6만원,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46.7만원으로 나타나(통계청) 정규직 임금의 54.4%수준에 머물고 있음.

- 다만, 2008년 이후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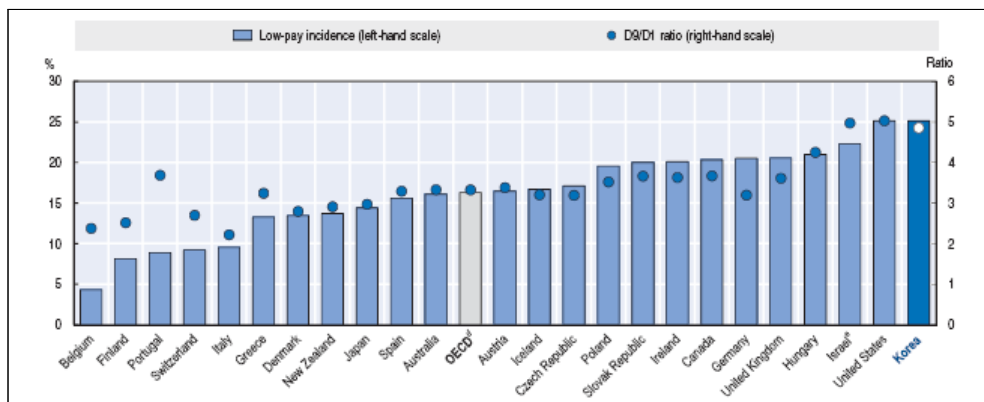
□ 고용구조 악화에 따른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

○ 1차 노동시장에서의 고른 소득분배는 2차 복지영역에서의 지출요인을 감소시킴.

○ 그러나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이 2/3미만) 비중을 증가시켜 임금격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중위임금의 2/3보다 적게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역시 한국은 25.1%로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1분위 임금과 10분위 임금의 배율은 4.85배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24]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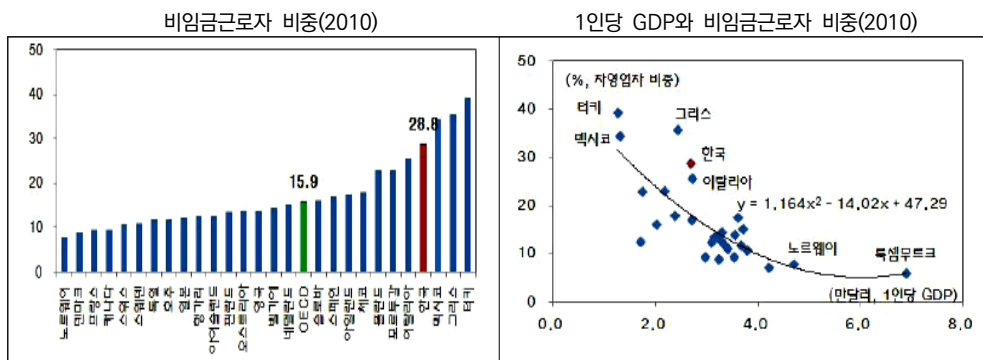


자료: OECD(2013).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창업대비 높은 폐업률은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론됨.

○ 2012년 자영업자는 571.8만 명으로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취업자 대비 비중 23.2%), OECD 국가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기획재정부, 2013).

[그림 2-25] OECD 국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2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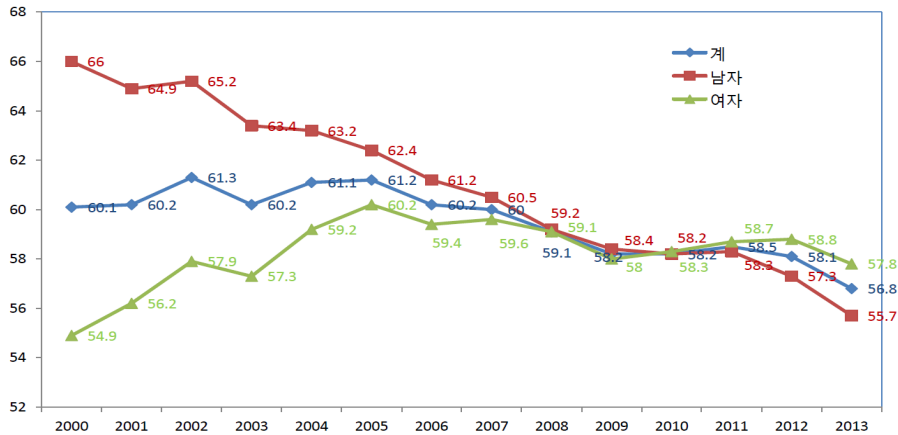
○ 내수위축,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연간 창업률 대비 폐업률은 85%에 달하며, 특히 음식업 폐업률은 94.3%에 이릅니다.

□ 낮은 청년고용률과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복지수요를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

○ 청년(20대) 고용률은 2002년에 61.3%의 정점에 도달한 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이후 50% 후반 대에 머무르고 있음.

- 이들 중 일부는 고용되었지만, 소득이 낮은 소위 '88만원세대'로 추정됨.
- 남성의 20대 고용률이 지속적인 하락추세인 반면, 여성의 20대 고용률은 상승하여 2010년부터 남성 20대 고용률을 추월

[그림 2-26] 20대 고용률 추이(2000~2013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상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항목)

○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대 중장년층은 고용불안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2012년 3월 현재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9.0%, 50~59세 임금근로자의 38.6%가 비정규직으로 구분됨.
- 이러한 고용불안과 함께 이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과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세대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양 세대와의 가치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세대임.

4. 빈곤 및 분배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건강사회문제로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 Wilkinson and Pickett(2011)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이동성이 낮고, 건강·사회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Wilkinson and Pickett, 2011: 19).

- 건강·사회문제는 사회의 신뢰도, 정신건강,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비만, 아동 교육성취도, 십대 임신, 살인, 수감률, 사회이동성 등의 지표로 구성
- 불평등이 높은 미국의 경우 건강 사회 문제가 많고, 불평등 수준이 낮은 일본 및 북 유럽국가의 경우 문제가 적음.

[그림 2-27]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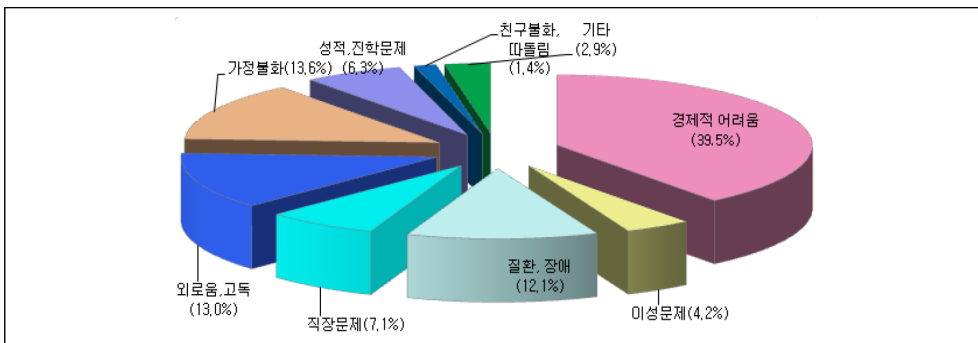


자료: Wilkinson and Pickett(2011: 20).

○ 우리나라 자살률은 1996년까지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한 후 2006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다시 증가하는 세 번의 꼭짓점을 보임. 결국 국제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OECD 1위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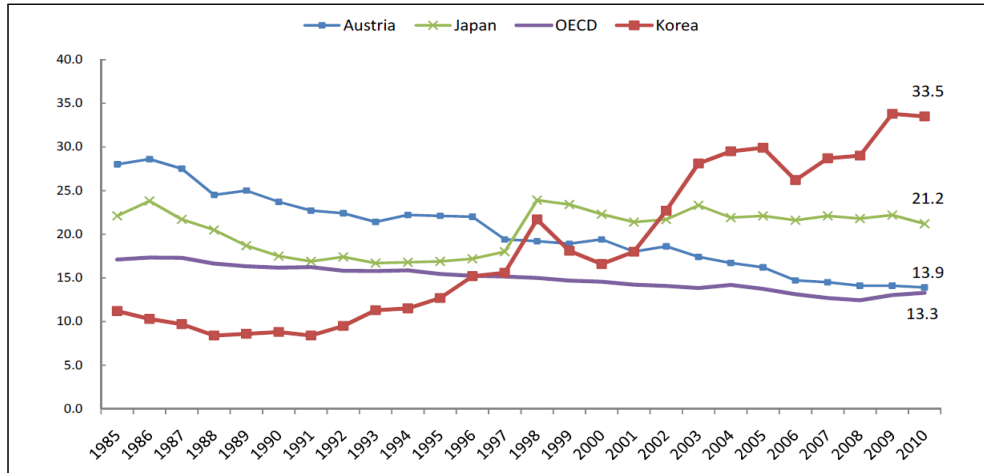
- 이러한 추이는 자살이 생활의 궁핍과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을 시사함. 실제로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9.5%), 가정불화(13.6%), 외로움과 고독(13.0%)으로 나타났음.

[그림 2-28]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



자료: 통계청,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그림 2-29]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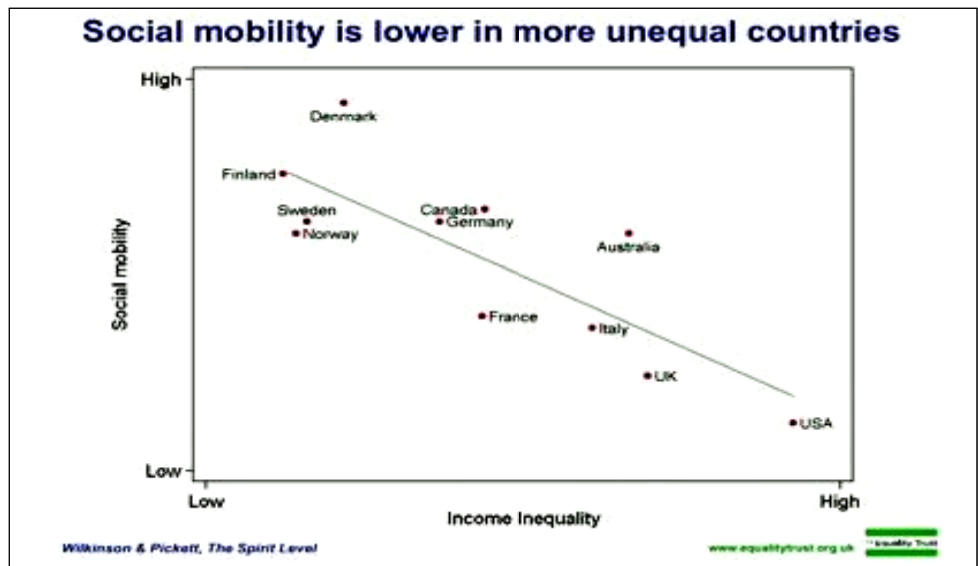


자료: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저하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 경제성장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소득불평등 증가는 경제 활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제적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사회이동성이란 사회적 지위 변화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이동성이 낮을 경우 계층적 위화감이 증가될 수 있으며 국민통합을 저해함.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이태리, 영국, 미국)일수록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다는 것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함(Wilkinson & Pikett, 2011).
 - 사회이동성 뿐만 아니라 세대간 소득탄력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함. 아래의 '위대한 개츠비 곡선'과 같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미국, 이태리)일수록 세대간 소득탄력성이 크고(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스웨덴, 핀란드 등)일수록 세대간 소득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Corak, 2013).

[그림 2-30]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자료: Wilkinson & Pickett(2011)

[그림 2-31]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



주: 소득불평등은 1985년 정도의 OECD 자료의 가처분소득으로 계산된 지니계수로 측정.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은 부모의 소득과 성인 자녀의 소득 간 탄력성으로 측정. 탄력성이 높을수록 소득이동성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
자료: Corak(2013) and OECD

5. 기타 요인이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 기술진보와 빈곤·불평등 변화

-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연결과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어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홀로세(Holocene)에서 인간세로 그리고 인공지능세로 진전될 가능성
 -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마치 여름 옷(2차 산업혁명)을 입고 겨울(4차 산업혁명)에 맞이하는 상태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숙련위주로 분배되는 경향이 강하고, 규제개혁과 제도 변화는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향상되겠지만 저숙련자 취업기회 감소, 영세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OECD, 2013).

□ 신자유주의와 빈곤·불평등 변화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황금기(golden age)에는 대부분 국가들의 불평등 수준은 매우 낮았음.
 -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으나,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 높은 요율의 조세체계,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등이 주요 요인이었음.
-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곤 및 불평등을 악화시킴.
 - 승자독식, 국경 없는 무한 경쟁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는 승자와 패자간의 불평등과 패자의 빈곤화로 이어짐.
-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지성인에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음.

- 자본의 속성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임계점’ 전에는 대안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음.
- 신자유주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시장 소득기준의 빈곤 및 불평등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

제 3 장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기존 사회인식조사 선행연구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

제1절 기존 사회인식조사 선행연구

1. 2000~2014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 세계가치관조사는 1981년부터 세계 일반국민들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 생활 및 정치적 생활의 추이를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는 각국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임.
- 민간 사회과학자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과 조직의 문제로 인하여 연간 조사를 수행하기보다 5년의 웨이브(wave)를 주기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2018년 현재 7차 웨이브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조사내용으로 보통 사람들의 신념, 가치관, 동기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 경제발전, 민주주의, 종교, 성평등, 사회적 자본, 행복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 7차 웨이브 조사표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태도, 편견 관련 45개 문항, 사회적 웰빙 관련 11개 문항, 사회적 자본, 신뢰, 참여 관련 49개 문항, 경제적 가치 관련 6개 문항, 부패 관련 9개 문항, 이주(migration) 관련 10개 문항, 후기물질주의 관련 6개 문항, 사회와 기술 관련 6개 문항, 종교적 가치 관련 12개 문항, 안전 관련 21개 문항, 윤리적 규범 관련 23개 문항, 정치적 관심과 참여 관련 36개 문항, 정치적 문화와 체제 관련 25개 문항,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 관련 31개 문항을 포함함.
 -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공통의 질문을 유지해야 하지만 각국의 언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화된 기본 조사표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질문 의도의 손실을 방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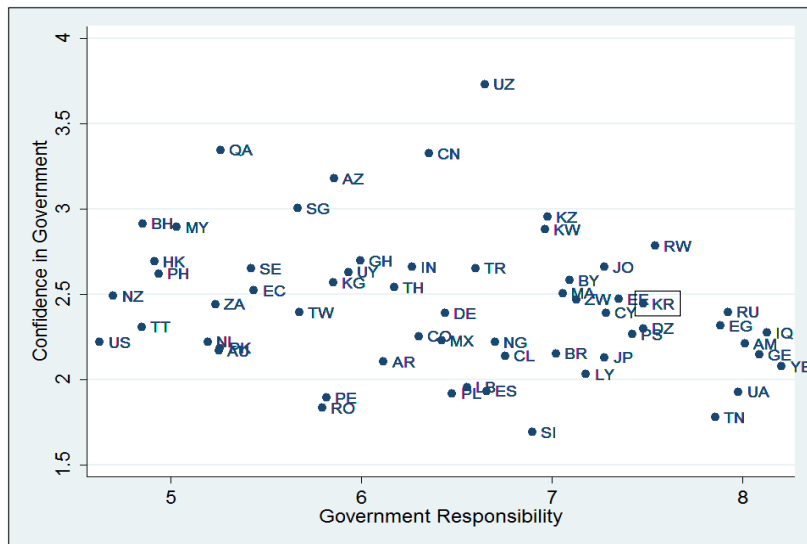
○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표본 크기는 1,200명을 유지하고,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대면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제6차 웨이브 조사는 2010~2014년 동안 각국에서 실시되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 다음 표는 정부신뢰도 및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문항으로 포함한 국가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음.

- 두 지표 간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신뢰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1] 2010~2014년 정부 신뢰도와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



- 주: 1) 정부 신뢰도(Confidence in Government)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전적으로 신뢰한다(4)'의 4점 척도의 평균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책임(Government Responsibility)은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1)'~'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10)'의 10점 척도임.
- 2)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44점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 인식은 7.48점임.
- 3) 이 그래프는 6차 웨이브(2010~2014년) 기간 동안 해당 문항을 조사한 60개국을 대상으로 함.
- 자료: WVS (2015). *World Value Survey 1981-2014 Longitudinal Aggregate v.20150418*, 2015.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Aggregate File Producer: JDSystems Data Archive, Madrid, Spain.

2. 2016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정부의 역할 모듈⁴⁾

-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s, ISSP)은 사회과학연구의 주요 주제를 매년 지속적으로 다루는 다국적 협동 프로젝트임.
- 1972년에 시작된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모태로, 1983년 이후 가입국을 대상으로 공통 모듈의 조사표를 활용해 동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45개국이 참여하고 있음.⁵⁾
- 조사의 목적은 국가 내 개인 단위 분석 및 국가 간 비교 분석이 가능한 횡단 자료를 구축하는 것임.
- 조사내용은 ISSP 전체의 주제모듈과 국가별 특별주제모듈로 구성하며, ISSP와 동아시아사회조사프로그램(East Asia Social Survey, EASS),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핵심질문모듈은 다음 표와 같음.
- ISSP 주제모듈은 ①정부역할, ②사회적 관계망, ③사회적 불평등, ④가족과 성 역할, ⑤일, ⑥종교, ⑦환경, ⑧국가정체성, ⑨시민성, ⑩여가와 스포츠, ⑪건강의 11개로,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순환, 운영하고 있음.
- 2016년 조사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을 질문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건강서비스/노인 돌봄/교육의 서비스 제공 주체, 건강서비스/노후생활 보장/안보 영역의 정부효과성, 재정/일자리/규제/신기술개발/사양산업지원/근로일수 감축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
- 다음 표는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중 OECD 가입국 19개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정책 분야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임.

4)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의 개요는 김미곤 등(2016, pp. 100-103)을 참조했음.

5) 세부적인 참여국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북아메리카(멕시코, 미국), 남아메리카(볼리비아, 칠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유럽(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영국,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시아(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 태국),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대한민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실업급여와 환경 영역에서 정부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반면, 건강정책, 연금정책, 교육정책에서의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국의 정책 현황을 배제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3-1〉 OECD 주요 국가의 정책 분야별 정부의 역할 인식

(단위: 점, 순위)

국가	건강		연금		실업급여		교육		환경	
헝가리	4.64	(1)	4.02	(6)	3.37	(4)	4.18	(4)	3.75	(1)
아이슬란드	4.41	(2)	3.93	(9)	3.01	(13)	3.97	(7)	3.64	(7)
이스라엘	4.32	(3)	4.32	(1)	3.29	(6)	4.40	(1)	3.68	(5)
스페인	4.27	(4)	4.02	(5)	3.80	(1)	4.31	(3)	3.60	(8)
라트비아	4.23	(5)	4.23	(2)	3.31	(5)	4.06	(5)	3.19	(19)
슬로바키아	4.19	(6)	4.20	(3)	3.15	(9)	3.91	(9)	3.67	(6)
스웨덴	4.18	(7)	3.97	(7)	3.05	(11)	3.83	(11)	3.52	(11)
영국	4.18	(8)	3.71	(12)	2.72	(18)	3.92	(8)	3.41	(14)
슬로베니아	4.06	(9)	4.04	(4)	3.37	(3)	3.87	(10)	3.68	(4)
독일	4.03	(10)	3.91	(10)	3.27	(7)	4.33	(2)	3.73	(2)
덴마크	3.96	(11)	3.45	(19)	3.05	(12)	3.66	(15)	3.51	(12)
노르웨이	3.92	(12)	3.50	(17)	2.92	(16)	3.63	(18)	3.34	(16)
체코	3.88	(13)	3.93	(8)	2.83	(17)	3.61	(19)	3.32	(17)
대한민국	3.82	(14)	3.60	(16)	3.37	(2)	3.66	(16)	3.72	(3)
핀란드	3.81	(15)	3.65	(14)	2.96	(15)	3.65	(17)	3.31	(18)
프랑스	3.74	(16)	3.62	(15)	2.57	(19)	3.68	(14)	3.35	(15)
미국	3.73	(17)	3.72	(11)	3.13	(10)	4.05	(6)	3.41	(13)
일본	3.65	(18)	3.49	(18)	3.01	(14)	3.78	(13)	3.56	(10)
스위스	3.47	(19)	3.67	(13)	3.20	(8)	3.81	(12)	3.58	(9)

주: 1) 2016년 ISSP 정부의 역할 모듈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중 OECD 가입국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원자료를 역코딩하여 산출하여, '예산을 매우 삭감해야 함(1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5점)'의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3) '건강' 정책의 점수 및 순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것임.

자료: Group, I. R. (2018).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Role of Government V - ISSP 2016*.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4232/1.12994>

○ 또한 2016년 모듈에서는 일자리 정책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대한민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일자리 보전을 위한 사양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표 3-2〉 OECD 주요 국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

(단위: 점, 순위)

국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보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근로시간 단축		사양산업 지원	
스페인	4.49	(1)	3.39	(5)	4.11	(1)
라트비아	4.47	(2)	2.87	(14)	3.61	(11)
헝가리	4.36	(3)	2.84	(17)	3.99	(3)
이스라엘	4.28	(4)	3.36	(7)	4.09	(2)
프랑스	4.20	(5)	2.74	(19)	3.95	(4)
대한민국	4.19	(6)	3.57	(3)	3.72	(6)
노르웨이	4.14	(7)	2.82	(18)	3.63	(8)
미국	4.12	(8)	2.92	(13)	3.61	(10)
슬로바키아	4.12	(9)	3.58	(2)	3.84	(5)
영국	4.08	(10)	2.85	(16)	3.62	(9)
아이슬란드	4.03	(11)	3.62	(1)	3.41	(15)
슬로베니아	4.00	(12)	3.35	(8)	3.65	(7)
덴마크	3.91	(13)	2.95	(12)	3.28	(16)
핀란드	3.87	(14)	3.26	(9)	3.24	(17)
일본	3.87	(15)	3.38	(6)	3.60	(12)
스위스	3.85	(16)	2.96	(11)	3.54	(13)
체코	3.80	(17)	2.85	(15)	3.23	(18)
독일	3.77	(18)	3.04	(10)	3.43	(14)
스웨덴	3.69	(19)	3.43	(4)	3.20	(19)

주: 1) 2016년 ISSP 정부의 역할 모듈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중 OECD 가입국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원자료를 역코딩하여 산출하여, '매우 반대(1점)'~'매우 찬성(5점)'의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점수 및 순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것임.

자료: Group, I. R. (2018).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Role of Government V - ISSP 2016*.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4232/1.12994>

3. 2010~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 2010~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년 하반기 일반국민과 보건정책과 복지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다음 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신영석 등, 2010; 최성은 등, 2011; 김태완 등, 2012; 김미곤 등, 2014; 김미곤 등, 2015; 김미곤 등, 2016)

- 이 조사에서는 일반국민 조사와 관련하여, 2012년까지 시도별 인명전화번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화조사를 시행했고, 2014년 이후 휴대전화 사용 비율 증가 등의 행태적 변화를 반영하여 RDD (Random Digital Dialing) 방식이 적용된 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화조사로 조사방법을 개편하였음. 전문가 조사는 사회, 경상, 보건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한 임의표집 방식을 유지하였음.
-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횡단면 비교가 가능하고,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방식이 유지된 2010~2012년과 2014~2016년의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유의할 것으로 보임.

〈표 3-3〉 2010~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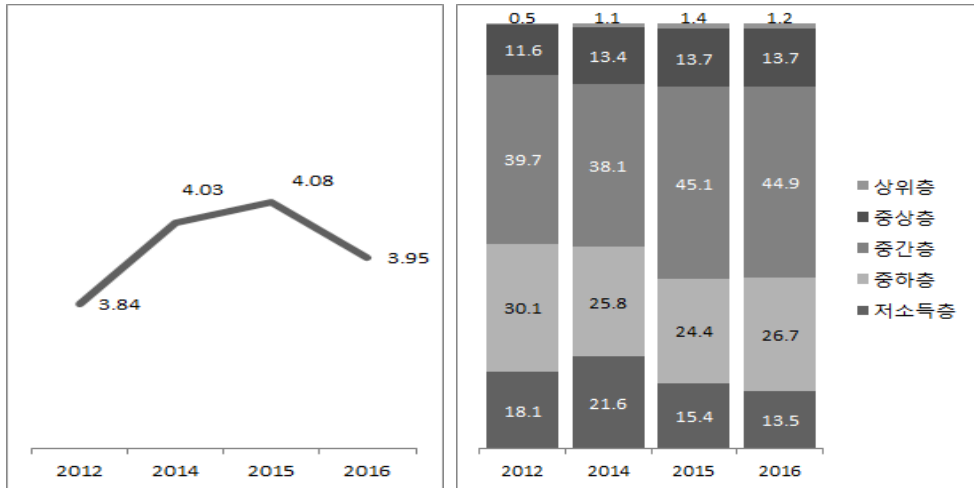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조사 대상자	일반국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전문가	100명					
조사 방법	일반국민	전화조사 (시도별 인명전화번호 자료 기반)			전화조사 (RDD 방식이 적용된 CATI 시스템 활용)		
	전문가	자기기입형 웹메일조사					
표본 추출	일반국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법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활용한 임의표집					
조사시기		10.26.~11.5.	①921.- 927. ②11.2~11.11.	11.21.-12.5.	10.14.~11.2.	11.09.~11.29.	10.30.~11.11.
신뢰수준		(일반국민) 95±3.1%p					
조사수행		보사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자료: 김미곤 등(2016, p.280)

- 2012~2016년 일반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삶의 만족도는 2012년 3.84점에서 2015년 4.08점으로 증가하여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 이르러 3.95점으로 다소 감소했음.
-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선 및 유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2016년까지 하층은 13.5% 정도로 감소하고, 중간층과 중상층은 44.9%와 13.7%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3-2] 연도별 일반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소득계층 변화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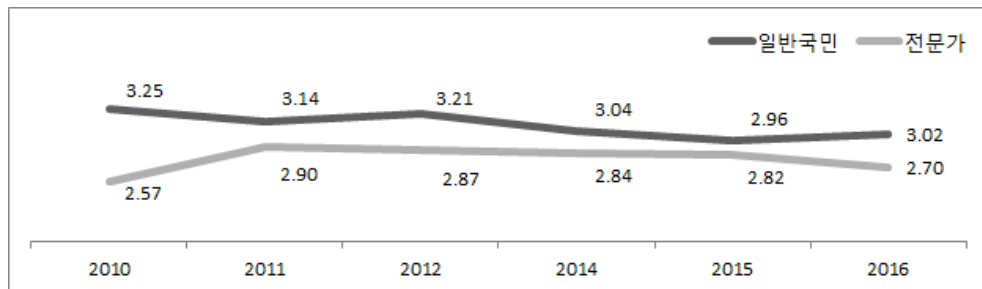
자료: 김태완 등(2012); 김미곤 등(2014);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

□ 연도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두 조사대상자 집단별 전반적 복지수준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일반국민에 비해 전반적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었음.

○ 연도별로 일반국민은 2014년 이후 1~6점 범위 척도에서 3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전문가는 2.8~2.9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 2.7점으로 다소 하락했음.

[그림 3-3]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복지수준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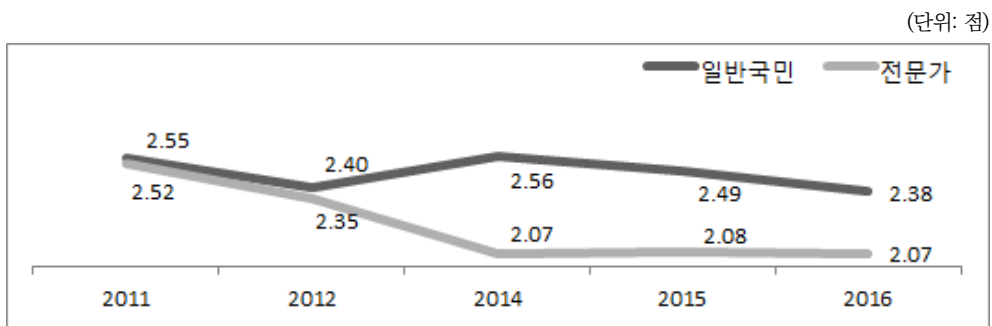
주: '매우 낮다' 1점, '매우 높다' 6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의 평균 점수임.

자료: 신영석 등(2010); 최성은 등(2011); 김태완 등(2012); 김미곤 등(2014);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

□ 조사대상자별 연도별 전반적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성 인식에 대해 일반국민은 2014년 2.56점 이후 2015년 2.49점, 2016년 2.38점으로 다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음.

○ 전문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2.07점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 및 재산의 전반적인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했음.

[그림 3-4]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성 인식



주: 매우 불평등' 1점, '매우 평등하다' 6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의 평균 점수임.

자료: 신영석 등(2010); 최성은 등(2011); 김태완 등(2012); 김미곤 등(2014);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

□ 조사대상자별 걱정거리의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음. 2016년 1순위를 기준으로 일반국민은 건강(24.3%)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다음은 일자리(20.1%), 노후 생활(19.5%), 자녀교육(18.1%)의 순으로 나타남. 합계순위는 일자리(45.5%), 노후 생활(45.3%), 자녀교육(31.0%), 일자리(30.0%), 주거비(22.8%)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2016년 전문가 응답자의 81.0%가 걱정거리의 1순위로 일자리를 선택하여,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합계순위는 일자리(84.0%), 노후 생활(52.0%), 자녀교육(26.0%), 주거비(23.0%)의 순이고, 나머지 부채 상환(7.0%), 건강(6.0%), 부모부양(2.0%)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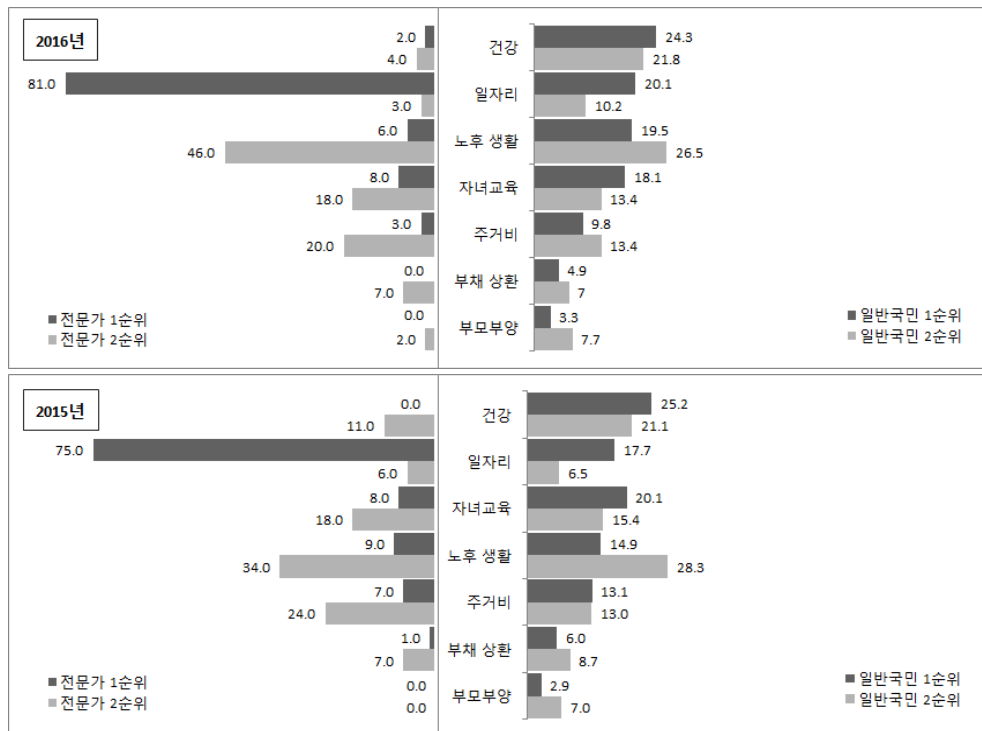
○ 2014년 이후 일반국민의 1순위 걱정거리로는 연도별로 건강이 23.0%, 25.2%, 24.3%의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2014년에는 노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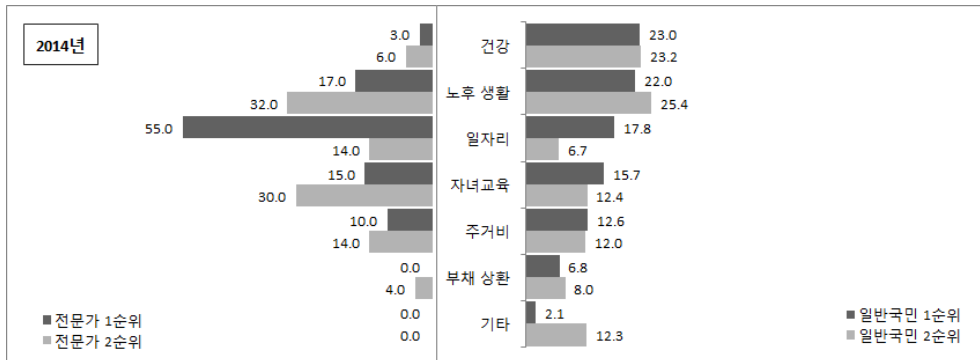
(22.0%)이, 2015년과 2016년에는 일자리(17.7%, 20.1%)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반면, 전문가의 1순위 걱정거리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2014년 55.0% 이후 2015년 75.0%, 2016년 81.0%로 점차 그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복지수요가 강력해짐을 확인할 수 있음. 2순위 걱정거리는 노후생활이 2014년 32.0%, 2015년 34.0%, 2016년 4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그림 3-5] 조사대상자별 걱정거리

(단위: %)





자료: 김미곤 등(2014);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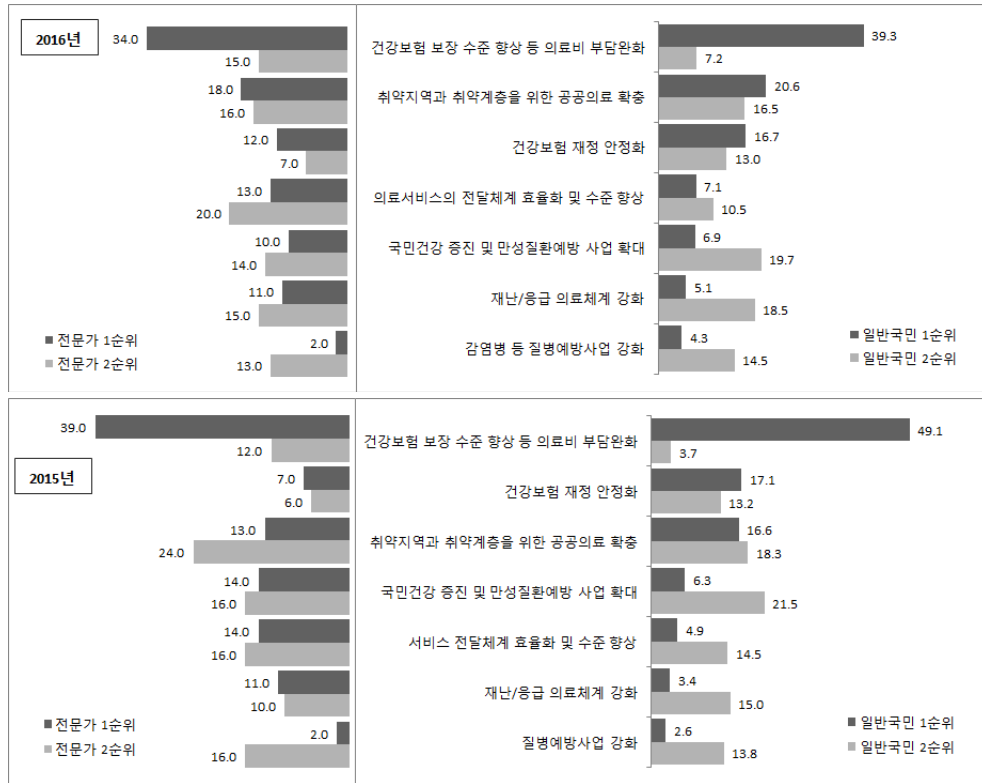
□ 2016년에 정부가 보건 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조사대상자별 응답 분포임. 1순위를 기준으로 일반국민의 응답 순위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39.3%),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20.6%),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6.7%)의 순인 반면, 전문가의 응답 순위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34.0%),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18.0%),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13.0%)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15년 이후, 일반국민은 1순위 선택지 중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15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7.1%)에서 2016년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20.6%)으로 그 순위가 다소 변화하였음.

○ 연도별로 전문가의 1순위 응답에서도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응답률이 2015년 39.0%와 2016년 34.0%로 가장 높았음. 이후 순위는 2015년에 14.0%의 응답률을 보인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었던 반면, 2016년에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의 순으로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였음.

[그림 3-6] 조사대상자별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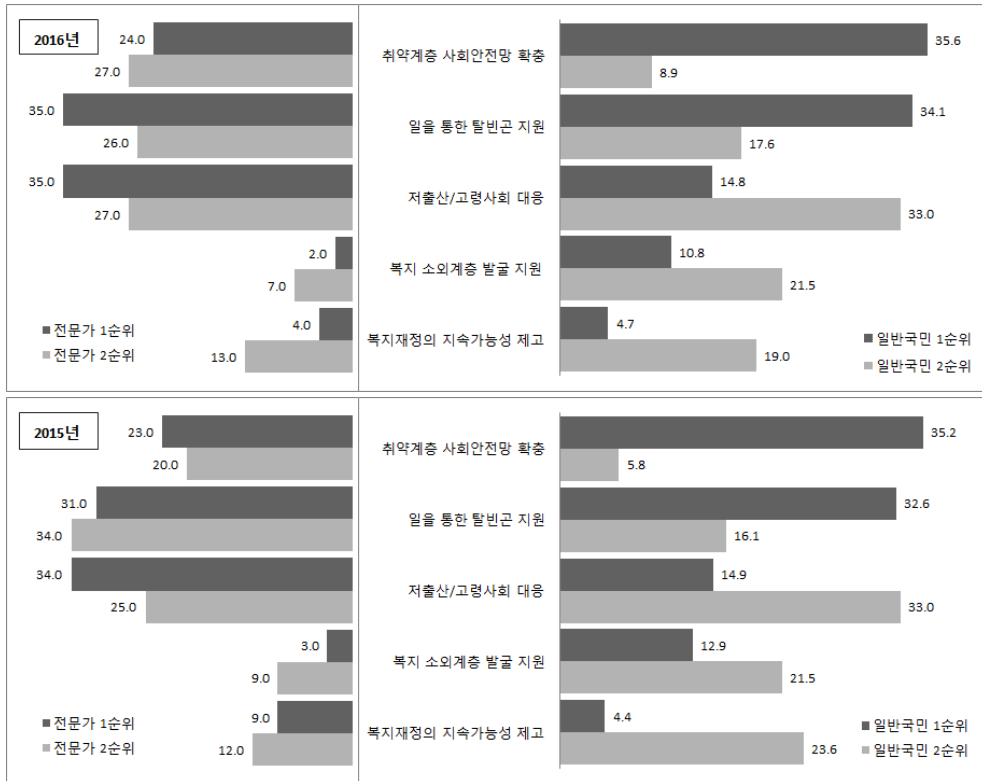
자료: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

□ 다음은 복지정책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임.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35.6%),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34.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14.8%), 복지 소외계층 발굴 지원 (10.8%)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전문가의 1순위 응답은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과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35.0%)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24.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 문항이 조사표에 포함된 2015년 이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1순위 응답 순위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단, 전문가의 경우,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2015년 31.0%에서 2016년 35.0%로 다소 증가했음.

[그림 3-7] 조사대상자별 중요한 복지정책분야

(단위: %)



자료: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

□ 다음은 일반국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 견해와 조세 납부 의지를 비교한 분석결과임. 2016년 보건복지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75.5%(다소 찬성 22.4%, 찬성 34.4%, 매우 찬성 18.7%)이지만 보건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에 동의하는 비율은 43.3%(다소 찬성 22.6%, 찬성 16.2%, 매우 찬성 4.5%)에 불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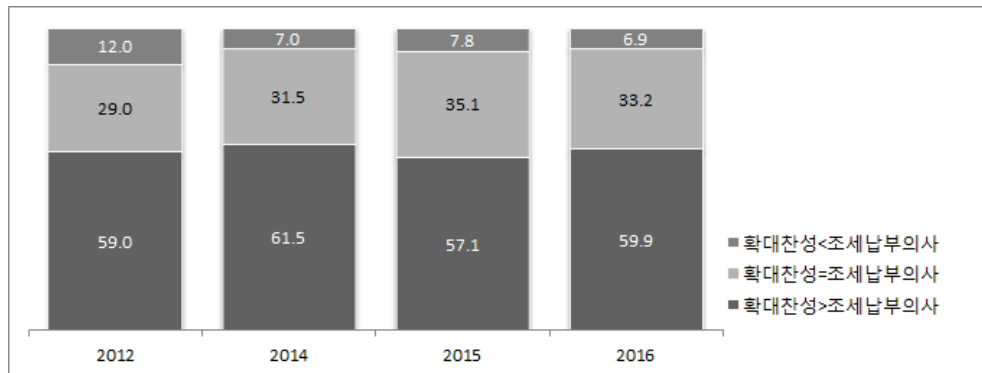
○ 보건복지정책 확대 견해 대비 조세납부의사가 낮은 경우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여, 결국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두 견해가 동일한 경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집단은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었음.

- 조세납부의사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견해에 비해 강력한 집단은 6.9%에 불과했음.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이 조세납부의사에 비해 강력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집단은 전체의 59.9%로 다수를 차지했음.
- 연도별로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이 조세납부의사에 비해 강력한 집단의 비율은 2014년 이후 61.5%에서 2015년 57.1%로 감소하고, 2016년에 59.9%로 다소 증가하였고,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이 조세납부의사와 동일한 집단은 2014년 31.5%에서 2015년 35.1%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 33.2%로 다소 감소하였음. 조세납부의사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에 비해 강력한 집단 또한 2014년 7.0%에서 2015년 7.8%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 6.9%로 다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조세납부의사가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보였음.

[그림 3-8] 조세환상: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 대 조세납부의사

(단위: %)



자료: 김태완 등(2012); 김미곤 등(2014);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는 사회보장정책의 여건 분석 및 거시적 관점의 장기·종합적 전략 수립을 위하여 일반국민과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의 현재 및 미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국민의 수요와 현 정책 및 제도와의 차이, 보완이 필

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으로서 대국민 인식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그리고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 관련 비정형 문서를 분석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실시하므로 조사표나 분석틀의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인식조사의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에 대해서 주로 검토함.

□ 조사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함.

○ 조사표 구성의 “배타성과 포괄성”은 문항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사회보장의 영역을 중복이나 누락 없이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김미곤 등, 2016, pp.103-104).

- 예를 들어, 일반국민조사는 가구일반사항 및 경제적 특성 외에 생활만족과 사회인식, 사회보장인식, 미래 전망의 영역 하에 하위 질문을 포괄하고 있고, 전문가조사는 개인적 특성 외에 사회 및 사회보장인식, 보건정책, 복지 및 인구정책, 일자리 및 주거정책, 사회보장재정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정책적 시의성”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이슈, 국민 인식과 관심 분야, 최근 도입된 정책이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 현재 정치적·정책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포착하여 문항에 반영하여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을 의미함(김미곤 등, 2016, pp.104).

-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하여, 일반국민조사에서는 응답자 개인의 노후 준비 정도, 주된 방법과 부수적인 방법,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전문가조사에서는 노후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을 포함함.

○ “응답 용이성”은 응답자에게 응답을 부탁하면서, 이들이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이들이 기꺼이 응답을 해줄 것인지, 응답자와 관계가 있는 것

인지를 고려하면서 질문을 구성하는 것임(고성호 등 역, 2014, pp.347-350).

- 예를 들어, 노인에게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 정책의 수요, 적절성, 만족도 등에 대해 질문하기는 어려움.
-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사회보장 영역의 수요, 미래 전망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응답할 경우, 응답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 조사연구가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거나 현재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조사표를 구성하는 데에 “미래지향성”을 견지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나 소득 및 재산의 분배 상태, 걱정거리와 불안요인 등에 대해 과거 5년 전과 현재 수준을 평가하면서 미래 5년 후, 전문가조사의 경우 더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질문함.

□ 최종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

[그림 3-9]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구성



○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표는 구성은 다음과 같음.

[그림 3-10]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구성



□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대국민 사회보장인식 분석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러함.

○ 이 조사연구는 크게 조사표 구성 및 완료 → 조사 실시 → 데이터 클리닝 및 기초분석 →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연구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가 참여했음.

- 또한, 이러한 흐름은 조사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영석 등(2010), 최성은 등(2011), 김태완 등(2012), 김미곤 등(2014), 김미곤 등(2015), 김미곤 등(2016)의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에서 누적, 정형화된 흐름을 참고한 것임.

제 4 장

사회보장 인식조사 분석

제1절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2절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일반국민과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비교분석

4

사회보장 인식조사 분석 <<

- 이 장은 일반국민 1,000명과 보건복지정책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별로 1절에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2절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 후, 일반국민과 전문가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문항의 분석결과는 3절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음. 자세한 수치는 부록 참조

제1절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일반국민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이 조사는 2018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세종을 충남도에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별, 5세 구간의 연령대, 그리고 취업인구 비율을 고려한 비례배분 표집방법을 활용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성별과 연령대의 분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유사함.
- 그 외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구원수, 광역시, 시도의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는 거주지역, 최종학력, 주거 점유형태,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를 확인하였음.
 -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 집단 거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28.6%가 1인 가구이고, 2인 가구는 26.7%, 3인 가구는 21.2%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나(통계청 보도자료, 2018.8.27.),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4명 이상의 가구에 소속된 응답자가 44.1%임.
 - 통계청의 결과가 가구 단위의 분포이므로 가구원수를 고려해보면, 사실상 4인 가구에 소속된 인구의 수가 가장 많음.⁶⁾ 따라서, 개인 단위 조사인 사회보장 인식조사의 결과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가구소득은 가구 내 규모의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나눈 균등화 월평균 값을 활용했으므로, 소득 액수를 해석하는 데에 주의를 요함.

〈표 4-1-1〉 보건복지정책수요 일반국민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499)	49.9
	여자	(501)	50.1
연령	만 19-29세	(174)	17.4
	만 30-39세	(168)	16.8
	만 40-49세	(202)	20.2
	만 50-59세	(202)	20.2
	만 60세 이상	(254)	25.4
가구원수	1명	(98)	9.8
	2명	(225)	22.5
	3명	(236)	23.6
	4명 이상	(441)	44.1
거주지역	광역시	(443)	44.3
	시도 시부	(491)	49.1
	시도 군부	(66)	6.6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11.5
	고졸	(426)	42.6
	대졸 이상	(459)	45.9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71.5
	전세	(220)	22.0
	월세 및 기타	(65)	6.5
균등화 월 평균 가구소득 ¹⁾	100만원 미만	(43)	4.3
	100-150만원	(139)	13.9
	150-200만원	(170)	17.0
	200-250만원	(261)	26.1
	250-300만원	(218)	21.8
	300-350만원	(97)	9.7
	350-400만원	(36)	3.6
경제활동상태	400만원 이상	(36)	3.6
	상용직 임금근로자	(368)	36.8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59)	5.9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53)	15.3
	실업자	(47)	4.7
주관적 계층의식	비경제활동인구	(373)	37.3
	저소득층	(49)	4.9
	중하층	(331)	33.1
	중간층	(536)	53.6
	중상층	(84)	8.4

주: 1) 가구 내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규모의 루트값($=\sqrt{\text{가구원수}}$)으로 나누어 균등화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4인 가구의 비중이 17.7%,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5.8%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원수를 고려했을 때 가구원수별 인구의 비율은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인식조사 결과와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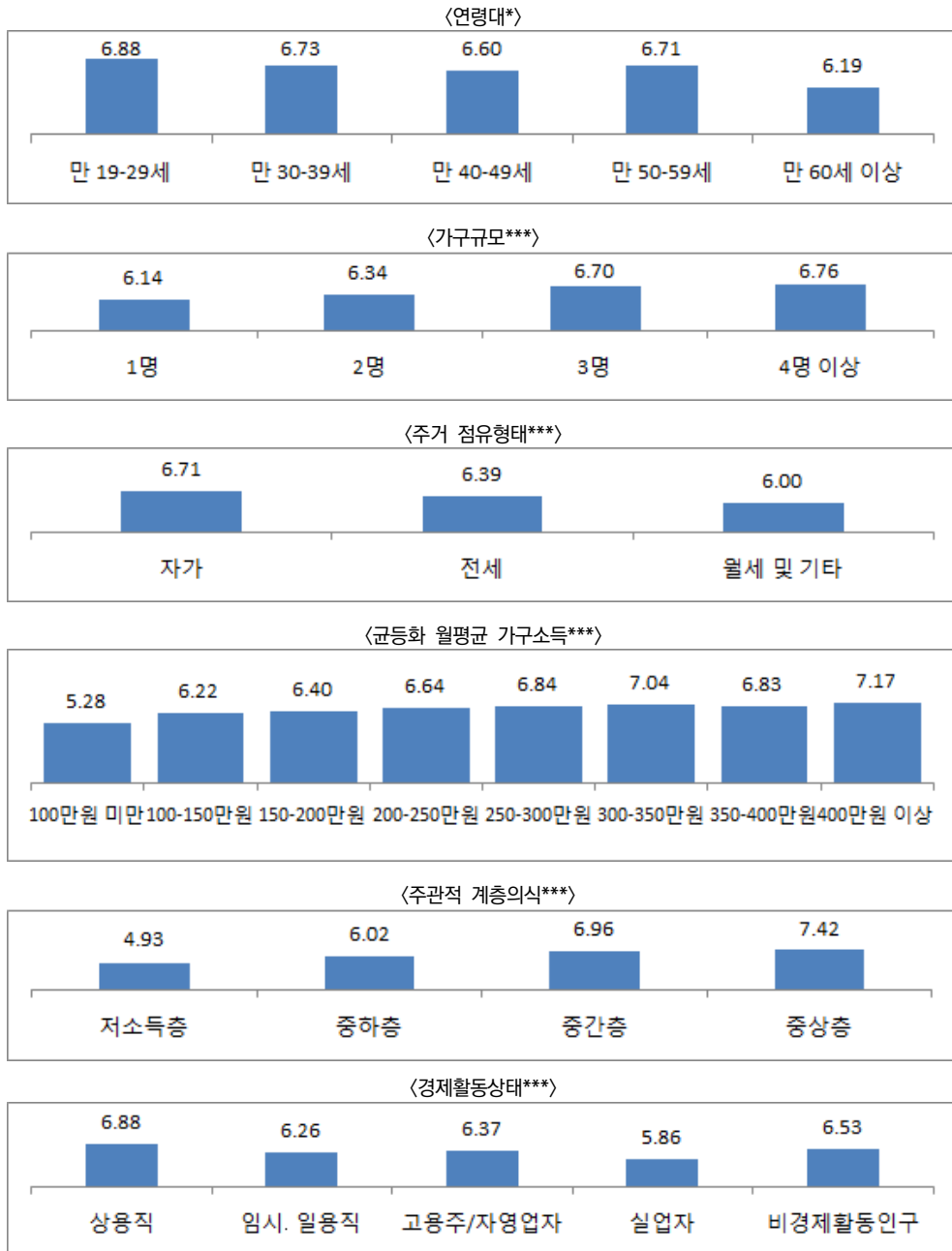
1. 생활만족 및 사회 인식

□ 2018년 일반국민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인의 삶의 만족은 6.6점 수준임.

-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은 연령대별로 40대가 낮은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Branchflower & Oswald, 2008; Stone, Schwartz, Broderick & Deaton, 2010)
 -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확연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50대까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다가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특이한 경향을 보임.
- 가구규모가 클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데, 유의미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음(Helliwell, Huang & Wang, 2014; Oshio, 2017).
-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월세 및 기타에 비해 전세가, 전세에 비해 자가의 삶의 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나 삶의 만족에 대한 주거 안정성과 자산 수준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음(Huang, Wu & Deng, 2016).
-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이와 일관되게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도 높아짐.
 - 이는 소득으로 측정되는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Kahneman & Deaton, 2010; Jebb, Tay, Diener & Oishi, 2018)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실업자의 삶의 만족이 가장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삶의 만족이 다음으로 낮음.
 - 실업이 삶의 만족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고(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Lucas, Clark, Georgellis & Diener, 2004; Helliwell & Huang, 2011), 직업의 질이 개인의 삶의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관련 연구의 결과와 일관됨(Clark, 2015).
- 상기의 집단별 삶의 만족도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남.

[그림 4-1-1]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주: 1)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0점)'~'매우 만족스럽다(10점)'의 11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의 평균 점수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은 주요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결과임.

○ 건강의 만족도가 7.07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6.81점,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만족도가 6.75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생활수준 만족도는 6.32점에 불과함.

○ 직업과 시간적 여유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으므로 응답자 수가 580명임.

- 각 영역에 대해서는 직업 만족도가 6.60점, 시간적 여유 만족도가 6.3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4-1-2] 생활영역별 만족도

(단위: 점)



주: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0점)'~'매우 만족스럽다(10점)'의 11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의 평균 점수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신뢰 수준은 6.33점 수준임.

○ 시도의 시부 거주자의 사회신뢰 수준이 6.2점으로 가장 낮고, 시도의 군부 거주자 신뢰 수준은 6.31점, 광역시 거주자의 신뢰 수준은 6.49점으로 높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높아지고, 주관적 계층의식 또한 이와 일관된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균등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과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의 사회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신뢰 수준이 6.56점으로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인구가 6.34점으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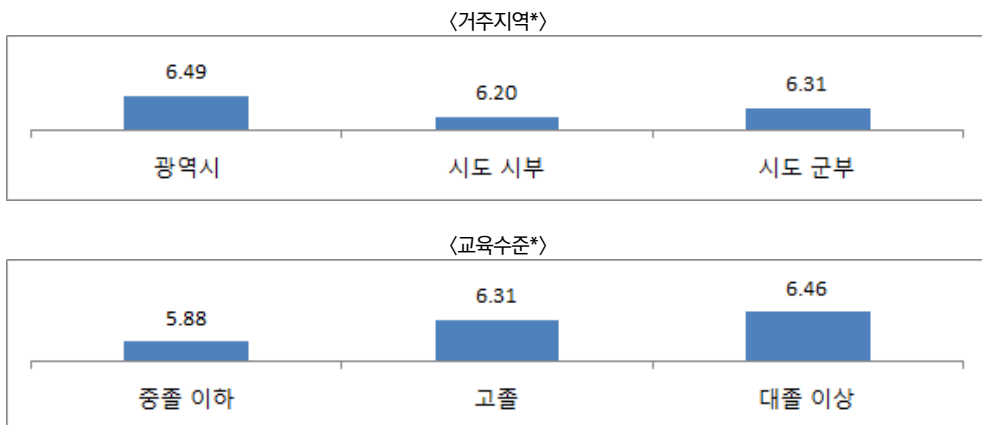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령의 노인인구 뿐 아니라 학생, 주부, 군인 등을 포함 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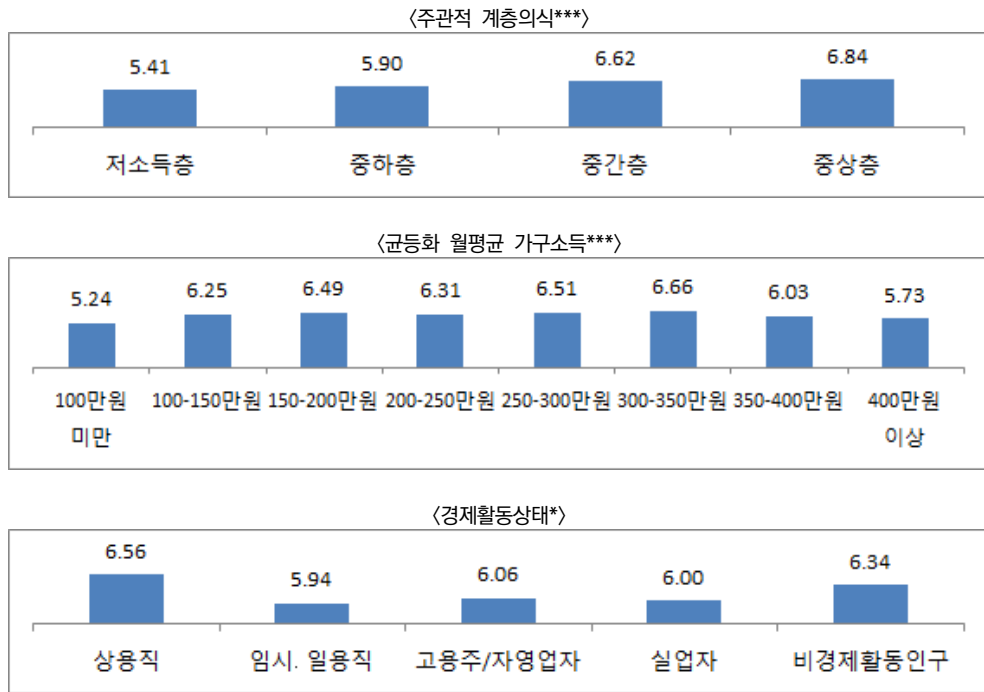
- 고용주와 자영업자(6.06점), 실업자(6.00점),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5.94점)의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상기의 집단별 삶의 만족도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남.

[그림 4-1-3] 사회신뢰

(단위: 점)





주: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0점)'~'매우 신뢰한다(10점)'의 11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의 평균 점수임.

2)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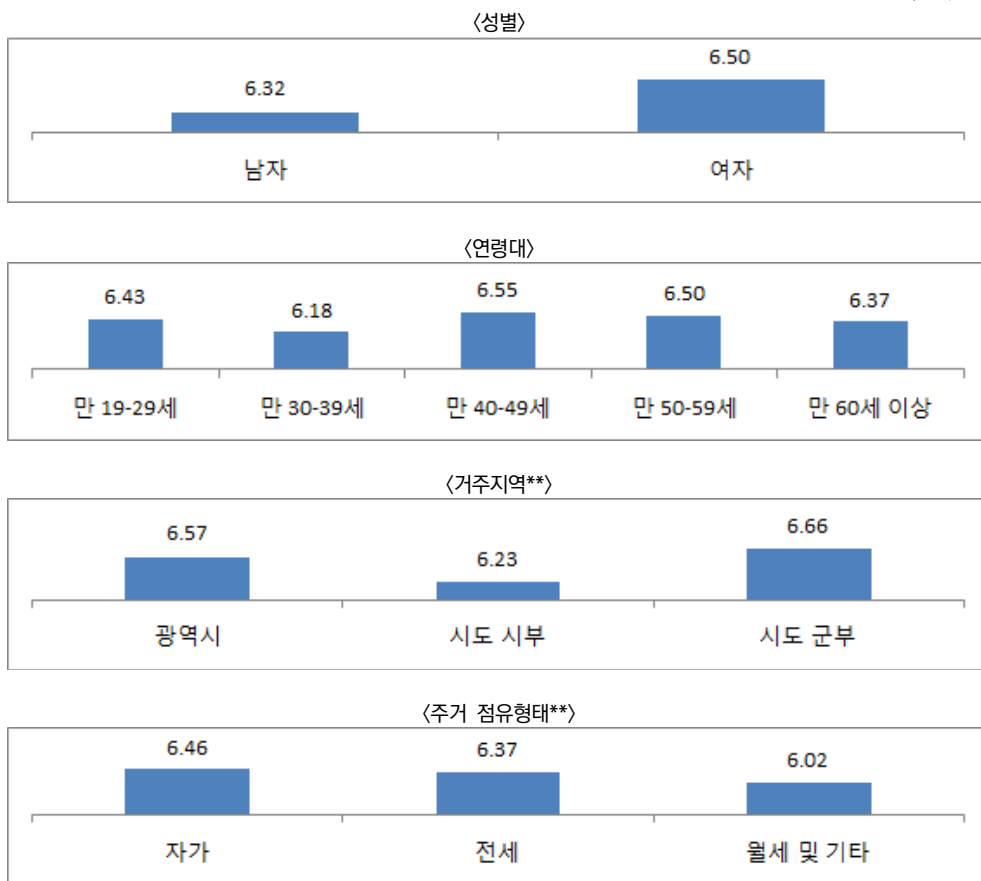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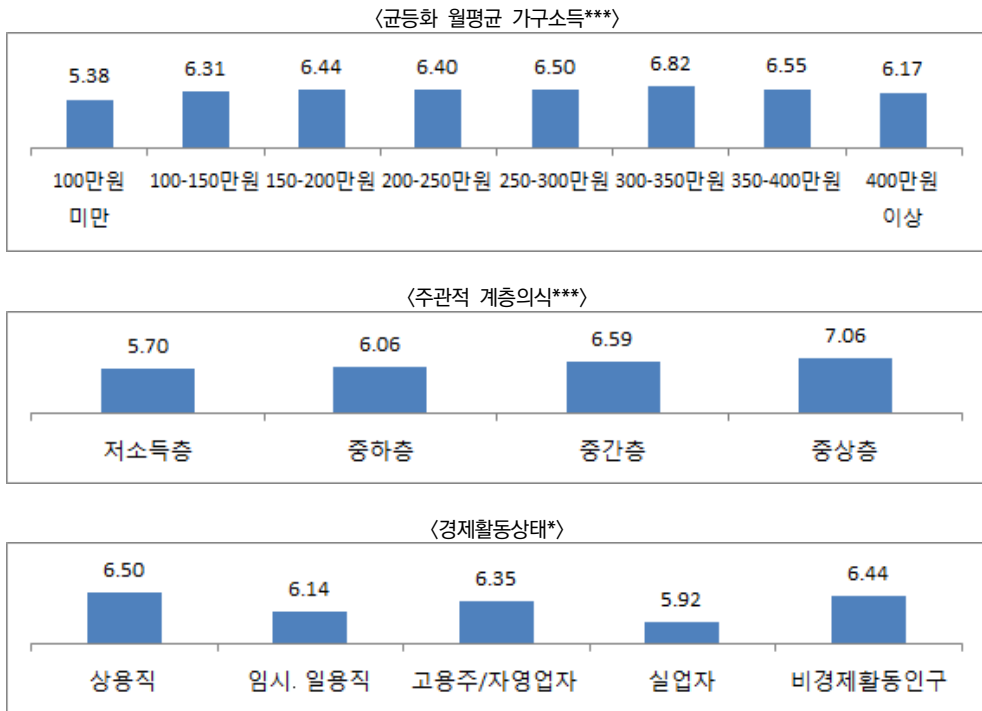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거주지역에의 소속감 및 연대감 수준은 6.41점 수준임.
- 집단별로는 여성(6.50점)에 비해 남성(6.32)이 낮고, 연령대별로는 30대(6.18점)와 60세 이상 노인(6.37점)이 낮음.
- 거주지역별로는 시도의 군부 거주자가 6.66점으로 가장 높고, 시도의 시부 거주자가 6.23점으로 가장 낮음.
 -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자가 소유자가 6.46점으로 가장 높고, 월세 및 기타 거주자가 6.02점으로 가장 낮음.
 - 단,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산의 경제력 뿐 아니라 이동성을 감안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에의 소속감 및 연대감의 해석에서는 주의를 요함.
- 소득수준별로는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소속감 및 연대감이 가장 낮고,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일관되게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실업자의 소속감 및 신뢰감이 5.92점으로 가장 낮고,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소속감 및 신뢰감도 6.14점에 불과함.
- 성별과 연령대별 거주지역에의 소속감 및 연대감을 제외하고, 거주지역, 주거 점유형태,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남.

[그림 4-1-4] 거주지역 소속감 및 연대감

(단위: 점)





주: 1) '전혀 느끼지 않는다(0점)'~'매우 느끼고 있다(10점)'의 11점으로 측정된 서열척도의 평균 점수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는 집단들 간 갈등 수준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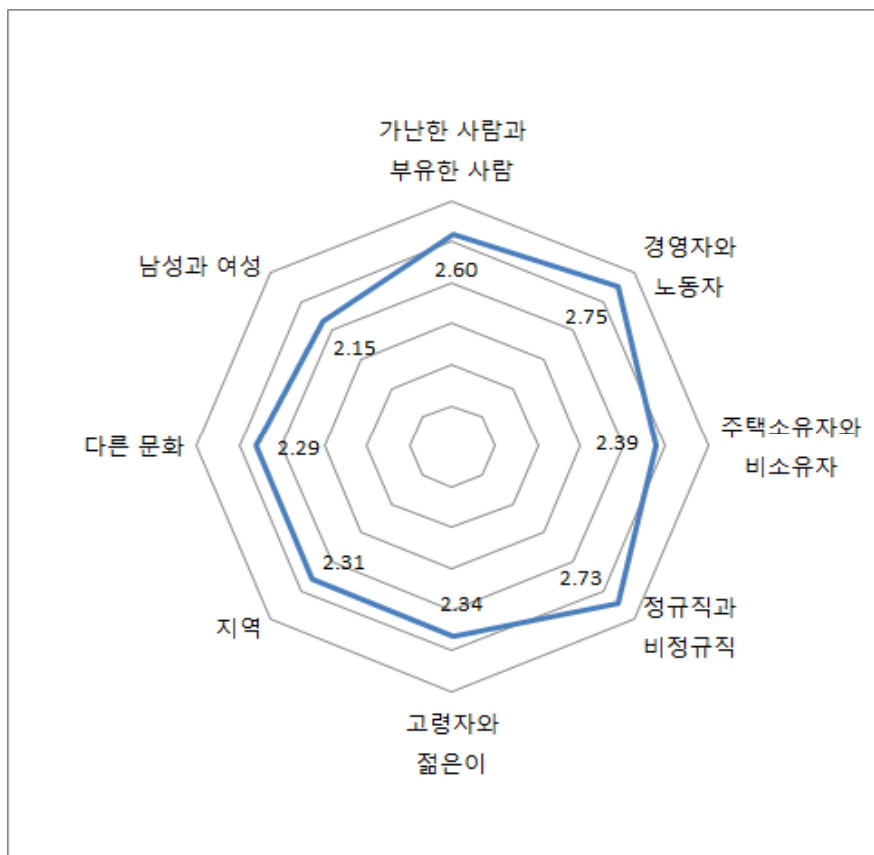
- 경영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2.75점으로 가장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2.73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갈등이 2.6점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갈등, 고령자와 젊은이의 세대갈등, 지역 간 갈등은 각각 2.39점, 2.34점, 2.31점으로 나타났음.
 - 반면,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은 2.15점, 다른 문화와의 갈등은 2.29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주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의 차이는 [그림 4-1-6]에서 제시하고 있음.
 -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계층이 낮아질수록 갈등 수준을 높다고 평가하며 그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은 아님.
- 주거 점유형태에 따른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세 거주자의 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그림 4-1-5] 갈등 수준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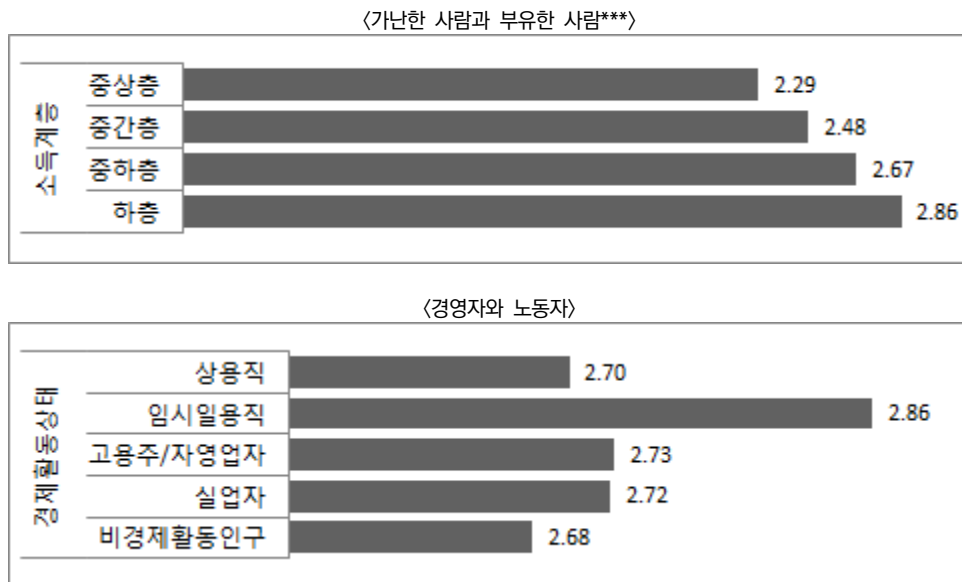
주: '선택할 수 없음(5)'과 '모르겠다(9)'를 제외하고 '갈등이 매우 심하다(1점)'~'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4점)'을 역코딩한 후 계산한 평균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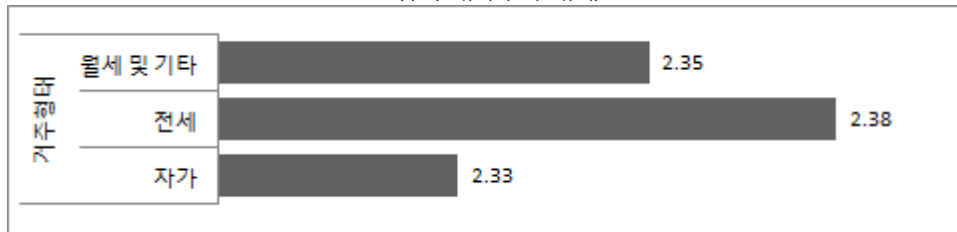
- 연령대별 고령자와 젊은이 간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갈등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님.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와 같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갈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 거주지역별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등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시부 거주자의, 시부 거주자에 비해 군부 거주자의 갈등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문화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군부 거주자의, 군부 거주자에 비해 시부 거주자의 갈등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음.
-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남성과 여성 간 갈등에 대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갈등 수준을 높게 평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4-1-6]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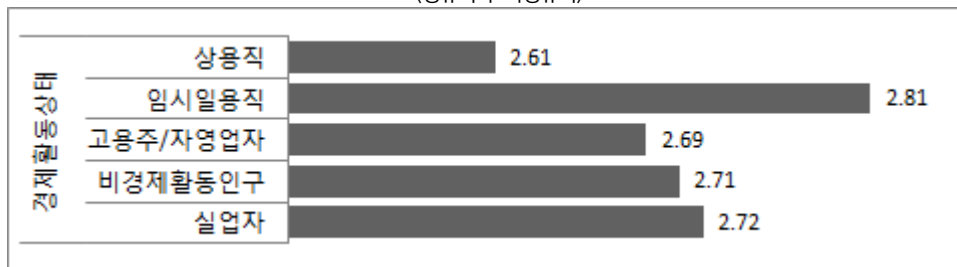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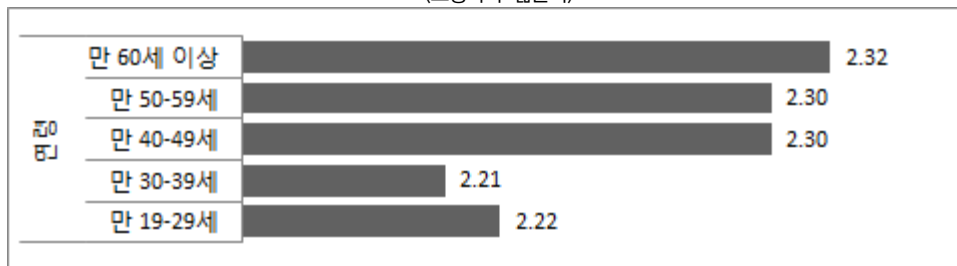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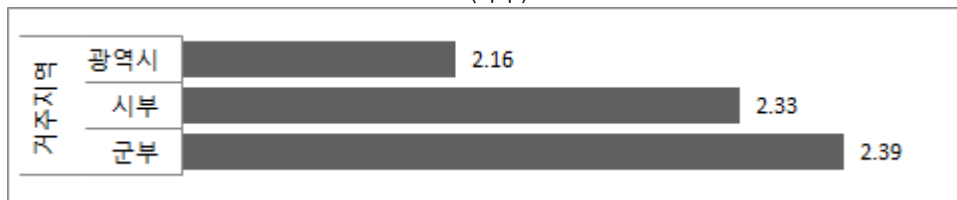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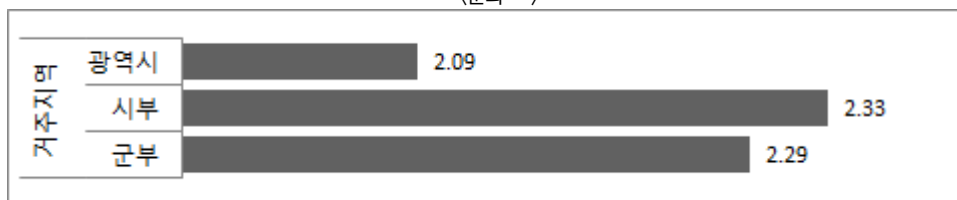
〈고령자와 젊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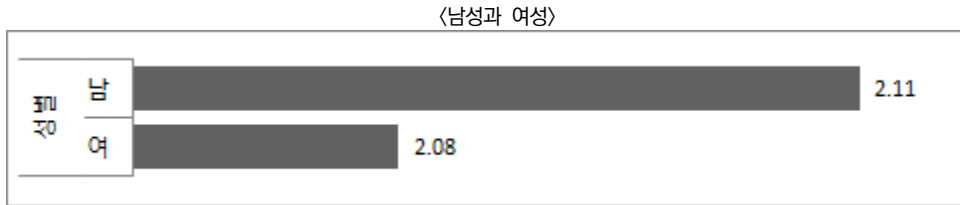


〈지역*〉



〈문화***〉





주: 1) '선택할 수 없음(5)'과 '모르겠다(9)'를 제외하고 '갈등이 매우 심하다(1점)~'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4점)'을 역코딩한 후 계산한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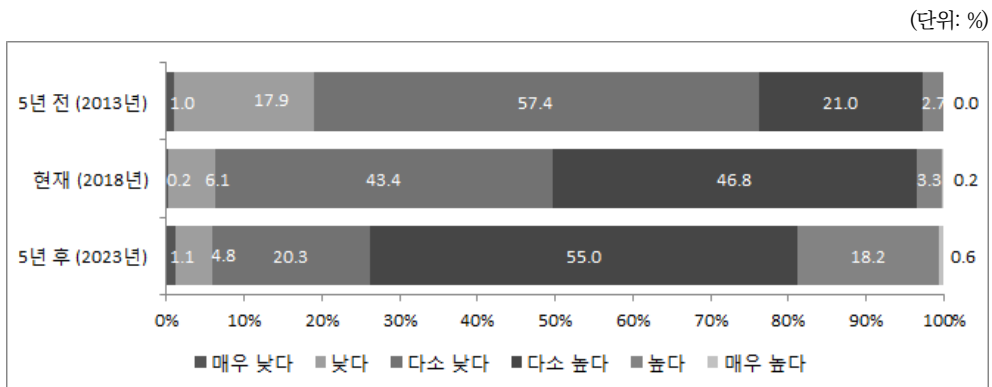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2. 사회보장 인식

□ 5년 전과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 평가와 5년 후 사회보장 수준 전망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부터 ‘다소 낮다’의 부정적인 견해가 감소하고 ‘다소 높다’부터 ‘높다’의 긍정적인 견해가 확대되면서 미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인식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은 거주지역별 사회보장 수준 평가의 차이임.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 현재에 비해 미래 전망이 긍정적이고, 광역시 거주자의 평가가 시부 및 군부 거주자에 비해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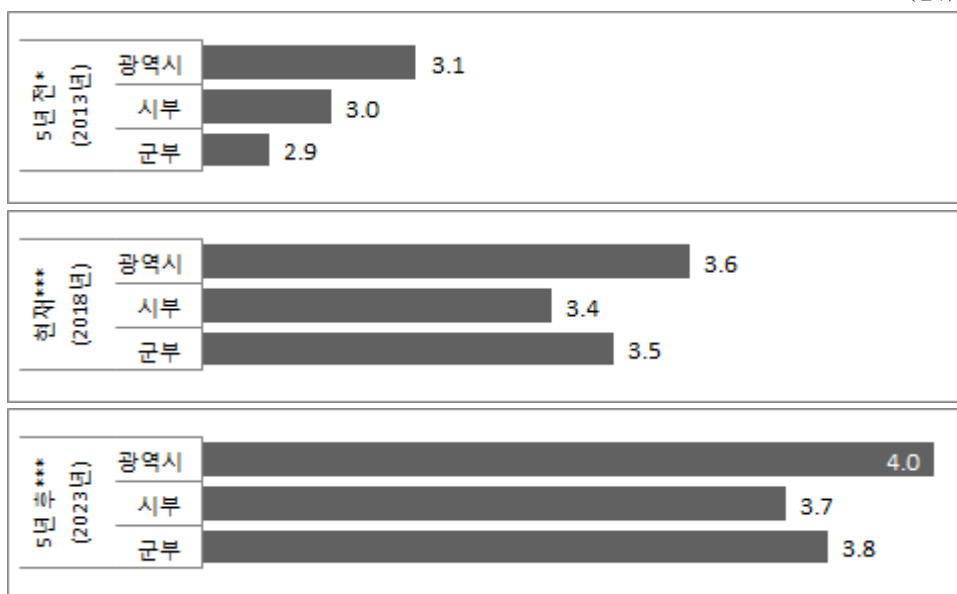
- 5년 전 사회보장 수준 평가에 대해서는 군부 거주자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

이었으나, 현재와 미래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전망에 대해서는 시부 거주자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임.

- 거주지역별 사회보장 수준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남.

[그림 4-1-8] 거주지역별 전반적 사회보장 수준 인식 차이

(단위: 점)



주: 1) '매우 낮다(1점)~'매우 높다(6점)'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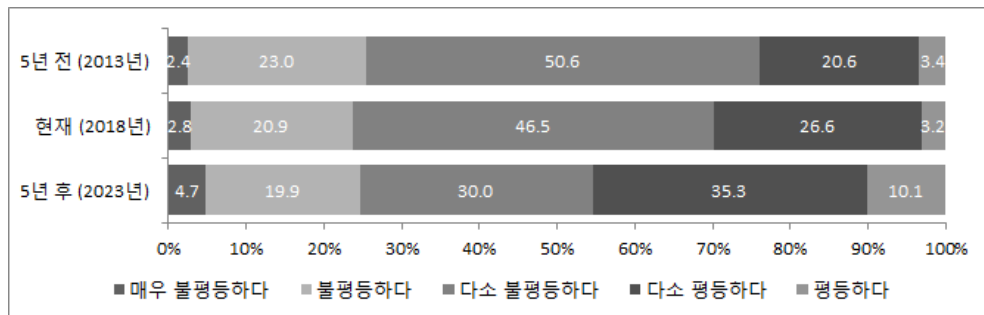
□ 5년 전과 현재의 소득 및 재산 분배 수준 평가와 5년 후 소득 및 재산 분배 수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견해가 다소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불평등하다'와 '다소 불평등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감소하고 '다소 평등하다'와 '평등하다'의 긍정적 견해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 수준 전망과 같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

○ 주관적 소득계층별 재산 및 분배 수준 평가도 과거에 비해 현재, 현재에 비해 미래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 중상층의 긍정적인 인식이 미래에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하층 및 하층의 인식의 확대 폭은 크지 않음. 저소득층의 미래 희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그림 4-1-9] 소득이나 재산이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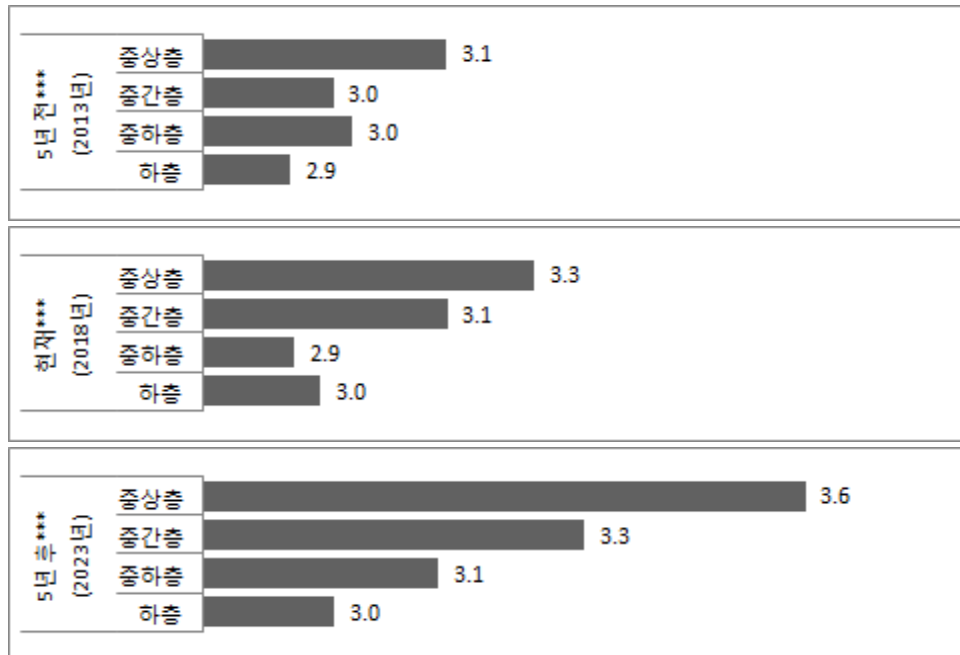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10] 주관적 소득계층별 소득이나 재산이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도 인식 차이

(단위: 점)



주: 1) ‘매우 불평등하다(1점)~‘매우 평등하다(6점)’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걱정거리의 1순위는 압도적으로 일자리(35.9%)인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은 신체와 정신건강(17.1%), 노후생활(15.0%), 자녀교육(14.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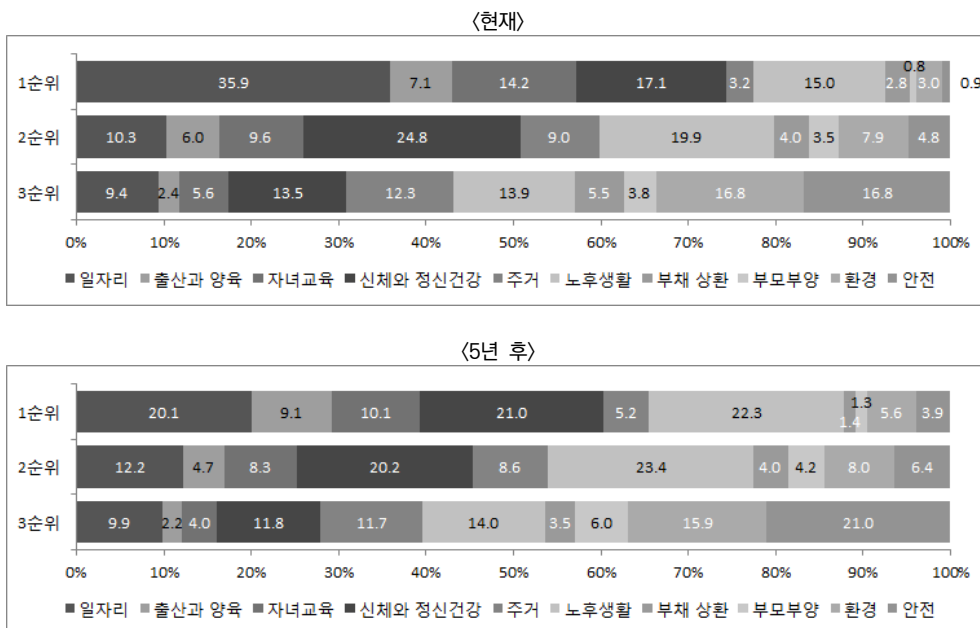
○ 2순위와 3순위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2순위에서는 신체와 정신건강(24.8%), 노후생활(19.9%)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3순위에서는 환경과 안전이 각각 16.8%로 비교적 높음.

○ 5년 후의 걱정거리의 1순위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이 22.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체와 정신건강(21.0%), 일자리(20.1%)의 순임.

- 2순위에서도 노후생활의 비중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와 정신건강이 20.2%로 그 뒤를 이음. 3순위에서는 안전의 비중이 21.0%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11] 현재와 5년 후의 걱정거리와 불안요인

(단위: %)



주: 2순위와 3순위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유효표본의 분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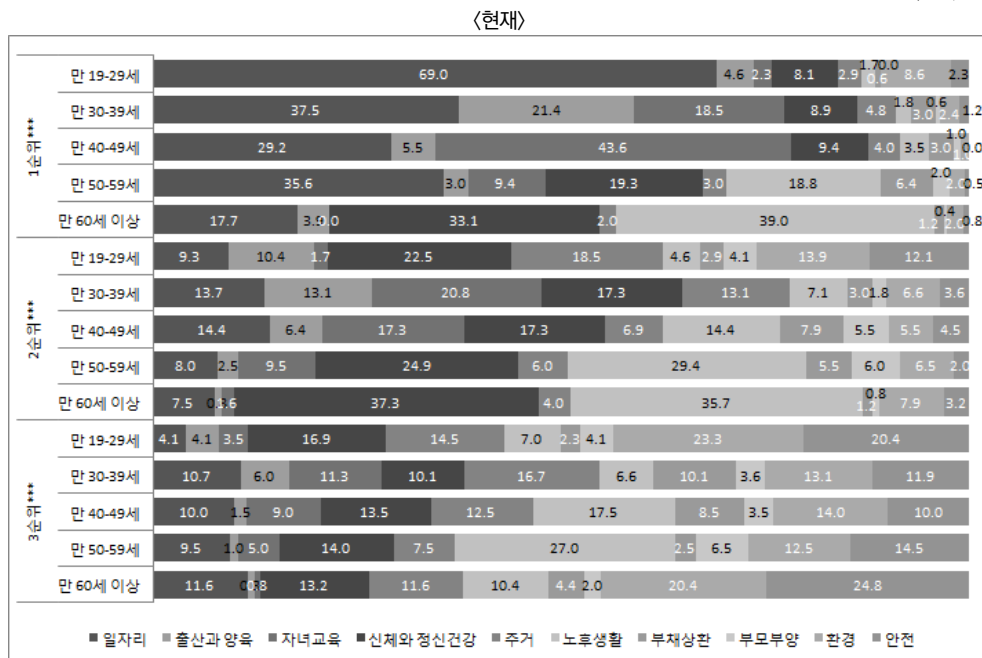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연령대별 현재와 5년 후의 걱정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구체적으로, 20대의 1순위 걱정거리는 현재와 5년 후 모두 일자리가 각각 69.0%와 4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신체와 정신건강이나 노후생활이 현재 33.1%와 39.0%에서 5년 후 39.8%와 34.7%로 높아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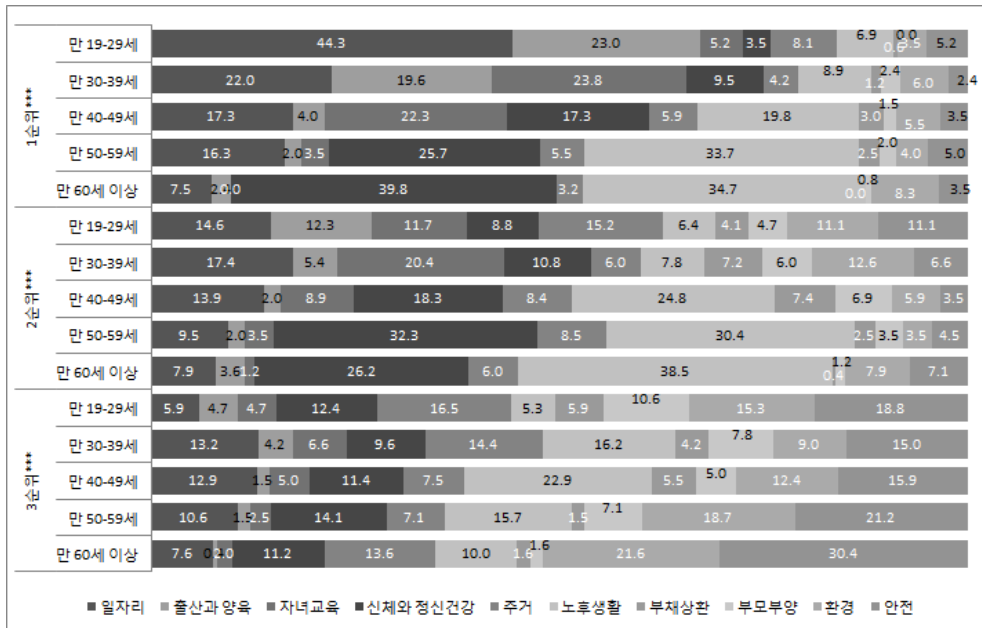
- 30대의 현재 1순위 걱정거리는 일자리(37.5%)를 제외하고 출산과 양육이 21.4%로 높게 나타나는데, 5년 후 걱정거리로는 자녀교육의 비중이 23.8%로 높아짐.
- 40대의 현재 1순위 걱정거리는 자녀교육의 비중이 43.6%로 가장 높고, 5년 후에는 노후생활의 비중이 19.8%로 현재 3.5%에 비해 높아짐.

[그림 4-1-12] 연령대별 현재와 5년 후의 걱정거리와 불안요인

(단위: %)



〈5년 후〉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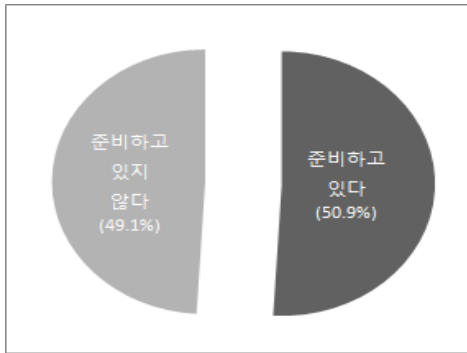
- 50대의 현재 1순위 걱정거리는 일자리(29.2%)를 제외하고 신체와 정신건강 및 노후생활의 비중이 각각 19.3%와 18.8%로 높지만, 5년 후에는 노후생활의 비중이 33.7%로 높아짐.
-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에 따른 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접근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 다음은 일반국민의 노후준비 정도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곧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이라는 의미임.

○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491명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8.9%로 높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도 34.6%에 이룸.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2.0%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1-13] 노후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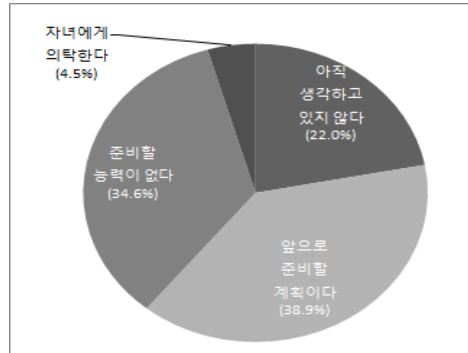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14] 노후 준비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주: 표본크기는 앞의 그림에서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491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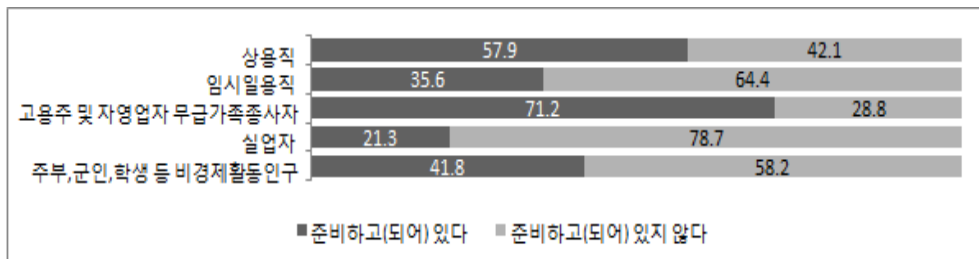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노후 준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71.2%와 상용직 근로자의 57.9%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64.4%와 실업자의 78.7%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불안정 노동시장에 노출된 집단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인할 수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41.8%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나, 생애주기상의 노후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과 가구의 주소득자의 부양가구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주부, 학생 등을 포함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4-1-15] 경제활동상태별 노후 준비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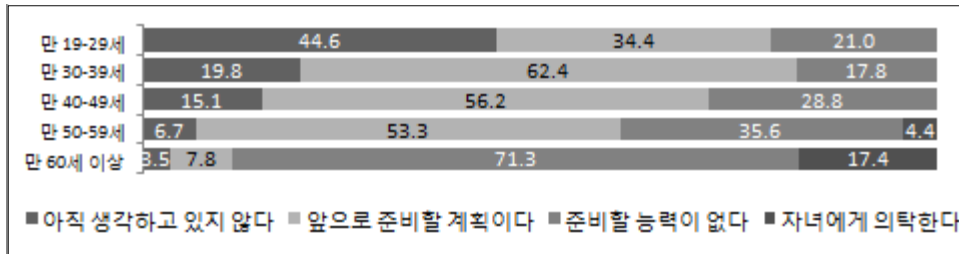


주: 경제활동상태별 노후 준비 정도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20대의 경우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은 반면, 30~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4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의 경우 71.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의 경우, ‘자녀에게 의탁한다’는 응답도 17.4%로 낮지 않게 나타남.

[그림 4-1-16] 연령대별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주: 1) 표본크기는 노후를 준비하고(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491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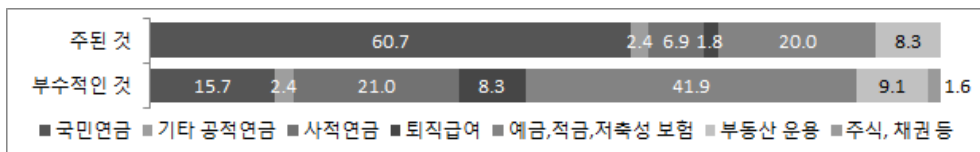
2) 연령대별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 $p < 0.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는 응답한 509명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이 20.0%이고, 부동산 운용이 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부수적인 방법은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이 41.9%로 가장 높고, 사적 연금이 21.0%로 나타남.

[그림 4-1-17] 노후 준비 방법

(단위: %)



주: 표본크기는 노후를 준비하고(되고) 있다고 응답한 50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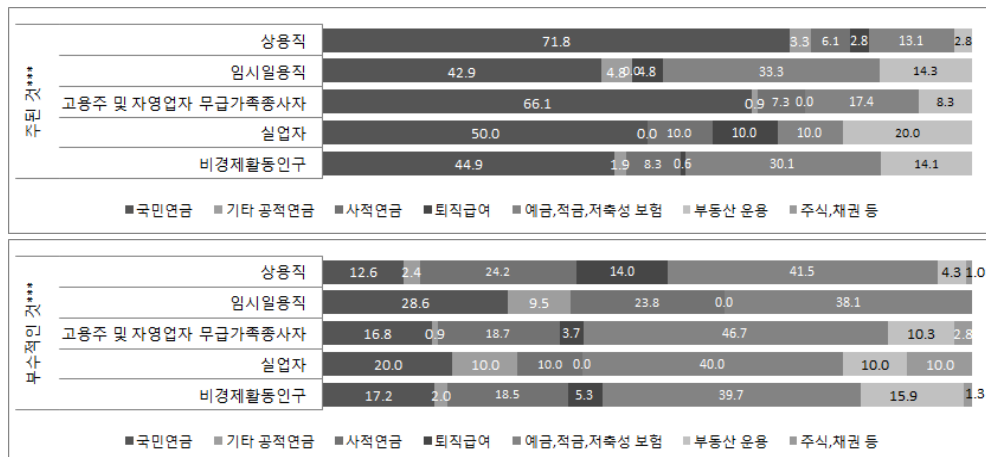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후 준비 방법은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상용직 근로자와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나타났고, 응답률은 각각 71.8%와 66.1%임. 이들의 부수적인 방법은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이 41.5%와 49.7%로 높게 나타남.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2.9%)로 나타났으나,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의 응답률도 33.3%로 나타나 낮지 않음. 이들의 부수적인 노후 준비 방법도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의 응답률이 38.1%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또한 28.6%와 2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이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9%로 가장 높고, 이들의 부수적인 방법 또한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이 39.7%로 높게 나타남.
- 단,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실업자의 유효표본이 10명,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4-1-18] 경제활동상태별 노후 준비 방법

(단위: %)



주: 1) 표본크기는 노후를 준비하고(되고) 있다고 응답한 50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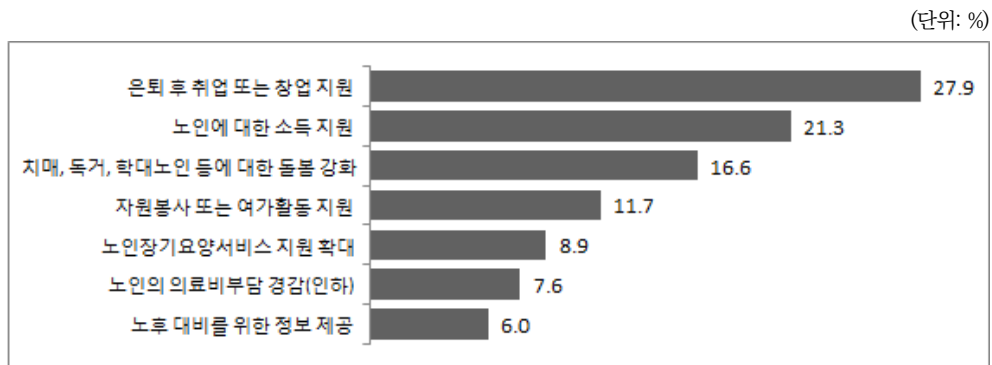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은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임.

○ 은퇴 후 취업 및 창업 지원(27.9%)과 소득 지원(21.3%) 등 생계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고, 돌봄 강화(16.6%), 여가활동 지원(11.7%), 장기요양서비스 확대(8.9%) 등 생활지원에 대한 선호 또한 비교적 높음.

[그림 4-1-19]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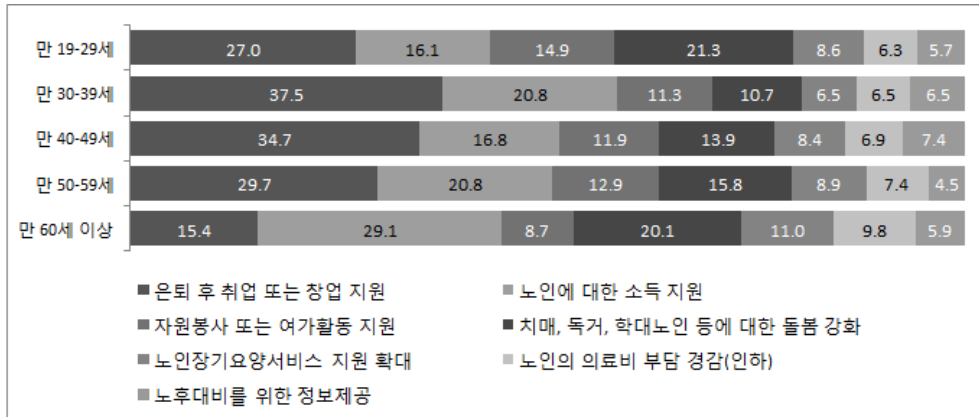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연령대별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특히, 60세 이상 노인 집단의 29.1%가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선호하고,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의 응답률이 2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인 50대와 40대, 그리고 30대는 각각 29.7%, 34.7%, 37.5%가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정책을 선호하고,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의 응답률도 20.8%와 16.8%, 2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20대 또한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27.0%로 가장 높으나, 다음 순위는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21.3%)로 나타났음.
-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경향을 차이는 노년기를 직, 간접 체험하거나 부양부담으로 수용하는 등 노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1-20] 연령대별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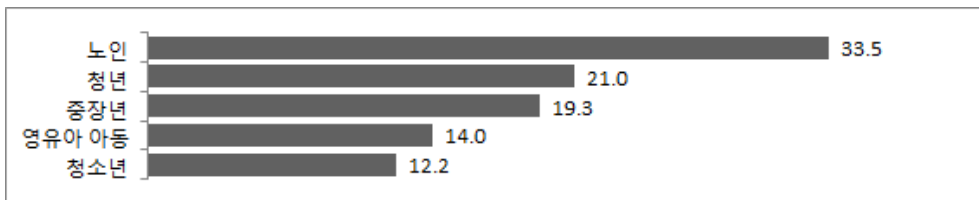
주: 연령대별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인식은 ****p<0.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인구집단으로는 노인이 전체의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21.0%), 중장년(19.3%) 등이 이음.

○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취약집단도 노인이 전체의 33.9%로 가장 높음. 그 뒤는 저소득층이 30.1%,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21.2%, 장애인이 13.9%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은 0.9%에 불과함.

[그림 4-1-21]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 인구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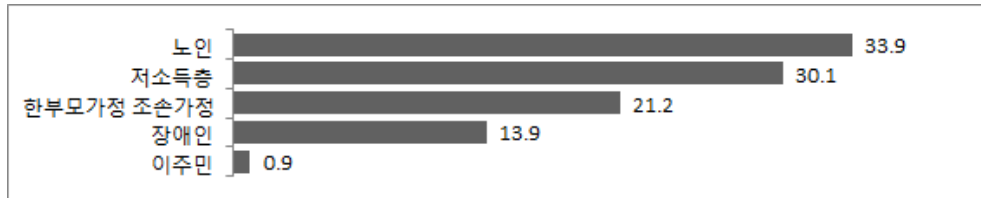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22]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 취약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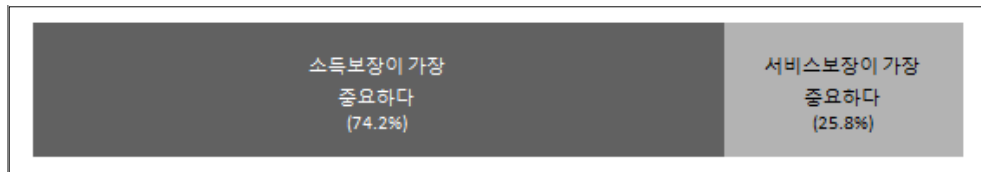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응답자 4명 중 3명(74.2%)은 서비스보장에 비해 소득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른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전반적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30대(32.7%)와 40대(28.7%), 60대 이상(26.4%) 집단에서 서비스보장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23] 소득보장 vs. 서비스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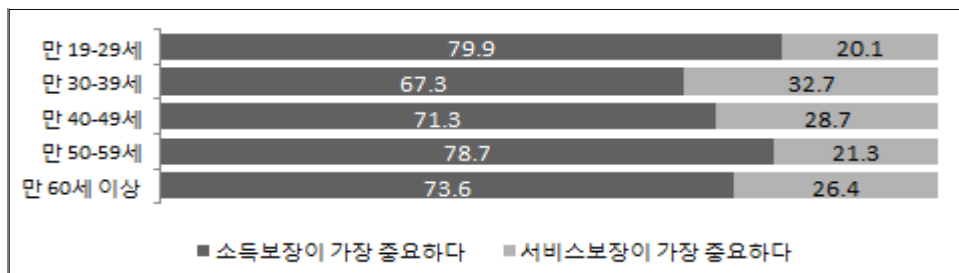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24] 연령대별 소득보장 vs. 서비스보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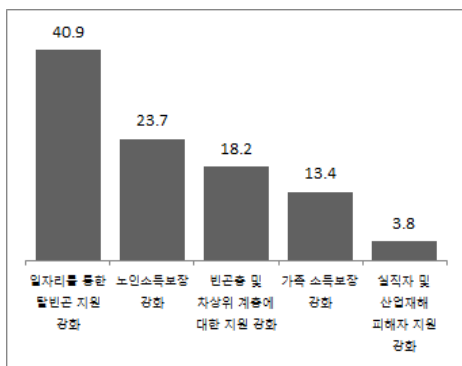


주: 연령대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선호는 *p<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확대 등 노인소득보장 강화가 23.7%로 그 뒤를 이음.
- 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고용분야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분야가 27.2%로 두 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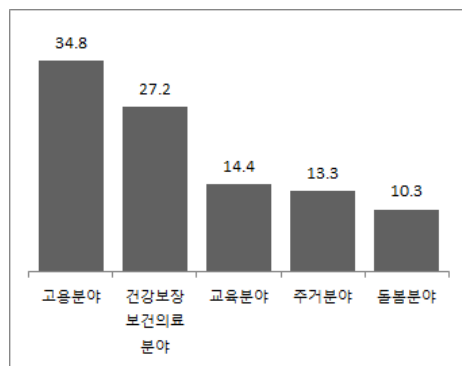
[그림 4-1-25] 향후 5년 중점 소득보장 분야

(단위: %)



[그림 4-1-26] 향후 5년 중점 서비스보장 분야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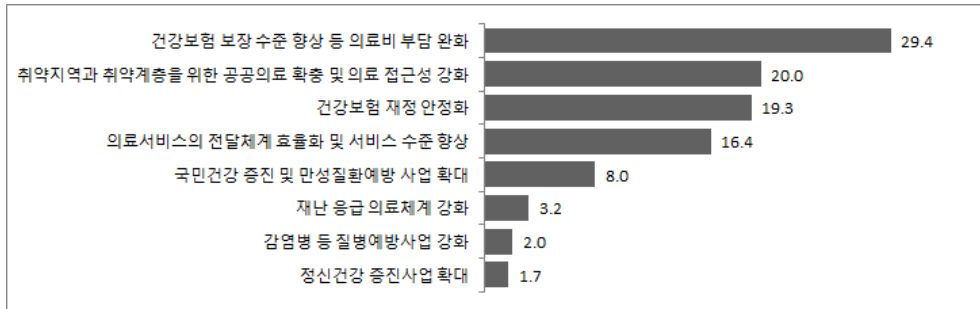
□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가 전체의 29.4%로 높게 나타나고,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20.0%),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9.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16.4%)이 그 뒤를 이음.

○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상층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선호하는 응답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중간층, 중하층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응답이 30.4%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하층은 상대적으로 이용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접근성 강화를 선호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계층별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응답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1-27]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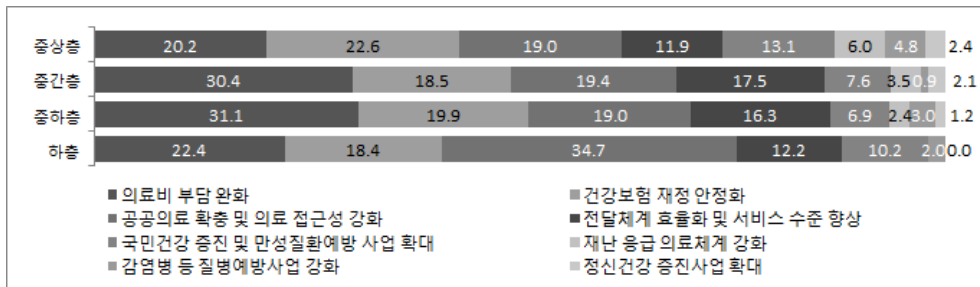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28] 주관적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단위: %)



주: 주관적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인식은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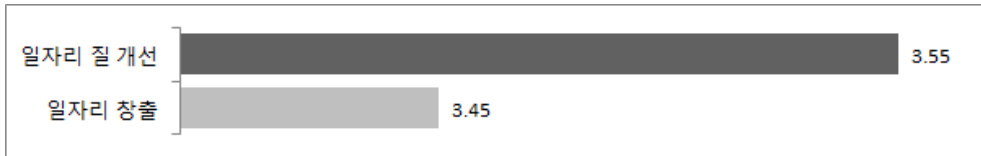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중에서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선호가 3.55점(가중평균)으로 다소 높지만, 일자리 창출의 3.45점(가중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하층과 중하층의 경우, 51% 이상이 일자리 창출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과 중상층은 일자리 질 개선을 선택한 응답이 각각 56.9%, 65.5%로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응답 경향은 계층별 생활경험과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4-1-29] 일자리 창출 vs. 일자리 질 개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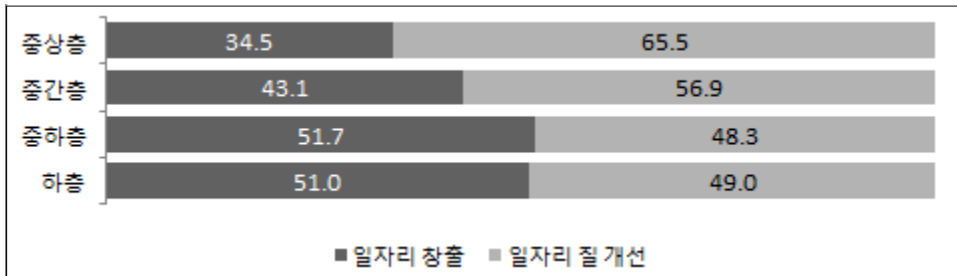
주: 1)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1점)' ~ '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6점)'의 6점 리커트척도임.

2)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6점)'을 1점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1점)'을 6점으로 역코딩하여 계산하고, 일자리 질 개선은 원래의 점수대로 계산하여 응답 수준의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값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30]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창출 vs. 일자리 질 개선

(단위: %)



주: 1) 일자리 질 창출은 "1점(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3점"의 합계이고, 일자리 질 개선은 "4점~6점(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의 합계로, 세부사항은 부록 해당 표 참고

2)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선호는 *** $p < 0.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대상 집단은 청년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23.8%), 중장년(17.5%), 여성(13.1%)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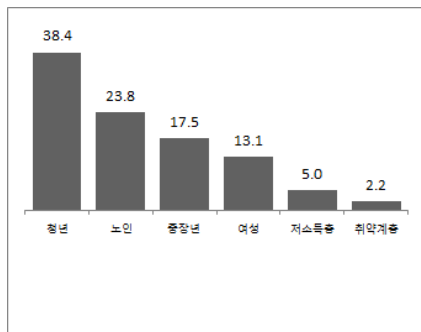
-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집단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중상층과 중간층의 40% 이상이 청년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하층과 하층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4.4%, 3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우선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가 27.9%로 가장 높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 제고(21.2%),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13.9%)가 그 뒤를 이음.

-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질 개선 정책의 선호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상층에 가까울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의 응답률이 높아짐.
- 반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에 가까울수록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이나 은퇴 대기 지원 강화의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또한 하층의 20.4%가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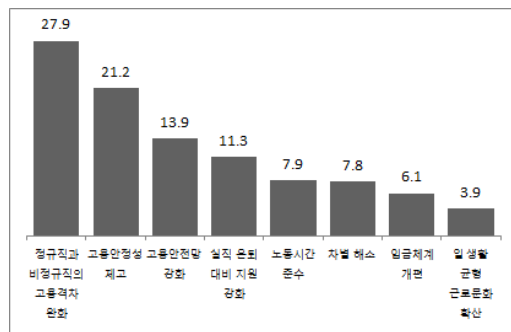
[그림 4-1-31] 일자리 창출 대상 집단

(단위: %)



[그림 4-1-32] 일자리 질 개선 우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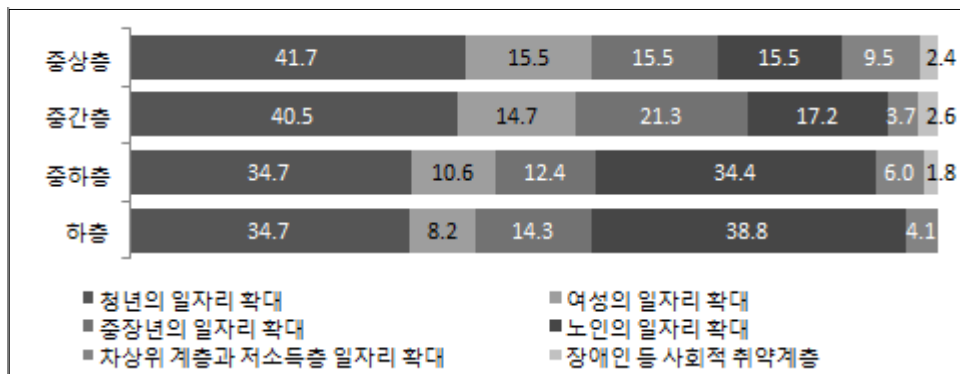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33]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창출 대상 집단

(단위: %)



주: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창출 대상 집단 인식은 ***p<0.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34]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질 개선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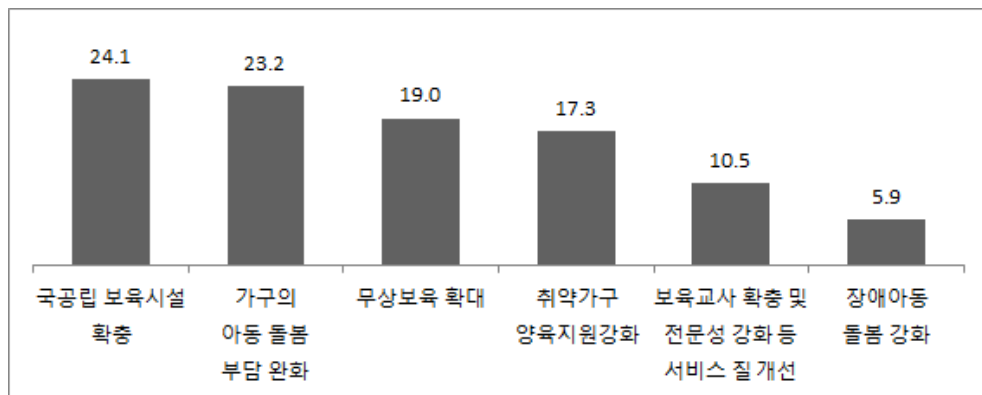
주: 주관적 소득계층별 일자리 질 개선 우선 정책 인식은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육 및 아동 돌봄 영역의 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방과후 학교 등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23.2%), 무상보육 확대(19.0%),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강화(17.3%)가 그 뒤를 이음.

[그림 4-1-35] 보육 및 아동 돌봄 우선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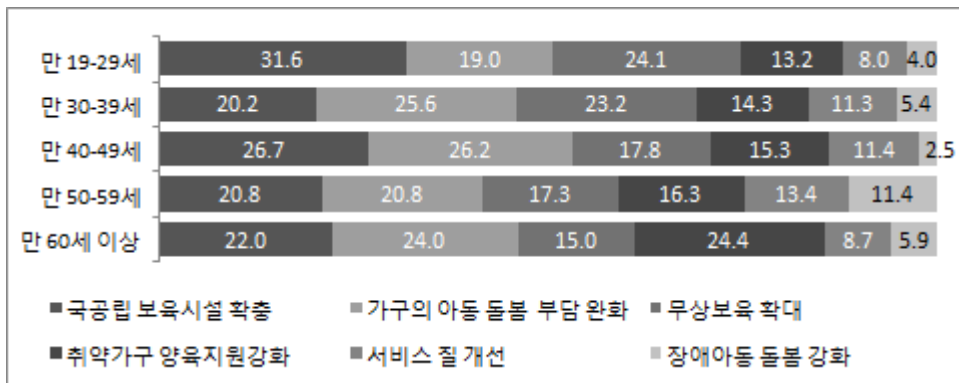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연령대별 보육 및 아동 돌봄 우선 정책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0대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응답률이 31.6%로 가장 높는데, 가구 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와 40대의 경우, 방과후 학교 등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의 응답률이 25.6%와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50대와 60대 이상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의 응답률이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1-36] 연령대별 보육 및 아동 돌봄 우선 정책

(단위: %)



주: 연령대별 보육 및 아동 돌봄 우선 정책 인식은 *** $p < 0.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교육 정책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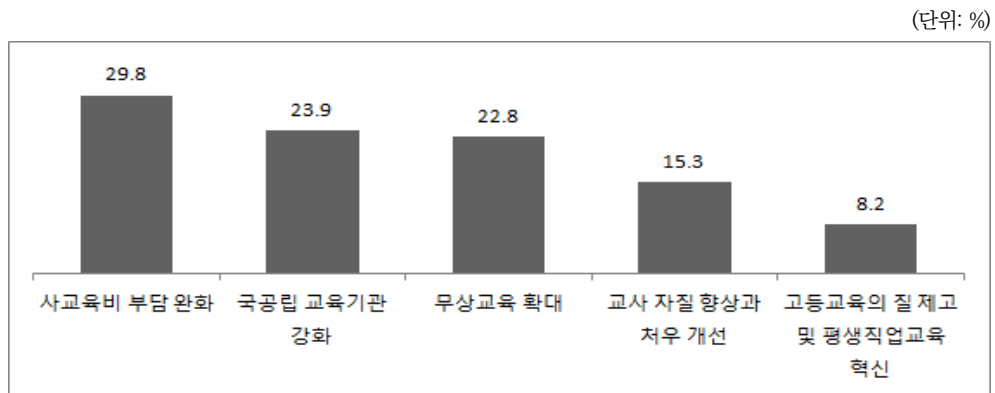
○ 국공립 교육기능 강화(23.9%), 무상교육 확대(22.8%),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15.3%)이 그 뒤를 이음.

○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 우선 정책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중졸 이하의 응답자에서는 무상교육 확대를 선호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34.8%로 가장 높은 데에 비해, 고졸과 대졸 이상의 응답자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비율이 31.9%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졸과 대졸 이상 응답자의 경우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의 응답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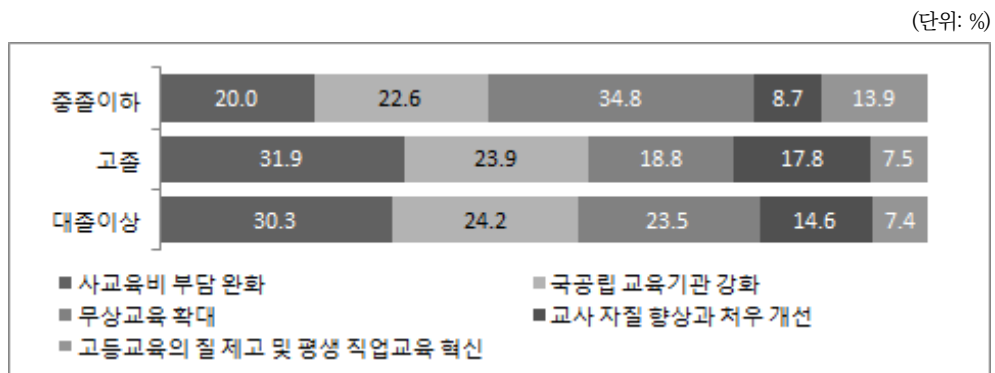
각각 17.8%와 14.6%로 나타나 중졸 이하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졸 이하의 응답자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의 응답률이 13.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37] 교육 우선 정책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38] 교육수준별 교육 우선 정책



주: 교육수준별 교육 정책 인식은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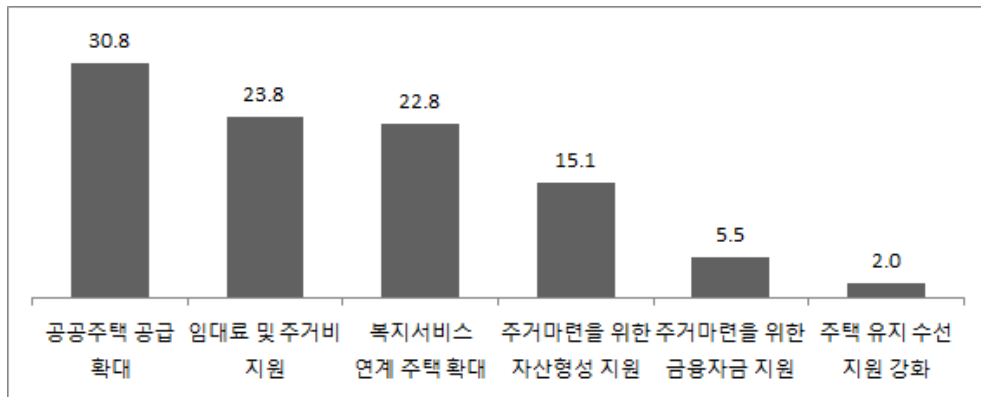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주거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임대료 주거비 지원(23.8%),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22.8%), 주거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15.1%)이 그 뒤를 이음.

[그림 4-1-39] 주거 취약가구 우선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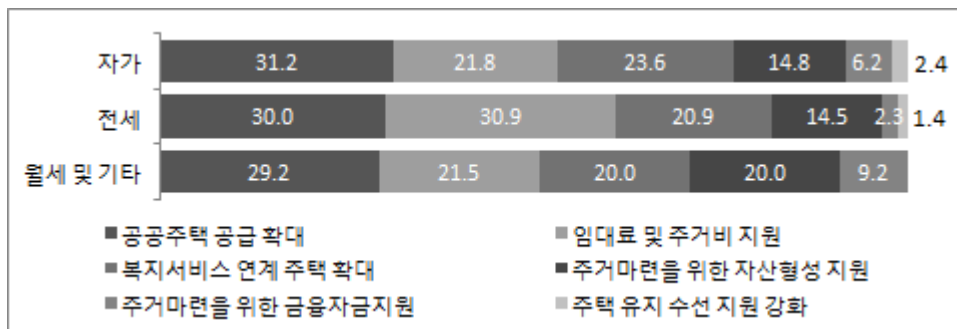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주거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 취약가구 우선 정책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모든 집단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가구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의 응답률이 10%p 정도 높게 나타남.

- 반면, 월세 및 기타의 경우 자가나 전세 거주자에 비해 임대나 자가 등 주거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4-1-40] 주거 점유형태별 주거 취약가구 우선 정책

(단위: %)



주: 주거 점유형태별 주거 취약가구 우선 정책 인식은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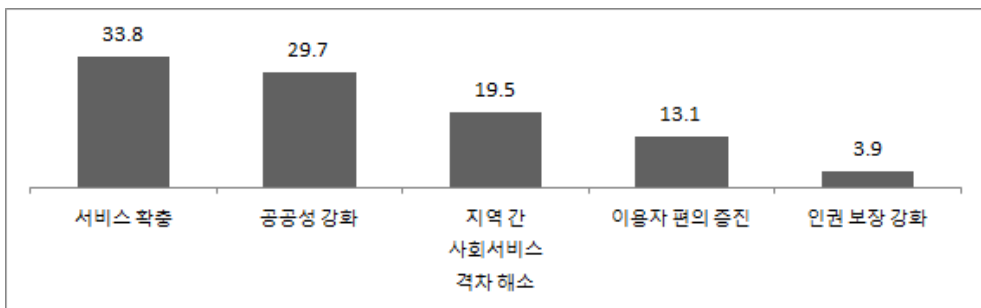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에서는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29.7%), 지역 간의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19.5%),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13.1%)의 순으로 나타남.

○ 주관적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상층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39.3%)와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27.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4-1-41]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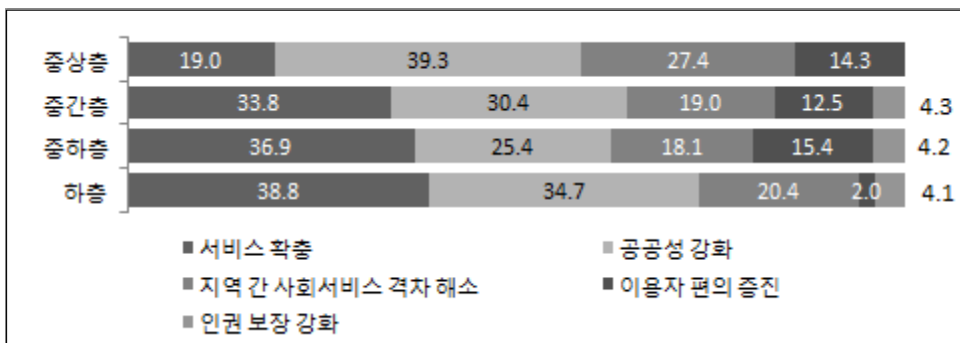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42] 주관적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

(단위: %)



주: 주관적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중점 정책 인식은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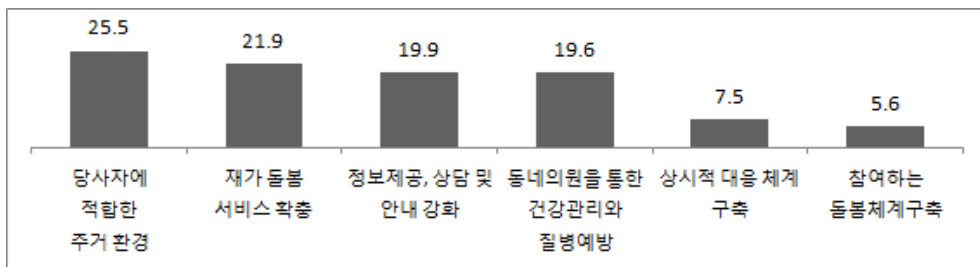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제공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21.9%),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19.9%), 동네의원을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19.6%)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규모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의 응답률이 17.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4-1-43]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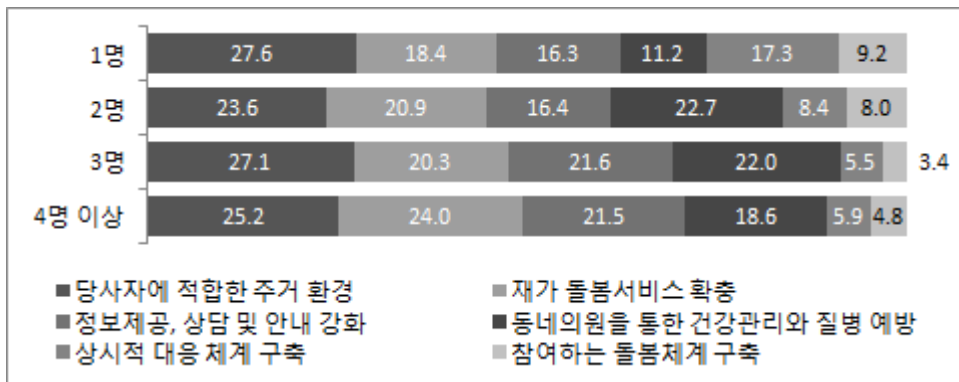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44] 가구규모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

(단위: %)



주: 가구규모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 선호는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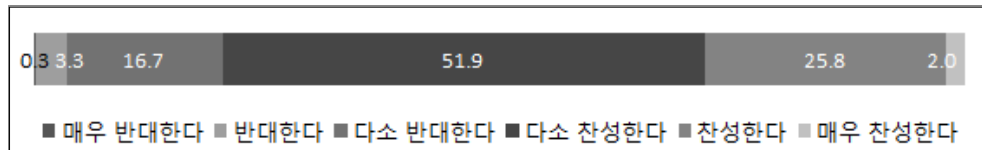
3. 사회보장재정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는 데에 반대하는지 혹은 찬성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소 찬성한다’가 51.9%, ‘찬성한다’가 25.8%, ‘매우 찬성한다’가 2.0%로 전반적인 찬성 의견이 전체의 80%에 가깝게 높게 나타남.

[그림 4-1-45]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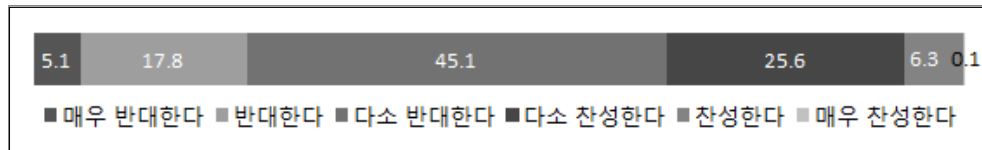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그렇다면,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한다’가 5.1%, ‘반대한다’가 17.8%, ‘다소 반대한다’가 45.1%로 부정적인 견해가 68.0%에 이릅니다.

[그림 4-1-46]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 추가 납부 의사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 표는 사회보장 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과 이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 의사를 비교한 것으로, 두 질문에서 동일한 수준의 응답을 한 경우 사회보장 정책 확대에 대응하는 자세 측면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⁷⁾

7)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바퀴의 자전거를 상상해보자. 여기서 사회보장 확대는 자전거의 앞바퀴이고, 조세부담 의사는 자전거의 뒷바퀴임.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같으면 자전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굴리기 용이함. 하

- 그렇다면, 표의 하단 왼쪽의 삼각형에 포함된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추가 조세 부담 의사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보장 확대 응답이 조세부담 응답과 동일한 응답자는 34.6% 수준인데, 큰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62.6%, 즉 응답자 3명 중 2명 수준에 육박함. 그리고 조세부담 응답이 사회보장 확대의 응답에 비해 높은 나머지 집단은 2.8%에 불과함.
- 즉,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또 다른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4-1-2〉 조세 환상: 사회보장 확대 vs. 추가 조세 부담 의사

(단위: %)

구분		조세부담의사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사회보장 확대	매우 반대한다	0.2	0.0	0.0	0.0	0.1	0.0
	반대한다	0.7	2.1	0.4	0.1	0.0	0.0
	다소 반대한다	1.3	3.8	10.0	1.6	0.0	0.0
	다소 찬성한다	1.5	7.2	25.5	17.1	0.6	0.0
	찬성한다	1.3	4.2	8.8	6.4	5.1	0.0
	매우 찬성한다	0.1	0.5	0.4	0.4	0.5	0.1
구분		비율					
사회보장확대 > 조세부담의사		62.6					
사회보장확대 = 조세부담의사		34.6					
사회보장확대 < 조세부담의사		2.8					

주: 상단 표의 하단 왼쪽 삼각형에 있는 집단은 하단 표의 “사회보장 확대 > 조세부담의사”에, 음영표시된 칸에 있는 집단은 “사회보장 확대=조세부담의사”에, 나머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집단은 “사회보장 확대 < 조세부담의사”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앞선 질문에서 사회보장 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응답자들이 선택한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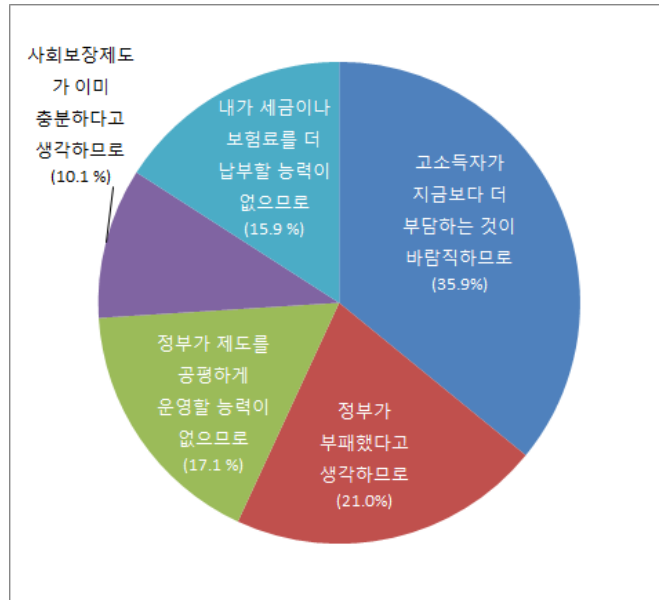
○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높고,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1.0%, ‘정부가 제도를

지만, 자전거의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크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어렵다.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크면 안정감이 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17.1%로 그 뒤를 이음.

[그림 4-1-47]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 추가 납부 반대 이유

(단위: %)



주: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이나 보험료 추가 납부 의사”에서 반대를 선택한 68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가난의 이유가 개인의 책임인지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가깝다는 응답이 63.1%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응답 36.9%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4-1-48] 가난의 이유: 개인의 책임 vs. 사회구조적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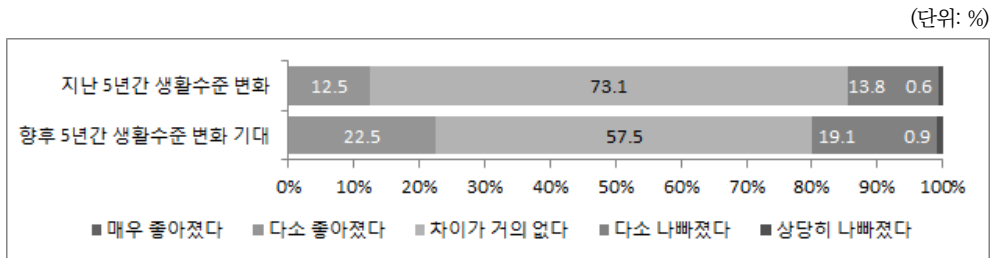
주: 전적으로 개인 책임은 “1점(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때문이다)~3점”의 합계이고, 일자리 질 개선은 ‘4점~6점(전적으로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이다)’의 합계로, 세부사항은 부록 해당 표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4. 미래전망

□ 지난 5년간 생활수준 변화 경험과 향후 5년간 생활수준 변화 기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73.1%에서 57.5%로 줄어듦, ‘다소 좋아졌다’가 12.5%에서 ‘다소 좋아질 것이다’가 22.5%로, ‘다소 나빠졌다’가 13.8%에서 ‘다소 나빠질 것이다’가 19.1%로 각각 증가해 균형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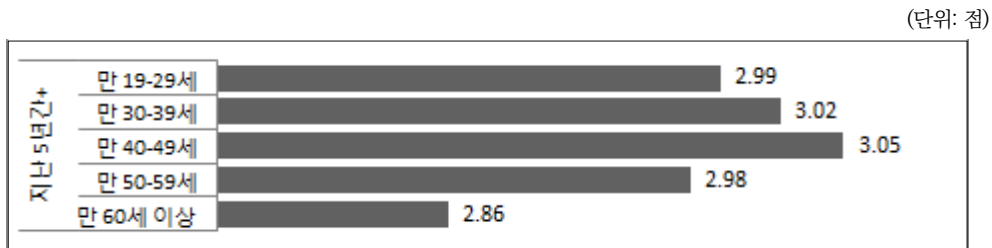
[그림 4-1-49] 생활수준 변화 경험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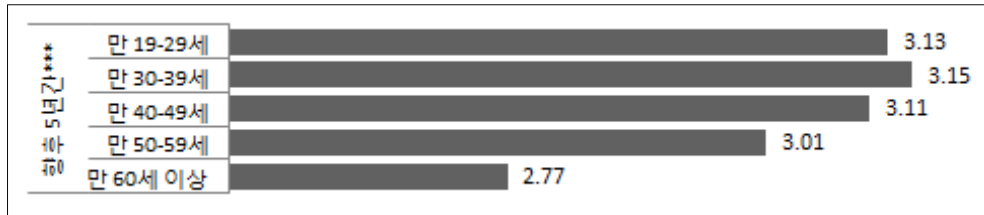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 그림은 지난 5년간 및 향후 5년간 생활수준 변화 경험과 전망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임.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 집단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연령대에 따라 40대의 지난 5년 간 생활수준 변화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긍정적인 반면, 향후 5년 간 생활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50] 연령대별 생활수준 변화 경험과 전망





주: 1) '매우 나빠졌/질 것이다(1점)'~'매우 좋아졌/질 것이다(5점)'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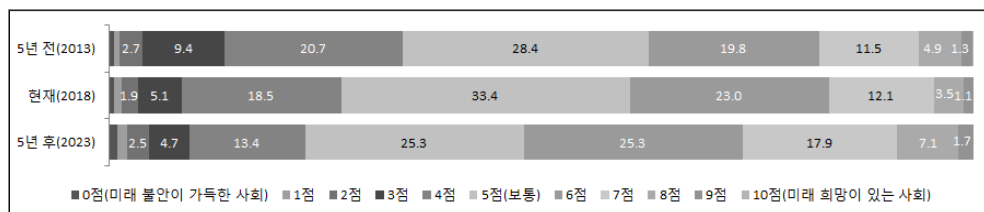
□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인지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 5년 전과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5년 후를 전망한 결과,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에 가까운 점수의 응답률이 점차 증가해옴.

○ 전반적으로 미래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 주관적 소득계층별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남.

-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유지되면서, 중상층의 긍정적인 전망이 5년 전 5.3점에서 5년 후 6.1점으로 0.8점 정도 향상되어, 다른 계층에 비해 변화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4-1-51] 우리 사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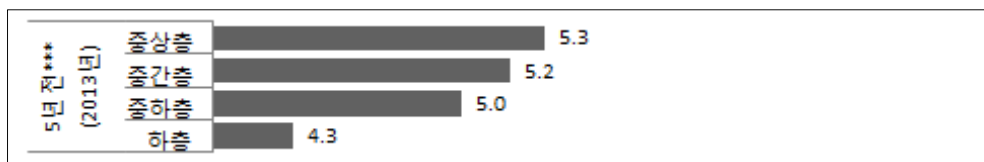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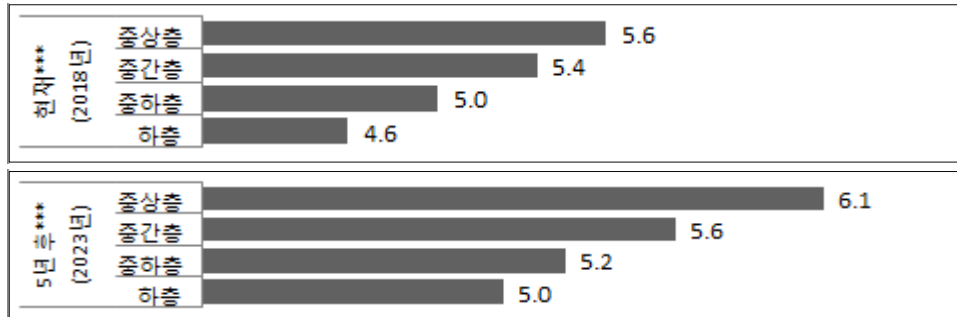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52] 주관적 소득계층별 우리 사회 평가

(단위: %)





주: 1)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1점)'~'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10점)'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2)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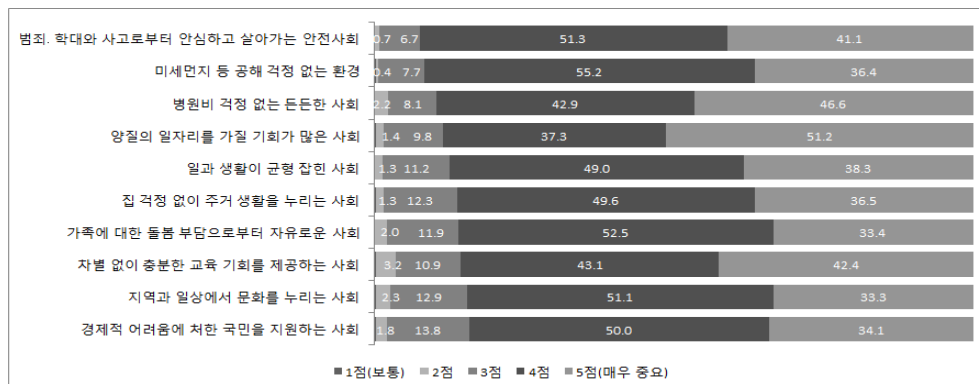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매우 중요하다(5점)'와 '(4점)'을 함께 고려하면, '범죄, 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와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매우 중요하다(5점)'를 중심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범죄, 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 등에 대한 중요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53] 미래 한국의 모습 중요도

(단위: %)



주: 5점(매우 중요하다)과 4점의 합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사회보장 전문가 조사대상자는 총 100명이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분야(상경, 사회, 보건)의 응답자 분포가 유사하도록 조사하고자 하였음.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69명, 여성이 31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30명, 사회계열이 41명, 보건계열이 29명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분야는 상경 33%, 사회 34%, 보건 33%로 조사되었으나, 전공 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별로는 대학 교수가 68명, 연구기관 연구자가 32명으로 나타나고,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도(33명), 보수(17명) 순으로 나타남.

〈표 4-2-1〉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100	100.0
성	남자	69	69.0
	여자	31	31.0
전공	경상계열	30	30.0
	사회계열	41	41.0
	보건계열	29	29.0
소속 기관	대학	68	68.0
	연구기관	32	32.0
정치적 성향	보수	17	17.0
	중도	33	33.0
	진보	50	5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2. 사회 및 사회보장 인식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5점~7점(11점 척도) 사이로 평가하고 있음.

○ 사회 신뢰도는 전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p < 0.1$). 경상계열과 사회계열은 중간 수준인 5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7%, 29.3%로 가장 높은 반면, 보건계열은 그 보다 낮은 3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27.6%로 가장 높음.

〈표 4-2-2〉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단위: %)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전체		0.0	1.0	1.0	15.0	10.0	26.0	18.0	24.0	5.0	0.0	0.0	100.0
성	남자	0.0	1.4	1.4	15.9	11.6	21.7	17.4	24.6	5.8	0.0	0.0	100.0
	여자	0.0	0.0	0.0	12.9	6.5	35.5	19.4	22.6	3.2	0.0	0.0	100.0
전공 +	경상계열	0.0	0.0	3.3	6.7	16.7	36.7	13.3	23.3	0.0	0.0	0.0	100.0
	사회계열	0.0	2.4	0.0	12.2	7.3	29.3	22.0	24.4	2.4	0.0	0.0	100.0
	보건계열	0.0	0.0	0.0	27.6	6.9	10.3	17.2	24.1	13.8	0.0	0.0	100.0
소속 기관	대학	0.0	1.5	0.0	14.7	7.4	25.0	22.1	25.0	4.4	0.0	0.0	100.0
	연구기관	0.0	0.0	3.1	15.6	15.6	28.1	9.4	21.9	6.3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0.0	23.5	0.0	35.3	11.8	23.5	0.0	0.0	0.0	100.0
	중도	0.0	0.0	3.0	15.2	12.1	24.2	15.2	24.2	6.1	0.0	0.0	100.0
	진보	0.0	0.0	0.0	12.0	12.0	24.0	22.0	24.0	6.0	0.0	0.0	100.0

주: 1) '①전혀 믿을 수 없다~⑤보통~⑩매우 믿을 수 있다(11점 척도)'로 측정함.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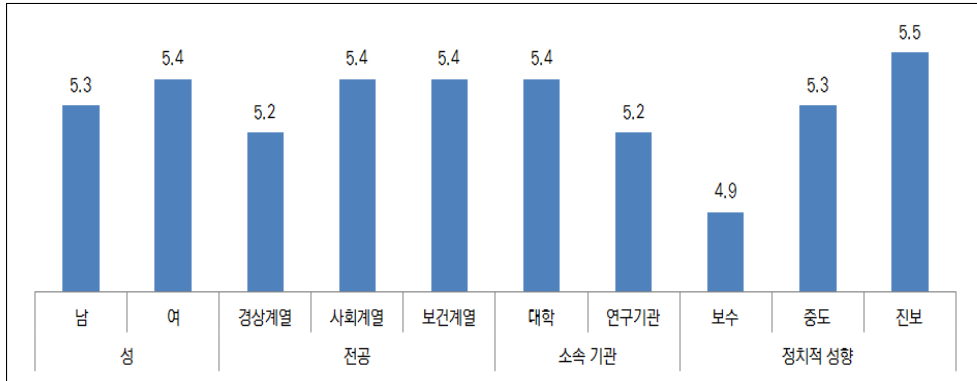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 신뢰 수준을 점수화하면,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신뢰도를 5.3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통'(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성별로는 남성(5.3점), 전공별로는 경상계열(5.2점), 소속기관별로는 연구기관(5.2점), 정치적 성향으로는 보수(4.9점) 전문가들이 사회신뢰 수준을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그림 4-2-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단위: 점)



주: '①전혀 믿을 수 없다~⑤보통~⑩매우 믿을 수 있다(11점 척도)'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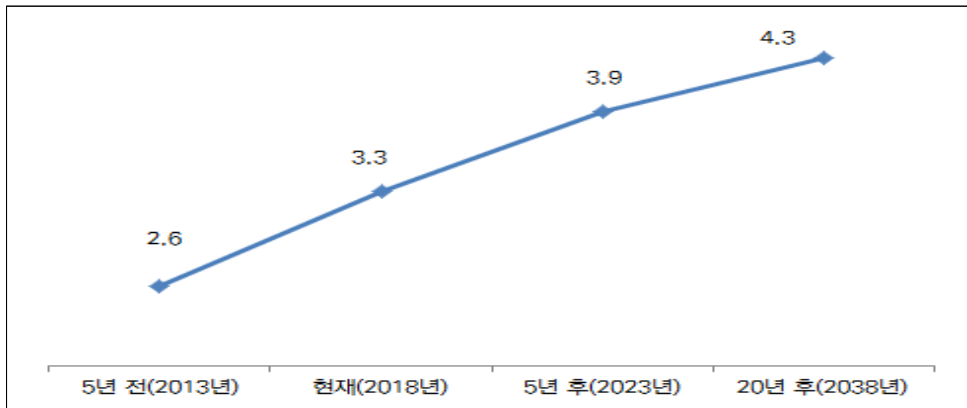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향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대 6점 중 5년 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는 2.6점에 불과했으나, 현재 3.3점, 5년 후 3.9점, 20년 후 4.3점으로 사회보장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4-2-2] 사회보장 수준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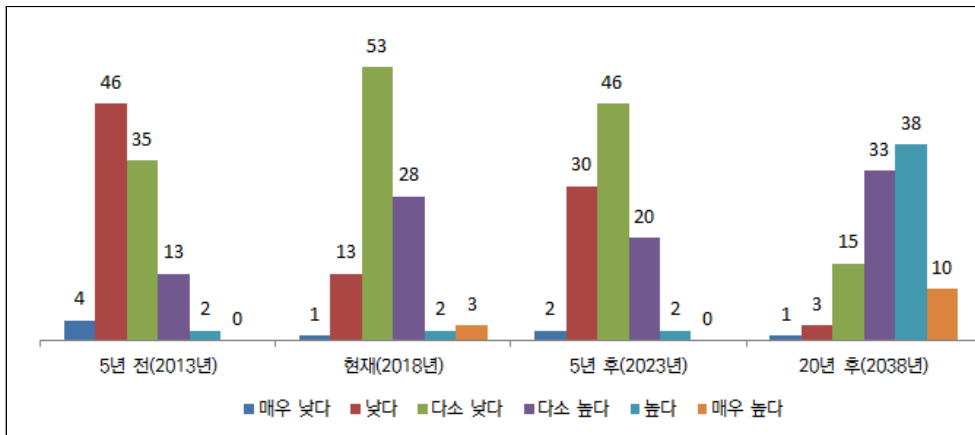
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①매우 낮다~⑥매우 높다'(6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좀 더 세부적으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5년 전 사회보장 수준은 ‘낮다’라고 평가한 전문가가 46%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와 5년 후는 ‘다소 낮다’가 각각 53%, 46%로 가장 많았고, 20년 후는 ‘높다’라고 평가한 전문가가 38%로 가장 많음.

[그림 4-2-3]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전망)

(단위: %)



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①매우 낮다~⑥매우 높다'(6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견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2018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사회계열과 진보성향 전문가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계열 전문가는 2018년 현재 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편('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5%에 불과하나, 보건계열 전문가는 58.6%가 높은 편으로 평가하였고, 진보성향 전문가는 20.0%만이 높은 편으로 평가했으나, 보수성향의 전문가는 70.7%가 높은 편으로 평가함.

- 그러나 이러한 현재 시점의 사회보장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는 20년 후인 2038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음.

- 사회계열은 20년 후 전망에 있어서도 높은 편('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

다')으로 응답한 비율이 73.1%로 경상 및 보건계열 전문가의 전망(86.7%, 86.2%)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진보 성향 전문가는 현 사회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경향과 달리 20년 후 사회보장수준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전문가(76.4%)보다 다소 높은 78.0%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2-3〉 전문가 특성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전망)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현재 (2018)	전체		1.0	13.0	53.0	28.0	2.0	3.0	100.0
	성	남자	1.4	13.0	52.2	27.5	2.9	2.9	100.0
		여자	0.0	12.9	54.8	29.0	0.0	3.2	100.0
	전공 ***	경상계열	3.3	6.7	63.3	20.0	6.7	0.0	100.0
		사회계열	0.0	26.8	53.7	17.1	0.0	2.4	100.0
		보건계열	0.0	0.0	41.4	51.7	0.0	6.9	100.0
	소속 기관	대학	0.0	13.2	47.1	32.4	2.9	4.4	100.0
		연구기관	3.1	12.5	65.6	18.8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29.4	47.1	11.8	11.8	100.0
		중도	0.0	6.1	60.6	30.3	0.0	3.0	100.0
		진보	2.0	22.0	56.0	20.0	0.0	0.0	100.0
20년 후 (2038)	전체		1.0	3.0	15.0	33.0	38.0	10.0	100.0
	성	남자	1.4	1.4	13.0	31.9	39.1	13.0	100.0
		여자	0.0	6.5	19.4	35.5	35.5	3.2	100.0
	전공 ***	경상계열	0.0	0.0	13.3	36.7	36.7	13.3	100.0
		사회계열	0.0	2.4	24.4	43.9	26.8	2.4	100.0
		보건계열	3.4	6.9	3.4	13.8	55.2	17.2	100.0
	소속 기관	대학	1.5	4.4	14.7	29.4	38.2	11.8	100.0
		연구기관	0.0	0.0	15.6	40.6	37.5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11.8	5.9	29.4	29.4	17.6	100.0
		중도	0.0	3.0	9.1	33.3	39.4	15.2	100.0
		진보	0.0	0.0	22.0	34.0	40.0	4.0	100.0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지난 4차례 진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직접적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전 년도에 비해 2018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복지)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높다('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33%로 이전 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 수준을 점수화해도 3.26점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연도별 사회보장(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구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매우 낮다	4.0	3.0	5.0	4.0	1.0
낮다	29.0	32.0	34.0	38.0	13.0
다소 낮다	45.0	46.0	39.0	44.0	53.0
다소 높다	20.0	16.0	18.0	12.0	28.0
높다	2.0	3.0	4.0	2.0	2.0
매우 높다	0.0	0.0	0.0	0.0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87	2.84	2.82	2.70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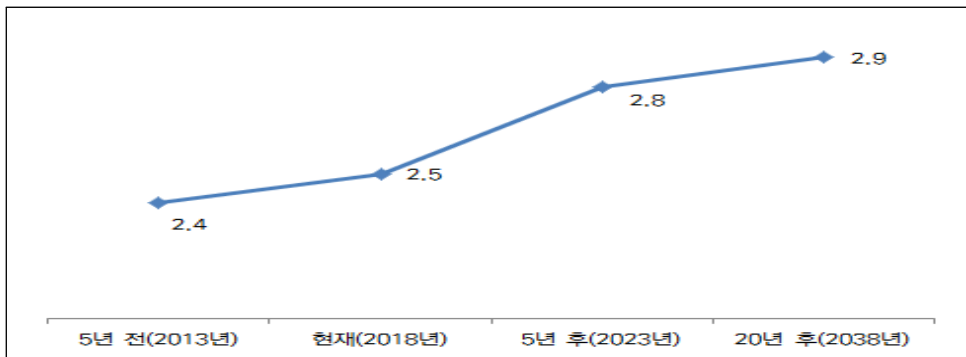
주: 1) 각 조사시점의 사회보장(복지) 수준에 대해 '①매우 낮다~⑥매우 높다(6점 척도)'로 측정함.
 2) 2012년 조사는 4점 척도에 의한 것으로, 표준화점수는 6점을 기준으로 조정함.
 3) 2016년까지 조사는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였으나, 2018년 조사는 '사회보장수준'에 대한 평가임.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점수화하면, 모든 시점 기준으로 '①매우 불평등하다'와 '⑥매우 평등하다'의 중간 수준인 3.5점 보다 낮게 나타남. 이는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분배정도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5년 전과 현재,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대해 각각 2.4점, 2.5점으로 평가했으나, 5년 후 2.8점, 20년 후 2.9점으로 소폭이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4-2-4] 소득 및 재산분배 정도에 대한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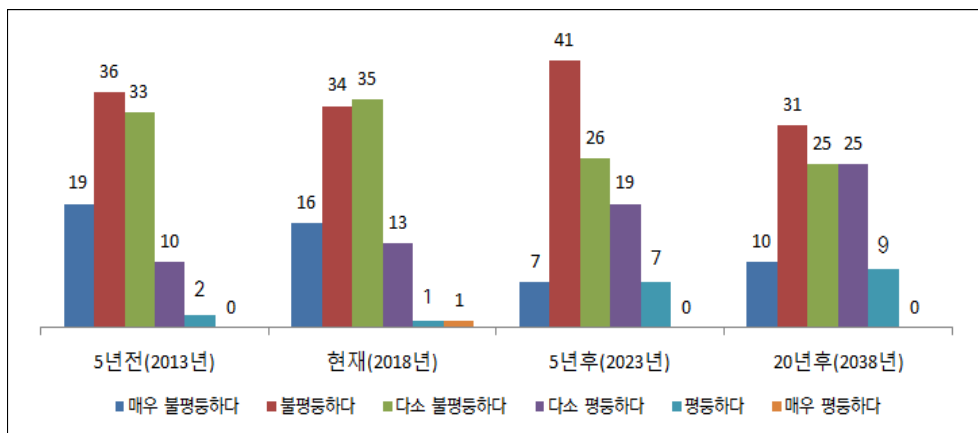


주: '①매우 불평등하다~⑥매우 평등하다(6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소득 및 재산분배 정도는 불평등하다(‘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 응답자의 88%로 높았으나, 2018년 현재 85%, 5년 후 74%, 20년 후 66%로 부정적 응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2-5]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 평가(전망)

(단위: %.)



주: '①매우 불평등하다~⑥매우 평등하다(6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견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2018년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사회계열 전문가와 진보성향의 전문가가 불평등한 편(‘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사회계열 전문가와 진보 성향 전문가는 각각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8%, 98.0%가 불평등한 편으로 응답함.

- 그러나 20년 후인 2038년 분배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표 4-2-5〉 전문가 특성별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 평가(전망)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현재 (2018)	전체		16.0	34.0	35.0	13.0	1.0	1.0	100.0
	성	남자	14.5	31.9	36.2	15.9	0.0	1.4	100.0
		여자	19.4	38.7	32.3	6.5	3.2	0.0	100.0
	전공 +	경상계열	13.3	36.7	36.7	13.3	0.0	0.0	100.0
		사회계열	26.8	39.0	22.0	9.8	2.4	0.0	100.0
		보건계열	3.4	24.1	51.7	17.2	0.0	3.4	100.0
	소속 기관	대학	14.7	29.4	36.8	16.2	1.5	1.5	100.0
		연구기관	18.8	43.8	31.3	6.3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11.8	58.8	17.6	0.0	5.9	100.0
		중도	12.1	18.2	39.4	27.3	3.0	0.0	100.0
진보		22.0	52.0	24.0	2.0	0.0	0.0	100.0	
20년 후 (2038)	전체		10.0	31.0	25.0	25.0	9.0	0.0	100.0
	성	남자	8.7	29.0	26.1	24.6	11.6	0.0	100.0
		여자	12.9	35.5	22.6	25.8	3.2	0.0	100.0
	전공	경상계열	13.3	36.7	23.3	23.3	3.3	0.0	100.0
		사회계열	12.2	34.1	26.8	19.5	7.3	0.0	100.0
		보건계열	3.4	20.7	24.1	34.5	17.2	0.0	100.0
	소속 기관	대학	8.8	27.9	25.0	25.0	13.2	0.0	100.0
		연구기관	12.5	37.5	25.0	25.0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23.5	23.5	29.4	5.9	0.0	100.0
		중도	3.0	27.3	24.2	24.2	21.2	0.0	100.0
진보		12.0	36.0	26.0	24.0	2.0	0.0	100.0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지난 4차례 진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직접적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2016년 이전 조사에서는 '불평등 하다' 응답률이 높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불평등 하다'와 '다소 불평등하다'의 응답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남.

- 전문가들의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하면 2012년은 2.35점이었고, 2014년~2016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8년 2.52점으로 다시 증감함. 이는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이전 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표 4-2-6〉 연도별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에 평가

(단위: %, 점)

구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매우 불평등하다	15.0	25.0	28.0	25.0	16.0
불평등 하다	46.0	47.0	39.0	49.0	34.0
다소 불평등하다	29.0	24.0	30.0	21.0	35.0
다소 평등하다	9.0	4.0	3.0	4.0	13.0
평등하다	1.0	0.0	0.0	1.0	1.0
매우 평등하다	0.0	0.0	0.0	0.0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35	2.07	2.08	2.07	2.52

주: 1) '①매우 불평등하다~⑥매우 평등하다(6점 척도)'로 측정함.

2) 2012년 조사는 4점 척도에 의한 것으로, 표준화점수는 6점을 기준으로 조정함.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가난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70%가 4점 이상으로 응답함.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난을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가난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경상계열은 3점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으나, 보건계열은 4점, 사회계열은 5점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음. 이는 사회계열 전문가들이 가난의 원인을 조금 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 성향 전문가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47.1%가 3점으로 응답하였으나, 중도 성향 전문가는 45.5%가 4점, 진보 성향 전문가는 56.0%가 5점으로 응답하여 진보 성향의 전문가일수록 가난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7〉 가난의 원인(개인 vs 사회구조)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계
전체		0.0	8.0	22.0	33.0	32.0	5.0	100.0
성	남자	0.0	11.6	17.4	33.3	33.3	4.3	100.0
	여자	0.0	0.0	32.3	32.3	29.0	6.5	100.0
전공 **	경상계열	0.0	10.0	40.0	30.0	13.3	6.7	100.0
	사회계열	0.0	2.4	12.2	24.4	53.7	7.3	100.0
	보건계열	0.0	13.8	17.2	48.3	20.7	0.0	100.0
소속	대학	0.0	10.3	19.1	33.8	32.4	4.4	100.0
	연구기관	0.0	3.1	28.1	31.3	31.3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23.5	47.1	17.6	11.8	0.0	100.0
	중도	0.0	12.1	30.3	45.5	6.1	6.1	100.0
	진보	0.0	0.0	8.0	30.0	56.0	6.0	100.0

주: 1) '①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때문이다~⑥전적으로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이다(6점 척도)'로 측정함.

2)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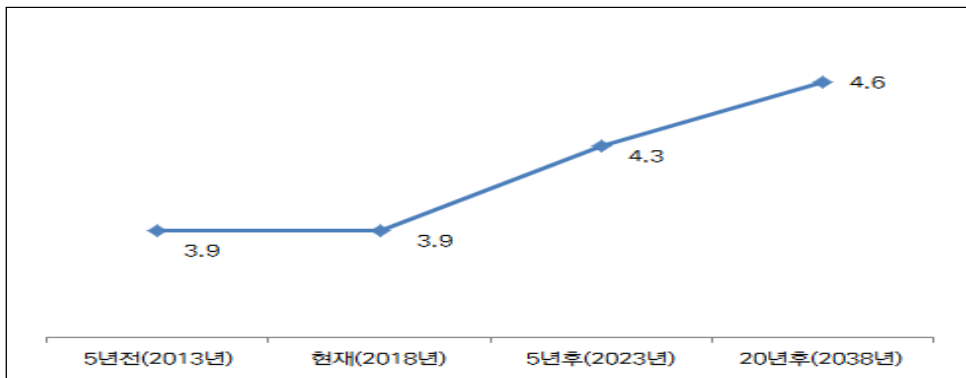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사회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불안과 희망사회의 중간값 5점)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8년 현재와 5년 전(2013년)에는 해당 점수가 3.9점으로 상당히 낮았으나, 5년 후(2023년), 20년 후(2038년)에는 각각 4.3점, 4.6점으로 이전 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우리사회가 점차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4-2-6] 미래 사회의 희망 정도에 대한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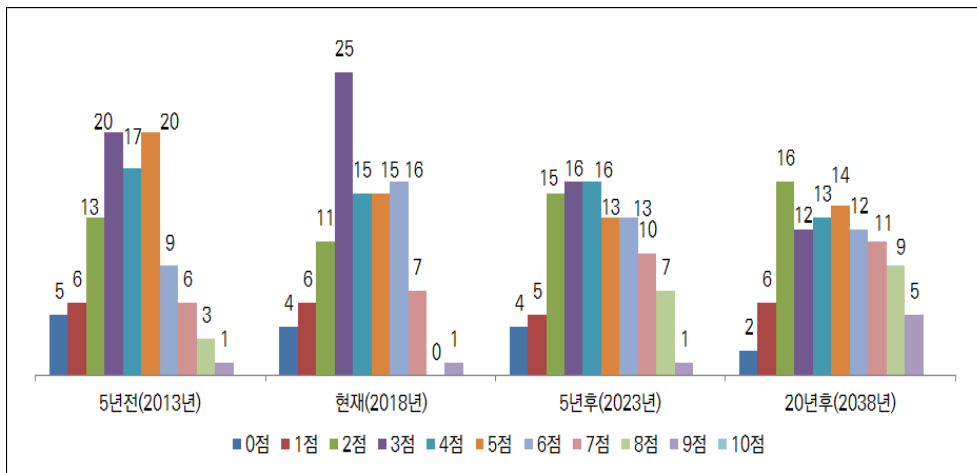
주: '⑩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⑪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11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미래 사회의 희망 정도에 대한 평가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6~10점)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5년 전 시점에는 19%에 불과했으나, 2018년 현재 시점에서는 24%, 5년 후 시점에는 31%, 20년 후 시점에는 37%가 응답함.

[그림 4-2-7] 미래 사회의 희망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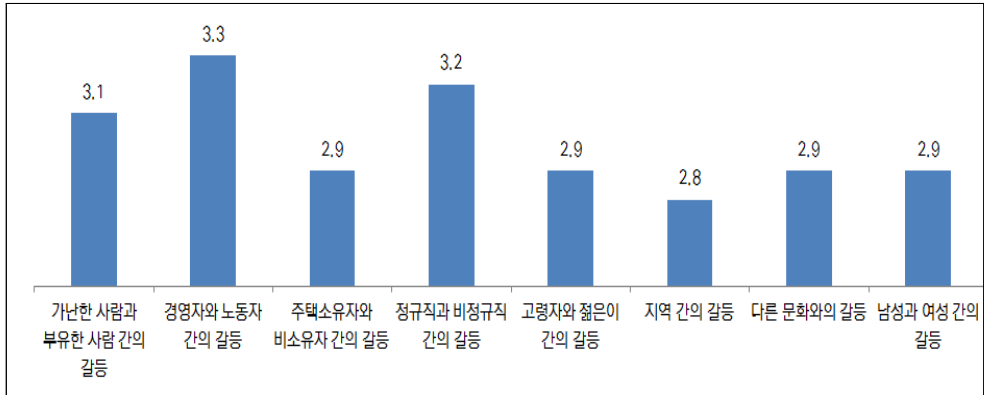


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11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집단 간 갈등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보면,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3.2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3.1점)이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지역 간의 갈등은 2.8점으로 갈등 수준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2-8] 집단 간 갈등의 심도

(단위: 점)



주: '①갈등이 매우 심하다~④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로 측정된 값을 역코딩하였으며, '⑤선택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의 집단 간 사회갈등의 인식을 응답분포로 살펴보면,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는 93%에 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도 87%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심각한 편으로 인식하는 전문가는 전체 응답자의 6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2-8〉 집단 간 갈등의 정도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26.0	59.0	15.0	0.0	0.0	10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40.0	53.0	7.0	0.0	0.0	100.0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14.0	64.0	21.0	0.0	1.0	100.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32.0	55.0	12.0	0.0	1.0	100.0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4.0	62.0	23.0	1.0	0.0	100.0
지역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21.0	43.0	35.0	1.0	0.0	100.0
다른 문화와의 갈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17.0	54.0	24.0	3.0	2.0	100.0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18.0	53.0	25.0	4.0	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 9가지 중 전문가들은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를 현재(2018년)뿐 아니라 5년 후(2023년), 20년 후(2038)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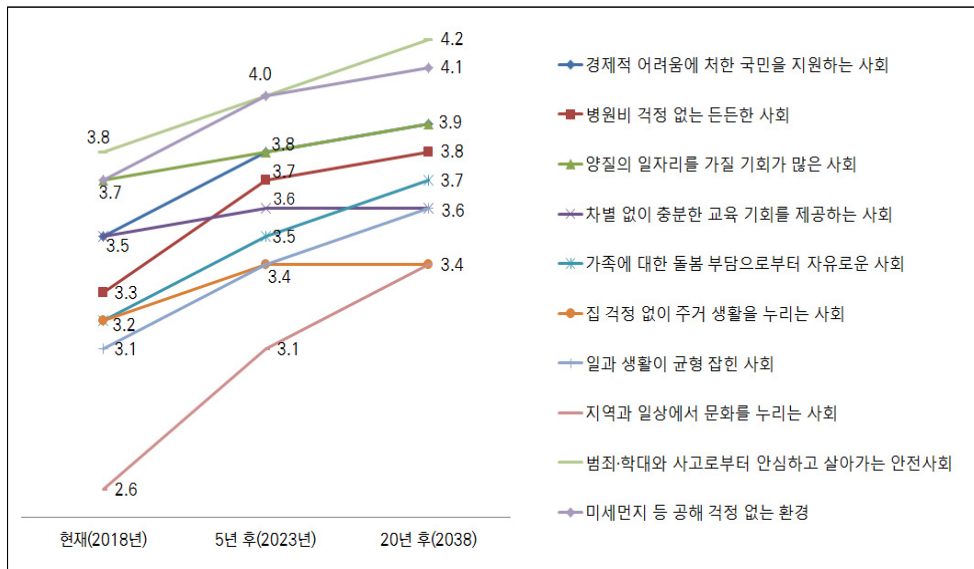
○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상은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3.8점)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와 ‘미세먼지 등 공해걱정 없는 환경’(3.7점)이 선택됨.

○ 반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는 2018년 현재 시점에서 그 중요도가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5년 후, 20년 후 중요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전히 다른 사회상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는 현재 3.5점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상으로 인식되지만, 20년 후 중요도가 3.6점으로 유지되나 다른 사회상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짐.

[그림 4-2-9]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

(단위: 점)



주: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는 '①보통~⑤매우 중요'(5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4-2-9〉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 분포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현재 (2018)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4.0	17.0	29.0	26.0	24.0	100.0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8.0	17.0	32.0	23.0	20.0	100.0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7.0	11.0	21.0	32.0	29.0	100.0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7.0	12.0	30.0	26.0	25.0	100.0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10.0	21.0	26.0	29.0	14.0	100.0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10.0	21.0	28.0	25.0	16.0	100.0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	9.0	24.0	30.0	24.0	13.0	100.0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15.0	30.0	35.0	17.0	3.0	100.0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5.0	15.0	20.0	20.0	40.0	100.0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	8.0	10.0	20.0	32.0	30.0	100.0
5년 후 (2023)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2.0	8.0	30.0	32.0	28.0	100.0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3.0	10.0	31.0	29.0	27.0	100.0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3.0	9.0	22.0	35.0	31.0	100.0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5.0	9.0	36.0	22.0	28.0	100.0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4.0	16.0	24.0	36.0	20.0	100.0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6.0	21.0	23.0	31.0	19.0	100.0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	5.0	15.0	33.0	26.0	21.0	100.0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6.0	22.0	36.0	30.0	6.0	100.0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2.0	8.0	18.0	30.0	42.0	100.0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	3.0	9.0	17.0	32.0	39.0	100.0
20년 후 (2038)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2.0	9.0	21.0	33.0	35.0	100.0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5.0	10.0	22.0	24.0	39.0	100.0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3.0	12.0	17.0	30.0	38.0	100.0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5.0	13.0	28.0	24.0	30.0	100.0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4.0	11.0	25.0	29.0	31.0	100.0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7.0	17.0	27.0	28.0	21.0	100.0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	5.0	12.0	26.0	28.0	29.0	100.0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7.0	16.0	30.0	28.0	19.0	100.0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1.0	6.0	18.0	23.0	52.0	100.0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	3.0	8.0	17.0	22.0	50.0	100.0

주: 바람직한 사회상의 중요도는 '①보통~⑤매우 중요'(5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로 5년 전(2013년), 현재(2018년), 5년 후(2023년), 20년 후(2038년) 시점 기준 모두 '일자리'라고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비율은 4개의 비교 시점 중 현재 시점의 응답비율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전과 5년 후는 약 50%로 다소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20년 후

에는 29%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년 후(2038년)에는 걱정거리(불안요인)가 이전 비교 시점에 비해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모습을 보임.

○ 연도별 걱정거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3순위 걱정거리는 시기별로 일부 차이가 발견되나,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함께 ‘자녀교육’, ‘출산과 양육’, ‘노후생활’, ‘환경’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인식하고 있음.

- 5년 전(2013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자녀교육’, 3순위 ‘노후생활’
- 현재(2018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출산과 양육’, 3순위 ‘환경’
- 5년 후(2023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노후생활’, 3순위 ‘환경’
- 20년 후(2038년): 1순위 ‘일자리’, 2순위 ‘노후생활’, 3순위 ‘노후생활’

〈표 4-2-10〉 연도별 걱정거리(1~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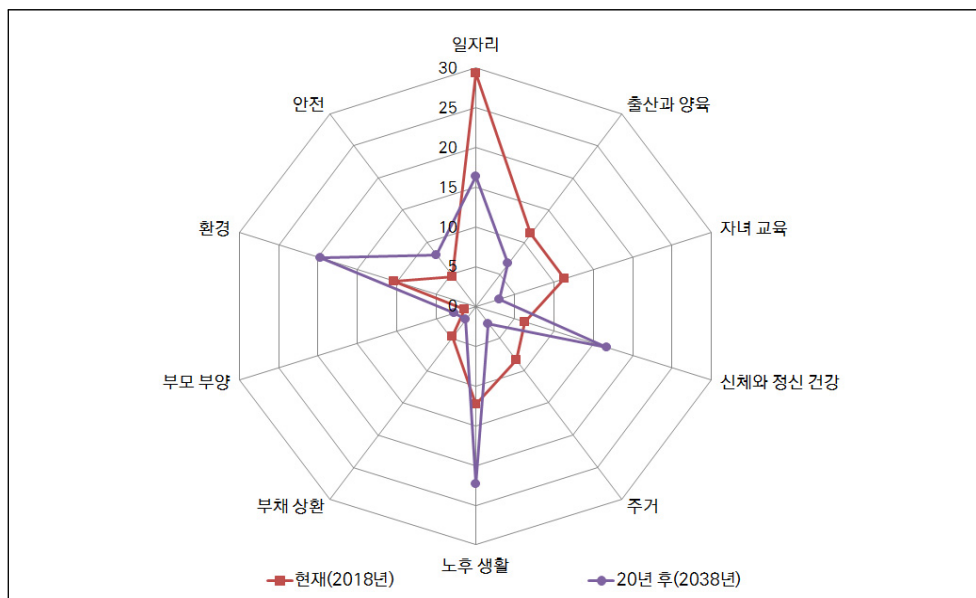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5년 전 (2013년)	1순위	52.0	3.0	12.0	5.0	13.0	2.0	4.0	2.0	0.0	7.0	100.0
	2순위	17.0	18.0	29.0	2.0	12.0	6.0	8.0	2.0	0.0	6.0	100.0
	3순위	7.0	10.0	16.0	13.0	11.0	23.0	3.0	10.0	3.0	4.0	100.0
현재 (2018년)	1순위	69.0	9.0	5.0	3.0	1.0	4.0	5.0	0.0	2.0	2.0	100.0
	2순위	15.0	17.0	15.0	7.0	11.0	15.0	4.0	2.0	6.0	8.0	100.0
	3순위	4.0	8.0	14.0	9.0	13.0	18.0	5.0	2.0	23.0	4.0	100.0
5년 후 (2023년)	1순위	50.0	10.0	0.0	7.0	3.0	22.0	1.0	0.0	6.0	1.0	100.0
	2순위	13.0	14.0	11.0	11.0	6.0	23.0	5.0	2.0	11.0	4.0	100.0
	3순위	5.0	10.0	10.0	13.0	9.0	16.0	3.0	5.0	17.0	12.0	100.0
20년 후 (2038년)	1순위	29.0	8.0	1.0	17.0	0.0	20.0	2.0	1.0	21.0	1.0	100.0
	2순위	12.0	9.0	5.0	19.0	6.0	22.0	4.0	4.0	15.0	4.0	100.0
	3순위	8.0	3.0	3.0	14.0	2.0	25.0	0.0	3.0	23.0	19.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2018년 현재와 2038년 걱정거리(불안요인)의 통합순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8년 현재 일자리에 대한 걱정거리가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20년 후에는 걱정거리가 노후생활, 일자리, 신체와 건강 등으로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2-10] 2018-2038년 걱정거리(통합순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8년 현재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및 고용정책'(49%)을 꼽음.

○ 5년 전(2013년)에는 '경제정책'과 '일자리 및 고용정책'이 35%로 동일하게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나, 20년 후(2038년)에는 '보건복지인구정책'(39%)과 '환경정책(22%)'이 '일자리 및 고용정책(11%) 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됨.

〈표 4-2-11〉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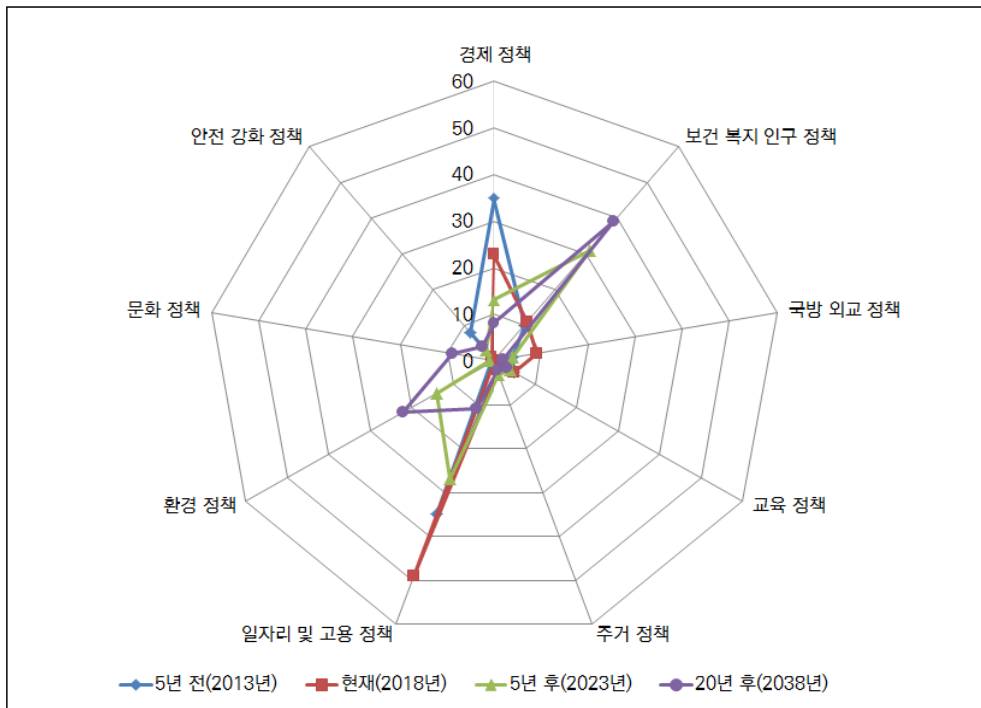
구분	경제 정책	보건복지 인구 정책	국방 외교 정책	교육 정책	주거 정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	문화 정책	안전 강화 정책
5년 전(2013년)	35	10	4	5	2	35	1	0	8
현재(2018년)	23	11	9	5	2	49	0	0	1
5년 후(2023년)	13	31	4	4	3	27	14	1	3
20년 후(2038년)	8	39	2	3	2	11	22	9	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아래 그림을 보면 ‘경제정책’과 ‘일자리 및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향후 정책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인구정책’과 ‘환경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2-11]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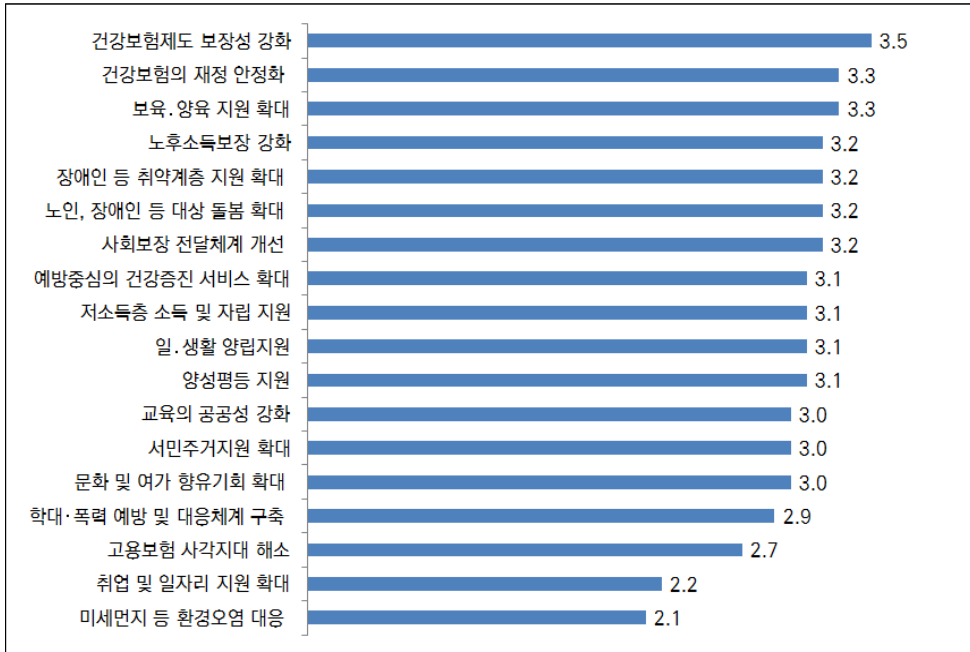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지난 5년간 수행된 정책 중 전문가들은 건강보장 영역과 보육 및 양육 지원 영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성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3.5점)'이며, 그 다음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3.3점)'와 '보육, 양육 지원 확대'(3.3점)로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 영역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2.1점)으로 나타남.

[그림 4-2-12] 지난 5년(2013~2017)의 정책영역별 성과 점수

(단위: 점)



주: '①매우 미흡~⑥매우 우수'(6점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응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18개 중 5개 정책영역에서만 '다소 우수'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많으며, 이외의 정책영역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가 다수임.
- 특히,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정책 영역은 90% 이상의 전문가가 미흡한 편('매우미흡', '미흡', '다소 미흡')으로 응답함.

〈표 4-2-12〉 지난 5년(2013~2017)의 정책영역별 성과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4.0	38.0	32.0	6.0	0.0	0.0	100.0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9.0	33.0	39.0	18.0	1.0	0.0	100.0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9.0	20.0	30.0	37.0	4.0	0.0	100.0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3.0	13.0	30.0	41.0	11.0	2.0	100.0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5.0	11.0	42.0	35.0	6.0	1.0	100.0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0	20.0	37.0	29.0	7.0	0.0	100.0
노후소득보장 강화	6.0	23.0	27.0	38.0	6.0	0.0	100.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5.0	25.0	24.0	40.0	5.0	1.0	100.0
보육·양육 지원 확대	5.0	21.0	31.0	29.0	11.0	3.0	100.0
일·생활 양립지원	8.0	20.0	41.0	19.0	11.0	1.0	100.0
교육의 공공성 강화	11.0	22.0	33.0	22.0	12.0	0.0	100.0
양성평등 지원	10.0	18.0	37.0	23.0	8.0	4.0	100.0
서민주거지원 확대	5.0	28.0	35.0	27.0	4.0	1.0	100.0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3.0	23.0	33.0	32.0	8.0	1.0	100.0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2.0	18.0	47.0	18.0	5.0	0.0	100.0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36.0	30.0	27.0	7.0	0.0	0.0	100.0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7.0	25.0	36.0	25.0	7.0	0.0	100.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4.0	21.0	33.0	36.0	5.0	1.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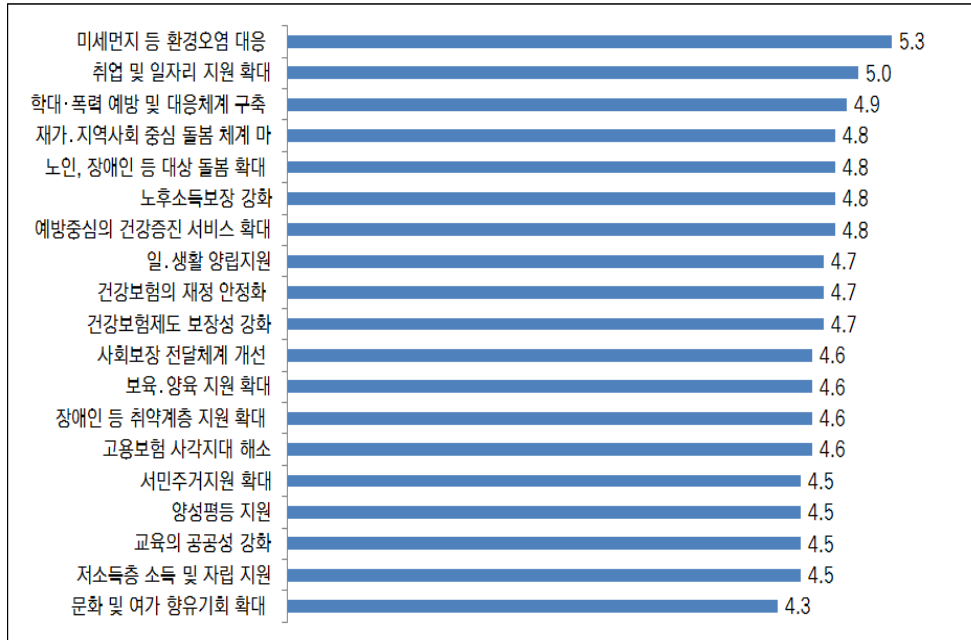
□ 이어 19개의 정책분야 중 앞으로 정부가 강화해야 할 분야를 전문가에게 물은 결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5.3점)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난 5년 간의 정책 성과 평가 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이 두 번째로 정부가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분야는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5.0점)'이며,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는 4.3점으로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음.

[그림 4-2-13] 향후 정부가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점수

(단위: 점)



주: '①전혀 동의하지 않음~⑥매우 동의함'(6점 척도)으로 측정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19개의 정책 영역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동의('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하고 있음.

- '교육의 공공성 강화', '양성평등 지원',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정책에 대해 동의한 전문가는 80%대로 나타나며, 그 외 16개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음.

○ 대체로 전문가들의 전공에 따라 동의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계열 전문가들은 경상·보건계열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부록표 참조).

〈표 4-2-13〉 정부가 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3.0	1.0	6.0	15.0	30.0	45.0	100.0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2.0	0.0	6.0	34.0	41.0	17.0	100.0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0.0	0.0	3.0	33.0	46.0	18.0	100.0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0.0	2.0	6.0	28.0	45.0	19.0	100.0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0.0	1.0	7.0	35.0	38.0	19.0	100.0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0.0	0.0	9.0	43.0	34.0	14.0	100.0
노후소득보장 강화	0.0	0.0	4.0	33.0	39.0	24.0	100.0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0.0	0.0	5.0	39.0	43.0	13.0	100.0
보육·양육 지원 확대	0.0	1.0	9.0	35.0	37.0	18.0	100.0
일·생활 양립지원	0.0	0.0	7.0	32.0	41.0	20.0	100.0
교육의 공공성 강화	1.0	3.0	14.0	31.0	34.0	17.0	100.0
양성평등 지원	0.0	3.0	9.0	36.0	35.0	17.0	100.0
서민주거지원 확대	0.0	0.0	10.0	42.0	36.0	12.0	100.0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0.0	0.0	6.0	31.0	43.0	20.0	100.0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마련	0.0	0.0	5.0	32.0	42.0	21.0	100.0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0.0	1.0	3.0	30.0	39.0	27.0	100.0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0.0	1.0	2.0	16.0	28.0	53.0	100.0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0.0	3.0	11.0	46.0	32.0	8.0	100.0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0.0	0.0	7.0	39.0	42.0	12.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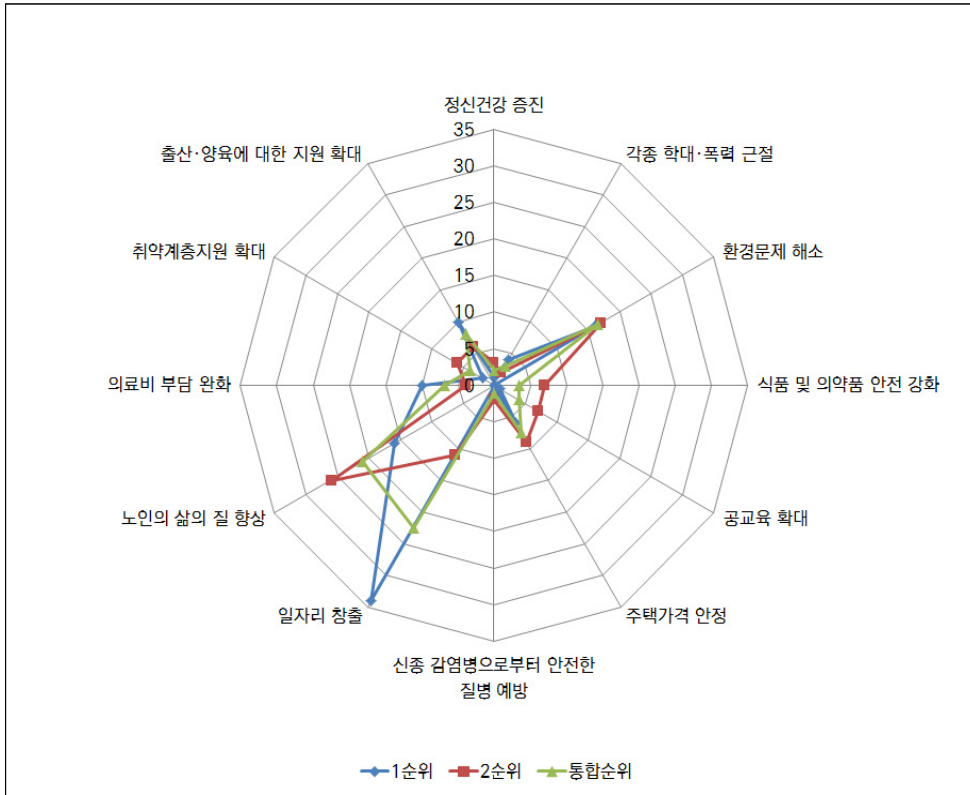
□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 1순위로 '일자리 창출'(34%)을 꼽았으며, 2순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26%)을 꼽음.

○ 통합순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 해소', '주택가격 안정',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 1순위는 전문가의 소속에 따라 응답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 소속 전문가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44.1%가 응답하였으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일자리 창출'에 12.5%만 응답하였고,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문제 해소' 등에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함(부록표 참조).

[그림 4-2-14] 향후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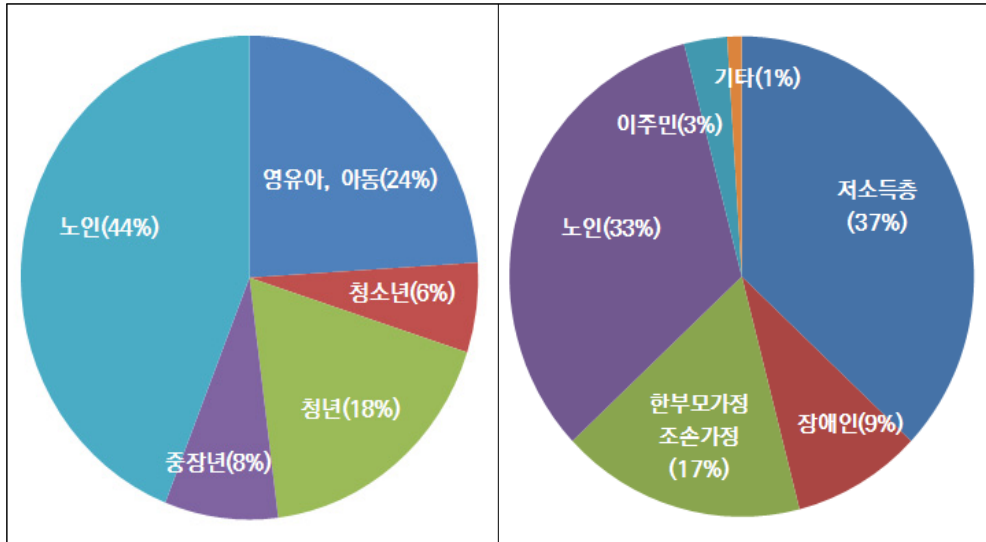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 노인(44%)을 꼽고 있음.
- 다음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영유아·아동(24%), 청년(18%), 중장년(8%), 청소년(6%) 순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에는 저소득층(37%)에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유사한 수준으로 노인(33%)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한부모·조손가정(17%), 장애인(9%) 순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4-2-15]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소속(대학, 연구기관)에 따라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노인 다음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 대학 소속 전문가는 영유아·아동, 청년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중장년, 영유아·아동 순으로 응답함.

〈표 4-2-14〉 전문가 특성별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인식

(단위: %)

구분		영유아·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계
전체		24.0	6.0	18.0	8.0	44.0	100.0
성	남자	30.4	7.2	14.5	5.8	42.0	100.0
	여자	9.7	3.2	25.8	12.9	48.4	100.0
전공	경상계열	23.3	6.7	13.3	16.7	40.0	100.0
	사회계열	26.8	7.3	26.8	2.4	36.6	100.0
	보건계열	20.7	3.4	10.3	6.9	58.6	100.0
소속**	대학	27.9	5.9	23.5	1.5	41.2	100.0
	연구기관	15.6	6.3	6.3	21.9	5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11.8	23.5	0.0	52.9	100.0
	중도	30.3	6.1	18.2	6.1	39.4	100.0
	진보	24.0	4.0	16.0	12.0	44.0	100.0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응답 경향의 차이는 취약계층 내 중점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학 소속 전문가는 노인을 지원 중점 대상으로 꼽았으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저소득층을 꼽음.

〈표 4-2-15〉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취약계층

(단위: %)

구분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노인	이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계
전체		37.0	9.0	17.0	33.0	3.0	1.0	100.0
성	남자	37.7	8.7	13.0	37.7	2.9	0.0	100.0
	여자	35.5	9.7	25.8	22.6	3.2	3.2	100.0
전공	경상계열	36.7	13.3	20.0	30.0	0.0	0.0	100.0
	사회계열	41.5	7.3	17.1	31.7	0.0	2.4	100.0
	보건계열	31.0	6.9	13.8	37.9	10.3	0.0	100.0
소속 +	대학	30.9	7.4	16.2	41.2	4.4	0.0	100.0
	연구기관	50.0	12.5	18.8	15.6	0.0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5.9	29.4	41.2	0.0	5.9	100.0
	중도	33.3	12.1	18.2	30.3	6.1	0.0	100.0
	진보	46.0	8.0	12.0	32.0	2.0	0.0	100.0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우선을 두어야 하는 사회보장 영역으로 전문가들은 55%가 소득보장, 45%가 서비스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선호는 전문가의 성별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 전문가와 보수 성향의 전문가는 서비스보장을 선호함.

〈표 4-2-16〉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우선순위

(단위: %)

구분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서비스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계
전체		55.0	45.0	100.0
성 *	남자	62.3	37.7	100.0
	여자	38.7	61.3	100.0
전공	경상계열	43.3	56.7	100.0
	사회계열	61.0	39.0	100.0
	보건계열	58.6	41.4	100.0
소속	대학	57.4	42.6	100.0
	연구기관	50.0	5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35.3	64.7	100.0
	중도	45.5	54.5	100.0
	진보	68.0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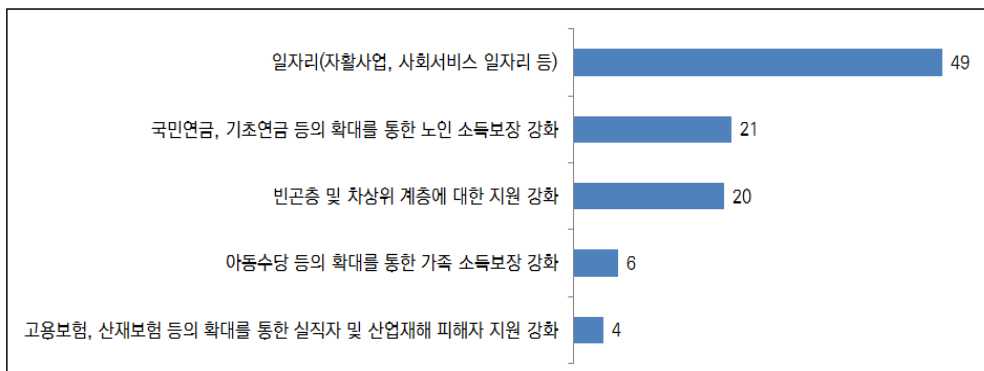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이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49%)’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21%)’와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20%)’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4-2-16] 향후 5년 동안의 소득보장 분야 중점 추진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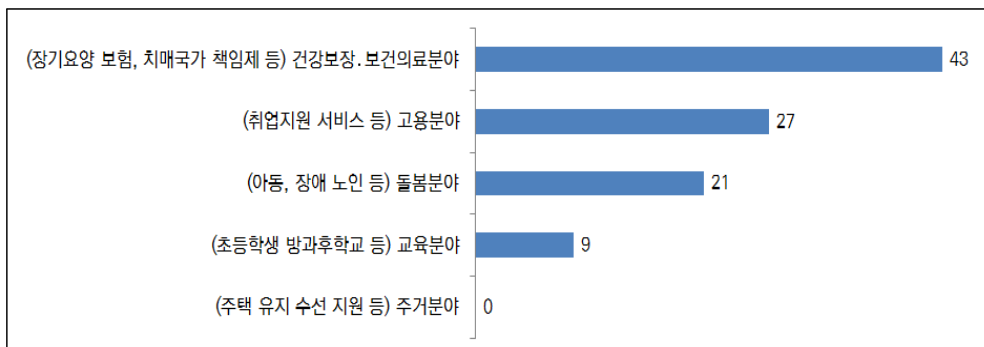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서비스보장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중점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장기요양 보험, 치매국가 책임제 등) 건강보장·보건의료 분야’가 4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취업지원 서비스 등) 고용분야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17] 향후 5년 동안의 서비스보장 분야 중점 추진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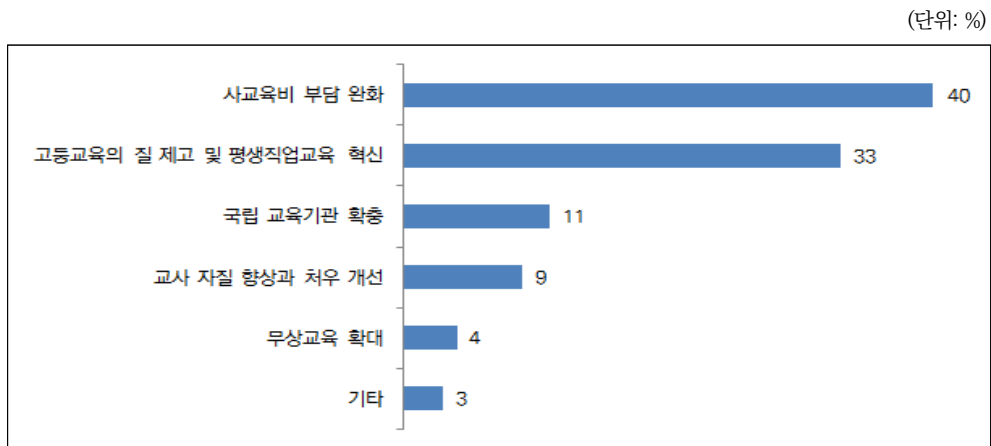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각 정책 영역별로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40%)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33%)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나타남.

[그림 4-2-18] 교육 분야 우선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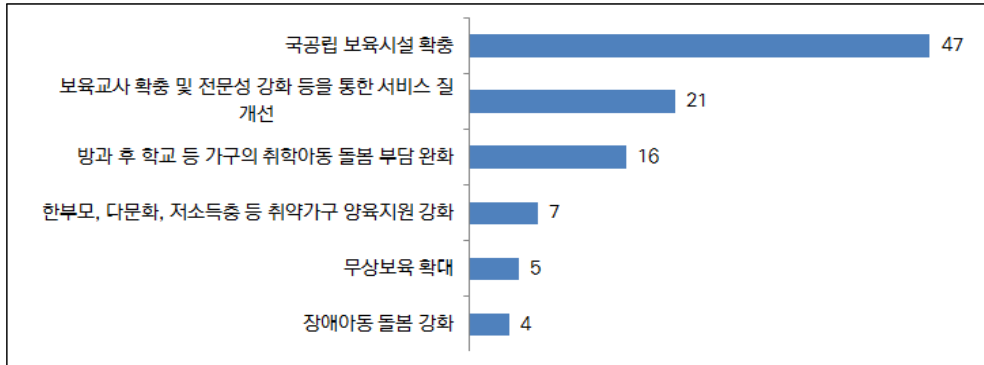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아동 돌봄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47%)’을 꼽았으며, 이어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21%)’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의 성별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 전문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선호가 높았으나, 여성전문가는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부록표 참조).

[그림 4-2-19] 아동 돌봄 분야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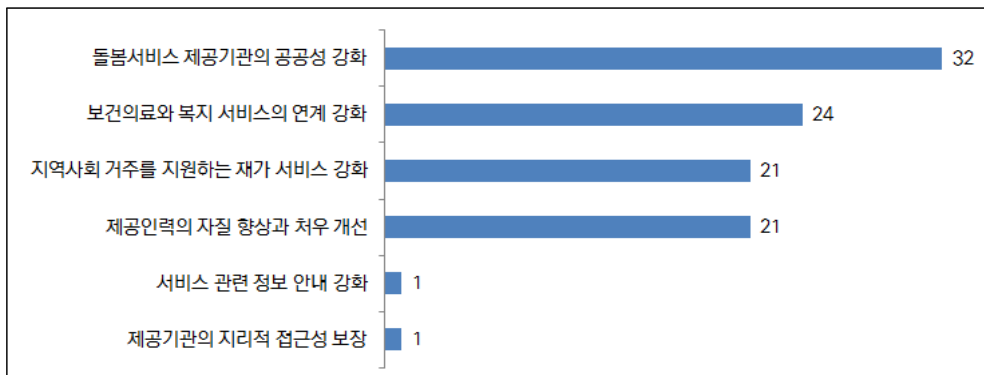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성인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32%)'가 전문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연계 강화(24%)'가 다음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됨.

- 성인 돌봄 분야에도 전문가의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남성 전문가는 '돌봄서비스의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여성 전문가는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재가 서비스 강화'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부록표 참조).

[그림 4-2-20] 성인 돌봄 분야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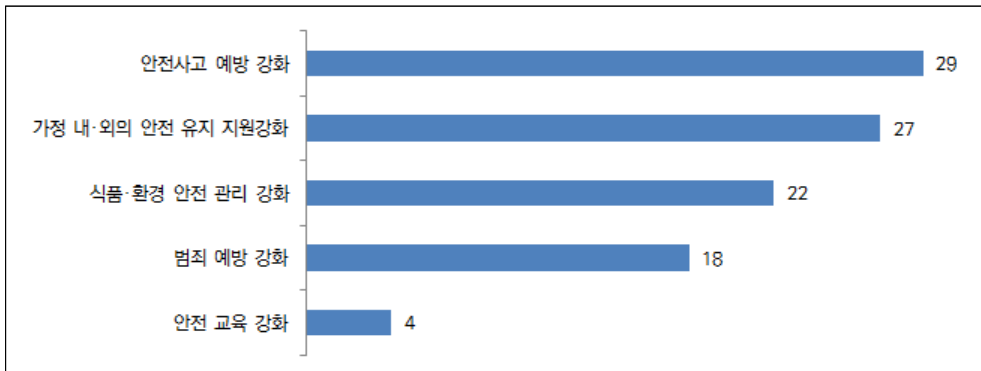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강화(29%)’가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혔으며, ‘가정 내·외의 안전 유지 지원 강화(27%)’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선호를 보임.

[그림 4-2-21] 안전 보장 분야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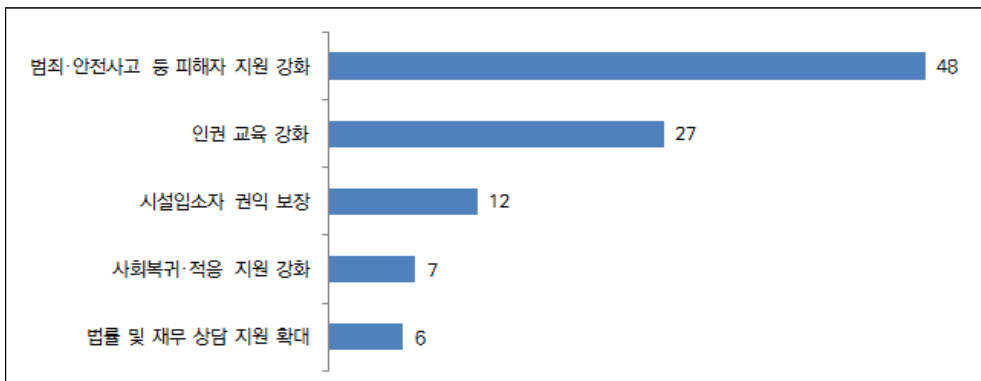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권익 보장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범죄·안전사고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4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인권교육 강화’가 27%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22] 권익 보장 분야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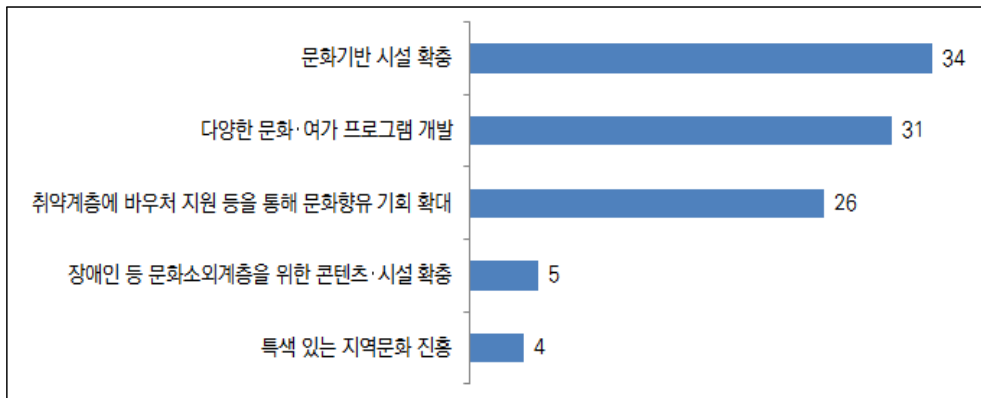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문화 및 여가 분야에서는 ‘문화기반 시설 확충’(34%)과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31%)을 유사한 수준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보고 있음.

[그림 4-2-23] 문화 및 여가 분야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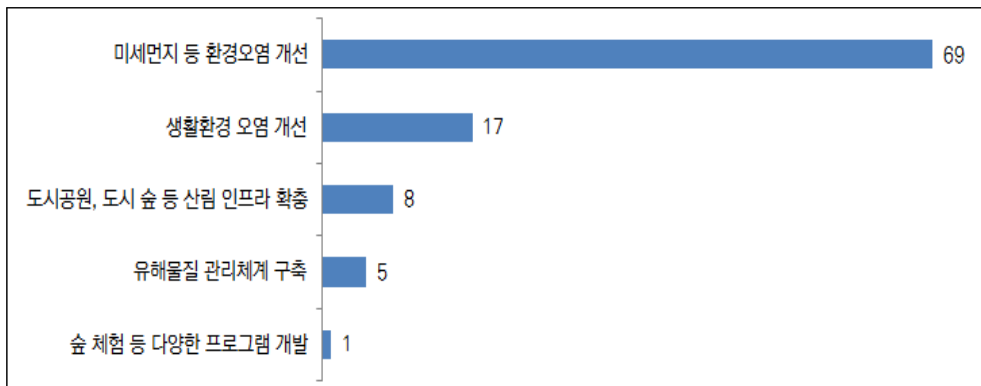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환경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개선’이 69%로 다른 정책 방안들보다 상당히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림 4-2-24] 환경 분야 우선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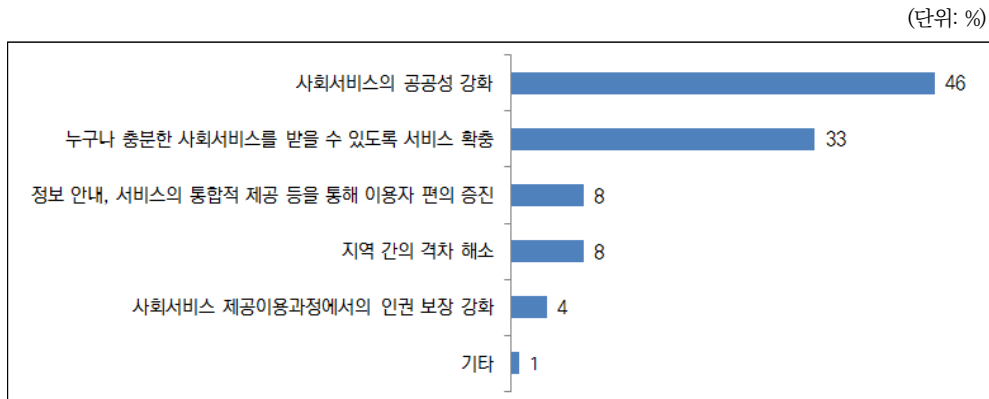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46%)가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나고,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33%)이 다음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그림 4-2-25]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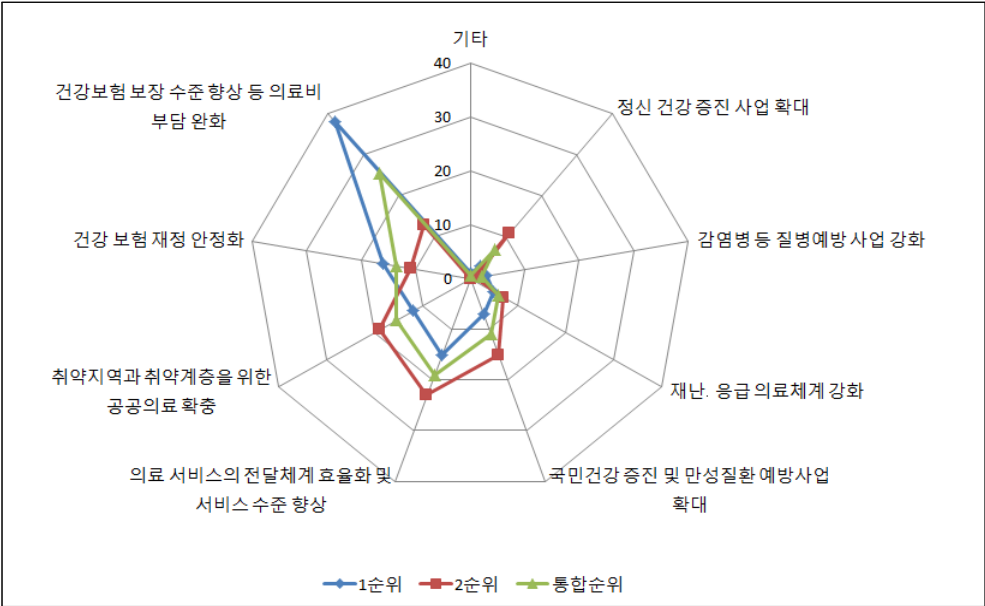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3. 보건 정책

- 향후 5년 동안,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38%)를 1순위로 꼽음.
- 2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23%)으로 나타남.
- 통합순위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꼽은 보건 의료 중점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25.5%)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19%),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15.5%),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3.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26] 향후 5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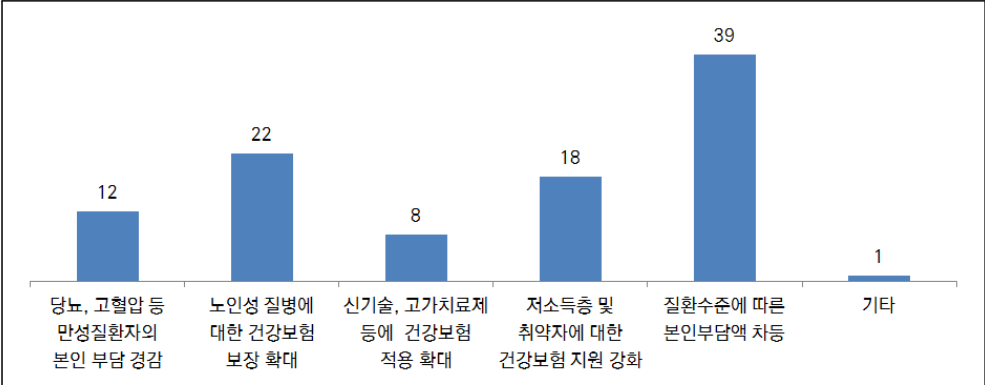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의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방안을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39%)으로 보고 있음.

[그림 4-2-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2015년, 2016년 결과와 유사함.
- 반면 2012년, 2014년 조사에서는 ‘중증질환 보장 확대’가 각각 49%, 48%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난 바 있음.

〈표 4-2-17〉 연도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중증질환 보장 확대	49.0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0.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4.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7.0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30.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중증질환 보장 확대	48.0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9.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8.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6.0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28.0
	기타	1.0
합계		100.0
2015년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0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8.0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17.0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13.0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32.0
	합계	100.0
2016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7.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7.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16.0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24.0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36.0
	기타	0.0
합계		100.0
2018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2.0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2.0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8.0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18.0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	39.0
	기타	1.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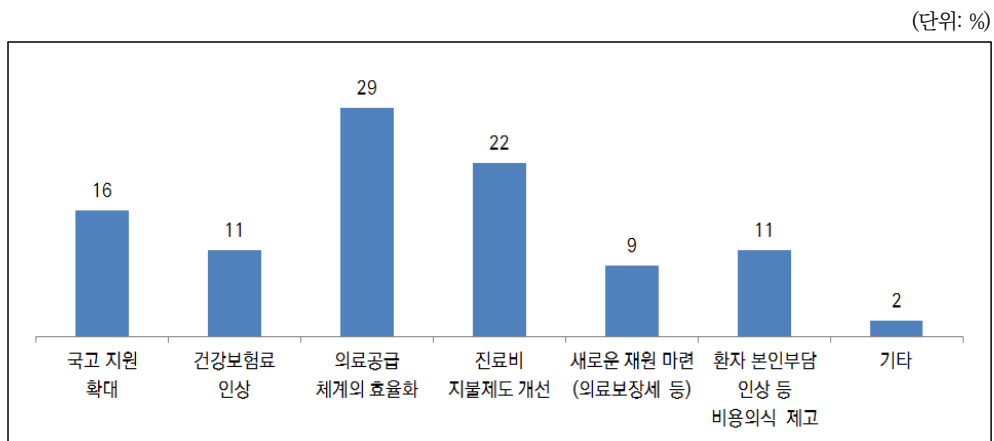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29%)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22%)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의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경상계열 전문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26.7%)과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26.7%)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계열과 보건계열 전문가는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를 각각 39.0%, 31.0%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부록표 참조).

[그림 4-2-28]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유사함.
- 즉,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 결과 모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바 있음.

〈표 4-2-18〉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국고 지원 확대	12.0
	건강보험료 인상	11.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31.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22.0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15.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9.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국고 지원 확대	24.0
	건강보험료 인상	10.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39.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18.0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5.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4.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국고 지원 확대	19.0
	건강보험료 인상	7.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41.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16.0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5.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12.0
	합계	100.0
2016년	국고 지원 확대	25.0
	건강보험료 인상	3.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37.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20.0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4.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11.0
	합계	100.0
2018년	국고 지원 확대	16.0
	건강보험료 인상	11.0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29.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22.0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9.0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11.0
	기타	2.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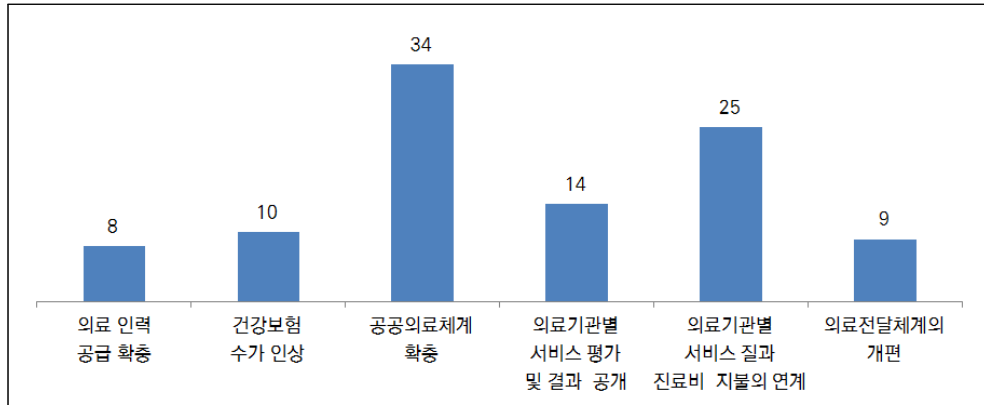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공공의료 체계 확충'(34%)이 꼽혔으며,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25%)가 다음 순으로 꼽혔.

[그림 4-2-29]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
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유사함.
-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 결과 모두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방안으로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꼽은 전문가들이 많았음.

〈표 4-2-19〉 연도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2.0
	건강보험 수가 인상	11.0
	공공의료체계 확충	31.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22.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5.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9.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5.0
	건강보험 수가 인상	10.0
	공공의료체계 확충	35.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19.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2.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9.0
	기타	0.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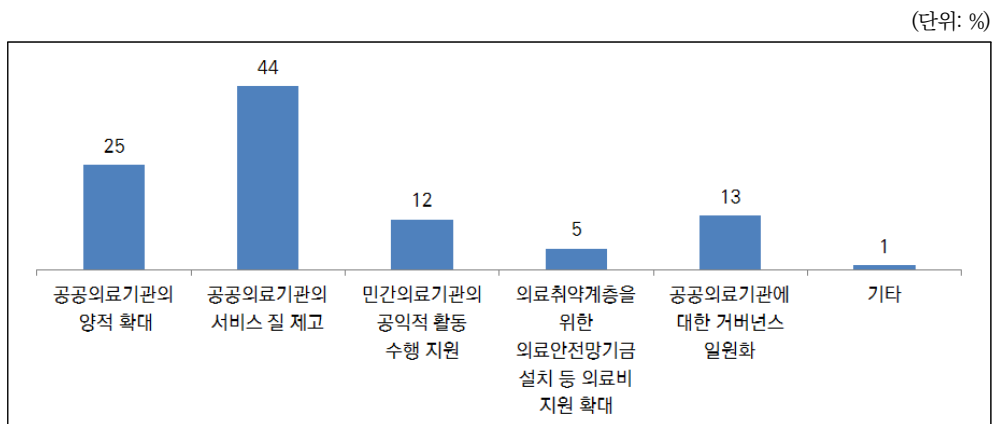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015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4.0
	건강보험 수가 인상	3.0
	공공의료체계 확충	46.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9.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0.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18.0
	합계	100.0
2016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3.0
	건강보험 수가 인상	4.0
	공공의료체계 확충	41.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18.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0.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14.0
	합계	100.0
2018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8.0
	건강보험 수가 인상	10.0
	공공의료체계 확충	34.0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14.0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25.0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예:의원급 진료후 병원급 진료가능)	9.0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44%)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25%)가 높게 나타남.

[그림 4-2-30]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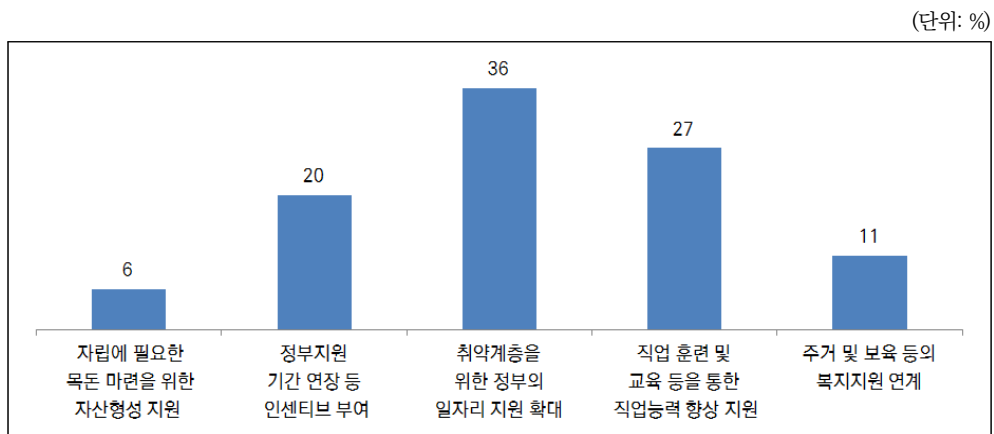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4. 복지 및 인구 정책

□ 전문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촉진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36%)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27%)이 두 번째로 적절한 방안으로 선택됨.

[그림 4-2-31] 저소득층 자립 촉진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40%)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공공일자리 확대 보다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37%)이 자립 촉진 방안으로 선호됨.
- 그러나 2015년 다시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36%)가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3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2016년에는 두 정책방안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선호됨.

〈표 4-2-20〉 연도별 저소득층 자립촉진 방안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자산지원 형성 지원	8.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0.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40.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2.0
	직업능력향상 지원	20.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자산지원 형성	7.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7.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27.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1.0
	직업능력향상 지원	28.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자산지원 형성	6.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3.0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확대	36.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0.0
	직업능력향상 지원	25.0
	합계	100.0
2016년	자산지원 형성	10.0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기간 연장	30.0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확대	29.0
	소액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1.0
	직업능력향상 지원	30.0
	합계	100.0
2018년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6.0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20.0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36.0
	소액 대출 및 금융지원 확대	0.0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27.0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11.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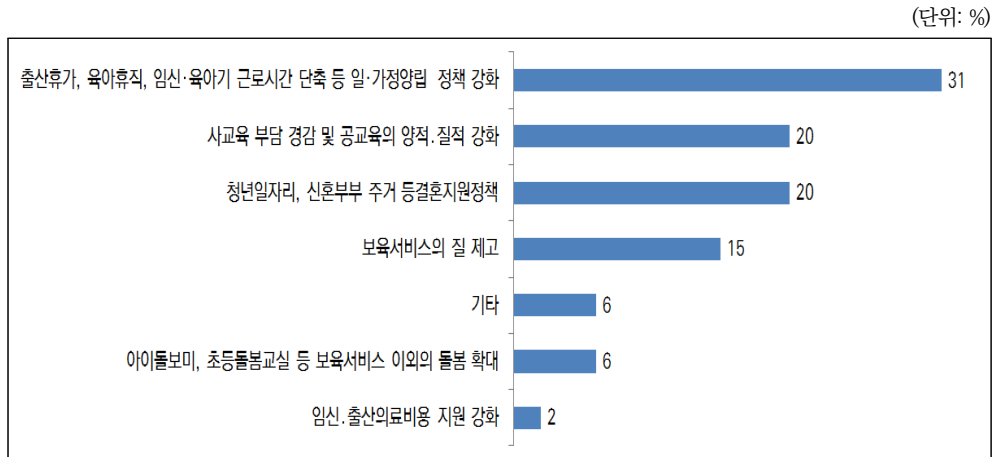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가 3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다음으로 선호되는 출산율 제고 방안은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 지원 정책'(20%)과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양적·질적 강화'(20%)로 나타났다.

[그림 4-2-32] 출산율 제고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4년과 2015년 전문가 조사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 그러나 2016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와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2-21〉 연도별 출산장려 정책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4년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5.0
	보육서비스 질 제고	34.0
	가정양육 지원강화	8.0
	육아기 근로 지원	15.0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32.0
	결혼비용 감소	4.0
	기타	2.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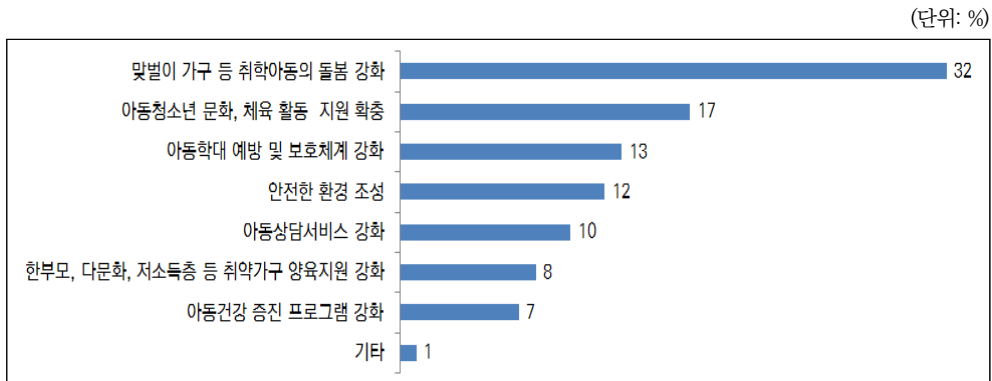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015년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8.0
	보육서비스 질제고	26.0
	가정양육 지원강화	13.0
	육아기 근로 지원	17.0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32.0
	결혼비용 감소	4.0
	합계	100.0
2016년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26.0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37.0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23.0
	임신, 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2.0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6.0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6.0
	합계	100.0
2018년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20.0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	2.0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31.0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15.0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6.0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양적·질적 강화	20.0
	기타	6.0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맞벌이 가구 등 취약아동의 돌봄 강화'가 3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이 17%로 나타남.

[그림 4-2-33] 아동지원 강화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이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취학아동의 돌봄 강화’가 아동지원 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선호되고 있음.

〈표 4-2-22〉 연도별 아동 지원 정책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4년	보호체계 강화	25.0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21.0
	문화체육 활동지원	26.0
	아동상담 서비스 강화	15.0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11.0
	기타	2.0
	합계	100.0
2015년	보호체계 강화	17.0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11.0
	문화·체육 활동지원	19.0
	아동상담 서비스 강화	5.0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15.0
	취학아동의 돌봄 강화	33.0
	합계	100.0
2016년	보호체계 강화	27.0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	4.0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	10.0
	아동상담서비스 강화	5.0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14.0
	취학아동의 돌봄 강화	29.0
	안전한 환경 조성	10.0
	공교육 강화 사교육 금지	1.0
	합계	100.0
2018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아동보호 등)	13.0
	아동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비만, 정신건강 등)	7.0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	17.0
	아동상담서비스 강화(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	10.0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8.0
	맞벌이 가구 등 취학아동의 돌봄 강화(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32.0
	안전한 환경 조성(아동 안전 환경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	12.0
	기타	1.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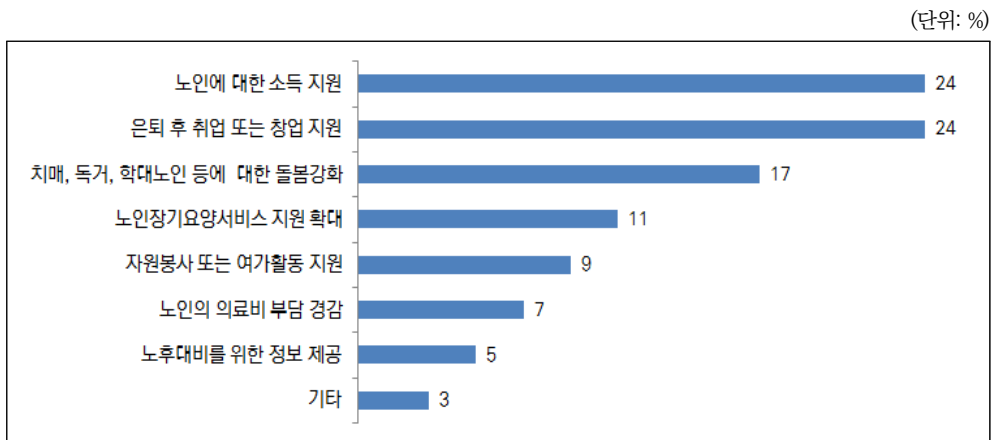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24%)과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24%)을 동일한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노후 지원 방안은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17%)로 나타남.

[그림 4-2-34] 노후 지원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2014년, 2015년 조사 모두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이 노후 지원 정책방안으로 선호되었으나, 2016년에는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 약간 높게 나타난 바 있음.

〈표 4-2-23〉 연도별 노후 지원 정책 선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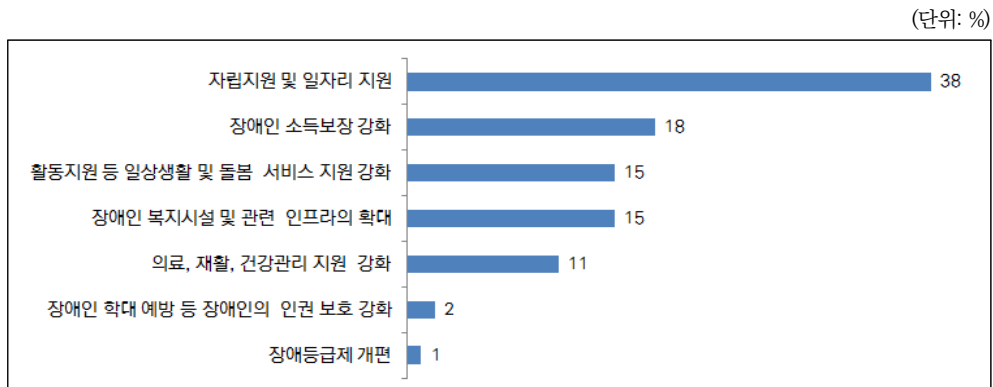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012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48.0
	노인소득지원	29.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3.0
	노인 주거 시설 확충	3.0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10.0
	노인 대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
	합계	100.0
2014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37.0
	노인소득지원	24.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6.0
	치매·독거·학대노인 돌봄 강화	16.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11.0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6.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38.0
	노인소득지원	27.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8.0
	치매·독거·학대노인 돌봄 강화	10.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11.0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6.0
	기타	0.0
	합계	100.0
2016년	은퇴 후 취업·창업 지원	26.0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33.0
	자원봉사·여가활동 지원	8.0
	치매·독거·학대노인 돌봄 강화	6.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18.0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7.0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2.0
	합계	100.0
2018년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교육, 훈련 등)	24.0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24.0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9.0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7.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11.0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7.0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	5.0
	기타	3.0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으로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안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18%)가 뒤를 이음.

[그림 4-2-35] 장애인 지원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유사함.

- 기존 모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4〉 연도별 장애인 지원 정책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30.0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10.0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3.0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53.0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4.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3.0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12.0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9.0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45.0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11.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2.0

구분		1순위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13.0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10.0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42.0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8.0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5.0
	합계	100.0
2016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7.0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7.0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대	13.0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38.0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13.0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1.0
	장애등급제 개편	1.0
2018년	합계	100.0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18.0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11.0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15.0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38.0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15.0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2.0
	장애등급제 개편	1.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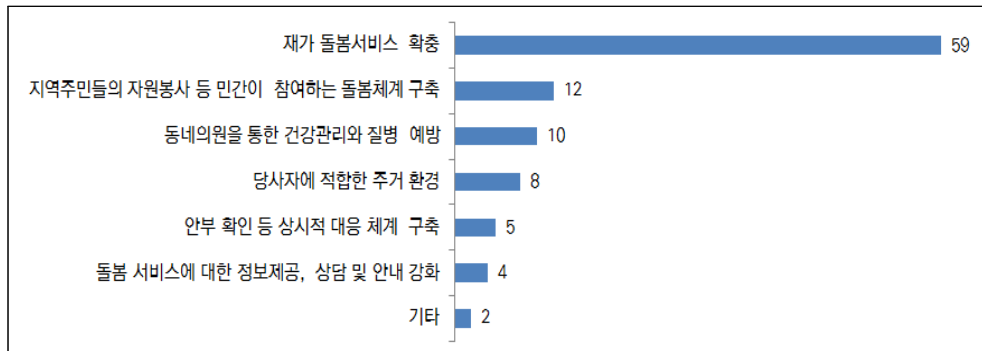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36] 돌봄 대상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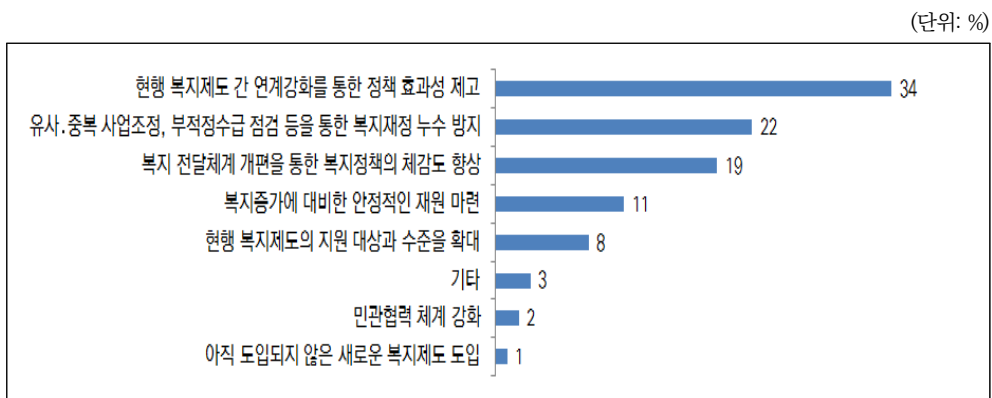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부적정 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22%),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19%)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37]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조사에서는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과 ‘제도 간 연계 강화’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2014년과 2015년 조사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이 조금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바 있음. 2016년 다시 두 정책 과제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2018년에 또 다시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됨.
 -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지원대상 확대 보다는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표 4-2-25〉 연도별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0.0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30.0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7.0
	현행 제도 지원 대상 및 수준 대폭 확대	13.0
	제도 간 연계강화	30.0
	합계	100.0
2014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0.0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36.0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3.0
	제도 지원 대상 및 수준 대폭 확대	13.0
	제도 간 연계강화	27.0
	기타	1.0
	합계	100.0
2015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29.0
	복지제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26.0
	복지재정 누수 방지	22.0
	복지제도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23.0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0.0
	합계	100.0
2016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 체감도 향상	25.0
	민관협력체계 강화	7.0
	복지제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25.0
	복지재정 누수 방지	17.0
	복지제도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12.0
	복지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13.0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1.0
	합계	100.0
2018년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19.0
	민관협력체계 강화	2.0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34.0
	유사중복 사업조정, 부적정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22.0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8.0
	복지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11.0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1.0
	기타	3.0
	합계	100.0

주: 2016년과 2018년 기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항목은 해당 항목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였음.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5. 일자리 및 주거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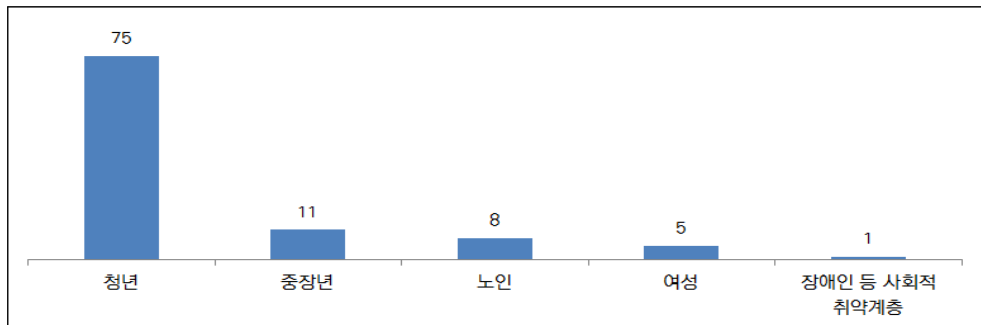
□ 전문가들은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75%가 ‘청년’이라고 응답함.

○ 청년 다음으로 일자리 및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은 ‘중장년’(11%), ‘노인’(8%), ‘여성’(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이러한 응답분포는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는 83.8%가 ‘청년’이라고 응답한 반면,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청년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소 낮음. 즉, 청년 56.3%, 중장년 21.9%, 노인 12.5%로 다른 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고용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부록표 참조).

[그림 4-2-38] 일자리 및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고용정책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 중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①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⑤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하면 일자리 질 개선이 3.3점(가중평균), 일자리 창출이 2.7점(가중평균)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는 중도적 입장에서 작은 차이이기는 하나 일자리의 질 개선 쪽에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줌.

○ 응답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4~5점에 전체 조사 대상자의 51.0%가 응답하였으며, 양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1~2점에 28%가 응답함.

-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전문가의 우선순위는 전문가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표 4-2-26〉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점)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평균
전체		8.0	20.0	21.0	37.0	14.0	100.0	3.3
성	남자	10.1	17.4	24.6	34.8	13.0	100.0	3.2
	여자	3.2	25.8	12.9	41.9	16.1	100.0	3.4
전공	경상계열	3.3	20.0	23.3	40.0	13.3	100.0	3.4
	사회계열	7.3	17.1	19.5	41.5	14.6	100.0	3.4
	보건계열	13.8	24.1	20.7	27.6	13.8	100.0	3.0
소속	대학	11.8	16.2	22.1	33.8	16.2	100.0	3.3
	연구기관	0.0	28.1	18.8	43.8	9.4	100.0	3.3
정치적 성향	보수	23.5	17.6	17.6	23.5	17.6	100.0	2.9
	중도	12.1	18.2	24.2	33.3	12.1	100.0	3.2
	진보	0.0	22.0	20.0	44.0	14.0	100.0	3.5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전문가들이 꼽은 일자리 양의 개선,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등의 '일자리 나누기'가 동일하게 17%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성별과 전공, 그리고 정치적 성향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방안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여성 전문가는 남성 전문가가 선호하는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이 아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사회계열 전문가는 '일자리 나누기'를 다른 방안보다 약간 더 선호하고 보건계열 전문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진보 성향의 전문가는 다른 정치적 성향의 전문가에 비해 '공공일자리 확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음.

〈표 4-2-27〉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

(단위: %)

구분		공공 일자리 확대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기타	계
전체		10.0	11.0	28.0	17.0	16.0	17.0	1.0	100.0
성 *	남자	11.6	14.5	30.4	20.3	10.1	13.0	0.0	100.0
	여자	6.5	3.2	22.6	9.7	29.0	25.8	3.2	100.0
전공 *	경상계열	3.3	16.7	46.7	10.0	3.3	20.0	0.0	100.0
	사회계열	17.1	9.8	19.5	12.2	17.1	22.0	2.4	100.0
	보건계열	6.9	6.9	20.7	31.0	27.6	6.9	0.0	100.0
소속	대학	10.3	11.8	29.4	16.2	16.2	16.2	0.0	100.0
	연구기관	9.4	9.4	25.0	18.8	15.6	18.8	3.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23.5	41.2	17.6	17.6	0.0	0.0	100.0
	중도	0.0	12.1	33.3	18.2	18.2	18.2	0.0	100.0
	진보	20.0	6.0	20.0	16.0	14.0	22.0	2.0	100.0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격차 완화'가 35.0%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다음 순으로 '고용 안정성 제고'가 21.0%,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이 16%로 나타남.

- 전문가의 소속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질 개선 정책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대학 소속 전문가와 달리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34.4%)을 꼽음.
-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정책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전문가는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 지원 강화'(23.5%)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중도 성향 전문가는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27.3%)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진보 성향 전문가는 '고용 안정성 제고'(34.0%)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28〉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

(단위: %)

구분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 차별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격차 완화	고용 안정성 제고	고용 안전망 강화	적절한 노동 시간 준수	임금 체계 개편	일자리 알선, 직업 교육 등 실직 은퇴 대비 지원 강화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	기타	계
전체		7.0	35.0	21.0	0.0	1.0	11.0	8.0	16.0	1.0	100.0
성	남자	8.7	33.3	23.2	0.0	1.4	8.7	8.7	14.5	1.4	100.0
	여자	3.2	38.7	16.1	0.0	0.0	16.1	6.5	19.4	0.0	100.0
전공	경상계열	3.3	23.3	13.3	0.0	0.0	16.7	16.7	26.7	0.0	100.0
	사회계열	7.3	43.9	26.8	0.0	0.0	9.8	2.4	9.8	0.0	100.0
	보건계열	10.3	34.5	20.7	0.0	3.4	6.9	6.9	13.8	3.4	100.0
소속**	대학	8.8	42.6	20.6	0.0	1.5	7.4	10.3	7.4	1.5	100.0
	연구기관	3.1	18.8	21.9	0.0	0.0	18.8	3.1	34.4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35.3	11.8	0.0	0.0	0.0	23.5	17.6	0.0	100.0
	중도	3.0	30.3	6.1	0.0	3.0	15.2	12.1	27.3	3.0	100.0
	진보	8.0	38.0	34.0	0.0	0.0	12.0	0.0	8.0	0.0	100.0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속성으로 9가지를 들고 있음.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각 속성의 시급성을 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매우 시급함'의 응답이 가장 높았던 속성은 '일할 기회의 제공'(69%)이었으며, 다음으로 시급한 속성은 '산업재해 등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59%)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59%)으로 나타남.

- 개선 시급성이 가장 낮은 속성으로는 '노사 간의 수평적 관계와 민주적 의사소통'(39%)으로 나타남.

○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전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보다 명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p<0.00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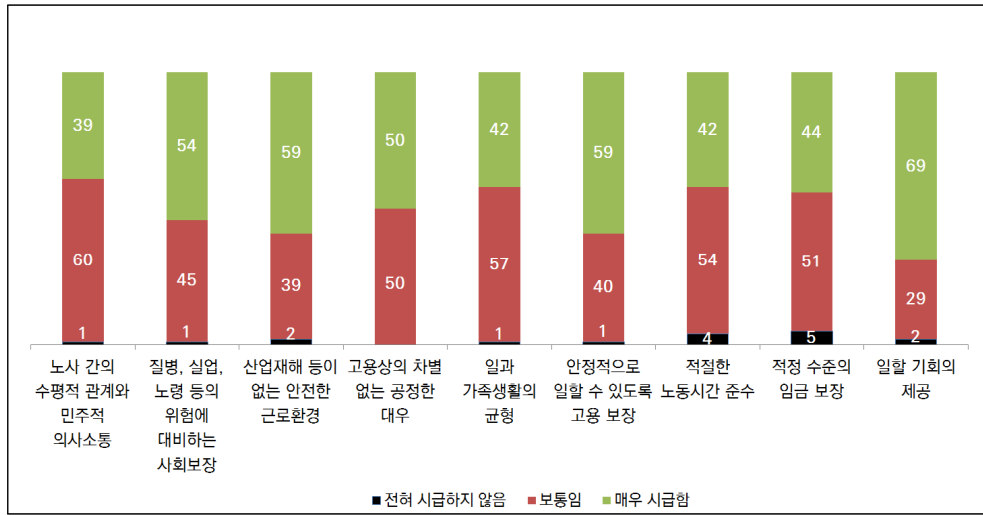
- 경상계열과 보건계열 전문가는 각각 70.0%, 58.6%가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의 시급성이 '보통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사회계열 전문가는 '매우 시급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3%로 가장 높음.

- 또한 진보 성향 전문가는 66.0%가 '매우 시급함'으로 응답하였으나, 보수

와 중도 성향 전문가는 ‘보통임’에 각각 70.6%, 69.7%가 응답함(부록표 참조).

[그림 4-2-39] 좋은 일자리를 위한 개선 과제의 시급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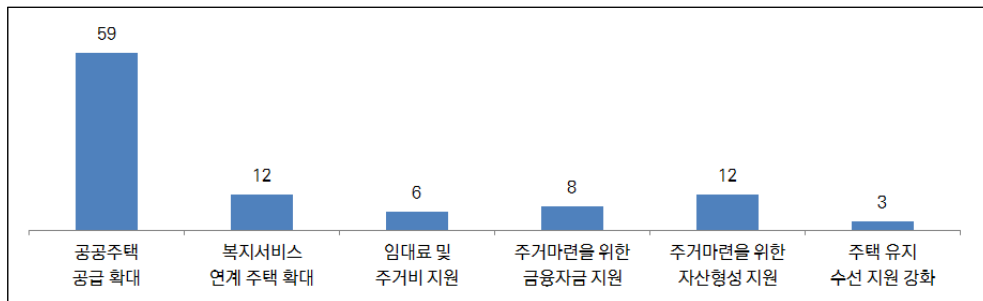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공공 주택 공급 확대’(59%)를 꼽음.

○ 다음으로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12%), ‘주거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12%)으로 나타남.

[그림 4-2-40]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주거복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택 및 주거환경, 이웃관계 등을 포함하는 다음의 7가지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4-2-29〉 주거복지의 수준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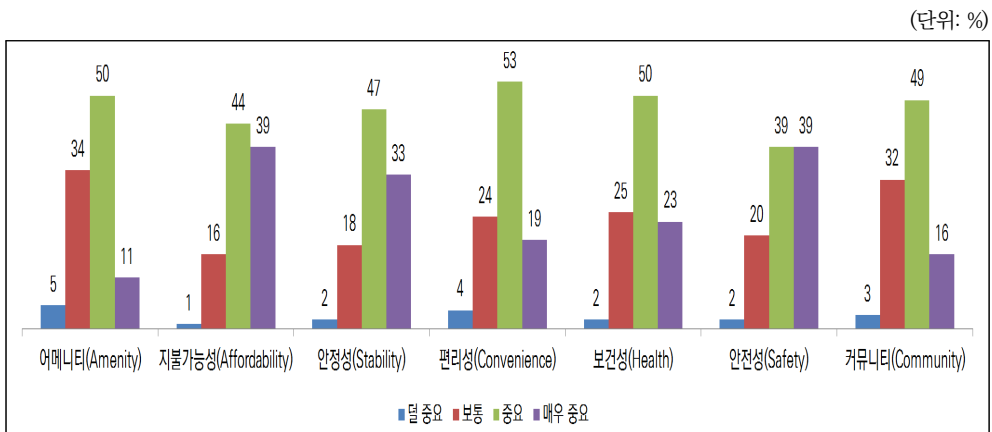
구분	내용
1) 어메니티(Amenity)	주택과 주거환경이 쾌적함
2)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주거비 지출이 적정함
3) 안정성(Stability)	원하는 거주 기간이 보장됨
4) 편리성(Convenience)	거주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시설 및 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장됨
5) 보건성(Health)	거주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음
6) 안전성(Safety)	생활하는데 생명의 위험요소가 없음(주택구조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7) 커뮤니티(Community)	사회경제적 공간 및 환경과 주민들 간의 관계(이웃과의 친밀도 및 지역 자긍심 등)

자료: 강미나 외(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 위의 주거복지 평가 항목들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은 ‘지불가능성’(39%)과 ‘안전성’(39%)으로 나타남.

- 한편 ‘중요’와 ‘매우 중요’ 응답을 합해 전반적인 중요도를 살펴보면, ‘지불가능성’이 83%로 가장 높고 안정성(80%), 안전성(78%)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41〕 주거복지 속성의 중요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6. 사회보장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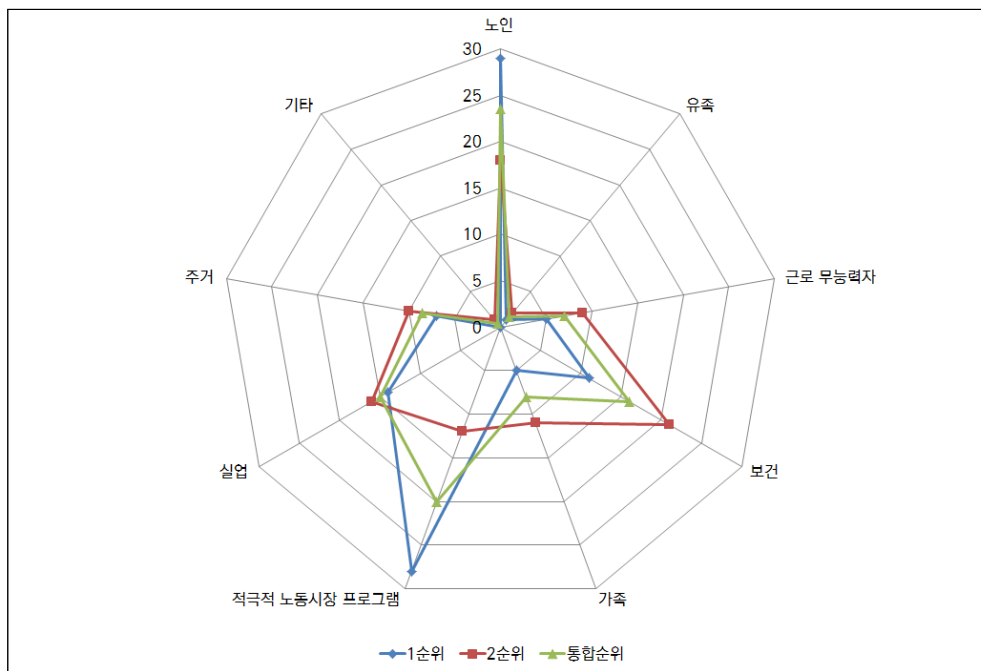
□ 인구의 고령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확대 요구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지출 증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를 묻은 결과, 1순위로는 ‘노인’(29%)을 가장 많은 전문가가 꼽았으며, 2순위로는 ‘보건’(21%)을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음.

- 단, 이를 통합순위로 다시 살펴보면, 지출이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로 ‘노인’(23.5%)이 가장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20%로 그 뒤를 이음.

[그림 4-2-42]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대 시급 분야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복지 혜택과 조세에 대한 선호 정도에 대해서는 2018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의 전문가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유사함. 다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이전 조사에서는 80% 이상이 조세 부담이 있더라도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했으나, 2018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0〉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투자와 조세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11.4	13.0	19.0	14.0	12.0	22.0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88.6	87.0	81.0	86.0	88.0	78.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최성은 외(201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성장만이 중요하다’부터 ‘㉠분배만이 중요하다’까지 10점 척도로 성장과 분배 선호도를 물었을 때, 2018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평균 5.7점으로 분배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에서는 61%의 전문가들이 6점~1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2016년 조사에서는 6점~10점 사이에 응답자의 69%가 분포함.

- 직접적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2016년에 비해 2018년 분배에 대한 선호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1〉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

(단위: %)

구분	성장만이 중요하다 ----- 분배만이 중요하다										계	평균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016년	2.0	1.0	6.0	5.0	17.0	16.0	24.0	23.0	6.0	0.0	100.0	6.3
2018년	3.0	9.0	8.0	5.0	14.0	19.0	20.0	18.0	3.0	1.0	100.0	5.7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분배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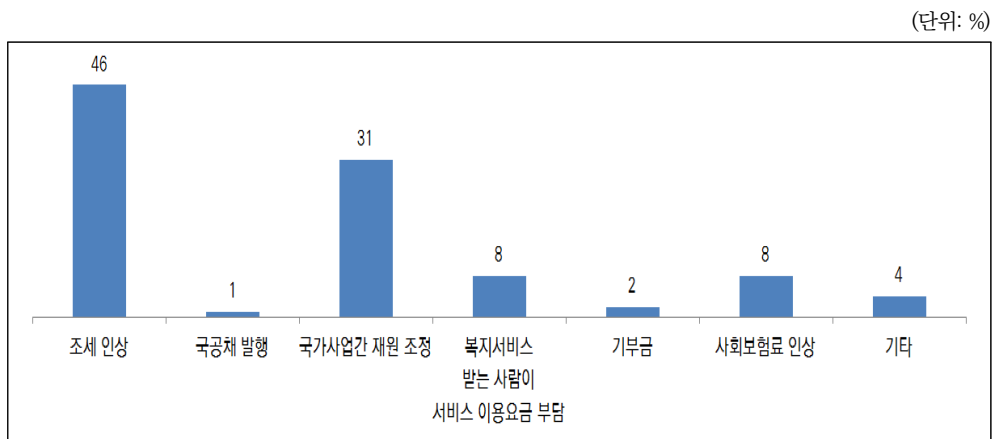
자료: 1)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한편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조세인상’(46%)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사업간 재원 조정’(31%)이 다음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회보장재원 마련 방안은 전문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즉, 보수 성향 전문가는 ‘국가사업 간 재원 조정’에 52.9%가 응답한 것에 반해 중도 성향 전문가는 ‘조세 인상’과 ‘국가사업 간 재원 조정’에 동일하게 39.4%가 응답하고, 진보 성향 전문가는 64.0%가 ‘조세 인상’으로 응답함(부록표 참조).

[그림 4-2-43] 사회보장재원 마련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주요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12년과 2014년 조사 결과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국가사업간 재원 조정’이 ‘조세 인상’과 같거나 높았으나 2015년 이후 조사에서는 ‘조세 인상’이 가장 적절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4-2-32〉 연도별 사회보장(복지)재원을 마련 방안 선호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조세 인상	49.0
	국공채 발행	2.0
	국가사업간 자원 조정	49.0
	기타	0.0
	합계	100.0
2014년	조세 인상	42.0
	국공채 발행	0.0
	국가사업간 자원 조정	56.0
	기타	2.0
	합계	100.0
2015년	조세 인상	44.0
	국공채 발행	2.0
	국가사업간 자원 조정	39.0
	복지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이용요금 부담	7.0
	기부금	2.0
	사회보험료 인상	6.0
	합계	100.0
2016년	조세 인상	52.0
	국공채 발행	1.0
	국가사업간 자원 조정	28.0
	복지서비스 수혜자 이용요금 부담	8.0
	기부금 (기업, 종교단체 등)	4.0
	사회보험료 인상	7.0
	합계	100.0
2018년	조세 인상	46.0
	국공채 발행	1.0
	국가사업간 자원 조정	31.0
	복지서비스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요금 부담	8.0
	기부금 (기업, 종교단체 등)	2.0
	사회보험료 인상	8.0
	기타	4.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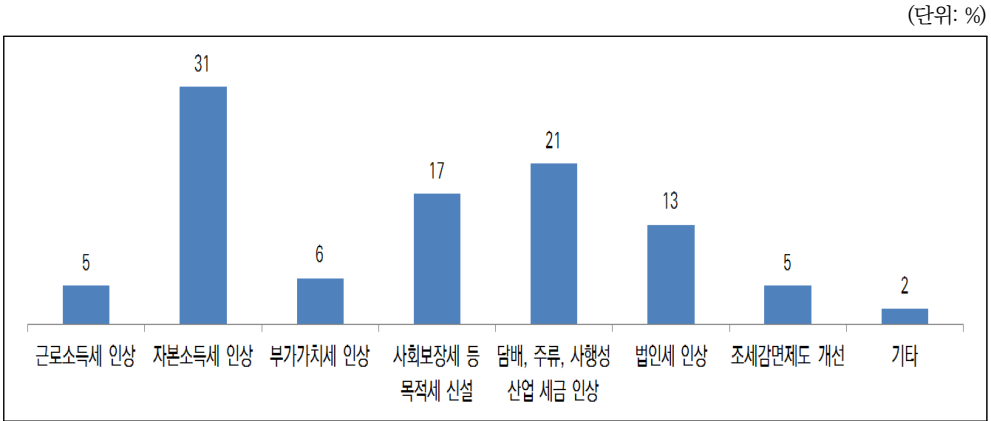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적절한 증세 방안으로는 '자본소득세 인상'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 세금 인상'이 21%로 그 뒤를 이음.

○ '부가가치세 인상'(6%), '근로소득세 인상'(5%), '조세감면제도 개선'(5%)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2-44] 증세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기존 수행된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의 결과와 유사함.

- 모든 조사에서 사회보장재원 확대를 위한 적절한 증세 방안으로 '자본소득세 인상'에 대한 선호가 높음.

〈표 4-2-33〉 사회보장(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적절한 증세 방안(연도별)

(단위: %)

구분		1순위
2012년	근로소득세 인상	5.0
	자본소득세 인상	36.0
	부가가치세 인상	6.0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13.0
	담배주류사행성 산업에 대한 세금 인상	33.0
	법인세 인상	7.0
	기타	0.0
	합계	100.0

구분		1순위
2014년	근로소득세 인상	4.0
	자본소득세 인상	38.0
	부가가치세 인상	5.0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11.0
	담배주류·사행성 산업에 대한 세금 인상	27.0
	법인세 인상	15.0
	기타	0.0
	합계	100.0
2015년	근로소득세 인상	3.0
	자본소득세 인상	28.0
	부가가치세 인상	8.0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8.0
	담배주류·사행성 산업에 대한 세금 인상	14.0
	법인세 인상	28.0
	합계	100.0
2016년	근로소득세 인상	1.0
	자본소득세 인상	34.0
	부가가치세 인상	4.0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15.0
	담배주류·사행성 산업에 대한 세금 인상	10.0
	법인세 인상	32.0
	조세감면제도 개선	4.0
	합계	100.0
2018년	근로소득세 인상	5.0
	자본소득세 인상	31.0
	부가가치세 인상	6.0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17.0
	담배주류·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21.0
	법인세 인상	13.0
	조세감면제도 개선	5.0
	기타	2.0
	합계	100.0

자료: 1) 김태완 외(2012); 김미곤 외(2014); 김미곤 외(2015); 김미곤 외(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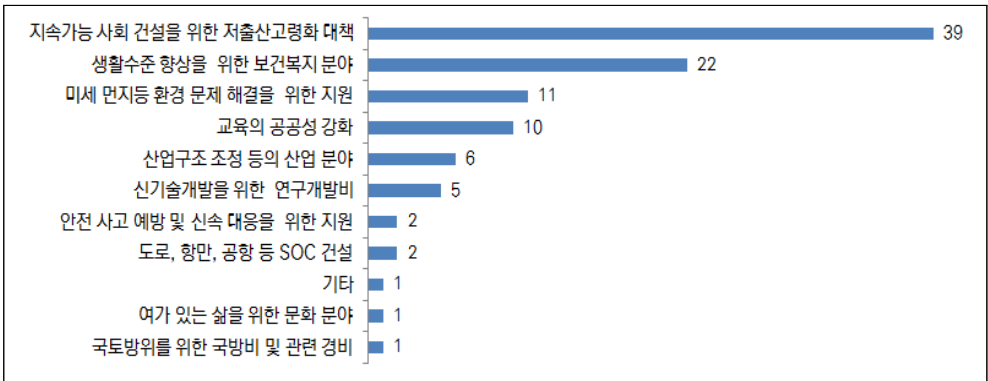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재정이 우선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지속가능 사회 건설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가 22%로 다음 순으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남.

[그림 4-2-45]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 분야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일반국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비교분석

□ 이 절에서는 조사결과를 사회인식과 미래 전망,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 인식으로 구분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함.⁸⁾

1. 사회인식과 미래 전망

□ 첫 번째 살펴본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에 비해 일반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1] 조사대상자별 사회신뢰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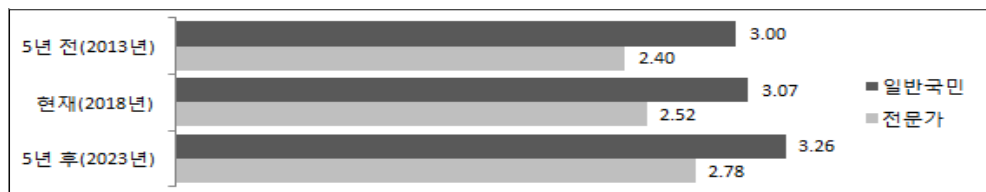
주: '전혀 믿을 수 없다 (0점)' ~ '매우 믿을 수 있다 (10점)'의 11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높은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5년 전과 현재의 소득과 재산 분배 상황에 대한 평가와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두 집단 모두 미래에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4-3-2] 조사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의 분배

(단위: 점)



주: '매우 불평등하다 (1점)' ~ '매우 평등하다 (6점)'의 6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 및 자산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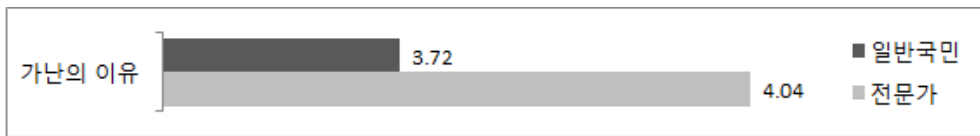
8) 전문가조사의 경우, 기타의 응답은 제외하였다.

□ 가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응답 평균이 모두 6점 리커트척도의 중간값인 3.5점보다 높게 나타나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가 사회구조적 원인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음.

[그림 4-3-3] 조사대상자별 가난의 이유: 개인의 책임 vs. 사회구조적 원인

(단위: 점)



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1점)' ~ '전적으로 사회구조적 원인이다 (6점)'의 6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의 책임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구조적 원인을 강조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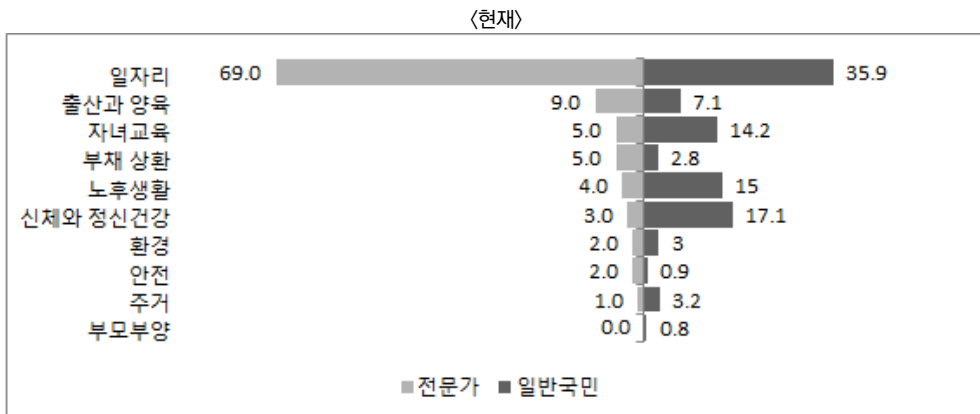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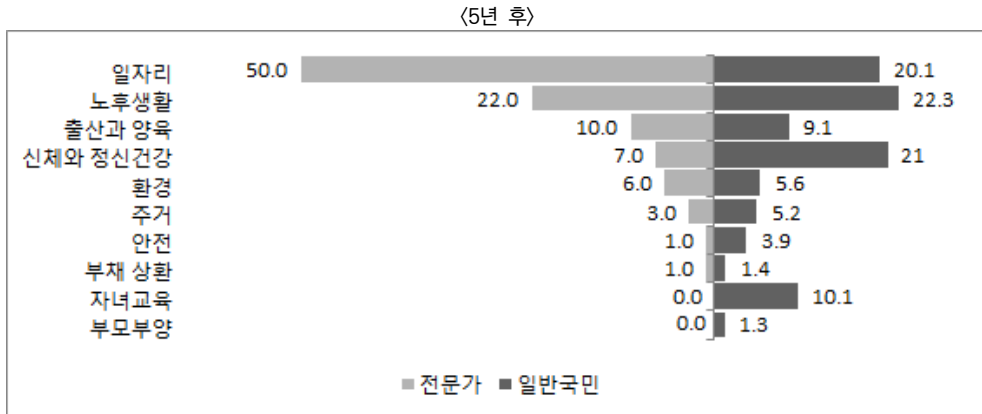
□ 현재와 5년 후 1순위 걱정거리의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모두 현재 걱정거리의 1순위로 일자리를 선택하였음.

○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선정한 5년 후의 걱정거리 1순위도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3-4] 조사대상자별 걱정거리 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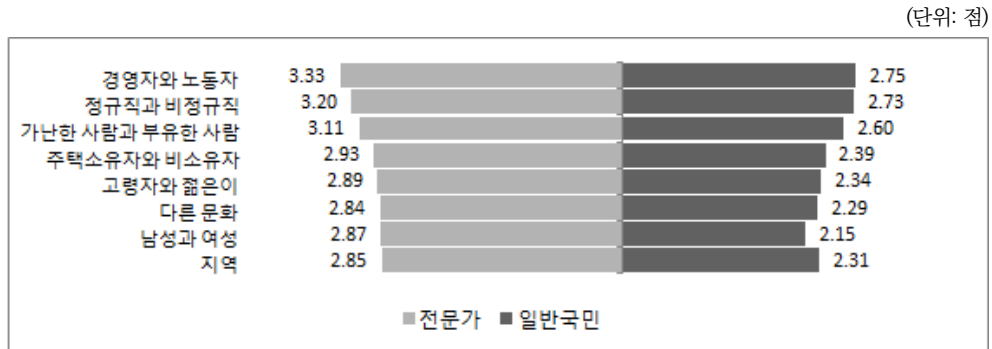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은 주요 집단 간 갈등 상황을 평가한 결과임.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영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이 그 뒤를 이음.

[그림 4-3-5] 조사대상자별 갈등 인식



주: ‘갈등이 매우 심하다(1점)’ ~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척도를 역코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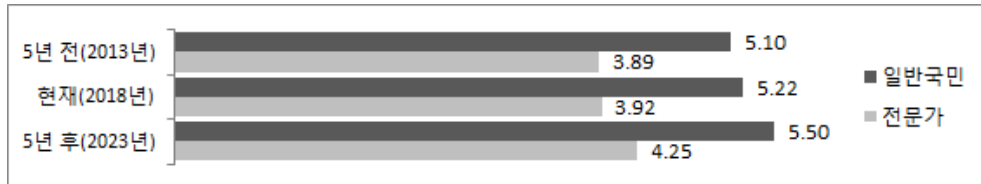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은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에 대한 전망의 비교 분석 결과임. 11점 리커트척도의 중간값인 5점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은 긍정적인 전망을, 전문가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 두 집단 모두 5년 전에 비해 현재, 현재에 비해 미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4-3~6] 조사대상자별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 vs.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단위: 점)



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0점)'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10점)'의 11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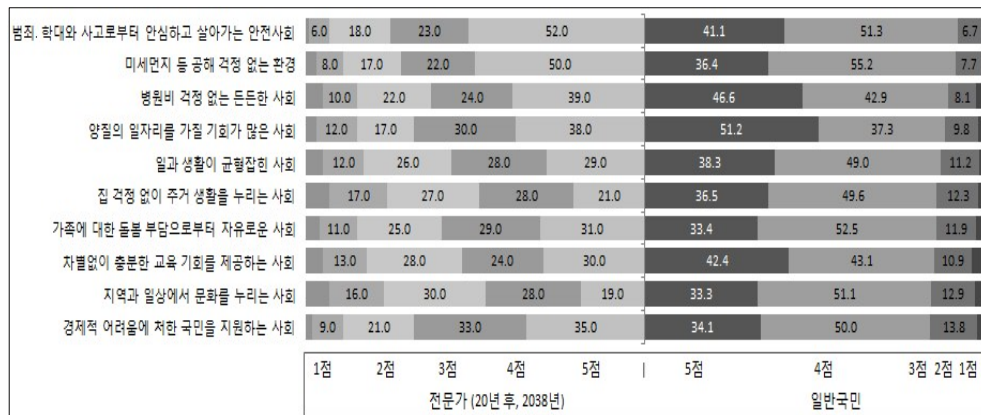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음 그림은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응답한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별 중요도의 빈도분석 결과임. 전문가의 경우, 20년 후 2038년의 모습을 질문함.

○ 중요도가 높은 5점과 4점을 기준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범죄, 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와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3-4~7] 조사대상자별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중요도

(단위: 점)



주: '보통(1점)' ~ '매우 중요(5점)'의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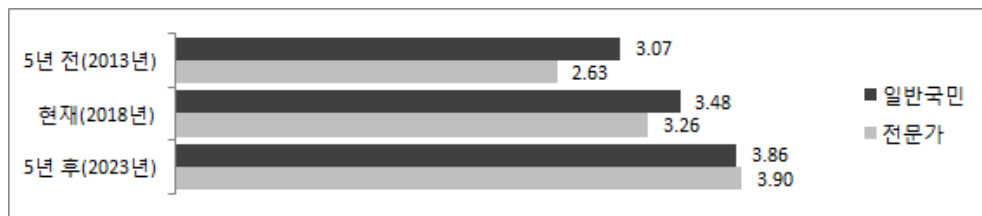
2. 사회보장정책 인식

□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임.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5년 전에 비해 현재, 현재에 비해 미래 사회보장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 5년 전과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의 평가가 다소 인색했으나, 5년 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전망은 미세하게 전문가의 평가가 일반국민에 비해 긍정적임.

[그림 4-3-8] 조사대상자별 사회보장 수준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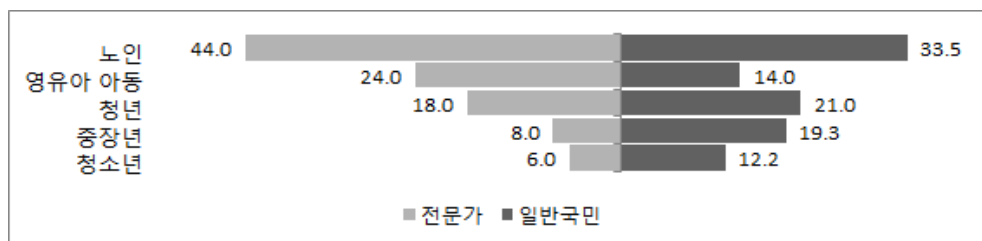
주: '매우 낮다(1점)' ~ '매우 높다(6점)'의 6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보장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그 중점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노인을 선택함.

○ 전문가는 노인에 이어 영유아와 아동, 청년을 사회보장확대 중점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나, 일반국민은 청년과 중장년의 응답률이 높아 집단 간 차이를 보임.

[그림 4-3-9] 조사대상자별 사회보장확대 중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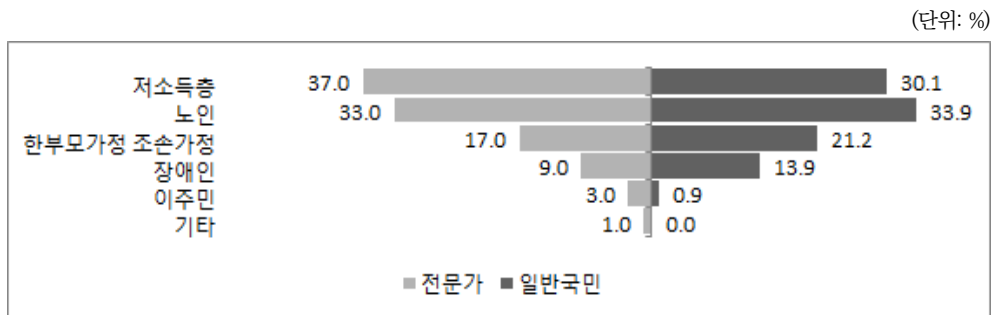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확대 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취약집단으로 전문가는 저소득층과 노인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은 노인의 비중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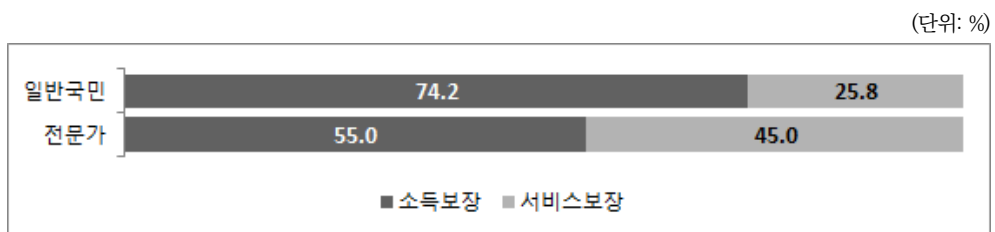
[그림 4-3-10] 조사대상자별 사회보장확대 중점 취약계층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더 우선을 두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74.2%가 소득보장을 선호한 반면, 전문가들은 55.0%가 소득보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11] 조사대상자별 소득보장 vs. 서비스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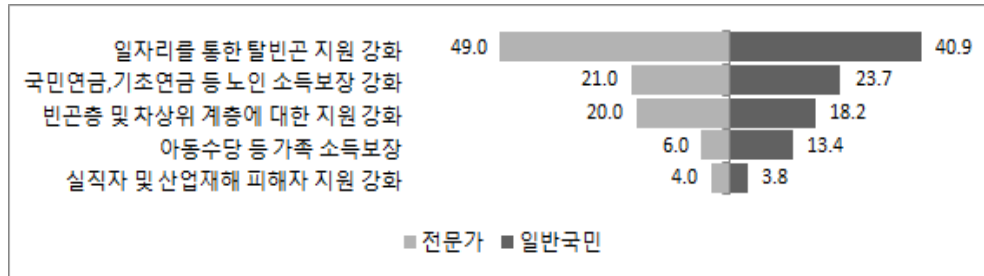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소득보장 중점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 소득보장 강화가 그 뒤를 이음.

[그림 4-3-12] 조사대상자별 소득보장 중점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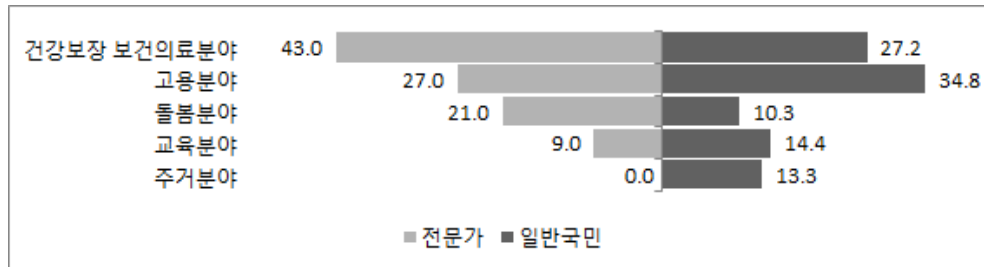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서비스보장의 중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43%가 건강보장과 보건의료분야를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은 고용분야를 선택한 비중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선순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임.

○ 그러나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분야와 고용분야를 강조하는 전반적인 경향은 일관됨.

[그림 4-3-13] 조사대상자별 서비스보장 중점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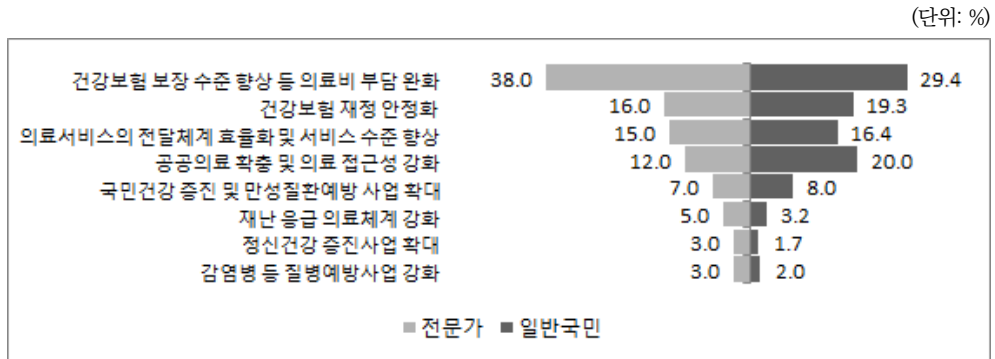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의료분야의 중점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후순위로 전문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순으로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은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건

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순으로 선택하여 집단 간 우선순위의 차이를 보임.

[그림 4-3-14] 조사대상자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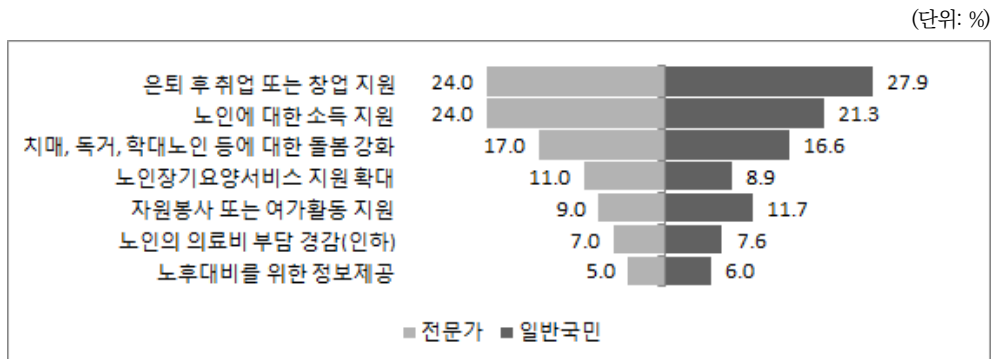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노후지원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과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의 소득보장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등 서비스보장에 대한 수요도 낮지 않음.

[그림 4-3-15] 조사대상자별 노후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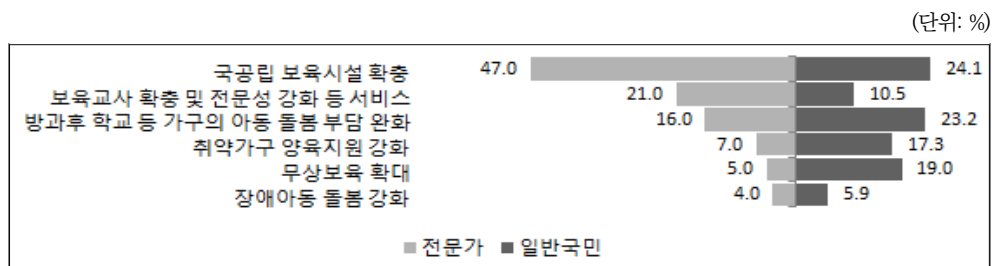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중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응답률이 50%에 육박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방과후 학교 등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의 응답률과 유사한 24%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정책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그림 4-3-16] 조사대상자별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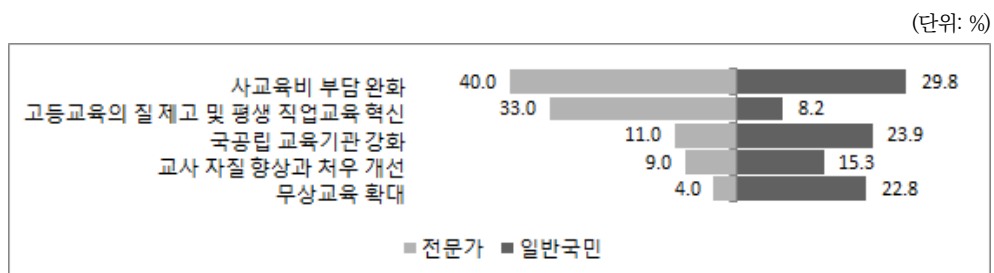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교육정책 중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의 후순위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국민의 경우 국공립 교육기관 강화와 무상교육 확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우선순위의 차이를 보임.

[그림 4-3-17] 조사대상자별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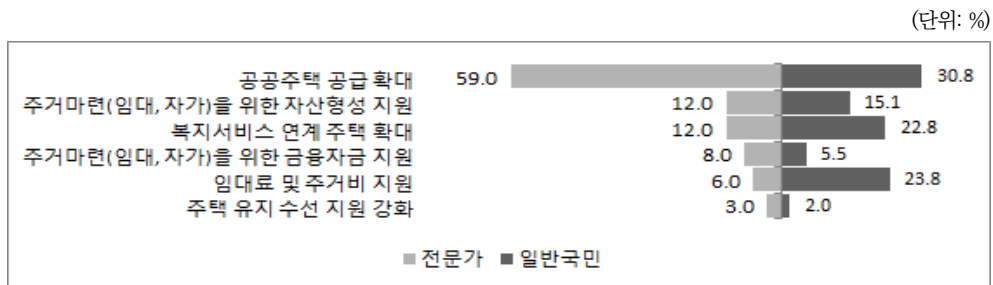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 중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응답률이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에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와 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을 선택한 응답률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보다 다양한 정책 욕구를 보임.

[그림 4-3-18] 조사대상자별 주거 취약가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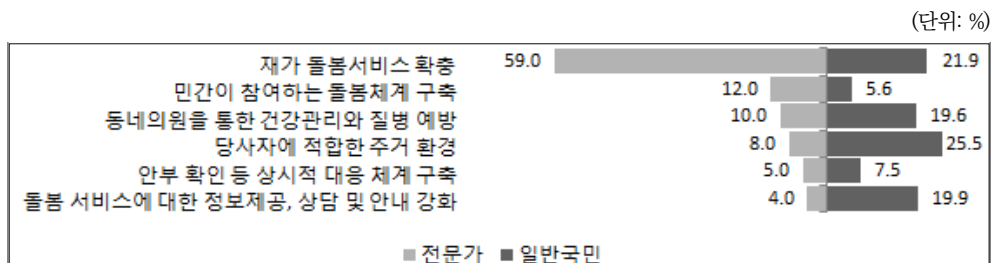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주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는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을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일반국민은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정책 욕구를 보임.

[그림 4-3-19] 조사대상자별 돌봄 대상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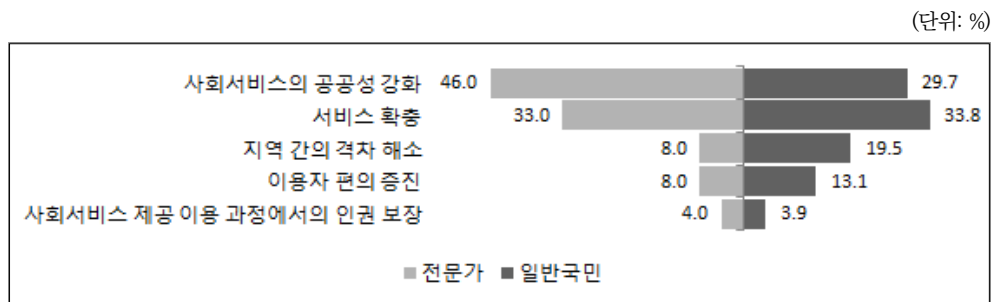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국민은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그러나 일반국민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높게 나타나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욕구를 보임.

[그림 4-3-20] 조사대상자별 사회서비스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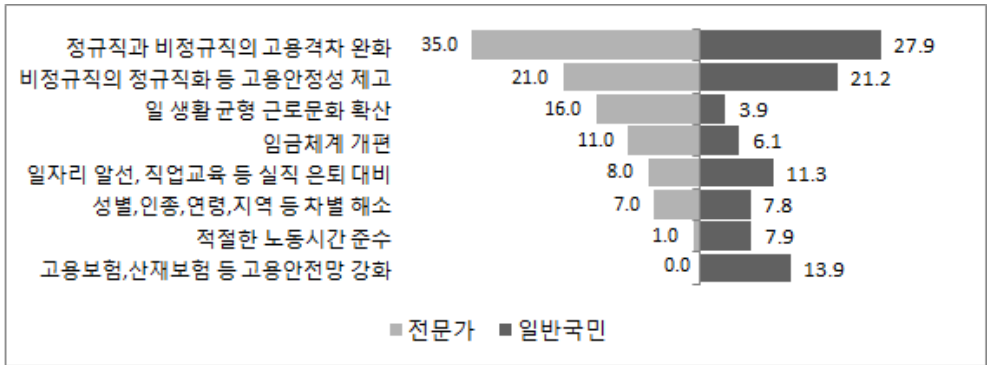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격차 완화를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 제고가 그 뒤를 잇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문가의 경우,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임금체계 개편 등이 후순위로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알선과 직업교육 등 실직과 은퇴 대비 등이 후순위로 나타나 집단 간 부수적인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3-21] 조사대상자별 일자리 질 개선 정책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 5 장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정책 미래신호 예측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제3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책 미래신호 탐색

제4절 소결

5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 사회보장 정책 미래신호 예측

- 본 장에서는 170개 온라인 채널로부터 수집한 776,806건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있음.
- 미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단어 또는 문서 빈도가 낮으나 증가율이 높은 약신호(weak signal)를 탐지하는 것임.
- 약신호는 ‘미래에 가능한 변화의 징후’(Ansoff, 1975)로 시간이 흐르면서 강신호(strong signal)로, 강신호는 다시 트렌드(trend)나 메가트렌드(mega trend)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임.

제1절 문제제기

1. 분석의 필요성

- 4차산업의 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혁명으로 우리 사회의 대 변혁을 예측하고 있음(송주영 & 송태민, 2018).
- 해외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지능정보 기술의 파격적 영향력에 앞서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미래창조과학부, 2016).
-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미래변화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의 핵심기술을 선별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주기적으로 국가의 미래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Jeong, 2014).

- 그동안 미래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대부분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에 따라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음.
- 최근 SNS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생산되는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실제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집기술과 분석기술의 어려움으로 활발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저성장양극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건설하고,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함.
- 행복한 국민,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체계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 분야 혁신이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하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에는 돌봄, 건강,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분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애주기별 보장 확대 계획과 함께,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됨.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예상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동향과 다양한 보건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적시에 대응하고, 이해집단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분석의 목적

- 우리나라에서 수집가능한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언급된 사회보장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주제분석과 감성분석을 통하여 사회보장 주요 키워드를 분류하고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미래신호를 탐지하여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장의 분석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과 관련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주제분석(text mining)과 감성분석(opinion mining)을 실시함.
- 단어빈도와 문서빈도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주요 정책에 대한 신호를 탐지함.
- 머신러닝 분석을 통하여 탐지된 사회보장 주요 신호에 대한 미래신호를 예측함.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개요

- 오늘날 미래의 환경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감할 수 있는 약신호(weak signal)를 탐지하는 것임(Yoon, 2012; Park and Kim, 2015).
- 약신호는 ‘미래에 가능한 변화의 징후’(Ansoff, 1975)로 시간이 흐르면서 강신호(strong signal)로, 강신호는 다시 트렌드(trend)나 메가트렌드(mega trend)로 발전할 수 있음.
- Hiltunen(2008)은 약신호를 미래신호(future sign)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미래신호를 신호(signal), 이슈(issue), 이해(interpretation)와 같이 3차원의 미래신호 공간으로 설명하였음.
-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된 텍스트 형태의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문서 내에서 출현하는 단어별 빈도를 산출해야 함.
-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위해서는 단어빈도(Term Frequency, TF)와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 DF) 산출해야 함.
 - 단어빈도의 산출은 각 문서에서 단어별 출현빈도를 산출하고, 문서별 출현빈도를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음.
 - 문서빈도는 특정단어가 출현하는 문서의 수를 나타내며, 텍스트마이닝에서

중요한 정보의 추출을 위해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TF-IDF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임(Jeong, 2014).

- Spärck(1972)는 희귀한 단어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역문서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_j = \log_{10}(\frac{N}{DF_j})$)를 제안하였음.
- 단어빈도 분석에 희귀한 단어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단어빈도와 역 문서빈도를 결합하여 'TF-IDF = $TF_{ij} \times IDF_j$ ' 를 산출하여 가중치(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적용함.

□ Yoon(2012)은 웹 뉴스의 문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생성된 단어빈도(Term Frequency, TF)와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 DF)를 Hiltunen(2008)의 신호와 이슈로 각각 연계하였음.

○ 단어빈도, 문서빈도, 발생빈도 증가율을 이용하여 KEM(Keyword Emergence Map)과 KIM(Keyword Issue Map)의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작성된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약신호를 선별하였음.

- KEM은 가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DoV(degree of visibility)를 산출하고, KIM은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DoD(degree of diffusion)를 산출할 수 있음.

$$DoV_{ij} = (\frac{TF_{ij}}{NN_j}) \times \{1 - tw \times (n - j)\} \quad \text{--- 식 1}$$

$$DoD_{ij} = (\frac{DF_{ij}}{NN_j}) \times \{1 - tw \times (n - j)\} \quad \text{--- 식 2}$$

- 여기서 NN 은 전체 문서수를 의미하고, TF 는 단어빈도, DF 는 문서빈도, tw 는 시간가중치(본 연구에서 시간가중치는 0.05를 적용), n 은 전체시간구간, j 는 시점을 의미함.

2. 분석자료 및 대상

□ 본 절에서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 본 분석에서는 153개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4개의 블로그(네이버, 티스토리, 네이트, 다음), 2개의 카페(네이버, 다음), 1개의 SNS(트위터), 16개의 게시판(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등)의 총 170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버즈)를 소셜 빅데이터로 정의하였음.

- 중복도가 80% 이상일 경우 1개의 문서로 취급하였음.

○ 사회보장 관련 토픽의 수집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 7. 1~2018. 6. 30까지 해당 채널에서 요일별, 주말,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 시간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총 776,806건(2017년: 460,090건, 2018년: 316,716건)의 텍스트(Text) 문서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켰음.

○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은 SKT 스마트 인사이트에서 크롤러(Crawler)를 사용하였고, 토픽의 분류는 주제분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사회보장 토픽 및 토픽유사어는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 복지정책, 보건복지, 보건, 복지, 헬스, 의료, 사회보장, 보건의료'를 사용하였음.

○ 온라인 문서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불용어는 '보건대, 보건의료관리과, 뷰티케어' 등을 사용하였음.

□ 사회보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는 [그림 5-1]과 같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크롤링하여 자연어처리와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과 이슈를 도출하여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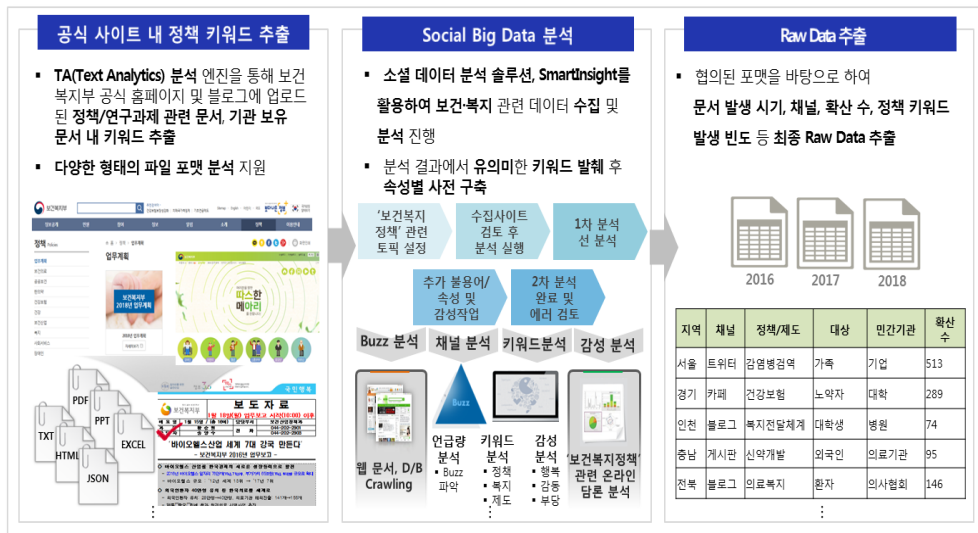
3. 분석방법

□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미래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림 5-2]와 같이 소셜 빅데이터(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게시판)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함.

○ 첫째, 소셜 빅데이터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롤러(Crawler)라는 로봇을 이용함.

○ 둘째, 수집된 정보는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연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기술과 온라인 문서 속에 담긴 감정(긍정/보통/부정)을 분석하기 위한 감성분석(opinion mining) 기술이 필요하고, 텍스트형태의 키워드 분석을 실시함.

[그림 5-1] 사회보장 주제분류 분석 절차



○ 셋째, 문서에서 분류된 키워드는 텍스트 형태로 통계분석과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키워드를 숫자형태로 코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해야 함.

○ 넷째, 미래신호(미래에 사회보장 정책의 수요에 변화를 주는 요인)를 탐색하고 예측하는 단계로 미래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단어빈도(TF), 문서빈도(DF),

TF-IDF(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분석하고, 키워드의 중요도(KEM)와 확산도(KIM)을 분석하여 미래신호를 탐색함.

- 다섯째, 미래신호를 예측하는 단계로 우선적으로 머신러닝(Random Forest)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탐색된 미래신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책 수요 감정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미래신호를 찾아냄.

[그림 5-2] 사회보장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



□ 여기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 정책 수요를 설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머신러닝의 의사결정나무분석, 랜덤포레스트분석, 연관규칙을 사용하였음.

- 머신러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종속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자동적으로 산출해 줌으로써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사회보장정책 수요에 대한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랜덤포레스트(Breiman, 2001)는 기계학습의 분류기법 중 하나로 자료로부터 여러 개의 예측모형을 만든 후, 예측모형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최종 모형을 만들어 사회보장 수요에 연관성이 높은 정책요인을 찾을 수 있음.

- 이 장의 의사결정나무 형성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으로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사용하였음.
- CHAID는 이산형인 종속변수의 분리기준으로 카이제곱(χ^2 -검정)을 사용하며, 모든 가능한 조합을 탐색하여 최적분리를 찾음.
- 정지규칙(stopping rule)으로 관찰치가 충분하여 상위노드(부모마디)의 최소 케이스 수는 100으로 하위노드(자식마디)의 최소 케이스 수는 50으로 설정하였고, 나무깊이는 3수준으로 정하였음.
- 이 장의 기술분석, 다중응답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은 IBM SPSS 23.0을 사용하였고 랜덤포레스트분석, 연관규칙, 시각화는 R 3.5.0을 사용하였음.

4. 분석도구

-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주제분석(text mining)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정형화 데이터로 코드화하여 사용하였음.
- 사회보장 관련 수요
 -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수요(찬성, 반대)의 정의는 감정 키워드에 대한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쳐 ‘관심, 마련, 최고, 진행, 참여, 다양, 운영, 실현, 행복, 노력, 소중, 지원, 가능, 계획, 확대, 시행, 최우선, 발표, 증가, 필요, 도움, 추진’은 찬성의 감정으로, ‘부족, 무시, 반대, 지적, 부담, 억울, 비판, 논란, 문제, 어려움, 규제’는 반대의 감정으로 정의하였음.
- 사회보장 관련 정책
 -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정의는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4차산업혁명, 건강보험, 건강증진,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기초의료보장, 노인정책, 보건산업, 보건의료, 보육정책, 복지급여,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요양보험, 응급의료, 의료보장, 의료자원, 일자리, 자립지원, 자살예방,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감염병정책, 출산정책, 치매'의 27개 정책으로 해당 정책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 사회보장 관련 주요이슈

- 사회보장 관련 주요이슈의 정의는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Metoo, 문재인케어, 미세먼지, 부정부패, 부정수급, 올림픽, 인공지능, 아동학대, 여성혐오, 간병, 군복무, 무상, 우울, 출산율'의 14개 이슈로 정의하였음.
- 정의된 모든 이슈는 해당 대상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 사회보장 관련 대상

- 사회보장 관련 대상의 정의는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가족, 근로자, 노인, 독거인, 비정규직, 아동, 여성, 외국인, 임산부, 장년, 중산층, 청소년, 취약계층, 피해자, 대학생, 환자'의 16개 대상으로 정의하였음.
- 정의된 모든 대상은 해당 대상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 사회보장 관련 분야

-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정의는 주제분석의 과정을 거쳐 '가정, 경제, 노동, 공공서비스, 교육, 교통, 문화, 보건의료, 출산, 사회복지, 안보, 주거, 통일, 환경'의 14개로 정의하였음.
- 정의된 모든 분야는 해당 분야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드화하였음.

5. 자료현황

□ 사회보장 관련 온라인 문서 현황은 <표 5-1>과 같음.

- 사회보장 관련 수요는 찬성의 감정을 가진 버즈는 75.6%로 나타났다.

-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출산정책(10.0%), 건강증진(9.5%), 복지급여(9.0%), 사회보장(8.9%), 기초생활보장(8.4), 보육정책(6.1%) 등의 순임.
 - 사회보장 관련 주요 분야로는 사회복지(63.0%), 보건의료(11.4%), 교육(6.9%), 경제(3.0%), 환경(2.6%), 문화(2.1%) 등의 순임.
 - 사회보장 관련 주요 이슈로는 Metoo(13.6%), 올림픽(13.4%), 미세먼지(12.0%), 우울(10.4%), 부정부패(8.3%), 무상(7.3%), 문재인 케어(6.9%) 등의 순임.
 - 사회보장 관련 대상으로는 취약계층(18.7%), 가족(17.1%), 여성(12.4%), 아동(12.3%), 노인(8.4%), 청소년(8.0%) 등의 순임.
 - 사회보장 관련 수집채널로는 트위터(78.0%), 뉴스(12.0%), 게시판(4.7%), 카페(3.0%), 블로그(2.2%) 순임.
- 사회보장 관련 수요(감정) 분석 결과는 <표 5-2>, <표 5-3>, [그림 5-3], [그림 5-4]와 같음.
- 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찬성 감정은 치매, 사회서비스, 응급의료, 자살예방, 자립지원, 보건산업, 감염병정책, 일자리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국민연금, 출산정책, 아동복지, 사회보장, 노인정책, 복지급여, 기초연금, 보건의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사회보장 관련 이슈에 대한 찬성 감정은 인공지능, 올림픽, 무상, 미세먼지, Metoo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군복무, 부정부패, 간병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사회보장 관련 대상에 대한 찬성 감정은 대학생, 독거인, 청소년, 장년, 임산부, 외국인, 여성, 노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중산층, 피해자, 비정규직, 환자, 가족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사회보장 관련 분야에 대한 찬성 감정은 교육, 문화, 가정, 환경, 교통, 주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 감정은 안보, 공공서비스, 통일, 경제, 출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5-1〉 사회보장 관련 온라인문서(버즈) 현황

구분	항목	N(%)	구분	항목	N(%)
감정	반대	55,380(24.4)	정책	4차산업혁명	2,113(1.5)
	찬성	171,790(75.6)		건강보험	812(0.6)
	계	227,170(100)		건강증진	13,538(9.5)
채널	뉴스	93,500(12.0)		국민연금	4,638(3.2)
	블로그	17,395(2.2)		기초생활보장	12,048(8.4)
	카페	23,633(3.0)		기초연금	2,946(2.1)
	게시판	36,656(4.7)		기초의료보장	6,717(4.7)
	트위터	605,622(78.0)		노인정책	4,236(3.0)
분야	계	776,806(100)		보건산업	632(0.4)
	가정	8,245(2.1)		보건의료	4,748(3.3)
	경제	11,952(3.0)		보육정책	8,781(6.1)
	노동	10,957(2.8)		복지급여	12,856(9.0)
	공공서비스	769(0.2)		사회보장	12,730(8.9)
	교육	27,498(6.9)		사회서비스	6,826(4.8)
	교통	6,099(1.5)		아동복지	7,858(5.5)
	문화	8,398(2.1)		요양보험	2,515(1.8)
	보건의료	45,282(11.4)		응급의료	2,219(1.6)
	출산	8,266(2.1)		의료보장	3,003(2.1)
	사회복지	250,589(63.0)		의료자원	2,446(1.7)
	안보	5,804(1.5)		일자리	5,821(4.1)
	주거	2,047(0.5)		자립지원	1,195(0.8)
	통일	1,374(0.3)		자살예방	842(0.6)
	환경	10,287(2.6)		정신건강	2,111(1.5)
	계	397,567(100)		장애인복지	4,091(2.9)
	대상	가족		45,813(17.1)	감염병정책
근로자		9,811(3.7)	출산정책	14,242(10.0)	
노인		22,586(8.4)	치매	2,232(1.6)	
독거인		11,892(4.4)	계	142,909(100)	
비정규직		9,254(3.5)	이슈	Metoo	4,979(13.6)
아동		32,966(12.3)		문재인케어	2,544(6.9)
여성		33,289(12.4)		미세먼지	4,403(12.0)
외국인		2,715(1.0)		부정부패	3,031(8.3)
임산부		4,988(1.9)		부정수급	1,654(4.5)
장년		2,331(0.9)		올림픽	4,892(13.4)
중산층		1,803(0.7)		인공지능	1,577(4.3)
청소년		21,381(8.0)		아동학대	2,575(7.0)
취약계층		49,928(18.7)		여성혐오	577(1.6)
피해자		3,766(1.4)		간병	951(2.6)
대학생		1,732(0.6)		군복무	1,918(5.2)
환자		13,226(4.9)		무상	2,670(7.3)
계		267,481(100)		우울	3,809(10.4)
				출산율	1,058(2.9)
				계	36,638(100)
감정		2017. 7-9	2017. 10-12	2018. 1-3	2018. 4-6
반대	14,718(22.7)	19,217(27.2)	9,696(22.7)	11,749(24.1)	55,380(24.4)
찬성	50,163(77.3)	51,307(72.8)	33,058(77.3)	37,262(76.0)	171,790(75.6)
계	64,881	70,524	42,754	49,011	227,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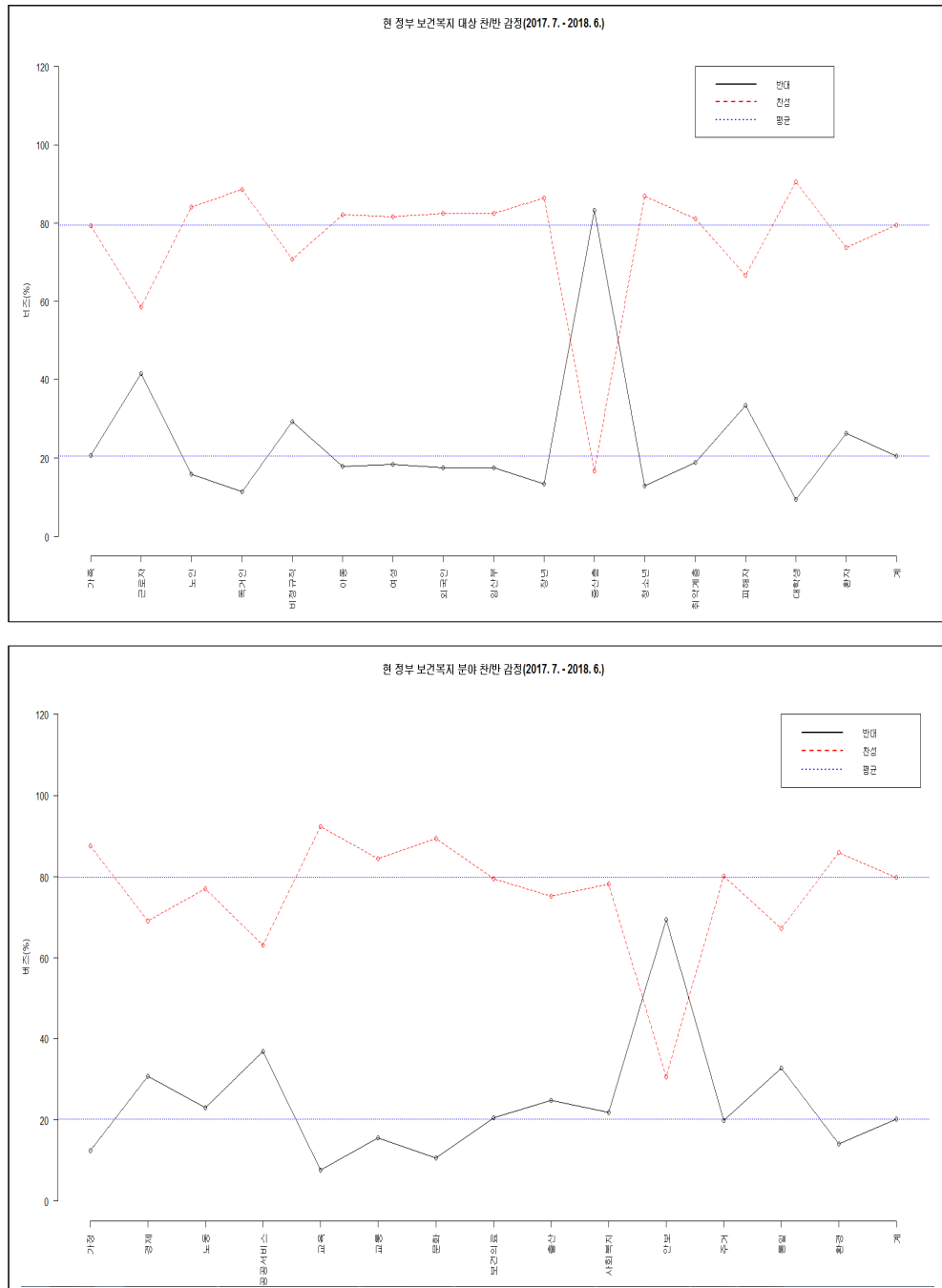
〈표 5-2〉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정책	감정		계	이슈	감정		계
	반대	찬성			반대	찬성	
4차산업혁명	283(15.1)	1,590(84.9)	1,873	Metoo	257(23.0)	859(77.0)	1,116
건강보험	68(16.6)	342(83.4)	410	문재인케어	1,256(89.4)	149(10.6)	1,405
건강증진	992(11.1)	7,969(88.9)	8,961	미세먼지	425(20.3)	1,666(79.7)	2,091
국민연금	913(37.0)	1,555(63.0)	2,468	부정부패	604(36.0)	1,075(64.0)	1,679
기초생활보장	752(10.0)	6,788(90.0)	7,540	부정수급	109(25.4)	320(74.6)	429
기초연금	478(26.8)	1,303(73.2)	1,781	올림픽	482(13.7)	3,039(86.3)	3,521
기초의료보장	144(10.3)	1,250(89.7)	1,394	인공지능	90(7.6)	1,101(92.4)	1,191
노인정책	312(30.3)	1,226(79.7)	1,538	아동학대	283(25.5)	825(74.5)	1,108
보건산업	43(8.1)	487(91.9)	530	여성혐오	31(53.4)	27(46.6)	58
보건의료	773(21.5)	2,824(78.5)	3,597	간병	117(25.5)	341(74.5)	458
보육정책	384(15.7)	2,059(84.3)	2,443	군복무	74(42.0)	102(58.0)	176
복지급여	2,649(27.4)	7,030(72.6)	9,679	무상	237(15.0)	1,343(85.0)	1,580
사회보장	1,881(31.0)	4,178(69.0)	6,059	우울	266(24.8)	807(75.2)	1,073
사회서비스	248(6.2)	3,730(93.8)	3,978	출산율	165(24.5)	508(75.5)	673
아동복지	1,202(32.8)	2,467(67.2)	3,669	계	4,396(26.5)	12,162(73.5)	16,558
요양보험	225(11.3)	1,760(88.7)	1,985				
응급의료	108(6.2)	1,640(93.8)	1,748				
의료보장	275(12.0)	2,014(88.0)	2,289				
의료자원	219(12.9)	1,475(87.1)	1,694				
일자리	432(9.3)	4,235(90.7)	4,667				
자립지원	84(7.8)	989(92.2)	1,073				
자살예방	35(7.0)	465(93.0)	500				
정신건강	148(11.8)	1,106(88.2)	1,254				
장애인복지	159(12.5)	1,110(87.5)	1,269				
감염병정책	52(9.2)	516(90.8)	568				
출산정책	2,324(36.5)	4,037(63.5)	6,361				
치매	72(6.0)	1,129(94.0)	1,201				
계	15,255(18.9)	65,274(81.1)	80,529				

〈표 5-3〉 사회보장 관련 분야와 대상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대상	감정		계	분야	감정		계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가족	3,724 (20.6)	14,371 (79.4)	18,095	가정	797 (12.4)	5,611 (87.6)	6,408
근로자	2,241 (41.4)	3,173 (58.6)	5,414	경제	2,233 (30.8)	5,022 (69.2)	7,255
노인	1,703 (15.9)	8,975 (84.1)	10,678	노동	1,200 (23.0)	4,017 (77.0)	5,217
독거인	504 (11.4)	3,903 (88.6)	4,407	공공서비스	206 (36.8)	354 (63.2)	560
비정규직	555 (29.3)	1,337 (70.7)	1,892	교육	1,414 (7.6)	17,194 (92.4)	18,608
아동	2,920 (17.8)	13,478 (82.2)	16,398	교통	371 (15.6)	2,013 (84.4)	2,394
여성	3,852 (18.3)	17,211 (81.7)	21,063	문화	696 (10.6)	5,893 (89.4)	6,589
외국인	231 (17.6)	1,085 (82.4)	1,316	보건의료	5,157 (20.5)	20,054 (79.5)	25,211
임산부	261 (17.5)	1,232 (82.5)	1,493	출산	886 (24.8)	2,687 (75.2)	3,573
장년	33 (13.5)	211 (86.5)	244	사회복지	18,198 (21.8)	65,274 (78.2)	83,472
중산층	1,240 (83.3)	248 (16.7)	1,488	안보	1,939 (69.4)	854 (30.6)	2,793
청소년	908 (13.0)	6,067 (87.0)	6,975	주거	218 (19.8)	882 (80.2)	1,100
취약계층	5,366 (18.8)	23,212 (81.2)	28,578	통일	226 (32.7)	466 (67.3)	692
피해자	686 (33.3)	1,376 (66.7)	2,062	환경	1,083 (14.1)	6,617 (85.9)	7,700
대학생	98 (9.4)	950 (90.6)	1,048				
환자	2,257 (26.2)	6,356 (73.8)	8,613				
계	26,579 (20.5)	103,185 (79.5)	129,764	계	34,624 (20.2)	136,938 (79.8)	171,562

[그림 5-4] 사회보장 관련 대상과 분야의 수요(감정) 변화



제3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사회보장 정책 미래신호 탐색

1.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단어 및 문서 빈도 분석

□ 단어빈도(TF), 문서빈도(DF), 단어의 중요도 지수를 고려한 문서빈도(TF-IDF)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주요이슈에 대한 인식변화는 <표 5-4>와 같음.

○ 단어빈도에서는 건강증진, 출산정책,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사회 보장, 아동복지, 미세먼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올림픽, 일자리, 기초보장의 료, 국민연금, Metoo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은 건강증진, 출산정책,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등이 우선이고 주요 이슈는 미세먼지, 올림픽, 일자리, Metoo, 우울 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음.

○ 문서빈도는 단어 빈도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노인정책이 단어빈도에서는 20위인 반면 문서빈도에서는 16위로 나타나 키워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빈도에서는 노인정책이 중요하지 않으나 주제의 확산을 나타내는 문서빈도에서는 높게 나타나 노인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미세먼지는 단어빈도에서는 8위인 반면 문서빈도에서는 15위로 나타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요도 지수를 고려한 단어 빈도에서는 정책은 건강증진, 복지급여, 출산정책, 보육정책, 기초생활보장 등이 우선이고 주요이슈는 미세먼지, 올림픽, Metoo, 우울, 무상 등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5-5>와 같이 키워드의 분기별 순위 변화를 보면 출산정책이 2018년 1/4분기까지 4~5위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나다가 2/4분기부터 1위로 타남.

○ 보육정책은 2017년 3/4분기에는 1위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나다가 2017년 4/4분기에는 8위, 2018년 1/4분기에는 21위, 2018년 2/4분기에는 15위로 하락하여 시간이 갈수록 보육정책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Metoo 이슈는 2017년 3/4분기에는 28위로 나타나다가 2017년 4/4분기에

는 18위, 2018년 1/4분기에는 12위, 2018년 2/4분기에는 5위로 상승하여 시간이 갈수록 Metoo 이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온라인 채널의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키워드 분석

순위	단어빈도		문서빈도		단어빈도-역문서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건강증진	25319	출산정책	14242	건강증진	28424
2	출산정책	20227	건강증진	13538	복지급여	22522
3	복지급여	19669	복지급여	12856	출산정책	22262
4	기초생활보장	17405	사회보장	12730	미세먼지	21029
5	보육정책	15759	기초생활보장	12048	보육정책	20654
6	사회보장	14517	보육정책	8781	기초생활보장	20421
7	아동복지	13860	아동복지	7858	아동복지	18834
8	미세먼지	13058	사회서비스	6826	사회보장	16685
9	보건의료	10564	기초의료보장	6717	보건의료	16666
10	사회서비스	9461	일자리	5821	사회서비스	13435
11	올림픽	8391	Metoo	4979	올림픽	13129
12	일자리	7967	올림픽	4892	일자리	11864
13	기초의료보장	7782	보건의료	4748	국민연금	11574
14	국민연금	7289	국민연금	4638	Metoo	11139
15	Metoo	7154	미세먼지	4403	기초의료보장	11105
16	우울	6542	노인정책	4236	우울	10947
17	장애인복지	6112	장애인복지	4091	아동학대	10607
18	아동학대	5754	우울	3809	장애인복지	10038
19	기초연금	5564	부정부패	3031	기초연금	9931
20	노인정책	4834	의료보장	3003	의료자원	8827
21	의료자원	4731	기초연금	2946	응급의료	8212
22	응급의료	4304	무상	2670	노인정책	7866
23	무상	4167	아동학대	2575	무상	7616
24	부정부패	3949	문재인케어	2544	치매	7130
25	의료보장	3862	요양보험	2515	4차산업혁명	7007
26	요양보험	3749	의료자원	2446	부정부패	7000
27	치매	3742	치매	2232	요양보험	6949
28	4차산업혁명	3632	응급의료	2219	의료보장	6861
29	군복무	3356	4차산업혁명	2113	군복무	6616
30	정신건강	3322	정신건강	2111	정신건강	6410
31	인공지능	3079	군복무	1918	인공지능	6331
32	문재인케어	2931	부정수급	1654	문재인케어	5418
33	부정수급	2511	인공지능	1577	부정수급	5111
34	자립지원	1872	자립지원	1195	자립지원	4075
35	출산율	1608	출산율	1058	출산율	3585
36	자살예방	1513	간병	951	자살예방	3524
37	건강보험	1339	자살예방	842	건강보험	3139
38	간병	1230	건강보험	812	감염병정책	2881
39	감염병정책	1200	감염병정책	713	간병	2799
40	보건산업	1038	보건산업	632	보건산업	2547
41	여성혐오	608	여성혐오	577	여성혐오	1516
	합계	284971	합계	179547	합계	422690

〈표 5-5〉 온라인 채널의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순위변화(TF기준)

순위	2017. 7-9	2017. 10-12	2018. 1-3	2018. 4-6
1	보육정책	건강증진	미세먼지	출산정책
2	건강증진	기초생활보장	올림픽	복지급여
3	복지급여	아동복지	복지급여	건강증진
4	출산정책	출산정책	건강증진	아동복지
5	사회보장	복지급여	출산정책	Metoo
6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사회보장	미세먼지
7	일자리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8	장애인복지	보육정책	우울	사회서비스
9	사회서비스	기초의료보장	보건의료	사회보장
10	아동복지	국민연금	아동복지	국민연금
11	기초의료보장	올림픽	군복무	군복무
12	보건의료	기초연금	Metoo	의료자원
13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국민연금	장애인복지
14	아동학대	일자리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15	치매	미세먼지	노인정책	보육정책
16	4차산업혁명	아동학대	아동학대	일자리
17	국민연금	응급의료	기초의료보장	의료보장
18	미세먼지	Metoo	무상	우울
19	부정부패	우울	일자리	노인정책
20	의료자원	노인정책	응급의료	아동학대
21	요양보험	의료자원	보육정책	요양보험
22	정신건강	부정수급	문재인케어	기초의료보장
23	의료보장	장애인복지	의료자원	무상
24	우울	부정부패	기초연금	부정부패
25	노인정책	무상	장애인복지	정신건강
26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치매	문재인케어
27	자살예방	의료보장	요양보험	치매
28	Metoo	인공지능	의료보장	응급의료
29	무상	정신건강	부정부패	건강보험
30	응급의료	문재인케어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31	부정수급	요양보험	인공지능	자립지원
32	출산율	치매	정신건강	4차산업혁명
33	자립지원	출산율	자립지원	부정수급
34	감염병정책	자립지원	감염병정책	기초연금
35	올림픽	간병	보건산업	출산율
36	건강보험	보건산업	출산율	간병
37	간병	감염병정책	부정수급	여성혐오
38	여성혐오	자살예방	자살예방	보건산업
39	보건산업	건강보험	건강보험	감염병정책
40	문재인케어	군복무	간병	자살예방
41	군복무	여성혐오	여성혐오	올림픽

[그림 5-5]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분기별 키워드 변화



2.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탐색

□ <표 5-6>과 같이 사회보장 관련(정책, 이슈) 키워드에 대한 DoV(가시성) 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를 산출한 결과 출산정책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DoV 증가율은 중앙값(0.239) 보다 낮게 나타나(0.205)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증진,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사회보장, 일자리, 기초의료보장은 평균단어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DoV 증가율은 중앙값 보다 낮게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복지, 미세먼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는 평균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DoV 증가율은 중앙값 보다 높게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7>과 같이 DoD(확산성) 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를 산출한 결과 출산정책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DoD 증가율은 중앙값(0.229) 보다 높게 나타나 (0.271)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증진, 복지급여,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은 평균단어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DoD 증가율은 중앙값 보다 낮게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앞에서 제시한 미래신호 탐색절차와 같이 DoV의 평균단어빈도와 DoD의 평균 문서빈도를 X축으로 설정하고 DoV와 DoD의 평균증가율을 Y축으로 설정한 후, 각 값의 중앙값으로 분면을 나누면 2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의 키워드는 약신호가 되고 1사분면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강신호가 됨.

○ 빈도수 측면에서는 상위 10위에 DoV는 건강증진, 출산정책,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사회보장, 아동복지, 미세먼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순으로 포함되었고, DoD에는 출산정책, 건강증진, 복지급여,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기초의료보장, 일자리의 순으로 포함되었음.

○ DoV의 증가율의 중앙값(0.239)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키워드는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올림픽, 미세먼지, 건강보험, Metoo, 아동 복지, 우울, 국민연금,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의료보장 등으로 나타났으며, DoD의 증가율의 중앙값(0.229)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키워드는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올림픽, Metoo, 미세먼지, 아동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우울, 부정수급, 사회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음.

○ 특히 출산정책과 아동학대의 DoV증가율을 중앙값 보다 낮은 반면 DoD의 증가율은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나 출산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5-6〉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가시성(DoV) 평균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

키워드	DoV				평균증가율	평균단어빈도
	2017. 7-9	2017. 10-12	2018. 1-3	2018. 4-6		
건강증진	8920	8148	4718	3533	-0.117	6330
출산정책	5009	5758	4553	4907	0.205	5057
복지급여	5495	5712	4773	3689	0.045	4917
기초생활보장	4005	7548	3265	2587	0.111	4351
보육정책	9119	4229	1307	1104	-0.318	3940
사회보장	4745	4582	3631	1559	-0.163	3629
아동복지	1994	5903	2508	3455	0.410	3465
미세먼지	1128	2003	7063	2864	0.470	3265
보건의료	1605	4943	2885	1131	0.319	2641
사회서비스	2542	2695	1684	2540	0.316	2365
올림픽	390	2992	4864	145	0.490	2098
일자리	2970	2527	1370	1100	-0.125	1992
기초의료보장	1895	3538	1502	847	-0.009	1946
국민연금	1195	3006	1685	1403	0.365	1822
Metoo	784	1677	1708	2985	0.430	1789
우울	829	1516	3192	1005	0.390	1636
장애인복지	2701	1217	995	1199	0.083	1528
아동학대	1299	1941	1531	983	0.088	1439
기초연금	1361	2883	1000	320	-0.093	1391
노인정책	823	1470	1540	1001	0.290	1209
의료자원	1002	1407	1106	1216	0.285	1183
응급의료	669	1706	1335	594	0.285	1076
무상	705	1189	1458	815	0.298	1042
부정부패	1123	1215	808	803	0.089	987
의료보장	868	1100	856	1038	0.299	966
요양보험	925	925	931	968	0.242	937
치매	1223	867	990	662	0.039	936
4차산업혁명	1215	1145	800	472	-0.133	908
군복무	54	117	1884	1301	0.550	839
정신건강	908	988	675	751	0.157	831
인공지능	804	1013	754	508	0.018	770
문재인케어	57	936	1223	715	0.530	733
부정수급	625	1253	292	341	0.239	628
자립지원	455	493	418	506	0.277	468
출산율	496	533	295	284	0.021	402
자살예방	802	286	275	150	-0.201	378
건강보험	332	176	249	582	0.450	335
간병	266	443	237	284	0.294	308
감염병정책	403	293	325	179	-0.028	300
보건산업	220	331	305	182	0.128	260
여성혐오	235	49	52	272	0.510	152
중앙값					0.239	1183

〈표 5-7〉 사회보장 정책, 이슈의 확산성(DoD) 평균증가율과 평균문서 빈도

키워드	DoD				평균증가율	평균단어빈도
	2017. 7-9	2017. 10-12	2018. 1-3	2018. 4-6		
출산정책	3188	3804	3254	3996	0.271	3561
건강증진	4931	4719	2218	1670	-0.189	3385
복지급여	3478	3912	2910	2556	0.048	3214
사회보장	4085	4140	3252	1253	-0.168	3183
기초생활보장	2630	5466	2117	1835	0.112	3012
보육정책	4595	2695	791	700	-0.321	2195
아동복지	998	3375	1478	2007	0.450	1965
사회서비스	1718	1867	1160	2081	0.362	1707
기초의료보장	1632	3274	1178	633	-0.061	1679
일자리	2125	1847	966	883	-0.117	1455
Metoo	627	1025	637	2690	0.490	1245
올림픽	246	2105	2447	94	0.510	1223
보건의료	790	2282	1099	577	0.229	1187
국민연금	652	2239	1001	746	0.400	1160
미세먼지	357	769	2194	1083	0.470	1101
노인정책	664	1281	1418	873	0.335	1059
장애인복지	1944	571	690	886	0.239	1023
우울	521	1332	1320	636	0.385	952
부정부패	812	929	622	668	0.098	758
의료보장	636	854	651	862	0.304	751
기초연금	592	1822	391	141	0.072	737
무상	504	635	832	699	0.358	668
아동학대	584	570	941	480	0.319	644
문재인케어	52	647	1207	638	0.550	636
요양보험	604	674	651	586	0.169	629
의료자원	492	792	570	592	0.231	612
치매	871	474	538	349	-0.001	558
응급의료	306	920	826	167	0.337	555
4차산업혁명	644	684	447	338	-0.066	528
정신건강	511	651	429	520	0.185	528
군복무	50	95	978	795	0.570	480
부정수급	382	1009	107	156	0.365	414
인공지능	379	562	339	297	0.070	394
자립지원	268	376	256	295	0.205	299
출산율	293	350	213	202	0.027	265
간병	205	322	204	220	0.194	238
자살예방	450	155	148	89	-0.166	211
건강보험	218	129	144	321	0.430	203
감염병정책	230	204	189	90	-0.090	178
보건산업	119	213	173	127	0.198	158
여성혐오	222	40	51	264	0.530	144
중앙값					0.229	737

□ 다음 [그림 5-6]과 [그림 5-7]은 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표 5-2〉)와 각 이슈의 평균 증가율(〈표 5-6〉, 〈표 5-7〉)을 교차하여 살펴본 것임.

○ 각 그림에서 1사분면은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영역임. 이 영역에 속하는 정책의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가 주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음.

- 1사분면에 속하는 사례를 긍정 감정이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응급의료, 사회서비스, 자립지원, 요양보험, 의료보장, 의료자원, 올림픽 등의 순임.

○ 2사분면은 긍정 감정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임. 이 경우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치매, 자살예방, 인공지능, 보건산업, 감염병정책,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건강증진,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4차산업혁명, 보육정책 등이 2사분면에 속함.

○ 3사분면은 긍정 감정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영역임. 이 경우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정책 설계에서 잘못이 없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임.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출산율, 아동학대, 기초연금, 복지급여, 사회보장, 부정부패, 출산정책임.

○ 4사분면은 긍정 감정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임. 이 경우 정책이 일반국민의 반감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므로(특히, 반대 감정이 더 높은 경우) 정책설계를 보완 및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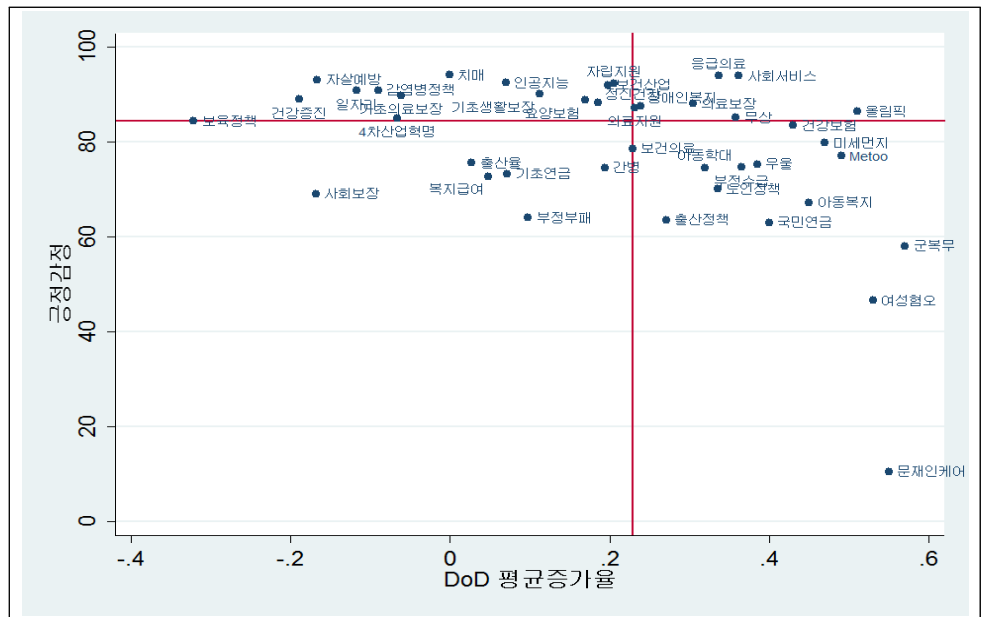
- 여기에 속하는 키워드는 건강보험, 미세먼지, 보건의료, Metoo, 우울, 부정수급, 간병, 노인정책, 아동복지, 국민연금, 군복무, 여성혐오, 문재인케어임.

[그림 5-6] 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그림 5-7] 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감성과 증가율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표 5-8〉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감정 분석과 대응방향

구분	예상되는 리스크 관리	정책 홍보 강화	정책설계 점검	정책설계 보완
	1/4 분면	2/4 분면	3/4 분면	4/4 분면
주요 키워드	응급의료, 사회서비스, 자립지원, 요양보험, 의료보장, 의료자원, 올림픽, 무상	치매, 자살예방, 인공지능, 보건산업, 감염병정책,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건강증진,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4차산업혁명, 보육정책	출산율, 아동학대, 기초연금, 복지급여, 사회보장, 부정부패, 출산정책	건강보험, 미세먼지, 보건의료, Metoo, 우울, 부정수급, 간병, 노인정책, 아동복지, 국민연금, 군복무, 여성혐오, 문재인케어

주: 긍정 감정이 높은 순서로 배열한 것임.

□ [그림 5-8], [그림 5-9]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 키워드의 미래신호 강도를 도식화한 것임. 출산정책은 KEM에서는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로 나타난 반면 KIM에서는 강신호로 나타났음.

○ 〈표 5-8〉과 같이 KEM과 KIM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신호(1사분면)에는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이 포함되었고, 약신호(2사분면)에는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 KIM의 4사분면에만 나타난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으로 나타났으며, KIM의 3사분면에만 나타난 잠재신호는 정신건강, 보건산업, 출산율, 인공지능, 감염병정책, 4차산업혁명, 치매, 자살예방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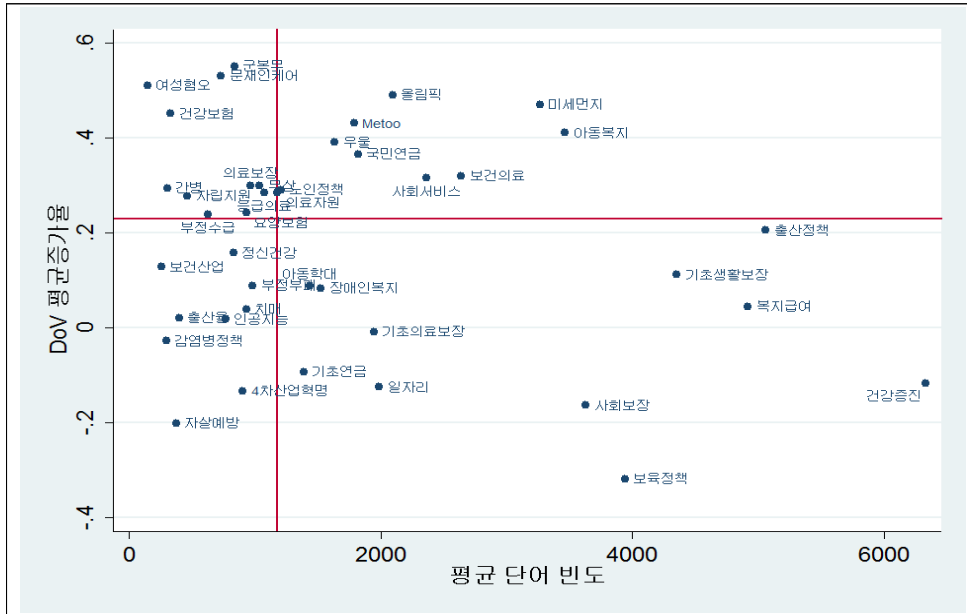
○ 특히 약신호인 2사분면에는 군복무와 문재인케어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키워드가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미세먼지와 아동복지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살예방은 중요도(KEM)와 확산도(KIM) 측면에서 모두 잠재신호로 나타나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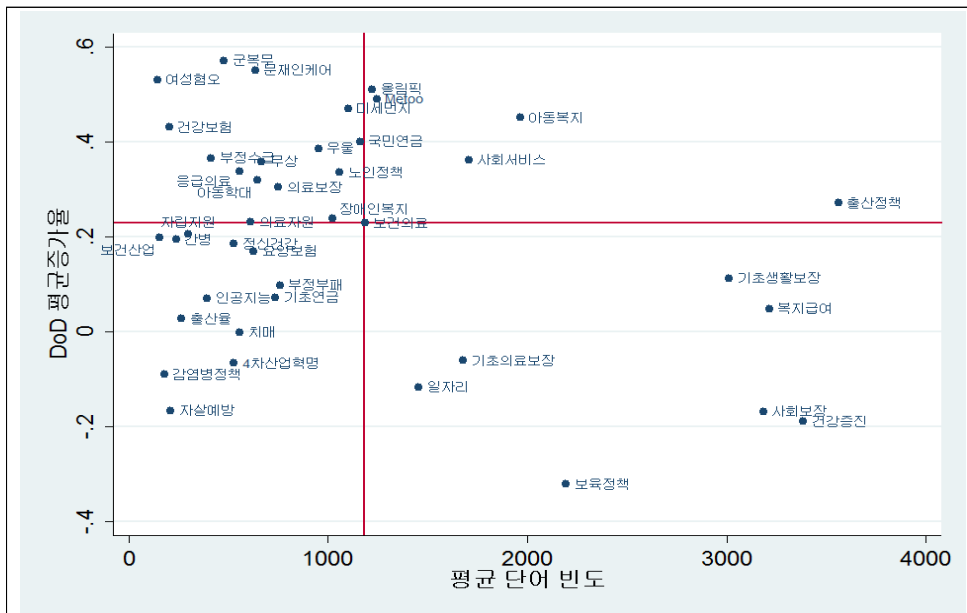
- 이슈의 일반적인 흐름은 잠재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낮은 상태)→약신호(빈도는 낮지만 증가율이 높은 상태)→강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빈도는 높지만 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태)로 이행됨.
- 빈도와 증가율이 낮은 상태는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재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빈도는 낮지만 증가율이 높은 상태인 약신호의 경우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감성분석 결과 부정적 감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사전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인 강신호의 경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임. 특히 감성분석 결과 부정적 감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빈도는 높지만 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태인 4사분면의 경우 감성분석 결과에서 긍정적 감성이 높은 경우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반대로 부정적 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의 경우 정책설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5-8]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 키워드 KEM(중요도)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그림 5-9]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이슈 키워드 KIM(확산도)



주: X축과 Y축의 실선은 중앙값임

〈표 5-9〉 사회보장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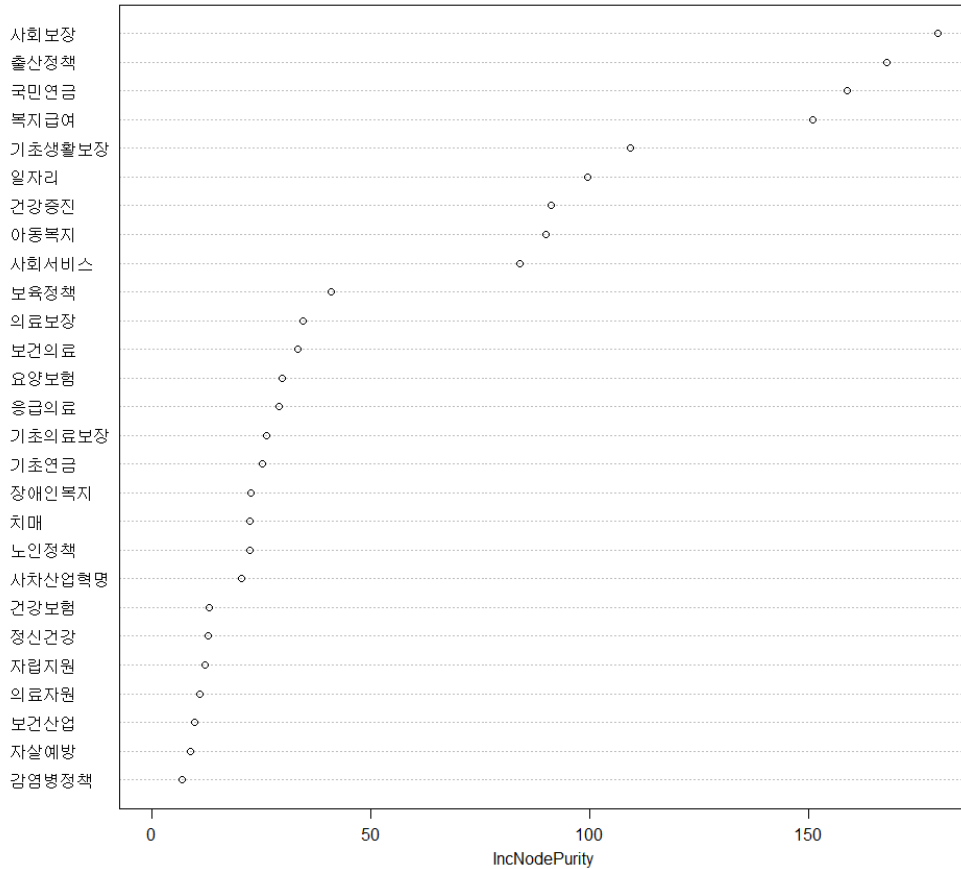
구분	잠재신호 (Latent signal)	약신호 (Weak Signal)	강신호 (Strong signal)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Strong but low increasing signal)
	3/4 분면	2/4 분면	1/4 분면	4/4 분면
중요도 (KEM)	정신건강, 보건산업, 부정부패, 출산율, 인공지능, 감염병정책, 4차산업혁명, 치매, 자살예방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간병, 자립지원, 부정수급, 요양보험, 응급의료, 의료보장, 무상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 의료자원	출산정책,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아동학대, 장애인복지
확산도 (KIM)	정신건강, 보건산업, 출산율, 인공지능, 감염병정책, 4차산업혁명, 치매, 자살예방, 간병, 자립지원, 요양보험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 의료자원, 아동학대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 출산정책, 장애인복지, 의료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부정부패
주요 신호	정신건강, 보건산업, 출산율, 인공지능, 감염병정책, 4차산업혁명, 치매, 자살예방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기초연금, 일자리, 사회보장, 보육정책, 복지급여, 건강증진

3.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통한 주요 사회보장 정책 예측

□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0]과 같음.

○ 랜덤포레스트의 중요도(IncNodePurity) 그림(Importance)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수요(찬성, 반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연관성이 높은) 정책은 ‘사회보장’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출산정책, 국민연금,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건강증진,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보육정책, 의료보장, 보건의료, 요양보험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5-10]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사회보장 주요 정책의 중요도



□ 랜덤포레스트의 중요도로 나타난 정책요인들이 사회보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복지급여,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은 찬성보다 반대 감정의 확률이 높으며, 4차산업혁명, 건강증진,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노인정책, 보건산업, 보건의료 등의 정책은 반대보다 찬성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5-10>).

〈표 5-10〉 사회보장 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요인

Variables in the Equation							95% C.I. for EXP(B)	
	B	S.E.	Wald	df	Sig.	Exp(B)	Lower	Upper
Step 1 ^a								
사차산업혁명	.433	.068	40.197	1	.000	1.542	1.349	1.763
건강보험	.230	.140	2.695	1	.101	1.259	.956	1.657
건강증진	1.027	.041	639.555	1	.000	2.794	2.580	3.026
국민연금	-.376	.047	65.042	1	.000	.687	.627	.752
기초생활보장	1.059	.043	592.788	1	.000	2.882	2.647	3.138
기초연금	.038	.061	.381	1	.537	1.039	.921	1.172
기초의료보장	.925	.091	102.755	1	.000	2.522	2.109	3.016
노인정책	.259	.068	14.529	1	.000	1.296	1.134	1.481
보건산업	1.112	.162	46.856	1	.000	3.041	2.211	4.181
보건의료	.111	.047	5.557	1	.018	1.117	1.019	1.225
보육정책	.755	.059	165.122	1	.000	2.128	1.896	2.387
복지급여	-.341	.031	123.186	1	.000	.711	.670	.755
사회보장	-.296	.035	70.926	1	.000	.744	.694	.797
사회서비스	1.423	.068	433.889	1	.000	4.148	3.629	4.743
아동복지	-.293	.044	45.144	1	.000	.746	.685	.812
요양보험	.711	.074	91.152	1	.000	2.036	1.759	2.356
응급의료	1.684	.103	269.804	1	.000	5.387	4.406	6.586
의료보장	.746	.068	120.949	1	.000	2.109	1.846	2.409
의료자원	.334	.077	19.078	1	.000	1.397	1.202	1.623
일자리	1.331	.054	608.130	1	.000	3.784	3.404	4.206
자립지원	.951	.117	65.681	1	.000	2.589	2.057	3.259
자살예방	1.405	.178	62.127	1	.000	4.076	2.874	5.780
정신건강	.586	.092	40.448	1	.000	1.798	1.500	2.154
장애인복지	.826	.088	87.908	1	.000	2.285	1.922	2.716
감염병정책	1.060	.149	50.921	1	.000	2.886	2.157	3.861
출산정책	-.546	.034	252.576	1	.000	.580	.542	.620
치매	1.463	.124	138.984	1	.000	4.318	3.386	5.507
Constant	.911	.027	1134.326	1	.000	2.488		

4.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사회보장 정책 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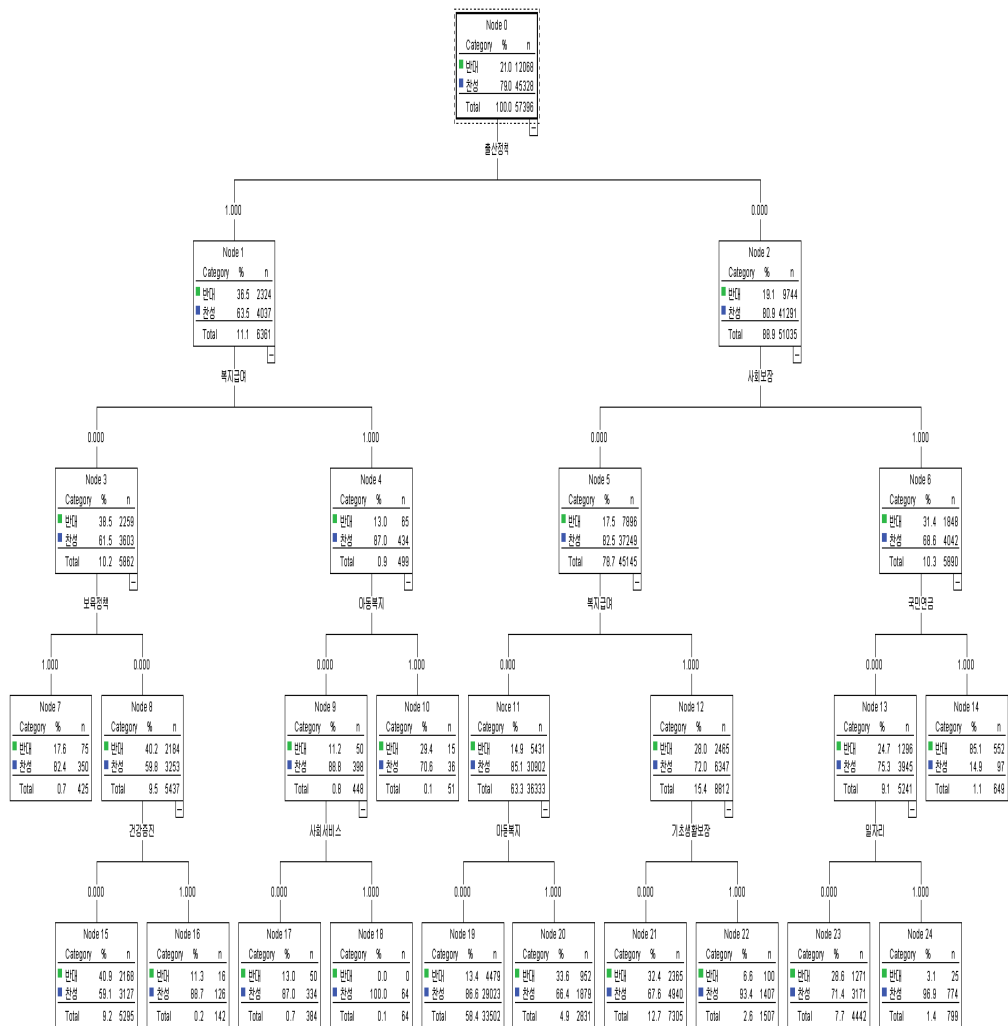
□ 사회보장정책 수요예측모형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는 [그림 5-11]과 같음.

○ 나무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뿌리나무는 예측변수(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종속변수의 빈도임. 뿌리마디의 사회보장에 대한 감정의 비율을 보면 사회보장에 대해 찬성은 79.0%, 반대는 21.0%로 나타났음. 뿌리마다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정책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관련성이 깊은)으로 ‘출산정책’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온라인 문서에 ‘출산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이전의 79.0%에서 63.5%로 감소한 반면, 반대는 이전의 21.0%에서 36.5%로 증가함.

- ‘복지급여’ 정책이 있고 ‘사회서비스’ 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79.0%에서 100.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 정책이 있고 ‘국민연금’ 정책이 있는 경우 반대는 21.0%에서 8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11] 사회보장 정책 수요 예측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5. 연관분석을 통한 정책요인 예측

□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 연관분석은 하나의 온라인 문서에 포함된 둘이상의 단어들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발견하는 것임.

□ 여기서는 <표 5-11>과 같이 하나의 문서에 나타난 정책요인 수요(찬성, 반대)에 대한 연관규칙을 분석하였음.

○ {사회보장, 일자리} → {찬성}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 신뢰도는 0.964, 향상도는 1.22로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사회보장, 일자리’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찬성할 확률이 96.4%이며, 이는 ‘사회보장, 일자리’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찬성할 확률이 약 1.22배 높아지는 것임.

○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복지급여 정책은 연관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찬성}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복지급여의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 사회보장} → {반대} 세 변인의 연관성은 지지도 0.01, 신뢰도는 0.834, 향상도는 3.97로 나타났음.

- 이는 온라인 문서에서 ‘국민연금, 사회보장’ 정책 요인이 언급되면 반대할 확률이 83.4%이며, 이는 ‘국민연금, 사회보장’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문서보다 반대할 확률이 약 3.97배 높아지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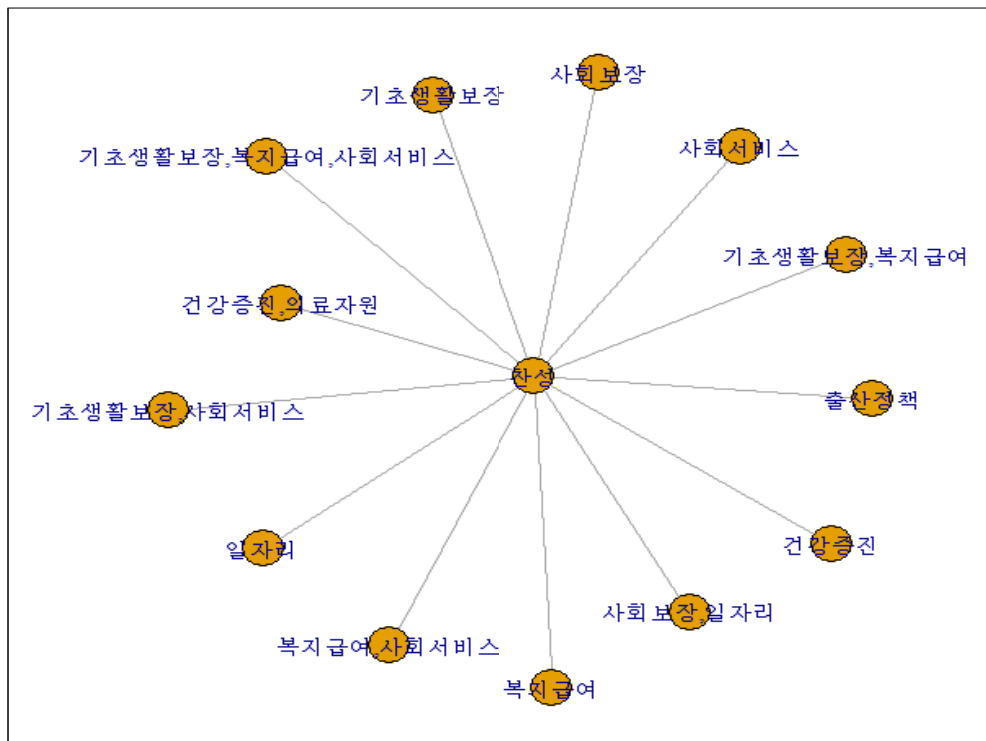
○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복지급여, 사회보장, 아동복지 정책은 연관분석에서도 ‘{국민연금, 사회보장} → {반대}, {복지급여, 아동복지} → {반대}, {복지급여, 사회보장} → {반대}’ 이들 정책에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키워드 간의 관계는 ‘{기초연금} → {아동복지}’,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사회서비스}’ 등으로 상호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1〉 사회보장 주요 정책의 연관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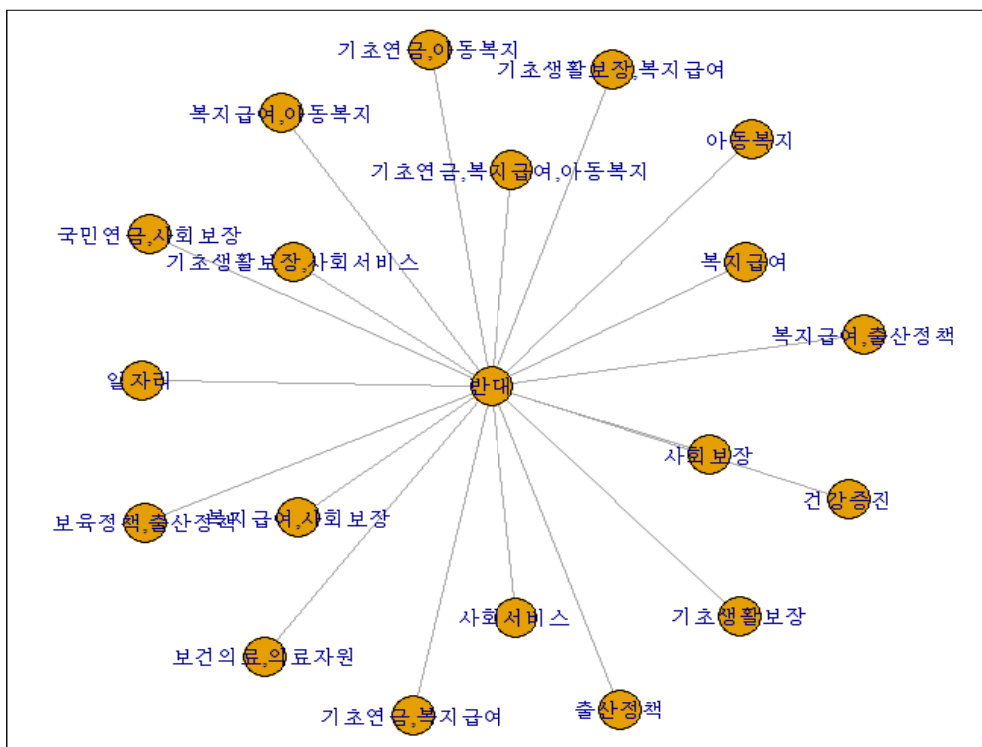
〈찬성〉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사회보장, 일자리}	=> {찬성}	0.01367691	0.9643735	1.2211256	785
[2] {복지급여, 사회서비스}	=> {찬성}	0.02028016	0.9596043	1.2150866	1164
[3]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사회서비스}	=> {찬성}	0.01162102	0.9555874	1.2100003	667
[4]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 {찬성}	0.02341627	0.9518414	1.2052569	1344
[5] {치매}	=> {찬성}	0.01967036	0.9400500	1.1903262	1129
[6] {응급의료}	=> {찬성}	0.02857342	0.9382151	1.1880029	1640
[7] {사회서비스}	=> {찬성}	0.06498711	0.9376571	1.1872963	3730
[8]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찬성}	0.02651753	0.9314565	1.1794449	1522
[9] {자립지원}	=> {찬성}	0.01723117	0.9217148	1.1671096	989
[10] {건강증진, 의료자원}	=> {찬성}	0.01059307	0.9184290	1.1629490	608
[11] {일자리}	=> {찬성}	0.07378563	0.9074352	1.1490282	4235
[12] {기초생활보장}	=> {찬성}	0.11826608	0.9002653	1.1399494	6788
[13] {기초의료보장}	=> {찬성}	0.02177852	0.8967001	1.1354351	1250
[14] {건강증진}	=> {찬성}	0.13884243	0.8892981	1.1260623	7969
[15] {요양보험}	=> {찬성}	0.03066416	0.8866499	1.1227091	1760
[16] {정신건강}	=> {찬성}	0.01926964	0.8819777	1.1167929	1106
[17] {의료보장}	=> {찬성}	0.03508955	0.8798602	1.1141117	2014
[18] {장애인복지}	=> {찬성}	0.01933933	0.8747045	1.1075834	1110
[19] {의료자원}	=> {찬성}	0.02569865	0.8707202	1.1025383	1475
[20] {사차산업혁명}	=> {찬성}	0.02770228	0.8489055	1.0749157	1590
[21] {보육정책}	=> {찬성}	0.03587358	0.8428162	1.0672052	2059
[22] {노인정책}	=> {찬성}	0.02136037	0.7971391	1.0093672	1226
[23] {}	=> {찬성}	0.78974145	0.7897414	1.0000000	45328
[24] {보건의료}	=> {찬성}	0.04920203	0.7850987	0.9941212	2824
[25] {기초연금}	=> {찬성}	0.02270193	0.7316115	0.9263936	1303
[26] {복지급여}	=> {찬성}	0.12248240	0.7263147	0.9196867	7030
[27] {사회보장}	=> {찬성}	0.07279253	0.6895527	0.8731373	4178
[28] {아동복지}	=> {찬성}	0.04298209	0.6723903	0.8514056	2467
[29] {출산정책}	=> {찬성}	0.07033591	0.6346486	0.8036157	4037
[30] {국민연금}	=> {찬성}	0.02709248	0.6300648	0.7978115	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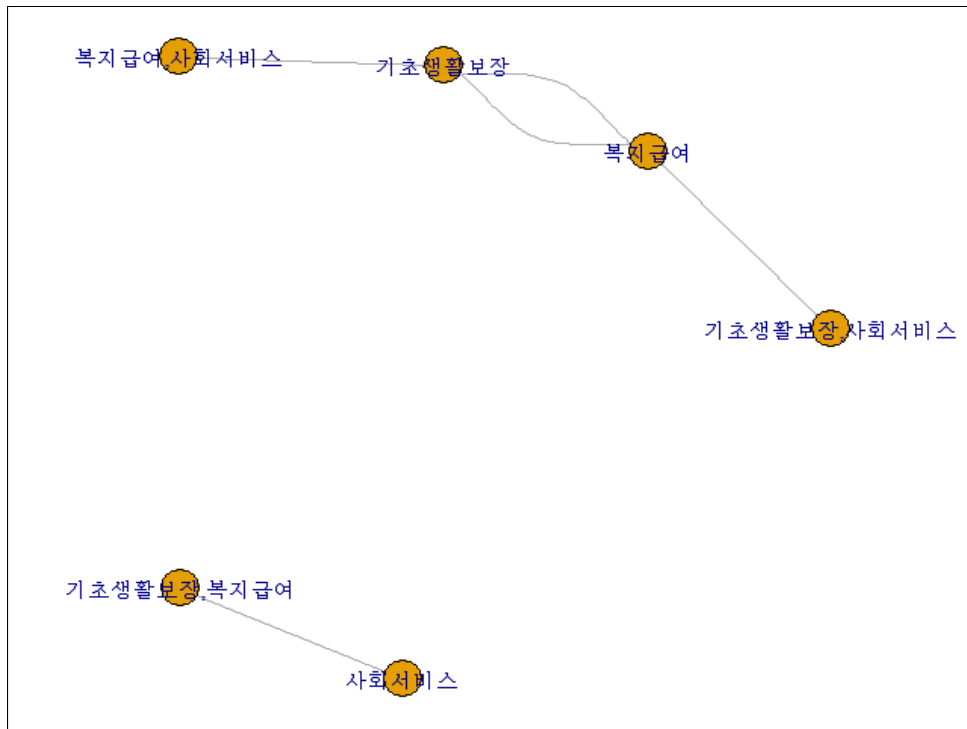
〈반대〉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국립민속박물관, 사회보장}	=>	{한대}	0.0009617395	0.833836826	3.9657690	552
[2]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아동복지}	=>	{한대}	0.002717959	0.47272727	2.2483141	156
[3]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	{한대}	0.006359328	0.39416847	1.8746846	365
[4]	{국립민속박물관}	=>	{한대}	0.015907032	0.36993517	1.7594298	913
[5]	{출산장려책}	=>	{한대}	0.040490627	0.36535136	1.7376290	2324
[6]	{복지급여, 아동복지}	=>	{한대}	0.003327758	0.33745583	1.6049565	191
[7]	{아동복지}	=>	{한대}	0.020942226	0.32760970	1.5581278	1202
[8]	{복지급여, 사회보장}	=>	{한대}	0.002212698	0.32397959	1.5408628	127
[9]	{사회복지급여}	=>	{한대}	0.032772319	0.31044727	1.4765024	1881
[10]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한대}	0.003205798	0.30924370	1.4707782	184
[11]	{복지급여}	=>	{한대}	0.046153042	0.27368530	1.3016607	2649
[12]	{기초생활보장}	=>	{한대}	0.008328106	0.26838855	1.2764691	478
[13]	{보건}	=>	{한대}	0.013467837	0.21490131	1.0220812	773
[14]	{}	=>	{한대}	0.210258555	0.21025855	1.0000000	12068
[15]	{노동정책}	=>	{한대}	0.005435919	0.20286086	0.9648162	312
[16]	{보육정책, 출산장책}	=>	{한대}	0.001428671	0.16803279	0.7991722	82
[17]	{건강보험료, 의료자원}	=>	{한대}	0.001184752	0.16585366	0.7888081	68
[18]	{보건, 의료자원}	=>	{한대}	0.001097637	0.16492147	0.7843746	63
[19]	{보육정책}	=>	{한대}	0.006690362	0.15718379	0.7475738	384
[20]	{사차산업, 열병}	=>	{한대}	0.004930657	0.15109450	0.7186129	283
[21]	{복지급여, 출산장책}	=>	{한대}	0.001132483	0.13026052	0.6195254	65
[22]	{의료자원}	=>	{한대}	0.003815597	0.12927981	0.6148611	219
[23]	{장애인복지}	=>	{한대}	0.002770228	0.12529551	0.5959116	159
[24]	{국립민속박물관}	=>	{한대}	0.004791275	0.12013980	0.5713908	275
[25]	{영양건강}	=>	{한대}	0.002578577	0.11802233	0.5613200	148
[26]	{요양보호}	=>	{한대}	0.003920134	0.11335013	0.5390988	225
[27]	{건강증진}	=>	{한대}	0.017283434	0.11070193	0.5265038	992
[28]	{기초생활보장}	=>	{한대}	0.002508886	0.10329986	0.4912992	144
[29]	{기초생활보장}	=>	{한대}	0.013101958	0.09973475	0.4743434	752
[30]	{임차리}	=>	{한대}	0.007526657	0.09256482	0.4402428	432
[31]	{자립지원}	=>	{한대}	0.001463517	0.07828518	0.3723282	84
[32]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한대}	0.001951355	0.06854345	0.3259960	112
[33]	{사회서비스}	=>	{한대}	0.004320859	0.06234289	0.2965058	248
[34]	{응급}	=>	{한대}	0.001881664	0.06178490	0.2938520	108
[35]	{치매}	=>	{한대}	0.001254443	0.05995004	0.2851253	72
[36]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	{한대}	0.001184752	0.04815864	0.2290449	68



〈키워드 간 관계〉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기초연금}	=> {아동복지}	0.01613353	0.51993262	8.1335658	926
[2]	{아동복지}	=> {기초연금}	0.01613353	0.25238485	8.1335658	926
[3]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사회서비스}	0.01216113	0.42717258	6.1633981	698
[4]	{복지급여, 사회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0.01216113	0.57543281	4.3803106	698
[5]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 {복지급여}	0.01216113	0.49433428	2.9313783	698
[6]	{사회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0.02460102	0.35495224	2.7019680	1412
[7]	{기초생활보장}	=> {사회서비스}	0.02460102	0.18726790	2.7019680	1412
[8]	{국민연금}	=> {사회보장}	0.01153390	0.26823339	2.5409347	662
[9]	{사회보장}	=> {국민연금}	0.01153390	0.10925895	2.5409347	662
[10]	{의료자원}	=> {건강증진}	0.01153390	0.39079103	2.5030512	662
[11]	{건강증진}	=> {의료자원}	0.01153390	0.07387568	2.5030512	662
[12]	{복지급여}	=> {기초연금}	0.01036658	0.06147329	1.9810899	595
[13]	{기초연금}	=> {복지급여}	0.01036658	0.33408198	1.9810899	595
[14]	{사회서비스}	=> {복지급여}	0.02113388	0.30492710	1.8082029	1213
[15]	{복지급여}	=> {사회서비스}	0.02113388	0.12532286	1.8082029	1213
[16]	{사회보장}	=> {일자리}	0.01418217	0.13434560	1.6522177	814
[17]	{일자리}	=> {사회보장}	0.01418217	0.17441611	1.6522177	814
[18]	{기초생활보장}	=> {복지급여}	0.02846888	0.21671088	1.2850850	1634
[19]	{복지급여}	=> {기초생활보장}	0.02846888	0.16881909	1.2850850	1634
[20]	{}	=> {아동복지}	0.06392432	0.06392432	1.0000000	3669
[21]	{}	=> {사회서비스}	0.06930797	0.06930797	1.0000000	3978
[22]	{}	=> {보건의료}	0.06266987	0.06266987	1.0000000	3597
[23]	{}	=> {일자리}	0.08131229	0.08131229	1.0000000	4667
[24]	{}	=> {사회보장}	0.10556485	0.10556485	1.0000000	6059
[25]	{}	=> {출산정책}	0.11082654	0.11082654	1.0000000	6361
[26]	{}	=> {건강증진}	0.15612586	0.15612586	1.0000000	8961
[27]	{}	=> {기초생활보장}	0.13136804	0.13136804	1.0000000	7540
[28]	{}	=> {복지급여}	0.16863544	0.16863544	1.0000000	9679
[29]	{건강증진}	=> {복지급여}	0.01000070	0.06405535	0.3798451	574
[30]	{복지급여}	=> {건강증진}	0.01000070	0.05930365	0.3798451	574



제4절 소결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집가능한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언급된 사회보장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미래신호를 탐지하여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170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된 온라인 문서를 대상으로 자연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감성분석(opinion mining)을 실시하였음.
- 사회보장 미래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단어빈도, 문서빈도, TF-IDF를 분석하고, 키워드의 중요도(KEM)와 확산도(KIM)을 분석하여 미래신호를 탐색하였음.
- 그리고 머신러닝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탐색된 미래신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미래신호를 예측하고 미래신호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음.
- 본 연구의 사회보장의 정책과 이슈에 대한 미래신호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연구의 사회보장 정책과 이슈의 미래신호 분석에서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이 강신호로 분류되었음.
 - 특히, 미세먼지와 아동복지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둘째,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은 약신호로 분류되었음.
 - 특히 군복무와 문재인케어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키워드가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자살예방은 중요도(KEM)과 확산도(KIM) 측면에서 모두 잠재신호로 나타나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 정책의 미래신호 예측에서 중요한 정책이면서 반대하는 정책은 국민연금, 복지급여,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 등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복지급여 정책은 연관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찬성}’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복지급여의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복지급여, 사회보장, 아동복지 정책은 연관분석에서도 ‘{국민연금, 사회보장} → {반대}, {복지급여, 아동복지} → {반대}, {복지급여, 사회보장} → {반대}’ 이들 정책에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넷째,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와 같이 ‘복지급여’ 정책이 있고 ‘사회서비스’ 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79.0%에서 100.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책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분야별, 대상자별로 다양한 사회보장 욕구를 적시에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수요예측에서 반대의 확률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대상자와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둘째, 사회보장 정책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사회보장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인식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관련 포털에 동향분석 결과가 시계열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보장 정책 수요예측 및 동향파악을 위한 적시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제2절 정책제언

6

결론 및 정책제언 <<

- 본 장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제1절에서 요약 및 함의를 다루고, 제2절에서 보건복지 인식조사 개선방안 등의 정책건의를 하고자 함.

제1절 요약 및 함의

1. 보건복지 환경변화와 함의

□ 경제 환경 변화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2020년대에는 2%대 성장에서 2030년 후반에는 1%대 성장으로 진입될 것으로 추정됨.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이후 사라졌음.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본 김미곤의 연구(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낙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종합하면 향후 경제환경은 양적 측면(잠재성장률 하락)과 질적 측면(낙수효과) 모두에서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나,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율이 17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주된 가임기(25~34세) 여

성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 인구역전 현상, 노인의 고령화로 나타남.

□ 노동시장 변화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고, 비정규직 비율, 자영업 비율, 저임금자 비율이 높은 편임.
- 일자리 부족현상이 202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청년실업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빈곤 및 분배구조 변화

- OECD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0년에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있음. 중위소득 50%기준 상대 빈곤율은 높은 집단에 속해 있음.
- 신자유주의, 기술의 발전,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인구고령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없는 경제체제, 낮은 복지수준 등의 거시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빈곤 및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복지재정 변화

-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저부담-저복지 유형(C형)의 국가에 속함.
-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 공적 연금 등 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자연 증가,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 등을 감안할

때, 공적 사회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GDP의 2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의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는 대체로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것임.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비례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됨.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 형성기를 지나 복지 성숙기(예, 국민연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요 증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상병수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이로 인한 추가 수요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 패러다임 전환은 많은 수요 증가를 유발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등이 이루어져, 이로 인한 수요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함의

□ 경제정책 기조 검토 필요

-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이었음. 이윤주도 성장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 등을 야기함. 따라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이 필요함.

○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에 대한 치유 없이 복지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후약방문’임.

- 본말(本末)에서 본(本)이 노동정책이라면, 말(末)은 분배정책임. 本(노동정책)의 개선 없이, 末(분배정책)의 개선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사회통합도 어려움.

□ 재원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현재의 국민부담률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것임.

○ 따라서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후 세율 인상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사전에 최고세율 등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불평등 연계조세 체계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함.

4.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조사 결과 및 합의

가.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합의

□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는 6.6점 수준임.

○ 국제비교에서는 2013년 137개국 중 45위(5.959점), 2015년 143개국 중 56위(5.780), 2017년 141개국 중 58위(5.874/10점)⁹⁾로 하락 추세임.

○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은 연령대별로 40대가 낮은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대까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다가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특이한 경향을 보임.

9)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8)에서 제공하는 Online Data를 활용함.

- 국민들의 주요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건강의 만족도가 7.07점으로 가장 높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6.81점,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만족도가 6.75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생활수준 만족도는 6.32점에 불과함. 직업과 시간적 여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각각 6.60점과 6.32점으로 낮게 나타남.
-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신뢰 수준은 6.33점 수준임(참고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신뢰수준은 5.3점).
- 시도의 시부 거주자의 사회신뢰 수준이 6.2점으로 가장 낮고, 시도의 군부 거주자 신뢰 수준은 6.31점, 광역시 거주자의 신뢰 수준은 6.49점으로 높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높아지고, 주관적 계층의식 또한 이와 일관된 경향을 보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신뢰 수준이 6.56점으로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인구가 6.34점으로 그 뒤를 이음. 고용주와 자영업자(6.06점), 실업자(6.00점),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5.94점)의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국민들의 현재 걱정거리의 1순위는 압도적으로 일자리(35.9%, 전문가의 경우 49%로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은 신체와 정신건강(17.1%), 노후생활(15.0%), 자녀교육(14.2%) 순임.
- 욕구와 정책 간의 조응성을 감안하면 사회정책의 무게 중심을 일자리, 건강, 노후생활, 자녀교육 등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들은 미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참고로 전문가들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
- 5년 전의 사회보장수준,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 5년 후 사회보장 수준 전망을 보면, 전반적으로 '낮다'의 부정적인 견해가 감소하고 '높다'의 긍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음.

□ 국민들은 미래 소득 및 불평등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

- 5년 전과 현재의 소득 및 재산 분배 수준 평가와 5년 후 소득 및 재산 분배 수준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감소하고 ‘평등하다’의 긍정적 견해가 증가함.

□ 국민들은 사회보장 확대에 약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소 찬성한다’가 51.9%, ‘찬성한다’가 25.8%, ‘매우 찬성한다’가 2.0%로 전반적인 찬성 의견이 전체의 80%에 가깝게 높게 나타남.
- 그런데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한다’가 5.1%, ‘반대한다’가 17.8%, ‘다소 반대한다’가 45.1%로 부정적인 견해가 68.0%에 이름

□ 사회보장의 주요 대상 및 분야별 지원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확대 시 노인(44%)에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때에도 저소득층(37%) 다음으로 노인(33%)을 중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우선을 두어야 하는 영역은 55%가 소득보장, 45%가 서비스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4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보험, 치매국가 책임제 등) 건강보장·보건의료 분야’가 4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사회보장의 각 분야별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교육 분야: 사교육비 부담 완화(40%)
 - 아동 돌봄 분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47%)

- 성인 돌봄 분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32%)
- 안전 보장 분야: 안전사고 예방 강화(29%)
- 권익 보장 분야: 범죄·안전사고 등 피해자 지원 확대(48%)
- 문화 및 여가 분야: 문화기반 시설 확충(34%)
- 환경 분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개선(69%)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46%)

나. 보건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향후 5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38%)를 1순위로 꼽음.
- 보건의료 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39%)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29%)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공공의료체계 확충(34%)
 - 공공의료체계 확충: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44%)

다.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복지 및 인구정책 영역에서 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근로능력 저소득층의 자립촉진: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36%)
 - 출산율 제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31%)
 -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 지원 강화: 맞벌이 가구 등 취약아동의

돌봄 강화(32%)

- 노후 지원: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24%),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24%)
 - 장애인 지원: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38%)
 - 돌봄 대상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59%)
- 한편,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라. 일자리 및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전문가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75%가 '청년'이라고 응답함.
- 또한 고용정책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 중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의 질 개선 쪽에 약간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은 가중평균 2.7점, 일자리 질 개선은 가중평균 3.3점으로 나타남.
- 일자리 및 주거지원정책 영역에서 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28%)
 - 일자리의 질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격차 완화(35%)
 - 주거취약계층 지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59%)
- 한편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9가지 속성 중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 속성은 일할 기회의 제공'(69%)이었으며, 다음으로 시급한 속성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59%), '산업재해 등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59%)으로 나타남.

- 또한 주거복지 수준 평가를 위한 7가지의 항목에 대한 중요성 평가(중요, 매우 중요)에서는 ‘지불가능성’이 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정성’(80%), ‘안전성’(78%) 순으로 나타남.

마.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평가 및 함의

-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로 ‘노인’(29%) 분야가 꼽혔으며, 사회복지 혜택과 조세에 대한 선호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함.
- 같은 맥락에서, ‘①성장만이 중요하다’부터 ‘⑩분배만이 중요하다’까지 10점 척도로 성장과 분배 선호도를 물었을 때, 평균 5.7점으로 분배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조세인상(46%),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으로는 자본소득세 인상(31%)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재정이 우선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지속가능 사회 건설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요 분석 및 함의

- 첫째, 본 연구의 사회보장 정책과 이슈의 미래신호 분석에서 미세먼지, 아동복지, 올림픽, Metoo, 우울,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정책이 강신호로 분류되었음.
- 특히, 미세먼지와 아동복지는 강신호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둘째, 군복무, 문재인케어, 여성혐오, 건강보험, 부정수급, 응급의료, 무상은 약신호로 분류되었음.
- 특히 군복무와 문재인케어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키워드가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자살예방은 중요도(KEM)와 확산도(KIM) 측면에서 모두 잠재신호로 나타나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 정책의 미래신호 예측에서 중요한 정책이면서 반대하는 정책은 국민연금, 복지급여,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정책 등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복지급여 정책은 연관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 {찬성}’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복지급여의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찬성보다 반대의 확률이 높았던 복지급여, 사회보장, 아동복지 정책은 연관분석에서도 ‘{국민연금, 사회보장} → {반대}, {복지급여, 아동복지} → {반대}, {복지급여, 사회보장} → {반대}’로 나타나 이들 정책에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넷째,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와 같이 ‘복지급여’ 정책이 있고 ‘사회서비스’ 정책이 있는 경우, 찬성은 79.0%에서 100.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책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정책제언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고, 소득 및 재산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지출 확대 및 불평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대상자의 67%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85%가 소득 및 재산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복지지출 확대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영역(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분배정의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 복지욕구가 높은 분야, 과거 성과가 낮은 분야, 보건복지관련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복지수요를 증가시키는 분야, 자살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는 분야 등이 이에 해당함.

- 일자리(35.9%) > 신체와 정신건강(17.1%) > 노후생활(15.0%) > 자녀교육(14.2%)의 순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현재 걱정거리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및 고용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 및 ‘인구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낮은 복지수준, 높은 빈곤율 등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 복지확대가 필요하지만,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에 대한 치유 없이 복지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후약방문’일 수도 있음.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기조를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현재는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인구 정책’에 무게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현재 가장 우선하여야 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일자리 및 고용정책을 들고 있으며(49%), 5년 후, 20년 후에 가장 우선하여야 하는 정책으로는 보건복지인구정책을 들고 있음(5년 후 31%, 20년 후 39%).

□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은 사회보장 각 영역의 중점 정책으로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확대 정책이 필요함.

○ 영역별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보육 및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교육정책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 확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보편성 강화를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와 불평등 완화가 필요함.

□ 높은 빈곤율(46.7%)과 높은 자살률(53.3명/10만 명당)을 보이고 있는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연령대별 삶의 만족 수준은 40대가 낮은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확연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돌봄 및 가족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

□ 현재의 국민부담률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나는 복지요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일반국민 조사 결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세금 등 추가 부담의사(32%)가 사회보장 확대 찬성(79.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미래 한국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함.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과 인식조사 결과 간의 연계분석의 함의

○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아동복지관련 이슈는 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이고(강 신호), 전문가들도 사회보장 확대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아동을 노인

다음으로 꼽고 있음.

- 전문가 조사결과 아동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47%)에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국민의 소득상승과 함께 삶의 질에 관련되는 건강문제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국민들의 현재 걱정거리 2위인 건강문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건의료가 강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이고,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응급의료가 약신호(빈도가 낮지만 향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남.

○ 노후 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전문가 및 국민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5년 후 걱정거리 2위가 노후생활로 나타났으며,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은 강신호(빈도와 증가율이 높은 상태)이고, 감성분석 결과 반대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37.0%). 또한 노인정책과 기초연금도 상대적으로 반대 감정이 높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은 근거중심 정책수립의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조사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증진 시킬 수 있으므로 매년 체계적인 복지인식조사 및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수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매년 진행하여 차년도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비정형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미래 복지욕구 등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강미나, 진정수, 안흥기, 유미경. (2014).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국토연구원
-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7. 10. 18.).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도』 공동 발간, 강원: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2017). 2016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 고제이. (2016). 사회복지재정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과제와 방안. 김미곤 등. 사회보장제도 장기정책방향.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연금재정추계위. (2018.8.17.)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2060 장기 전망.
- _____. (2015).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 기획재정부. (2013). 최근 경제동향.
- 김미곤, 송태민, 여유진, 정홍원, 고제이, 유진영, 등. (2016).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성아, 김진희, 최민정. (2015). 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성아. (2014). 2014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2005). 빈곤 동향 및 요인분해.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김미곤, 김문길, 이윤경, 김성아, 이주미. (2012).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삼. (2017).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한국경제연구원(편),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개롱남은 전설이 되었나(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미래창조과학부. (2016. 12. 2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계획.
- 박일수, 이동현. (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 사회보장위원회. (2016).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동기관.
- 서상목. (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송주영, 송태민.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황소걸음.
- 신영석, 변용찬, 오영호, 이상영, 정경희, 이삼식, 등. (2010). 보건복지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등.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2017).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길상. (2016).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 워크샵 발표 자료집.
- 이연희. (2016). 보건복지 분야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38호, 통권 제23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1-43.
- 이재훈. (2017). 디지털 헬스케어. 차주원 등.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한스미디어.
- 이혜경(1993),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21: 162-191.
- 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은희, 이주미. (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 김태일, 박실비아, 여유진, 임완섭, 이기주. (2011).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윤석. (2016).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에 따른 전략. Microsoft Korea.
- 통계청 보도자료. (2018.8.27.), 2017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 하원규. (2015). 제4차 산업혁명의 신지평과 주요국의 접근법. 주간기술동향. 1710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행정연구원. (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 Ansoff, H.I. (1975). *Managing strategic surprise by response to weak signals*. *Californian Management Review* 18(2), pp. 21-33.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doi: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8.01.030>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 Machine learning*. 45(1), pp. 5-32.
- Clark, A. E. (2015). What makes a good job? Job quality and job satisfaction. *IZA World of Labor*(215).
- Cohen, G. A. (1978). *Karl Marx's theory of history: A defense*. Princeton: Princetom

- University Press.
-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9-102.
-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335-341.
- Gallagher, J. (2017.2.22.). *Life expectancy to break 90 barriers by 2030*. BBC NEWS.
- Geiselberger, H., Appadurai, A., Bauman, Z., Porta, D., Fraser, N., Illouz, E., Mishra, P. Zizek, S., Misik, R., Van Reybrouck, D., Krastev, I., Latour, B., Mason, P., Nachtwey, O., Rendueles, C. & Streeck, W. (2017). *The Great Regression*. Wiley.
- Group, I. R. (2018).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Role of Government V - ISSP 2016*.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4232/1.12994>
- Helliwell, J. F., & Huang, H. (2011). New measures of the costs of unemployment: Evidence fro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3.3 million American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16829. doi: 10.3386/w16829
- Helliwell, J. F., Huang, H., & Wang, S. (2014).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145-162.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2018). *World Happiness Report 2018*. Online Data.
- Hermann, M., Pentek, T., & Otto, B. (2016) "2016: Design Principles for Industrie 4.0 Scenarios" *49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HICSS)*
- Hiltunen, E.(2008). The future sign and its three dimensions. *Futures* 40, pp. 247-260.
- Huang, J., Wu, S., & Deng, S. (2016). Relative Income, Relative Assets, and Happiness in Urban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3), 971-985. doi: 10.1007/s11205-015-0936-3
- Jebb, A. T., Tay, L., Diener, E., & Oishi, S. (2018). Happiness, income satiation and turning points around the world. *Nature Human Behaviour*, 2(1), 33-38. doi: 10.1038/s41562-017-0277-0

- Jeong G. (2014). *A study of future prediction method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Seoul: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orean)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 Kontis, V., et al.(2017); BBC News(2017.2.22.) *Life expectancy to break 90 barrier by 2030*. BBC News
- Lucas, R. E., Clark, A. E., Georgellis, Y., & Diener, E.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8-13.
- OECD. (2013). *Fact 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 OECD. (2016). *Fact 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207.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 OECD publishing, p.95
- Oshio, T. (2017). Which is More Relevant for Perceived Happiness, Individual-Level or Area-Level Social Capital? A Multilevel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3), 765-783. doi: 10.1007/s10902-016-9752-y
- Park Chan-guk & Kim Hyeon-je. (2015). *A study of development direction of new industries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detecting future signals using text mining*.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Pörster, M. (2016). OECD 국가의 불평등 동향: 동인, 결과, 그리고 정책 대안. 2016년 제4차 사회통합포럼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Rifkin, Jeremy. (1996). *The End of Work: :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New York
- Stone, A. A., Schwartz, J. E., Broderick, J. E., & Deaton, A. (2010). A snapshot of the age distribu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22), 9985-9990.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 Wilkinson, R. G., & Pickett, K. (2011). *The spirit level*. Tantor Media, Incorporated.
- WVS (2015). *World Value Survey 1981-2014 Longitudinal Aggregate v.20150418*, 2015.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Aggregate File Producer: JDSystems Data Archive, Madrid, Spain.

Yoon, J. (2012). Detecting weak signals for long-term business opportunities using text mining of Web news. *Journal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9(16), pp. 12543-12550.

부 록 <<

부록 1.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부록 2.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기초분석표

부록 3.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조사표

부록 4.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기초분석표

부록 1.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표

ID :

작성기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정책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7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업체 한국농림유통유통실헙 (02-3279-23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04, 8317)

응답자 이름	_____ - _____ - _____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만 _____ 세 → 만19세 이상만 조사
주소	_____ 시/도 _____ 읍/면/동 (세부주소)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원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인가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유지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차 방문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2차 방문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3차 방문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면접시간	_____ 분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_____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_____		

I. 가구일반사항

문 A1) __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응답자	범주
문 A1-1)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문 A1-3)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문 A1-4)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개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중학교 개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업 기재
문 A1-5)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문 A1-6)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는 2018. 6. 30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문 A1-7) 직업		※ 문 A1-6의 ①-⑥응답자만 응답 ① 비해당 ② 관리자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 문 A1-6의 ⑦-⑩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문 A1-8) 직업안정성		※ 상용직 임금근로자만 응답 (문A1-6의 ① 응답자) ① 비해당 ② 정규직 ③ 비정규직 ※ 문A1-6의 ⑦-⑩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문 A1-9) 고용형태		※ 문A1-6의 ①-⑥응답자 (임금근로자)만 응답 ① 비해당 ② 전일제(풀타임) ③ 시간제(파트타임) ※ 문A1-6의 ⑦-⑩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 전일제란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 ※ 시간제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가 해당

문 A2) __님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속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가구원수	
	명

문 A3) __님댁에 다음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문A3-1) 노인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3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	①	②
문A3-2) 장애인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이며,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①	②
문A3-3) 아동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0년 6월 30일 이후 출생한 자	①	②

문 B5) __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교량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6)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문화와의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III. 사회보장 인식

문 C1) __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점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5년 전(2013년)	①	②	③	④	⑤	⑥
현재(2018년)	①	②	③	④	⑤	⑥
5년 후(2023년)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2) __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평등(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5년 전(2013년)	①	②	③	④	⑤	⑥
현재(2018년)	①	②	③	④	⑤	⑥
5년 후(2023년)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3) __님께서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와 5년 후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현재			
5년 후			

- ① 일자리
- ② 출산과 양육
- ③ 자녀교육
- ④ 신체와 정신건강
- ⑤ 주거

- ⑥ 노후생활
- ⑦ 부채 상환
- ⑧ 부모부양
- ⑨ 환경
- ⑩ 안전

문 C4) __님께서는 __님의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준비하고(되어) 있다 ➡ 문 C4-1)로 가세요
 ②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 문 C4-2)로 가세요

↳ C4-1) __님께서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다면, 주된 방법과 부수적인 방법은 각각 무엇입니까?

주된 것	부수적인 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① 국민연금
 ② 기타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등)
 ③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④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⑥ 부동산 운용
 ⑦ 주식, 채권 등

↳ C4-2) __님께서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②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③ 준비할 능력이 없다
 ④ 자녀에게 의탁한다

문 C5) __님께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②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⑥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문 C6) __님께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
 ④ 중장년
 ⑤ 노인

ㄴ C6-1) __님께서서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 ② 장애인
-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④ 노인
-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문 C7) __님께서서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어느 것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 ② 서비스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 제도 예시

-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 서비스보장: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장기요양, 취업지원, 방과후 돌봄, 주거 등

ㄴ C7-1) __님께서서는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②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 ③ 아동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 소득보장 강화
- ④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 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직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ㄴ C7-2) __님께서서는 향후 5년 동안 서비스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장·보건의료분야
- ② (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분야
- ③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등) 교육분야
- ④ (주택 유지 수선 지원 등) 주거분야
- 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분야

문 C8) ____님께서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③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 ④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⑤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예, 술, 담배 등 생활습관 관리)
- ⑥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 ⑦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
- ⑧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문 C9) 고용정책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____님께서서는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			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문 C9-1)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위한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의 일자리 확대
- ② 여성의 일자리 확대
- ③ 중장년의 일자리 확대
- ④ 노인의 일자리 확대
- ⑤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 ⑥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문 C9-2)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 차별 해소
-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 제고
- ④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
- ⑤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 ⑥ 임금체계 개편
- ⑦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 지원 강화
- ⑧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문 C10)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② 무상보육 확대
- ③ 방과후 학교 등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 ④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 ⑤ 장애아동 돌봄 강화
- ⑥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

문 C11) 교육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공립 교육기관 강화
- ② 무상교육 확대
- ③ 사교육비 부담 완화
- ④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 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문 C12) 주거 취약 가구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
- ②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
- ③ 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
- ④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⑤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금융자금지원(대출)
- ⑥ 주택 유지 수선 지원 강화

문 C13)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 ②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③ 지역 간의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
- ④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 ⑤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 인권 보장 강화

문 C14) __님께서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 ③ 동네의원을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 ⑥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돌봄체계 구축

문 C15) __님께서는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C16) __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매우 반대한다~③다소 반대한다까지 응답한 경우만

↳ 문 C16-1) __님께서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②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므로
- ③ 정부가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 ④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 ⑤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문 C17) __님께서는 가난한 이유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때문이다			전적으로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IV. 미래 전망

문 D1) 지난 5년 ___님댁의 생활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 D2) 향후 5년간 ___님댁의 생활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예상)하십니까?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D3) 귀하는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5년 전(2013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2018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년 후(2023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D4)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열한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사회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한국은...	보통 ← → 매우 중요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①	②	③	④	⑤
(4) 차별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①	②	③	④	⑤
(6)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사회	①	②	③	④	⑤
(8) 지역과 일대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9)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①	②	③	④	⑤
(10)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	①	②	③	④	⑤

V. 가구의 경제적 수준

문 E1) 지난 한해(2017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지출하신 월평균 총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지출 합산)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월 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조사원 참고사항>

- ※ 총생활비=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저금, 저축성보험료, 제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월 50만원 지출
-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문 E2) 지난 1년(2017년) 동안 _____ 님댁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공적이전 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문E2-1)	사회보험 급여	(1)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①	②	③
		(2)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또는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①	②	③
문E2-2)	기초생활 보장급여	(1)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급여, 해산급여 등	①	②	③
문E3-3)	기타 정부 보조금	(1) 기초연금	①	②	③
		(2)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①	②	③
		(3)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①	②	③
		(4) 기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①	②	③

문 E3) 작년 한해(2017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연간 가구총소득은 얼마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산)

구분	해당항목	2017년 소득 (없으면 '0' 기입)					
가구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연간 총	십억	천	백	십	만원

<조사원 참고사항>

- ※ 가구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 세금공제 전 소득
-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 전체 매출액 또는 판매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록
- ※ 금융소득: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 부동산소득: 집세, 토지임대료 수입, 부동산 매매차익 등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 ※ 사적이전소득: 마트 시는 부모 또는 자녀, 그 외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소득,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현금 보조
- ※ 공적이전소득: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현금 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출산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부록 2.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기초분석표

〈부표 2-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499)	49.9
	여자	(501)	50.1
연령	만 19~29세	(174)	17.4
	만 30~39세	(168)	16.8
	만 40~49세	(202)	20.2
	만 50~59세	(202)	20.2
	만 60세 이상	(254)	25.4
가구원수	1명	(98)	9.8
	2명	(225)	22.5
	3명	(236)	23.6
	4명 이상	(441)	44.1
거주지역	광역시	(443)	44.3
	시도 시부	(491)	49.1
	시도 군부	(66)	6.6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11.5
	고졸	(426)	42.6
	대졸 이상	(459)	45.9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71.5
	전세	(220)	22.0
	월세 및 기타	(65)	6.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4.3
	100~150만원	(139)	13.9
	150~200만원	(170)	17.0
	200~250만원	(261)	26.1
	250~300만원	(218)	21.8
	300~350만원	(97)	9.7
	350~400만원	(36)	3.6
	400만원 이상	(36)	3.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8)	36.8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59)	5.9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53)	15.3
	실업자	(47)	4.7
	비경제활동인구	(373)	37.3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9)	4.9
	중하층	(331)	33.1
	중간층	(536)	53.6
	중상층	(84)	8.4

〈부표 2-2〉 주관적 소득계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계
전체		(1000)	4.9	33.1	53.6	8.4	0.0	100.0
성별	남자	(499)	5.4	35.5	51.3	7.8	0.0	100.0
	여자	(501)	4.4	30.7	55.9	9.0	0.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2.3	21.3	62.6	13.8	0.0	100.0
	만 30-39세	(168)	3.0	36.9	55.4	4.8	0.0	100.0
	만 40-49세	(202)	2.5	30.2	59.4	7.9	0.0	100.0
	만 50-59세	(202)	3.0	24.3	59.4	13.4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11.4	48.0	37.0	3.5	0.0	100.0
가구원수 ***	1명	(98)	19.4	49.0	30.6	1.0	0.0	100.0
	2명	(225)	9.8	49.3	35.6	5.3	0.0	100.0
	3명	(236)	0.4	34.3	57.2	8.1	0.0	100.0
	4명 이상	(441)	1.6	20.6	66.0	11.8	0.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3.4	32.7	54.9	9.0	0.0	100.0
	시도 시부	(491)	5.3	32.6	53.6	8.6	0.0	100.0
	시도 군부	(66)	12.1	39.4	45.5	3.0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8.3	43.5	36.5	1.7	0.0	100.0
	고졸	(426)	4.2	36.2	52.1	7.5	0.0	100.0
	대졸 이상	(459)	2.2	27.7	59.3	10.9	0.0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2.8	29.4	56.9	10.9	0.0	100.0
	전세	(220)	7.3	42.3	47.7	2.7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20.0	43.1	36.9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30.2	46.5	23.3	0.0	0.0	100.0
	100-150만원	(139)	11.5	58.3	28.1	2.2	0.0	100.0
	150-200만원	(170)	5.3	37.1	51.8	5.9	0.0	100.0
	200-250만원	(261)	3.1	30.7	59.8	6.5	0.0	100.0
	250-300만원	(218)	0.5	24.8	63.8	11.0	0.0	100.0
	300-350만원	(97)	0.0	21.6	57.7	20.6	0.0	100.0
	350-400만원	(36)	5.6	19.4	63.9	11.1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13.9	69.4	16.7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1.9	28.8	59.2	10.1	0.0	100.0
	임사일용직	(59)	11.9	57.6	23.7	6.8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3.3	33.3	55.6	7.8	0.0	100.0
	실업자	(47)	19.1	44.7	34.0	2.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5.6	31.9	54.4	8.0	0.0	100.0

주: 1) 성별 $\chi^2 = 3.608$, 연령대별 $\chi^2 = 100.270$, 가구원수별 $\chi^2 = 170.088$, 거주지역별 $\chi^2 = 13.535$,최종학력별 $\chi^2 = 77.306$, 주거형태별 $\chi^2 = 75.28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98.434$,경제활동상태별 $\chi^2 = 67.35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1	0.3	0.3	1.6	4.0	15.8	21.4	28.4	22.5	5.0	0.6	100.0	
성별	남자	(499)	0.2	0.6	0.4	2.0	4.8	16.0	22.0	27.7	22.0	3.8	0.4	100.0	
	여자	(501)	0.0	0.0	0.2	1.2	3.2	15.6	20.8	29.1	23.0	6.2	0.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0	0.6	0.0	1.7	2.3	10.9	19.0	29.9	25.9	8.6	1.1	100.0	
	만 30-39세	(168)	0.0	0.6	0.0	1.2	2.4	11.9	20.2	35.7	23.8	4.2	0.0	100.0	
	만 40-49세	(202)	0.0	0.5	0.0	1.5	4.0	15.8	21.8	28.7	22.8	4.5	0.5	100.0	
	만 50-59세	(202)	0.5	0.0	0.5	0.0	3.5	13.9	24.3	24.8	26.7	5.4	0.5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0	0.8	3.1	6.7	23.2	21.3	25.2	15.7	3.1	0.8	100.0	
가구원수 ***	1명	(98)	0.0	0.0	2.0	8.2	8.2	19.4	16.3	17.3	20.4	8.2	0.0	100.0	
	2명	(225)	0.0	0.4	0.4	1.8	5.8	21.3	20.9	27.6	17.8	3.6	0.4	100.0	
	3명	(236)	0.0	0.4	0.0	0.4	2.5	14.8	21.6	32.2	22.9	4.2	0.8	100.0	
	4명 이상	(441)	0.2	0.2	0.0	0.7	2.9	12.7	22.7	29.3	25.2	5.4	0.7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0.0	0.2	0.0	1.6	3.8	13.1	19.4	33.0	23.9	4.7	0.2	100.0	
	시도 시부	(491)	0.2	0.2	0.6	1.2	4.1	17.5	23.6	24.6	21.6	5.3	1.0	100.0	
	시도 군부	(66)	0.0	1.5	0.0	4.5	4.5	21.2	18.2	25.8	19.7	4.5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9	0.0	0.9	4.3	7.8	25.2	16.5	26.1	13.9	3.5	0.9	100.0	
	고졸	(426)	0.0	0.7	0.5	1.6	4.0	16.9	25.1	26.8	20.2	3.8	0.5	100.0	
	대졸 이상	(459)	0.0	0.0	0.0	0.9	3.1	12.4	19.2	30.5	26.8	6.5	0.7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0	0.1	0.1	1.3	2.9	14.8	21.3	29.4	24.1	5.3	0.7	100.0	
	전세	(220)	0.0	0.0	0.5	1.4	5.9	19.1	22.3	29.1	19.5	1.8	0.5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3.1	1.5	6.2	9.2	15.4	20.0	15.4	15.4	12.3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0.0	0.0	14.0	18.6	30.2	11.6	16.3	7.0	2.3	0.0	100.0	
	100-150만원	(139)	0.7	1.4	1.4	3.6	2.9	20.1	20.1	25.2	22.3	2.2	0.0	100.0	
	150-200만원	(170)	0.0	0.6	0.6	1.2	4.7	17.6	24.7	31.8	14.7	2.4	1.8	100.0	
	200-250만원	(261)	0.0	0.0	0.0	0.4	4.2	16.5	22.6	28.4	23.0	4.6	0.4	100.0	
	250-300만원	(218)	0.0	0.0	0.0	0.9	3.7	11.0	21.6	27.5	29.4	5.5	0.5	100.0	
	300-350만원	(97)	0.0	0.0	0.0	0.0	1.0	9.3	21.6	33.0	22.7	11.3	1.0	100.0	
	350-400만원	(36)	0.0	0.0	0.0	0.0	0.0	16.7	22.2	30.6	22.2	8.3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0.0	0.0	0.0	13.9	11.1	30.6	33.3	11.1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0	0.0	0.5	2.4	13.3	17.9	32.1	24.7	8.4	0.5	100.0	
	임사일용직	(59)	0.0	0.0	1.7	3.4	5.1	23.7	15.3	32.2	13.6	3.4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0.7	0.0	0.7	4.6	18.3	28.8	23.5	20.3	2.0	0.7	100.0	
	실업자	(47)	0.0	2.1	0.0	6.4	12.8	23.4	14.9	21.3	14.9	4.3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3	0.5	2.1	4.0	15.0	23.6	27.1	23.6	3.2	0.5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4.1	4.1	10.2	10.2	36.7	16.3	6.1	8.2	0.0	2.0	100.0	
	중하층	(331)	0.0	0.0	0.3	2.7	8.2	25.1	25.7	24.5	13.0	0.6	0.0	100.0	
	중간층	(536)	0.0	0.2	0.0	0.4	1.3	10.1	21.1	31.5	27.6	6.9	0.9	100.0	
	중상층	(84)	0.0	0.0	0.0	0.0	1.2	3.6	9.5	36.9	35.7	13.1	0.0	100.0	

주: 1) 성별 $\chi^2 = 11.006$, 연령대별 $\chi^2 = 61.501$, 가구원수별 $\chi^2 = 76.568$, 거주지역별 $\chi^2 = 27.887$,
최종학력별 $\chi^2 = 56.345$, 주거형태별 $\chi^2 = 75.415$,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63.562$,
경제활동상태별 $\chi^2 = 82.23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71.35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4〉 영역별 삶의 만족도: ①생활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0	0.5	0.5	3.2	6.4	19.9	21.0	24.4	18.9	4.7	0.5	100.0	
성별 +	남자	(499)	0.0	0.8	0.8	3.4	7.2	22.2	21.8	23.4	15.8	4.2	0.2	100.0	
	여자	(501)	0.0	0.2	0.2	3.0	5.6	17.6	20.2	25.3	22.0	5.2	0.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0	0.0	0.6	2.9	5.7	18.4	18.4	27.6	20.1	5.7	0.6	100.0	
	만 30~39세	(168)	0.0	0.6	0.0	1.8	5.4	20.2	21.4	26.2	21.4	2.4	0.6	100.0	
	만 40~49세	(202)	0.0	0.0	1.0	3.5	3.5	21.8	22.3	23.8	16.8	7.4	0.0	100.0	
	만 50~59세	(202)	0.0	1.0	0.0	3.0	4.5	11.4	23.3	26.7	23.8	5.9	0.5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8	0.8	4.3	11.4	26.0	19.7	19.7	14.2	2.4	0.8	100.0	
가구원수 ***	1명	(98)	0.0	2.0	3.1	8.2	9.2	22.4	16.3	18.4	10.2	10.2	0.0	100.0	
	2명	(225)	0.0	0.9	0.0	3.1	12.0	26.2	19.1	19.1	16.4	2.2	0.9	100.0	
	3명	(236)	0.0	0.0	0.0	2.1	5.5	20.3	21.2	29.2	19.1	2.5	0.0	100.0	
	4명 이상	(441)	0.0	0.2	0.5	2.7	3.4	15.9	22.9	25.9	22.0	5.9	0.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0	0.2	0.7	2.0	3.8	18.7	19.6	28.9	21.0	4.7	0.2	100.0	
	시도 시부	(491)	0.0	0.8	0.4	4.1	8.4	21.0	22.4	21.0	16.7	4.5	0.8	100.0	
	시도 군부	(66)	0.0	0.0	0.0	4.5	9.1	19.7	19.7	19.7	21.2	6.1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0	2.6	1.7	5.2	13.9	24.3	20.0	13.0	15.7	2.6	0.9	100.0	
	고졸	(426)	0.0	0.5	0.5	3.1	5.9	21.4	20.4	26.3	18.3	3.1	0.7	100.0	
	대졸 이상	(459)	0.0	0.0	0.2	2.8	5.0	17.4	21.8	25.5	20.3	6.8	0.2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0	0.1	0.1	2.4	5.0	18.0	21.1	27.1	20.4	5.0	0.6	100.0	
	전세	(220)	0.0	0.5	0.5	3.6	10.0	25.5	24.1	16.8	17.3	1.4	0.5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4.6	4.6	10.8	9.2	21.5	9.2	20.0	7.7	12.3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2.3	7.0	16.3	18.6	25.6	14.0	11.6	4.7	0.0	0.0	100.0	
	100~150만원	(139)	0.0	1.4	1.4	3.6	7.9	29.5	17.3	18.0	18.0	2.2	0.7	100.0	
	150~200만원	(170)	0.0	1.2	0.0	2.9	7.1	23.5	22.4	23.5	16.5	2.9	0.0	100.0	
	200~250만원	(261)	0.0	0.0	0.0	3.1	8.0	13.8	24.5	27.6	18.4	4.2	0.4	100.0	
	250~300만원	(218)	0.0	0.0	0.0	2.8	4.1	19.7	19.7	23.9	23.4	6.0	0.5	100.0	
	300~350만원	(97)	0.0	0.0	0.0	0.0	2.1	12.4	25.8	28.9	25.8	4.1	1.0	100.0	
	350~400만원	(36)	0.0	0.0	0.0	2.8	0.0	27.8	16.7	36.1	5.6	11.1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0.0	0.0	2.8	16.7	11.1	25.0	22.2	19.4	2.8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0	0.0	1.6	4.9	16.8	20.7	27.7	21.2	7.1	0.0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0.0	8.5	13.6	25.4	16.9	18.6	8.5	5.1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2.0	0.7	2.0	4.6	23.5	24.8	15.7	20.9	5.2	0.7	100.0	
	실업자	(47)	0.0	0.0	6.4	8.5	8.5	27.7	12.8	25.5	8.5	2.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3	0.3	3.8	7.2	19.6	21.4	25.5	18.8	2.4	0.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10.2	8.2	14.3	16.3	24.5	16.3	4.1	2.0	2.0	2.0	100.0	
	중하층	(331)	0.0	0.0	0.3	6.6	13.0	29.3	23.9	19.9	6.3	0.6	0.0	100.0	
	중간층	(536)	0.0	0.0	0.0	0.6	2.4	16.0	21.3	28.4	24.4	6.3	0.6	100.0	
	중상층	(84)	0.0	0.0	0.0	0.0	0.0	4.8	10.7	28.6	42.9	11.9	1.2	100.0	

주: 1) 성별 $\chi^2 = 15.511$, 연령대별 $\chi^2 = 58.205$, 가구원수별 $\chi^2 = 89.539$, 거주지역별 $\chi^2 = 27.172$,최종학력별 $\chi^2 = 50.616$, 주거형태별 $\chi^2 = 105.584$,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78.037$,경제활동상태별 $\chi^2 = 103.46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00.95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 영역별 삶의 만족도: ②건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1	0.4	0.7	2.5	3.3	11.1	14.6	20.1	27.5	16.3	3.4	100.0	
성별	남자	(499)	0.2	0.2	0.6	2.2	2.0	12.4	16.0	19.0	27.9	15.2	4.2	100.0	
	여자	(501)	0.0	0.6	0.8	2.8	4.6	9.8	13.2	21.2	27.1	17.4	2.6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0	0.0	0.0	0.6	1.7	7.5	8.6	16.1	32.8	25.3	7.5	100.0	
	만 30-39세	(168)	0.0	0.0	0.0	2.4	2.4	6.5	4.8	23.8	31.5	22.6	6.0	100.0	
	만 40-49세	(202)	0.5	0.0	0.0	0.0	2.0	8.9	14.9	20.3	35.1	15.8	2.5	100.0	
	만 50-59세	(202)	0.0	1.0	1.0	2.0	2.0	8.4	21.8	19.8	26.7	14.9	2.5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8	2.0	6.3	7.1	20.5	19.3	20.5	15.7	7.5	0.4	100.0	
가구원수 ***	1명	(98)	1.0	2.0	3.1	7.1	7.1	11.2	8.2	11.2	26.5	17.3	5.1	100.0	
	2명	(225)	0.0	0.4	1.8	4.9	4.0	19.1	18.7	21.8	16.9	11.1	1.3	100.0	
	3명	(236)	0.0	0.0	0.0	1.7	3.0	12.3	11.9	25.4	24.6	16.5	4.7	100.0	
	4명 이상	(441)	0.0	0.2	0.0	0.7	2.3	6.3	15.4	18.4	34.7	18.6	3.4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2	0.0	0.2	2.5	0.9	7.0	15.6	20.5	31.6	18.5	2.9	100.0	
	시도 시부	(491)	0.0	0.6	0.8	2.4	5.1	14.9	14.1	20.6	23.8	13.6	4.1	100.0	
	시도 군부	(66)	0.0	1.5	3.0	3.0	6.1	10.6	12.1	13.6	27.3	21.2	1.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9	2.6	2.6	8.7	5.2	23.5	22.6	13.9	12.2	6.1	1.7	100.0	
	고졸	(426)	0.0	0.2	0.9	2.3	4.2	12.0	16.0	22.3	26.3	13.8	1.9	100.0	
	대졸 이상	(459)	0.0	0.0	0.0	1.1	2.0	7.2	11.3	19.6	32.5	21.1	5.2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0	0.3	0.7	2.2	3.2	10.5	17.2	20.4	27.3	15.2	2.9	100.0	
	전세	(220)	0.0	0.5	0.0	2.3	3.2	11.8	9.5	20.9	28.6	18.6	4.5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1.5	3.1	6.2	4.6	15.4	3.1	13.8	26.2	20.0	4.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2.3	4.7	9.3	16.3	9.3	18.6	20.9	9.3	9.3	0.0	0.0	100.0	
	100-150만원	(139)	0.0	0.7	1.4	4.3	7.2	21.6	12.9	23.0	17.3	10.1	1.4	100.0	
	150-200만원	(170)	0.0	0.0	0.6	2.4	4.7	12.4	14.1	14.7	32.9	16.5	1.8	100.0	
	200-250만원	(261)	0.0	0.4	0.0	1.1	1.9	10.0	15.7	25.7	26.4	15.7	3.1	100.0	
	250-300만원	(218)	0.0	0.0	0.0	1.8	1.4	6.0	16.5	19.3	32.6	17.9	4.6	100.0	
	300-350만원	(97)	0.0	0.0	0.0	0.0	1.0	6.2	10.3	16.5	34.0	23.7	8.2	100.0	
	350-400만원	(36)	0.0	0.0	0.0	2.8	5.6	2.8	16.7	30.6	16.7	22.2	2.8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0.0	0.0	0.0	16.7	5.6	11.1	33.3	27.8	5.6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3	0.0	1.1	2.4	7.1	10.9	19.3	31.5	22.3	5.2	100.0	
	임사·일용직	(59)	0.0	0.0	1.7	3.4	6.8	13.6	13.6	22.0	20.3	16.9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0.7	0.0	0.0	2.0	16.3	20.9	20.9	26.8	9.8	2.6	100.0	
	실업자	(47)	2.1	0.0	0.0	10.6	4.3	10.6	21.3	12.8	23.4	10.6	4.3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5	1.6	3.8	4.0	12.6	15.0	21.2	25.5	13.7	2.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4.1	10.2	14.3	8.2	28.6	8.2	10.2	8.2	6.1	0.0	100.0	
	중하층	(331)	0.0	0.6	0.3	3.9	6.9	16.0	17.8	17.2	20.5	12.7	3.9	100.0	
	중간층	(536)	0.0	0.0	0.2	0.9	1.1	7.8	14.4	21.6	31.7	18.7	3.5	100.0	
	중상층	(84)	0.0	0.0	0.0	0.0	0.0	2.4	7.1	27.4	39.3	21.4	2.4	100.0	

주: 1) 성별 $\chi^2 = 13.745$, 연령대별 $\chi^2 = 177.049$, 가구원수별 $\chi^2 = 125.047$, 거주지역별 $\chi^2 = 52.676$,최종학력별 $\chi^2 = 132.358$, 주거형태별 $\chi^2 = 47.01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49.310$,경제활동상태별 $\chi^2 = 102.66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46.57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 영역별 삶의 만족도: ③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0	0.2	0.7	1.6	5.3	13.9	18.5	23.8	24.7	10.7	0.6	100.0	
성별	남자	(499)	0.0	0.2	0.4	1.8	5.2	14.8	19.0	23.8	23.8	10.2	0.6	100.0	
	여자	(501)	0.0	0.2	1.0	1.4	5.4	13.0	18.0	23.8	25.5	11.2	0.6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0	0.0	0.6	1.1	3.4	9.8	14.9	27.6	29.9	10.9	1.7	100.0	
	만 30~39세	(168)	0.0	0.0	0.0	1.8	2.4	11.9	18.5	28.6	25.6	10.7	0.6	100.0	
	만 40~49세	(202)	0.0	0.5	0.5	0.5	4.5	12.9	20.3	21.8	25.2	13.9	0.0	100.0	
	만 50~59세	(202)	0.0	0.0	1.0	2.0	5.0	10.4	18.3	21.8	31.2	10.4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4	1.2	2.4	9.4	21.7	19.7	21.3	15.0	8.3	0.8	100.0	
가구원수 ***	1명	(98)	0.0	1.0	3.1	5.1	7.1	13.3	14.3	24.5	22.4	9.2	0.0	100.0	
	2명	(225)	0.0	0.0	0.4	1.3	8.0	20.4	20.9	20.4	17.8	9.8	0.9	100.0	
	3명	(236)	0.0	0.0	0.0	0.8	4.2	13.6	24.2	24.2	23.3	9.7	0.0	100.0	
	4명 이상	(441)	0.0	0.2	0.7	1.4	4.1	10.9	15.2	25.2	29.5	12.0	0.9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0	0.0	0.5	1.4	2.3	9.5	18.1	24.2	32.1	11.7	0.5	100.0	
	시도 시부	(491)	0.0	0.4	1.0	1.8	7.3	17.9	20.2	21.8	19.1	9.8	0.6	100.0	
	시도 군부	(66)	0.0	0.0	0.0	1.5	10.6	13.6	9.1	36.4	16.7	10.6	1.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0	0.9	0.9	3.5	11.3	18.3	21.7	24.3	12.2	7.0	0.0	100.0	
	고졸	(426)	0.0	0.0	1.2	1.6	5.9	15.5	19.2	24.6	23.2	7.5	1.2	100.0	
	대졸 이상	(459)	0.0	0.2	0.2	1.1	3.3	11.3	17.0	22.9	29.2	14.6	0.2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0	0.0	0.6	1.5	5.3	14.1	17.1	23.6	25.5	11.6	0.7	100.0	
	전세	(220)	0.0	0.5	0.9	0.5	3.6	14.1	24.5	25.0	23.2	7.3	0.5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1.5	1.5	6.2	10.8	10.8	13.8	21.5	21.5	12.3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4.7	0.0	7.0	18.6	34.9	14.0	14.0	2.3	4.7	0.0	100.0	
	100~150만원	(139)	0.0	0.0	1.4	2.9	9.4	15.1	23.0	20.9	18.7	7.9	0.7	100.0	
	150~200만원	(170)	0.0	0.0	0.6	1.2	4.1	16.5	18.8	24.7	21.2	11.8	1.2	100.0	
	200~250만원	(261)	0.0	0.0	0.4	1.1	4.6	14.6	18.4	26.1	26.4	8.0	0.4	100.0	
	250~300만원	(218)	0.0	0.0	0.5	0.5	3.2	11.0	16.5	23.4	32.1	12.8	0.0	100.0	
	300~350만원	(97)	0.0	0.0	0.0	0.0	5.2	7.2	17.5	29.9	25.8	13.4	1.0	100.0	
	350~400만원	(36)	0.0	0.0	0.0	2.8	0.0	8.3	25.0	30.6	22.2	11.1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5.6	5.6	2.8	8.3	13.9	5.6	33.3	22.2	2.8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0	0.3	0.5	2.4	11.7	17.7	23.4	29.6	14.1	0.3	100.0	
	임사·일용직	(59)	0.0	0.0	3.4	3.4	6.8	18.6	22.0	20.3	22.0	3.4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0.7	0.7	2.0	6.5	16.3	21.6	20.9	20.9	9.8	0.7	100.0	
	실업자	(47)	0.0	0.0	0.0	8.5	8.5	21.3	14.9	23.4	17.0	6.4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3	0.8	1.3	7.0	13.4	18.0	26.0	22.8	9.4	1.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4.1	6.1	10.2	6.1	24.5	20.4	14.3	8.2	6.1	0.0	100.0	
	중하층	(331)	0.0	0.0	1.2	2.4	10.3	20.8	21.8	20.8	16.6	5.7	0.3	100.0	
	중간층	(536)	0.0	0.0	0.0	0.6	2.8	10.1	18.1	27.1	28.7	11.8	0.9	100.0	
	중상층	(84)	0	0.0	0.0	0.0	1.2	4.8	7.1	20.2	40.5	26.2	0.0	100.0	

주: 1) 성별 $\chi^2 = 2.830$, 연령대별 $\chi^2 = 66.198$, 가구원수별 $\chi^2 = 60.745$, 거주지역별 $\chi^2 = 59.640$,
최종학력별 $\chi^2 = 55.145$, 주거형태별 $\chi^2 = 35.03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69.034$,
경제활동상태별 $\chi^2 = 63.04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14.83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7〉 영역별 삶의 만족도: ④주거생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3	0.6	1.0	5.1	12.4	16.6	27.9	26.3	9.0	0.8	0.0	100.0	
성별	남자	(499)	0.6	0.6	0.8	5.4	13.6	17.6	26.9	25.1	8.6	0.8	0.0	100.0	
	여자	(501)	0.0	0.6	1.2	4.8	11.2	15.6	28.9	27.5	9.4	0.8	0.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0	0.0	0.0	0.6	13.8	11.5	30.5	29.3	12.6	1.7	0.0	100.0	
	만 30-39세	(168)	0.6	0.0	1.2	1.8	11.3	14.3	39.9	25.0	5.4	0.6	0.0	100.0	
	만 40-49세	(202)	0.5	1.0	0.5	6.4	7.9	18.3	25.7	29.2	10.4	0.0	0.0	100.0	
	만 50-59세	(202)	0.5	0.5	0.5	5.4	8.4	17.8	22.3	33.2	10.4	1.0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1.2	2.4	9.1	18.9	19.3	24.4	17.3	6.7	0.8	0.0	100.0	
가구원수 ***	1명	(98)	1.0	3.1	6.1	6.1	14.3	15.3	20.4	25.5	8.2	0.0	0.0	100.0	
	2명	(225)	0.4	0.4	0.0	9.3	19.1	16.4	28.0	16.9	8.4	0.9	0.0	100.0	
	3명	(236)	0.0	0.0	0.8	3.4	12.7	20.8	30.5	21.2	9.3	1.3	0.0	100.0	
	4명 이상	(441)	0.2	0.5	0.5	3.6	8.4	14.7	28.1	34.0	9.3	0.7	0.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2	0.5	0.5	1.4	10.4	14.7	30.2	31.8	9.9	0.5	0.0	100.0	
	시도 시부	(491)	0.4	0.8	1.4	7.7	14.7	18.9	25.3	21.0	8.6	1.2	0.0	100.0	
	시도 군부	(66)	0.0	0.0	1.5	10.6	9.1	12.1	31.8	28.8	6.1	0.0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7	0.9	4.3	7.8	25.2	19.1	20.0	18.3	2.6	0.0	0.0	100.0	
	고졸	(426)	0.2	0.9	0.7	6.1	11.3	17.8	28.9	23.7	9.2	1.2	0.0	100.0	
	대졸 이상	(459)	0.0	0.2	0.4	3.5	10.2	14.8	29.0	30.7	10.5	0.7	0.0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0	0.1	0.4	4.6	11.9	16.1	27.6	28.1	10.2	1.0	0.0	100.0	
	전세	(220)	0.0	1.4	1.4	5.9	14.1	20.0	30.0	21.8	5.0	0.5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4.6	3.1	6.2	7.7	12.3	10.8	24.6	21.5	9.2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2.3	2.3	9.3	18.6	30.2	16.3	14.0	2.3	2.3	2.3	0.0	100.0	
	100-150만원	(139)	1.4	1.4	1.4	8.6	14.4	15.8	25.9	21.6	9.4	0.0	0.0	100.0	
	150-200만원	(170)	0.0	0.6	0.0	6.5	12.4	24.7	25.9	24.7	4.7	0.6	0.0	100.0	
	200-250만원	(261)	0.0	0.0	1.1	4.2	11.5	19.5	30.7	23.0	9.6	0.4	0.0	100.0	
	250-300만원	(218)	0.0	0.5	0.5	3.2	10.1	12.4	29.4	34.4	8.7	0.9	0.0	100.0	
	300-350만원	(97)	0.0	0.0	0.0	2.1	8.2	9.3	34.0	34.0	11.3	1.0	0.0	100.0	
	350-400만원	(36)	0.0	0.0	0.0	0.0	11.1	13.9	30.6	25.0	16.7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2.8	0.0	0.0	16.7	8.3	13.9	36.1	19.4	2.8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0	0.0	2.7	10.9	14.9	28.3	31.8	11.1	0.3	0.0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3.4	11.9	11.9	15.3	27.1	16.9	8.5	3.4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3	1.3	0.7	5.2	11.8	22.2	23.5	25.5	7.2	1.3	0.0	100.0	
	실업자	(47)	2.1	0.0	2.1	8.5	23.4	17.0	21.3	19.1	6.4	0.0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8	1.6	5.9	12.9	16.1	30.3	23.6	8.0	0.8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6.1	6.1	8.2	18.4	20.4	12.2	10.2	14.3	0.0	4.1	0.0	100.0	
	중하층	(331)	0.0	0.9	1.8	10.3	20.5	19.0	25.7	16.9	4.5	0.3	0.0	100.0	
	중간층	(536)	0.0	0.0	0.0	1.5	7.8	17.5	30.8	29.7	11.8	0.9	0.0	100.0	
	중상층	(84)	0.0	0.0	0.0	0.0	4.8	3.6	28.6	48.8	14.3	0.0	0.0	100.0	

주: 1) 성별 $\chi^2 = 6.590$, 연령대별 $\chi^2 = 89.493$, 가구원수별 $\chi^2 = 96.787$, 거주지역별 $\chi^2 = 50.618$,최종학력별 $\chi^2 = 68.487$, 주거형태별 $\chi^2 = 89.50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62.652$,경제활동상태별 $\chi^2 = 68.264$,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84.17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8〉 영역별 삶의 만족도: ⑤직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580)	0.2	0.2	0.5	2.8	5.5	13.3	19.5	28.6	21.6	7.1	0.9	100.0	
성별	남자	(364)	0.3	0.3	0.5	3.0	5.8	13.5	20.6	29.4	19.8	6.0	0.8	100.0	
	여자	(216)	0.0	0.0	0.5	2.3	5.1	13.0	17.6	27.3	24.5	8.8	0.9	100.0	
연령대	만 19-29세	(76)	0.0	0.0	0.0	3.9	1.3	17.1	13.2	28.9	27.6	7.9	0.0	100.0	
	만 30-39세	(131)	0.0	0.0	0.8	2.3	3.1	9.2	20.6	32.8	23.7	6.9	0.8	100.0	
	만 40-49세	(150)	0.0	0.0	0.7	2.7	5.3	14.7	20.0	26.0	24.0	5.3	1.3	100.0	
	만 50-59세	(145)	0.7	0.7	0.7	3.4	4.8	10.3	17.9	29.0	20.7	10.3	1.4	100.0	
	만 60세 이상	(78)	0.0	0.0	0.0	1.3	15.4	19.2	25.6	25.6	9.0	3.8	0.0	100.0	
가구원수 *	1명	(62)	1.6	0.0	0.0	1.6	6.5	12.9	9.7	24.2	33.9	9.7	0.0	100.0	
	2명	(82)	0.0	0.0	1.2	1.2	7.3	18.3	28.0	29.3	9.8	4.9	0.0	100.0	
	3명	(146)	0.0	0.0	0.0	2.1	6.8	13.7	19.9	33.6	19.9	4.1	0.0	100.0	
	4명 이상	(290)	0.0	0.3	0.7	3.8	4.1	11.7	19.0	26.9	23.1	8.6	1.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258)	0.0	0.0	0.8	1.6	3.5	10.9	19.0	35.3	21.3	7.8	0.0	100.0	
	시도 시부	(287)	0.3	0.3	0.3	3.8	7.3	15.7	20.9	23.0	19.9	6.6	1.7	100.0	
	시도 군부	(35)	0.0	0.0	0.0	2.9	5.7	11.4	11.4	25.7	37.1	5.7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28)	0.0	3.6	0.0	7.1	14.3	17.9	28.6	25.0	3.6	0.0	0.0	100.0	
	고졸	(197)	0.5	0.0	1.0	3.0	6.6	17.3	22.3	24.4	18.3	5.6	1.0	100.0	
	대졸 이상	(355)	0.0	0.0	0.3	2.3	4.2	10.7	17.2	31.3	24.8	8.5	0.8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390)	0.0	0.0	0.3	2.6	5.9	12.8	19.5	29.7	20.0	8.2	1.0	100.0	
	전세	(150)	0.0	0.0	0.7	2.7	4.7	13.3	23.3	28.0	22.0	4.7	0.7	100.0	
	월세 및 기타	(40)	2.5	2.5	2.5	5.0	5.0	17.5	5.0	20.0	35.0	5.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8)	0.0	0.0	0.0	12.5	25.0	37.5	12.5	0.0	12.5	0.0	0.0	100.0	
	100-150만원	(47)	0.0	2.1	2.1	2.1	12.8	14.9	29.8	23.4	8.5	4.3	0.0	100.0	
	150-200만원	(94)	1.1	0.0	0.0	2.1	6.4	13.8	24.5	25.5	22.3	4.3	0.0	100.0	
	200-250만원	(168)	0.0	0.0	0.0	1.8	4.2	16.7	16.7	32.7	18.5	7.7	1.8	100.0	
	250-300만원	(144)	0.0	0.0	0.0	4.9	2.8	11.1	20.1	29.2	26.4	5.6	0.0	100.0	
	300-350만원	(70)	0.0	0.0	0.0	0.0	4.3	8.6	15.7	34.3	25.7	11.4	0.0	100.0	
	350-400만원	(26)	0.0	0.0	0.0	7.7	11.5	7.7	19.2	30.8	19.2	3.8	0.0	100.0	
	400만원 이상	(23)	0.0	0.0	8.7	0.0	4.3	8.7	8.7	8.7	30.4	21.7	8.7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0	0.0	1.4	3.0	10.3	19.0	33.2	23.1	9.5	0.5	100.0	
	임사일용직	(59)	1.7	0.0	0.0	11.9	15.3	22.0	15.3	16.9	11.9	3.4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0.7	2.0	2.6	7.8	17.0	22.2	22.2	21.6	2.6	1.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19)	5.3	5.3	5.3	5.3	10.5	10.5	21.1	10.5	21.1	0.0	5.3	100.0	
	중하층	(191)	0.0	0.0	0.5	5.8	9.9	20.4	22.5	24.1	13.6	3.1	0.0	100.0	
	중간층	(317)	0.0	0.0	0.3	1.3	3.5	9.8	18.3	31.2	25.9	8.8	0.9	100.0	
	중상층	(53)	0.0	0.0	0.0	0.0	0.0	9.4	15.1	35.8	24.5	13.2	1.9	100.0	

주: 1) 성별 $\chi^2 = 5.318$, 연령대별 $\chi^2 = 50.783$, 가구원수별 $\chi^2 = 45.230$, 거주지역별 $\chi^2 = 29.913$,최종학력별 $\chi^2 = 51.400$, 주거형태별 $\chi^2 = 45.51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40.114$,경제활동상태별 $\chi^2 = 85.24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34.31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9〉 영역별 삶의 만족도: 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580)	0.5	1.7	4.1	9.1	15.9	15.3	23.6	24.5	4.8	0.3	0.0	100.0	
성별	남자	(364)	0.8	1.6	4.4	9.3	18.4	15.1	23.1	22.8	3.8	0.5	0.0	100.0	
	여자	(216)	0.0	1.9	3.7	8.8	11.6	15.7	24.5	27.3	6.5	0.0	0.0	100.0	
연령대	만 19-29세	(76)	1.3	0.0	2.6	7.9	15.8	10.5	25.0	32.9	3.9	0.0	0.0	100.0	
	만 30-39세	(131)	1.5	1.5	3.8	7.6	14.5	20.6	22.1	24.4	3.1	0.8	0.0	100.0	
	만 40-49세	(150)	0.0	2.0	4.7	7.3	18.0	13.3	24.0	24.7	6.0	0.0	0.0	100.0	
	만 50-59세	(145)	0.0	2.1	4.1	8.3	13.8	13.8	25.5	24.1	8.3	0.0	0.0	100.0	
	만 60세 이상	(78)	0.0	2.6	5.1	17.9	17.9	17.9	20.5	16.7	0.0	1.3	0.0	100.0	
가구원수	1명	(62)	0.0	1.6	3.2	9.7	9.7	17.7	21.0	24.2	12.9	0.0	0.0	100.0	
	2명	(82)	1.2	3.7	3.7	7.3	19.5	20.7	25.6	13.4	3.7	1.2	0.0	100.0	
	3명	(146)	0.7	0.7	5.5	12.3	14.4	15.8	20.5	28.1	2.1	0.0	0.0	100.0	
	4명 이상	(290)	0.3	1.7	3.8	7.9	16.9	13.1	25.2	25.9	4.8	0.3	0.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258)	0.4	2.3	2.7	4.7	12.4	14.3	27.1	31.0	5.0	0.0	0.0	100.0	
	시도 시부	(287)	0.7	1.4	5.6	12.9	19.9	16.7	19.9	17.1	5.2	0.7	0.0	100.0	
	시도 군부	(35)	0.0	0.0	2.9	11.4	8.6	11.4	28.6	37.1	0.0	0.0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28)	0.0	7.1	7.1	10.7	10.7	39.3	7.1	17.9	0.0	0.0	0.0	100.0	
	고졸	(197)	0.5	2.0	4.6	13.2	15.7	13.7	27.9	17.3	4.6	0.5	0.0	100.0	
	대졸 이상	(355)	0.6	1.1	3.7	6.8	16.3	14.4	22.5	29.0	5.4	0.3	0.0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390)	0.5	1.0	4.4	9.5	15.6	15.1	23.1	25.9	4.6	0.3	0.0	100.0	
	전세	(150)	0.0	2.7	4.0	8.7	16.7	16.0	25.3	21.3	4.7	0.7	0.0	100.0	
	월세 및 기타	(40)	2.5	5.0	2.5	7.5	15.0	15.0	22.5	22.5	7.5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	0.0	12.5	0.0	37.5	12.5	25.0	0.0	12.5	0.0	0.0	0.0	100.0	
	100-150만원	(47)	2.1	2.1	4.3	10.6	23.4	21.3	19.1	14.9	2.1	0.0	0.0	100.0	
	150-200만원	(94)	1.1	3.2	4.3	7.4	14.9	21.3	20.2	24.5	2.1	1.1	0.0	100.0	
	200-250만원	(168)	0.0	0.6	5.4	8.3	14.9	13.7	29.8	22.0	5.4	0.0	0.0	100.0	
	250-300만원	(144)	0.7	2.1	3.5	9.7	13.9	12.5	22.2	29.2	6.3	0.0	0.0	100.0	
	300-350만원	(70)	0.0	0.0	4.3	7.1	14.3	14.3	24.3	30.0	5.7	0.0	0.0	100.0	
	350-400만원	(26)	0.0	0.0	0.0	11.5	23.1	23.1	19.2	19.2	3.8	0.0	0.0	100.0	
	400만원 이상	(23)	0.0	4.3	4.3	8.7	21.7	0.0	21.7	26.1	8.7	4.3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5	0.5	3.5	6.5	14.7	16.3	24.2	28.3	5.2	0.3	0.0	100.0	
	임시·일용직	(59)	0.0	5.1	3.4	23.7	20.3	11.9	16.9	18.6	0.0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3.3	5.9	9.8	17.0	14.4	24.8	17.6	5.9	0.7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19)	5.3	10.5	5.3	5.3	21.1	26.3	10.5	15.8	0.0	0.0	0.0	100.0	
	중하층	(191)	1.0	1.6	5.2	16.2	18.3	19.9	18.8	17.3	1.6	0.0	0.0	100.0	
	중간층	(317)	0.0	1.6	3.5	6.6	15.8	12.9	26.2	26.5	6.3	0.6	0.0	100.0	
	중상층	(53)	0.0	0.0	3.8	0.0	5.7	9.4	30.2	41.5	9.4	0.0	0.0	100.0	

주: 1) 성별 $\chi^2 = 10.425$, 연령대별 $\chi^2 = 38.971$, 가구원수별 $\chi^2 = 32.445$, 거주지역별 $\chi^2 = 42.296$,최종학력별 $\chi^2 = 38.520$, 주거형태별 $\chi^2 = 11.41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67.133$,경제활동상태별 $\chi^2 = 40.51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77.636$ 2)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10〉 사회 신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1	0.3	1.1	3.4	5.0	17.3	23.2	26.0	19.7	3.8	0.1	100.0	
성별	남자	(499)	0.2	0.6	1.2	4.0	5.4	15.6	23.4	25.7	20.2	3.6	0.0	100.0	
	여자	(501)	0.0	0.0	1.0	2.8	4.6	19.0	23.0	26.3	19.2	4.0	0.2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0	0.6	0.6	3.4	5.7	12.6	23.0	23.6	23.6	6.3	0.6	100.0	
	만 30-39세	(168)	0.0	0.0	0.0	3.6	8.9	17.9	18.5	28.6	19.6	3.0	0.0	100.0	
	만 40-49세	(202)	0.5	0.5	1.5	3.5	3.5	14.9	23.3	28.2	21.3	3.0	0.0	100.0	
	만 50-59세	(202)	0.0	0.0	2.5	3.5	2.0	15.8	24.8	26.2	21.3	4.0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4	0.8	3.1	5.5	23.2	25.2	24.0	14.6	3.1	0.0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0.0	0.0	8.2	8.2	20.4	13.3	20.4	25.5	4.1	0.0	100.0	
	2명	(225)	0.0	0.4	1.3	1.3	4.9	21.8	25.3	25.3	16.9	2.7	0.0	100.0	
	3명	(236)	0.0	0.4	0.4	5.5	5.5	14.8	23.7	27.5	19.1	3.0	0.0	100.0	
	4명 이상	(441)	0.2	0.2	1.6	2.3	4.1	15.6	24.0	26.8	20.2	4.8	0.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0	0.0	1.4	2.5	5.0	16.0	19.9	28.0	22.6	4.5	0.2	100.0	
	시도 시부	(491)	0.2	0.2	1.0	4.5	5.1	18.3	26.5	24.0	16.9	3.3	0.0	100.0	
	시도 군부	(66)	0.0	3.0	0.0	1.5	4.5	18.2	21.2	27.3	21.2	3.0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0	0.0	1.7	4.3	6.1	28.7	22.6	24.3	11.3	0.9	0.0	100.0	
	고졸	(426)	0.0	0.5	1.2	3.3	4.2	16.7	24.9	28.6	17.1	3.3	0.2	100.0	
	대졸 이상	(459)	0.2	0.2	0.9	3.3	5.4	15.0	21.8	24.0	24.2	5.0	0.0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1	0.3	1.4	3.1	4.2	17.6	23.1	25.3	20.4	4.3	0.1	100.0	
	전세	(220)	0.0	0.0	0.5	1.4	7.3	17.3	25.9	27.7	19.1	0.9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1.5	0.0	13.8	6.2	13.8	15.4	27.7	13.8	7.7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2.3	2.3	2.3	11.6	51.2	14.0	9.3	4.7	2.3	0.0	100.0	
	100-150만원	(139)	0.0	0.7	0.0	5.8	5.0	16.5	24.5	26.6	17.3	3.6	0.0	100.0	
	150-200만원	(170)	0.0	0.6	1.2	2.4	3.5	14.1	22.4	30.6	21.8	3.5	0.0	100.0	
	200-250만원	(261)	0.4	0.0	0.4	3.4	6.1	17.2	21.5	30.3	18.0	2.7	0.0	100.0	
	250-300만원	(218)	0.0	0.0	0.9	3.7	3.7	15.1	22.5	24.8	24.3	5.0	0.0	100.0	
	300-350만원	(97)	0.0	0.0	0.0	1.0	5.2	11.3	29.9	21.6	23.7	6.2	1.0	100.0	
	350-400만원	(36)	0.0	0.0	0.0	2.8	5.6	25.0	33.3	22.2	8.3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13.9	5.6	2.8	16.7	22.2	13.9	22.2	2.8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0	1.4	1.6	5.7	13.9	21.5	26.1	24.7	5.2	0.0	100.0	
	임사일용직	(59)	0.0	0.0	1.7	10.2	5.1	18.6	23.7	22.0	16.9	1.7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0.7	2.6	5.2	2.6	17.0	26.1	30.7	12.4	2.0	0.0	100.0	
	실업자	(47)	0.0	0.0	0.0	6.4	4.3	31.9	17.0	23.4	14.9	2.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5	0.3	2.9	5.4	18.8	24.4	24.9	18.8	3.8	0.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2.0	2.0	14.3	6.1	28.6	12.2	26.5	8.2	0.0	0.0	100.0	
	중하층	(331)	0.3	0.3	2.1	3.3	8.5	22.1	28.4	21.5	12.4	1.2	0.0	100.0	
	중간층	(536)	0.0	0.2	0.2	2.6	3.2	14.4	22.2	28.5	23.7	4.9	0.2	100.0	
	중상층	(84)	0.0	0.0	2.4	2.4	2.4	10.7	15.5	27.4	29.8	9.5	0.0	100.0	

주: 1) 성별 $\chi^2 = 8.447$, 연령대별 $\chi^2 = 48.352$, 가구원수별 $\chi^2 = 39.210$, 거주지역별 $\chi^2 = 36.360$,

최종학력별 $\chi^2 = 33.262$, 주거형태별 $\chi^2 = 46.73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56.428$,

경제활동상태별 $\chi^2 = 59.845$,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11.211$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11〉 거주 지역(시/도) 소속감 및 연대감

(단위: 명, %)

구분		사려수	전혀 느끼지 않는다					매우 느끼고 있다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1	0.2	0.7	1.8	4.1	18.0	22.5	31.0	19.1	2.4	0.1	100.0
성별	남자	(499)	0.2	0.2	0.8	2.6	4.0	18.6	23.6	29.5	18.8	1.6	0.0	100.0
	여자	(501)	0.0	0.2	0.6	1.0	4.2	17.4	21.4	32.5	19.4	3.2	0.2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0	0.6	0.6	2.9	4.0	18.4	20.7	28.2	20.1	4.0	0.6	100.0
	만 30-39세	(168)	0.6	0.0	1.2	1.8	8.3	20.2	17.3	31.5	19.0	0.0	0.0	100.0
	만 40-49세	(202)	0.0	0.0	1.0	1.5	3.0	13.4	24.8	33.7	20.3	2.5	0.0	100.0
	만 50-59세	(202)	0.0	0.5	0.5	0.5	3.5	17.3	22.8	33.2	19.3	2.5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0	0.4	2.4	2.8	20.5	25.2	28.7	17.3	2.8	0.0	100.0
가구원수 **	1명	(98)	0.0	0.0	1.0	3.1	9.2	21.4	17.3	19.4	23.5	5.1	0.0	100.0
	2명	(225)	0.4	0.0	0.4	2.7	1.8	21.3	28.0	28.4	13.8	3.1	0.0	100.0
	3명	(236)	0.0	0.8	0.4	1.7	3.4	15.7	25.8	30.5	20.8	0.8	0.0	100.0
	4명 이상	(441)	0.0	0.0	0.9	1.1	4.5	16.8	19.0	35.1	20.0	2.3	0.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0	0.2	0.7	1.8	3.2	13.5	20.8	36.1	21.7	1.8	0.2	100.0
	시도 시부	(491)	0.2	0.0	0.8	1.8	5.3	22.8	23.8	26.7	15.9	2.6	0.0	100.0
	시도 군부	(66)	0.0	1.5	0.0	1.5	1.5	12.1	24.2	28.8	25.8	4.5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0.0	0.9	1.7	4.3	21.7	29.6	23.5	17.4	0.9	0.0	100.0
	고졸	(426)	0.2	0.2	0.2	2.3	3.1	17.8	23.2	34.5	15.7	2.3	0.2	100.0
	대졸 이상	(459)	0.0	0.2	1.1	1.3	5.0	17.2	20.0	29.6	22.7	2.8	0.0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0	0.3	0.7	1.5	3.8	17.2	22.8	31.2	19.6	2.8	0.1	100.0
	전세	(220)	0.0	0.0	0.5	0.9	4.5	20.5	22.3	33.2	17.3	0.9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0.0	1.5	7.7	6.2	18.5	20.0	21.5	20.0	3.1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0.0	2.3	7.0	11.6	34.9	23.3	16.3	4.7	0.0	0.0	100.0
	100-150만원	(139)	0.7	0.0	0.7	4.3	2.9	15.8	25.9	30.2	15.1	4.3	0.0	100.0
	150-200만원	(170)	0.0	0.6	0.6	1.8	5.3	14.7	22.4	31.8	21.8	1.2	0.0	100.0
	200-250만원	(261)	0.0	0.0	0.0	1.1	3.8	22.6	21.1	31.8	16.9	2.7	0.0	100.0
	250-300만원	(218)	0.0	0.0	1.4	0.9	4.1	15.6	23.9	28.4	23.9	1.8	0.0	100.0
	300-350만원	(97)	0.0	0.0	0.0	0.0	0.0	12.4	19.6	46.4	17.5	3.1	1.0	100.0
	350-400만원	(36)	0.0	0.0	2.8	0.0	2.8	11.1	25.0	36.1	19.4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2.8	0.0	2.8	8.3	25.0	16.7	11.1	30.6	2.8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0	0.0	0.8	0.3	5.2	17.9	20.7	29.9	22.8	2.4	0.0	100.0
	임시·일용직	(59)	0.0	0.0	1.7	0.0	10.2	23.7	22.0	23.7	15.3	3.4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0.7	1.3	3.3	2.6	13.7	21.6	39.2	14.4	2.6	0.0	100.0
	실업자	(47)	0.0	0.0	0.0	8.5	2.1	27.7	23.4	29.8	6.4	2.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3	0.3	2.1	2.9	17.7	24.7	30.0	19.6	2.1	0.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0.0	4.1	6.1	4.1	24.5	24.5	20.4	14.3	0.0	0.0	100.0
	중하층	(331)	0.0	0.0	0.3	1.8	6.0	26.3	26.3	29.0	8.8	1.5	0.0	100.0
	중간층	(536)	0.0	0.4	0.7	1.5	3.0	14.2	21.5	32.3	23.9	2.4	0.2	100.0
	중상층	(84)	0.0	0.0	0.0	1.2	3.6	6.0	13.1	36.9	32.1	7.1	0.0	100.0

주: 1) 성별 $\chi^2 = 9.996$, 연령대별 $\chi^2 = 43.046$, 가구원수별 $\chi^2 = 53.285$, 거주지역별 $\chi^2 = 41.426$,최종학력별 $\chi^2 = 24.985$, 주거형태별 $\chi^2 = 37.72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17.460$,경제활동상태별 $\chi^2 = 61.773$,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18.85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2〉 갈등인식: ①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9.8	48.6	30.0	9.7	1.4	0.5	100.0
성별	남자	(499)	11.6	49.3	26.9	10.2	1.4	0.6	100.0
	여자	(501)	8.0	47.9	33.1	9.2	1.4	0.4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8.0	56.9	25.3	7.5	0.0	2.3	100.0
	만 30-39세	(168)	10.7	46.4	35.1	6.5	0.6	0.6	100.0
	만 40-49세	(202)	10.4	46.0	28.7	13.4	1.5	0.0	100.0
	만 50-59세	(202)	11.4	46.5	27.7	13.4	1.0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8.7	48.0	32.7	7.5	3.1	0.0	100.0
가구원수 **	1명	(98)	9.2	49.0	27.6	14.3	0.0	0.0	100.0
	2명	(225)	9.3	42.7	34.2	8.4	4.4	0.9	100.0
	3명	(236)	9.3	55.1	28.0	6.8	0.4	0.4	100.0
	4명 이상	(441)	10.4	48.1	29.5	10.9	0.7	0.5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8.4	49.2	30.9	9.3	2.0	0.2	100.0
	시도 시부	(491)	10.6	50.9	28.7	8.4	0.8	0.6	100.0
	시도 군부	(66)	13.6	27.3	33.3	22.7	1.5	1.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12.2	45.2	34.8	6.1	1.7	0.0	100.0
	고졸	(426)	8.5	47.4	30.5	11.3	1.6	0.7	100.0
	대졸 이상	(459)	10.5	50.5	28.3	9.2	1.1	0.4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10.1	48.1	29.8	9.8	1.7	0.6	100.0
	전세	(220)	8.2	48.6	34.1	8.6	0.5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12.3	53.8	18.5	12.3	1.5	1.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4.0	51.2	25.6	7.0	2.3	0.0	100.0
	100-150만원	(139)	11.5	42.4	36.0	7.2	1.4	1.4	100.0
	150-200만원	(170)	6.5	46.5	30.6	13.5	2.9	0.0	100.0
	200-250만원	(261)	10.7	48.7	27.2	11.1	1.5	0.8	100.0
	250-300만원	(218)	11.9	49.5	27.1	10.6	0.5	0.5	100.0
	300-350만원	(97)	2.1	54.6	36.1	7.2	0.0	0.0	100.0
	350-400만원	(36)	11.1	52.8	30.6	2.8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13.9	52.8	30.6	2.8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0.6	47.0	31.5	8.7	1.4	0.8	100.0
	임사일용직	(59)	11.9	49.2	22.0	13.6	3.4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9.8	50.3	22.9	15.0	1.3	0.7	100.0
	실업자	(47)	8.5	61.7	25.5	4.3	0.0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8.8	47.7	33.2	8.6	1.3	0.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6.5	38.8	30.6	2.0	0.0	2.0	100.0
	중하층	(331)	12.1	52.0	28.4	6.0	1.5	0.0	100.0
	중간층	(536)	7.6	48.5	30.4	11.4	1.5	0.6	100.0
	중상층	(84)	4.8	41.7	33.3	17.9	1.2	1.2	100.0

주: 1) 성별 $\chi^2 = 7.247$, 연령대별 $\chi^2 = 41.636$, 가구원수별 $\chi^2 = 31.847$, 거주지역별 $\chi^2 = 26.823$,최종학력별 $\chi^2 = 8.080$, 주거형태별 $\chi^2 = 10.664$,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8.042$,경제활동상태별 $\chi^2 = 20.449$,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4.11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3〉 갈등인식: ②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7.8	46.4	26.2	8.0	1.3	0.3	100.0
성별	남자	(499)	19.0	47.1	26.1	6.0	1.4	0.4	100.0
	여자	(501)	16.6	45.7	26.3	10.0	1.2	0.2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21.8	48.3	23.0	5.7	0.6	0.6	100.0
	만 30-39세	(168)	17.9	50.6	22.6	6.5	2.4	0.0	100.0
	만 40-49세	(202)	15.8	49.0	23.8	10.9	0.5	0.0	100.0
	만 50-59세	(202)	16.8	45.0	27.2	8.9	2.0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17.3	41.3	31.9	7.5	1.2	0.8	100.0
가구원수	1명	(98)	15.3	43.9	26.5	10.2	4.1	0.0	100.0
	2명	(225)	17.8	41.8	31.1	6.7	1.8	0.9	100.0
	3명	(236)	21.6	47.9	22.0	7.2	1.3	0.0	100.0
	4명 이상	(441)	16.3	48.5	25.9	8.6	0.5	0.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2.6	46.5	31.4	8.6	0.9	0.0	100.0
	시도 시부	(491)	23.8	47.0	20.8	6.1	1.6	0.6	100.0
	시도 군부	(66)	7.6	40.9	31.8	18.2	1.5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5.7	37.4	33.9	9.6	3.5	0.0	100.0
	고졸	(426)	18.1	43.9	28.9	8.2	0.7	0.2	100.0
	대졸 이상	(459)	18.1	51.0	21.8	7.4	1.3	0.4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19.0	43.8	27.7	8.1	1.0	0.4	100.0
	전세	(220)	12.7	54.1	23.2	7.7	2.3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21.5	49.2	20.0	7.7	1.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9.3	53.5	32.6	4.7	0.0	0.0	100.0
	100-150만원	(139)	18.7	39.6	33.1	7.2	1.4	0.0	100.0
	150-200만원	(170)	14.1	42.9	31.2	10.0	0.6	1.2	100.0
	200-250만원	(261)	17.6	45.6	25.3	10.0	1.5	0.0	100.0
	250-300만원	(218)	19.7	48.6	20.6	8.3	2.3	0.5	100.0
	300-350만원	(97)	18.6	53.6	22.7	5.2	0.0	0.0	100.0
	350-400만원	(36)	25.0	50.0	19.4	2.8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2.2	50.0	25.0	2.8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6.6	48.4	25.3	8.2	1.1	0.5	100.0
	임사·일용직	(59)	23.7	45.8	23.7	6.8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0.3	47.1	20.9	8.5	2.6	0.7	100.0
	실업자	(47)	17.0	42.6	36.2	4.3	0.0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17.2	44.8	28.4	8.3	1.3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8.6	36.7	22.4	6.1	6.1	0.0	100.0
	중하층	(331)	19.0	50.2	25.4	3.9	1.5	0.0	100.0
	중간층	(536)	16.8	47.4	24.8	9.9	0.6	0.6	100.0
	중상층	(84)	13.1	31.0	40.5	13.1	2.4	0.0	100.0

주: 1) 성별 $\chi^2 = 6.308$, 연령대별 $\chi^2 = 21.987$, 가구원수별 $\chi^2 = 22.010$, 거주지역별 $\chi^2 = 46.855$,최종학력별 $\chi^2 = 18.811$, 주거형태별 $\chi^2 = 14.025$,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5.433$,경제활동상태별 $\chi^2 = 14.544$,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5.210$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4〉 갈등인식: ③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8.8	35.4	39.0	14.8	1.7	0.3	100.0
성별	남자	(499)	9.6	37.5	36.5	14.2	2.0	0.2	100.0
	여자	(501)	8.0	33.3	41.5	15.4	1.4	0.4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8.6	31.6	43.1	14.4	1.1	1.1	100.0
	만 30-39세	(168)	8.3	38.1	39.3	14.3	0.0	0.0	100.0
	만 40-49세	(202)	10.4	38.1	34.7	15.8	1.0	0.0	100.0
	만 50-59세	(202)	7.4	40.1	37.6	12.4	2.5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9.1	30.3	40.6	16.5	3.1	0.4	100.0
가구원수 +	1명	(98)	6.1	32.7	50.0	11.2	0.0	0.0	100.0
	2명	(225)	10.2	30.2	37.8	16.9	4.4	0.4	100.0
	3명	(236)	9.3	38.1	35.6	15.7	1.3	0.0	100.0
	4명 이상	(441)	8.4	37.2	39.0	14.1	0.9	0.5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7.7	34.5	39.7	15.8	2.3	0.0	100.0
	시도 시부	(491)	10.4	37.9	36.9	12.8	1.4	0.6	100.0
	시도 군부	(66)	4.5	22.7	50.0	22.7	0.0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7.8	32.2	39.1	17.4	3.5	0.0	100.0
	고졸	(426)	6.8	35.2	41.3	13.6	2.6	0.5	100.0
	대졸 이상	(459)	10.9	36.4	36.8	15.3	0.4	0.2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8.5	35.7	38.2	15.5	1.7	0.4	100.0
	전세	(220)	9.5	35.9	39.1	13.6	1.8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9.2	30.8	47.7	10.8	1.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4.7	44.2	34.9	11.6	4.7	0.0	100.0
	100-150만원	(139)	12.9	28.1	36.0	20.1	2.9	0.0	100.0
	150-200만원	(170)	5.3	34.7	41.8	16.5	1.2	0.6	100.0
	200-250만원	(261)	10.0	32.6	41.0	14.9	1.5	0.0	100.0
	250-300만원	(218)	10.1	36.2	39.9	12.4	0.9	0.5	100.0
	300-350만원	(97)	7.2	38.1	36.1	14.4	3.1	1.0	100.0
	350-400만원	(36)	8.3	52.8	30.6	8.3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8	47.2	38.9	11.1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9.2	36.7	36.4	16.0	1.4	0.3	100.0
	임사일용직	(59)	10.2	40.7	44.1	1.7	3.4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0.5	34.6	39.9	13.7	0.7	0.7	100.0
	실업자	(47)	2.1	51.1	34.0	12.8	0.0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8.3	31.6	41.0	16.4	2.4	0.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2.4	30.6	40.8	2.0	4.1	0.0	100.0
	중하층	(331)	10.9	36.3	38.1	13.3	1.5	0.0	100.0
	중간층	(536)	6.9	35.4	40.5	15.3	1.3	0.6	100.0
	중상층	(84)	4.8	34.5	32.1	25.0	3.6	0.0	100.0

주: 1) 성별 $\chi^2 = 4.693$, 연령대별 $\chi^2 = 22.774$, 가구원수별 $\chi^2 = 24.935$, 거주지역별 $\chi^2 = 19.672$,최종학력별 $\chi^2 = 16.194$, 주거형태별 $\chi^2 = 4.41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5.170$,경제활동상태별 $\chi^2 = 23.515$,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5.99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5〉 갈등인식: ④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8.9	45.0	23.0	11.2	1.7	0.2	100.0
성별	남자	(499)	18.0	46.3	22.6	11.2	1.6	0.2	100.0
	여자	(501)	19.8	43.7	23.4	11.2	1.8	0.2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19.0	50.6	19.0	10.3	0.6	0.6	100.0
	만 30-39세	(168)	19.6	46.4	19.6	13.1	1.2	0.0	100.0
	만 40-49세	(202)	19.3	42.1	26.2	10.9	1.5	0.0	100.0
	만 50-59세	(202)	16.3	45.0	25.2	10.9	2.5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20.1	42.5	23.6	11.0	2.4	0.4	100.0
가구원수	1명	(98)	19.4	44.9	25.5	9.2	1.0	0.0	100.0
	2명	(225)	18.2	44.9	20.9	11.6	4.0	0.4	100.0
	3명	(236)	19.1	44.9	23.7	11.0	1.3	0.0	100.0
	4명 이상	(441)	19.0	45.1	23.1	11.6	0.9	0.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7.4	46.0	23.0	12.2	1.4	0.0	100.0
	시도 시부	(491)	22.0	44.8	20.8	10.6	1.4	0.4	100.0
	시도 군부	(66)	6.1	39.4	39.4	9.1	6.1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16.5	44.3	25.2	10.4	3.5	0.0	100.0
	고졸	(426)	19.0	43.9	23.0	12.4	1.4	0.2	100.0
	대졸 이상	(459)	19.4	46.2	22.4	10.2	1.5	0.2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18.6	45.6	23.6	10.1	1.8	0.3	100.0
	전세	(220)	20.5	42.3	20.0	15.5	1.8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16.9	47.7	26.2	9.2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20.9	39.5	27.9	11.6	0.0	0.0	100.0
	100-150만원	(139)	15.1	51.1	18.7	12.9	2.2	0.0	100.0
	150-200만원	(170)	16.5	31.8	30.0	18.2	2.9	0.6	100.0
	200-250만원	(261)	18.8	44.4	26.1	8.4	2.3	0.0	100.0
	250-300만원	(218)	20.6	45.9	22.0	9.6	1.4	0.5	100.0
	300-350만원	(97)	20.6	51.5	16.5	11.3	0.0	0.0	100.0
	350-400만원	(36)	25.0	63.9	11.1	0.0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2.2	52.8	13.9	11.1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7.7	45.1	20.4	14.4	2.2	0.3	100.0
	임사·일용직	(59)	23.7	42.4	25.4	8.5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9.6	41.2	28.8	9.8	0.0	0.7	100.0
	실업자	(47)	14.9	48.9	29.8	6.4	0.0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19.6	46.4	22.0	9.7	2.4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6.5	38.8	22.4	6.1	6.1	0.0	100.0
	중하층	(331)	21.1	46.2	21.8	9.4	1.5	0.0	100.0
	중간층	(536)	18.5	45.3	22.4	11.9	1.5	0.4	100.0
	중상층	(84)	8.3	41.7	32.1	16.7	1.2	0.0	100.0

주: 1) 성별 $\chi^2 = 0.873$, 연령대별 $\chi^2 = 12.939$, 가구원수별 $\chi^2 = 11.791$, 거주지역별 $\chi^2 = 28.927$,최종학력별 $\chi^2 = 4.706$, 주거형태별 $\chi^2 = 8.81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0.536$,경제활동상태별 $\chi^2 = 21.456$,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3.86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6〉 갈등인식: ⑤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7.9	33.6	39.4	16.5	2.1	0.5	100.0
성별	남자	(499)	7.4	32.5	40.5	17.2	2.0	0.4	100.0
	여자	(501)	8.4	34.7	38.3	15.8	2.2	0.6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7.5	33.3	35.6	21.3	1.1	1.1	100.0
	만 30-39세	(168)	6.5	31.5	41.1	17.9	3.0	0.0	100.0
	만 40-49세	(202)	8.9	32.7	41.1	14.4	3.0	0.0	100.0
	만 50-59세	(202)	9.9	29.2	43.6	15.8	1.5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6.7	39.4	36.2	14.6	2.0	1.2	100.0
가구원수 +	1명	(98)	4.1	39.8	31.6	22.4	2.0	0.0	100.0
	2명	(225)	6.7	35.6	38.2	15.1	2.7	1.8	100.0
	3명	(236)	7.6	31.8	44.9	13.6	2.1	0.0	100.0
	4명 이상	(441)	9.5	32.2	38.8	17.5	1.8	0.2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7.9	33.9	37.0	18.1	2.9	0.2	100.0
	시도 시부	(491)	7.5	34.4	42.2	13.8	1.4	0.6	100.0
	시도 군부	(66)	10.6	25.8	34.8	25.8	1.5	1.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7.8	40.0	37.4	13.0	0.9	0.9	100.0
	고졸	(426)	7.5	34.0	39.7	16.2	2.1	0.5	100.0
	대졸 이상	(459)	8.3	31.6	39.7	17.6	2.4	0.4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8.0	34.0	40.4	14.8	2.2	0.6	100.0
	전세	(220)	8.6	31.4	37.7	20.5	1.8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4.6	36.9	33.8	21.5	1.5	1.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4.0	32.6	39.5	11.6	2.3	0.0	100.0
	100-150만원	(139)	7.9	33.8	37.4	18.0	2.2	0.7	100.0
	150-200만원	(170)	5.9	40.6	30.6	20.0	2.4	0.6	100.0
	200-250만원	(261)	8.0	30.7	42.5	14.9	3.1	0.8	100.0
	250-300만원	(218)	9.2	32.1	40.4	16.1	1.8	0.5	100.0
	300-350만원	(97)	5.2	35.1	39.2	19.6	1.0	0.0	100.0
	350-400만원	(36)	8.3	25.0	63.9	2.8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6)	8.3	36.1	36.1	19.4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6.5	29.6	42.1	18.2	2.7	0.8	100.0
	임사일용직	(59)	18.6	27.1	39.0	15.3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7.8	33.3	37.9	19.0	1.3	0.7	100.0
	실업자	(47)	6.4	44.7	38.3	8.5	2.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7.8	37.3	37.5	15.0	2.1	0.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2.2	40.8	28.6	16.3	0.0	2.0	100.0
	중하층	(331)	13.3	32.6	38.1	14.2	1.5	0.3	100.0
	중간층	(536)	4.5	34.0	40.5	17.7	2.8	0.6	100.0
	중상층	(84)	6.0	31.0	44.0	17.9	1.2	0.0	100.0

주: 1) 성별 $\chi^2 = 1.539$, 연령대별 $\chi^2 = 21.491$, 가구원수별 $\chi^2 = 23.089$, 거주지역별 $\chi^2 = 14.901$,최종학력별 $\chi^2 = 4.880$, 주거형태별 $\chi^2 = 9.56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0.533$,경제활동상태별 $\chi^2 = 24.145$,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2.82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7〉 갈등인식: ⑥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7.7	34.5	36.1	19.6	1.4	0.7	100.0
성별	남자	(499)	8.0	33.9	36.5	19.6	1.4	0.6	100.0
	여자	(501)	7.4	35.1	35.7	19.6	1.4	0.8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8.0	36.2	35.6	17.8	1.1	1.1	100.0
	만 30-39세	(168)	6.0	35.1	33.9	22.6	1.2	1.2	100.0
	만 40-49세	(202)	7.9	36.1	32.2	21.8	2.0	0.0	100.0
	만 50-59세	(202)	9.4	34.7	36.1	18.8	0.5	0.5	100.0
	만 60세 이상	(254)	7.1	31.5	40.9	17.7	2.0	0.8	100.0
가구원수	1명	(98)	8.2	34.7	33.7	20.4	3.1	0.0	100.0
	2명	(225)	6.7	30.7	40.0	19.6	1.8	1.3	100.0
	3명	(236)	7.6	30.9	36.4	23.7	0.8	0.4	100.0
	4명 이상	(441)	8.2	38.3	34.5	17.2	1.1	0.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4.7	34.1	35.7	23.7	1.1	0.7	100.0
	시도 시부	(491)	10.0	34.2	37.5	15.7	1.8	0.8	100.0
	시도 군부	(66)	10.6	39.4	28.8	21.2	0.0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7.8	30.4	43.5	15.7	2.6	0.0	100.0
	고졸	(426)	7.5	33.1	38.5	18.8	1.2	0.9	100.0
	대졸 이상	(459)	7.8	36.8	32.0	21.4	1.3	0.7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8.3	33.1	37.2	18.9	1.7	0.8	100.0
	전세	(220)	5.5	38.2	33.2	22.3	0.9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9.2	36.9	33.8	18.5	0.0	1.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7.0	32.6	46.5	11.6	2.3	0.0	100.0
	100-150만원	(139)	7.2	32.4	37.4	19.4	2.2	1.4	100.0
	150-200만원	(170)	7.1	28.8	41.2	20.6	1.8	0.6	100.0
	200-250만원	(261)	8.4	34.9	35.2	18.8	2.3	0.4	100.0
	250-300만원	(218)	6.0	37.2	30.7	24.3	0.5	1.4	100.0
	300-350만원	(97)	7.2	43.3	30.9	18.6	0.0	0.0	100.0
	350-400만원	(36)	19.4	33.3	30.6	16.7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6)	8.3	30.6	52.8	8.3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6.5	35.6	31.3	23.9	1.9	0.8	100.0
	임사·일용직	(59)	18.6	27.1	37.3	16.9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8.5	37.3	31.4	21.6	0.0	1.3	100.0
	실업자	(47)	4.3	36.2	42.6	12.8	4.3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7.2	33.2	41.8	15.8	1.3	0.5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2.2	46.9	34.7	4.1	0.0	2.0	100.0
	중하층	(331)	10.6	32.0	38.7	17.5	0.9	0.3	100.0
	중간층	(536)	5.2	33.6	36.2	22.2	2.1	0.7	100.0
	중상층	(84)	9.5	42.9	26.2	20.2	0.0	1.2	100.0

주: 1) 성별 $\chi^2 = 0.423$, 연령대별 $\chi^2 = 12.430$, 가구원수별 $\chi^2 = 14.082$, 거주지역별 $\chi^2 = 20.934$,최종학력별 $\chi^2 = 10.395$, 주거형태별 $\chi^2 = 9.235$,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7.713$,경제활동상태별 $\chi^2 = 35.68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2.02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8〉 갈등인식: ⑦ 다른 문화와의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6.1	30.0	47.1	13.7	1.4	1.7	100.0
성별	남자	(499)	6.0	30.3	47.1	13.2	1.2	2.2	100.0
	여자	(501)	6.2	29.7	47.1	14.2	1.6	1.2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8.6	27.0	47.7	13.8	1.7	1.1	100.0
	만 30-39세	(168)	4.2	35.7	41.7	14.3	1.2	3.0	100.0
	만 40-49세	(202)	5.0	30.2	48.0	13.4	2.5	1.0	100.0
	만 50-59세	(202)	4.0	31.7	49.5	12.4	1.0	1.5	100.0
	만 60세 이상	(254)	8.3	26.8	47.6	14.6	0.8	2.0	100.0
가구원수	1명	(98)	6.1	27.6	50.0	11.2	3.1	2.0	100.0
	2명	(225)	8.0	24.9	48.4	16.0	0.4	2.2	100.0
	3명	(236)	4.7	34.3	44.1	13.1	2.5	1.3	100.0
	4명 이상	(441)	5.9	30.8	47.4	13.4	0.9	1.6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3.6	25.5	51.0	16.0	2.5	1.4	100.0
	시도 시부	(491)	7.9	34.4	43.4	11.6	0.4	2.2	100.0
	시도 군부	(66)	9.1	27.3	48.5	13.6	1.5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7.0	25.2	50.4	15.7	0.0	1.7	100.0
	고졸	(426)	6.8	29.8	45.5	15.0	0.9	1.9	100.0
	대졸 이상	(459)	5.2	31.4	47.7	12.0	2.2	1.5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5.9	30.5	47.0	14.1	1.0	1.5	100.0
	전세	(220)	5.5	30.0	45.9	14.5	2.7	1.4	100.0
	월세 및 기타	(65)	10.8	24.6	52.3	6.2	1.5	4.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4.7	27.9	51.2	11.6	0.0	4.7	100.0
	100-150만원	(139)	5.0	30.9	43.2	19.4	0.0	1.4	100.0
	150-200만원	(170)	5.9	27.1	52.9	10.6	2.4	1.2	100.0
	200-250만원	(261)	6.5	30.3	45.2	15.3	0.8	1.9	100.0
	250-300만원	(218)	8.3	30.7	43.1	12.8	3.2	1.8	100.0
	300-350만원	(97)	5.2	23.7	58.8	10.3	1.0	1.0	100.0
	350-400만원	(36)	2.8	55.6	36.1	5.6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8	27.8	47.2	19.4	0.0	2.8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5.4	30.7	43.8	16.0	2.4	1.6	100.0
	임사일용직	(59)	8.5	32.2	54.2	5.1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5.2	28.8	47.7	12.4	1.3	4.6	100.0
	실업자	(47)	6.4	34.0	44.7	12.8	0.0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6.7	29.0	49.3	13.4	0.8	0.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2.2	20.4	53.1	8.2	0.0	6.1	100.0
	중하층	(331)	7.9	32.0	48.6	10.0	0.6	0.9	100.0
	중간층	(536)	4.9	29.5	45.7	16.4	1.9	1.7	100.0
	중상층	(84)	3.6	31.0	46.4	14.3	2.4	2.4	100.0

주: 1) 성별 $\chi^2 = 1.967$, 연령대별 $\chi^2 = 17.454$, 가구원수별 $\chi^2 = 15.097$, 거주지역별 $\chi^2 = 30.218$,최종학력별 $\chi^2 = 9.018$, 주거형태별 $\chi^2 = 13.76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2.963$,경제활동상태별 $\chi^2 = 24.310$,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7.80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19〉 갈등인식: ⑧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수 없음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5.1	24.4	48.2	19.7	1.5	1.1	100.0
성별	남자	(499)	6.0	23.0	49.9	18.4	1.6	1.0	100.0
	여자	(501)	4.2	25.7	46.5	21.0	1.4	1.2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10.3	20.7	50.6	14.9	2.3	1.1	100.0
	만 30-39세	(168)	4.8	28.0	44.6	20.2	0.0	2.4	100.0
	만 40-49세	(202)	5.0	21.8	49.5	20.3	3.0	0.5	100.0
	만 50-59세	(202)	2.5	28.2	49.0	17.8	1.5	1.0	100.0
	만 60세 이상	(254)	3.9	23.6	47.2	23.6	0.8	0.8	100.0
가구원수	1명	(98)	4.1	21.4	52.0	18.4	3.1	1.0	100.0
	2명	(225)	4.4	22.7	47.1	24.4	0.4	0.9	100.0
	3명	(236)	5.5	25.8	46.2	19.1	2.5	0.8	100.0
	4명 이상	(441)	5.4	25.2	49.0	17.9	1.1	1.4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7	19.4	50.1	24.6	2.3	0.9	100.0
	시도 시부	(491)	6.7	29.7	46.0	15.1	1.0	1.4	100.0
	시도 군부	(66)	9.1	18.2	51.5	21.2	0.0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4.3	20.9	53.9	18.3	0.9	1.7	100.0
	고졸	(426)	4.7	23.2	48.1	21.6	1.2	1.2	100.0
	대졸 이상	(459)	5.7	26.4	46.8	18.3	2.0	0.9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4.8	26.6	47.4	19.0	1.4	0.8	100.0
	전세	(220)	5.9	19.1	48.6	24.1	0.9	1.4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18.5	55.4	12.3	4.6	3.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4.7	25.6	46.5	18.6	2.3	2.3	100.0
	100-150만원	(139)	1.4	25.9	48.9	22.3	0.7	0.7	100.0
	150-200만원	(170)	5.9	21.2	48.8	22.9	1.2	0.0	100.0
	200-250만원	(261)	6.1	25.3	48.7	17.2	2.3	0.4	100.0
	250-300만원	(218)	6.9	25.2	45.4	18.8	1.8	1.8	100.0
	300-350만원	(97)	2.1	25.8	47.4	20.6	1.0	3.1	100.0
	350-400만원	(36)	5.6	27.8	47.2	19.4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6)	5.6	13.9	61.1	16.7	0.0	2.8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6.3	22.0	49.2	19.8	1.9	0.8	100.0
	임사·일용직	(59)	5.1	23.7	55.9	15.3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6	25.5	41.8	25.5	2.6	2.0	100.0
	실업자	(47)	4.3	31.9	38.3	21.3	0.0	4.3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5.1	25.5	49.9	17.7	1.1	0.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8.2	22.4	53.1	10.2	2.0	4.1	100.0
	중하층	(331)	5.1	28.1	46.2	19.3	0.6	0.6	100.0
	중간층	(536)	5.0	22.2	50.4	20.0	1.5	0.9	100.0
	중상층	(84)	3.6	25.0	39.3	25.0	4.8	2.4	100.0

주: 1) 성별 $\chi^2 = 3.934$, 연령대별 $\chi^2 = 32.192$, 가구원수별 $\chi^2 = 11.413$, 거주지역별 $\chi^2 = 37.439$,최종학력별 $\chi^2 = 6.331$, 주거형태별 $\chi^2 = 18.03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7.768$,경제활동상태별 $\chi^2 = 22.57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4.110$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0〉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5년 전, 2013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계
전체		(1000)	1.0	17.9	57.4	21.0	2.7	100.0
성별	남자	(499)	1.2	18.4	57.9	20.8	1.6	100.0
	여자	(501)	0.8	17.4	56.9	21.2	3.8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2.3	16.7	56.3	18.4	6.3	100.0
	만 30-39세	(168)	0.6	13.1	64.3	19.6	2.4	100.0
	만 40-49세	(202)	1.5	20.8	56.9	19.3	1.5	100.0
	만 50-59세	(202)	0.5	19.3	55.4	22.8	2.0	100.0
	만 60세 이상	(254)	0.4	18.5	55.5	23.6	2.0	100.0
가구원수	1명	(98)	3.1	21.4	52.0	20.4	3.1	100.0
	2명	(225)	0.0	19.6	53.3	24.9	2.2	100.0
	3명	(236)	0.4	14.0	64.8	17.8	3.0	100.0
	4명 이상	(441)	1.4	18.4	56.7	20.9	2.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5	14.4	57.3	25.3	2.5	100.0
	시도 시부	(491)	1.6	19.6	57.8	18.1	2.9	100.0
	시도 군부	(66)	0.0	28.8	54.5	13.6	3.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7	14.8	50.4	31.3	1.7	100.0
	고졸	(426)	0.7	20.2	58.9	17.1	3.1	100.0
	대졸 이상	(459)	1.1	16.6	57.7	22.0	2.6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1.0	16.5	59.4	20.1	2.9	100.0
	전세	(220)	0.0	18.6	54.5	25.0	1.8	100.0
	월세 및 기타	(65)	4.6	30.8	44.6	16.9	3.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2.3	27.9	46.5	16.3	7.0	100.0
	100-150만원	(139)	0.7	20.9	54.0	22.3	2.2	100.0
	150-200만원	(170)	0.0	14.1	60.6	24.7	0.6	100.0
	200-250만원	(261)	0.8	17.6	57.1	21.1	3.4	100.0
	250-300만원	(218)	1.4	17.4	61.9	17.4	1.8	100.0
	300-350만원	(97)	1.0	15.5	55.7	22.7	5.2	100.0
	350-400만원	(36)	2.8	19.4	61.1	13.9	2.8	100.0
	400만원 이상	(36)	2.8	22.2	44.4	27.8	2.8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1	15.2	60.9	20.7	2.2	100.0
	임사일용직	(59)	3.4	20.3	55.9	16.9	3.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3	23.5	53.6	20.3	1.3	100.0
	실업자	(47)	2.1	19.1	66.0	10.6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3	17.7	54.7	23.6	3.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4.1	28.6	36.7	26.5	4.1	100.0
	중하층	(331)	0.9	21.5	53.5	22.7	1.5	100.0
	중간층	(536)	0.9	15.7	62.7	18.3	2.4	100.0
	중상층	(84)	0.0	11.9	51.2	28.6	8.3	100.0

주: 1) 성별 $\chi^2 = 5.064$, 연령대별 $\chi^2 = 23.024$, 가구원수별 $\chi^2 = 17.415$, 거주지역별 $\chi^2 = 19.767$,최종학력별 $\chi^2 = 14.186$, 주거형태별 $\chi^2 = 23.50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7.942$,경제활동상태별 $\chi^2 = 20.11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9.30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현재, 2018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전체		(1000)	0.2	6.1	43.4	46.8	3.3	0.2	100.0
성별	남자	(499)	0.2	6.8	43.5	45.5	4.0	0.0	100.0
	여자	(501)	0.2	5.4	43.3	48.1	2.6	0.4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2.9	43.1	48.3	5.2	0.0	100.0
	만 30-39세	(168)	0.6	3.6	43.5	48.2	4.2	0.0	100.0
	만 40-49세	(202)	0.0	9.9	39.6	47.0	3.0	0.5	100.0
	만 50-59세	(202)	0.0	4.0	45.0	48.5	2.5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8.7	45.3	43.3	2.4	0.4	100.0
가구원수	1명	(98)	1.0	5.1	37.8	51.0	5.1	0.0	100.0
	2명	(225)	0.0	8.0	45.8	43.6	2.2	0.4	100.0
	3명	(236)	0.0	5.5	46.2	44.5	3.4	0.4	100.0
	4명 이상	(441)	0.2	5.7	42.0	48.8	3.4	0.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0	2.9	40.0	52.1	4.7	0.2	100.0
	시도 시부	(491)	0.4	8.8	47.0	41.3	2.2	0.2	100.0
	시도 군부	(66)	0.0	7.6	39.4	51.5	1.5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8.7	45.2	42.6	3.5	0.0	100.0
	고졸	(426)	0.2	5.6	46.0	45.5	2.3	0.2	100.0
	대졸 이상	(459)	0.2	5.9	40.5	49.0	4.1	0.2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1	5.3	43.8	47.1	3.4	0.3	100.0
	전세	(220)	0.0	6.8	44.5	45.9	2.7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12.3	35.4	46.2	4.6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14.0	39.5	34.9	9.3	2.3	100.0
	100-150만원	(139)	0.0	7.9	43.9	46.8	1.4	0.0	100.0
	150-200만원	(170)	0.0	4.1	46.5	45.9	3.5	0.0	100.0
	200-250만원	(261)	0.4	5.7	42.1	49.0	2.7	0.0	100.0
	250-300만원	(218)	0.5	5.0	41.7	48.6	3.7	0.5	100.0
	300-350만원	(97)	0.0	4.1	46.4	44.3	5.2	0.0	100.0
	350-400만원	(36)	0.0	8.3	50.0	38.9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11.1	36.1	52.8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3	5.4	37.8	52.4	4.1	0.0	100.0
	임사·일용직	(59)	1.7	6.8	45.8	44.1	1.7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7.8	47.7	41.2	2.6	0.7	100.0
	실업자	(47)	0.0	8.5	44.7	44.7	2.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5.6	46.6	44.2	3.2	0.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16.3	51.0	22.4	8.2	2.0	100.0
	중하층	(331)	0.3	10.0	49.2	39.0	1.5	0.0	100.0
	중간층	(536)	0.2	3.4	40.7	52.6	3.2	0.0	100.0
	중상층	(84)	0.0	2.4	33.3	54.8	8.3	1.2	100.0

주: 1) 성별 $\chi^2 = 4.703$, 연령대별 $\chi^2 = 25.398$, 가구원수별 $\chi^2 = 13.269$, 거주지역별 $\chi^2 = 29.612$,최종학력별 $\chi^2 = 6.837$, 주거형태별 $\chi^2 = 13.88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6.386$,경제활동상태별 $\chi^2 = 22.19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74.52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2〉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5년 후, 2023년)

22(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전체		(1000)	1.1	4.8	20.3	55.0	18.2	0.6	100.0
성별	남자	(499)	1.2	4.6	21.6	55.1	16.6	0.8	100.0
	여자	(501)	1.0	5.0	19.0	54.9	19.8	0.4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2.9	17.8	58.6	19.5	0.6	100.0
	만 30-39세	(168)	1.8	4.2	22.0	56.0	16.1	0.0	100.0
	만 40-49세	(202)	1.5	6.9	17.3	54.5	18.8	1.0	100.0
	만 50-59세	(202)	0.5	4.5	17.8	57.4	19.3	0.5	100.0
	만 60세 이상	(254)	1.2	5.1	25.2	50.4	17.3	0.8	100.0
가구원수 *	1명	(98)	1.0	2.0	27.6	40.8	28.6	0.0	100.0
	2명	(225)	1.3	6.7	25.3	51.6	14.2	0.9	100.0
	3명	(236)	1.3	4.2	16.9	57.6	19.1	0.8	100.0
	4명 이상	(441)	0.9	4.8	17.9	58.5	17.5	0.5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2	4.3	17.8	52.1	24.6	0.9	100.0
	시도 시부	(491)	2.0	5.3	23.0	55.4	13.8	0.4	100.0
	시도 군부	(66)	0.0	4.5	16.7	71.2	7.6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9	9.6	32.2	40.0	16.5	0.9	100.0
	고졸	(426)	0.9	2.8	20.2	57.0	18.3	0.7	100.0
	대졸 이상	(459)	1.3	5.4	17.4	56.9	18.5	0.4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8	4.2	20.0	56.8	17.3	0.8	100.0
	전세	(220)	1.4	6.8	20.5	53.2	18.2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3.1	4.6	23.1	41.5	27.7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16.3	27.9	25.6	27.9	2.3	100.0
	100-150만원	(139)	1.4	5.0	21.6	59.7	12.2	0.0	100.0
	150-200만원	(170)	0.0	3.5	20.6	55.9	18.8	1.2	100.0
	200-250만원	(261)	0.8	4.2	18.8	59.4	16.9	0.0	100.0
	250-300만원	(218)	1.8	3.7	17.4	53.7	22.9	0.5	100.0
	300-350만원	(97)	2.1	5.2	19.6	56.7	15.5	1.0	100.0
	350-400만원	(36)	2.8	5.6	22.2	44.4	22.2	2.8	100.0
	400만원 이상	(36)	0.0	5.6	33.3	50.0	11.1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1.6	4.6	14.7	57.3	21.2	0.5	100.0
	임사일용직	(59)	1.7	5.1	16.9	61.0	15.3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7.2	19.0	54.9	17.0	1.3	100.0
	실업자	(47)	0.0	4.3	46.8	31.9	17.0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8	4.0	23.6	54.7	16.4	0.5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4.1	40.8	36.7	12.2	4.1	100.0
	중하층	(331)	1.8	8.5	23.9	53.2	12.4	0.3	100.0
	중간층	(536)	0.7	3.2	16.6	57.3	21.8	0.4	100.0
	중상층	(84)	0.0	1.2	17.9	58.3	21.4	1.2	100.0

주: 1) 성별 $\chi^2 = 3.076$, 연령대별 $\chi^2 = 15.112$, 가구원수별 $\chi^2 = 26.191$, 거주지역별 $\chi^2 = 36.148$,최종학력별 $\chi^2 = 25.465$, 주거형태별 $\chi^2 = 14.17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2.687$,경제활동상태별 $\chi^2 = 39.26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60.71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3〉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 평등(공평)한 분배 인식(5년 전, 2013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계
전체		(1000)	2.4	23.0	50.6	20.6	3.4	100.0
성별	남자	(499)	2.6	25.1	49.3	20.4	2.6	100.0
	여자	(501)	2.2	21.0	51.9	20.8	4.2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3.4	24.7	54.6	14.9	2.3	100.0
	만 30-39세	(168)	3.0	18.5	49.4	26.2	3.0	100.0
	만 40-49세	(202)	1.5	23.8	54.0	18.8	2.0	100.0
	만 50-59세	(202)	2.0	21.3	50.5	21.3	5.0	100.0
	만 60세 이상	(254)	2.4	25.6	46.1	21.7	4.3	100.0
가구원수	1명	(98)	1.0	22.4	49.0	25.5	2.0	100.0
	2명	(225)	3.6	23.1	45.3	23.6	4.4	100.0
	3명	(236)	1.7	25.0	53.0	15.3	5.1	100.0
	4명 이상	(441)	2.5	22.0	52.4	20.9	2.3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4	18.3	53.5	23.0	3.8	100.0
	시도 시부	(491)	2.9	26.5	50.3	17.1	3.3	100.0
	시도 군부	(66)	6.1	28.8	33.3	30.3	1.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2.6	23.5	48.7	16.5	8.7	100.0
	고졸	(426)	2.3	23.7	51.4	20.0	2.6	100.0
	대졸 이상	(459)	2.4	22.2	50.3	22.2	2.8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2.5	22.4	51.5	20.7	2.9	100.0
	전세	(220)	1.4	22.7	49.5	20.9	5.5	100.0
	월세 및 기타	(65)	4.6	30.8	44.6	18.5	1.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4.7	25.6	51.2	16.3	2.3	100.0
	100-150만원	(139)	2.9	20.9	49.6	19.4	7.2	100.0
	150-200만원	(170)	0.0	23.5	42.9	30.6	2.9	100.0
	200-250만원	(261)	2.3	22.6	49.0	22.2	3.8	100.0
	250-300만원	(218)	2.8	23.4	55.0	16.5	2.3	100.0
	300-350만원	(97)	3.1	21.6	58.8	16.5	0.0	100.0
	350-400만원	(36)	2.8	33.3	55.6	5.6	2.8	100.0
	400만원 이상	(36)	5.6	19.4	47.2	22.2	5.6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6	22.0	52.7	20.9	2.7	100.0
	임사·일용직	(59)	5.1	20.3	52.5	18.6	3.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4.6	24.8	43.1	24.8	2.6	100.0
	실업자	(47)	0.0	25.5	55.3	19.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1	23.3	50.7	19.0	4.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6.1	34.7	32.7	14.3	12.2	100.0
	중하층	(331)	2.7	19.6	55.9	18.1	3.6	100.0
	중간층	(536)	1.9	24.4	50.2	21.1	2.4	100.0
	중상층	(84)	2.4	20.2	42.9	31.0	3.6	100.0

주: 1) 성별 $\chi^2 = 4.191$, 연령대별 $\chi^2 = 16.479$, 가구원수별 $\chi^2 = 15.252$, 거주지역별 $\chi^2 = 26.732$,최종학력별 $\chi^2 = 12.755$, 주거형태별 $\chi^2 = 8.80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0.368$,경제활동상태별 $\chi^2 = 16.460$,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4.06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4〉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 평등(공평)한 분배 인식(현재, 2018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계
전체		(1000)	2.8	20.9	46.5	26.6	3.2	100.0
성별	남자	(499)	3.4	22.4	46.3	25.1	2.8	100.0
	여자	(501)	2.2	19.4	46.7	28.1	3.6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6.3	22.4	47.1	21.8	2.3	100.0
	만 30-39세	(168)	2.4	19.0	41.7	32.7	4.2	100.0
	만 40-49세	(202)	2.0	19.3	53.0	21.3	4.5	100.0
	만 50-59세	(202)	1.5	20.8	47.5	27.7	2.5	100.0
	만 60세 이상	(254)	2.4	22.4	43.3	29.1	2.8	100.0
가구원수	1명	(98)	3.1	17.3	45.9	31.6	2.0	100.0
	2명	(225)	2.2	23.6	40.0	31.1	3.1	100.0
	3명	(236)	3.4	21.6	50.0	20.8	4.2	100.0
	4명 이상	(441)	2.7	20.0	48.1	26.3	2.9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6	21.0	40.9	31.8	4.7	100.0
	시도 시부	(491)	3.1	20.4	53.2	22.0	1.4	100.0
	시도 군부	(66)	9.1	24.2	34.8	25.8	6.1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2.6	24.3	35.7	33.0	4.3	100.0
	고졸	(426)	3.3	20.7	49.1	25.6	1.4	100.0
	대졸 이상	(459)	2.4	20.3	46.8	25.9	4.6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2.9	21.4	46.0	26.9	2.8	100.0
	전세	(220)	1.4	15.5	50.0	29.1	4.1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33.8	40.0	15.4	4.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4.7	32.6	41.9	18.6	2.3	100.0
	100-150만원	(139)	3.6	19.4	38.8	34.5	3.6	100.0
	150-200만원	(170)	1.2	15.3	48.2	30.0	5.3	100.0
	200-250만원	(261)	2.7	23.8	41.0	29.5	3.1	100.0
	250-300만원	(218)	3.2	21.6	49.5	22.9	2.8	100.0
	300-350만원	(97)	3.1	17.5	58.8	18.6	2.1	100.0
	350-400만원	(36)	0.0	19.4	66.7	13.9	0.0	100.0
	400만원 이상	(36)	5.6	25.0	41.7	25.0	2.8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6	22.8	45.4	27.7	2.4	100.0
	임사일용직	(59)	3.4	23.7	54.2	16.9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4.6	19.0	40.5	30.7	5.2	100.0
	실업자	(47)	0.0	23.4	51.1	25.5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3.5	19.0	48.3	25.5	3.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8.2	16.3	49.0	24.5	2.0	100.0
	중하층	(331)	1.8	27.2	48.6	21.5	0.9	100.0
	중간층	(536)	2.6	18.7	45.7	28.9	4.1	100.0
	중상층	(84)	4.8	13.1	41.7	33.3	7.1	100.0

주: 1) 성별 $\chi^2 = 3.840$, 연령대별 $\chi^2 = 23.130$, 가구원수별 $\chi^2 = 12.090$, 거주지역별 $\chi^2 = 40.144$,최종학력별 $\chi^2 = 14.417$, 주거형태별 $\chi^2 = 18.82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8.459$,경제활동상태별 $\chi^2 = 18.260$,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5.78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5〉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 평등(공평)한 분배 인식(5년 후, 2023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계
전체		(1000)	4.7	19.9	30.0	35.3	10.1	100.0
성별	남자	(499)	5.8	19.6	30.3	35.5	8.8	100.0
	여자	(501)	3.6	20.2	29.7	35.1	11.4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8.6	20.7	28.2	34.5	8.0	100.0
	만 30-39세	(168)	3.6	19.0	30.4	35.7	11.3	100.0
	만 40-49세	(202)	3.5	19.8	32.7	32.7	11.4	100.0
	만 50-59세	(202)	3.5	17.8	31.2	36.6	10.9	100.0
	만 60세 이상	(254)	4.7	21.7	28.0	36.6	9.1	100.0
가구원수	1명	(98)	4.1	21.4	31.6	33.7	9.2	100.0
	2명	(225)	4.4	19.6	27.6	40.0	8.4	100.0
	3명	(236)	5.5	22.5	32.6	27.5	11.9	100.0
	4명 이상	(441)	4.5	18.4	29.5	37.4	10.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3.2	20.5	29.1	33.2	14.0	100.0
	시도 시부	(491)	5.1	18.7	32.0	37.9	6.3	100.0
	시도 군부	(66)	12.1	24.2	21.2	30.3	12.1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7.0	24.3	30.4	32.2	6.1	100.0
	고졸	(426)	4.5	18.5	31.0	37.1	8.9	100.0
	대졸 이상	(459)	4.4	20.0	29.0	34.4	12.2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4.8	20.8	27.4	36.9	10.1	100.0
	전세	(220)	3.2	15.0	36.8	34.1	10.9	100.0
	월세 및 기타	(65)	9.2	26.2	35.4	21.5	7.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7.0	34.9	37.2	18.6	2.3	100.0
	100-150만원	(139)	7.2	19.4	23.7	43.2	6.5	100.0
	150-200만원	(170)	2.4	13.5	29.4	40.6	14.1	100.0
	200-250만원	(261)	4.2	19.9	29.9	36.8	9.2	100.0
	250-300만원	(218)	5.0	22.9	27.5	32.1	12.4	100.0
	300-350만원	(97)	4.1	18.6	37.1	32.0	8.2	100.0
	350-400만원	(36)	2.8	13.9	41.7	38.9	2.8	100.0
	400만원 이상	(36)	8.3	25.0	33.3	13.9	19.4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3.5	23.4	27.7	34.0	11.4	100.0
	임사·일용직	(59)	8.5	20.3	28.8	37.3	5.1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4.6	15.0	30.7	34.0	15.7	100.0
	실업자	(47)	2.1	19.1	51.1	25.5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5.6	18.5	29.5	38.1	8.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8.2	14.3	49.0	28.6	0.0	100.0
	중하층	(331)	4.5	25.7	28.1	36.6	5.1	100.0
	중간층	(536)	4.3	18.8	29.7	35.1	12.1	100.0
	중상층	(84)	6.0	7.1	28.6	35.7	22.6	100.0

주: 1) 성별 $\chi^2 = 4.305$, 연령대별 $\chi^2 = 11.902$, 가구원수별 $\chi^2 = 10.496$, 거주지역별 $\chi^2 = 29.480$,최종학력별 $\chi^2 = 8.490$, 주거형태별 $\chi^2 = 18.43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9.714$,경제활동상태별 $\chi^2 = 29.69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0.63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6〉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교육	신체와 정신건강	주거	노후생활
전체		(1000)	35.9	7.1	14.2	17.1	3.2	15.0
성별 ***	남자	(499)	41.5	4.4	14.6	13.8	3.6	12.4
	여자	(501)	30.3	9.8	13.8	20.4	2.8	17.6
연령대 ***	만 19-29세	(174)	69.0	4.6	2.3	8.0	2.9	1.7
	만 30-39세	(168)	37.5	21.4	18.5	8.9	4.8	1.8
	만 40-49세	(202)	29.2	5.4	43.6	9.4	4.0	3.5
	만 50-59세	(202)	35.6	3.0	9.4	19.3	3.0	18.8
	만 60세 이상	(254)	17.7	3.9	0.0	33.1	2.0	39.0
가구원수 ***	1명	(98)	50.0	3.1	3.1	16.3	6.1	13.3
	2명	(225)	22.2	7.1	0.9	29.3	1.8	35.1
	3명	(236)	36.4	11.0	15.3	16.1	3.0	11.0
	4명 이상	(441)	39.5	5.9	22.9	11.6	3.4	7.3
거주지역 *	광역시	(443)	39.1	7.2	10.8	15.8	2.9	15.8
	시도 시부	(491)	33.6	6.9	16.3	18.3	3.9	14.1
	시도 군부	(66)	31.8	7.6	21.2	16.7	0.0	16.7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5.7	7.0	0.9	31.3	2.6	40.0
	고졸	(426)	36.2	2.8	10.1	21.8	2.8	19.7
	대졸 이상	(459)	40.7	11.1	21.4	9.2	3.7	4.4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35.8	4.3	11.7	20.4	2.1	17.8
	전세	(220)	30.5	16.8	24.5	8.6	3.6	8.2
	월세 및 기타	(65)	55.4	4.6	6.2	9.2	13.8	7.7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23.3	2.3	7.0	34.9	2.3	25.6
	100-150만원	(139)	23.0	5.8	5.8	26.6	1.4	31.7
	150-200만원	(170)	28.2	7.1	20.6	18.2	1.8	20.0
	200-250만원	(261)	40.6	8.8	14.9	13.0	4.6	9.2
	250-300만원	(218)	42.2	8.3	14.7	14.2	3.7	8.3
	300-350만원	(97)	45.4	7.2	18.6	14.4	2.1	4.1
	350-400만원	(36)	38.9	5.6	11.1	13.9	5.6	16.7
	400만원 이상	(36)	36.1	0.0	8.3	11.1	5.6	25.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38.0	9.2	20.7	13.3	3.8	4.1
	임사일용직	(59)	45.8	3.4	10.2	18.6	3.4	11.9
	고용주/자영업자	(153)	30.7	2.6	15.0	17.0	5.2	24.2
	실업자	(47)	66.0	0.0	0.0	10.6	0.0	21.3
	비경제활동인구	(373)	30.6	8.3	9.9	21.4	2.1	21.7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38.8	6.1	4.1	26.5	2.0	22.4
	중하층	(331)	33.8	6.3	12.4	16.0	5.4	19.9
	중간층	(536)	35.6	8.2	16.8	16.2	2.4	12.3
	중상층	(84)	44.0	3.6	10.7	21.4	0.0	8.3

주: 1) 성별 $\chi^2 = 40.894$, 연령대별 $\chi^2 = 590.027$, 가구원수별 $\chi^2 = 217.010$, 거주지역별 $\chi^2 = 32.391$,최종학력별 $\chi^2 = 209.787$, 주거형태별 $\chi^2 = 130.14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55.735$,경제활동상태별 $\chi^2 = 142.51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9.778$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채 상환	부모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1000)	2.8	0.8	3.0	0.9	100.0
성별 ***	남자	(499)	3.8	0.6	4.4	0.8	100.0
	여자	(501)	1.8	1.0	1.6	1.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6	0.0	8.6	2.3	100.0
	만 30-39세	(168)	3.0	0.6	2.4	1.2	100.0
	만 40-49세	(202)	3.0	1.0	1.0	0.0	100.0
	만 50-59세	(202)	6.4	2.0	2.0	0.5	100.0
	만 60세 이상	(254)	1.2	0.4	2.0	0.8	100.0
가구원수 ***	1명	(98)	2.0	0.0	5.1	1.0	100.0
	2명	(225)	1.3	0.0	1.3	0.9	100.0
	3명	(236)	1.3	1.3	3.4	1.3	100.0
	4명 이상	(441)	4.5	1.1	3.2	0.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4	0.9	5.0	1.1	100.0
	시도 시부	(491)	3.9	0.8	1.6	0.6	100.0
	시도 군부	(66)	4.5	0.0	0.0	1.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9	0.0	0.9	0.9	100.0
	고졸	(426)	2.6	0.2	2.8	0.9	100.0
	대졸 이상	(459)	3.5	1.5	3.7	0.9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3.1	1.1	2.8	0.8	100.0
	전세	(220)	2.3	0.0	4.1	1.4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0.0	1.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2.3	0.0	2.3	100.0
	100-150만원	(139)	2.2	0.0	2.9	0.7	100.0
	150-200만원	(170)	0.6	0.0	2.4	1.2	100.0
	200-250만원	(261)	3.4	1.5	3.4	0.4	100.0
	250-300만원	(218)	4.6	0.9	1.8	1.4	100.0
	300-350만원	(97)	3.1	1.0	3.1	1.0	100.0
	350-400만원	(36)	5.6	0.0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13.9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5.2	0.8	4.3	0.5	100.0
	임사·일용직	(59)	1.7	0.0	3.4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6	0.0	2.6	0.0	100.0
	실업자	(47)	0.0	0.0	2.1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1.1	1.3	1.9	1.6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0.0	0.0	0.0	100.0
	중하층	(331)	2.7	0.0	2.7	0.6	100.0
	중간층	(536)	2.8	1.3	3.4	0.9	100.0
	중상층	(84)	4.8	1.2	3.6	2.4	100.0

주: 1) 성별 $\chi^2 = 40.894$, 연령대별 $\chi^2 = 590.027$, 가구원수별 $\chi^2 = 217.010$, 거주지역별 $\chi^2 = 32.391$,

최종학력별 $\chi^2 = 209.787$, 주거형태별 $\chi^2 = 130.14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55.735$,

경제활동상태별 $\chi^2 = 142.51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9.77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7〉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 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교육	신체와 정신건강	주거	노후생활
전체		(996)	10.3	6.0	9.6	24.8	9.0	19.9
성별	남자	(499)	11.6	6.0	8.4	24.2	10.0	17.8
	여자	(497)	9.1	6.0	10.9	25.4	8.0	21.9
연령대 ***	만 19-29세	(173)	9.2	10.4	1.7	22.5	18.5	4.6
	만 30-39세	(168)	13.7	13.1	20.8	17.3	13.1	7.1
	만 40-49세	(202)	14.4	6.4	17.3	17.3	6.9	14.4
	만 50-59세	(201)	8.0	2.5	9.5	24.9	6.0	29.4
	만 60세 이상	(252)	7.5	0.8	1.6	37.3	4.0	35.7
가구원수 ***	1명	(98)	10.2	6.1	2.0	25.5	12.2	26.5
	2명	(223)	8.5	4.5	1.8	31.8	7.2	30.9
	3명	(235)	13.2	6.0	11.1	23.8	9.8	14.9
	4명 이상	(440)	9.8	6.8	14.5	21.6	8.9	15.5
거주지역	광역시	(443)	10.6	6.3	9.9	23.7	10.4	18.5
	시도 시부	(487)	10.3	6.4	10.1	25.5	8.2	20.9
	시도 군부	(66)	9.1	1.5	4.5	27.3	6.1	21.2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4.4	0.0	0.9	38.9	2.7	40.7
	고졸	(424)	9.4	4.0	7.3	27.1	9.7	22.4
	대졸 이상	(459)	12.6	9.4	13.9	19.2	10.0	12.4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1)	9.3	5.1	7.7	26.3	7.5	22.1
	전세	(220)	13.2	7.7	17.3	20.5	12.3	12.7
	월세 및 기타	(65)	12.3	10.8	4.6	23.1	15.4	2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4.7	2.3	2.3	37.2	2.3	32.6
	100-150만원	(138)	9.4	2.9	8.0	32.6	7.2	26.1
	150-200만원	(170)	11.8	5.3	8.8	25.9	7.1	20.6
	200-250만원	(259)	12.7	5.0	12.0	20.5	10.0	18.5
	250-300만원	(217)	8.8	8.8	12.0	24.0	9.2	13.4
	300-350만원	(97)	10.3	8.2	10.3	16.5	11.3	25.8
	350-400만원	(36)	8.3	11.1	2.8	33.3	16.7	11.1
	400만원 이상	(36)	8.3	5.6	2.8	25.0	11.1	19.4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12.5	9.2	12.2	17.9	12.0	14.9
	임사·일용직	(59)	10.2	1.7	11.9	32.2	10.2	22.0
	고용주/자영업자	(153)	11.8	3.9	6.5	29.4	5.2	23.5
	실업자	(47)	4.3	6.4	4.3	36.2	8.5	21.3
	비경제활동인구	(369)	8.4	4.3	8.7	27.1	7.6	22.8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8.2	6.1	22.4	10.2	38.8
	중하층	(329)	12.2	3.3	8.2	25.5	10.6	19.5
	중간층	(534)	9.7	6.7	11.0	25.5	7.9	18.7
	중상층	(84)	11.9	10.7	8.3	19.0	9.5	17.9

주: 1) 성별 $\chi^2 = 11.298$, 연령대별 $\chi^2 = 300.730$, 가구원수별 $\chi^2 = 76.266$, 거주지역별 $\chi^2 = 14.131$,최종학력별 $\chi^2 = 119.934$, 주거형태별 $\chi^2 = 53.83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78.554$,경제활동상태별 $\chi^2 = 73.80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6.355$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채 상환	부모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996)	4.0	3.5	7.9	4.8	100.0
성별	남자	(499)	5.0	3.6	7.4	5.8	100.0
	여자	(497)	3.0	3.4	8.5	3.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3)	2.9	4.0	13.9	12.1	100.0
	만 30-39세	(168)	3.0	1.8	6.5	3.6	100.0
	만 40-49세	(202)	7.9	5.4	5.4	4.5	100.0
	만 50-59세	(201)	5.5	6.0	6.5	2.0	100.0
	만 60세 이상	(252)	1.2	0.8	7.9	3.2	100.0
가구원수 ***	1명	(98)	4.1	3.1	6.1	4.1	100.0
	2명	(223)	1.8	2.2	8.1	3.1	100.0
	3명	(235)	3.8	3.4	8.1	6.0	100.0
	4명 이상	(440)	5.2	4.3	8.2	5.2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3.4	3.4	8.6	5.2	100.0
	시도 시부	(487)	4.1	3.3	6.8	4.5	100.0
	시도 군부	(66)	7.6	6.1	12.1	4.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1.8	0.9	8.0	1.8	100.0
	고졸	(424)	2.8	2.8	8.5	5.9	100.0
	대졸 이상	(459)	5.7	4.8	7.4	4.6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1)	4.1	3.2	8.7	6.0	100.0
	전세	(220)	4.1	4.1	6.8	1.4	100.0
	월세 및 기타	(65)	3.1	4.6	3.1	3.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7.0	7.0	2.3	2.3	100.0
	100-150만원	(138)	1.4	1.4	7.2	3.6	100.0
	150-200만원	(170)	3.5	2.9	9.4	4.7	100.0
	200-250만원	(259)	5.0	5.0	5.8	5.4	100.0
	250-300만원	(217)	6.0	3.7	9.2	5.1	100.0
	300-350만원	(97)	1.0	1.0	10.3	5.2	100.0
	350-400만원	(36)	2.8	2.8	5.6	5.6	100.0
	400만원 이상	(36)	2.8	5.6	13.9	5.6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4.1	5.4	6.3	5.4	100.0
	임사·일용직	(59)	3.4	0.0	3.4	5.1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7.2	2.6	7.8	2.0	100.0
	실업자	(47)	4.3	2.1	12.8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69)	2.7	2.7	9.8	6.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4.1	0.0	6.1	2.0	100.0
	중하층	(329)	4.3	5.8	5.8	4.9	100.0
	중간층	(534)	4.1	2.8	8.2	5.2	100.0
	중상층	(84)	2.4	1.2	15.5	3.6	100.0

주: 1) 성별 $\chi^2 = 11.298$, 연령대별 $\chi^2 = 300.730$, 가구원수별 $\chi^2 = 76.266$, 거주지역별 $\chi^2 = 14.131$,

최종학력별 $\chi^2 = 119.934$, 주거형태별 $\chi^2 = 53.83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78.554$,

경제활동상태별 $\chi^2 = 73.80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6.35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8〉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 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교육	신체와 정신건강	주거	노후생활
전체		(990)	9.4	2.4	5.6	13.5	12.3	13.9
성별 **	남자	(496)	8.1	2.2	6.3	16.9	11.7	16.9
	여자	(494)	10.7	2.6	4.9	10.1	13.0	10.9
연령대 ***	만 19-29세	(172)	4.1	4.1	3.5	16.9	14.5	7.0
	만 30-39세	(168)	10.7	6.0	11.3	10.1	16.7	6.5
	만 40-49세	(200)	10.0	1.5	9.0	13.5	12.5	17.5
	만 50-59세	(200)	9.5	1.0	5.0	14.0	7.5	27.0
	만 60세 이상	(250)	11.6	0.8	0.8	13.2	11.6	10.4
가구원수 ***	1명	(97)	5.2	5.2	1.0	23.7	13.4	3.1
	2명	(221)	10.9	1.4	2.3	13.6	11.8	12.7
	3명	(233)	10.7	2.6	7.3	12.0	15.9	12.0
	4명 이상	(439)	8.9	2.3	7.3	12.1	10.5	18.0
거주지역 **	광역시	(441)	9.5	3.2	3.6	13.6	12.5	14.5
	시도 시부	(484)	10.1	2.1	7.4	13.0	13.0	13.4
	시도 군부	(65)	3.1	0.0	4.6	16.9	6.2	13.8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11.5	0.9	0.9	12.4	12.4	9.7
	고졸	(419)	10.0	1.4	3.6	13.6	11.2	17.4
	대졸 이상	(458)	8.3	3.7	8.5	13.8	13.3	11.8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05)	8.2	1.3	4.8	13.6	10.9	14.8
	전세	(220)	13.2	5.0	8.2	10.9	17.3	14.1
	월세 및 기타	(65)	9.2	6.2	4.6	21.5	10.8	4.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1.6	0.0	0.0	14.0	11.6	18.6
	100-150만원	(137)	8.0	2.2	5.8	10.2	13.1	13.1
	150-200만원	(168)	9.5	2.4	3.0	10.7	13.1	10.1
	200-250만원	(259)	8.5	3.1	8.1	16.6	9.7	14.7
	250-300만원	(216)	8.3	2.3	4.6	12.0	17.6	14.8
	300-350만원	(96)	15.6	2.1	7.3	13.5	10.4	12.5
	350-400만원	(36)	11.1	2.8	8.3	13.9	8.3	22.2
	400만원 이상	(35)	5.7	2.9	2.9	25.7	2.9	14.3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6)	10.1	3.6	8.5	13.4	13.7	13.9
	임사일용직	(58)	10.3	0.0	3.4	15.5	5.2	13.8
	고용주/자영업자	(153)	9.8	0.7	7.2	13.1	6.5	19.6
	실업자	(46)	10.9	4.3	2.2	21.7	13.0	15.2
	비경제활동인구	(367)	8.2	2.2	2.7	12.5	14.4	11.4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7)	10.6	0.0	4.3	17.0	10.6	8.5
	중하층	(328)	11.0	3.0	4.9	12.5	11.9	12.2
	중간층	(532)	9.2	2.1	5.5	14.3	13.5	14.3
	중상층	(83)	3.6	3.6	9.6	10.8	7.2	21.7

주: 1) 성별 $\chi^2 = 26.186$, 연령대별 $\chi^2 = 152.583$, 가구원수별 $\chi^2 = 62.145$, 거주지역별 $\chi^2 = 40.915$,최종학력별 $\chi^2 = 47.544$, 주거형태별 $\chi^2 = 60.61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7.439$,경제활동상태별 $\chi^2 = 71.18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0.290$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채 상환	부모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990)	5.5	3.8	16.8	16.8	100.0
성별 **	남자	(496)	4.6	4.2	15.1	13.9	100.0
	여자	(494)	6.3	3.4	18.4	19.6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2)	2.3	4.1	23.3	20.3	100.0
	만 30-39세	(168)	10.1	3.6	13.1	11.9	100.0
	만 40-49세	(200)	8.5	3.5	14.0	10.0	100.0
	만 50-59세	(200)	2.5	6.5	12.5	14.5	100.0
	만 60세 이상	(250)	4.4	2.0	20.4	24.8	100.0
가구원수 ***	1명	(97)	8.2	5.2	21.6	13.4	100.0
	2명	(221)	3.6	2.3	19.0	22.6	100.0
	3명	(233)	5.6	2.6	17.2	14.2	100.0
	4명 이상	(439)	5.7	5.0	14.4	15.9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1)	7.5	2.5	18.6	14.5	100.0
	시도 시부	(484)	3.3	5.6	14.0	18.0	100.0
	시도 군부	(65)	7.7	0.0	24.6	23.1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6.2	1.8	18.6	25.7	100.0
	고졸	(419)	3.6	3.1	18.4	17.7	100.0
	대졸 이상	(458)	7.0	5.0	14.8	13.8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05)	5.2	3.8	17.2	20.1	100.0
	전세	(220)	5.9	2.7	13.2	9.5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7.7	24.6	4.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7.0	2.3	11.6	23.3	100.0
	100-150만원	(137)	4.4	4.4	19.7	19.0	100.0
	150-200만원	(168)	6.5	4.8	22.0	17.9	100.0
	200-250만원	(259)	5.4	2.7	15.8	15.4	100.0
	250-300만원	(216)	6.9	3.2	15.3	14.8	100.0
	300-350만원	(96)	4.2	5.2	12.5	16.7	100.0
	350-400만원	(36)	2.8	2.8	16.7	11.1	100.0
	400만원 이상	(35)	0.0	8.6	14.3	22.9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6)	7.4	4.4	12.6	12.6	100.0
	임사·일용직	(58)	8.6	6.9	8.6	27.6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5.2	3.3	16.3	18.3	100.0
	실업자	(46)	2.2	0.0	21.7	8.7	100.0
	비경제활동인구	(367)	3.5	3.5	21.8	19.6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7)	4.3	2.1	23.4	19.1	100.0
	중하층	(328)	5.5	4.6	17.7	16.8	100.0
	중간층	(532)	6.2	3.4	16.4	15.2	100.0
	중상층	(83)	1.2	4.8	12.0	25.3	100.0

주: 1) 성별 $\chi^2 = 26.186$, 연령대별 $\chi^2 = 152.583$, 가구원수별 $\chi^2 = 62.145$, 거주지역별 $\chi^2 = 40.915$,

최종학력별 $\chi^2 = 47.544$, 주거형태별 $\chi^2 = 60.61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7.439$,

경제활동상태별 $\chi^2 = 71.18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0.290$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29〉 5년 후의 걱정거리(불안요인)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교육	신체와 정신건강	주거	노후생활
전체		(1000)	20.1	9.1	10.1	21.0	5.2	22.3
성별 *	남자	(499)	24.0	8.4	10.0	17.6	6.0	21.0
	여자	(501)	16.2	9.8	10.2	24.4	4.4	23.6
연령대 ***	만 19-29세	(174)	44.3	23.0	5.2	3.4	8.0	6.9
	만 30-39세	(168)	22.0	19.6	23.8	9.5	4.2	8.9
	만 40-49세	(202)	17.3	4.0	22.3	17.3	5.9	19.8
	만 50-59세	(202)	16.3	2.0	3.5	25.7	5.4	33.7
	만 60세 이상	(254)	7.5	2.4	0.0	39.8	3.1	34.6
가구원수 ***	1명	(98)	18.4	16.3	3.1	23.5	11.2	10.2
	2명	(225)	9.3	4.9	3.6	33.3	2.2	34.7
	3명	(236)	28.0	11.4	11.0	12.3	3.0	23.3
	4명 이상	(441)	21.8	8.4	14.5	18.8	6.6	18.1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9.0	9.0	8.1	19.4	4.1	23.5
	시도 시부	(491)	21.4	9.0	12.4	21.0	6.7	21.6
	시도 군부	(66)	18.2	10.6	6.1	31.8	1.5	19.7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8.7	4.3	0.0	37.4	2.6	33.9
	고졸	(426)	19.7	4.2	5.6	26.5	5.2	25.6
	대졸 이상	(459)	23.3	14.8	16.8	11.8	5.9	16.3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19.7	7.3	8.0	24.3	4.3	24.3
	전세	(220)	20.0	12.3	18.2	13.2	6.4	18.2
	월세 및 기타	(65)	24.6	18.5	6.2	10.8	10.8	13.8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11.6	0.0	0.0	46.5	4.7	23.3
	100-150만원	(139)	8.6	5.0	3.6	32.4	5.8	35.3
	150-200만원	(170)	18.2	5.3	8.8	20.6	4.7	24.1
	200-250만원	(261)	23.0	10.0	12.6	18.4	6.5	14.9
	250-300만원	(218)	24.8	12.8	13.3	13.8	4.6	22.0
	300-350만원	(97)	22.7	12.4	13.4	20.6	6.2	18.6
	350-400만원	(36)	25.0	11.1	11.1	13.9	2.8	27.8
	400만원 이상	(36)	22.2	13.9	5.6	19.4	0.0	22.2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23.4	14.1	17.1	13.6	5.2	14.7
	임사일용직	(59)	22.0	10.2	8.5	22.0	1.7	23.7
	고용주/자영업자	(153)	13.1	3.3	5.9	24.8	9.2	32.7
	실업자	(47)	17.0	8.5	2.1	25.5	6.4	31.9
	비경제활동인구	(373)	19.8	6.4	6.2	26.0	4.0	24.1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8.2	12.2	0.0	38.8	4.1	18.4
	중하층	(331)	18.7	7.3	9.1	20.2	7.6	28.7
	중간층	(536)	22.6	9.9	11.9	20.3	3.4	18.5
	중상층	(84)	16.7	9.5	8.3	17.9	8.3	23.8

주: 1) 성별 $\chi^2 = 21.171$, 연령대별 $\chi^2 = 431.829$, 가구원수별 $\chi^2 = 137.526$, 거주지역별 $\chi^2 = 39.229$,최종학력별 $\chi^2 = 148.605$, 주거형태별 $\chi^2 = 58.00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46.025$,경제활동상태별 $\chi^2 = 116.99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8.919$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채 상환	부모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1000)	1.4	1.3	5.6	3.9	100.0
성별 *	남자	(499)	2.2	1.6	5.4	3.6	100.0
	여자	(501)	0.6	1.0	5.8	4.2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6	0.0	3.4	5.2	100.0
	만 30-39세	(168)	1.2	2.4	6.0	2.4	100.0
	만 40-49세	(202)	3.0	1.5	5.4	3.5	100.0
	만 50-59세	(202)	2.5	2.0	4.0	5.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8	8.3	3.5	100.0
가구원수 ***	1명	(98)	2.0	0.0	9.2	6.1	100.0
	2명	(225)	0.9	0.9	7.6	2.7	100.0
	3명	(236)	1.7	0.8	3.0	5.5	100.0
	4명 이상	(441)	1.4	2.0	5.2	3.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4	1.6	9.0	5.0	100.0
	시도 시부	(491)	1.4	1.0	2.2	3.3	100.0
	시도 군부	(66)	1.5	1.5	7.6	1.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0	0.0	8.7	4.3	100.0
	고졸	(426)	1.4	1.2	5.4	5.2	100.0
	대졸 이상	(459)	1.7	1.7	5.0	2.6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1.4	1.4	5.2	4.1	100.0
	전세	(220)	1.4	1.4	6.4	2.7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0.0	7.7	6.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2.3	4.7	7.0	0.0	100.0
	100-150만원	(139)	0.0	0.7	7.2	1.4	100.0
	150-200만원	(170)	2.4	2.4	5.9	7.6	100.0
	200-250만원	(261)	2.3	0.8	6.9	4.6	100.0
	250-300만원	(218)	0.5	0.9	1.8	5.5	100.0
	300-350만원	(97)	2.1	0.0	4.1	0.0	100.0
	350-400만원	(36)	0.0	0.0	8.3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5.6	11.1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2.2	1.1	3.8	4.9	100.0
	임사·일용직	(59)	1.7	1.7	1.7	6.8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3	2.6	4.6	2.6	100.0
	실업자	(47)	0.0	2.1	6.4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8	0.8	8.3	3.5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2.0	10.2	6.1	100.0
	중하층	(331)	0.9	0.6	5.1	1.8	100.0
	중간층	(536)	1.9	1.9	5.4	4.3	100.0
	중상층	(84)	1.2	0.0	6.0	8.3	100.0

주: 1) 성별 $\chi^2 = 21.171$, 연령대별 $\chi^2 = 431.829$, 가구원수별 $\chi^2 = 137.526$, 거주지역별 $\chi^2 = 39.229$,

최종학력별 $\chi^2 = 148.605$, 주거형태별 $\chi^2 = 58.00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46.025$,

경제활동상태별 $\chi^2 = 116.99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8.91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0〉 5년 후의 걱정거리(불안요인) 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교육	신체와 정신건강	주거	노후생활
전체		(993)	12.2	4.7	8.3	20.2	8.6	23.4
성별	남자	(497)	13.7	4.6	8.2	19.9	10.5	22.5
	여자	(496)	10.7	4.8	8.3	20.6	6.7	24.2
연령대 ***	만 19-29세	(171)	14.6	12.3	11.7	8.8	15.2	6.4
	만 30-39세	(167)	17.4	5.4	20.4	10.8	6.0	7.8
	만 40-49세	(202)	13.9	2.0	8.9	18.3	8.4	24.8
	만 50-59세	(201)	9.5	2.0	3.5	32.3	8.5	30.3
	만 60세 이상	(252)	7.9	3.6	1.2	26.2	6.0	38.5
가구원수 ***	1명	(97)	11.3	4.1	7.2	14.4	10.3	21.6
	2명	(223)	9.0	4.9	3.1	25.6	8.5	32.3
	3명	(234)	11.5	5.6	12.0	20.1	9.4	18.4
	4명 이상	(439)	14.4	4.3	9.1	18.9	7.7	21.9
거주지역 *	광역시	(441)	13.2	6.1	8.4	17.0	10.0	19.7
	시도 시부	(486)	11.3	3.7	8.4	23.3	7.8	26.3
	시도 군부	(66)	12.1	3.0	6.1	19.7	4.5	25.8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6.2	2.7	3.5	25.7	8.0	36.3
	고졸	(423)	11.6	4.3	4.7	23.9	8.7	26.7
	대졸 이상	(457)	14.2	5.7	12.7	15.5	8.5	17.1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0)	11.0	4.9	6.1	22.5	8.2	25.8
	전세	(219)	16.0	4.1	15.1	14.6	6.4	18.7
	월세 및 기타	(64)	12.5	4.7	9.4	14.1	20.3	12.5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11.6	2.3	4.7	18.6	11.6	41.9
	100-150만원	(138)	8.0	2.2	2.9	22.5	5.1	34.8
	150-200만원	(169)	11.8	4.7	10.7	21.3	8.3	19.5
	200-250만원	(259)	16.2	2.3	10.4	15.1	10.4	21.2
	250-300만원	(215)	13.0	7.9	7.0	20.9	9.3	19.5
	300-350만원	(97)	9.3	6.2	10.3	27.8	7.2	23.7
	350-400만원	(36)	5.6	8.3	11.1	16.7	8.3	19.4
	400만원 이상	(36)	11.1	8.3	5.6	25.0	5.6	1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6)	14.2	5.5	11.7	19.4	8.7	18.3
	임사일용직	(58)	15.5	0.0	8.6	15.5	12.1	24.1
	고용주/자영업자	(153)	15.7	4.6	3.9	20.9	6.5	26.8
	실업자	(47)	12.8	4.3	6.4	21.3	4.3	23.4
	비경제활동인구	(369)	8.1	4.9	6.8	21.4	9.2	26.8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2.2	0.0	8.2	16.3	8.2	40.8
	중하층	(328)	14.0	4.9	7.9	24.1	11.6	21.3
	중간층	(532)	10.9	4.5	8.6	17.9	6.8	23.7
	중상층	(84)	13.1	8.3	7.1	22.6	8.3	19.0

주: 1) 성별 $\chi^2 = 10.260$, 연령대별 $\chi^2 = 260.668$, 가구원수별 $\chi^2 = 62.461$, 거주지역별 $\chi^2 = 30.374$,최종학력별 $\chi^2 = 71.293$, 주거형태별 $\chi^2 = 55.67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92.052$,경제활동상태별 $\chi^2 = 45.229$,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6.923$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채 상황	부모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993)	4.0	4.2	8.0	6.4	100.0
성별	남자	(497)	3.4	4.6	6.8	5.6	100.0
	여자	(496)	4.6	3.8	9.1	7.3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1)	4.1	4.7	11.1	11.1	100.0
	만 30-39세	(167)	7.2	6.0	12.6	6.6	100.0
	만 40-49세	(202)	7.4	6.9	5.9	3.5	100.0
	만 50-59세	(201)	2.5	3.5	3.5	4.5	100.0
	만 60세 이상	(252)	0.4	1.2	7.9	7.1	100.0
가구원수 ***	1명	(97)	4.1	1.0	13.4	12.4	100.0
	2명	(223)	0.9	1.3	7.2	7.2	100.0
	3명	(234)	3.8	5.1	7.7	6.4	100.0
	4명 이상	(439)	5.7	5.9	7.3	4.8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1)	5.0	4.1	7.7	8.8	100.0
	시도 시부	(486)	3.3	3.7	7.6	4.5	100.0
	시도 군부	(66)	3.0	9.1	12.1	4.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0.9	0.9	5.3	10.6	100.0
	고졸	(423)	3.3	3.5	7.8	5.4	100.0
	대졸 이상	(457)	5.5	5.7	8.8	6.3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0)	3.0	4.4	7.6	6.6	100.0
	전세	(219)	6.8	4.6	8.7	5.0	100.0
	월세 및 기타	(64)	6.3	1.6	9.4	9.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4.7	2.3	0.0	2.3	100.0
	100-150만원	(138)	5.8	2.2	8.0	8.7	100.0
	150-200만원	(169)	2.4	4.1	12.4	4.7	100.0
	200-250만원	(259)	4.6	3.9	8.1	7.7	100.0
	250-300만원	(215)	5.6	4.7	7.9	4.2	100.0
	300-350만원	(97)	0.0	5.2	4.1	6.2	100.0
	350-400만원	(36)	2.8	11.1	8.3	8.3	100.0
	400만원 이상	(36)	2.8	5.6	5.6	13.9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6)	4.6	4.1	7.7	5.7	100.0
	임사·일용직	(58)	5.2	1.7	12.1	5.2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4.6	6.5	6.5	3.9	100.0
	실업자	(47)	4.3	8.5	6.4	8.5	100.0
	비경제활동인구	(369)	3.0	3.3	8.4	8.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6.1	0.0	4.1	4.1	100.0
	중하층	(328)	4.3	2.4	5.8	3.7	100.0
	중간층	(532)	4.1	5.8	9.8	7.9	100.0
	중상층	(84)	1.2	3.6	7.1	9.5	100.0

주: 1) 성별 $\chi^2 = 10.260$, 연령대별 $\chi^2 = 260.668$, 가구원수별 $\chi^2 = 62.461$, 거주지역별 $\chi^2 = 30.374$,

최종학력별 $\chi^2 = 71.293$, 주거형태별 $\chi^2 = 55.67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92.052$,

경제활동상태별 $\chi^2 = 45.229$,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6.923$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31〉 5년 후의 걱정거리(불안요인) 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교육	신체와 정신건강	주거	노후생활
전체		(986)	9.9	2.2	4.0	11.8	11.7	14.0
성별 *	남자	(493)	10.3	2.6	4.5	14.6	9.5	14.2
	여자	(493)	9.5	1.8	3.4	8.9	13.8	13.8
연령대 ***	만 19-29세	(170)	5.9	4.7	4.7	12.4	16.5	5.3
	만 30-39세	(167)	13.2	4.2	6.6	9.6	14.4	16.2
	만 40-49세	(201)	12.9	1.5	5.0	11.4	7.5	22.9
	만 50-59세	(198)	10.6	1.5	2.5	14.1	7.1	15.7
	만 60세 이상	(250)	7.6	0.4	2.0	11.2	13.6	10.0
가구원수 ***	1명	(96)	16.7	2.1	2.1	7.3	15.6	8.3
	2명	(221)	7.2	1.4	2.3	11.8	12.2	14.0
	3명	(230)	9.1	2.6	5.7	12.6	15.7	10.4
	4명 이상	(439)	10.3	2.5	4.3	12.3	8.4	17.1
거주지역	광역시	(439)	10.7	2.3	4.3	10.9	12.8	10.7
	시도 시부	(482)	9.3	2.5	3.7	13.3	10.6	17.2
	시도 군부	(65)	9.2	0.0	3.1	6.2	12.3	12.3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8.8	1.8	3.5	14.2	16.8	10.6
	고졸	(418)	7.9	1.9	3.3	10.0	9.1	12.9
	대졸 이상	(455)	12.1	2.6	4.6	12.7	12.7	15.8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04)	8.4	1.8	3.3	12.4	10.8	14.1
	전세	(218)	14.2	2.8	6.0	9.6	15.1	15.6
	월세 및 기타	(64)	12.5	4.7	4.7	12.5	9.4	7.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1.6	2.3	0.0	7.0	16.3	9.3
	100-150만원	(137)	9.5	0.7	1.5	10.9	14.6	8.8
	150-200만원	(167)	10.2	2.4	5.4	9.6	10.8	15.0
	200-250만원	(256)	9.4	3.9	3.9	14.8	12.1	18.4
	250-300만원	(215)	7.9	1.9	4.2	13.5	11.6	11.6
	300-350만원	(97)	9.3	0.0	5.2	8.2	11.3	14.4
	350-400만원	(36)	19.4	5.6	8.3	13.9	2.8	11.1
	400만원 이상	(35)	17.1	0.0	2.9	5.7	5.7	2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4)	11.8	2.2	4.9	12.4	11.5	18.1
	임사일용직	(57)	10.5	1.8	3.5	15.8	8.8	14.0
	고용주/자영업자	(153)	7.2	2.0	6.5	13.1	10.5	11.1
	실업자	(46)	19.6	6.5	0.0	13.0	6.5	6.5
	비경제활동인구	(366)	7.9	1.9	2.5	9.8	13.4	12.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7)	12.8	2.1	2.1	6.4	10.6	10.6
	중하층	(326)	11.0	0.9	4.6	9.5	12.9	17.2
	중간층	(529)	8.7	3.2	3.4	14.0	10.8	12.5
	중상층	(84)	11.9	1.2	6.0	9.5	13.1	13.1

주: 1) 성별 $\chi^2 = 16.973$, 연령대별 $\chi^2 = 119.673$, 가구원수별 $\chi^2 = 63.263$, 거주지역별 $\chi^2 = 25.658$,최종학력별 $\chi^2 = 63.201$, 주거형태별 $\chi^2 = 30.55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74.948$,경제활동상태별 $\chi^2 = 58.474$,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0.534$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채 상환	부모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986)	3.5	6.0	15.9	21.0	100.0
성별 *	남자	(493)	4.1	6.5	15.4	18.3	100.0
	여자	(493)	3.0	5.5	16.4	23.7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0)	5.9	10.6	15.3	18.8	100.0
	만 30-39세	(167)	4.2	7.8	9.0	15.0	100.0
	만 40-49세	(201)	5.5	5.0	12.4	15.9	100.0
	만 50-59세	(198)	1.5	7.1	18.7	21.2	100.0
	만 60세 이상	(250)	1.6	1.6	21.6	30.4	100.0
가구원수 ***	1명	(96)	4.2	5.2	9.4	29.2	100.0
	2명	(221)	1.8	1.4	23.1	24.9	100.0
	3명	(230)	4.8	5.7	16.1	17.4	100.0
	4명 이상	(439)	3.6	8.7	13.7	19.1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39)	4.1	6.2	17.5	20.5	100.0
	시도 시부	(482)	2.9	6.2	14.9	19.3	100.0
	시도 군부	(65)	4.6	3.1	12.3	36.9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3)	0.9	0.9	18.6	23.9	100.0
	고졸	(418)	3.1	4.1	20.1	27.5	100.0
	대졸 이상	(455)	4.6	9.0	11.4	14.3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04)	3.0	6.0	17.2	23.2	100.0
	전세	(218)	5.0	5.0	11.9	14.7	100.0
	월세 및 기타	(64)	4.7	9.4	15.6	18.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2.3	7.0	9.3	34.9	100.0
	100-150만원	(137)	2.9	2.9	21.2	27.0	100.0
	150-200만원	(167)	3.0	6.6	16.8	20.4	100.0
	200-250만원	(256)	4.3	5.9	10.5	16.8	100.0
	250-300만원	(215)	4.7	7.0	14.9	22.8	100.0
	300-350만원	(97)	3.1	6.2	23.7	18.6	100.0
	350-400만원	(36)	2.8	2.8	16.7	16.7	100.0
	400만원 이상	(35)	0.0	11.4	22.9	14.3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4)	4.9	6.3	13.7	14.0	100.0
	임사·일용직	(57)	3.5	8.8	8.8	24.6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3.3	4.6	17.0	24.8	100.0
	실업자	(46)	2.2	4.3	23.9	17.4	100.0
	비경제활동인구	(366)	2.5	6.0	17.8	26.2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7)	4.3	2.1	21.3	27.7	100.0
	중하층	(326)	4.6	4.0	13.8	21.5	100.0
	중간층	(529)	2.6	7.4	16.6	20.8	100.0
	중상층	(84)	4.8	7.1	16.7	16.7	100.0

주: 1) 성별 $\chi^2 = 16.973$, 연령대별 $\chi^2 = 119.673$, 가구원수별 $\chi^2 = 63.263$, 거주지역별 $\chi^2 = 25.658$,

최종학력별 $\chi^2 = 63.201$, 주거형태별 $\chi^2 = 30.55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74.948$,

경제활동상태별 $\chi^2 = 58.474$,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0.53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2〉 노후 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준비하고(되어) 있다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다	계
전체		(1000)	50.9	49.1	100.0
성별	남자	(499)	50.9	49.1	100.0
	여자	(501)	50.9	49.1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9.8	90.2	100.0
	만 30-39세	(168)	39.9	60.1	100.0
	만 40-49세	(202)	63.9	36.1	100.0
	만 50-59세	(202)	77.7	22.3	100.0
	만 60세 이상	(254)	54.7	45.3	100.0
가구원수 ***	1명	(98)	34.7	65.3	100.0
	2명	(225)	56.0	44.0	100.0
	3명	(236)	46.6	53.4	100.0
	4명 이상	(441)	54.2	45.8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51.0	49.0	100.0
	시도 시부	(491)	50.7	49.3	100.0
	시도 군부	(66)	51.5	48.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47.8	52.2	100.0
	고졸	(426)	53.5	46.5	100.0
	대졸 이상	(459)	49.2	50.8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56.4	43.6	100.0
	전세	(220)	42.3	57.7	100.0
	월세 및 기타	(65)	20.0	8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27.9	72.1	100.0
	100-150만원	(139)	50.4	49.6	100.0
	150-200만원	(170)	47.6	52.4	100.0
	200-250만원	(261)	50.2	49.8	100.0
	250-300만원	(218)	51.4	48.6	100.0
	300-350만원	(97)	58.8	41.2	100.0
	350-400만원	(36)	66.7	33.3	100.0
	400만원 이상	(36)	61.1	38.9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57.9	42.1	100.0
	임사·일용직	(59)	35.6	64.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71.2	28.8	100.0
	실업자	(47)	21.3	78.7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41.8	58.2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2.4	77.6	100.0
	중하층	(331)	41.7	58.3	100.0
	중간층	(536)	58.2	41.8	100.0
	중상층	(84)	57.1	42.9	100.0

주: 1) 성별 $\chi^2 = 0.000$, 연령대별 $\chi^2 = 199.157$, 가구원수별 $\chi^2 = 16.294$, 거주지역별 $\chi^2 = 0.019$,최종학력별 $\chi^2 = 2.114$, 주거형태별 $\chi^2 = 39.925$,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7.387$,경제활동상태별 $\chi^2 = 66.83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9.86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3〉 노후 준비의 주된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계
전체		(509)	60.7	2.4	6.9	1.8	20.0	8.3	100.0
성별 ***	남자	(254)	67.7	3.5	6.3	2.4	12.6	7.5	100.0
	여자	(255)	53.7	1.2	7.5	1.2	27.5	9.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	76.5	5.9	0.0	0.0	17.6	0.0	100.0
	만 30-39세	(67)	80.6	3.0	3.0	3.0	9.0	1.5	100.0
	만 40-49세	(129)	64.3	0.8	11.6	1.6	17.8	3.9	100.0
	만 50-59세	(157)	54.8	2.5	7.0	1.3	24.8	9.6	100.0
	만 60세 이상	(139)	52.5	2.9	5.0	2.2	22.3	15.1	100.0
가구원수	1명	(34)	73.5	0.0	2.9	0.0	11.8	11.8	100.0
	2명	(126)	54.0	3.2	7.1	2.4	22.2	11.1	100.0
	3명	(110)	65.5	0.0	4.5	3.6	20.0	6.4	100.0
	4명 이상	(239)	60.3	3.3	8.4	0.8	20.1	7.1	100.0
거주지역	광역시	(226)	57.5	2.7	5.8	2.2	20.8	11.1	100.0
	시도 시부	(249)	60.6	2.4	8.8	1.2	20.9	6.0	100.0
	시도 군부	(34)	82.4	0.0	0.0	2.9	8.8	5.9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55)	49.1	0.0	5.5	1.8	32.7	10.9	100.0
	고졸	(228)	56.6	2.2	8.8	0.9	21.9	9.6	100.0
	대졸 이상	(226)	67.7	3.1	5.3	2.7	15.0	6.2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403)	56.6	2.7	6.7	1.5	22.6	9.9	100.0
	전세	(93)	75.3	1.1	7.5	3.2	10.8	2.2	100.0
	월세 및 기타	(13)	84.6	0.0	7.7	0.0	7.7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12)	41.7	8.3	0.0	8.3	41.7	0.0	100.0
	100-150만원	(70)	55.7	0.0	10.0	1.4	24.3	8.6	100.0
	150-200만원	(81)	69.1	1.2	6.2	2.5	13.6	7.4	100.0
	200-250만원	(131)	71.0	4.6	6.1	1.5	14.5	2.3	100.0
	250-300만원	(112)	62.5	1.8	8.0	0.9	21.4	5.4	100.0
	300-350만원	(57)	50.9	1.8	8.8	1.8	29.8	7.0	100.0
	350-400만원	(24)	58.3	0.0	4.2	4.2	12.5	20.8	100.0
	400만원 이상	(22)	13.6	4.5	0.0	0.0	27.3	54.5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213)	71.8	3.3	6.1	2.8	13.1	2.8	100.0
	임사·일용직	(21)	42.9	4.8	0.0	4.8	33.3	14.3	100.0
	고용주/자영업자	(109)	66.1	0.9	7.3	0.0	17.4	8.3	100.0
	실업자	(10)	50.0	0.0	10.0	10.0	10.0	2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156)	44.9	1.9	8.3	0.6	30.1	14.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11)	54.5	0.0	0.0	9.1	18.2	18.2	100.0
	중하층	(138)	67.4	0.7	6.5	2.2	17.4	5.8	100.0
	중간층	(312)	61.9	2.6	7.7	1.0	19.9	7.1	100.0
	중상층	(48)	35.4	6.3	4.2	4.2	29.2	20.8	100.0

주: 1) 성별 $\chi^2 = 22.757$, 연령대별 $\chi^2 = 42.130$, 가구원수별 $\chi^2 = 17.728$, 거주지역별 $\chi^2 = 15.177$,최종학력별 $\chi^2 = 19.527$, 주거형태별 $\chi^2 = 21.33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11.229$,경제활동상태별 $\chi^2 = 59.156$,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3.51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4〉 노후 준비의 부수적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계
전체		(496)	15.7	2.4	21.0	8.3	41.9	9.1	1.6	100.0
성별 *	남자	(245)	13.9	2.4	20.4	12.2	41.2	7.3	2.4	100.0
	여자	(251)	17.5	2.4	21.5	4.4	42.6	10.8	0.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	11.8	5.9	11.8	17.6	47.1	0.0	5.9	100.0
	만 30-39세	(64)	9.4	1.6	35.9	6.3	42.2	3.1	1.6	100.0
	만 40-49세	(127)	15.7	3.1	15.7	10.2	44.9	7.9	2.4	100.0
	만 50-59세	(155)	16.8	0.6	25.8	8.4	38.1	8.4	1.9	100.0
	만 60세 이상	(133)	18.0	3.8	14.3	6.0	42.9	15.0	0.0	100.0
가구원수	1명	(33)	18.2	0.0	15.2	9.1	54.5	3.0	0.0	100.0
	2명	(120)	14.2	4.2	15.8	7.5	43.3	14.2	0.8	100.0
	3명	(110)	18.2	0.9	23.6	6.4	38.2	10.9	1.8	100.0
	4명 이상	(233)	15.0	2.6	23.2	9.4	41.2	6.4	2.1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224)	17.9	1.8	24.1	4.5	38.8	10.7	2.2	100.0
	시도 시부	(238)	15.1	2.9	17.2	11.8	42.9	8.8	1.3	100.0
	시도 군부	(34)	5.9	2.9	26.5	8.8	55.9	0.0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53)	13.2	1.9	17.0	5.7	47.2	15.1	0.0	100.0
	고졸	(221)	18.6	2.3	19.5	6.8	39.4	11.3	2.3	100.0
	대졸 이상	(222)	13.5	2.7	23.4	10.4	43.2	5.4	1.4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393)	16.5	3.1	19.8	7.9	40.5	10.9	1.3	100.0
	전세	(90)	12.2	0.0	24.4	7.8	50.0	2.2	3.3	100.0
	월세 및 기타	(13)	15.4	0.0	30.8	23.1	30.8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12)	8.3	0.0	8.3	8.3	58.3	16.7	0.0	100.0
	100-150만원	(65)	13.8	3.1	15.4	4.6	47.7	13.8	1.5	100.0
	150-200만원	(80)	16.3	0.0	23.8	6.3	46.3	7.5	0.0	100.0
	200-250만원	(128)	12.5	1.6	20.3	10.9	44.5	9.4	0.8	100.0
	250-300만원	(110)	17.3	1.8	28.2	9.1	37.3	5.5	0.9	100.0
	300-350만원	(55)	16.4	3.6	12.7	10.9	40.0	12.7	3.6	100.0
	350-400만원	(24)	12.5	12.5	33.3	4.2	29.2	4.2	4.2	100.0
	400만원 이상	(22)	36.4	4.5	9.1	4.5	27.3	9.1	9.1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207)	12.6	2.4	24.2	14.0	41.5	4.3	1.0	100.0
	임사·일용직	(21)	28.6	9.5	23.8	0.0	38.1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07)	16.8	0.9	18.7	3.7	46.7	10.3	2.8	100.0
	실업자	(10)	20.0	10.0	10.0	0.0	40.0	10.0	1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151)	17.2	2.0	18.5	5.3	39.7	15.9	1.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10)	20.0	0.0	10.0	0.0	60.0	0.0	10.0	100.0
	중하층	(130)	13.1	3.1	13.1	10.8	51.5	6.2	2.3	100.0
	중간층	(308)	16.6	1.0	23.7	7.8	39.6	10.1	1.3	100.0
	중상층	(48)	16.7	10.4	27.1	6.3	27.1	12.5	0.0	100.0

주: 1) 성별 $\chi^2 = 14.143$, 연령대별 $\chi^2 = 39.070$, 가구원수별 $\chi^2 = 18.203$, 거주지역별 $\chi^2 = 21.228$,최종학력별 $\chi^2 = 14.607$, 주거형태별 $\chi^2 = 20.38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7.899$,경제활동상태별 $\chi^2 = 51.245$,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0.55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5〉 노후 준비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할 능력이 없다	자녀에게 의탁한다	계
전체		(491)	22.0	38.9	34.6	4.5	100.0
성별	남자	(245)	24.5	39.2	33.5	2.9	100.0
	여자	(246)	19.5	38.6	35.8	6.1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57)	44.6	34.4	21.0	0.0	100.0
	만 30-39세	(101)	19.8	62.4	17.8	0.0	100.0
	만 40-49세	(73)	15.1	56.2	28.8	0.0	100.0
	만 50-59세	(45)	6.7	53.3	35.6	4.4	100.0
	만 60세 이상	(115)	3.5	7.8	71.3	17.4	100.0
가구원수 ***	1명	(64)	26.6	26.6	42.2	4.7	100.0
	2명	(99)	5.1	18.2	63.6	13.1	100.0
	3명	(126)	27.0	46.0	25.4	1.6	100.0
	4명 이상	(202)	25.7	48.5	23.8	2.0	100.0
거주지역	광역시	(217)	27.6	34.1	33.6	4.6	100.0
	시도 시부	(242)	17.8	43.8	33.9	4.5	100.0
	시도 군부	(32)	15.6	34.4	46.9	3.1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60)	0.0	8.3	70.0	21.7	100.0
	고졸	(198)	24.2	32.8	39.4	3.5	100.0
	대졸 이상	(233)	25.8	51.9	21.5	0.9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312)	23.7	35.9	34.6	5.8	100.0
	전세	(127)	13.4	48.8	35.4	2.4	100.0
	월세 및 기타	(52)	32.7	32.7	32.7	1.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31)	3.2	12.9	77.4	6.5	100.0
	100-150만원	(69)	8.7	18.8	63.8	8.7	100.0
	150-200만원	(89)	15.7	44.9	29.2	10.1	100.0
	200-250만원	(130)	28.5	42.3	28.5	0.8	100.0
	250-300만원	(106)	28.3	46.2	23.6	1.9	100.0
	300-350만원	(40)	27.5	45.0	25.0	2.5	100.0
	350-400만원	(12)	33.3	50.0	16.7	0.0	100.0
	400만원 이상	(14)	35.7	42.9	14.3	7.1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155)	24.5	54.2	20.6	0.6	100.0
	임사·일용직	(38)	23.7	31.6	42.1	2.6	100.0
	고용주/자영업자	(44)	9.1	52.3	31.8	6.8	100.0
	실업자	(37)	27.0	27.0	43.2	2.7	100.0
	비경제활동인구	(217)	21.7	28.6	42.4	7.4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38)	10.5	7.9	73.7	7.9	100.0
	중하층	(193)	16.6	30.6	47.7	5.2	100.0
	중간층	(224)	26.3	49.1	20.5	4.0	100.0
	중상층	(36)	36.1	52.8	11.1	0.0	100.0

주: 1) 성별 $\chi^2 = 4.457$, 연령대별 $\chi^2 = 232.315$, 가구원수별 $\chi^2 = 92.942$, 거주지역별 $\chi^2 = 10.285$,최종학력별 $\chi^2 = 123.025$, 주거형태별 $\chi^2 = 15.12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94.065$,경제활동상태별 $\chi^2 = 47.694$,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78.38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6〉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차매 목거 학비 노인 등에 대한 물품 강화	노년 양자 서비스 자원 확대	노년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노후 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계
전체		(1000)	27.9	21.3	11.7	16.6	8.9	7.6	6.0	100.0
성별 +	남자	(499)	31.5	22.0	11.2	15.8	8.0	7.0	4.4	100.0
	여자	(501)	24.4	20.6	12.2	17.4	9.8	8.2	7.6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27.0	16.1	14.9	21.3	8.6	6.3	5.7	100.0
	만 30-39세	(168)	37.5	20.8	11.3	10.7	6.5	6.5	6.5	100.0
	만 40-49세	(202)	34.7	16.8	11.9	13.9	8.4	6.9	7.4	100.0
	만 50-59세	(202)	29.7	20.8	12.9	15.8	8.9	7.4	4.5	100.0
	만 60세 이상	(254)	15.4	29.1	8.7	20.1	11.0	9.8	5.9	100.0
가구원수 ***	1명	(98)	20.4	27.6	6.1	14.3	12.2	9.2	10.2	100.0
	2명	(225)	17.8	29.3	11.1	19.6	7.6	9.3	5.3	100.0
	3명	(236)	36.4	14.0	14.4	14.8	10.6	5.9	3.8	100.0
	4명 이상	(441)	30.2	19.7	11.8	16.6	7.9	7.3	6.6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5.5	18.7	12.9	21.2	8.6	7.9	5.2	100.0
	시도 시부	(491)	31.4	23.0	10.0	13.0	8.4	7.3	6.9	100.0
	시도 군부	(66)	18.2	25.8	16.7	12.1	15.2	7.6	4.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3.9	27.8	9.6	21.7	13.9	4.3	8.7	100.0
	고졸	(426)	22.5	23.2	11.3	17.4	8.9	9.9	6.8	100.0
	대졸 이상	(459)	36.4	17.9	12.6	14.6	7.6	6.3	4.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26.9	21.3	11.9	16.5	9.5	8.3	5.7	100.0
	전세	(220)	32.3	20.0	10.0	17.7	7.7	5.0	7.3	100.0
	월세 및 기타	(65)	24.6	26.2	15.4	13.8	6.2	9.2	4.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6.3	25.6	4.7	23.3	16.3	9.3	4.7	100.0
	100-150만원	(139)	20.9	30.2	9.4	20.9	7.2	7.9	3.6	100.0
	150-200만원	(170)	23.5	22.4	13.5	18.8	10.6	5.9	5.3	100.0
	200-250만원	(261)	28.4	21.1	12.6	14.9	8.8	6.9	7.3	100.0
	250-300만원	(218)	31.7	17.9	11.5	16.1	6.9	8.3	7.8	100.0
	300-350만원	(97)	36.1	20.6	15.5	12.4	6.2	7.2	2.1	100.0
	350-400만원	(36)	33.3	11.1	11.1	11.1	19.4	8.3	5.6	100.0
	400만원 이상	(36)	36.1	11.1	5.6	13.9	8.3	13.9	11.1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37.5	18.2	13.0	13.9	5.7	6.0	5.7	100.0
	임사일용직	(59)	27.1	18.6	8.5	20.3	10.2	8.5	6.8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4.2	23.5	11.8	15.7	11.8	7.8	5.2	100.0
	실업자	(47)	25.5	36.2	4.3	19.1	8.5	6.4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0.4	22.0	11.8	18.8	10.7	9.1	7.2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0.2	30.6	12.2	10.2	16.3	6.1	14.3	100.0
	중하층	(331)	30.5	22.7	9.7	19.9	7.3	6.9	3.0	100.0
	중간층	(536)	28.7	20.3	11.0	15.7	8.6	8.0	7.6	100.0
	중상층	(84)	22.6	16.7	23.8	13.1	13.1	8.3	2.4	100.0

주: 1) 성별 $\chi^2 = 10.866$, 연령대별 $\chi^2 = 53.808$, 가구원수별 $\chi^2 = 48.601$, 거주지역별 $\chi^2 = 25.946$,최종학력별 $\chi^2 = 46.792$, 주거형태별 $\chi^2 = 9.38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2.390$,경제활동상태별 $\chi^2 = 48.296$,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7.95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7〉 사회보장 확대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계
전체		(1000)	14.0	12.2	21.0	19.3	33.5	100.0
성별	남자	(499)	12.2	12.4	22.4	20.6	32.3	100.0
	여자	(501)	15.8	12.0	19.6	18.0	34.7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14.9	14.4	41.4	12.1	17.2	100.0
	만 30-39세	(168)	39.3	13.1	23.8	11.3	12.5	100.0
	만 40-49세	(202)	7.4	22.3	20.3	26.7	23.3	100.0
	만 50-59세	(202)	6.9	10.4	17.3	29.2	36.1	100.0
	만 60세 이상	(254)	7.5	3.5	8.7	15.7	64.6	100.0
가구원수 ***	1명	(98)	12.2	11.2	25.5	13.3	37.8	100.0
	2명	(225)	11.6	5.3	11.1	16.4	55.6	100.0
	3명	(236)	21.2	9.7	22.5	19.5	27.1	100.0
	4명 이상	(441)	11.8	17.2	24.3	22.0	24.7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13.8	14.7	22.3	19.2	30.0	100.0
	시도 시부	(491)	15.1	10.4	19.3	20.0	35.2	100.0
	시도 군부	(66)	7.6	9.1	24.2	15.2	43.9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6.1	5.2	9.6	20.0	59.1	100.0
	고졸	(426)	10.6	10.8	17.8	20.2	40.6	100.0
	대졸 이상	(459)	19.2	15.3	26.8	18.3	20.5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11.5	11.2	19.6	19.2	38.6	100.0
	전세	(220)	22.3	15.9	22.7	17.7	21.4	100.0
	월세 및 기타	(65)	13.8	10.8	30.8	26.2	18.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2.3	9.3	7.0	20.9	60.5	100.0
	100-150만원	(139)	15.8	8.6	9.4	16.5	49.6	100.0
	150-200만원	(170)	17.6	9.4	17.6	20.6	34.7	100.0
	200-250만원	(261)	11.9	13.8	26.8	21.8	25.7	100.0
	250-300만원	(218)	13.8	17.9	24.3	16.1	28.0	100.0
	300-350만원	(97)	13.4	10.3	24.7	22.7	28.9	100.0
	350-400만원	(36)	22.2	5.6	22.2	16.7	33.3	100.0
	400만원 이상	(36)	13.9	8.3	25.0	16.7	36.1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18.2	14.7	23.1	20.9	23.1	100.0
	임시·일용직	(59)	11.9	10.2	25.4	18.6	33.9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1.8	11.8	15.0	22.2	39.2	100.0
	실업자	(47)	2.1	10.6	21.3	17.0	48.9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12.6	10.5	20.6	16.9	39.4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4.1	4.1	30.6	18.4	42.9	100.0
	중하층	(331)	14.8	8.2	15.4	17.2	44.4	100.0
	중간층	(536)	14.6	14.2	22.8	20.3	28.2	100.0
	중상층	(84)	13.1	20.2	26.2	21.4	19.0	100.0

주: 1) 성별 $\chi^2 = 4.657$, 연령대별 $\chi^2 = 330.278$, 가구원수별 $\chi^2 = 95.107$, 거주지역별 $\chi^2 = 12.671$,최종학력별 $\chi^2 = 95.473$, 주거형태별 $\chi^2 = 42.65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71.456$,경제활동상태별 $\chi^2 = 40.73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0.04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38〉 사회보장 확대 취약계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	이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계
전체		(1000)	30.1	13.9	21.2	33.9	0.9	100.0
성별	남자	(499)	33.3	13.0	20.8	31.9	1.0	100.0
	여자	(501)	26.9	14.8	21.6	35.9	0.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42.0	17.8	21.3	17.2	1.7	100.0
	만 30-39세	(168)	36.3	16.1	27.4	19.6	0.6	100.0
	만 40-49세	(202)	29.7	13.9	28.2	27.7	0.5	100.0
	만 50-59세	(202)	30.7	14.4	17.8	36.1	1.0	100.0
	만 60세 이상	(254)	17.7	9.4	14.2	57.9	0.8	100.0
가구원수 ***	1명	(98)	33.7	6.1	18.4	38.8	3.1	100.0
	2명	(225)	19.6	12.4	15.1	52.0	0.9	100.0
	3명	(236)	29.2	15.3	26.3	28.0	1.3	100.0
	4명 이상	(441)	35.1	15.6	22.2	26.8	0.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6.6	16.3	22.1	34.1	0.9	100.0
	시도 시부	(491)	35.4	11.8	19.6	32.2	1.0	100.0
	시도 군부	(66)	13.6	13.6	27.3	45.5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5.7	5.2	13.0	64.3	1.7	100.0
	고졸	(426)	28.6	13.1	19.0	38.0	1.2	100.0
	대졸 이상	(459)	35.1	16.8	25.3	22.4	0.4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29.2	14.1	20.1	35.7	0.8	100.0
	전세	(220)	28.2	15.5	25.9	29.1	1.4	100.0
	월세 및 기타	(65)	46.2	6.2	16.9	30.8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14.0	7.0	16.3	60.5	2.3	100.0
	100-150만원	(139)	24.5	12.9	16.5	45.3	0.7	100.0
	150-200만원	(170)	31.2	15.3	19.4	33.5	0.6	100.0
	200-250만원	(261)	31.0	11.1	21.8	35.2	0.8	100.0
	250-300만원	(218)	31.7	16.1	23.4	27.5	1.4	100.0
	300-350만원	(97)	33.0	15.5	25.8	25.8	0.0	100.0
	350-400만원	(36)	27.8	25.0	25.0	22.2	0.0	100.0
	400만원 이상	(36)	44.4	11.1	19.4	22.2	2.8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33.2	14.4	23.9	28.3	0.3	100.0
	임사·일용직	(59)	40.7	11.9	15.3	32.2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6.8	15.0	22.9	34.6	0.7	100.0
	실업자	(47)	25.5	12.8	21.3	36.2	4.3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7.3	13.4	18.8	39.1	1.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2.4	12.2	16.3	46.9	2.0	100.0
	중하층	(331)	24.5	13.0	18.7	43.2	0.6	100.0
	중간층	(536)	33.8	14.2	22.6	28.5	0.9	100.0
	중상층	(84)	33.3	16.7	25.0	23.8	1.2	100.0

주: 1) 성별 $\chi^2 = 5.259$, 연령대별 $\chi^2 = 115.976$, 가구원수별 $\chi^2 = 64.978$, 거주지역별 $\chi^2 = 21.321$,
최종학력별 $\chi^2 = 83.082$, 주거형태별 $\chi^2 = 15.955$,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6.097$,
경제활동상태별 $\chi^2 = 24.705$,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9.541$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39〉 소득보장 대 서비스보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서비스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계
전체		(1000)	74.2	25.8	100.0
성별	남자	(499)	75.2	24.8	100.0
	여자	(501)	73.3	26.7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79.9	20.1	100.0
	만 30-39세	(168)	67.3	32.7	100.0
	만 40-49세	(202)	71.3	28.7	100.0
	만 50-59세	(202)	78.7	21.3	100.0
	만 60세 이상	(254)	73.6	26.4	100.0
가구원수	1명	(98)	75.5	24.5	100.0
	2명	(225)	72.0	28.0	100.0
	3명	(236)	75.4	24.6	100.0
	4명 이상	(441)	74.4	25.6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73.6	26.4	100.0
	시도 시부	(491)	74.1	25.9	100.0
	시도 군부	(66)	78.8	21.2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67.0	33.0	100.0
	고졸	(426)	78.2	21.8	100.0
	대졸 이상	(459)	72.3	27.7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74.7	25.3	100.0
	전세	(220)	70.0	30.0	100.0
	월세 및 기타	(65)	83.1	16.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74.4	25.6	100.0
	100-150만원	(139)	74.1	25.9	100.0
	150-200만원	(170)	74.1	25.9	100.0
	200-250만원	(261)	70.9	29.1	100.0
	250-300만원	(218)	76.6	23.4	100.0
	300-350만원	(97)	79.4	20.6	100.0
	350-400만원	(36)	75.0	25.0	100.0
	400만원 이상	(36)	69.4	30.6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71.7	28.3	100.0
	임시·일용직	(59)	84.7	15.3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71.9	28.1	100.0
	실업자	(47)	80.9	19.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75.1	24.9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9)	83.7	16.3	100.0
	중하층	(331)	74.6	25.4	100.0
	중간층	(536)	74.4	25.6	100.0
	중상층	(84)	65.5	34.5	100.0

주: 1) 성별 $\chi^2 = 0.470$, 연령대별 $\chi^2 = 10.251$, 가구원수별 $\chi^2 = 0.849$, 거주지역별 $\chi^2 = 0.813$,최종학력별 $\chi^2 = 7.495$, 주거형태별 $\chi^2 = 4.791$,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961$,경제활동상태별 $\chi^2 = 6.249$,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68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40〉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 중점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이동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 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소득보장 강화	고용보험산재보 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직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계
전체		(1000)	18.2	40.9	13.4	23.7	3.8	100.0
성별	남자	(499)	16.6	42.3	13.0	23.8	4.2	100.0
	여자	(501)	19.8	39.5	13.8	23.6	3.4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17.2	52.3	12.6	12.6	5.2	100.0
	만 30-39세	(168)	17.3	39.9	22.0	16.1	4.8	100.0
	만 40-49세	(202)	14.9	43.6	12.9	23.8	5.0	100.0
	만 50-59세	(202)	19.3	38.1	13.9	26.2	2.5	100.0
	만 60세 이상	(254)	21.3	33.9	8.3	34.3	2.4	100.0
가구원수 *	1명	(98)	15.3	42.9	5.1	29.6	7.1	100.0
	2명	(225)	20.4	35.6	12.4	29.3	2.2	100.0
	3명	(236)	17.4	40.7	16.1	22.9	3.0	100.0
	4명 이상	(441)	18.1	43.3	14.3	20.0	4.3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17.4	37.7	14.0	28.2	2.7	100.0
	시도 시부	(491)	19.3	43.2	13.0	19.8	4.7	100.0
	시도 군부	(66)	15.2	45.5	12.1	22.7	4.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26.1	30.4	10.4	32.2	0.9	100.0
	고졸	(426)	16.0	38.3	12.7	29.8	3.3	100.0
	대졸 이상	(459)	18.3	46.0	14.8	15.9	5.0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18.5	42.0	12.2	24.3	3.1	100.0
	전세	(220)	19.5	36.8	16.8	21.4	5.5	100.0
	월세 및 기타	(65)	10.8	43.1	15.4	24.6	6.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30.2	25.6	16.3	25.6	2.3	100.0
	100-150만원	(139)	18.0	37.4	8.6	33.8	2.2	100.0
	150-200만원	(170)	12.4	37.6	18.8	27.1	4.1	100.0
	200-250만원	(261)	14.9	46.0	16.9	18.8	3.4	100.0
	250-300만원	(218)	17.0	42.2	12.8	23.4	4.6	100.0
	300-350만원	(97)	27.8	42.3	7.2	18.6	4.1	100.0
	350-400만원	(36)	25.0	38.9	5.6	25.0	5.6	100.0
	400만원 이상	(36)	30.6	41.7	5.6	16.7	5.6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9.0	40.5	14.7	21.2	4.6	100.0
	임사일용직	(59)	5.1	57.6	11.9	20.3	5.1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7.6	36.6	13.7	30.1	2.0	100.0
	실업자	(47)	10.6	38.3	19.1	29.8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0.6	40.8	11.5	23.3	3.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9)	28.6	32.7	8.2	26.5	4.1	100.0
	중하층	(331)	18.7	39.9	12.4	24.5	4.5	100.0
	중간층	(536)	16.8	42.5	14.2	23.7	2.8	100.0
	중상층	(84)	19.0	39.3	15.5	19.0	7.1	100.0

주: 1) 성별 $\chi^2 = 2.360$, 연령대별 $\chi^2 = 56.576$, 가구원수별 $\chi^2 = 22.401$, 거주지역별 $\chi^2 = 12.729$,최종학력별 $\chi^2 = 40.035$, 주거형태별 $\chi^2 = 10.47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0.892$,경제활동상태별 $\chi^2 = 23.20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2.01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41〉 향후 5년 동안 서비스보장 분야 중점 추진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보장 보건의료 분야	고용분야	교육분야	주거분야	돌봄분야	계
전체		(1000)	27.2	34.8	14.4	13.3	10.3	100.0
성별	남자	(499)	24.6	38.7	14.0	13.0	9.6	100.0
	여자	(501)	29.7	30.9	14.8	13.6	11.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15.5	55.2	12.1	10.9	6.3	100.0
	만 30-39세	(168)	19.6	29.2	25.0	16.1	10.1	100.0
	만 40-49세	(202)	21.8	35.6	17.8	17.3	7.4	100.0
	만 50-59세	(202)	32.2	35.6	11.4	10.4	10.4	100.0
	만 60세 이상	(254)	40.6	23.2	8.7	12.2	15.4	100.0
가구원수 ***	1명	(98)	37.8	29.6	11.2	12.2	9.2	100.0
	2명	(225)	36.9	21.8	11.6	13.3	16.4	100.0
	3명	(236)	22.9	36.0	18.2	13.6	9.3	100.0
	4명 이상	(441)	22.2	42.0	14.5	13.4	7.9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25.5	34.8	16.5	12.9	10.4	100.0
	시도 시부	(491)	28.7	35.6	12.4	13.2	10.0	100.0
	시도 군부	(66)	27.3	28.8	15.2	16.7	12.1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47.0	19.1	7.0	8.7	18.3	100.0
	고졸	(426)	25.8	36.6	13.1	14.3	10.1	100.0
	대졸 이상	(459)	23.5	37.0	17.4	13.5	8.5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28.3	36.1	12.2	13.0	10.5	100.0
	전세	(220)	22.7	29.1	23.6	13.2	11.4	100.0
	월세 및 기타	(65)	30.8	40.0	7.7	16.9	4.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34.9	34.9	7.0	9.3	14.0	100.0
	100-150만원	(139)	38.1	23.7	10.8	12.9	14.4	100.0
	150-200만원	(170)	31.2	27.6	14.7	13.5	12.9	100.0
	200-250만원	(261)	19.5	39.1	18.8	15.7	6.9	100.0
	250-300만원	(218)	23.9	42.2	13.3	12.4	8.3	100.0
	300-350만원	(97)	24.7	40.2	15.5	13.4	6.2	100.0
	350-400만원	(36)	44.4	19.4	13.9	11.1	11.1	100.0
	400만원 이상	(36)	22.2	36.1	8.3	8.3	25.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25.0	34.0	18.5	13.6	9.0	100.0
	임시·일용직	(59)	32.2	30.5	10.2	15.3	11.9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32.7	32.0	9.2	15.0	11.1	100.0
	실업자	(47)	27.7	36.2	14.9	14.9	6.4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6.3	37.3	13.1	11.8	11.5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44.9	20.4	14.3	12.2	8.2	100.0
	중하층	(331)	29.3	31.1	13.6	12.7	13.3	100.0
	중간층	(536)	25.4	38.1	14.2	13.4	9.0	100.0
	중상층	(84)	20.2	36.9	19.0	15.5	8.3	100.0

주: 1) 성별 $\chi^2 = 7.285$, 연령대별 $\chi^2 = 103.840$, 가구원수별 $\chi^2 = 51.141$, 거주지역별 $\chi^2 = 5.245$,최종학력별 $\chi^2 = 51.141$, 주거형태별 $\chi^2 = 25.65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61.625$,경제활동상태별 $\chi^2 = 16.12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0.506$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42〉 보건 의료 분야 중점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전체		(1000)	29.4	19.3	20.0	16.4	8.0
성별	남자	(499)	28.5	21.4	20.2	15.8	8.4
	여자	(501)	30.3	17.2	19.8	17.0	7.6
연령대 +	만 19-29세	(174)	36.2	13.8	20.1	13.8	6.3
	만 30-39세	(168)	25.0	22.0	23.8	13.7	8.3
	만 40-49세	(202)	30.2	15.8	21.3	19.8	7.4
	만 50-59세	(202)	23.8	23.8	17.8	19.8	9.4
	만 60세 이상	(254)	31.5	20.5	18.1	14.6	8.3
가구원수	1명	(98)	27.6	20.4	21.4	16.3	8.2
	2명	(225)	33.3	20.9	16.9	13.3	7.6
	3명	(236)	29.2	19.9	23.3	15.3	7.6
	4명 이상	(441)	27.9	17.9	19.5	18.6	8.4
거주지역	광역시	(443)	29.6	18.3	16.7	20.5	8.1
	시도 시부	(491)	30.5	20.4	22.2	12.8	7.1
	시도 군부	(66)	19.7	18.2	25.8	15.2	13.6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29.6	20.9	20.0	13.9	7.8
	고졸	(426)	29.1	17.4	19.7	18.1	8.9
	대졸 이상	(459)	29.6	20.7	20.3	15.5	7.2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29.7	18.5	20.1	16.6	8.1
	전세	(220)	27.7	25.0	19.1	15.5	5.9
	월세 및 기타	(65)	32.3	9.2	21.5	16.9	13.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30.2	18.6	30.2	4.7	9.3
	100-150만원	(139)	29.5	23.0	15.8	15.8	9.4
	150-200만원	(170)	31.2	20.6	17.6	17.1	8.2
	200-250만원	(261)	26.1	21.1	19.9	19.9	5.0
	250-300만원	(218)	30.3	15.1	22.9	13.3	10.1
	300-350만원	(97)	26.8	18.6	21.6	21.6	5.2
	350-400만원	(36)	33.3	19.4	19.4	8.3	13.9
	400만원 이상	(36)	41.7	13.9	13.9	16.7	11.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28.3	22.0	20.9	16.6	7.1
	임사일용직	(59)	33.9	18.6	22.0	13.6	6.8
	고용주/자영업자	(153)	28.8	14.4	17.6	19.6	11.1
	실업자	(47)	23.4	21.3	19.1	14.9	10.6
	비경제활동인구	(373)	30.8	18.5	19.8	15.5	7.5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2.4	18.4	34.7	12.2	10.2
	중하층	(331)	31.1	19.9	19.0	16.3	6.9
	중간층	(536)	30.4	18.5	19.4	17.5	7.6
	중상층	(84)	20.2	22.6	19.0	11.9	13.1

주: 1) 성별 $\chi^2 = 7.044$, 연령대별 $\chi^2 = 38.392$, 가구원수별 $\chi^2 = 20.040$, 거주지역별 $\chi^2 = 19.794$,최종학력별 $\chi^2 = 7.779$, 주거형태별 $\chi^2 = 17.01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2.047$,경제활동상태별 $\chi^2 = 25.026$,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9.897$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난 응급 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계
전체		(1000)	3.2	2.0	1.7	100.0
성별	남자	(499)	2.2	1.6	1.8	100.0
	여자	(501)	4.2	2.4	1.6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4.6	0.6	4.6	100.0
	만 30-39세	(168)	2.4	3.0	1.8	100.0
	만 40-49세	(202)	2.5	2.5	0.5	100.0
	만 50-59세	(202)	2.5	2.0	1.0	100.0
	만 60세 이상	(254)	3.9	2.0	1.2	100.0
가구원수	1명	(98)	3.1	0.0	3.1	100.0
	2명	(225)	4.9	2.7	0.4	100.0
	3명	(236)	2.5	0.8	1.3	100.0
	4명 이상	(441)	2.7	2.7	2.3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3.2	2.0	1.6	100.0
	시도 시부	(491)	3.1	2.0	1.8	100.0
	시도 군부	(66)	4.5	1.5	1.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5.2	1.7	0.9	100.0
	고졸	(426)	2.6	1.9	2.3	100.0
	대졸 이상	(459)	3.3	2.2	1.3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3.5	1.8	1.7	100.0
	전세	(220)	1.8	3.2	1.8	100.0
	월세 및 기타	(65)	4.6	0.0	1.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2.3	0.0	4.7	100.0
	100-150만원	(139)	2.9	3.6	0.0	100.0
	150-200만원	(170)	1.8	1.8	1.8	100.0
	200-250만원	(261)	4.6	1.9	1.5	100.0
	250-300만원	(218)	4.6	2.8	0.9	100.0
	300-350만원	(97)	1.0	1.0	4.1	100.0
	350-400만원	(36)	2.8	0.0	2.8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2.8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1.4	1.9	1.9	100.0
	임사·일용직	(59)	1.7	1.7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4.6	3.9	0.0	100.0
	실업자	(47)	6.4	2.1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4.3	1.3	2.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2.0	0.0	100.0
	중하층	(331)	2.4	3.0	1.2	100.0
	중간층	(536)	3.5	0.9	2.1	100.0
	중상층	(84)	6.0	4.8	2.4	100.0

주: 1) 성별 $\chi^2 = 7.044$, 연령대별 $\chi^2 = 38.392$, 가구원수별 $\chi^2 = 20.040$, 거주지역별 $\chi^2 = 19.794$,

최종학력별 $\chi^2 = 7.779$, 주거형태별 $\chi^2 = 17.013$,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2.047$,

경제활동상태별 $\chi^2 = 25.026$,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9.897$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43〉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 대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전체		(1000)	4.1	20.6	20.9	28.3	23.1	3.0	100.0
성별	남자	(499)	4.4	19.6	20.2	27.9	23.8	4.0	100.0
	여자	(501)	3.8	21.6	21.6	28.7	22.4	2.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4.6	17.8	19.0	23.6	32.8	2.3	100.0
	만 30-39세	(168)	4.2	19.0	22.6	27.4	20.2	6.5	100.0
	만 40-49세	(202)	3.0	19.8	21.3	31.2	22.3	2.5	100.0
	만 50-59세	(202)	4.5	19.3	24.8	26.2	22.3	3.0	100.0
	만 60세 이상	(254)	4.3	25.2	17.7	31.5	19.7	1.6	100.0
가구원수	1명	(98)	7.1	24.5	17.3	22.4	24.5	4.1	100.0
	2명	(225)	4.0	22.2	17.8	34.2	19.6	2.2	100.0
	3명	(236)	3.0	19.9	25.4	25.4	22.9	3.4	100.0
	4명 이상	(441)	4.1	19.3	20.9	28.1	24.7	2.9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5	17.8	21.4	33.6	23.0	1.6	100.0
	시도 시부	(491)	4.7	22.6	20.4	24.4	23.8	4.1	100.0
	시도 군부	(66)	10.6	24.2	21.2	21.2	18.2	4.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3.5	21.7	20.9	31.3	20.9	1.7	100.0
	고졸	(426)	3.8	21.4	19.5	30.5	21.8	3.1	100.0
	대졸 이상	(459)	4.6	19.6	22.2	25.5	24.8	3.3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4.3	21.5	19.9	28.5	23.2	2.5	100.0
	전세	(220)	2.7	18.2	23.6	29.5	22.3	3.6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18.5	23.1	21.5	24.6	6.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9.3	23.3	14.0	34.9	16.3	2.3	100.0
	100-150만원	(139)	2.9	26.6	16.5	30.2	20.1	3.6	100.0
	150-200만원	(170)	2.4	19.4	21.2	26.5	28.2	2.4	100.0
	200-250만원	(261)	3.4	18.0	26.1	31.4	18.0	3.1	100.0
	250-300만원	(218)	3.7	19.7	20.2	26.1	28.0	2.3	100.0
	300-350만원	(97)	6.2	21.6	17.5	25.8	25.8	3.1	100.0
	350-400만원	(36)	5.6	19.4	27.8	27.8	13.9	5.6	100.0
	400만원 이상	(36)	11.1	22.2	13.9	19.4	27.8	5.6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2.7	17.9	22.6	28.0	25.5	3.3	100.0
	임사·일용직	(59)	3.4	27.1	23.7	20.3	22.0	3.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7.2	18.3	19.6	27.5	24.2	3.3	100.0
	실업자	(47)	10.6	23.4	8.5	40.4	10.6	6.4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3.5	22.8	20.9	28.7	22.0	2.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4.3	22.4	14.3	26.5	16.3	6.1	100.0
	중하층	(331)	3.3	22.7	25.7	26.0	20.5	1.8	100.0
	중간층	(536)	3.4	19.4	20.3	30.4	22.9	3.5	100.0
	중상층	(84)	6.0	19.0	9.5	25.0	38.1	2.4	100.0

주: 1) 성별 $\chi^2 = 4.569$, 연령대별 $\chi^2 = 29.251$, 가구원수별 $\chi^2 = 15.787$, 거주지역별 $\chi^2 = 27.616$,최종학력별 $\chi^2 = 5.943$, 주거형태별 $\chi^2 = 8.48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8.484$,경제활동상태별 $\chi^2 = 29.90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1.195$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44〉 일자리 창출 우선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의 일자리 확대	여성의 일자리 확대	중장년의 일자리 확대	노인의 일자리 확대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계
전체		(1000)	38.4	13.1	17.5	23.8	5.0	2.2	100.0
성별 ***	남자	(499)	41.3	6.0	20.6	24.0	5.4	2.6	100.0
	여자	(501)	35.5	20.2	14.4	23.6	4.6	1.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64.9	14.4	9.8	5.7	2.9	2.3	100.0
	만 30-39세	(168)	44.6	18.5	15.5	10.1	8.9	2.4	100.0
	만 40-49세	(202)	31.7	17.3	25.2	18.8	5.0	2.0	100.0
	만 50-59세	(202)	31.2	12.4	23.3	25.2	5.4	2.5	100.0
	만 60세 이상	(254)	27.2	5.9	13.4	48.0	3.5	2.0	100.0
가구원수 ***	1명	(98)	43.9	8.2	15.3	26.5	3.1	3.1	100.0
	2명	(225)	29.3	8.9	16.0	40.9	3.6	1.3	100.0
	3명	(236)	39.0	14.4	19.1	20.3	5.9	1.3	100.0
	4명 이상	(441)	41.5	15.6	17.9	16.3	5.7	2.9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39.7	13.5	19.0	22.3	3.2	2.3	100.0
	시도 시부	(491)	39.5	12.2	14.9	24.6	6.5	2.2	100.0
	시도 군부	(66)	21.2	16.7	27.3	27.3	6.1	1.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25.2	8.7	17.4	47.0	1.7	0.0	100.0
	고졸	(426)	34.5	13.8	17.8	26.3	5.4	2.1	100.0
	대졸 이상	(459)	45.3	13.5	17.2	15.7	5.4	2.8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39.9	12.0	16.2	26.2	3.6	2.1	100.0
	전세	(220)	30.5	19.1	20.0	18.2	9.1	3.2	100.0
	월세 및 기타	(65)	49.2	4.6	23.1	16.9	6.2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30.2	7.0	16.3	46.5	0.0	0.0	100.0
	100-150만원	(139)	26.6	8.6	15.1	41.0	7.2	1.4	100.0
	150-200만원	(170)	35.3	10.0	20.0	24.1	5.9	4.7	100.0
	200-250만원	(261)	40.6	17.2	20.7	17.2	3.1	1.1	100.0
	250-300만원	(218)	42.7	15.6	15.6	16.1	7.3	2.8	100.0
	300-350만원	(97)	38.1	14.4	15.5	26.8	3.1	2.1	100.0
	350-400만원	(36)	44.4	16.7	13.9	19.4	5.6	0.0	100.0
	400만원 이상	(36)	61.1	0.0	13.9	19.4	2.8	2.8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39.9	13.0	20.1	16.8	7.1	3.0	100.0
	임시·일용직	(59)	33.9	23.7	8.5	33.9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36.6	8.5	22.9	25.5	3.9	2.6	100.0
	실업자	(47)	40.4	2.1	21.3	34.0	0.0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38.1	14.7	13.7	27.1	4.8	1.6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34.7	8.2	14.3	38.8	4.1	0.0	100.0
	중하층	(331)	34.7	10.6	12.4	34.4	6.0	1.8	100.0
	중간층	(536)	40.5	14.7	21.3	17.2	3.7	2.6	100.0
	중상층	(84)	41.7	15.5	15.5	15.5	9.5	2.4	100.0

주: 1) 성별 $\chi^2 = 47.074$, 연령대별 $\chi^2 = 193.523$, 가구원수별 $\chi^2 = 60.075$, 거주지역별 $\chi^2 = 18.957$,최종학력별 $\chi^2 = 60.458$, 주거형태별 $\chi^2 = 37.33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86.402$,경제활동상태별 $\chi^2 = 49.404$,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6.35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45〉 일자리 질 개선 우선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성별,인종, 연령,지역 등 차별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 제고	고용보험,산재 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전체		(1000)	7.8	27.9	21.2	13.9	7.9
성별 +	남자	(499)	7.2	26.5	21.0	16.2	6.2
	여자	(501)	8.4	29.3	21.4	11.6	9.6
연령대 **	만 19-29세	(174)	6.9	33.3	27.0	10.3	5.7
	만 30-39세	(168)	7.1	36.3	17.3	10.1	6.5
	만 40-49세	(202)	6.4	27.7	20.8	17.3	8.9
	만 50-59세	(202)	8.4	25.7	18.8	17.8	11.9
	만 60세 이상	(254)	9.4	20.5	22.0	13.0	6.3
가구원수	1명	(98)	9.2	23.5	15.3	14.3	10.2
	2명	(225)	7.1	21.8	22.7	14.7	8.9
	3명	(236)	9.7	32.6	21.6	12.7	6.4
	4명 이상	(441)	6.8	29.5	21.5	14.1	7.7
거주지역 ***	광역시	(443)	5.0	25.7	27.1	14.7	8.6
	시도 시부	(491)	11.4	30.1	15.3	13.0	6.3
	시도 군부	(66)	0.0	25.8	25.8	15.2	15.2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0.4	20.9	20.9	9.6	8.7
	고졸	(426)	7.0	24.9	20.7	17.6	8.2
	대졸 이상	(459)	7.8	32.5	21.8	11.5	7.4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7.7	27.0	22.4	13.3	8.4
	전세	(220)	7.7	32.3	18.6	14.1	6.4
	월세 및 기타	(65)	9.2	23.1	16.9	20.0	7.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4.0	20.9	11.6	9.3	4.7
	100-150만원	(139)	9.4	23.7	23.7	12.9	6.5
	150-200만원	(170)	7.6	25.3	17.6	16.5	10.6
	200-250만원	(261)	6.1	27.6	21.8	16.9	8.4
	250-300만원	(218)	6.9	33.0	21.1	12.8	8.7
	300-350만원	(97)	10.3	26.8	21.6	11.3	7.2
	350-400만원	(36)	5.6	25.0	38.9	8.3	2.8
경제활동 상태	400만원 이상	(36)	8.3	41.7	16.7	8.3	2.8
	상용직	(368)	5.7	28.8	21.2	16.0	7.3
	임사일용직	(59)	6.8	25.4	25.4	8.5	10.2
	고용주/자영업자	(153)	7.8	28.1	16.3	15.7	9.2
	실업자	(47)	4.3	10.6	31.9	10.6	10.6
주관적 계층의식 **	비경제활동인구	(373)	10.5	29.5	21.2	12.3	7.2
	저소득층	(49)	20.4	16.3	14.3	2.0	12.2
	중하층	(331)	8.5	25.4	22.7	13.3	6.6
	중간층	(536)	6.2	30.4	20.3	15.3	7.6
	중상층	(84)	8.3	28.6	25.0	14.3	11.9

주: 1) 성별 $\chi^2 = 12.746$, 연령대별 $\chi^2 = 54.466$, 가구원수별 $\chi^2 = 27.101$, 거주지역별 $\chi^2 = 47.401$,최종학력별 $\chi^2 = 32.073$, 주거형태별 $\chi^2 = 10.30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8.566$,경제활동상태별 $\chi^2 = 37.13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4.713$

2) +p<0.1, *p<0.05, **p<0.01, ***p<0.00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체계 개편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 은퇴 대비 지원 강화	일 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계
전체		(1000)	6.1	11.3	3.9	100.0
성별 +	남자	(499)	7.6	11.0	4.2	100.0
	여자	(501)	4.6	11.6	3.6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3.4	9.2	4.0	100.0
	만 30-39세	(168)	8.3	10.7	3.6	100.0
	만 40-49세	(202)	6.9	9.9	2.0	100.0
	만 50-59세	(202)	6.9	6.9	3.5	100.0
	만 60세 이상	(254)	5.1	17.7	5.9	100.0
가구원수	1명	(98)	6.1	15.3	6.1	100.0
	2명	(225)	4.4	16.4	4.0	100.0
	3명	(236)	5.1	7.6	4.2	100.0
	4명 이상	(441)	7.5	9.8	3.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5.9	10.4	2.7	100.0
	시도 시부	(491)	6.7	12.2	4.9	100.0
	시도 군부	(66)	3.0	10.6	4.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5.2	20.0	4.3	100.0
	고졸	(426)	5.9	10.1	5.6	100.0
	대졸 이상	(459)	6.5	10.2	2.2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5.5	11.5	4.3	100.0
	전세	(220)	7.3	10.9	2.7	100.0
	월세 및 기타	(65)	9.2	10.8	3.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27.9	11.6	100.0
	100-150만원	(139)	6.5	13.7	3.6	100.0
	150-200만원	(170)	5.9	12.4	4.1	100.0
	200-250만원	(261)	7.3	8.4	3.4	100.0
	250-300만원	(218)	5.0	9.2	3.2	100.0
	300-350만원	(97)	7.2	11.3	4.1	100.0
	350-400만원	(36)	5.6	8.3	5.6	100.0
	400만원 이상	(36)	8.3	13.9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7.3	11.4	2.2	100.0
	임사·일용직	(59)	5.1	13.6	5.1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6.5	11.8	4.6	100.0
	실업자	(47)	2.1	19.1	10.6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5.4	9.7	4.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4.1	22.4	8.2	100.0
	중하층	(331)	5.4	14.2	3.9	100.0
	중간층	(536)	6.9	9.5	3.7	100.0
	중상층	(84)	4.8	4.8	2.4	100.0

주: 1) 성별 $\chi^2 = 12.746$, 연령대별 $\chi^2 = 54.466$, 가구원수별 $\chi^2 = 27.101$, 거주지역별 $\chi^2 = 47.401$,

최종학력별 $\chi^2 = 32.073$, 주거형태별 $\chi^2 = 10.302$,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8.566$,

경제활동상태별 $\chi^2 = 37.13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44.71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46〉 보육 및 아동돌봄 정책 중 우선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무상보육 확대	방과후 학교 등 가구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양육지원 강화	장애아동 돌봄 강화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	계
전체		(1000)	24.1	19.0	23.2	17.3	5.9	10.5	100.0
성별	남자	(499)	26.3	19.8	21.0	16.4	6.2	10.2	100.0
	여자	(501)	22.0	18.2	25.3	18.2	5.6	10.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31.6	24.1	19.0	13.2	4.0	8.0	100.0
	만 30-39세	(168)	20.2	23.2	25.6	14.3	5.4	11.3	100.0
	만 40-49세	(202)	26.7	17.8	26.2	15.3	2.5	11.4	100.0
	만 50-59세	(202)	20.8	17.3	20.8	16.3	11.4	13.4	100.0
	만 60세 이상	(254)	22.0	15.0	24.0	24.4	5.9	8.7	100.0
가구원수	1명	(98)	20.4	17.3	25.5	22.4	5.1	9.2	100.0
	2명	(225)	21.8	19.1	23.6	21.8	6.2	7.6	100.0
	3명	(236)	19.5	21.2	27.1	16.1	5.5	10.6	100.0
	4명 이상	(441)	28.6	18.1	20.4	14.5	6.1	12.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2.1	18.1	27.1	17.6	5.4	9.7	100.0
	시도 시부	(491)	27.5	18.7	19.8	15.9	6.1	12.0	100.0
	시도 군부	(66)	12.1	27.3	22.7	25.8	7.6	4.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18.3	14.8	25.2	26.1	8.7	7.0	100.0
	고졸	(426)	26.3	18.1	21.6	16.4	6.3	11.3	100.0
	대졸 이상	(459)	23.5	20.9	24.2	15.9	4.8	10.7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24.8	18.0	23.1	17.8	5.6	10.8	100.0
	전세	(220)	20.0	21.4	25.5	16.4	6.8	10.0	100.0
	월세 및 기타	(65)	30.8	21.5	16.9	15.4	6.2	9.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23.3	25.6	30.2	14.0	2.3	4.7	100.0
	100-150만원	(139)	23.0	16.5	23.0	23.0	5.8	8.6	100.0
	150-200만원	(170)	22.4	18.2	20.6	19.4	7.1	12.4	100.0
	200-250만원	(261)	21.1	24.1	22.6	17.6	5.4	9.2	100.0
	250-300만원	(218)	26.1	17.9	25.7	13.3	6.4	10.6	100.0
	300-350만원	(97)	26.8	17.5	19.6	16.5	5.2	14.4	100.0
	350-400만원	(36)	36.1	8.3	22.2	16.7	11.1	5.6	100.0
	400만원 이상	(36)	27.8	8.3	27.8	13.9	2.8	19.4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22.6	21.7	23.4	13.9	6.3	12.2	100.0
	임사일용직	(59)	18.6	11.9	33.9	16.9	8.5	10.2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3.5	15.0	23.5	21.6	5.2	11.1	100.0
	실업자	(47)	17.0	17.0	27.7	29.8	6.4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7.6	19.3	20.6	17.4	5.4	9.7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4.3	24.5	18.4	28.6	14.3	0.0	100.0
	중하층	(331)	24.2	16.9	22.7	18.1	6.9	11.2	100.0
	중간층	(536)	24.4	20.9	23.5	16.0	4.5	10.6	100.0
	중상층	(84)	27.4	11.9	26.2	15.5	6.0	13.1	100.0

주: 1) 성별 $\chi^2 = 4.955$, 연령대별 $\chi^2 = 46.437$, 가구원수별 $\chi^2 = 20.815$, 거주지역별 $\chi^2 = 22.418$,최종학력별 $\chi^2 = 15.635$, 주거형태별 $\chi^2 = 6.639$,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4.315$,경제활동상태별 $\chi^2 = 26.72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6.524$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47〉 교육정책 중 우선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공립 교육기관 강화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계
전체		(1000)	23.9	22.8	29.8	15.3	8.2	100.0
성별	남자	(499)	24.2	20.4	31.5	15.8	8.0	100.0
	여자	(501)	23.6	25.1	28.1	14.8	8.4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23.0	16.1	40.8	12.1	8.0	100.0
	만 30-39세	(168)	22.6	29.2	27.4	14.3	6.5	100.0
	만 40-49세	(202)	27.2	22.3	32.2	14.9	3.5	100.0
	만 50-59세	(202)	21.3	18.3	31.2	16.8	12.4	100.0
	만 60세 이상	(254)	24.8	27.2	20.9	17.3	9.8	100.0
가구원수	1명	(98)	20.4	26.5	27.6	16.3	9.2	100.0
	2명	(225)	23.6	25.3	23.6	17.8	9.8	100.0
	3명	(236)	28.0	23.3	31.8	11.0	5.9	100.0
	4명 이상	(441)	22.7	20.4	32.4	16.1	8.4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24.2	20.1	30.0	16.7	9.0	100.0
	시도 시부	(491)	24.8	24.0	28.9	14.5	7.7	100.0
	시도 군부	(66)	15.2	31.8	34.8	12.1	6.1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22.6	34.8	20.0	8.7	13.9	100.0
	고졸	(426)	23.9	18.8	31.9	17.8	7.5	100.0
	대졸 이상	(459)	24.2	23.5	30.3	14.6	7.4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23.4	21.7	30.3	15.9	8.7	100.0
	전세	(220)	26.4	27.7	27.7	12.3	5.9	100.0
	월세 및 기타	(65)	21.5	18.5	30.8	18.5	1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6.3	37.2	16.3	20.9	9.3	100.0
	100-150만원	(139)	27.3	23.7	25.2	12.9	10.8	100.0
	150-200만원	(170)	21.2	21.2	30.0	17.6	10.0	100.0
	200-250만원	(261)	24.9	24.1	32.2	10.3	8.4	100.0
	250-300만원	(218)	22.5	24.3	30.7	17.4	5.0	100.0
	300-350만원	(97)	29.9	15.5	28.9	17.5	8.2	100.0
	350-400만원	(36)	25.0	19.4	27.8	19.4	8.3	100.0
	400만원 이상	(36)	16.7	13.9	44.4	19.4	5.6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24.5	23.6	32.1	13.6	6.3	100.0
	임시·일용직	(59)	20.3	23.7	32.2	15.3	8.5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1.6	17.0	28.1	22.9	10.5	100.0
	실업자	(47)	17.0	12.8	34.0	23.4	12.8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5.7	25.5	27.3	12.9	8.6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8.4	34.7	20.4	14.3	12.2	100.0
	중하층	(331)	27.2	19.3	33.8	12.1	7.6	100.0
	중간층	(536)	23.9	24.4	28.2	16.2	7.3	100.0
	중상층	(84)	14.3	19.0	29.8	22.6	14.3	100.0

주: 1) 성별 $\chi^2 = 3.631$, 연령대별 $\chi^2 = 40.377$, 가구원수별 $\chi^2 = 15.509$, 거주지역별 $\chi^2 = 9.217$,최종학력별 $\chi^2 = 25.252$, 주거형태별 $\chi^2 = 8.544$,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2.804$,경제활동상태별 $\chi^2 = 23.56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6.060$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48〉 주거 취약 가구 정책 중 우선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복지 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	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	주거마련 (임대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주거마련 (임대자)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대출)	주택 유지 수선 지원 강화	계
전체		(1000)	30.8	22.8	23.8	15.1	5.5	2.0	100.0
성별	남자	(499)	31.9	22.2	21.6	16.2	6.0	2.0	100.0
	여자	(501)	29.7	23.4	25.9	14.0	5.0	2.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25.3	25.9	28.7	12.6	6.9	0.6	100.0
	만 30-39세	(168)	32.1	22.6	27.4	11.3	4.8	1.8	100.0
	만 40-49세	(202)	30.7	20.3	20.8	21.3	4.0	3.0	100.0
	만 50-59세	(202)	36.6	19.3	18.3	18.8	5.9	1.0	100.0
	만 60세 이상	(254)	29.1	25.6	24.8	11.4	5.9	3.1	100.0
가구원수 *	1명	(98)	26.5	23.5	27.6	14.3	8.2	0.0	100.0
	2명	(225)	30.2	26.2	23.6	11.6	6.2	2.2	100.0
	3명	(236)	32.2	19.1	25.0	15.7	3.0	5.1	100.0
	4명 이상	(441)	31.3	22.9	22.4	16.8	5.9	0.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8.7	21.0	26.4	16.0	6.1	1.8	100.0
	시도 시부	(491)	34.2	21.4	22.8	15.1	4.7	1.8	100.0
	시도 군부	(66)	19.7	45.5	13.6	9.1	7.6	4.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33.0	27.8	21.7	7.8	6.1	3.5	100.0
	고졸	(426)	32.2	19.7	24.2	16.4	5.6	1.9	100.0
	대졸 이상	(459)	29.0	24.4	24.0	15.7	5.2	1.7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31.2	23.6	21.8	14.8	6.2	2.4	100.0
	전세	(220)	30.0	20.9	30.9	14.5	2.3	1.4	100.0
	월세 및 기타	(65)	29.2	20.0	21.5	20.0	9.2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27.9	30.2	34.9	4.7	0.0	2.3	100.0
	100-150만원	(139)	35.3	25.9	20.9	11.5	4.3	2.2	100.0
	150-200만원	(170)	31.8	23.5	19.4	17.6	4.7	2.9	100.0
	200-250만원	(261)	28.0	23.4	24.5	14.9	7.3	1.9	100.0
	250-300만원	(218)	32.1	20.2	25.2	14.2	6.4	1.8	100.0
	300-350만원	(97)	28.9	20.6	24.7	19.6	5.2	1.0	100.0
	350-400만원	(36)	33.3	19.4	27.8	16.7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7.8	19.4	22.2	22.2	5.6	2.8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28.5	22.3	23.4	17.9	5.7	2.2	100.0
	임사일용직	(59)	28.8	22.0	32.2	10.2	6.8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32.7	20.9	15.7	20.9	7.2	2.6	100.0
	실업자	(47)	17.0	23.4	31.9	17.0	10.6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34.3	24.1	25.2	10.5	3.8	2.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36.7	18.4	28.6	10.2	6.1	0.0	100.0
	중하층	(331)	30.2	26.9	23.9	13.6	3.3	2.1	100.0
	중간층	(536)	32.3	20.5	24.1	15.5	5.8	1.9	100.0
	중상층	(84)	20.2	23.8	19.0	21.4	11.9	3.6	100.0

주: 1) 성별 $\chi^2 = 3.768$, 연령대별 $\chi^2 = 32.417$, 가구원수별 $\chi^2 = 28.709$, 거주지역별 $\chi^2 = 30.930$,최종학력별 $\chi^2 = 10.962$, 주거형태별 $\chi^2 = 16.64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4.815$,경제활동상태별 $\chi^2 = 33.07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4.279$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49〉 사회서비스 분야 중점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의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계
전체		(1000)	33.8	29.7	19.5	13.1	3.9	100.0
성별	남자	(499)	33.5	30.9	19.2	12.0	4.4	100.0
	여자	(501)	34.1	28.5	19.8	14.2	3.4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31.6	39.7	15.5	9.8	3.4	100.0
	만 30-39세	(168)	32.1	34.5	16.1	13.1	4.2	100.0
	만 40-49세	(202)	37.1	26.2	19.8	13.4	3.5	100.0
	만 50-59세	(202)	31.7	28.2	21.8	15.3	3.0	100.0
	만 60세 이상	(254)	35.4	23.6	22.4	13.4	5.1	100.0
가구원수	1명	(98)	42.9	29.6	16.3	7.1	4.1	100.0
	2명	(225)	31.1	24.4	24.9	15.1	4.4	100.0
	3명	(236)	32.2	30.1	18.2	14.4	5.1	100.0
	4명 이상	(441)	34.0	32.2	18.1	12.7	2.9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30.9	31.6	19.4	13.1	5.0	100.0
	시도 시부	(491)	36.7	28.7	18.7	13.0	2.9	100.0
	시도 군부	(66)	31.8	24.2	25.8	13.6	4.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33.0	24.3	21.7	14.8	6.1	100.0
	고졸	(426)	32.6	27.9	22.8	12.7	4.0	100.0
	대졸 이상	(459)	35.1	32.7	15.9	13.1	3.3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33.1	29.9	19.3	13.4	4.2	100.0
	전세	(220)	33.6	29.1	20.9	13.6	2.7	100.0
	월세 및 기타	(65)	41.5	29.2	16.9	7.7	4.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34.9	25.6	11.6	18.6	9.3	100.0
	100-150만원	(139)	33.1	24.5	23.0	14.4	5.0	100.0
	150-200만원	(170)	33.5	29.4	20.6	11.2	5.3	100.0
	200-250만원	(261)	33.0	27.2	21.8	13.8	4.2	100.0
	250-300만원	(218)	34.9	36.2	14.7	11.5	2.8	100.0
	300-350만원	(97)	36.1	30.9	18.6	14.4	0.0	100.0
	350-400만원	(36)	38.9	36.1	16.7	8.3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5.0	25.0	27.8	16.7	5.6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35.9	32.1	16.8	12.5	2.7	100.0
	임시·일용직	(59)	30.5	28.8	23.7	13.6	3.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34.6	19.6	22.9	15.7	7.2	100.0
	실업자	(47)	25.5	36.2	14.9	19.1	4.3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33.0	30.8	20.6	11.8	3.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38.8	34.7	20.4	2.0	4.1	100.0
	중하층	(331)	36.9	25.4	18.1	15.4	4.2	100.0
	중간층	(536)	33.8	30.4	19.0	12.5	4.3	100.0
	중상층	(84)	19.0	39.3	27.4	14.3	0.0	100.0

주: 1) 성별 $\chi^2 = 2.062$, 연령대별 $\chi^2 = 20.776$, 가구원수별 $\chi^2 = 16.314$, 거주지역별 $\chi^2 = 7.945$,
최종학력별 $\chi^2 = 11.214$, 주거형태별 $\chi^2 = 4.32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8.659$,
경제활동상태별 $\chi^2 = 20.345$,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4.68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0〉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동네의원을 통한 건강 관리와 질병예방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등 민관이 참여하는 돌봄체계구축	계
전체		(1000)	21.9	25.5	19.6	19.9	7.5	5.6	100.0
성별	남자	(499)	20.2	27.1	20.4	20.6	6.4	5.2	100.0
	여자	(501)	23.6	24.0	18.8	19.2	8.6	6.0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18.4	25.3	20.7	21.8	6.9	6.9	100.0
	만 30-39세	(168)	25.0	28.6	12.5	19.6	10.1	4.2	100.0
	만 40-49세	(202)	22.3	26.7	24.8	15.3	5.9	5.0	100.0
	만 50-59세	(202)	23.8	21.8	17.3	26.7	7.4	3.0	100.0
	만 60세 이상	(254)	20.5	25.6	21.3	16.9	7.5	8.3	100.0
가구원수 **	1명	(98)	18.4	27.6	11.2	16.3	17.3	9.2	100.0
	2명	(225)	20.9	23.6	22.7	16.4	8.4	8.0	100.0
	3명	(236)	20.3	27.1	22.0	21.6	5.5	3.4	100.0
	4명 이상	(441)	24.0	25.2	18.6	21.5	5.9	4.8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2.6	23.7	19.6	21.2	7.4	5.4	100.0
	시도 시부	(491)	22.6	28.1	20.2	17.1	6.9	5.1	100.0
	시도 군부	(66)	12.1	18.2	15.2	31.8	12.1	10.6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17.4	21.7	23.5	16.5	13.0	7.8	100.0
	고졸	(426)	21.6	25.1	20.2	21.4	6.6	5.2	100.0
	대졸 이상	(459)	23.3	26.8	18.1	19.4	7.0	5.4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22.2	23.9	20.3	21.3	6.7	5.6	100.0
	전세	(220)	20.9	31.4	18.6	17.7	7.3	4.1	100.0
	월세 및 기타	(65)	21.5	23.1	15.4	12.3	16.9	1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16.3	18.6	23.3	20.9	7.0	14.0	100.0
	100-150만원	(139)	10.8	29.5	20.9	19.4	10.1	9.4	100.0
	150-200만원	(170)	22.9	24.1	20.6	21.8	6.5	4.1	100.0
	200-250만원	(261)	17.2	26.4	21.8	22.6	6.9	5.0	100.0
	250-300만원	(218)	25.7	25.2	18.3	18.8	8.7	3.2	100.0
	300-350만원	(97)	35.1	28.9	13.4	11.3	5.2	6.2	100.0
	350-400만원	(36)	19.4	19.4	25.0	19.4	13.9	2.8	100.0
	400만원 이상	(36)	44.4	16.7	8.3	22.2	0.0	8.3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24.2	25.3	19.6	17.4	7.6	6.0	100.0
	임사·일용직	(59)	18.6	23.7	23.7	27.1	6.8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5.5	26.8	18.3	17.6	5.9	5.9	100.0
	실업자	(47)	4.3	23.4	17.0	40.4	8.5	6.4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20.9	25.7	19.8	19.6	8.0	5.9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9)	22.4	32.7	12.2	16.3	10.2	6.1	100.0
	중하층	(331)	22.4	23.9	18.4	19.9	8.8	6.6	100.0
	중간층	(536)	22.0	26.1	20.1	19.8	6.9	5.0	100.0
	중상층	(84)	19.0	23.8	25.0	22.6	4.8	4.8	100.0

주: 1) 성별 $\chi^2 = 4.670$, 연령대별 $\chi^2 = 29.773$, 가구원수별 $\chi^2 = 33.925$, 거주지역별 $\chi^2 = 19.413$,최종학력별 $\chi^2 = 11.694$, 주거형태별 $\chi^2 = 20.18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64.194$,경제활동상태별 $\chi^2 = 27.38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8.75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계
전체		(1000)	0.3	3.3	16.7	51.9	25.8	2.0	100.0
성별	남자	(499)	0.2	4.0	14.8	51.1	27.7	2.2	100.0
	여자	(501)	0.4	2.6	18.6	52.7	24.0	1.8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0	1.1	14.9	59.2	24.1	0.6	100.0
	만 30-39세	(168)	1.2	3.6	19.6	48.2	25.0	2.4	100.0
	만 40-49세	(202)	0.0	4.5	17.3	49.0	27.2	2.0	100.0
	만 50-59세	(202)	0.5	3.5	15.8	56.9	22.3	1.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3.5	16.1	47.6	29.1	3.5	100.0
가구원수	1명	(98)	1.0	1.0	18.4	46.9	29.6	3.1	100.0
	2명	(225)	0.0	4.0	16.9	48.0	28.0	3.1	100.0
	3명	(236)	0.4	4.2	19.1	53.8	21.6	0.8	100.0
	4명 이상	(441)	0.2	2.9	15.0	54.0	26.1	1.8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0	4.3	19.6	54.6	21.0	0.5	100.0
	시도 시부	(491)	0.4	2.6	13.4	50.9	28.9	3.7	100.0
	시도 군부	(66)	1.5	1.5	21.2	40.9	34.8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3.5	20.0	47.0	27.0	2.6	100.0
	고졸	(426)	0.2	3.1	15.0	53.1	26.3	2.3	100.0
	대졸 이상	(459)	0.4	3.5	17.4	52.1	25.1	1.5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1	3.5	16.2	52.7	25.5	2.0	100.0
	전세	(220)	0.5	3.2	16.8	50.5	27.3	1.8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1.5	21.5	47.7	24.6	3.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2.3	20.9	34.9	32.6	9.3	100.0
	100-150만원	(139)	0.0	1.4	14.4	51.8	29.5	2.9	100.0
	150-200만원	(170)	0.0	4.1	19.4	50.6	24.1	1.8	100.0
	200-250만원	(261)	0.4	3.8	20.7	51.0	22.2	1.9	100.0
	250-300만원	(218)	0.5	2.3	14.7	54.1	27.5	0.9	100.0
	300-350만원	(97)	0.0	4.1	9.3	56.7	28.9	1.0	100.0
	350-400만원	(36)	0.0	8.3	8.3	52.8	30.6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8	2.8	19.4	58.3	13.9	2.8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3	3.3	17.4	53.5	24.5	1.1	100.0
	임사·일용직	(59)	3.4	3.4	15.3	44.1	28.8	5.1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4.6	15.0	49.7	28.1	2.6	100.0
	실업자	(47)	0.0	4.3	21.3	53.2	19.1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2.7	16.4	52.3	26.5	2.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8.2	4.1	34.7	44.9	8.2	100.0
	중하층	(331)	0.9	3.3	20.8	46.5	25.7	2.7	100.0
	중간층	(536)	0.0	2.8	16.6	56.3	22.9	1.3	100.0
	중상층	(84)	0.0	3.6	8.3	54.8	33.3	0.0	100.0

주: 1) 성별 $\chi^2 = 5.588$, 연령대별 $\chi^2 = 24.141$, 가구원수별 $\chi^2 = 14.821$, 거주지역별 $\chi^2 = 37.189$,최종학력별 $\chi^2 = 4.278$, 주거형태별 $\chi^2 = 6.901$,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48.352$,경제활동상태별 $\chi^2 = 30.27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2.014$ 2)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5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한 찬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소 반대한다	다소 찬성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계
전체		(1000)	5.1	17.8	45.1	25.6	6.3	0.1	100.0
성별	남자	(499)	4.6	18.8	42.9	26.9	6.8	0.0	100.0
	여자	(501)	5.6	16.8	47.3	24.4	5.8	0.2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5.7	14.4	43.1	30.5	6.3	0.0	100.0
	만 30-39세	(168)	4.2	17.3	47.6	25.6	5.4	0.0	100.0
	만 40-49세	(202)	4.0	16.8	43.1	29.2	6.9	0.0	100.0
	만 50-59세	(202)	5.4	20.8	39.6	28.2	5.4	0.5	100.0
	만 60세 이상	(254)	5.9	18.9	50.8	17.3	7.1	0.0	100.0
가구원수 +	1명	(98)	6.1	15.3	45.9	27.6	5.1	0.0	100.0
	2명	(225)	7.1	21.3	48.0	16.9	6.7	0.0	100.0
	3명	(236)	5.1	20.8	44.9	24.2	5.1	0.0	100.0
	4명 이상	(441)	3.9	15.0	43.5	30.4	7.0	0.2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7.0	20.5	42.4	25.5	4.5	0.0	100.0
	시도 시부	(491)	2.4	16.7	48.5	25.9	6.3	0.2	100.0
	시도 군부	(66)	12.1	7.6	37.9	24.2	18.2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2.2	23.5	45.2	13.9	5.2	0.0	100.0
	고졸	(426)	4.7	15.3	49.3	23.9	6.8	0.0	100.0
	대졸 이상	(459)	3.7	18.7	41.2	30.1	6.1	0.2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6.0	17.1	44.1	25.7	7.0	0.1	100.0
	전세	(220)	1.8	21.8	47.7	25.5	3.2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12.3	47.7	24.6	9.2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14.0	23.3	32.6	18.6	11.6	0.0	100.0
	100-150만원	(139)	6.5	19.4	50.4	19.4	4.3	0.0	100.0
	150-200만원	(170)	4.1	14.7	48.8	26.5	5.9	0.0	100.0
	200-250만원	(261)	5.7	19.9	43.7	25.3	5.0	0.4	100.0
	250-300만원	(218)	3.7	14.2	47.2	28.9	6.0	0.0	100.0
	300-350만원	(97)	2.1	20.6	38.1	27.8	11.3	0.0	100.0
	350-400만원	(36)	2.8	22.2	41.7	27.8	5.6	0.0	100.0
	400만원 이상	(36)	8.3	13.9	41.7	27.8	8.3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3.8	17.1	41.8	32.1	5.2	0.0	100.0
	임사일용직	(59)	13.6	15.3	35.6	30.5	3.4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5.2	17.6	45.1	24.2	7.8	0.0	100.0
	실업자	(47)	6.4	23.4	38.3	27.7	4.3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4.8	18.2	50.7	18.8	7.5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14.3	36.7	28.6	6.1	12.2	2.0	100.0
	중하층	(331)	5.1	20.5	50.2	19.9	4.2	0.0	100.0
	중간층	(536)	4.3	15.1	46.3	29.1	5.2	0.0	100.0
	중상층	(84)	4.8	13.1	27.4	36.9	17.9	0.0	100.0

주: 1) 성별 $\chi^2 = 4.180$, 연령대별 $\chi^2 = 22.307$, 가구원수별 $\chi^2 = 22.493$, 거주지역별 $\chi^2 = 43.208$,최종학력별 $\chi^2 = 32.024$, 주거형태별 $\chi^2 = 15.13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5.886$,경제활동상태별 $\chi^2 = 48.791$,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95.52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3〉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 추가 부담 반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소득자가 자신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므로	정부가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보장제 도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계
전체		(680)	35.9	21.0	17.1	10.1	15.9	100.0
성별	남자	(331)	37.8	19.9	15.1	11.8	15.4	100.0
	여자	(349)	34.1	22.1	18.9	8.6	16.3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10)	44.5	14.5	19.1	8.2	13.6	100.0
	만 30-39세	(116)	39.7	22.4	17.2	6.0	14.7	100.0
	만 40-49세	(129)	34.1	25.6	13.2	13.2	14.0	100.0
	만 50-59세	(133)	30.1	19.5	23.3	14.3	12.8	100.0
	만 60세 이상	(192)	33.9	21.9	14.1	8.9	21.4	100.0
가구원수	1명	(66)	31.8	13.6	18.2	12.1	24.2	100.0
	2명	(172)	34.3	22.1	16.9	8.7	18.0	100.0
	3명	(167)	34.1	19.8	20.4	10.8	15.0	100.0
	4명 이상	(275)	38.9	22.9	14.9	10.2	13.1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310)	32.3	27.1	18.4	10.3	11.9	100.0
	시도 시부	(332)	40.1	16.9	14.8	8.1	20.2	100.0
	시도 군부	(38)	28.9	7.9	26.3	26.3	10.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93)	25.8	25.8	12.9	10.8	24.7	100.0
	고졸	(295)	34.6	20.0	17.3	10.8	17.3	100.0
	대졸 이상	(292)	40.4	20.5	18.2	9.2	11.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480)	34.8	21.7	17.3	11.3	15.0	100.0
	전세	(157)	36.9	22.3	16.6	7.0	17.2	100.0
	월세 및 기타	(43)	44.2	9.3	16.3	9.3	20.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	23.3	16.7	20.0	3.3	36.7	100.0
	100-150만원	(106)	34.0	22.6	11.3	10.4	21.7	100.0
	150-200만원	(115)	37.4	13.0	20.0	13.0	16.5	100.0
	200-250만원	(181)	34.3	26.0	16.0	9.4	14.4	100.0
	250-300만원	(142)	40.8	19.0	16.9	9.9	13.4	100.0
	300-350만원	(59)	39.0	25.4	16.9	8.5	10.2	100.0
	350-400만원	(24)	37.5	25.0	16.7	8.3	12.5	100.0
	400만원 이상	(23)	26.1	17.4	34.8	17.4	4.3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31)	38.1	22.5	14.3	10.0	15.2	100.0
	임사·일용직	(38)	36.8	21.1	15.8	7.9	18.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04)	38.5	23.1	18.3	7.7	12.5	100.0
	실업자	(32)	28.1	15.6	28.1	18.8	9.4	100.0
	비경제활동인구	(275)	33.8	19.6	17.8	10.5	18.2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39)	33.3	20.5	7.7	10.3	28.2	100.0
	중하층	(251)	35.5	23.5	16.3	8.0	16.7	100.0
	중간층	(352)	37.2	18.5	18.2	11.9	14.2	100.0
	중상층	(38)	28.9	28.9	21.1	7.9	13.2	100.0

주: 1) 성별 $\chi^2 = 4.234$, 연령대별 $\chi^2 = 24.854$, 가구원수별 $\chi^2 = 11.032$, 거주지역별 $\chi^2 = 36.513$,최종학력별 $\chi^2 = 15.450$, 주거형태별 $\chi^2 = 7.34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6.115$,경제활동상태별 $\chi^2 = 12.02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3.550$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4〉 가난한 이유: 개인의 책임 대 사회구조적 원인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적으로 개인 책임		전적으로 사회구조적 원인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전체		(1000)	1.0	11.7	24.2	42.5	18.8	1.8	100.0
성별	남자	(499)	1.0	10.0	23.0	42.9	20.6	2.4	100.0
	여자	(501)	1.0	13.4	25.3	42.1	17.0	1.2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0.6	10.3	27.6	42.5	17.2	1.7	100.0
	만 30-39세	(168)	0.6	9.5	24.4	39.3	20.8	5.4	100.0
	만 40-49세	(202)	1.0	13.4	25.7	42.1	15.8	2.0	100.0
	만 50-59세	(202)	1.0	10.4	18.8	49.0	19.8	1.0	100.0
	만 60세 이상	(254)	1.6	13.8	24.8	39.8	20.1	0.0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12.2	23.5	40.8	21.4	2.0	100.0
	2명	(225)	1.8	12.9	22.2	44.4	17.8	0.9	100.0
	3명	(236)	1.3	9.3	28.0	42.4	16.1	3.0	100.0
	4명 이상	(441)	0.7	12.2	23.4	42.0	20.2	1.6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1	11.7	23.0	46.5	16.3	1.4	100.0
	시도 시부	(491)	0.8	12.6	26.3	38.1	19.8	2.4	100.0
	시도 군부	(66)	1.5	4.5	16.7	48.5	28.8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0.0	11.3	18.3	50.4	20.0	0.0	100.0
	고졸	(426)	1.9	9.9	23.7	44.1	19.0	1.4	100.0
	대졸 이상	(459)	0.4	13.5	26.1	39.0	18.3	2.6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1.1	13.8	22.4	42.0	19.3	1.4	100.0
	전세	(220)	0.5	5.9	30.5	46.8	14.5	1.8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7.7	23.1	33.8	27.7	6.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7.0	25.6	48.8	14.0	4.7	100.0
	100-150만원	(139)	0.7	9.4	26.6	44.6	17.3	1.4	100.0
	150-200만원	(170)	0.0	12.9	22.9	39.4	22.9	1.8	100.0
	200-250만원	(261)	0.8	12.3	21.1	45.6	18.4	1.9	100.0
	250-300만원	(218)	0.9	12.8	22.9	42.7	19.7	0.9	100.0
	300-350만원	(97)	2.1	13.4	27.8	34.0	18.6	4.1	100.0
	350-400만원	(36)	5.6	8.3	36.1	33.3	16.7	0.0	100.0
	400만원 이상	(36)	2.8	8.3	27.8	50.0	11.1	0.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5	12.8	23.6	44.0	17.4	1.6	100.0
	임사일용직	(59)	1.7	15.3	23.7	37.3	20.3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3	12.4	22.2	38.6	22.9	2.6	100.0
	실업자	(47)	2.1	2.1	21.3	42.6	27.7	4.3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1.1	11.0	26.0	43.4	17.2	1.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14.3	32.7	32.7	16.3	4.1	100.0
	중하층	(331)	0.9	9.7	30.2	39.9	18.1	1.2	100.0
	중간층	(536)	0.7	11.9	21.1	44.4	19.6	2.2	100.0
	중상층	(84)	3.6	16.7	15.5	46.4	17.9	0.0	100.0

주: 1) 성별 $\chi^2 = 6.806$, 연령대별 $\chi^2 = 29.484$, 가구원수별 $\chi^2 = 11.521$, 거주지역별 $\chi^2 = 18.892$,최종학력별 $\chi^2 = 18.440$, 주거형태별 $\chi^2 = 30.121$,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4.730$,경제활동상태별 $\chi^2 = 15.850$,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7.866$ 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55〉 지난 5년간 생활수준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계
전체		(1000)	12.5	73.1	13.8	0.6	100.0
성별 +	남자	(499)	11.6	71.3	16.0	1.0	100.0
	여자	(501)	13.4	74.9	11.6	0.2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12.1	75.9	11.5	0.6	100.0
	만 30-39세	(168)	14.9	72.6	12.5	0.0	100.0
	만 40-49세	(202)	16.8	72.3	10.4	0.5	100.0
	만 50-59세	(202)	13.9	70.8	14.9	0.5	100.0
	만 60세 이상	(254)	6.7	74.0	18.1	1.2	100.0
가구원수 *	1명	(98)	10.2	66.3	21.4	2.0	100.0
	2명	(225)	8.9	75.6	15.1	0.4	100.0
	3명	(236)	15.7	69.1	14.8	0.4	100.0
	4명 이상	(441)	13.2	75.5	10.9	0.5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12.0	76.3	11.3	0.5	100.0
	시도 시부	(491)	13.4	69.9	16.3	0.4	100.0
	시도 군부	(66)	9.1	75.8	12.1	3.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4.3	71.3	22.6	1.7	100.0
	고졸	(426)	13.6	73.5	12.2	0.7	100.0
	대졸 이상	(459)	13.5	73.2	13.1	0.2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12.9	74.4	12.2	0.6	100.0
	전세	(220)	10.5	70.9	18.2	0.5	100.0
	월세 및 기타	(65)	15.4	66.2	16.9	1.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7.0	65.1	27.9	0.0	100.0
	100-150만원	(139)	2.2	76.3	19.4	2.2	100.0
	150-200만원	(170)	8.8	74.7	14.7	1.8	100.0
	200-250만원	(261)	16.9	68.2	14.9	0.0	100.0
	250-300만원	(218)	13.3	77.1	9.6	0.0	100.0
	300-350만원	(97)	16.5	75.3	8.2	0.0	100.0
	350-400만원	(36)	22.2	66.7	11.1	0.0	100.0
	400만원 이상	(36)	19.4	75.0	5.6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14.7	76.1	9.0	0.3	100.0
	임사·일용직	(59)	6.8	74.6	18.6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15.0	66.0	18.3	0.7	100.0
	실업자	(47)	8.5	59.6	29.8	2.1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10.7	74.5	13.9	0.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6.1	59.2	28.6	6.1	100.0
	중하층	(331)	6.0	71.6	22.1	0.3	100.0
	중간층	(536)	14.6	75.9	9.1	0.4	100.0
	중상층	(84)	28.6	69.0	2.4	0.0	100.0

주: 1) 성별 $\chi^2 = 7.312$, 연령대별 $\chi^2 = 20.021$, 가구원수별 $\chi^2 = 17.566$, 거주지역별 $\chi^2 = 13.792$,최종학력별 $\chi^2 = 18.078$, 주거형태별 $\chi^2 = 7.93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6.665$,경제활동상태별 $\chi^2 = 29.356$,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00.79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6〉 향후 5년간 생활수준 변화 기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계
전체		(1000)	22.5	57.5	19.1	0.9	100.0
성별	남자	(499)	23.2	58.5	17.2	1.0	100.0
	여자	(501)	21.8	56.5	21.0	0.8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28.2	57.5	13.8	0.6	100.0
	만 30-39세	(168)	33.9	48.2	17.3	0.6	100.0
	만 40-49세	(202)	27.7	56.4	15.3	0.5	100.0
	만 50-59세	(202)	20.3	61.9	16.8	1.0	100.0
	만 60세 이상	(254)	8.7	61.0	28.7	1.6	100.0
가구원수 **	1명	(98)	25.5	52.0	21.4	1.0	100.0
	2명	(225)	11.6	61.3	25.8	1.3	100.0
	3명	(236)	26.7	55.9	16.5	0.8	100.0
	4명 이상	(441)	25.2	57.6	16.6	0.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22.3	60.9	16.3	0.5	100.0
	시도 시부	(491)	22.6	53.6	22.6	1.2	100.0
	시도 군부	(66)	22.7	63.6	12.1	1.5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5.2	53.0	39.1	2.6	100.0
	고졸	(426)	19.5	60.8	19.2	0.5	100.0
	대졸 이상	(459)	29.6	55.6	13.9	0.9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21.0	59.2	18.9	1.0	100.0
	전세	(220)	24.1	54.5	20.5	0.9	100.0
	월세 및 기타	(65)	33.8	49.2	16.9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7.0	51.2	41.9	0.0	100.0
	100-150만원	(139)	12.2	65.5	20.1	2.2	100.0
	150-200만원	(170)	21.8	58.8	17.1	2.4	100.0
	200-250만원	(261)	23.0	56.3	20.3	0.4	100.0
	250-300만원	(218)	29.8	54.6	15.6	0.0	100.0
	300-350만원	(97)	27.8	49.5	22.7	0.0	100.0
	350-400만원	(36)	25.0	72.2	2.8	0.0	100.0
	400만원 이상	(36)	19.4	61.1	16.7	2.8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30.7	56.3	12.8	0.3	100.0
	임사일용직	(59)	10.2	62.7	25.4	1.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0.3	58.8	19.0	2.0	100.0
	실업자	(47)	10.6	61.7	27.7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18.8	56.8	23.3	1.1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8.2	53.1	32.7	6.1	100.0
	중하층	(331)	17.5	55.0	26.6	0.9	100.0
	중간층	(536)	24.8	60.3	14.4	0.6	100.0
	중상층	(84)	35.7	52.4	11.9	0.0	100.0

주: 1) 성별 $\chi^2 = 2.356$, 연령대별 $\chi^2 = 59.821$, 가구원수별 $\chi^2 = 25.377$, 거주지역별 $\chi^2 = 11.238$,최종학력별 $\chi^2 = 64.028$, 주거형태별 $\chi^2 = 7.17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54.307$,경제활동상태별 $\chi^2 = 39.91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56.82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7〉 5년 전(2013년) 우리 사회의 모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6	0.6	2.7	9.4	20.7	28.4	19.8	11.5	4.9	1.3	0.1	100.0
성별	남자	(499)	1.2	0.6	3.2	9.2	21.2	28.7	19.6	10.8	4.4	0.8	0.2	100.0
	여자	(501)	0.0	0.6	2.2	9.6	20.2	28.1	20.0	12.2	5.4	1.8	0.0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0	0.6	4.6	9.8	17.2	32.2	17.2	13.2	4.0	1.1	0.0	100.0
	만 30-39세	(168)	1.2	0.6	1.2	8.9	24.4	21.4	26.8	12.5	3.0	0.0	0.0	100.0
	만 40-49세	(202)	1.0	1.0	4.0	7.4	23.8	24.8	20.3	10.4	5.4	1.5	0.5	100.0
	만 50-59세	(202)	0.5	0.0	1.5	9.9	19.3	30.7	18.3	13.4	4.0	2.5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4	0.8	2.4	10.6	19.3	31.5	17.7	9.1	7.1	1.2	0.0	100.0
가구원수	1명	(98)	2.0	1.0	5.1	14.3	17.3	24.5	16.3	13.3	3.1	2.0	1.0	100.0
	2명	(225)	0.4	1.3	1.3	8.0	23.1	31.1	16.9	10.2	6.2	1.3	0.0	100.0
	3명	(236)	0.4	0.0	3.0	9.7	22.5	25.4	19.1	14.4	5.1	0.4	0.0	100.0
	4명 이상	(441)	0.5	0.5	2.7	8.8	19.3	29.5	22.4	10.2	4.5	1.6	0.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5	0.5	2.3	6.3	17.2	32.5	20.8	12.2	6.8	1.1	0.0	100.0
	시도 시부	(491)	0.8	0.6	2.4	11.8	25.3	24.6	18.5	11.0	3.1	1.6	0.2	100.0
	시도 군부	(66)	0.0	1.5	7.6	12.1	10.6	28.8	22.7	10.6	6.1	0.0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2.6	0.9	0.9	8.7	21.7	26.1	17.4	11.3	9.6	0.9	0.0	100.0
	고졸	(426)	0.2	0.5	2.3	9.9	19.7	31.2	19.0	11.0	5.2	0.9	0.0	100.0
	대졸 이상	(459)	0.4	0.7	3.5	9.2	21.4	26.4	21.1	12.0	3.5	1.7	0.2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3	0.4	2.5	9.8	19.6	29.5	19.0	11.7	5.5	1.5	0.1	100.0
	전세	(220)	0.0	0.9	1.8	8.6	25.9	24.5	24.1	10.9	3.2	0.0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1.5	7.7	7.7	15.4	29.2	13.8	10.8	4.6	3.1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4.7	4.7	2.3	7.0	20.9	25.6	18.6	9.3	7.0	0.0	0.0	100.0
	100-150만원	(139)	0.7	0.0	2.9	10.1	23.0	36.0	12.9	7.9	6.5	0.0	0.0	100.0
	150-200만원	(170)	0.6	1.2	0.6	7.6	18.2	32.4	24.1	8.2	6.5	0.6	0.0	100.0
	200-250만원	(261)	0.4	0.0	3.8	11.1	19.2	24.5	19.9	16.5	4.2	0.4	0.0	100.0
	250-300만원	(218)	0.5	0.5	2.3	9.6	22.0	23.4	22.5	12.4	5.0	1.8	0.0	100.0
	300-350만원	(97)	0.0	1.0	3.1	8.2	23.7	26.8	19.6	8.2	3.1	6.2	0.0	100.0
	350-400만원	(36)	0.0	0.0	5.6	5.6	27.8	36.1	11.1	11.1	2.8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400만원 이상	(36)	0.0	0.0	2.8	11.1	11.1	38.9	19.4	11.1	0.0	2.8	2.8	100.0
	상용직	(368)	0.3	0.5	2.2	7.1	21.2	27.4	21.7	12.8	3.8	2.7	0.3	100.0
	임시·일용직	(59)	1.7	1.7	3.4	15.3	16.9	27.1	16.9	13.6	3.4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0	0.7	3.9	12.4	22.9	26.8	17.0	8.5	5.9	0.0	0.0	100.0
	실업자	(47)	2.1	0.0	8.5	4.3	21.3	34.0	12.8	8.5	6.4	2.1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5	1.9	10.2	19.8	29.5	20.4	11.5	5.6	0.5	0.0	100.0
	저소득층	(49)	8.2	0.0	6.1	18.4	18.4	20.4	14.3	10.2	4.1	0.0	0.0	100.0
	중하층	(331)	0.3	0.9	2.1	10.0	23.6	29.3	17.8	10.9	4.8	0.3	0.0	100.0
	중간층	(536)	0.2	0.6	2.2	8.8	20.0	28.2	22.0	11.2	5.0	1.7	0.2	100.0
	중상층	(84)	0.0	0.0	6.0	6.0	15.5	31.0	16.7	16.7	4.8	3.6	0.0	100.0

주: 1) 성별 $\chi^2 = 10.979$, 연령대별 $\chi^2 = 42.687$, 가구원수별 $\chi^2 = 37.522$, 거주지역별 $\chi^2 = 42.627$,최종학력별 $\chi^2 = 25.026$, 주거형태별 $\chi^2 = 61.00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23.398$,경제활동상태별 $\chi^2 = 48.79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79.89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8〉 현재(2018년) 우리 사회의 모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5	0.9	1.9	5.1	18.5	33.4	23.0	12.1	3.5	1.1	0.0	100.0
성별	남자	(499)	1.0	1.0	2.4	4.8	17.8	33.3	23.2	11.8	4.0	0.6	0.0	100.0
	여자	(501)	0.0	0.8	1.4	5.4	19.2	33.5	22.8	12.4	3.0	1.6	0.0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0	1.1	3.4	4.6	17.8	31.0	24.1	10.9	5.7	1.1	0.0	100.0
	만 30-39세	(168)	0.6	1.2	2.4	4.2	17.3	31.5	26.2	13.7	3.0	0.0	0.0	100.0
	만 40-49세	(202)	1.5	0.5	2.0	5.0	17.8	32.7	23.8	11.9	4.5	0.5	0.0	100.0
	만 50-59세	(202)	0.5	0.5	1.0	6.9	18.3	31.7	21.3	15.3	2.5	2.0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1.2	1.2	4.7	20.5	38.2	20.9	9.4	2.4	1.6	0.0	100.0
가구원수 *	1명	(98)	2.0	2.0	1.0	6.1	15.3	28.6	25.5	10.2	8.2	1.0	0.0	100.0
	2명	(225)	0.0	1.3	0.9	3.1	20.9	38.7	21.8	10.2	2.2	0.9	0.0	100.0
	3명	(236)	0.0	0.0	3.0	3.4	22.9	33.9	19.1	12.3	3.8	1.7	0.0	100.0
	4명 이상	(441)	0.7	0.9	2.0	6.8	15.6	31.5	25.2	13.4	2.9	0.9	0.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2	0.5	1.4	4.5	14.4	27.3	28.0	18.1	4.5	1.1	0.0	100.0
	시도 시부	(491)	0.8	1.2	2.4	5.7	23.2	38.3	18.3	6.7	2.4	0.8	0.0	100.0
	시도 군부	(66)	0.0	1.5	1.5	4.5	10.6	37.9	24.2	12.1	4.5	3.0	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1.7	1.7	0.9	4.3	16.5	40.9	20.0	11.3	1.7	0.9	0.0	100.0
	고졸	(426)	0.2	0.2	1.4	5.6	21.1	31.2	23.9	12.2	2.6	1.4	0.0	100.0
	대졸 이상	(459)	0.4	1.3	2.6	4.8	16.6	33.6	22.9	12.2	4.8	0.9	0.0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0	1.0	2.0	5.3	18.9	32.9	22.5	12.7	3.5	1.3	0.0	100.0
	전세	(220)	0.5	0.5	1.8	3.6	18.6	37.7	23.6	10.9	2.7	0.0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1.5	1.5	7.7	13.8	24.6	26.2	9.2	6.2	3.1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4.7	2.3	2.3	4.7	11.6	46.5	20.9	4.7	2.3	0.0	0.0	100.0
	100-150만원	(139)	0.7	1.4	1.4	5.0	24.5	34.5	18.7	10.1	2.2	1.4	0.0	100.0
	150-200만원	(170)	0.6	1.2	0.0	2.9	17.1	29.4	30.6	12.4	5.3	0.6	0.0	100.0
	200-250만원	(261)	0.4	0.4	2.7	5.7	18.8	31.0	21.8	16.5	2.3	0.4	0.0	100.0
	250-300만원	(218)	0.0	0.9	1.8	5.0	17.9	29.8	24.8	13.8	4.6	1.4	0.0	100.0
	300-350만원	(97)	0.0	0.0	2.1	5.2	20.6	39.2	19.6	6.2	3.1	4.1	0.0	100.0
	350-400만원	(36)	0.0	2.8	5.6	0.0	16.7	52.8	13.9	8.3	0.0	0.0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400만원 이상	(36)	0.0	0.0	2.8	16.7	8.3	36.1	22.2	5.6	8.3	0.0	0.0	100.0
	상용직	(368)	0.0	1.1	1.6	5.2	14.1	32.6	25.0	13.6	4.9	1.9	0.0	100.0
	임사·일용직	(59)	1.7	1.7	5.1	8.5	23.7	23.7	16.9	18.6	0.0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0	0.7	2.6	6.5	21.6	30.1	24.2	9.8	2.6	0.0	0.0	100.0
	실업자	(47)	2.1	0.0	4.3	2.1	25.5	40.4	12.8	4.3	8.5	0.0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8	1.1	4.3	19.8	36.2	22.8	11.5	2.4	1.1	0.0	100.0
	저소득층	(49)	6.1	4.1	0.0	8.2	8.2	53.1	12.2	6.1	2.0	0.0	0.0	100.0
	중하층	(331)	0.6	0.9	3.0	6.3	23.6	33.5	19.3	9.7	2.7	0.3	0.0	100.0
	중간층	(536)	0.0	0.7	1.7	4.5	17.4	30.8	26.3	13.1	4.1	1.5	0.0	100.0
	중상층	(84)	0.0	0.0	0.0	2.4	11.9	38.1	22.6	19.0	3.6	2.4	0.0	100.0

주: 1) 성별 $\chi^2 = 9.955$, 연령대별 $\chi^2 = 30.905$, 가구원수별 $\chi^2 = 41.840$, 거주지역별 $\chi^2 = 66.802$,최종학력별 $\chi^2 = 21.739$, 주거형태별 $\chi^2 = 59.39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96.232$,경제활동상태별 $\chi^2 = 59.86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85.71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59〉 5년 후(2023년) 우리 사회의 모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미래 불안이 가득한 사회										미래 희망이 있는 사회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전체		(1000)	0.9	1.2	2.5	4.7	13.4	25.3	25.3	17.9	7.1	1.7	0.0	100.0	
성별	남자	(499)	1.2	1.0	2.2	4.6	13.0	25.3	26.5	17.8	6.8	1.6	0.0	100.0	
	여자	(501)	0.6	1.4	2.8	4.8	13.8	25.3	24.2	18.0	7.4	1.8	0.0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1.1	1.7	5.7	13.8	20.7	25.9	19.5	9.2	1.7	0.0	100.0	
	만 30-39세	(168)	0.6	1.8	1.8	1.8	14.3	28.6	23.8	20.8	6.5	0.0	0.0	100.0	
	만 40-49세	(202)	2.5	1.5	1.5	4.0	12.4	27.7	24.8	20.8	3.5	1.5	0.0	100.0	
	만 50-59세	(202)	1.0	1.0	2.5	5.4	12.9	23.8	25.2	16.3	9.4	2.5	0.0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8	4.3	5.9	13.8	25.6	26.4	13.8	7.1	2.4	0.0	100.0	
가구원수	1명	(98)	2.0	0.0	3.1	6.1	12.2	23.5	24.5	18.4	8.2	2.0	0.0	100.0	
	2명	(225)	0.0	0.9	3.6	5.8	13.3	27.6	23.1	16.0	8.4	1.3	0.0	100.0	
	3명	(236)	0.4	0.8	2.1	3.0	16.5	26.7	26.3	16.5	5.5	2.1	0.0	100.0	
	4명 이상	(441)	1.4	1.8	2.0	4.8	12.0	23.8	26.1	19.5	7.0	1.6	0.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5	0.9	2.5	3.8	8.8	18.5	30.0	23.9	8.8	2.3	0.0	100.0	
	시도 시부	(491)	1.4	1.6	2.6	4.3	17.9	32.0	21.8	12.0	4.9	1.4	0.0	100.0	
	시도 군부	(66)	0.0	0.0	1.5	13.6	10.6	21.2	19.7	21.2	12.1	0.0	0.0	100.0	
최종학력 *	중졸 이하	(115)	1.7	0.0	7.8	8.7	10.4	19.1	27.8	18.3	6.1	0.0	0.0	100.0	
	고졸	(426)	0.2	1.2	2.6	4.9	13.6	27.2	23.9	17.1	7.3	1.9	0.0	100.0	
	대졸 이상	(459)	1.3	1.5	1.1	3.5	13.9	25.1	25.9	18.5	7.2	2.0	0.0	100.0	
주거 점유형태 **	자가	(715)	0.4	1.3	2.8	5.3	13.6	24.8	25.0	17.5	7.3	2.1	0.0	100.0	
	전세	(220)	0.9	0.9	1.4	3.2	12.3	28.2	28.6	18.6	5.9	0.0	0.0	100.0	
	월세 및 기타	(65)	6.2	1.5	3.1	3.1	15.4	21.5	16.9	20.0	9.2	3.1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4.7	0.0	9.3	14.0	18.6	18.6	25.6	7.0	2.3	0.0	0.0	100.0	
	100-150만원	(139)	0.7	0.7	2.9	5.8	14.4	27.3	26.6	14.4	6.5	0.7	0.0	100.0	
	150-200만원	(170)	1.2	0.0	1.8	1.8	12.9	23.5	24.1	24.1	8.2	2.4	0.0	100.0	
	200-250만원	(261)	0.4	1.1	2.3	3.4	14.9	26.1	24.1	18.8	8.0	0.8	0.0	100.0	
	250-300만원	(218)	0.9	1.4	2.3	5.0	10.1	24.8	25.7	20.2	7.8	1.8	0.0	100.0	
	300-350만원	(97)	0.0	1.0	1.0	7.2	15.5	23.7	26.8	13.4	6.2	5.2	0.0	100.0	
	350-400만원	(36)	2.8	2.8	2.8	5.6	11.1	30.6	27.8	11.1	5.6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8.3	2.8	2.8	11.1	30.6	25.0	13.9	2.8	2.8	0.0	100.0	
경제활동 상태 ***	상용직	(368)	0.5	0.8	1.6	3.0	13.0	23.6	25.8	21.5	7.3	2.7	0.0	100.0	
	임사·일용직	(59)	3.4	6.8	1.7	6.8	15.3	27.1	18.6	15.3	5.1	0.0	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2.0	2.0	3.9	4.6	10.5	25.5	26.8	14.4	9.2	1.3	0.0	100.0	
	실업자	(47)	4.3	0.0	4.3	6.4	25.5	21.3	25.5	4.3	4.3	4.3	0.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5	2.7	5.9	13.1	27.1	25.2	18.0	6.7	0.8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6.1	0.0	4.1	8.2	12.2	16.3	38.8	8.2	6.1	0.0	0.0	100.0	
	중하층	(331)	1.2	2.4	4.5	5.4	13.0	26.9	23.6	16.6	5.7	0.6	0.0	100.0	
	중간층	(536)	0.4	0.7	1.5	4.1	14.9	25.6	24.8	17.9	7.8	2.2	0.0	100.0	
	중상층	(84)	0.0	0.0	0.0	3.6	6.0	22.6	27.4	28.6	8.3	3.6	0.0	100.0	

주: 1) 성별 $\chi^2 = 2.503$, 연령대별 $\chi^2 = 37.900$, 가구원수별 $\chi^2 = 19.875$, 거주지역별 $\chi^2 = 85.077$,최종학력별 $\chi^2 = 34.298$, 주거형태별 $\chi^2 = 36.18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83.922$,경제활동상태별 $\chi^2 = 68.006$,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63.02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0〉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①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3	1.8	13.8	50.0	34.1		100.0
성별	남자	(499)	0.4	1.6	13.2	48.9	35.9		100.0
	여자	(501)	0.2	2.0	14.4	51.1	32.3		100.0
연령대 +	만 19-29세	(174)	1.1	0.6	19.0	47.7	31.6		100.0
	만 30-39세	(168)	0.6	1.8	16.1	48.8	32.7		100.0
	만 40-49세	(202)	0.0	3.5	12.9	47.5	36.1		100.0
	만 50-59세	(202)	0.0	3.0	12.4	53.0	31.7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4	10.6	52.0	37.0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4.1	6.1	53.1	36.7		100.0
	2명	(225)	0.0	0.4	13.3	54.7	31.6		100.0
	3명	(236)	0.4	0.8	15.7	47.5	35.6		100.0
	4명 이상	(441)	0.5	2.5	14.7	48.3	34.0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5	2.3	14.0	54.6	28.7		100.0
	시도 시부	(491)	0.2	1.6	14.1	44.4	39.7		100.0
	시도 군부	(66)	0.0	0.0	10.6	60.6	28.8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0.9	13.9	47.8	37.4		100.0
	고졸	(426)	0.0	1.6	13.8	50.7	33.8		100.0
	대졸 이상	(459)	0.7	2.2	13.7	49.9	33.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4	1.7	14.3	49.8	33.8		100.0
	전세	(220)	0.0	2.3	14.1	47.7	35.9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1.5	7.7	60.0	30.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2.3	9.3	53.5	34.9		100.0
	100-150만원	(139)	0.0	0.0	11.5	45.3	43.2		100.0
	150-200만원	(170)	0.0	0.6	13.5	57.1	28.8		100.0
	200-250만원	(261)	0.4	1.9	15.7	51.7	30.3		100.0
	250-300만원	(218)	0.9	3.2	13.8	50.5	31.7		100.0
	300-350만원	(97)	0.0	2.1	12.4	43.3	42.3		100.0
	350-400만원	(36)	0.0	0.0	13.9	44.4	41.7		100.0
	400만원 이상	(36)	0.0	5.6	19.4	38.9	36.1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8	2.4	15.8	48.9	32.1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10.2	50.8	37.3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3.3	9.8	57.5	29.4		100.0
	실업자	(47)	0.0	0.0	10.6	44.7	44.7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8	14.5	48.5	36.2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2.0	2.0	51.0	44.9		100.0
	중하층	(331)	0.0	1.2	10.6	48.9	39.3		100.0
	중간층	(536)	0.6	1.7	14.7	50.9	32.1		100.0
	중상층	(84)	0.0	4.8	27.4	47.6	20.2		100.0

주: 1) 성별 $\chi^2 = 1.948$, 연령대별 $\chi^2 = 24.466$, 가구원수별 $\chi^2 = 16.550$, 거주지역별 $\chi^2 = 18.375$,최종학력별 $\chi^2 = 5.085$, 주거형태별 $\chi^2 = 5.405$,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0.467$,경제활동상태별 $\chi^2 = 20.44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6.28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1〉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②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2	2.2	8.1	42.9	46.6		100.0
성별	남자	(499)	0.2	2.6	7.2	43.1	46.9		100.0
	여자	(501)	0.2	1.8	9.0	42.7	46.3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1.1	9.2	47.1	42.0		100.0
	만 30-39세	(168)	0.6	3.6	8.9	39.3	47.6		100.0
	만 40-49세	(202)	0.0	1.0	7.9	44.6	46.5		100.0
	만 50-59세	(202)	0.0	2.5	9.9	45.0	42.6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2.8	5.5	39.4	52.4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1.0	9.2	34.7	55.1		100.0
	2명	(225)	0.0	3.1	5.8	43.1	48.0		100.0
	3명	(236)	0.4	3.4	6.8	41.5	47.9		100.0
	4명 이상	(441)	0.2	1.4	9.8	45.4	43.3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0.2	3.2	9.3	40.0	47.4		100.0
	시도 시부	(491)	0.2	1.6	7.5	43.4	47.3		100.0
	시도 군부	(66)	0.0	0.0	4.5	59.1	36.4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2.6	6.1	46.1	45.2		100.0
	고졸	(426)	0.0	2.6	8.7	41.8	46.9		100.0
	대졸 이상	(459)	0.4	1.7	8.1	43.1	46.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3	2.4	7.6	45.3	44.5		100.0
	전세	(220)	0.0	2.3	10.5	35.5	51.8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0.0	6.2	41.5	52.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7.0	4.7	41.9	46.5		100.0
	100-150만원	(139)	0.0	1.4	5.0	46.8	46.8		100.0
	150-200만원	(170)	0.0	2.9	10.0	41.8	45.3		100.0
	200-250만원	(261)	0.4	1.5	10.7	43.7	43.7		100.0
	250-300만원	(218)	0.5	1.8	8.7	45.4	43.6		100.0
	300-350만원	(97)	0.0	2.1	5.2	29.9	62.9		100.0
	350-400만원	(36)	0.0	2.8	0.0	44.4	52.8		100.0
	400만원 이상	(36)	0.0	2.8	8.3	47.2	41.7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5	1.9	8.2	44.3	45.1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10.2	45.8	42.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2.6	7.2	37.3	52.9		100.0
	실업자	(47)	0.0	4.3	10.6	40.4	44.7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2.1	7.8	43.7	46.4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0.0	4.1	55.1	40.8		100.0
	중하층	(331)	0.0	1.5	7.3	40.8	50.5		100.0
	중간층	(536)	0.4	2.1	9.1	42.5	45.9		100.0
	중상층	(84)	0.0	7.1	7.1	46.4	39.3		100.0

주: 1) 성별 $\chi^2 = 1.734$, 연령대별 $\chi^2 = 16.923$, 가구원수별 $\chi^2 = 14.268$, 거주지역별 $\chi^2 = 12.680$,최종학력별 $\chi^2 = 4.380$, 주거형태별 $\chi^2 = 10.684$,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9.398$,경제활동상태별 $\chi^2 = 8.873$,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9.72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2〉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③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3	1.4	9.8	37.3	51.2		100.0
성별	남자	(499)	0.2	1.6	9.6	37.1	51.5		100.0
	여자	(501)	0.4	1.2	10.0	37.5	50.9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2.3	4.0	40.2	52.9		100.0
	만 30-39세	(168)	0.6	1.8	10.7	33.9	53.0		100.0
	만 40-49세	(202)	0.0	1.0	8.4	40.6	50.0		100.0
	만 50-59세	(202)	0.0	1.5	13.4	31.7	53.5		100.0
	만 60세 이상	(254)	0.4	0.8	11.4	39.4	48.0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0.0	8.2	35.7	56.1		100.0
	2명	(225)	0.4	2.7	14.7	38.7	43.6		100.0
	3명	(236)	0.0	1.3	7.6	36.9	54.2		100.0
	4명 이상	(441)	0.5	1.1	8.8	37.2	52.4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2	1.4	12.0	36.3	50.1		100.0
	시도 시부	(491)	0.4	1.6	8.1	40.1	49.7		100.0
	시도 군부	(66)	0.0	0.0	7.6	22.7	69.7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0.0	14.8	34.8	50.4		100.0
	고졸	(426)	0.2	1.4	9.4	38.3	50.7		100.0
	대졸 이상	(459)	0.4	1.7	8.9	37.0	51.9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4	1.5	10.3	36.9	50.8		100.0
	전세	(220)	0.0	1.4	9.1	41.4	48.2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0.0	6.2	27.7	66.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0.0	18.6	32.6	48.8		100.0
	100-150만원	(139)	0.0	0.0	10.8	43.2	46.0		100.0
	150-200만원	(170)	0.6	1.2	12.9	40.0	45.3		100.0
	200-250만원	(261)	0.0	2.3	10.3	34.5	52.9		100.0
	250-300만원	(218)	0.5	2.3	6.9	35.8	54.6		100.0
	300-350만원	(97)	0.0	1.0	4.1	32.0	62.9		100.0
	350-400만원	(36)	0.0	0.0	8.3	41.7	50.0		100.0
	400만원 이상	(36)	2.8	0.0	11.1	47.2	38.9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3	1.6	7.9	34.2	56.0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6.8	44.1	47.5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2.0	13.7	32.0	51.6		100.0
	실업자	(47)	2.1	2.1	4.3	42.6	48.9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8	11.3	40.8	47.2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0.0	10.2	34.7	53.1		100.0
	중하층	(331)	0.0	0.6	8.2	39.3	52.0		100.0
	중간층	(536)	0.4	1.1	10.1	36.4	52.1		100.0
	중상층	(84)	0.0	7.1	14.3	36.9	41.7		100.0

주: 1) 성별 $\chi^2 = 0.688$, 연령대별 $\chi^2 = 18.548$, 가구원수별 $\chi^2 = 16.730$, 거주지역별 $\chi^2 = 15.047$,최종학력별 $\chi^2 = 6.404$, 주거형태별 $\chi^2 = 9.28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7.430$,경제활동상태별 $\chi^2 = 22.80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3.44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3〉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④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4	3.2	10.9	43.1	42.4		100.0
성별	남자	(499)	0.2	3.4	10.8	43.9	41.7		100.0
	여자	(501)	0.6	3.0	11.0	42.3	43.1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2.9	11.5	47.7	37.4		100.0
	만 30-39세	(168)	0.6	3.0	11.3	46.4	38.7		100.0
	만 40-49세	(202)	0.0	3.0	8.9	44.6	43.6		100.0
	만 50-59세	(202)	0.5	2.5	12.9	39.1	45.0		100.0
	만 60세 이상	(254)	0.4	4.3	10.2	39.8	45.3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4.1	9.2	52.0	34.7		100.0
	2명	(225)	1.3	4.9	12.9	40.0	40.9		100.0
	3명	(236)	0.0	3.8	8.9	42.8	44.5		100.0
	4명 이상	(441)	0.2	1.8	11.3	42.9	43.8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0.2	3.4	12.6	43.6	40.2		100.0
	시도 시부	(491)	0.6	3.3	10.8	42.6	42.8		100.0
	시도 군부	(66)	0.0	1.5	0.0	43.9	54.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6.1	10.4	39.1	44.3		100.0
	고졸	(426)	0.5	3.5	10.8	42.7	42.5		100.0
	대졸 이상	(459)	0.4	2.2	11.1	44.4	41.8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4	2.9	10.8	42.1	43.8		100.0
	전세	(220)	0.5	3.2	10.5	44.1	41.8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6.2	13.8	50.8	29.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7.0	16.3	34.9	41.9		100.0
	100-150만원	(139)	0.0	4.3	12.2	36.0	47.5		100.0
	150-200만원	(170)	0.6	2.9	12.4	46.5	37.6		100.0
	200-250만원	(261)	0.4	2.7	10.0	43.3	43.7		100.0
	250-300만원	(218)	0.9	3.2	10.1	42.2	43.6		100.0
	300-350만원	(97)	0.0	2.1	9.3	49.5	39.2		100.0
	350-400만원	(36)	0.0	0.0	8.3	50.0	41.7		100.0
	400만원 이상	(36)	0.0	5.6	11.1	44.4	38.9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8	2.2	10.9	45.9	40.2		100.0
	임사·일용직	(59)	0.0	5.1	5.1	42.4	47.5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4.6	8.5	37.9	49.0		100.0
	실업자	(47)	2.1	2.1	21.3	34.0	40.4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3.5	11.5	43.7	41.3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4.1	14.3	26.5	53.1		100.0
	중하층	(331)	0.3	3.3	9.4	47.1	39.9		100.0
	중간층	(536)	0.4	2.2	9.9	42.7	44.8		100.0
	중상층	(84)	0.0	8.3	21.4	39.3	31.0		100.0

주: 1) 성별 $\chi^2 = 1.395$, 연령대별 $\chi^2 = 9.521$, 가구원수별 $\chi^2 = 18.023$, 거주지역별 $\chi^2 = 13.109$,최종학력별 $\chi^2 = 5.966$, 주거형태별 $\chi^2 = 6.878$,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16.796$,경제활동상태별 $\chi^2 = 22.960$,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32.38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4〉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⑤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2	2.0	11.9	52.5	33.4		100.0
성별	남자	(499)	0.2	1.6	13.2	51.1	33.9		100.0
	여자	(501)	0.2	2.4	10.6	53.9	32.9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1.1	2.3	14.9	52.9	28.7		100.0
	만 30-39세	(168)	0.0	3.0	13.1	57.7	26.2		100.0
	만 40-49세	(202)	0.0	2.0	11.4	51.5	35.1		100.0
	만 50-59세	(202)	0.0	1.5	11.4	50.5	36.6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1.6	9.8	51.2	37.4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5.1	9.2	57.1	28.6		100.0
	2명	(225)	0.0	1.3	13.3	48.4	36.9		100.0
	3명	(236)	0.4	1.7	11.9	53.4	32.6		100.0
	4명 이상	(441)	0.2	1.8	11.8	53.1	33.1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0.2	1.8	14.0	54.4	29.6		100.0
	시도 시부	(491)	0.2	2.2	10.8	51.1	35.6		100.0
	시도 군부	(66)	0.0	1.5	6.1	50.0	42.4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3.5	11.3	48.7	36.5		100.0
	고졸	(426)	0.2	1.4	11.7	52.6	34.0		100.0
	대졸 이상	(459)	0.2	2.2	12.2	53.4	32.0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3	1.5	11.9	51.2	35.1		100.0
	전세	(220)	0.0	3.2	10.9	56.4	29.5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3.1	15.4	53.8	27.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43)	0.0	7.0	11.6	37.2	44.2		100.0
	100-150만원	(139)	0.0	2.2	10.1	49.6	38.1		100.0
	150-200만원	(170)	0.0	0.6	15.3	58.2	25.9		100.0
	200-250만원	(261)	0.0	1.5	12.3	54.4	31.8		100.0
	250-300만원	(218)	0.9	3.2	13.3	50.9	31.7		100.0
	300-350만원	(97)	0.0	2.1	8.2	48.5	41.2		100.0
	350-400만원	(36)	0.0	0.0	2.8	50.0	47.2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11.1	63.9	25.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3	2.2	12.2	53.5	31.8		100.0
	임사일용직	(59)	0.0	3.4	13.6	45.8	37.3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0.7	5.9	60.1	33.3		100.0
	실업자	(47)	0.0	0.0	23.4	40.4	36.2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3	2.4	12.3	50.9	34.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9)	0.0	2.0	8.2	51.0	38.8		100.0
	중하층	(331)	0.0	2.1	9.1	53.2	35.6		100.0
	중간층	(536)	0.4	1.9	12.1	52.8	32.8		100.0
	중상층	(84)	0.0	2.4	23.8	48.8	25.0		100.0

주: 1) 성별 $\chi^2 = 2.693$, 연령대별 $\chi^2 = 20.363$, 가구원수별 $\chi^2 = 10.381$, 거주지역별 $\chi^2 = 9.334$,최종학력별 $\chi^2 = 3.448$, 주거형태별 $\chi^2 = 7.434$,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8.612$,경제활동상태별 $\chi^2 = 18.54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7.73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5〉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⑥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3	1.3	12.3	49.6	36.5	100.0
성별	남자	(499)	0.2	1.4	10.0	50.3	38.1	100.0
	여자	(501)	0.4	1.2	14.6	48.9	34.9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1.1	14.9	44.8	38.5	100.0
	만 30-39세	(168)	1.2	1.8	10.7	46.4	39.9	100.0
	만 40-49세	(202)	0.0	0.5	11.4	51.0	37.1	100.0
	만 50-59세	(202)	0.0	3.0	13.9	51.0	32.2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4	11.0	52.8	35.8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0.0	9.2	43.9	46.9	100.0
	2명	(225)	0.4	1.3	11.1	52.9	34.2	100.0
	3명	(236)	0.4	1.3	13.6	51.7	33.1	100.0
	4명 이상	(441)	0.2	1.6	12.9	48.1	37.2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0.2	1.4	14.9	48.1	35.4	100.0
	시도 시부	(491)	0.4	1.4	10.2	51.3	36.7	100.0
	시도 군부	(66)	0.0	0.0	10.6	47.0	42.4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0.0	15.7	49.6	34.8	100.0
	고졸	(426)	0.0	1.2	13.1	49.5	36.2	100.0
	대졸 이상	(459)	0.7	1.7	10.7	49.7	37.3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3	1.8	12.0	51.0	34.8	100.0
	전세	(220)	0.5	0.0	14.1	47.3	38.2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0.0	9.2	41.5	49.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0.0	4.7	48.8	46.5	100.0
	100-150만원	(139)	0.0	0.0	12.2	48.9	38.8	100.0
	150-200만원	(170)	0.0	1.2	12.9	50.6	35.3	100.0
	200-250만원	(261)	0.4	1.9	15.7	49.8	32.2	100.0
	250-300만원	(218)	0.9	0.9	11.5	51.4	35.3	100.0
	300-350만원	(97)	0.0	2.1	9.3	43.3	45.4	100.0
	350-400만원	(36)	0.0	0.0	11.1	41.7	47.2	100.0
	400만원 이상	(36)	0.0	5.6	8.3	61.1	25.0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8	1.9	10.1	51.1	36.1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10.2	47.5	40.7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2.0	12.4	49.7	35.9	100.0
	실업자	(47)	0.0	0.0	12.8	59.6	27.7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5	14.7	47.2	37.5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2.0	10.2	38.8	49.0	100.0
	중하층	(331)	0.0	1.2	7.6	52.3	39.0	100.0
	중간층	(536)	0.6	0.7	14.4	49.6	34.7	100.0
	중상층	(84)	0.0	4.8	19.0	45.2	31.0	100.0

주: 1) 성별 $\chi^2 = 5.396$, 연령대별 $\chi^2 = 19.951$, 가구원수별 $\chi^2 = 9.310$, 거주지역별 $\chi^2 = 7.137$,최종학력별 $\chi^2 = 8.239$, 주거형태별 $\chi^2 = 11.677$,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9.401$,경제활동상태별 $\chi^2 = 15.622$,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8.82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6〉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⑦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2	1.3	11.2	49.0	38.3		100.0
성별	남자	(499)	0.0	1.6	11.4	47.1	39.9		100.0
	여자	(501)	0.4	1.0	11.0	50.9	36.7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0.0	10.9	47.1	41.4		100.0
	만 30-39세	(168)	0.6	2.4	10.7	44.0	42.3		100.0
	만 40-49세	(202)	0.0	1.0	9.4	51.0	38.6		100.0
	만 50-59세	(202)	0.0	2.5	13.4	48.5	35.6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8	11.4	52.4	35.4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0.0	13.3	39.8	46.9		100.0
	2명	(225)	0.4	1.3	13.3	51.6	33.3		100.0
	3명	(236)	0.0	0.4	11.0	49.2	39.4		100.0
	4명 이상	(441)	0.2	2.0	9.8	49.7	38.3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0.2	1.4	13.8	48.1	36.6		100.0
	시도 시부	(491)	0.2	1.4	9.4	50.5	38.5		100.0
	시도 군부	(66)	0.0	0.0	7.6	43.9	48.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0.9	13.9	49.6	35.7		100.0
	고졸	(426)	0.0	1.4	12.9	47.4	38.3		100.0
	대졸 이상	(459)	0.4	1.3	8.9	50.3	39.0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1	1.1	11.9	50.2	36.6		100.0
	전세	(220)	0.5	1.8	9.5	48.6	39.5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1.5	9.2	36.9	52.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2.3	23.3	34.9	39.5		100.0
	100-150만원	(139)	0.0	0.0	10.1	50.4	39.6		100.0
	150-200만원	(170)	0.0	0.6	14.7	47.1	37.6		100.0
	200-250만원	(261)	0.0	2.3	10.7	52.5	34.5		100.0
	250-300만원	(218)	0.9	0.9	10.1	46.3	41.7		100.0
	300-350만원	(97)	0.0	1.0	7.2	45.4	46.4		100.0
	350-400만원	(36)	0.0	2.8	5.6	66.7	25.0		100.0
	400만원 이상	(36)	0.0	2.8	11.1	52.8	33.3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5	1.1	11.7	46.7	39.9		100.0
	임사일용직	(59)	0.0	0.0	10.2	54.2	35.6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3.3	7.8	53.6	35.3		100.0
	실업자	(47)	0.0	2.1	21.3	42.6	34.0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8	11.0	49.3	38.9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0.0	0.0	20.4	32.7	46.9		100.0
	중하층	(331)	0.0	1.5	10.3	48.6	39.6		100.0
	중간층	(536)	0.4	0.7	9.7	51.5	37.7		100.0
	중상층	(84)	0.0	4.8	19.0	44.0	32.1		100.0

주: 1) 성별 $\chi^2 = 4.128$, 연령대별 $\chi^2 = 15.682$, 가구원수별 $\chi^2 = 13.478$, 거주지역별 $\chi^2 = 8.719$,최종학력별 $\chi^2 = 7.195$, 주거형태별 $\chi^2 = 8.78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4.670$,경제활동상태별 $\chi^2 = 18.558$,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6.90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7〉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⑧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4	2.3	12.9	51.1	33.3		100.0
성별 *	남자	(499)	0.0	2.0	15.8	51.3	30.9		100.0
	여자	(501)	0.8	2.6	10.0	50.9	35.7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1.1	15.5	50.0	32.8		100.0
	만 30-39세	(168)	0.6	3.6	10.7	57.1	28.0		100.0
	만 40-49세	(202)	0.5	1.5	11.4	53.0	33.7		100.0
	만 50-59세	(202)	0.0	3.0	12.9	49.5	34.7		100.0
	만 60세 이상	(254)	0.4	2.4	13.8	47.6	35.8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3.1	10.2	52.0	34.7		100.0
	2명	(225)	0.9	2.2	16.0	48.9	32.0		100.0
	3명	(236)	0.0	2.1	12.3	50.4	35.2		100.0
	4명 이상	(441)	0.5	2.3	12.2	52.4	32.7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5	2.3	14.2	55.1	28.0		100.0
	시도 시부	(491)	0.4	2.6	13.0	48.9	35.0		100.0
	시도 군부	(66)	0.0	0.0	3.0	40.9	56.1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9	3.5	17.4	44.3	33.9		100.0
	고졸	(426)	0.2	1.9	12.2	50.7	35.0		100.0
	대졸 이상	(459)	0.4	2.4	12.4	53.2	31.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3	2.5	13.6	50.3	33.3		100.0
	전세	(220)	0.5	1.8	11.4	55.0	31.4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1.5	10.8	46.2	4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2.3	4.7	20.9	32.6	39.5		100.0
	100-150만원	(139)	0.0	1.4	12.9	52.5	33.1		100.0
	150-200만원	(170)	0.0	1.8	15.9	52.9	29.4		100.0
	200-250만원	(261)	0.4	3.1	9.6	54.0	33.0		100.0
	250-300만원	(218)	0.9	2.3	15.6	47.7	33.5		100.0
	300-350만원	(97)	0.0	1.0	7.2	55.7	36.1		100.0
	350-400만원	(36)	0.0	2.8	2.8	55.6	38.9		100.0
	400만원 이상	(36)	0.0	2.8	22.2	41.7	33.3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5	2.4	12.5	56.8	27.7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11.9	49.2	37.3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3.3	13.7	43.1	39.2		100.0
	실업자	(47)	0.0	2.1	17.0	53.2	27.7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3	1.9	12.6	48.8	36.5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9)	0.0	2.0	14.3	42.9	40.8		100.0
	중하층	(331)	0.3	2.1	11.5	52.3	33.8		100.0
	중간층	(536)	0.6	2.1	11.8	52.1	33.6		100.0
	중상층	(84)	0.0	4.8	25.0	45.2	25.0		100.0

주: 1) 성별 $\chi^2 = 12.786$, 연령대별 $\chi^2 = 10.496$, 가구원수별 $\chi^2 = 6.314$, 거주지역별 $\chi^2 = 25.310$,최종학력별 $\chi^2 = 6.217$, 주거형태별 $\chi^2 = 5.960$,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31.966$,경제활동상태별 $\chi^2 = 14.49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8.05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8〉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⑨범좌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2	0.7	6.7	51.3	41.1		100.0
성별	남자	(499)	0.0	0.8	7.6	50.5	41.1		100.0
	여자	(501)	0.4	0.6	5.8	52.1	41.1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1.7	8.0	48.3	41.4		100.0
	만 30-39세	(168)	0.6	0.6	7.7	50.6	40.5		100.0
	만 40-49세	(202)	0.0	0.0	5.9	49.0	45.0		100.0
	만 50-59세	(202)	0.0	1.5	5.4	55.4	37.6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0	6.7	52.4	40.9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0.0	8.2	55.1	36.7		100.0
	2명	(225)	0.4	0.9	8.9	52.9	36.9		100.0
	3명	(236)	0.0	1.3	7.2	49.2	42.4		100.0
	4명 이상	(441)	0.2	0.5	5.0	50.8	43.5		100.0
거주지역	광역시	(443)	0.2	0.2	7.4	54.6	37.5		100.0
	시도 시부	(491)	0.2	1.2	6.3	49.7	42.6		100.0
	시도 군부	(66)	0.0	0.0	4.5	40.9	54.5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0.0	9.6	53.9	36.5		100.0
	고졸	(426)	0.0	0.7	5.6	51.4	42.3		100.0
	대졸 이상	(459)	0.4	0.9	7.0	50.5	41.2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1	0.8	6.3	50.3	42.4		100.0
	전세	(220)	0.5	0.0	9.1	52.7	37.7		100.0
	월세 및 기타	(65)	0.0	1.5	3.1	56.9	38.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0.0	11.6	44.2	44.2		100.0
	100-150만원	(139)	0.0	0.0	9.4	47.5	43.2		100.0
	150-200만원	(170)	0.0	0.6	7.1	55.3	37.1		100.0
	200-250만원	(261)	0.0	1.5	6.5	51.7	40.2		100.0
	250-300만원	(218)	0.9	0.9	5.5	53.7	39.0		100.0
	300-350만원	(97)	0.0	0.0	4.1	48.5	47.4		100.0
	350-400만원	(36)	0.0	0.0	0.0	44.4	55.6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11.1	52.8	36.1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5	1.1	8.4	49.7	40.2		100.0
	임사일용직	(59)	0.0	1.7	5.1	50.8	42.4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0	0.7	5.2	52.3	41.8		100.0
	실업자	(47)	0.0	0.0	8.5	44.7	46.8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3	5.6	53.4	40.8		100.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49)	0.0	2.0	6.1	53.1	38.8		100.0
	중하층	(331)	0.0	0.6	5.1	52.3	42.0		100.0
	중간층	(536)	0.4	0.4	7.1	50.6	41.6		100.0
	중상층	(84)	0.0	2.4	10.7	51.2	35.7		100.0

주: 1) 성별 $\chi^2 = 3.508$, 연령대별 $\chi^2 = 15.490$, 가구원수별 $\chi^2 = 10.355$, 거주지역별 $\chi^2 = 12.052$,최종학력별 $\chi^2 = 6.468$, 주거형태별 $\chi^2 = 8.306$,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6.630$,경제활동상태별 $\chi^2 = 11.020$,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11.51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2-69〉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⑩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					매우 중요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1000)	0.3	0.4	7.7	55.2	36.4		100.0
성별	남자	(499)	0.0	0.6	8.6	56.1	34.7		100.0
	여자	(501)	0.6	0.2	6.8	54.3	38.1		100.0
연령대	만 19-29세	(174)	0.6	1.1	8.0	56.9	33.3		100.0
	만 30-39세	(168)	0.0	0.6	7.1	60.7	31.5		100.0
	만 40-49세	(202)	0.5	0.0	7.9	50.5	41.1		100.0
	만 50-59세	(202)	0.5	0.5	7.9	56.4	34.7		100.0
	만 60세 이상	(254)	0.0	0.0	7.5	53.1	39.4		100.0
가구원수	1명	(98)	0.0	0.0	11.2	54.1	34.7		100.0
	2명	(225)	0.0	0.4	11.1	52.4	36.0		100.0
	3명	(236)	0.4	0.4	7.6	54.2	37.3		100.0
	4명 이상	(441)	0.5	0.5	5.2	57.4	36.5		100.0
거주지역 *	광역시	(443)	0.0	0.0	6.5	60.5	33.0		100.0
	시도 시부	(491)	0.6	0.8	9.2	51.7	37.7		100.0
	시도 군부	(66)	0.0	0.0	4.5	45.5	50.0		10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5)	0.0	0.0	8.7	53.0	38.3		100.0
	고졸	(426)	0.5	0.2	8.0	55.6	35.7		100.0
	대졸 이상	(459)	0.2	0.7	7.2	55.3	36.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715)	0.3	0.4	7.4	54.3	37.6		100.0
	전세	(220)	0.0	0.5	8.2	58.2	33.2		100.0
	월세 및 기타	(65)	1.5	0.0	9.2	55.4	33.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	0.0	2.3	14.0	41.9	41.9		100.0
	100-150만원	(139)	0.0	0.0	9.4	51.8	38.8		100.0
	150-200만원	(170)	0.6	0.0	10.6	54.7	34.1		100.0
	200-250만원	(261)	0.4	0.8	6.9	55.9	36.0		100.0
	250-300만원	(218)	0.5	0.5	5.0	61.0	33.0		100.0
	300-350만원	(97)	0.0	0.0	7.2	51.5	41.2		100.0
	350-400만원	(36)	0.0	0.0	5.6	50.0	44.4		100.0
	400만원 이상	(36)	0.0	0.0	5.6	61.1	33.3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368)	0.3	0.5	7.3	57.1	34.8		100.0
	임사·일용직	(59)	1.7	0.0	5.1	44.1	49.2		100.0
	고용주/자영업자	(153)	0.7	0.7	6.5	58.8	33.3		100.0
	실업자	(47)	0.0	0.0	17.0	36.2	46.8		100.0
	비경제활동인구	(373)	0.0	0.3	7.8	56.0	35.9		100.0
주관적 계층의식 *	저소득층	(49)	2.0	0.0	6.1	40.8	51.0		100.0
	중하층	(331)	0.3	0.6	6.3	55.0	37.8		100.0
	중간층	(536)	0.2	0.2	7.5	57.8	34.3		100.0
	중상층	(84)	0.0	1.2	15.5	47.6	35.7		100.0

주: 1) 성별 $\chi^2 = 6.054$, 연령대별 $\chi^2 = 12.442$, 가구원수별 $\chi^2 = 11.280$, 거주지역별 $\chi^2 = 19.718$,최종학력별 $\chi^2 = 2.980$, 주거형태별 $\chi^2 = 6.121$, 월평균가구소득별 $\chi^2 = 22.306$,경제활동상태별 $\chi^2 = 22.687$, 주관적 계층의식별 $\chi^2 = 22.558$

2) +p<0.1, *p<0.05, **p<0.01, ***p<0.001

부록 3.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조사표

작성기관: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정책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간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7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업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304)

성명		연령	만 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전공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계열 ④ 기타 (_____)
소속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기타 (_____)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상품권 발송용]		

문 A6)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교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6)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문화와의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문 A7)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전망)해주시요.

보통					매우 중요
1	2	3	4	5	

미래 한국은...	현재 (2018년)	5년 후 (2023년)	20년 후 (2038년)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3)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회가 많은 사회			
(4)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5)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6)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			
(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8)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9)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			

문 A8)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자리	② 출산과 양육	③ 자녀 교육	④ 신체와 정신 건강	⑤ 주거
⑥ 노후 생활	⑦ 부채 상환	⑧ 부모 부양	⑨ 환경	⑩ 안전
	5년 전(2013년)	현재(2018년)	5년 후(2023년)	20년 후(2038년)
1순위				
2순위				
3순위				

문 A9) 귀하는 다음의 정책 영역 중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정책	② 보건복지인구정책	③ 국방외교정책	④ 교육정책	⑤ 주거정책
⑥ 일자리 및 고용정책	⑦ 환경정책	⑧ 문화정책	⑨ 안전강화정책	
5년 전 (2013년)	현재 (2018년)	5년 후 (2023년)	20년 후 (2038년)	

문 A10)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①		②		③		④		⑤		⑥	
번호	항목										점수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문 A11)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다음의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요.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번호	항목										점수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제가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마련(제가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등)										
16)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7)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8)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9)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문 A12) 향후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강화,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③ (국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 ④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노후건강증진, 치매예방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⑤ (노인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 ⑥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질병예방
- ⑦ (전월세 등) 주택가격 안정
- ⑧ (무상교육 등) 공교육 확대
- ⑨ (먹거리 등)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강화
- ⑩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소
- ⑪ (아동학대 예방 등) 각종 학대·폭력 근절
- ⑫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
- ⑬ 기타 ()

문 A13) 귀하는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아동
- ② 청소년
- ③ 청년
- ④ 중장년
- ⑤ 노인
- ⑥ 기타 ()

↳ A13-1)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 ② 장애인
- ③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④ 노인
-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⑥ 기타 ()

문 A14) 귀하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어느 것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 ② 서비스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 제도 예시

-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 서비스보장: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장기요양, 취업지원, 방과후 돌봄, 주거 등

ㄴ 문 A14-1)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②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 ③ 아동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 소득보장 강화
- ④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 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직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 ⑥ 기타 ()

ㄴ 문 A14-2)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서비스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장보건의료분야
- ② (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분야
- ③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등) 교육분야
- ④ (주택 유지 수선 지원 등) 주거분야
- 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분야
- ⑥ 기타 ()

문 A15) 귀하는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국립 교육기관 확충
- ② 무상교육 확대
- ③ 사교육비 부담 완화
- ④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 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⑥ 기타 ()

문 A16) 귀하는 정부가 아동 돌봄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② 무상보육 확대
- ② 방과 후 학교 등 가구의 취학아동 돌봄 부담 완화
- ③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 ④ 장애아동 돌봄 강화
- ⑤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⑥ 기타 ()

문 A17) 귀하는 정부가 성인 돌봄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예: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 ② 제공인력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 ③ 제공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보장
- ④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 ⑤ 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 강화
- ⑥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강화
- ⑦ 기타 ()

문 A18) 귀하는 정부가 안전보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 내·외의 안전 유지 지원(방임·학대·폭력 등 예방 및 대응) 강화
- ② 범죄 예방 강화
- ③ 안전사고 예방(교통사고, 산업재해, 시설안전 등) 강화
- ④ 식품·환경 안전 관리 강화
- ⑤ 안전 교육 강화
- ⑥ 기타 ()

문 A19) 귀하는 정부가 권익보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입소자 권익 보장
- ② 범죄·안전사고 등 피해자 지원 강화
- ③ 사회복귀·적응 지원(교정출소자, 탈북자 등) 강화
- ④ 인권 교육 강화
- ⑤ 법률 및 재무 상담 지원 확대
- ⑥ 기타 ()

문 A20) 귀하는 정부가 문화 및 여가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도서관, 극장 등) 확충
- ② 취약계층에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문화향유기회 확대
- ③ 특색 있는 지역문화 진흥(예: 지역축제 활성화)
- ④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
- ⑤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시설 확충
- ⑥ 기타 ()

문 A21) 귀하는 정부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개선
- ② 생활환경오염(폐기물, 상하수도, 소음공해 등) 개선
- ③ 유해물질(석면, 화학물질 등) 관리체계 구축
- ④ 도시공원, 도시 숲 등 산림 인프라 확충
- ⑤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⑥ 기타 ()

문 A22) 귀하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 ②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③ 지역 간의 격차 해소
- ④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 ⑤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 ⑥ 기타 ()

II. 보건 정책

문 B1)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
-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③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 ④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⑤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예, 술, 담배 등 생활습관 관리)
- ⑥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 ⑦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
- ⑧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 ⑨ 기타 ()

문 B2) 귀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 ②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③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 ④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⑤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질환 부담완화, 경증질환 부담강화)
- ⑥ 기타 ()

문 B3) 귀하는 건강보험 제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고 지원 확대
- ② 건강보험료 인상
-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 ⑤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제 등)
- ⑥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 ⑦ 기타 ()

문 B4) 귀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 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예: 의원급 진료후 병원급 진료가능)
- ⑦ 기타 (_____)

문 B5) 귀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
- ②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예: 우수인력확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기능강화 등)
- ③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예 : 신생아집중치료실, 음압병실, 분만취약지산부인과지원 등)
- ④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 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과기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
- ⑥ 기타 (_____)

III. 복지 및 인구 정책

문 C1)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②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 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 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 ⑥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 ⑦ 기타 ()

문 C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 ②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보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③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 ④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 ⑤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 ⑥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양적·질적 강화
- ⑦ 기타 ()

문 C3) 귀하는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아동보호 등)
- ② 아동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비만, 정신건강 등)
- ③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
- ④ 아동상담서비스 강화(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
- ⑤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 ⑥ 맞벌이 가구 등 취약아동의 돌봄 강화(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 ⑦ 안전한 환경 조성(아동 안전 환경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
- ⑦ 기타 ()

문 C4)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교육, 훈련 등)
- ②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 ④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 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 ⑥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 ⑦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
- ⑧ 기타 ()

문 C5)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②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 ③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 ④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 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⑥ 장애인 확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 ⑦ 장애등급제 개편
- ⑧ 기타 ()

문 C6)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 ③ 동네의원을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 ⑥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돌봄체계 구축
- ⑦ 기타 ()

문 C7) 귀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 ② 민관협력체계 강화
- ③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④ 유사 중복 사업조정, 부정정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 ⑤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 ⑥ 복지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 ⑦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제도 예시 :)
- ⑧ 기타 ()

IV. 일자리 및 주거지원정책

문 D1) 귀하는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 ② 중장년
- ③ 노인
- ④ 여성
- 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⑥ 기타 ()

문 D2) 고용정책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귀하는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ㄴ 문 D2-1)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일자리 확대
- ② 혁신형 창업 촉진
- ③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 ④ 사회적경제 활성화
- ⑤ 지역일자리 창출
- ⑥ 일자리 나누기(예: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등)
- ⑦ 기타 ()

ㄴ 문 D2-2) 귀하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 차별 해소
-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 ③ 고용안정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제고
- ④ 고용안전망(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강화
- ⑤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 ⑥ 임금체계 개편
- ⑦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 지원 강화
- ⑧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
- ⑨ 기타 ()

문 D3)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각 속성의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1) 일할 기회의 제공			
2)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3)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4)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보장			
5)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6) 고용상의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			
7) 산업재해 등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8)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			
9) 노사 간의 수평적 관계와 민주적 의사소통			

문 D4)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
- ②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
- ③ 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
- ④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금융자금지원(대출)
- ⑤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⑥ 주택 유지 수선 지원 강화
- ⑦ 기타 ()

문 D5)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안 중요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u>어메니티(Amenity)</u>	주택과 주거환경이 쾌적함			
2) <u>지불가능성(Affordability)</u>	주거비 지출이 적정함			
3) <u>안정성(Stability)</u>	원하는 거주 기간이 보장됨			
4) <u>편리성(Convenience)</u>	거주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시설 및 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장됨			
5) <u>보건성(Health)</u>	거주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음			
6) <u>안전성(Safety)</u>	생활하는데 생명의 위협요소가 없음(주택구조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7) <u>커뮤니티(Community)</u>	사회경제적 공간 및 환경과 주민들 간의 관계(이웃과의 친밀도 및 지역 자긍심 등)			

IV. 사회보장재정

문 E1) 귀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다음 항목 중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노인 | ② 유족 |
| ③ 근로 무능력자 | ④ 보건 |
| ⑤ 가족 | ⑥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⑦ 실업 | ⑧ 주거 |
| ⑨ 기타 (_____) | |

문 E2)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보장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 ①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②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문 E3)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만이 중요하다					분배만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 E4) 귀하는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조세 인상
② 국공채 발행
③ 국가사업간 자원 조정
④ 복지서비스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요금 부담
⑤ 기부금(기업, 종교단체 등)
⑥ 사회보험료 인상
⑦ 기타 (_____)

문 E5) 귀하는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세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근로소득세 인상
- ② 자본소득세 인상
- ③ 부가가치세 인상
- ④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 ⑤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 ⑥ 법인세 인상
- ⑦ 조세감면제도 개선
- ⑧ 기타 (_____)

문 E6)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 ② 지속가능사회 건설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 ③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 ④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R&D)
- ⑤ 산업구조 조정 등의 산업 분야
- ⑥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비 및 관련 경비
- ⑦ 교육의 공공성 강화
- ⑧ 여가 있는 삶을 위한 문화 분야
- ⑨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지원
- ⑩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⑪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기입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소정의 사례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부록 4.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기초분석표

〈부표 4-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전체		1.0	1.0	15.0	10.0	26.0	18.0	24.0	5.0	0.0	0.0	100.0
성별	남자	1.4	1.4	15.9	11.6	21.7	17.4	24.6	5.8	0.0	0.0	100.0
	여자	0.0	0.0	12.9	6.5	35.5	19.4	22.6	3.2	0.0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3.3	6.7	16.7	36.7	13.3	23.3	0.0	0.0	0.0	100.0
	사회계열	2.4	0.0	12.2	7.3	29.3	22.0	24.4	2.4	0.0	0.0	100.0
	보건계열	0.0	0.0	27.6	6.9	10.3	17.2	24.1	13.8	0.0	0.0	100.0
소속별	대학	1.5	0.0	14.7	7.4	25.0	22.1	25.0	4.4	0.0	0.0	100.0
	연구기관	0.0	3.1	15.6	15.6	28.1	9.4	21.9	6.3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0.0	23.5	0.0	35.3	11.8	23.5	0.0	0.0	0.0	100.0
	중도	0.0	3.0	15.2	12.1	24.2	15.2	24.2	6.1	0.0	0.0	100.0
	진보	0.0	0.0	12.0	12.0	24.0	22.0	24.0	6.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3.517$, 전공별 $\chi^2=21.82$, 소속별 $\chi^2=6.359$, 정치적 성향별 $\chi^2=12.75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점)

구분	전체	성별		전공별			소속별		정치적 성향		
		남자	여자	경상 계열	사회 계열	보건 계열	대학	연구 기관	보수	중도	진보
신뢰도	5.3	5.3	5.4	5.2	5.4	5.4	5.4	5.2	4.9	5.3	5.5
F값 (유의도)	-	0.11		0.19			0.65		1.07		

주: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_5년 전(2013년)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전체		4.0	46.0	35.0	13.0	2.0	0.0	100.0
성별	남자	4.3	50.7	33.3	10.1	1.4	0.0	100.0
	여자	3.2	35.5	38.7	19.4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46.7	30.0	20.0	0.0	0.0	100.0
	사회계열	7.3	56.1	26.8	7.3	2.4	0.0	100.0
	보건계열	0.0	31.0	51.7	13.8	3.4	0.0	100.0
소속별	대학	2.9	41.2	39.7	14.7	1.5	0.0	100.0
	연구기관	6.3	56.3	25.0	9.4	3.1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23.5	29.4	35.3	11.8	0.0	100.0
	중도	3.0	33.3	48.5	15.2	0.0	0.0	100.0
	진보	6.0	62.0	28.0	4.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3.057$, 전공별 $\chi^2=11.066$, 소속별 $\chi^2=3.788$, 정치적 성향별 $\chi^2=29.12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전체		1.0	13.0	53.0	28.0	2.0	3.0	100.0
성별	남자	1.4	13.0	52.2	27.5	2.9	2.9	100.0
	여자	0.0	12.9	54.8	29.0	0.0	3.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6.7	63.3	20.0	6.7	0.0	100.0
	사회계열	0.0	26.8	53.7	17.1	0.0	2.4	100.0
	보건계열	0.0	0.0	41.4	51.7	0.0	6.9	100.0
소속별	대학	0.0	13.2	47.1	32.4	2.9	4.4	100.0
	연구기관	3.1	12.5	65.6	18.8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29.4	47.1	11.8	11.8	100.0
	중도	0.0	6.1	60.6	30.3	0.0	3.0	100.0
	진보	2.0	22.0	56.0	20.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1.402$, 전공별 $\chi^2=29.748$, 소속별 $\chi^2=7.34$, 정치적 성향별 $\chi^2=28.80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전체		2.0	30.0	46.0	20.0	2.0	0.0	100.0
성별	남자	1.4	30.4	44.9	20.3	2.9	0.0	100.0
	여자	3.2	29.0	48.4	19.4	0.0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30.0	46.7	16.7	3.3	0.0	100.0
	사회계열	2.4	43.9	43.9	7.3	2.4	0.0	100.0
	보건계열	0.0	10.3	48.3	41.4	0.0	0.0	100.0
소속별	대학	1.5	29.4	41.2	25.0	2.9	0.0	100.0
	연구기관	3.1	31.3	56.3	9.4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7.6	47.1	29.4	5.9	0.0	100.0
	중도	3.0	18.2	48.5	27.3	3.0	0.0	100.0
	진보	2.0	42.0	44.0	12.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1.315$, 전공별 $\chi^2=18.315$, 소속별 $\chi^2=4.995$, 정치적 성향별 $\chi^2=11.0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_20년 후

(2038년)

(단위: %)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전체		1.0	3.0	15.0	33.0	38.0	10.0	100.0
성별	남자	1.4	1.4	13.0	31.9	39.1	13.0	100.0
	여자	0.0	6.5	19.4	35.5	35.5	3.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13.3	36.7	36.7	13.3	100.0
	사회계열	0.0	2.4	24.4	43.9	26.8	2.4	100.0
	보건계열	3.4	6.9	3.4	13.8	55.2	17.2	100.0
소속별	대학	1.5	4.4	14.7	29.4	38.2	11.8	100.0
	연구기관	0.0	0.0	15.6	40.6	37.5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11.8	5.9	29.4	29.4	17.6	100.0
	중도	0.0	3.0	9.1	33.3	39.4	15.2	100.0
	진보	0.0	0.0	22.0	34.0	40.0	4.0	100.0

주: 1) 성별 $\chi^2=5.022$, 전공별 $\chi^2=22.554$, 소속별 $\chi^2=3.389$, 정치적 성향별 $\chi^2=18.23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공평)하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_5년 전
(2013년)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전체		19.0	36.0	33.0	10.0	2.0	0.0	100.0
성별	남자	15.9	36.2	34.8	11.6	1.4	0.0	100.0
	여자	25.8	35.5	29.0	6.5	3.2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0.0	36.7	33.3	20.0	0.0	0.0	100.0
	사회계열	29.3	41.5	19.5	7.3	2.4	0.0	100.0
	보건계열	13.8	27.6	51.7	3.4	3.4	0.0	100.0
소속별	대학	14.7	35.3	35.3	11.8	2.9	0.0	100.0
	연구기관	28.1	37.5	28.1	6.3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11.8	47.1	23.5	5.9	0.0	100.0
	중도	9.1	30.3	39.4	18.2	3.0	0.0	100.0
	진보	28.0	48.0	24.0	0.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2.216$, 전공별 $\chi^2=15.708$, 소속별 $\chi^2=4.034$, 정치적 성향별 $\chi^2=24.80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공평)하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_ 현재
(2018년)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전체		16.0	34.0	35.0	13.0	1.0	1.0	100.0
성별	남자	14.5	31.9	36.2	15.9	0.0	1.4	100.0
	여자	19.4	38.7	32.3	6.5	3.2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3.3	36.7	36.7	13.3	0.0	0.0	100.0
	사회계열	26.8	39.0	22.0	9.8	2.4	0.0	100.0
	보건계열	3.4	24.1	51.7	17.2	0.0	3.4	100.0
소속별	대학	14.7	29.4	36.8	16.2	1.5	1.5	100.0
	연구기관	18.8	43.8	31.3	6.3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11.8	58.8	17.6	0.0	5.9	100.0
	중도	12.1	18.2	39.4	27.3	3.0	0.0	100.0
	진보	22.0	52.0	24.0	2.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4.863$, 전공별 $\chi^2=16.15$, 소속별 $\chi^2=4.318$, 정치적 성향별 $\chi^2=33.87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공평)하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_5년 후
(2023년)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전체		7.0	41.0	26.0	19.0	7.0	0.0	100.0
성별	남자	5.8	37.7	27.5	20.3	8.7	0.0	100.0
	여자	9.7	48.4	22.6	16.1	3.2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60.0	13.3	20.0	3.3	0.0	100.0
	사회계열	14.6	39.0	31.7	7.3	7.3	0.0	100.0
	보건계열	0.0	24.1	31.0	34.5	10.3	0.0	100.0
소속별 *	대학	10.3	30.9	26.5	22.1	10.3	0.0	100.0
	연구기관	0.0	62.5	25.0	12.5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23.5	23.5	35.3	5.9	0.0	100.0
	중도	3.0	39.4	15.2	27.3	15.2	0.0	100.0
	진보	8.0	48.0	34.0	8.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2.369$, 전공별 $\chi^2=21.025$, 소속별 $\chi^2=12.958$, 정치적 성향별 $\chi^2=17.71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공평)하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
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전체		10.0	31.0	25.0	25.0	9.0	0.0	100.0
성별	남자	8.7	29.0	26.1	24.6	11.6	0.0	100.0
	여자	12.9	35.5	22.6	25.8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36.7	23.3	23.3	3.3	0.0	100.0
	사회계열	12.2	34.1	26.8	19.5	7.3	0.0	100.0
	보건계열	3.4	20.7	24.1	34.5	17.2	0.0	100.0
소속별	대학	8.8	27.9	25.0	25.0	13.2	0.0	100.0
	연구기관	12.5	37.5	25.0	25.0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23.5	23.5	29.4	5.9	0.0	100.0
	중도	3.0	27.3	24.2	24.2	21.2	0.0	100.0
	진보	12.0	36.0	26.0	24.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2.451$, 전공별 $\chi^2=8.267$, 소속별 $\chi^2=5.171$, 정치적 성향별 $\chi^2=12.23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 귀하는 가난한 이유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계
전체		0.0	8.0	22.0	33.0	32.0	5.0	100.0
성별	남자	0.0	11.6	17.4	33.3	33.3	4.3	100.0
	여자	0.0	0.0	32.3	32.3	29.0	6.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10.0	40.0	30.0	13.3	6.7	100.0
	사회계열	0.0	2.4	12.2	24.4	53.7	7.3	100.0
	보건계열	0.0	13.8	17.2	48.3	20.7	0.0	100.0
소속별	대학	0.0	10.3	19.1	33.8	32.4	4.4	100.0
	연구기관	0.0	3.1	28.1	31.3	31.3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23.5	47.1	17.6	11.8	0.0	100.0
	중도	0.0	12.1	30.3	45.5	6.1	6.1	100.0
	진보	0.0	0.0	8.0	30.0	56.0	6.0	100.0

주: 1) 성별 $\chi^2=6.064$, 전공별 $\chi^2=25.006$, 소속별 $\chi^2=2.399$, 정치적 성향별 $\chi^2=42.20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
5년 전(2013년)

(단위: %)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전체		5.0	6.0	13.0	20.0	17.0	20.0	9.0	6.0	3.0	1.0	0.0	100.0
성별	남자	5.8	5.8	11.6	21.7	15.9	18.8	10.1	7.2	2.9	0.0	0.0	100.0
	여자	3.2	6.5	16.1	16.1	19.4	22.6	6.5	3.2	3.2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6.7	6.7	16.7	23.3	20.0	10.0	10.0	0.0	0.0	0.0	100.0
	사회계열	7.3	7.3	17.1	26.8	9.8	17.1	7.3	2.4	2.4	2.4	0.0	100.0
	보건계열	0.0	3.4	13.8	13.8	20.7	24.1	10.3	6.9	6.9	0.0	0.0	100.0
소속별	대학	4.4	5.9	13.2	17.6	16.2	22.1	10.3	5.9	2.9	1.5	0.0	100.0
	연구기관	6.3	6.3	12.5	25.0	18.8	15.6	6.3	6.3	3.1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5.9	0.0	5.9	23.5	23.5	11.8	17.6	5.9	5.9	0.0	100.0
	중도	3.0	9.1	6.1	12.1	18.2	33.3	6.1	9.1	3.0	0.0	0.0	100.0
	진보	8.0	4.0	22.0	30.0	14.0	10.0	10.0	0.0	2.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4.403$, 전공별 $\chi^2=14.062$, 소속별 $\chi^2=2.158$, 정치적 성향별 $\chi^2=34.29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_
현재(2018년)

(단위: %)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전체		4.0	6.0	11.0	25.0	15.0	15.0	16.0	7.0	0.0	1.0	0.0	100.0
성별	남자	5.8	4.3	11.6	21.7	13.0	13.0	20.3	10.1	0.0	0.0	0.0	100.0
	여자	0.0	9.7	9.7	32.3	19.4	19.4	6.5	0.0	0.0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0.0	16.7	30.0	13.3	13.3	13.3	0.0	0.0	0.0	0.0	100.0
	사회계열	4.9	7.3	7.3	22.0	17.1	14.6	22.0	2.4	0.0	2.4	0.0	100.0
	보건계열	3.4	0.0	10.3	24.1	13.8	17.2	10.3	20.7	0.0	0.0	0.0	100.0
소속별	대학	4.4	2.9	11.8	22.1	16.2	14.7	17.6	8.8	0.0	1.5	0.0	100.0
	연구기관	3.1	12.5	9.4	31.3	12.5	15.6	12.5	3.1	0.0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0.0	17.6	29.4	5.9	5.9	29.4	0.0	0.0	5.9	0.0	100.0
	중도	0.0	6.1	9.1	27.3	12.1	27.3	12.1	6.1	0.0	0.0	0.0	100.0
	진보	6.0	8.0	10.0	22.0	20.0	10.0	14.0	10.0	0.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12.895$, 전공별 $\chi^2=19.146$, 소속별 $\chi^2=6.301$, 정치적 성향별 $\chi^2=20.69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_
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전체		4.0	5.0	15.0	16.0	16.0	13.0	13.0	10.0	7.0	1.0	0.0	100.0
성별	남자	5.8	4.3	13.0	15.9	14.5	11.6	11.6	13.0	10.1	0.0	0.0	100.0
	여자	0.0	6.5	19.4	16.1	19.4	16.1	16.1	3.2	0.0	3.2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10.0	33.3	16.7	16.7	6.7	6.7	6.7	0.0	0.0	0.0	100.0
	사회계열	4.9	4.9	7.3	9.8	22.0	19.5	14.6	12.2	2.4	2.4	0.0	100.0
	보건계열	3.4	0.0	6.9	24.1	6.9	10.3	17.2	10.3	20.7	0.0	0.0	100.0
소속별	대학	4.4	4.4	10.3	14.7	16.2	16.2	14.7	8.8	8.8	1.5	0.0	100.0
	연구기관	3.1	6.3	25.0	18.8	15.6	6.3	9.4	12.5	3.1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5.9	29.4	11.8	0.0	17.6	11.8	11.8	0.0	5.9	0.0	100.0
	중도	0.0	6.1	12.1	12.1	30.3	12.1	15.2	6.1	6.1	0.0	0.0	100.0
	진보	6.0	4.0	12.0	20.0	12.0	12.0	12.0	12.0	10.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10.98$, 전공별 $\chi^2=34.204$, 소속별 $\chi^2=7.5$, 정치적 성향별 $\chi^2=21.48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_
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전체		2.0	6.0	16.0	12.0	13.0	14.0	12.0	11.0	9.0	5.0	0.0	100.0
성별	남자	2.9	5.8	13.0	11.6	13.0	11.6	11.6	13.0	11.6	5.8	0.0	100.0
	여자	0.0	6.5	22.6	12.9	12.9	19.4	12.9	6.5	3.2	3.2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10.0	33.3	13.3	16.7	10.0	6.7	10.0	0.0	0.0	0.0	100.0
	사회계열	2.4	7.3	7.3	12.2	12.2	19.5	17.1	12.2	4.9	4.9	0.0	100.0
	보건계열	3.4	0.0	10.3	10.3	10.3	10.3	10.3	10.3	24.1	10.3	0.0	100.0
소속별	대학	2.9	4.4	14.7	10.3	13.2	13.2	14.7	11.8	8.8	5.9	0.0	100.0
	연구기관	0.0	9.4	18.8	15.6	12.5	15.6	6.3	9.4	9.4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11.8	23.5	5.9	11.8	11.8	11.8	5.9	5.9	5.9	0.0	100.0
	중도	0.0	6.1	9.1	18.2	9.1	27.3	3.0	18.2	3.0	6.1	0.0	100.0
	진보	2.0	4.0	18.0	10.0	16.0	6.0	18.0	8.0	14.0	4.0	0.0	100.0

주: 1) 성별 $\chi^2=5.904$, 전공별 $\chi^2=29.621$, 소속별 $\chi^2=4.418$, 정치적 성향별 $\chi^2=23.08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6〉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26.0	59.0	15.0	0.0	0.0	100.0
성별 +	남자	26.1	53.6	20.3	0.0	0.0	100.0
	여자	25.8	71.0	3.2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20.0	60.0	20.0	0.0	0.0	100.0
	사회계열	29.3	56.1	14.6	0.0	0.0	100.0
	보건계열	27.6	62.1	10.3	0.0	0.0	100.0
소속별	대학	20.6	63.2	16.2	0.0	0.0	100.0
	연구기관	37.5	50.0	12.5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35.3	41.2	23.5	0.0	0.0	100.0
	중도	18.2	57.6	24.2	0.0	0.0	100.0
	진보	28.0	66.0	6.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5.244$, 전공별 $\chi^2=1.644$, 소속별 $\chi^2=3.236$, 정치적 성향별 $\chi^2=8.16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7〉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40.0	53.0	7.0	0.0	0.0	100.0
성별	남자	37.7	52.2	10.1	0.0	0.0	100.0
	여자	45.2	54.8	0.0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40.0	46.7	13.3	0.0	0.0	100.0
	사회계열	46.3	51.2	2.4	0.0	0.0	100.0
	보건계열	31.0	62.1	6.9	0.0	0.0	100.0
소속별	대학	36.8	57.4	5.9	0.0	0.0	100.0
	연구기관	46.9	43.8	9.4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47.1	41.2	11.8	0.0	0.0	100.0
	중도	30.3	54.5	15.2	0.0	0.0	100.0
	진보	44.0	56.0	0.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3.473$, 전공별 $\chi^2=4.634$, 소속별 $\chi^2=1.695$, 정치적 성향별 $\chi^2=8.9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8〉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14.0	64.0	21.0	0.0	1.0	100.0
성별	남자	10.1	65.2	24.6	0.0	0.0	100.0
	여자	22.6	61.3	12.9	0.0	3.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6.7	63.3	30.0	0.0	0.0	100.0
	사회계열	26.8	56.1	14.6	0.0	2.4	100.0
	보건계열	3.4	75.9	20.7	0.0	0.0	100.0
소속별	대학	11.8	64.7	22.1	0.0	1.5	100.0
	연구기관	18.8	62.5	18.8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58.8	35.3	0.0	0.0	100.0
	중도	15.2	57.6	27.3	0.0	0.0	100.0
	진보	16.0	70.0	12.0	0.0	2.0	100.0

주: 1) 성별 $\chi^2=6.043$, 전공별 $\chi^2=12.707$, 소속별 $\chi^2=1.359$, 정치적 성향별 $\chi^2=6.7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9〉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32.0	55.0	12.0	0.0	1.0	100.0
성별	남자	27.5	60.9	10.1	0.0	1.4	100.0
	여자	41.9	41.9	16.1	0.0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3	50.0	13.3	0.0	3.3	100.0
	사회계열	39.0	58.5	2.4	0.0	0.0	100.0
	보건계열	20.7	55.2	24.1	0.0	0.0	100.0
소속별	대학	30.9	58.8	10.3	0.0	0.0	100.0
	연구기관	34.4	46.9	15.6	0.0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9.4	58.8	11.8	0.0	0.0	100.0
	중도	36.4	42.4	18.2	0.0	3.0	100.0
	진보	30.0	62.0	8.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3.868$, 전공별 $\chi^2=11.099$, 소속별 $\chi^2=3.288$, 정치적 성향별 $\chi^2=5.48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0〉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5)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14.0	62.0	23.0	1.0	0.0	100.0
성별 +	남자	10.1	59.4	29.0	1.4	0.0	100.0
	여자	22.6	67.7	9.7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70.0	26.7	0.0	0.0	100.0
	사회계열	19.5	63.4	17.1	0.0	0.0	100.0
	보건계열	17.2	51.7	27.6	3.4	0.0	100.0
소속별	대학	14.7	55.9	27.9	1.5	0.0	100.0
	연구기관	12.5	75.0	12.5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23.5	52.9	23.5	0.0	0.0	100.0
	중도	0.0	66.7	33.3	0.0	0.0	100.0
	진보	20.0	62.0	16.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6.518$, 전공별 $\chi^2=7.877$, 소속별 $\chi^2=4.085$, 정치적 성향별 $\chi^2=10.94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1〉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6)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21.0	43.0	35.0	1.0	0.0	100.0
성별	남자	17.4	43.5	37.7	1.4	0.0	100.0
	여자	29.0	41.9	29.0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43.3	43.3	3.3	0.0	100.0
	사회계열	24.4	48.8	26.8	0.0	0.0	100.0
	보건계열	27.6	34.5	37.9	0.0	0.0	100.0
소속별	대학	16.2	47.1	36.8	0.0	0.0	100.0
	연구기관	31.3	34.4	31.3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9.4	35.3	35.3	0.0	0.0	100.0
	중도	18.2	39.4	42.4	0.0	0.0	100.0
	진보	20.0	48.0	30.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2.299$, 전공별 $\chi^2=7.142$, 소속별 $\chi^2=5.483$, 정치적 성향별 $\chi^2=3.22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2〉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7) 다른 문화와의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17.0	54.0	24.0	3.0	2.0	100.0
성별	남자	13.0	55.1	26.1	4.3	1.4	100.0
	여자	25.8	51.6	19.4	0.0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53.3	30.0	3.3	3.3	100.0
	사회계열	22.0	58.5	19.5	0.0	0.0	100.0
	보건계열	17.2	48.3	24.1	6.9	3.4	100.0
소속별	대학	17.6	54.4	25.0	2.9	0.0	100.0
	연구기관	15.6	53.1	21.9	3.1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9.4	41.2	29.4	0.0	0.0	100.0
	중도	12.1	54.5	24.2	3.0	6.1	100.0
	진보	16.0	58.0	22.0	4.0	0.0	100.0

주: 1) 성별 $\chi^2=4.186$, 전공별 $\chi^2=6.686$, 소속별 $\chi^2=4.4$, 정치적 성향별 $\chi^2=7.72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3〉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_

(8)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선택할 수 없음	계
전체		18.0	53.0	25.0	4.0	0.0	100.0
성별 *	남자	15.9	44.9	33.3	5.8	0.0	100.0
	여자	22.6	71.0	6.5	0.0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6.7	53.3	36.7	3.3	0.0	100.0
	사회계열	29.3	63.4	7.3	0.0	0.0	100.0
	보건계열	13.8	37.9	37.9	10.3	0.0	100.0
소속별	대학	17.6	54.4	23.5	4.4	0.0	100.0
	연구기관	18.8	50.0	28.1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58.8	23.5	5.9	0.0	100.0
	중도	6.1	60.6	33.3	0.0	0.0	100.0
	진보	28.0	46.0	20.0	6.0	0.0	100.0

주: 1) 성별 $\chi^2=11.24$, 전공별 $\chi^2=20.693$, 소속별 $\chi^2=0.369$, 정치적 성향별 $\chi^2=10.09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4〉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십시오_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4.0	17.0	29.0	26.0	24.0	100.0
성별	남자	4.3	20.3	30.4	23.2	21.7	100.0
	여자	3.2	9.7	25.8	32.3	29.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6.7	13.3	36.7	36.7	6.7	100.0
	사회계열	4.9	12.2	29.3	14.6	39.0	100.0
	보건계열	0.0	27.6	20.7	31.0	20.7	100.0
소속별	대학	4.4	19.1	27.9	25.0	23.5	100.0
	연구기관	3.1	12.5	31.3	28.1	25.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23.5	29.4	29.4	11.8	100.0
	중도	3.0	18.2	30.3	36.4	12.1	100.0
	진보	4.0	14.0	28.0	18.0	36.0	100.0

주: 1) 성별 $\chi^2=2.793$, 전공별 $\chi^2=17.155$, 소속별 $\chi^2=0.834$, 정치적 성향별 $\chi^2=9.65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5〉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8.0	17.0	32.0	23.0	20.0	100.0
성별	남자	10.1	17.4	31.9	24.6	15.9	100.0
	여자	3.2	16.1	32.3	19.4	29.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0.0	23.3	53.3	13.3	0.0	100.0
	사회계열	4.9	14.6	14.6	22.0	43.9	100.0
	보건계열	10.3	13.8	34.5	34.5	6.9	100.0
소속별	대학	10.3	20.6	25.0	22.1	22.1	100.0
	연구기관	3.1	9.4	46.9	25.0	15.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23.5	35.3	23.5	5.9	100.0
	중도	9.1	9.1	48.5	18.2	15.2	100.0
	진보	6.0	20.0	20.0	26.0	28.0	100.0

주: 1) 성별 $\chi^2=3.393$, 전공별 $\chi^2=33.156$, 소속별 $\chi^2=6.794$, 정치적 성향별 $\chi^2=11.82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6〉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3)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7.0	11.0	21.0	32.0	29.0	100.0
성별 +	남자	8.7	13.0	21.7	36.2	20.3	100.0
	여자	3.2	6.5	19.4	22.6	48.4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0.0	3.3	33.3	40.0	13.3	100.0
	사회계열	4.9	9.8	12.2	24.4	48.8	100.0
	보건계열	6.9	20.7	20.7	34.5	17.2	100.0
소속별 +	대학	7.4	14.7	14.7	29.4	33.8	100.0
	연구기관	6.3	3.1	34.4	37.5	18.8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11.8	35.3	17.6	23.5	100.0
	중도	6.1	12.1	15.2	39.4	27.3	100.0
	진보	6.0	10.0	20.0	32.0	32.0	100.0

주: 1) 성별 $\chi^2=8.886$, 전공별 $\chi^2=19.325$, 소속별 $\chi^2=8.849$, 정치적 성향별 $\chi^2=4.99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7〉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4)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7.0	12.0	30.0	26.0	25.0	100.0
성별	남자	8.7	14.5	29.0	27.5	20.3	100.0
	여자	3.2	6.5	32.3	22.6	35.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20.0	40.0	20.0	10.0	100.0
	사회계열	4.9	7.3	26.8	24.4	36.6	100.0
	보건계열	6.9	10.3	24.1	34.5	24.1	100.0
소속별	대학	7.4	11.8	27.9	29.4	23.5	100.0
	연구기관	6.3	12.5	34.4	18.8	28.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11.8	41.2	29.4	11.8	100.0
	중도	6.1	12.1	27.3	33.3	21.2	100.0
	진보	8.0	12.0	28.0	20.0	32.0	100.0

주: 1) 성별 $\chi^2 = 4.32$, 전공별 $\chi^2 = 10.704$, 소속별 $\chi^2 = 1.483$, 정치적 성향별 $\chi^2 = 4.81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8〉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10.0	21.0	26.0	29.0	14.0	100.0
성별 *	남자	13.0	24.6	24.6	30.4	7.2	100.0
	여자	3.2	12.9	29.0	25.8	29.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20.0	26.7	33.3	13.3	6.7	100.0
	사회계열	4.9	12.2	24.4	34.1	24.4	100.0
	보건계열	6.9	27.6	20.7	37.9	6.9	100.0
소속별	대학	10.3	25.0	22.1	27.9	14.7	100.0
	연구기관	9.4	12.5	34.4	31.3	12.5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35.3	23.5	11.8	11.8	100.0
	중도	9.1	24.2	27.3	27.3	12.1	100.0
	진보	8.0	14.0	26.0	36.0	16.0	100.0

주: 1) 성별 $\chi^2 = 11.033$, 전공별 $\chi^2 = 16.973$, 소속별 $\chi^2 = 3.065$, 정치적 성향별 $\chi^2 = 7.17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29〉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6)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10.0	21.0	28.0	25.0	16.0	100.0
성별 +	남자	13.0	26.1	21.7	24.6	14.5	100.0
	여자	3.2	9.7	41.9	25.8	19.4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30.0	36.7	13.3	6.7	100.0
	사회계열	7.3	12.2	24.4	31.7	24.4	100.0
	보건계열	10.3	24.1	24.1	27.6	13.8	100.0
소속별	대학	11.8	23.5	23.5	23.5	17.6	100.0
	연구기관	6.3	15.6	37.5	28.1	12.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7.6	29.4	35.3	17.6	0.0	100.0
	중도	12.1	15.2	42.4	18.2	12.1	100.0
	진보	6.0	22.0	16.0	32.0	24.0	100.0

주: 1) 성별 $\chi^2=8.248$, 전공별 $\chi^2=10.563$, 소속별 $\chi^2=3.37$, 정치적 성향별 $\chi^2=15.41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0〉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7)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9.0	24.0	30.0	24.0	13.0	100.0
성별	남자	11.6	27.5	30.4	20.3	10.1	100.0
	여자	3.2	16.1	29.0	32.3	19.4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20.0	46.7	10.0	10.0	100.0
	사회계열	7.3	22.0	19.5	34.1	17.1	100.0
	보건계열	6.9	31.0	27.6	24.1	10.3	100.0
소속별	대학	11.8	26.5	25.0	23.5	13.2	100.0
	연구기관	3.1	18.8	40.6	25.0	12.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7.6	35.3	23.5	23.5	0.0	100.0
	중도	9.1	21.2	45.5	9.1	15.2	100.0
	진보	6.0	22.0	22.0	34.0	16.0	100.0

주: 1) 성별 $\chi^2=5.51$, 전공별 $\chi^2=11.202$, 소속별 $\chi^2=4.145$, 정치적 성향별 $\chi^2=14.75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1〉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8)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15.0	30.0	35.0	17.0	3.0	100.0
성별	남자	14.5	33.3	36.2	14.5	1.4	100.0
	여자	16.1	22.6	32.3	22.6	6.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26.7	46.7	23.3	0.0	3.3	100.0
	사회계열	12.2	19.5	36.6	29.3	2.4	100.0
	보건계열	6.9	27.6	44.8	17.2	3.4	100.0
소속별	대학	11.8	30.9	33.8	20.6	2.9	100.0
	연구기관	21.9	28.1	37.5	9.4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23.5	41.2	17.6	0.0	100.0
	중도	12.1	33.3	39.4	12.1	3.0	100.0
	진보	16.0	30.0	30.0	20.0	4.0	100.0

주: 1) 성별 $\chi^2 = 3.566$, 전공별 $\chi^2 = 19.345$, 소속별 $\chi^2 = 3.234$, 정치적 성향별 $\chi^2 = 2.78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2〉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9)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5.0	15.0	20.0	20.0	40.0	100.0
성별 *	남자	7.2	20.3	20.3	20.3	31.9	100.0
	여자	0.0	3.2	19.4	19.4	58.1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0.0	16.7	33.3	23.3	16.7	100.0
	사회계열	2.4	9.8	17.1	17.1	53.7	100.0
	보건계열	3.4	20.7	10.3	20.7	44.8	100.0
소속별	대학	5.9	16.2	19.1	17.6	41.2	100.0
	연구기관	3.1	12.5	21.9	25.0	37.5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17.6	17.6	58.8	100.0
	중도	6.1	15.2	24.2	15.2	39.4	100.0
	진보	6.0	18.0	18.0	24.0	34.0	100.0

주: 1) 성별 $\chi^2 = 10.083$, 전공별 $\chi^2 = 14.318$, 소속별 $\chi^2 = 1.271$, 정치적 성향별 $\chi^2 = 5.50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3〉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10)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_현재(201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8.0	10.0	20.0	32.0	30.0	100.0
성별	남자	10.1	13.0	20.3	31.9	24.6	100.0
	여자	3.2	3.2	19.4	32.3	41.9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16.7	36.7	33.3	10.0	100.0
	사회계열	7.3	2.4	17.1	24.4	48.8	100.0
	보건계열	13.8	13.8	6.9	41.4	24.1	100.0
소속별	대학	11.8	10.3	16.2	29.4	32.4	100.0
	연구기관	0.0	9.4	28.1	37.5	25.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5.9	17.6	35.3	35.3	100.0
	중도	12.1	9.1	24.2	30.3	24.2	100.0
	진보	6.0	12.0	18.0	32.0	32.0	100.0

주: 1) 성별 $\chi^2 = 5.485$, 전공별 $\chi^2 = 23.692$, 소속별 $\chi^2 = 6.173$, 정치적 성향별 $\chi^2 = 2.68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4〉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2.0	8.0	30.0	32.0	28.0	100.0
성별	남자	1.4	8.7	30.4	34.8	24.6	100.0
	여자	3.2	6.5	29.0	25.8	35.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13.3	40.0	40.0	6.7	100.0
	사회계열	4.9	7.3	17.1	24.4	46.3	100.0
	보건계열	0.0	3.4	37.9	34.5	24.1	100.0
소속별	대학	2.9	7.4	26.5	33.8	29.4	100.0
	연구기관	0.0	9.4	37.5	28.1	25.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11.8	41.2	29.4	11.8	100.0
	중도	0.0	9.1	33.3	39.4	18.2	100.0
	진보	2.0	6.0	24.0	28.0	40.0	100.0

주: 1) 성별 $\chi^2 = 1.923$, 전공별 $\chi^2 = 19.966$, 소속별 $\chi^2 = 2.307$, 정치적 성향별 $\chi^2 = 10.12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5〉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십시오.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3.0	10.0	31.0	29.0	27.0	100.0
성별	남자	2.9	8.7	34.8	30.4	23.2	100.0
	여자	3.2	12.9	22.6	25.8	35.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13.3	43.3	36.7	3.3	100.0
	사회계열	4.9	7.3	17.1	19.5	51.2	100.0
	보건계열	0.0	10.3	37.9	34.5	17.2	100.0
소속별	대학	4.4	11.8	30.9	25.0	27.9	100.0
	연구기관	0.0	6.3	31.3	37.5	25.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17.6	47.1	17.6	11.8	100.0
	중도	3.0	9.1	33.3	33.3	21.2	100.0
	진보	2.0	8.0	24.0	30.0	36.0	100.0

주: 1) 성별 $\chi^2 = 2.769$, 전공별 $\chi^2 = 24.817$, 소속별 $\chi^2 = 3.317$, 정치적 성향별 $\chi^2 = 8.47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6〉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십시오. (3)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3.0	9.0	22.0	35.0	31.0	100.0
성별	남자	2.9	11.6	23.2	39.1	23.2	100.0
	여자	3.2	3.2	19.4	25.8	48.4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0.0	26.7	43.3	16.7	100.0
	사회계열	4.9	4.9	17.1	24.4	48.8	100.0
	보건계열	0.0	13.8	24.1	41.4	20.7	100.0
소속별	대학	4.4	8.8	20.6	32.4	33.8	100.0
	연구기관	0.0	9.4	25.0	40.6	25.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23.5	29.4	17.6	23.5	100.0
	중도	3.0	6.1	24.2	39.4	27.3	100.0
	진보	2.0	6.0	18.0	38.0	36.0	100.0

주: 1) 성별 $\chi^2 = 7.281$, 전공별 $\chi^2 = 13.135$, 소속별 $\chi^2 = 2.584$, 정치적 성향별 $\chi^2 = 8.93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7〉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4)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5.0	9.0	36.0	22.0	28.0	100.0
성별	남자	5.8	10.1	39.1	21.7	23.2	100.0
	여자	3.2	6.5	29.0	22.6	38.7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20.0	40.0	23.3	10.0	100.0
	사회계열	4.9	4.9	29.3	19.5	41.5	100.0
	보건계열	3.4	3.4	41.4	24.1	27.6	100.0
소속별	대학	4.4	7.4	39.7	20.6	27.9	100.0
	연구기관	6.3	12.5	28.1	25.0	28.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11.8	41.2	29.4	11.8	100.0
	중도	3.0	12.1	30.3	27.3	27.3	100.0
	진보	6.0	6.0	38.0	16.0	34.0	100.0

주: 1) 성별 $\chi^2=3.06$, 전공별 $\chi^2=13.318$, 소속별 $\chi^2=1.791$, 정치적 성향별 $\chi^2=5.77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8〉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4.0	16.0	24.0	36.0	20.0	100.0
성별 *	남자	4.3	18.8	26.1	39.1	11.6	100.0
	여자	3.2	9.7	19.4	29.0	38.7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6.7	30.0	30.0	26.7	6.7	100.0
	사회계열	4.9	4.9	17.1	46.3	26.8	100.0
	보건계열	0.0	17.2	27.6	31.0	24.1	100.0
소속별	대학	4.4	14.7	25.0	36.8	19.1	100.0
	연구기관	3.1	18.8	21.9	34.4	21.9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35.3	29.4	5.9	17.6	100.0
	중도	3.0	15.2	18.2	45.5	18.2	100.0
	진보	2.0	10.0	26.0	40.0	22.0	100.0

주: 1) 성별 $\chi^2=10.063$, 전공별 $\chi^2=16.084$, 소속별 $\chi^2=0.518$, 정치적 성향별 $\chi^2=14.51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39〉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십시오. (6)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6.0	21.0	23.0	31.0	19.0	100.0
성별 +	남자	7.2	27.5	18.8	30.4	15.9	100.0
	여자	3.2	6.5	32.3	32.3	25.8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33.3	26.7	20.0	10.0	100.0
	사회계열	4.9	12.2	22.0	31.7	29.3	100.0
	보건계열	3.4	20.7	20.7	41.4	13.8	100.0
소속별	대학	7.4	22.1	22.1	30.9	17.6	100.0
	연구기관	3.1	18.8	25.0	31.3	21.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35.3	35.3	17.6	0.0	100.0
	중도	9.1	18.2	21.2	36.4	15.2	100.0
	진보	2.0	18.0	20.0	32.0	28.0	100.0

주: 1) 성별 $\chi^2=7.897$, 전공별 $\chi^2=11.304$, 소속별 $\chi^2=1.049$, 정치적 성향별 $\chi^2=13.07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0〉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십시오. (7)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5.0	15.0	33.0	26.0	21.0	100.0
성별 +	남자	5.8	18.8	29.0	30.4	15.9	100.0
	여자	3.2	6.5	41.9	16.1	32.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13.3	33.3	33.3	10.0	100.0
	사회계열	2.4	17.1	26.8	22.0	31.7	100.0
	보건계열	3.4	13.8	41.4	24.1	17.2	100.0
소속별	대학	7.4	14.7	32.4	25.0	20.6	100.0
	연구기관	0.0	15.6	34.4	28.1	21.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35.3	23.5	29.4	0.0	100.0
	중도	6.1	9.1	36.4	24.2	24.2	100.0
	진보	2.0	12.0	34.0	26.0	26.0	100.0

주: 1) 성별 $\chi^2=7.954$, 전공별 $\chi^2=8.549$, 소속별 $\chi^2=2.491$, 정치적 성향별 $\chi^2=13.30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1〉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8)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6.0	22.0	36.0	30.0	6.0	100.0
성별	남자	7.2	21.7	34.8	33.3	2.9	100.0
	여자	3.2	22.6	38.7	22.6	12.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40.0	33.3	13.3	3.3	100.0
	사회계열	2.4	17.1	36.6	36.6	7.3	100.0
	보건계열	6.9	10.3	37.9	37.9	6.9	100.0
소속별	대학	7.4	17.6	35.3	33.8	5.9	100.0
	연구기관	3.1	31.3	37.5	21.9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17.6	35.3	23.5	5.9	100.0
	중도	9.1	15.2	33.3	36.4	6.1	100.0
	진보	0.0	28.0	38.0	28.0	6.0	100.0

주: 1) 성별 $\chi^2=5.068$, 전공별 $\chi^2=12.951$, 소속별 $\chi^2=3.548$, 정치적 성향별 $\chi^2=9.9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2〉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9) 범좌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2.0	8.0	18.0	30.0	42.0	100.0
성별 +	남자	2.9	11.6	18.8	33.3	33.3	100.0
	여자	0.0	0.0	16.1	22.6	61.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3.3	23.3	40.0	20.0	100.0
	사회계열	0.0	7.3	14.6	22.0	56.1	100.0
	보건계열	3.4	3.4	17.2	31.0	44.8	100.0
소속별	대학	2.9	7.4	20.6	26.5	42.6	100.0
	연구기관	0.0	9.4	12.5	37.5	40.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11.8	29.4	52.9	100.0
	중도	6.1	0.0	24.2	27.3	42.4	100.0
	진보	0.0	14.0	16.0	32.0	38.0	100.0

주: 1) 성별 $\chi^2=9.385$, 전공별 $\chi^2=11.322$, 소속별 $\chi^2=2.747$, 정치적 성향별 $\chi^2=11.06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3〉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10)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_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3.0	9.0	17.0	32.0	39.0	100.0
성별	남자	4.3	13.0	18.8	29.0	34.8	100.0
	여자	0.0	0.0	12.9	38.7	48.4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6.7	26.7	50.0	13.3	100.0
	사회계열	0.0	7.3	9.8	26.8	56.1	100.0
	보건계열	6.9	13.8	17.2	20.7	41.4	100.0
소속별 *	대학	4.4	13.2	17.6	23.5	41.2	100.0
	연구기관	0.0	0.0	15.6	50.0	34.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1.8	11.8	35.3	41.2	100.0
	중도	6.1	12.1	12.1	30.3	39.4	100.0
	진보	2.0	6.0	22.0	32.0	38.0	100.0

주: 1) 성별 $\chi^2=7.482$, 전공별 $\chi^2=19.397$, 소속별 $\chi^2=10.722$, 정치적 성향별 $\chi^2=4.30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4〉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2.0	9.0	21.0	33.0	35.0	100.0
성별	남자	1.4	8.7	20.3	37.7	31.9	100.0
	여자	3.2	9.7	22.6	22.6	41.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10.0	30.0	43.3	16.7	100.0
	사회계열	2.4	9.8	12.2	24.4	51.2	100.0
	보건계열	3.4	6.9	24.1	34.5	31.0	100.0
소속별	대학	2.9	8.8	20.6	33.8	33.8	100.0
	연구기관	0.0	9.4	21.9	31.3	37.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11.8	35.3	11.8	29.4	100.0
	중도	0.0	12.1	18.2	48.5	21.2	100.0
	진보	0.0	6.0	18.0	30.0	46.0	100.0

주: 1) 성별 $\chi^2=2.509$, 전공별 $\chi^2=11.956$, 소속별 $\chi^2=1.093$, 정치적 성향별 $\chi^2=21.28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5〉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5.0	10.0	22.0	24.0	39.0	100.0
성별	남자	5.8	7.2	23.2	27.5	36.2	100.0
	여자	3.2	16.1	19.4	16.1	45.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10.0	36.7	33.3	16.7	100.0
	사회계열	4.9	9.8	9.8	17.1	58.5	100.0
	보건계열	6.9	10.3	24.1	24.1	34.5	100.0
소속별	대학	7.4	11.8	23.5	22.1	35.3	100.0
	연구기관	0.0	6.3	18.8	28.1	46.9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23.5	35.3	11.8	17.6	100.0
	중도	9.1	6.1	21.2	30.3	33.3	100.0
	진보	0.0	8.0	18.0	24.0	50.0	100.0

주: 1) 성별 $\chi^2=3.71$, 전공별 $\chi^2=16.08$, 소속별 $\chi^2=4.323$, 정치적 성향별 $\chi^2=16.1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6〉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3)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3.0	12.0	17.0	30.0	38.0	100.0
성별 +	남자	1.4	11.6	20.3	36.2	30.4	100.0
	여자	6.5	12.9	9.7	16.1	54.8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10.0	26.7	33.3	30.0	100.0
	사회계열	4.9	9.8	12.2	22.0	51.2	100.0
	보건계열	3.4	17.2	13.8	37.9	27.6	100.0
소속별	대학	4.4	13.2	13.2	32.4	36.8	100.0
	연구기관	0.0	9.4	25.0	25.0	40.6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23.5	23.5	17.6	23.5	100.0
	중도	3.0	12.1	9.1	42.4	33.3	100.0
	진보	0.0	8.0	20.0	26.0	46.0	100.0

주: 1) 성별 $\chi^2=9.466$, 전공별 $\chi^2=9.542$, 소속별 $\chi^2=3.931$, 정치적 성향별 $\chi^2=15.10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7〉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4) 차별 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5.0	13.0	28.0	24.0	30.0	100.0
성별	남자	5.8	11.6	29.0	29.0	24.6	100.0
	여자	3.2	16.1	25.8	12.9	41.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20.0	30.0	26.7	16.7	100.0
	사회계열	2.4	17.1	19.5	22.0	39.0	100.0
	보건계열	6.9	0.0	37.9	24.1	31.0	100.0
소속별	대학	4.4	10.3	30.9	26.5	27.9	100.0
	연구기관	6.3	18.8	21.9	18.8	34.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11.8	47.1	17.6	11.8	100.0
	중도	3.0	15.2	18.2	27.3	36.4	100.0
	진보	4.0	12.0	28.0	24.0	32.0	100.0

주: 1) 성별 $\chi^2=5.137$, 전공별 $\chi^2=11.518$, 소속별 $\chi^2=2.815$, 정치적 성향별 $\chi^2=8.25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8〉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명,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4.0	11.0	25.0	29.0	31.0	100.0
성별	남자	4.3	13.0	24.6	31.9	26.1	100.0
	여자	3.2	6.5	25.8	22.6	41.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16.7	30.0	30.0	16.7	100.0
	사회계열	2.4	7.3	22.0	29.3	39.0	100.0
	보건계열	3.4	10.3	24.1	27.6	34.5	100.0
소속별	대학	4.4	13.2	26.5	29.4	26.5	100.0
	연구기관	3.1	6.3	21.9	28.1	40.6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7.6	29.4	23.5	11.8	17.6	100.0
	중도	3.0	9.1	21.2	36.4	30.3	100.0
	진보	0.0	6.0	28.0	30.0	36.0	100.0

주: 1) 성별 $\chi^2=3.295$, 전공별 $\chi^2=5.643$, 소속별 $\chi^2=2.658$, 정치적 성향별 $\chi^2=20.62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49〉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6)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7.0	17.0	27.0	28.0	21.0	100.0
성별	남자	8.7	18.8	27.5	29.0	15.9	100.0
	여자	3.2	12.9	25.8	25.8	32.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30.0	23.3	20.0	16.7	100.0
	사회계열	4.9	7.3	26.8	34.1	26.8	100.0
	보건계열	6.9	17.2	31.0	27.6	17.2	100.0
소속별	대학	8.8	19.1	27.9	26.5	17.6	100.0
	연구기관	3.1	12.5	25.0	31.3	28.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23.5	29.4	23.5	11.8	11.8	100.0
	중도	9.1	15.2	21.2	33.3	21.2	100.0
	진보	0.0	14.0	32.0	30.0	24.0	100.0

주: 1) 성별 $\chi^2=4.17$, 전공별 $\chi^2=8.587$, 소속별 $\chi^2=2.955$, 정치적 성향별 $\chi^2=16.07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0〉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_ (7)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5.0	12.0	26.0	28.0	29.0	100.0
성별	남자	5.8	13.0	21.7	31.9	27.5	100.0
	여자	3.2	9.7	35.5	19.4	32.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10.0	26.7	26.7	26.7	100.0
	사회계열	2.4	12.2	26.8	24.4	34.1	100.0
	보건계열	3.4	13.8	24.1	34.5	24.1	100.0
소속별	대학	7.4	14.7	20.6	30.9	26.5	100.0
	연구기관	0.0	6.3	37.5	21.9	34.4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23.5	17.6	23.5	29.4	5.9	100.0
	중도	3.0	12.1	21.2	30.3	33.3	100.0
	진보	0.0	10.0	30.0	26.0	34.0	100.0

주: 1) 성별 $\chi^2=3.403$, 전공별 $\chi^2=3.723$, 소속별 $\chi^2=7.143$, 정치적 성향별 $\chi^2=19.61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1〉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8)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_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7.0	16.0	30.0	28.0	19.0	100.0
성별	남자	8.7	11.6	29.0	33.3	17.4	100.0
	여자	3.2	25.8	32.3	16.1	22.6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26.7	26.7	23.3	13.3	100.0
	사회계열	2.4	12.2	36.6	26.8	22.0	100.0
	보건계열	10.3	10.3	24.1	34.5	20.7	100.0
소속별	대학	8.8	16.2	30.9	26.5	17.6	100.0
	연구기관	3.1	15.6	28.1	31.3	21.9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29.4	11.8	23.5	17.6	17.6	100.0
	중도	6.1	12.1	33.3	30.3	18.2	100.0
	진보	0.0	20.0	30.0	30.0	20.0	100.0

주: 1) 성별 $\chi^2=6.255$, 전공별 $\chi^2=7.615$, 소속별 $\chi^2=1.451$, 정치적 성향별 $\chi^2=17.93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2〉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시시오. (9) 범죄·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_20년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1.0	6.0	18.0	23.0	52.0	100.0
성별	남자	1.4	8.7	17.4	30.4	42.0	100.0
	여자	0.0	0.0	19.4	6.5	74.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13.3	20.0	30.0	36.7	100.0
	사회계열	0.0	2.4	19.5	17.1	61.0	100.0
	보건계열	3.4	3.4	13.8	24.1	55.2	100.0
소속별	대학	1.5	7.4	19.1	25.0	47.1	100.0
	연구기관	0.0	3.1	15.6	18.8	62.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5.9	17.6	23.5	52.9	100.0
	중도	3.0	3.0	21.2	21.2	51.5	100.0
	진보	0.0	8.0	16.0	24.0	52.0	100.0

주: 1) 성별 $\chi^2=12.796$, 전공별 $\chi^2=10.052$, 소속별 $\chi^2=2.634$, 정치적 성향별 $\chi^2=3.22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3〉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
(전망)해주십시오. (10)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_20년후(2038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계
전체		3.0	8.0	17.0	22.0	50.0	100.0
성별	남자	4.3	11.6	17.4	23.2	43.5	100.0
	여자	0.0	0.0	16.1	19.4	64.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10.0	16.7	36.7	36.7	100.0
	사회계열	2.4	4.9	19.5	12.2	61.0	100.0
	보건계열	6.9	10.3	13.8	20.7	48.3	100.0
소속별	대학	2.9	11.8	20.6	17.6	47.1	100.0
	연구기관	3.1	0.0	9.4	31.3	5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1.8	17.6	23.5	47.1	100.0
	중도	3.0	12.1	6.1	24.2	54.5	100.0
	진보	4.0	4.0	24.0	20.0	48.0	100.0

주: 1) 성별 $\chi^2=6.998$, 전공별 $\chi^2=10.408$, 소속별 $\chi^2=7.574$, 정치적 성향별 $\chi^2=6.83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4〉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5
년 전(2013년)_1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환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52.0	3.0	12.0	5.0	13.0	2.0	4.0	2.0	0.0	7.0	100.0
성별	남자	46.4	2.9	11.6	7.2	15.9	2.9	5.8	1.4	0.0	5.8	100.0
	여자	64.5	3.2	12.9	0.0	6.5	0.0	0.0	3.2	0.0	9.7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6.7	6.7	16.7	6.7	20.0	3.3	3.3	0.0	0.0	6.7	100.0
	사회계열	65.9	2.4	7.3	2.4	4.9	0.0	7.3	0.0	0.0	9.8	100.0
	보건계열	48.3	0.0	13.8	6.9	17.2	3.4	0.0	6.9	0.0	3.4	100.0
소속별	대학	58.8	2.9	10.3	4.4	10.3	1.5	2.9	2.9	0.0	5.9	100.0
	연구기관	37.5	3.1	15.6	6.3	18.8	3.1	6.3	0.0	0.0	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7.1	5.9	5.9	5.9	11.8	5.9	0.0	5.9	0.0	11.8	100.0
	중도	45.5	3.0	18.2	3.0	21.2	0.0	3.0	3.0	0.0	3.0	100.0
	진보	58.0	2.0	10.0	6.0	8.0	2.0	6.0	0.0	0.0	8.0	100.0

주: 1) 성별 $\chi^2=8.613$, 전공별 $\chi^2=20.682$, 소속별 $\chi^2=5.978$, 정치적 성향별 $\chi^2=13.1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5〉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5년 전(2013년)_2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환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17.0	18.0	29.0	2.0	12.0	6.0	8.0	2.0	0.0	6.0	100.0
성별 *	남자	15.9	18.8	37.7	2.9	7.2	7.2	4.3	2.9	0.0	2.9	100.0
	여자	19.4	16.1	9.7	0.0	22.6	3.2	16.1	0.0	0.0	12.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6.7	10.0	43.3	0.0	13.3	6.7	3.3	3.3	0.0	3.3	100.0
	사회계열	14.6	17.1	29.3	4.9	17.1	2.4	7.3	0.0	0.0	7.3	100.0
	보건계열	20.7	27.6	13.8	0.0	3.4	10.3	13.8	3.4	0.0	6.9	100.0
소속별	대학	14.7	23.5	26.5	2.9	13.2	5.9	7.4	1.5	0.0	4.4	100.0
	연구기관	21.9	6.3	34.4	0.0	9.4	6.3	9.4	3.1	0.0	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11.8	23.5	0.0	23.5	5.9	5.9	0.0	0.0	11.8	100.0
	중도	18.2	12.1	27.3	3.0	9.1	6.1	15.2	3.0	0.0	6.1	100.0
	진보	16.0	24.0	32.0	2.0	10.0	6.0	4.0	2.0	0.0	4.0	100.0

주: 1) 성별 $\chi^2=19.862$, 전공별 $\chi^2=18.706$, 소속별 $\chi^2=7.255$, 정치적 성향별 $\chi^2=10.2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6〉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5년 전(2013년)_3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환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7.0	10.0	16.0	13.0	11.0	23.0	3.0	10.0	3.0	4.0	100.0
성별	남자	7.2	13.0	13.0	11.6	13.0	21.7	1.4	11.6	4.3	2.9	100.0
	여자	6.5	3.2	22.6	16.1	6.5	25.8	6.5	6.5	0.0	6.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6.7	10.0	10.0	13.3	13.3	10.0	3.3	16.7	3.3	3.3	100.0
	사회계열	2.4	9.8	22.0	4.9	17.1	26.8	2.4	7.3	2.4	4.9	100.0
	보건계열	3.4	10.3	13.8	24.1	0.0	31.0	3.4	6.9	3.4	3.4	100.0
소속별	대학	5.9	8.8	17.6	10.3	10.3	22.1	4.4	11.8	4.4	4.4	100.0
	연구기관	9.4	12.5	12.5	18.8	12.5	25.0	0.0	6.3	0.0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5.9	11.8	11.8	5.9	23.5	0.0	23.5	5.9	0.0	100.0
	중도	6.1	12.1	15.2	15.2	3.0	21.2	3.0	15.2	6.1	3.0	100.0
	진보	6.0	10.0	18.0	12.0	18.0	24.0	4.0	2.0	0.0	6.0	100.0

주: 1) 성별 $\chi^2=9.007$, 전공별 $\chi^2=22.455$, 소속별 $\chi^2=5.984$, 정치적 성향별 $\chi^2=18.33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7〉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현재(2018년)_1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69.0	9.0	5.0	3.0	1.0	4.0	5.0	0.0	2.0	2.0	100.0
성별	남자	69.6	7.2	5.8	2.9	1.4	2.9	5.8	0.0	2.9	1.4	100.0
	여자	67.7	12.9	3.2	3.2	0.0	6.5	3.2	0.0	0.0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0.0	6.7	6.7	3.3	0.0	6.7	13.3	0.0	3.3	0.0	100.0
	사회계열	80.5	7.3	4.9	2.4	0.0	0.0	0.0	0.0	2.4	2.4	100.0
	보건계열	62.1	13.8	3.4	3.4	3.4	6.9	3.4	0.0	0.0	3.4	100.0
소속별	대학	73.5	10.3	5.9	1.5	1.5	1.5	2.9	0.0	1.5	1.5	100.0
	연구기관	59.4	6.3	3.1	6.3	0.0	9.4	9.4	0.0	3.1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7.1	5.9	5.9	5.9	5.9	11.8	5.9	0.0	0.0	11.8	100.0
	중도	66.7	9.1	12.1	3.0	0.0	3.0	6.1	0.0	0.0	0.0	100.0
	진보	78.0	10.0	0.0	2.0	0.0	2.0	4.0	0.0	4.0	0.0	100.0

주: 1) 성별 $\chi^2=3.705$, 전공별 $\chi^2=16.186$, 소속별 $\chi^2=9.282$, 정치적 성향별 $\chi^2=28.53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8〉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현재(2018년)_2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15.0	17.0	15.0	7.0	11.0	15.0	4.0	2.0	6.0	8.0	100.0
성별	남자	14.5	20.3	20.3	4.3	8.7	15.9	2.9	1.4	4.3	7.2	100.0
	여자	16.1	9.7	3.2	12.9	16.1	12.9	6.5	3.2	9.7	9.7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6.7	6.7	26.7	6.7	6.7	20.0	3.3	0.0	3.3	10.0	100.0
	사회계열	12.2	22.0	12.2	4.9	17.1	12.2	4.9	0.0	9.8	4.9	100.0
	보건계열	17.2	20.7	6.9	10.3	6.9	13.8	3.4	6.9	3.4	10.3	100.0
소속별	대학	13.2	22.1	16.2	8.8	10.3	13.2	4.4	1.5	5.9	4.4	100.0
	연구기관	18.8	6.3	12.5	3.1	12.5	18.8	3.1	3.1	6.3	15.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5	11.8	5.9	11.8	0.0	17.6	0.0	5.9	11.8	11.8	100.0
	중도	12.1	15.2	18.2	6.1	15.2	15.2	9.1	3.0	0.0	6.1	100.0
	진보	14.0	20.0	16.0	6.0	12.0	14.0	2.0	0.0	8.0	8.0	100.0

주: 1) 성별 $\chi^2=11.234$, 전공별 $\chi^2=18.602$, 소속별 $\chi^2=9.196$, 정치적 성향별 $\chi^2=15.53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59〉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현재(2018년)_3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4.0	8.0	14.0	9.0	13.0	18.0	5.0	2.0	23.0	4.0	100.0
성별	남자	5.8	7.2	11.6	11.6	13.0	20.3	4.3	2.9	20.3	2.9	100.0
	여자	0.0	9.7	19.4	3.2	12.9	12.9	6.5	0.0	29.0	6.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13.3	6.7	10.0	16.7	16.7	6.7	3.3	16.7	3.3	100.0
	사회계열	2.4	7.3	26.8	2.4	17.1	12.2	2.4	2.4	22.0	4.9	100.0
	보건계열	3.4	3.4	3.4	17.2	3.4	27.6	6.9	0.0	31.0	3.4	100.0
소속별	대학	4.4	4.4	19.1	5.9	14.7	19.1	4.4	1.5	22.1	4.4	100.0
	연구기관	3.1	15.6	3.1	15.6	9.4	15.6	6.3	3.1	25.0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5.9	5.9	5.9	5.9	17.6	5.9	5.9	23.5	5.9	100.0
	중도	0.0	12.1	15.2	12.1	9.1	21.2	3.0	0.0	27.3	0.0	100.0
	진보	2.0	6.0	16.0	8.0	18.0	16.0	6.0	2.0	20.0	6.0	100.0

주: 1) 성별 $\chi^2=7.662$, 전공별 $\chi^2=23.545$, 소속별 $\chi^2=11.02$, 정치적 성향별 $\chi^2=19.41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0〉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5년 후(2023년)_1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50.0	10.0	0.0	7.0	3.0	22.0	1.0	0.0	6.0	1.0	100.0
성별	남자	47.8	10.1	0.0	7.2	4.3	21.7	1.4	0.0	5.8	1.4	100.0
	여자	54.8	9.7	0.0	6.5	0.0	22.6	0.0	0.0	6.5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43.3	13.3	0.0	10.0	0.0	26.7	3.3	0.0	3.3	0.0	100.0
	사회계열	61.0	14.6	0.0	4.9	2.4	9.8	0.0	0.0	4.9	2.4	100.0
	보건계열	41.4	0.0	0.0	6.9	6.9	34.5	0.0	0.0	10.3	0.0	100.0
소속별	대학	50.0	11.8	0.0	7.4	4.4	17.6	0.0	0.0	7.4	1.5	100.0
	연구기관	50.0	6.3	0.0	6.3	0.0	31.3	3.1	0.0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35.3	11.8	0.0	5.9	5.9	29.4	0.0	0.0	5.9	5.9	100.0
	중도	48.5	3.0	0.0	9.1	6.1	27.3	3.0	0.0	3.0	0.0	100.0
	진보	56.0	14.0	0.0	6.0	0.0	16.0	0.0	0.0	8.0	0.0	100.0

주: 1) 성별 $\chi^2=2.503$, 전공별 $\chi^2=19.131$, 소속별 $\chi^2=7.185$, 정치적 성향별 $\chi^2=16.26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1〉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5년 후(2023년)_2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13.0	14.0	11.0	11.0	6.0	23.0	5.0	2.0	11.0	4.0	100.0
성별	남자	14.5	14.5	15.9	11.6	4.3	23.2	2.9	1.4	10.1	1.4	100.0
	여자	9.7	12.9	0.0	9.7	9.7	22.6	9.7	3.2	12.9	9.7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6.7	6.7	13.3	10.0	13.3	20.0	6.7	0.0	13.3	0.0	100.0
	사회계열	7.3	12.2	9.8	7.3	4.9	34.1	4.9	2.4	9.8	7.3	100.0
	보건계열	17.2	24.1	10.3	17.2	0.0	10.3	3.4	3.4	10.3	3.4	100.0
소속별	대학	13.2	14.7	14.7	10.3	4.4	26.5	2.9	0.0	8.8	4.4	100.0
	연구기관	12.5	12.5	3.1	12.5	9.4	15.6	9.4	6.3	15.6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23.5	11.8	11.8	5.9	17.6	0.0	5.9	5.9	0.0	100.0
	중도	9.1	15.2	9.1	15.2	6.1	18.2	9.1	0.0	9.1	9.1	100.0
	진보	14.0	10.0	12.0	8.0	6.0	28.0	4.0	2.0	14.0	2.0	100.0

주: 1) 성별 $\chi^2=12.521$, 전공별 $\chi^2=19.569$, 소속별 $\chi^2=11.897$, 정치적 성향별 $\chi^2=12.83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2〉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5년 후(2023년)_3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5.0	10.0	10.0	13.0	9.0	16.0	3.0	5.0	17.0	12.0	100.0
성별	남자	4.3	11.6	8.7	14.5	8.7	17.4	2.9	5.8	15.9	10.1	100.0
	여자	6.5	6.5	12.9	9.7	9.7	12.9	3.2	3.2	19.4	16.1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0.0	16.7	10.0	6.7	16.7	6.7	3.3	13.3	13.3	100.0
	사회계열	2.4	7.3	7.3	14.6	12.2	17.1	2.4	7.3	22.0	7.3	100.0
	보건계열	10.3	13.8	6.9	13.8	6.9	13.8	0.0	3.4	13.8	17.2	100.0
소속별	대학	5.9	10.3	8.8	8.8	8.8	16.2	4.4	4.4	19.1	13.2	100.0
	연구기관	3.1	9.4	12.5	21.9	9.4	15.6	0.0	6.3	12.5	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5.9	11.8	11.8	0.0	17.6	0.0	5.9	23.5	17.6	100.0
	중도	6.1	3.0	18.2	9.1	9.1	18.2	0.0	6.1	15.2	15.2	100.0
	진보	4.0	16.0	4.0	16.0	12.0	14.0	6.0	4.0	16.0	8.0	100.0

주: 1) 성별 $\chi^2=2.883$, 전공별 $\chi^2=11.668$, 소속별 $\chi^2=5.896$, 정치적 성향별 $\chi^2=16.10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3〉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20년 후(2038년)_1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29.0	8.0	1.0	17.0	0.0	20.0	2.0	1.0	21.0	1.0	100.0
성별	남자	30.4	7.2	1.4	14.5	0.0	21.7	1.4	1.4	20.3	1.4	100.0
	여자	25.8	9.7	0.0	22.6	0.0	16.1	3.2	0.0	22.6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26.7	13.3	0.0	23.3	0.0	20.0	6.7	0.0	10.0	0.0	100.0
	사회계열	36.6	4.9	2.4	7.3	0.0	19.5	0.0	0.0	26.8	2.4	100.0
	보건계열	20.7	6.9	0.0	24.1	0.0	20.7	0.0	3.4	24.1	0.0	100.0
소속별	대학	32.4	4.4	1.5	13.2	0.0	20.6	0.0	1.5	25.0	1.5	100.0
	연구기관	21.9	15.6	0.0	25.0	0.0	18.8	6.3	0.0	12.5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5	11.8	0.0	17.6	0.0	41.2	0.0	0.0	0.0	5.9	100.0
	중도	33.3	6.1	0.0	21.2	0.0	15.2	3.0	0.0	21.2	0.0	100.0
	진보	28.0	8.0	2.0	14.0	0.0	16.0	2.0	2.0	28.0	0.0	100.0

주: 1) 성별 $\chi^2=3.215$, 전공별 $\chi^2=19.542$, 소속별 $\chi^2=13.333$, 정치적 성향별 $\chi^2=18.21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4〉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20년 후(2038년)_2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12.0	9.0	5.0	19.0	6.0	22.0	4.0	4.0	15.0	4.0	100.0
성별	남자	11.6	10.1	7.2	23.2	4.3	20.3	4.3	2.9	13.0	2.9	100.0
	여자	12.9	6.5	0.0	9.7	9.7	25.8	3.2	6.5	19.4	6.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3.3	3.3	16.7	3.3	26.7	6.7	3.3	23.3	0.0	100.0
	사회계열	17.1	4.9	2.4	24.4	9.8	19.5	2.4	7.3	9.8	2.4	100.0
	보건계열	13.8	10.3	10.3	13.8	3.4	20.7	3.4	0.0	13.8	10.3	100.0
소속별	대학	17.6	10.3	7.4	17.6	5.9	16.2	4.4	4.4	11.8	4.4	100.0
	연구기관	0.0	6.3	0.0	21.9	6.3	34.4	3.1	3.1	21.9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11.8	5.9	29.4	0.0	17.6	0.0	0.0	17.6	0.0	100.0
	중도	9.1	12.1	9.1	18.2	6.1	12.1	3.0	6.1	18.2	6.1	100.0
	진보	12.0	6.0	2.0	16.0	8.0	30.0	6.0	4.0	12.0	4.0	100.0

주: 1) 성별 $\chi^2=7.95$, 전공별 $\chi^2=19.514$, 소속별 $\chi^2=13.634$, 정치적 성향별 $\chi^2=13.27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5〉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20년 후(2038년)_3순위

(단위: %)

구분		일자리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	신체와 정신 건강	주거	노후 생활	부채 상황	부모 부양	환경	안전	계
전체		8.0	3.0	3.0	14.0	2.0	25.0	0.0	3.0	23.0	19.0	100.0
성별	남자	4.3	4.3	4.3	17.4	1.4	26.1	0.0	4.3	21.7	15.9	100.0
	여자	16.1	0.0	0.0	6.5	3.2	22.6	0.0	0.0	25.8	25.8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0.0	3.3	13.3	0.0	26.7	0.0	6.7	23.3	20.0	100.0
	사회계열	4.9	2.4	4.9	12.2	4.9	24.4	0.0	0.0	22.0	24.4	100.0
	보건계열	13.8	6.9	0.0	17.2	0.0	24.1	0.0	3.4	24.1	10.3	100.0
소속별	대학	4.4	4.4	4.4	16.2	2.9	25.0	0.0	2.9	20.6	19.1	100.0
	연구기관	15.6	0.0	0.0	9.4	0.0	25.0	0.0	3.1	28.1	18.8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5.9	0.0	23.5	0.0	11.8	0.0	5.9	23.5	23.5	100.0
	중도	12.1	0.0	3.0	3.0	0.0	36.4	0.0	3.0	18.2	24.2	100.0
	진보	6.0	4.0	4.0	18.0	4.0	22.0	0.0	2.0	26.0	14.0	100.0

주: 1) 성별 $\chi^2=11.275$, 전공별 $\chi^2=13.223$, 소속별 $\chi^2=8.445$, 정치적 성향별 $\chi^2=15.42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6〉 귀하는 다음의 정책 영역 중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5년 전(2013년)

(단위: %)

구분		경제 정책	보건 복지 인구 정책	국방 외교 정책	교육 정책	주거 정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	문화 정책	안전 강화 정책	계
전체		35.0	10.0	4.0	5.0	2.0	35.0	1.0	0.0	8.0	100.0
성별	남자	39.1	11.6	2.9	2.9	1.4	31.9	1.4	0.0	8.7	100.0
	여자	25.8	6.5	6.5	9.7	3.2	41.9	0.0	0.0	6.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40.0	13.3	6.7	6.7	0.0	26.7	0.0	0.0	6.7	100.0
	사회계열	26.8	7.3	2.4	4.9	4.9	46.3	0.0	0.0	7.3	100.0
	보건계열	41.4	10.3	3.4	3.4	0.0	27.6	3.4	0.0	10.3	100.0
소속별	대학	33.8	8.8	1.5	2.9	2.9	39.7	1.5	0.0	8.8	100.0
	연구기관	37.5	12.5	9.4	9.4	0.0	25.0	0.0	0.0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1.2	5.9	5.9	5.9	0.0	35.3	0.0	0.0	5.9	100.0
	중도	39.4	12.1	3.0	3.0	0.0	30.3	3.0	0.0	9.1	100.0
	진보	30.0	10.0	4.0	6.0	4.0	38.0	0.0	0.0	8.0	100.0

주: 1) 성별 $\chi^2=5.83$, 전공별 $\chi^2=11.252$, 소속별 $\chi^2=8.515$, 정치적 성향별 $\chi^2=6.28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7〉 귀하는 다음의 정책 영역 중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현재(2018년)

(단위: %)

구분		경제 정책	보건 복지 인구 정책	국방 외교 정책	교육 정책	주거 정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	문화 정책	안전 강화 정책	계
전체		23.0	11.0	9.0	5.0	2.0	49.0	0.0	0.0	1.0	100.0
성별	남자	21.7	10.1	10.1	4.3	0.0	53.6	0.0	0.0	0.0	100.0
	여자	25.8	12.9	6.5	6.5	6.5	38.7	0.0	0.0	3.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26.7	6.7	6.7	10.0	0.0	50.0	0.0	0.0	0.0	100.0
	사회계열	9.8	17.1	7.3	4.9	4.9	56.1	0.0	0.0	0.0	100.0
	보건계열	37.9	6.9	13.8	0.0	0.0	37.9	0.0	0.0	3.4	100.0
소속별	대학	25.0	10.3	8.8	4.4	2.9	48.5	0.0	0.0	0.0	100.0
	연구기관	18.8	12.5	9.4	6.3	0.0	50.0	0.0	0.0	3.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47.1	5.9	17.6	11.8	0.0	17.6	0.0	0.0	0.0	100.0
	중도	27.3	9.1	9.1	6.1	3.0	42.4	0.0	0.0	3.0	100.0
	진보	12.0	14.0	6.0	2.0	2.0	64.0	0.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8.464$, 전공별 $\chi^2=18.925$, 소속별 $\chi^2=3.969$, 정치적 성향별 $\chi^2=21.0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8〉 귀하는 다음의 정책 영역 중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5년 후(2023년)

(단위: %)

구분		경제 정책	보건 복지 인구 정책	국방 외교 정책	교육 정책	주거 정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	문화 정책	안전 강화 정책	계
전체		13.0	31.0	4.0	4.0	3.0	27.0	14.0	1.0	3.0	100.0
성별 *	남자	11.6	37.7	4.3	4.3	1.4	29.0	7.2	0.0	4.3	100.0
	여자	16.1	16.1	3.2	3.2	6.5	22.6	29.0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40.0	3.3	6.7	6.7	20.0	3.3	0.0	6.7	100.0
	사회계열	9.8	24.4	2.4	0.0	2.4	34.1	22.0	2.4	2.4	100.0
	보건계열	17.2	31.0	6.9	6.9	0.0	24.1	13.8	0.0	0.0	100.0
소속별	대학	14.7	30.9	4.4	4.4	1.5	27.9	11.8	1.5	2.9	100.0
	연구기관	9.4	31.3	3.1	3.1	6.3	25.0	18.8	0.0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9.4	17.6	11.8	5.9	0.0	23.5	5.9	0.0	5.9	100.0
	중도	18.2	30.3	0.0	6.1	3.0	18.2	18.2	3.0	3.0	100.0
	진보	4.0	36.0	4.0	2.0	4.0	34.0	14.0	0.0	2.0	100.0

주: 1) 성별 $\chi^2=16.612$, 전공별 $\chi^2=17.423$, 소속별 $\chi^2=3.615$, 정치적 성향별 $\chi^2=20.07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69〉 귀하는 다음의 정책 영역 중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20년 후(2038년)

(단위: %)

구분		경제 정책	보건 복지 인구 정책	국방 외교 정책	교육 정책	주거 정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	문화 정책	안전 강화 정책	계
전체		8.0	39.0	2.0	3.0	2.0	11.0	22.0	9.0	4.0	100.0
성별 *	남자	10.1	46.4	1.4	2.9	0.0	11.6	18.8	8.7	0.0	100.0
	여자	3.2	22.6	3.2	3.2	6.5	9.7	29.0	9.7	12.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33.3	3.3	6.7	0.0	6.7	30.0	10.0	3.3	100.0
	사회계열	4.9	39.0	0.0	0.0	4.9	19.5	17.1	7.3	7.3	100.0
	보건계열	13.8	44.8	3.4	3.4	0.0	3.4	20.7	10.3	0.0	100.0
소속별	대학	11.8	39.7	1.5	2.9	1.5	14.7	19.1	7.4	1.5	100.0
	연구기관	0.0	37.5	3.1	3.1	3.1	3.1	28.1	12.5	9.4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23.5	29.4	5.9	5.9	5.9	5.9	17.6	0.0	5.9	100.0
	중도	9.1	24.2	3.0	6.1	0.0	12.1	27.3	15.2	3.0	100.0
	진보	2.0	52.0	0.0	0.0	2.0	12.0	20.0	8.0	4.0	100.0

주: 1) 성별 $\chi^2=19.19$, 전공별 $\chi^2=17.751$, 소속별 $\chi^2=11.885$, 정치적 성향별 $\chi^2=23.57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0〉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24.0	38.0	32.0	6.0	0.0	0.0	100.0
성별	남자	27.5	33.3	30.4	8.7	0.0	0.0	100.0
	여자	16.1	48.4	35.5	0.0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43.3	30.0	13.3	0.0	0.0	100.0
	사회계열	31.7	36.6	29.3	2.4	0.0	0.0	100.0
	보건계열	24.1	34.5	37.9	3.4	0.0	0.0	100.0
소속별 +	대학	27.9	29.4	36.8	5.9	0.0	0.0	100.0
	연구기관	15.6	56.3	21.9	6.3	0.0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29.4	41.2	11.8	0.0	0.0	100.0
	중도	12.1	42.4	39.4	6.1	0.0	0.0	100.0
	진보	34.0	38.0	24.0	4.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5.301$, 전공별 $\chi^2=7.1$, 소속별 $\chi^2=7.012$, 정치적 성향별 $\chi^2=8.09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1〉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9.0	33.0	39.0	18.0	1.0	0.0	100.0
성별	남자	8.7	31.9	39.1	18.8	1.4	0.0	100.0
	여자	9.7	35.5	38.7	16.1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30.0	36.7	26.7	3.3	0.0	100.0
	사회계열	17.1	36.6	36.6	9.8	0.0	0.0	100.0
	보건계열	3.4	31.0	44.8	20.7	0.0	0.0	100.0
소속별	대학	11.8	30.9	36.8	20.6	0.0	0.0	100.0
	연구기관	3.1	37.5	43.8	12.5	3.1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23.5	41.2	35.3	0.0	0.0	100.0
	중도	3.0	24.2	54.5	18.2	0.0	0.0	100.0
	진보	16.0	42.0	28.0	12.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0.645$, 전공별 $\chi^2=10.914$, 소속별 $\chi^2=5.282$, 정치적 성향별 $\chi^2=16.45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2〉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9.0	20.0	30.0	37.0	4.0	0.0	100.0
성별	남자	8.7	21.7	27.5	37.7	4.3	0.0	100.0
	여자	9.7	16.1	35.5	35.5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20.0	23.3	46.7	6.7	0.0	100.0
	사회계열	12.2	17.1	29.3	39.0	2.4	0.0	100.0
	보건계열	10.3	24.1	37.9	24.1	3.4	0.0	100.0
소속별	대학	10.3	20.6	27.9	38.2	2.9	0.0	100.0
	연구기관	6.3	18.8	34.4	34.4	6.3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29.4	29.4	35.3	0.0	0.0	100.0
	중도	6.1	15.2	24.2	51.5	3.0	0.0	100.0
	진보	12.0	20.0	34.0	28.0	6.0	0.0	100.0

주: 1) 성별 $\chi^2=0.905$, 전공별 $\chi^2=5.982$, 소속별 $\chi^2=1.416$, 정치적 성향별 $\chi^2=7.01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3〉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3.0	13.0	30.0	41.0	11.0	2.0	100.0
성별	남자	2.9	15.9	29.0	39.1	11.6	1.4	100.0
	여자	3.2	6.5	32.3	45.2	9.7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3.3	23.3	43.3	16.7	0.0	100.0
	사회계열	4.9	9.8	39.0	36.6	9.8	0.0	100.0
	보건계열	0.0	17.2	24.1	44.8	6.9	6.9	100.0
소속별	대학	4.4	10.3	32.4	41.2	8.8	2.9	100.0
	연구기관	0.0	18.8	25.0	40.6	15.6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1.8	29.4	41.2	11.8	5.9	100.0
	중도	3.0	9.1	24.2	48.5	15.2	0.0	100.0
	진보	4.0	16.0	34.0	36.0	8.0	2.0	100.0

주: 1) 성별 $\chi^2=2.165$, 전공별 $\chi^2=10.601$, 소속별 $\chi^2=4.859$, 정치적 성향별 $\chi^2=5.69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4〉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5.0	11.0	42.0	35.0	6.0	1.0	100.0
성별	남자	4.3	11.6	39.1	36.2	7.2	1.4	100.0
	여자	6.5	9.7	48.4	32.3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13.3	53.3	16.7	6.7	0.0	100.0
	사회계열	4.9	7.3	43.9	36.6	7.3	0.0	100.0
	보건계열	0.0	13.8	27.6	51.7	3.4	3.4	100.0
소속별	대학	4.4	8.8	39.7	39.7	5.9	1.5	100.0
	연구기관	6.3	15.6	46.9	25.0	6.3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52.9	29.4	5.9	5.9	100.0
	중도	3.0	12.1	27.3	51.5	6.1	0.0	100.0
	진보	8.0	12.0	48.0	26.0	6.0	0.0	100.0

주: 1) 성별 $\chi^2=1.819$, 전공별 $\chi^2=14.33$, 소속별 $\chi^2=3.148$, 정치적 성향별 $\chi^2=13.87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5〉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7.0	20.0	37.0	29.0	7.0	0.0	100.0
성별	남자	8.7	17.4	36.2	27.5	10.1	0.0	100.0
	여자	3.2	25.8	38.7	32.3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16.7	43.3	26.7	6.7	0.0	100.0
	사회계열	9.8	26.8	31.7	24.4	7.3	0.0	100.0
	보건계열	3.4	13.8	37.9	37.9	6.9	0.0	100.0
소속별	대학	10.3	16.2	35.3	29.4	8.8	0.0	100.0
	연구기관	0.0	28.1	40.6	28.1	3.1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5.9	29.4	52.9	5.9	0.0	100.0
	중도	3.0	15.2	39.4	36.4	6.1	0.0	100.0
	진보	10.0	28.0	38.0	16.0	8.0	0.0	100.0

주: 1) 성별 $\chi^2=5.016$, 전공별 $\chi^2=4.462$, 소속별 $\chi^2=6.036$, 정치적 성향별 $\chi^2=12.46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6〉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6.0	23.0	27.0	38.0	6.0	0.0	100.0
성별	남자	4.3	21.7	27.5	39.1	7.2	0.0	100.0
	여자	9.7	25.8	25.8	35.5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16.7	26.7	40.0	3.3	0.0	100.0
	사회계열	2.4	29.3	26.8	31.7	9.8	0.0	100.0
	보건계열	3.4	20.7	27.6	44.8	3.4	0.0	100.0
소속별	대학	4.4	19.1	32.4	36.8	7.4	0.0	100.0
	연구기관	9.4	31.3	15.6	40.6	3.1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5.9	35.3	47.1	5.9	0.0	100.0
	중도	6.1	9.1	42.4	33.3	9.1	0.0	100.0
	진보	6.0	38.0	14.0	38.0	4.0	0.0	100.0

주: 1) 성별 $\chi^2=1.841$, 전공별 $\chi^2=7.615$, 소속별 $\chi^2=5.275$, 정치적 성향별 $\chi^2=17.71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7〉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5.0	25.0	24.0	40.0	5.0	1.0	100.0
성별	남자	4.3	24.6	24.6	39.1	5.8	1.4	100.0
	여자	6.5	25.8	22.6	41.9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23.3	33.3	36.7	3.3	0.0	100.0
	사회계열	7.3	36.6	14.6	34.1	7.3	0.0	100.0
	보건계열	3.4	10.3	27.6	51.7	3.4	3.4	100.0
소속별	대학	5.9	25.0	19.1	42.6	5.9	1.5	100.0
	연구기관	3.1	25.0	34.4	34.4	3.1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5.9	11.8	64.7	5.9	5.9	100.0
	중도	0.0	21.2	24.2	42.4	12.1	0.0	100.0
	진보	8.0	34.0	28.0	30.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1.013$, 전공별 $\chi^2=12.841$, 소속별 $\chi^2=3.615$, 정치적 성향별 $\chi^2=22.91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8〉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5.0	21.0	31.0	29.0	11.0	3.0	100.0
성별	남자	4.3	23.2	30.4	27.5	11.6	2.9	100.0
	여자	6.5	16.1	32.3	32.3	9.7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23.3	20.0	26.7	13.3	6.7	100.0
	사회계열	4.9	19.5	26.8	39.0	9.8	0.0	100.0
	보건계열	0.0	20.7	48.3	17.2	10.3	3.4	100.0
소속별	대학	5.9	19.1	29.4	29.4	14.7	1.5	100.0
	연구기관	3.1	25.0	34.4	28.1	3.1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0.0	41.2	35.3	11.8	5.9	100.0
	중도	3.0	15.2	30.3	36.4	12.1	3.0	100.0
	진보	6.0	32.0	28.0	22.0	10.0	2.0	100.0

주: 1) 성별 $\chi^2=0.963$, 전공별 $\chi^2=12.938$, 소속별 $\chi^2=5.185$, 정치적 성향별 $\chi^2=10.51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79〉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8.0	20.0	41.0	19.0	11.0	1.0	100.0
성별	남자	8.7	24.6	37.7	17.4	10.1	1.4	100.0
	여자	6.5	9.7	48.4	22.6	12.9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20.0	30.0	13.3	26.7	0.0	100.0
	사회계열	4.9	22.0	43.9	22.0	4.9	2.4	100.0
	보건계열	10.3	17.2	48.3	20.7	3.4	0.0	100.0
소속별	대학	8.8	20.6	38.2	22.1	8.8	1.5	100.0
	연구기관	6.3	18.8	46.9	12.5	15.6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11.8	47.1	11.8	17.6	0.0	100.0
	중도	6.1	18.2	36.4	33.3	6.1	0.0	100.0
	진보	8.0	24.0	42.0	12.0	12.0	2.0	100.0

주: 1) 성별 $\chi^2=4.027$, 전공별 $\chi^2=14.153$, 소속별 $\chi^2=3.045$, 정치적 성향별 $\chi^2=9.61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0〉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11.0	22.0	33.0	22.0	12.0	0.0	100.0
성별	남자	10.1	24.6	29.0	24.6	11.6	0.0	100.0
	여자	12.9	16.1	41.9	16.1	12.9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6.7	13.3	33.3	20.0	16.7	0.0	100.0
	사회계열	12.2	26.8	29.3	19.5	12.2	0.0	100.0
	보건계열	3.4	24.1	37.9	27.6	6.9	0.0	100.0
소속별	대학	11.8	22.1	30.9	23.5	11.8	0.0	100.0
	연구기관	9.4	21.9	37.5	18.8	12.5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17.6	35.3	23.5	17.6	0.0	100.0
	중도	9.1	9.1	45.5	21.2	15.2	0.0	100.0
	진보	14.0	32.0	24.0	22.0	8.0	0.0	100.0

주: 1) 성별 $\chi^2=2.673$, 전공별 $\chi^2=6.096$, 소속별 $\chi^2=0.638$, 정치적 성향별 $\chi^2=10.06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1〉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2) 양성평등 지원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10.0	18.0	37.0	23.0	8.0	4.0	100.0
성별	남자	7.2	17.4	36.2	24.6	8.7	5.8	100.0
	여자	16.1	19.4	38.7	19.4	6.5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20.0	33.3	13.3	13.3	6.7	100.0
	사회계열	12.2	24.4	36.6	17.1	7.3	2.4	100.0
	보건계열	3.4	6.9	41.4	41.4	3.4	3.4	100.0
소속별	대학	8.8	16.2	38.2	25.0	7.4	4.4	100.0
	연구기관	12.5	21.9	34.4	18.8	9.4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1.8	29.4	41.2	5.9	11.8	100.0
	중도	6.1	15.2	45.5	18.2	12.1	3.0	100.0
	진보	16.0	22.0	34.0	20.0	6.0	2.0	100.0

주: 1) 성별 $\chi^2=3.96$, 전공별 $\chi^2=13.771$, 소속별 $\chi^2=1.345$, 정치적 성향별 $\chi^2=13.15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2〉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5.0	28.0	35.0	27.0	4.0	1.0	100.0
성별	남자	7.2	27.5	34.8	24.6	4.3	1.4	100.0
	여자	0.0	29.0	35.5	32.3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26.7	26.7	36.7	3.3	0.0	100.0
	사회계열	4.9	39.0	31.7	17.1	7.3	0.0	100.0
	보건계열	3.4	13.8	48.3	31.0	0.0	3.4	100.0
소속별	대학	5.9	26.5	38.2	25.0	2.9	1.5	100.0
	연구기관	3.1	31.3	28.1	31.3	6.3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5.9	47.1	41.2	0.0	5.9	100.0
	중도	3.0	18.2	42.4	27.3	9.1	0.0	100.0
	진보	8.0	42.0	26.0	22.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3.243$, 전공별 $\chi^2=13.858$, 소속별 $\chi^2=2.525$, 정치적 성향별 $\chi^2=21.92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3〉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3.0	23.0	33.0	32.0	8.0	1.0	100.0
성별	남자	4.3	24.6	29.0	30.4	10.1	1.4	100.0
	여자	0.0	19.4	41.9	35.5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26.7	33.3	30.0	6.7	0.0	100.0
	사회계열	2.4	24.4	36.6	26.8	9.8	0.0	100.0
	보건계열	3.4	17.2	27.6	41.4	6.9	3.4	100.0
소속별	대학	2.9	22.1	33.8	29.4	10.3	1.5	100.0
	연구기관	3.1	25.0	31.3	37.5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41.2	41.2	5.9	5.9	100.0
	중도	0.0	24.2	36.4	27.3	12.1	0.0	100.0
	진보	6.0	28.0	28.0	32.0	6.0	0.0	100.0

주: 1) 성별 $\chi^2=4.594$, 전공별 $\chi^2=5.014$, 소속별 $\chi^2=2.441$, 정치적 성향별 $\chi^2=13.17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4〉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12.0	18.0	47.0	18.0	5.0	0.0	100.0
성별	남자	11.6	15.9	49.3	17.4	5.8	0.0	100.0
	여자	12.9	22.6	41.9	19.4	3.2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3.3	16.7	43.3	23.3	3.3	0.0	100.0
	사회계열	12.2	24.4	53.7	2.4	7.3	0.0	100.0
	보건계열	10.3	10.3	41.4	34.5	3.4	0.0	100.0
소속별	대학	8.8	17.6	50.0	16.2	7.4	0.0	100.0
	연구기관	18.8	18.8	40.6	21.9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7.6	5.9	52.9	17.6	5.9	0.0	100.0
	중도	6.1	3.0	54.5	27.3	9.1	0.0	100.0
	진보	14.0	32.0	40.0	12.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1.128$, 전공별 $\chi^2=13.797$, 소속별 $\chi^2=4.954$, 정치적 성향별 $\chi^2=18.18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5〉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36.0	30.0	27.0	7.0	0.0	0.0	100.0
성별	남자	31.9	29.0	29.0	10.1	0.0	0.0	100.0
	여자	45.2	32.3	22.6	0.0	0.0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0.0	30.0	30.0	10.0	0.0	0.0	100.0
	사회계열	43.9	29.3	22.0	4.9	0.0	0.0	100.0
	보건계열	31.0	31.0	31.0	6.9	0.0	0.0	100.0
소속별	대학	32.4	30.9	29.4	7.4	0.0	0.0	100.0
	연구기관	43.8	28.1	21.9	6.3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41.2	29.4	17.6	11.8	0.0	0.0	100.0
	중도	24.2	24.2	42.4	9.1	0.0	0.0	100.0
	진보	42.0	34.0	20.0	4.0	0.0	0.0	100.0

주: 1) 성별 $\chi^2=4.594$, 전공별 $\chi^2=2.539$, 소속별 $\chi^2=1.336$, 정치적 성향별 $\chi^2=8.29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6〉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7.0	25.0	36.0	25.0	7.0	0.0	100.0
성별	남자	8.7	21.7	37.7	24.6	7.2	0.0	100.0
	여자	3.2	32.3	32.3	25.8	6.5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3.3	46.7	26.7	10.0	0.0	100.0
	사회계열	9.8	34.1	31.7	19.5	4.9	0.0	100.0
	보건계열	6.9	24.1	31.0	31.0	6.9	0.0	100.0
소속별	대학	10.3	25.0	35.3	22.1	7.4	0.0	100.0
	연구기관	0.0	25.0	37.5	31.3	6.3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5.9	41.2	35.3	5.9	0.0	100.0
	중도	0.0	24.2	39.4	24.2	12.1	0.0	100.0
	진보	10.0	32.0	32.0	22.0	4.0	0.0	100.0

주: 1) 성별 $\chi^2=2.067$, 전공별 $\chi^2=6.992$, 소속별 $\chi^2=4.097$, 정치적 성향별 $\chi^2=10.24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7〉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_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단위: %)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전체		4.0	21.0	33.0	36.0	5.0	1.0	100.0
성별	남자	2.9	20.3	36.2	33.3	5.8	1.4	100.0
	여자	6.5	22.6	25.8	41.9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3.3	43.3	36.7	3.3	0.0	100.0
	사회계열	7.3	31.7	26.8	31.7	2.4	0.0	100.0
	보건계열	0.0	13.8	31.0	41.4	10.3	3.4	100.0
소속별	대학	5.9	22.1	32.4	33.8	4.4	1.5	100.0
	연구기관	0.0	18.8	34.4	40.6	6.3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17.6	23.5	47.1	5.9	5.9	100.0
	중도	3.0	6.1	42.4	39.4	9.1	0.0	100.0
	진보	6.0	32.0	30.0	30.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2.605$, 전공별 $\chi^2=12.85$, 소속별 $\chi^2=2.92$, 정치적 성향별 $\chi^2=17.3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8〉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 취업 및 일

자리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3.0	1.0	6.0	15.0	30.0	45.0	100.0
성별	남자	2.9	1.4	7.2	8.7	33.3	46.4	100.0
	여자	3.2	0.0	3.2	29.0	22.6	41.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0.0	13.3	16.7	33.3	33.3	100.0
	사회계열	0.0	2.4	2.4	9.8	24.4	61.0	100.0
	보건계열	6.9	0.0	3.4	20.7	34.5	34.5	100.0
소속별	대학	2.9	1.5	7.4	8.8	29.4	50.0	100.0
	연구기관	3.1	0.0	3.1	28.1	31.3	34.4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5.9	17.6	5.9	17.6	41.2	100.0
	중도	0.0	0.0	9.1	27.3	30.3	33.3	100.0
	진보	2.0	0.0	0.0	10.0	34.0	54.0	100.0

주: 1) 성별 $\chi^2=7.849$, 전공별 $\chi^2=14.132$, 소속별 $\chi^2=7.731$, 정치적 성향별 $\chi^2=25.93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89〉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2) 고용보험 사
각지대 해소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2.0	0.0	6.0	34.0	41.0	17.0	100.0
성별	남자	1.4	0.0	7.2	31.9	47.8	11.6	100.0
	여자	3.2	0.0	3.2	38.7	25.8	29.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13.3	36.7	36.7	13.3	100.0
	사회계열	0.0	0.0	0.0	29.3	41.5	29.3	100.0
	보건계열	6.9	0.0	6.9	37.9	44.8	3.4	100.0
소속별	대학	2.9	0.0	5.9	32.4	41.2	17.6	100.0
	연구기관	0.0	0.0	6.3	37.5	40.6	15.6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0.0	5.9	41.2	35.3	5.9	100.0
	중도	0.0	0.0	6.1	42.4	42.4	9.1	100.0
	진보	0.0	0.0	6.0	26.0	42.0	26.0	100.0

주: 1) 성별 $\chi^2=7.563$, 전공별 $\chi^2=17.792$, 소속별 $\chi^2=1.17$, 정치적 성향별 $\chi^2=16.64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0〉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3.0	33.0	46.0	18.0	100.0
성별	남자	0.0	0.0	4.3	27.5	50.7	17.4	100.0
	여자	0.0	0.0	0.0	45.2	35.5	19.4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6.7	46.7	46.7	0.0	100.0
	사회계열	0.0	0.0	0.0	26.8	51.2	22.0	100.0
	보건계열	0.0	0.0	3.4	27.6	37.9	31.0	100.0
소속별 +	대학	0.0	0.0	4.4	32.4	39.7	23.5	100.0
	연구기관	0.0	0.0	0.0	34.4	59.4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0.0	5.9	41.2	29.4	23.5	100.0
	중도	0.0	0.0	6.1	36.4	39.4	18.2	100.0
	진보	0.0	0.0	0.0	28.0	56.0	16.0	100.0

주: 1) 성별 $\chi^2=4.487$, 전공별 $\chi^2=14.172$, 소속별 $\chi^2=6.878$, 정치적 성향별 $\chi^2=6.65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1〉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2.0	6.0	28.0	45.0	19.0	100.0
성별	남자	0.0	1.4	5.8	24.6	47.8	20.3	100.0
	여자	0.0	3.2	6.5	35.5	38.7	16.1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3.3	10.0	40.0	46.7	0.0	100.0
	사회계열	0.0	0.0	2.4	24.4	43.9	29.3	100.0
	보건계열	0.0	3.4	6.9	20.7	44.8	24.1	100.0
소속별	대학	0.0	1.5	8.8	23.5	44.1	22.1	100.0
	연구기관	0.0	3.1	0.0	37.5	46.9	12.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5.9	23.5	5.9	47.1	17.6	100.0
	중도	0.0	3.0	6.1	33.3	36.4	21.2	100.0
	진보	0.0	0.0	0.0	32.0	50.0	18.0	100.0

주: 1) 성별 $\chi^2=1.841$, 전공별 $\chi^2=13.791$, 소속별 $\chi^2=5.721$, 정치적 성향별 $\chi^2=18.72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2〉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1.0	7.0	35.0	38.0	19.0	100.0
성별	남자	0.0	1.4	5.8	36.2	43.5	13.0	100.0
	여자	0.0	0.0	9.7	32.3	25.8	32.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0.0	6.7	56.7	23.3	13.3	100.0
	사회계열	0.0	0.0	7.3	31.7	41.5	19.5	100.0
	보건계열	0.0	3.4	6.9	17.2	48.3	24.1	100.0
소속별	대학	0.0	1.5	8.8	30.9	41.2	17.6	100.0
	연구기관	0.0	0.0	3.1	43.8	31.3	21.9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11.8	23.5	23.5	41.2	100.0
	중도	0.0	0.0	12.1	39.4	30.3	18.2	100.0
	진보	0.0	2.0	2.0	36.0	48.0	12.0	100.0

주: 1) 성별 $\chi^2=6.92$, 전공별 $\chi^2=12.772$, 소속별 $\chi^2=3.278$, 정치적 성향별 $\chi^2=13.87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3〉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9.0	43.0	34.0	14.0	100.0
성별	남자	0.0	0.0	8.7	43.5	37.7	10.1	100.0
	여자	0.0	0.0	9.7	41.9	25.8	22.6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10.0	56.7	26.7	6.7	100.0
	사회계열	0.0	0.0	4.9	34.1	34.1	26.8	100.0
	보건계열	0.0	0.0	13.8	41.4	41.4	3.4	100.0
소속별	대학	0.0	0.0	8.8	41.2	36.8	13.2	100.0
	연구기관	0.0	0.0	9.4	46.9	28.1	15.6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17.6	52.9	29.4	0.0	100.0
	중도	0.0	0.0	9.1	57.6	30.3	3.0	100.0
	진보	0.0	0.0	6.0	30.0	38.0	26.0	100.0

주: 1) 성별 $\chi^2=3.285$, 전공별 $\chi^2=12.834$, 소속별 $\chi^2=0.738$, 정치적 성향별 $\chi^2=16.73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4〉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4.0	33.0	39.0	24.0	100.0
성별	남자	0.0	0.0	2.9	36.2	40.6	20.3	100.0
	여자	0.0	0.0	6.5	25.8	35.5	32.3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3.3	46.7	40.0	10.0	100.0
	사회계열	0.0	0.0	0.0	26.8	39.0	34.1	100.0
	보건계열	0.0	0.0	10.3	27.6	37.9	24.1	100.0
소속별	대학	0.0	0.0	4.4	36.8	35.3	23.5	100.0
	연구기관	0.0	0.0	3.1	25.0	46.9	25.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5.9	47.1	35.3	11.8	100.0
	중도	0.0	0.0	9.1	33.3	45.5	12.1	100.0
	진보	0.0	0.0	0.0	28.0	36.0	36.0	100.0

주: 1) 성별 $\chi^2=2.799$, 전공별 $\chi^2=11.246$, 소속별 $\chi^2=1.771$, 정치적 성향별 $\chi^2=12.21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5〉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5.0	39.0	43.0	13.0	100.0
성별	남자	0.0	0.0	4.3	43.5	43.5	8.7	100.0
	여자	0.0	0.0	6.5	29.0	41.9	22.6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3.3	63.3	30.0	3.3	100.0
	사회계열	0.0	0.0	4.9	17.1	58.5	19.5	100.0
	보건계열	0.0	0.0	6.9	44.8	34.5	13.8	100.0
소속별	대학	0.0	0.0	4.4	39.7	41.2	14.7	100.0
	연구기관	0.0	0.0	6.3	37.5	46.9	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0.0	5.9	52.9	41.2	0.0	100.0
	중도	0.0	0.0	6.1	51.5	33.3	9.1	100.0
	진보	0.0	0.0	4.0	26.0	50.0	20.0	100.0

주: 1) 성별 $\chi^2=4.518$, 전공별 $\chi^2=17.716$, 소속별 $\chi^2=0.814$, 정치적 성향별 $\chi^2=10.32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6〉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1.0	9.0	35.0	37.0	18.0	100.0
성별	남자	0.0	0.0	8.7	40.6	37.7	13.0	100.0
	여자	0.0	3.2	9.7	22.6	35.5	29.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3.3	16.7	53.3	20.0	6.7	100.0
	사회계열	0.0	0.0	4.9	12.2	61.0	22.0	100.0
	보건계열	0.0	0.0	6.9	48.3	20.7	24.1	100.0
소속별	대학	0.0	0.0	8.8	35.3	35.3	20.6	100.0
	연구기관	0.0	3.1	9.4	34.4	40.6	12.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17.6	35.3	41.2	5.9	100.0
	중도	0.0	3.0	6.1	54.5	18.2	18.2	100.0
	진보	0.0	0.0	8.0	22.0	48.0	22.0	100.0

주: 1) 성별 $\chi^2=7.294$, 전공별 $\chi^2=29.544$, 소속별 $\chi^2=3.096$, 정치적 성향별 $\chi^2=16.53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10) 일·생활 양립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7.0	32.0	41.0	20.0	100.0
성별	남자	0.0	0.0	7.2	34.8	42.0	15.9	100.0
	여자	0.0	0.0	6.5	25.8	38.7	29.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20.0	30.0	36.7	13.3	100.0
	사회계열	0.0	0.0	0.0	17.1	48.8	34.1	100.0
	보건계열	0.0	0.0	3.4	55.2	34.5	6.9	100.0
소속별	대학	0.0	0.0	7.4	30.9	41.2	20.6	100.0
	연구기관	0.0	0.0	6.3	34.4	40.6	18.8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17.6	47.1	35.3	0.0	100.0
	중도	0.0	0.0	9.1	36.4	36.4	18.2	100.0
	진보	0.0	0.0	2.0	24.0	46.0	28.0	100.0

주: 1) 성별 $\chi^2=2.448$, 전공별 $\chi^2=26.696$, 소속별 $\chi^2=0.159$, 정치적 성향별 $\chi^2=12.81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8〉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1.0	3.0	14.0	31.0	34.0	17.0	100.0
성별	남자	1.4	2.9	14.5	31.9	34.8	14.5	100.0
	여자	0.0	3.2	12.9	29.0	32.3	22.6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0.0	30.0	36.7	23.3	6.7	100.0
	사회계열	0.0	0.0	2.4	19.5	43.9	34.1	100.0
	보건계열	0.0	10.3	13.8	41.4	31.0	3.4	100.0
소속별	대학	1.5	4.4	14.7	23.5	36.8	19.1	100.0
	연구기관	0.0	0.0	12.5	46.9	28.1	12.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11.8	17.6	41.2	23.5	0.0	100.0
	중도	0.0	3.0	21.2	27.3	36.4	12.1	100.0
	진보	0.0	0.0	8.0	30.0	36.0	26.0	100.0

주: 1) 성별 $\chi^2=1.415$, 전공별 $\chi^2=36.512$, 소속별 $\chi^2=6.822$, 정치적 성향별 $\chi^2=20.53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99〉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2) 양성평등
지원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3.0	9.0	36.0	35.0	17.0	100.0
성별 **	남자	0.0	4.3	13.0	37.7	36.2	8.7	100.0
	여자	0.0	0.0	0.0	32.3	32.3	35.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3.3	20.0	33.3	40.0	3.3	100.0
	사회계열	0.0	0.0	0.0	29.3	39.0	31.7	100.0
	보건계열	0.0	6.9	10.3	48.3	24.1	10.3	100.0
소속별	대학	0.0	4.4	11.8	35.3	30.9	17.6	100.0
	연구기관	0.0	0.0	3.1	37.5	43.8	15.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17.6	47.1	23.5	5.9	100.0
	중도	0.0	3.0	9.1	45.5	30.3	12.1	100.0
	진보	0.0	2.0	6.0	26.0	42.0	24.0	100.0

주: 1) 성별 $\chi^2=14.692$, 전공별 $\chi^2=22.93$, 소속별 $\chi^2=4.328$, 정치적 성향별 $\chi^2=10.02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0〉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3) 서민주거
지원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10.0	42.0	36.0	12.0	100.0
성별	남자	0.0	0.0	11.6	40.6	39.1	8.7	100.0
	여자	0.0	0.0	6.5	45.2	29.0	19.4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16.7	50.0	33.3	0.0	100.0
	사회계열	0.0	0.0	2.4	34.1	34.1	29.3	100.0
	보건계열	0.0	0.0	13.8	44.8	41.4	0.0	100.0
소속별	대학	0.0	0.0	13.2	39.7	32.4	14.7	100.0
	연구기관	0.0	0.0	3.1	46.9	43.8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23.5	41.2	35.3	0.0	100.0
	중도	0.0	0.0	12.1	48.5	36.4	3.0	100.0
	진보	0.0	0.0	4.0	38.0	36.0	22.0	100.0

주: 1) 성별 $\chi^2=3.304$, 전공별 $\chi^2=22.809$, 소속별 $\chi^2=4.572$, 정치적 성향별 $\chi^2=14.00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1〉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6.0	31.0	43.0	20.0	100.0
성별	남자	0.0	0.0	5.8	30.4	44.9	18.8	100.0
	여자	0.0	0.0	6.5	32.3	38.7	22.6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10.0	50.0	36.7	3.3	100.0
	사회계열	0.0	0.0	2.4	19.5	51.2	26.8	100.0
	보건계열	0.0	0.0	6.9	27.6	37.9	27.6	100.0
소속별	대학	0.0	0.0	8.8	29.4	39.7	22.1	100.0
	연구기관	0.0	0.0	0.0	34.4	50.0	15.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0.0	11.8	35.3	35.3	17.6	100.0
	중도	0.0	0.0	3.0	39.4	45.5	12.1	100.0
	진보	0.0	0.0	6.0	24.0	44.0	26.0	100.0

주: 1) 성별 $\chi^2=0.38$, 전공별 $\chi^2=14.108$, 소속별 $\chi^2=3.983$, 정치적 성향별 $\chi^2=5.33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2〉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5) 재가·지역 사회 중심 돌봄 체계 마련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5.0	32.0	42.0	21.0	100.0
성별	남자	0.0	0.0	7.2	33.3	42.0	17.4	100.0
	여자	0.0	0.0	0.0	29.0	41.9	29.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0.0	13.3	36.7	40.0	10.0	100.0
	사회계열	0.0	0.0	2.4	29.3	46.3	22.0	100.0
	보건계열	0.0	0.0	0.0	31.0	37.9	31.0	100.0
소속별	대학	0.0	0.0	7.4	35.3	38.2	19.1	100.0
	연구기관	0.0	0.0	0.0	25.0	50.0	25.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0.0	47.1	41.2	11.8	100.0
	중도	0.0	0.0	6.1	45.5	27.3	21.2	100.0
	진보	0.0	0.0	6.0	18.0	52.0	24.0	100.0

주: 1) 성별 $\chi^2=3.75$, 전공별 $\chi^2=9.926$, 소속별 $\chi^2=4.149$, 정치적 성향별 $\chi^2=10.96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3〉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6) 학대, 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1.0	3.0	30.0	39.0	27.0	100.0
성별 +	남자	0.0	0.0	4.3	36.2	34.8	24.6	100.0
	여자	0.0	3.2	0.0	16.1	48.4	32.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0.0	6.7	40.0	33.3	20.0	100.0
	사회계열	0.0	0.0	0.0	24.4	51.2	24.4	100.0
	보건계열	0.0	3.4	3.4	27.6	27.6	37.9	100.0
소속별	대학	0.0	1.5	4.4	32.4	38.2	23.5	100.0
	연구기관	0.0	0.0	0.0	25.0	40.6	34.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0.0	29.4	35.3	29.4	100.0
	중도	0.0	0.0	6.1	27.3	45.5	21.2	100.0
	진보	0.0	0.0	2.0	32.0	36.0	30.0	100.0

주: 1) 성별 $\chi^2=7.93$, 전공별 $\chi^2=11.245$, 소속별 $\chi^2=3.254$, 정치적 성향별 $\chi^2=7.8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4〉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7)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1.0	2.0	16.0	28.0	53.0	100.0
성별 +	남자	0.0	0.0	2.9	21.7	27.5	47.8	100.0
	여자	0.0	3.2	0.0	3.2	29.0	64.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0.0	6.7	20.0	36.7	36.7	100.0
	사회계열	0.0	0.0	0.0	9.8	22.0	68.3	100.0
	보건계열	0.0	3.4	0.0	20.7	27.6	48.3	100.0
소속별	대학	0.0	1.5	2.9	17.6	22.1	55.9	100.0
	연구기관	0.0	0.0	0.0	12.5	40.6	46.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0.0	17.6	17.6	58.8	100.0
	중도	0.0	0.0	6.1	15.2	33.3	45.5	100.0
	진보	0.0	0.0	0.0	16.0	28.0	56.0	100.0

주: 1) 성별 $\chi^2=8.848$, 전공별 $\chi^2=13.596$, 소속별 $\chi^2=4.784$, 정치적 성향별 $\chi^2=10.52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5〉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8)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3.0	11.0	46.0	32.0	8.0	100.0
성별	남자	0.0	4.3	13.0	42.0	33.3	7.2	100.0
	여자	0.0	0.0	6.5	54.8	29.0	9.7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3.3	16.7	50.0	26.7	3.3	100.0
	사회계열	0.0	0.0	9.8	39.0	41.5	9.8	100.0
	보건계열	0.0	6.9	6.9	51.7	24.1	10.3	100.0
소속별	대학	0.0	2.9	13.2	47.1	26.5	10.3	100.0
	연구기관	0.0	3.1	6.3	43.8	43.8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17.6	58.8	17.6	0.0	100.0
	중도	0.0	0.0	9.1	51.5	30.3	9.1	100.0
	진보	0.0	4.0	10.0	38.0	38.0	10.0	100.0

주: 1) 성별 $\chi^2=3.237$, 전공별 $\chi^2=7.979$, 소속별 $\chi^2=4.448$, 정치적 성향별 $\chi^2=7.33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6〉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시시오._ 19)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전체		0.0	0.0	7.0	39.0	42.0	12.0	100.0
성별	남자	0.0	0.0	7.2	36.2	47.8	8.7	100.0
	여자	0.0	0.0	6.5	45.2	29.0	19.4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0.0	13.3	46.7	36.7	3.3	100.0
	사회계열	0.0	0.0	0.0	36.6	46.3	17.1	100.0
	보건계열	0.0	0.0	10.3	34.5	41.4	13.8	100.0
소속별	대학	0.0	0.0	8.8	36.8	42.6	11.8	100.0
	연구기관	0.0	0.0	3.1	43.8	40.6	12.5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0.0	11.8	35.3	47.1	5.9	100.0
	중도	0.0	0.0	9.1	48.5	27.3	15.2	100.0
	진보	0.0	0.0	4.0	34.0	50.0	12.0	100.0

주: 1) 성별 $\chi^2=4.281$, 전공별 $\chi^2=8.942$, 소속별 $\chi^2=1.313$, 정치적 성향별 $\chi^2=5.91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07〉 향후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_1순위

(단위: %)

구분	(이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강화, 장애인·저소득층 취업·계절 지원 확대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노후건강 증진, 치매예방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전월세 등) 주택가격 안정	(무상교육 등) 공교육 확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소	(이동학대 예방 등) 각종 학대·폭력 근절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	계
전체	10.0	2.0	10.0	16.0	34.0	6.0	1.0	16.0	4.0	1.0	100.0
성별											
남자	13.0	2.9	11.6	15.9	33.3	4.3	0.0	15.9	1.4	1.4	100.0
여자	3.2	0.0	6.5	16.1	35.5	9.7	3.2	16.1	9.7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6.7	3.3	20.0	26.7	10.0	0.0	16.7	6.7	0.0	100.0
사회계열	4.9	0.0	9.8	9.8	46.3	7.3	2.4	17.1	2.4	0.0	100.0
보건계열	17.2	0.0	17.2	20.7	24.1	0.0	0.0	13.8	3.4	3.4	100.0
소속별											
대학	11.8	0.0	7.4	14.7	44.1	4.4	1.5	14.7	0.0	1.5	100.0
연구기관	6.3	6.3	15.6	18.8	12.5	9.4	0.0	18.8	12.5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0.0	11.8	11.8	29.4	0.0	0.0	23.5	5.9	5.9	100.0
중도	9.1	0.0	15.2	15.2	30.3	9.1	0.0	18.2	3.0	0.0	100.0
진보	10.0	4.0	6.0	18.0	38.0	6.0	2.0	12.0	4.0	0.0	100.0

주: 1) 성별 $\chi^2=10.864$, 전공별 $\chi^2=22.435$, 소속별 $\chi^2=23.578$, 정치적 성향별 $\chi^2=13.469$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108〉 향후 5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사회보장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2순위

(단위: %)

구분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강화, 장애인·장애통합 지원 확대)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노후건강 증진, 치매예방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일자 리, 청년일자 리 등) 일자리 창출	(전월세 등) 주택가격 안정	(무상교육 등) 공교육 확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소	(아동학대 예방 등) 각종 학대·폭력 근절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	(아동학대 예방 등) 각종 학대·폭력 근절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	계
전체	6.0	6.0	4.0	26.0	11.0	2.0	9.0	7.0	7.0	17.0	2.0	3.0	100.0
성별													
남자	8.7	5.8	2.9	30.4	11.6	2.9	8.7	4.3	8.7	13.0	1.4	1.4	100.0
여자	0.0	6.5	6.5	16.1	9.7	0.0	9.7	12.9	3.2	25.8	3.2	6.5	100.0
경상계열	6.7	3.3	3.3	23.3	6.7	0.0	10.0	10.0	13.3	23.3	0.0	0.0	100.0
전공별 + 사회계열	9.8	9.8	4.9	22.0	7.3	0.0	14.6	7.3	2.4	14.6	0.0	7.3	100.0
보건계열	0.0	3.4	3.4	34.5	20.7	6.9	0.0	3.4	6.9	13.8	6.9	0.0	100.0
대학	7.4	5.9	2.9	25.0	10.3	1.5	7.4	7.4	7.4	20.6	1.5	2.9	100.0
연구소별 연구기관	3.1	6.3	6.3	28.1	12.5	3.1	12.5	6.3	6.3	9.4	3.1	3.1	100.0
보수	5.9	0.0	0.0	23.5	11.8	0.0	0.0	0.0	17.6	29.4	0.0	11.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9.1	0.0	6.1	24.2	12.1	0.0	6.1	9.1	6.1	18.2	6.1	3.0	100.0
진보	4.0	12.0	4.0	28.0	10.0	4.0	14.0	8.0	4.0	12.0	0.0	0.0	100.0

〈부표 4-109〉 귀하는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계
전체		24.0	6.0	18.0	8.0	44.0	100.0
성별	남자	30.4	7.2	14.5	5.8	42.0	100.0
	여자	9.7	3.2	25.8	12.9	48.4	100.0
전공별	경상계열	23.3	6.7	13.3	16.7	40.0	100.0
	사회계열	26.8	7.3	26.8	2.4	36.6	100.0
	보건계열	20.7	3.4	10.3	6.9	58.6	100.0
소속별 **	대학	27.9	5.9	23.5	1.5	41.2	100.0
	연구기관	15.6	6.3	6.3	21.9	5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11.8	23.5	0.0	52.9	100.0
	중도	30.3	6.1	18.2	6.1	39.4	100.0
	진보	24.0	4.0	16.0	12.0	44.0	100.0

주: 1) 성별 $\chi^2=7.484$, 전공별 $\chi^2=10.289$, 소속별 $\chi^2=16.699$, 정치적 성향별 $\chi^2=6.26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0〉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노인	이주민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	기타	계
전체		37.0	9.0	17.0	33.0	3.0	1.0	100.0
성별	남자	37.7	8.7	13.0	37.7	2.9	0.0	100.0
	여자	35.5	9.7	25.8	22.6	3.2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6.7	13.3	20.0	30.0	0.0	0.0	100.0
	사회계열	41.5	7.3	17.1	31.7	0.0	2.4	100.0
	보건계열	31.0	6.9	13.8	37.9	10.3	0.0	100.0
소속별 +	대학	30.9	7.4	16.2	41.2	4.4	0.0	100.0
	연구기관	50.0	12.5	18.8	15.6	0.0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5.9	29.4	41.2	0.0	5.9	100.0
	중도	33.3	12.1	18.2	30.3	6.1	0.0	100.0
	진보	46.0	8.0	12.0	32.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5.812$, 전공별 $\chi^2=10.833$, 소속별 $\chi^2=10.717$, 정치적 성향별 $\chi^2=12.85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1〉 귀하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어느 것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서비스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계
전체		55.0	45.0	100.0
성별 *	남자	62.3	37.7	100.0
	여자	38.7	61.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43.3	56.7	100.0
	사회계열	61.0	39.0	100.0
	보건계열	58.6	41.4	100.0
소속별	대학	57.4	42.6	100.0
	연구기관	50.0	5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35.3	64.7	100.0
	중도	45.5	54.5	100.0
	진보	68.0	32.0	100.0

주: 1) 성별 $\chi^2=4.817$, 전공별 $\chi^2=2.395$, 소속별 $\chi^2=0.475$, 정치적 성향별 $\chi^2=7.29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2〉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아동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 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직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계
전체		20.0	49.0	6.0	21.0	4.0	100.0
성별	남자	20.3	50.7	2.9	21.7	4.3	100.0
	여자	19.4	45.2	12.9	19.4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53.3	6.7	23.3	3.3	100.0
	사회계열	22.0	43.9	9.8	17.1	7.3	100.0
	보건계열	24.1	51.7	0.0	24.1	0.0	100.0
소속별	대학	22.1	50.0	5.9	17.6	4.4	100.0
	연구기관	15.6	46.9	6.3	28.1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64.7	0.0	23.5	0.0	100.0
	중도	21.2	45.5	12.1	15.2	6.1	100.0
	진보	22.0	46.0	4.0	24.0	4.0	100.0

주: 1) 성별 $\chi^2=3.838$, 전공별 $\chi^2=6.932$, 소속별 $\chi^2=1.726$, 정치적 성향별 $\chi^2=6.98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3〉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서비스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장기요양 보험, 치매국가 책임제 등) 건강보장·보건 의료분야	(취업지원 서비스 등) 고용분야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등) 교육분야	(주택 유지 수선 지원 등) 주거분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분야	계
전체		43.0	27.0	9.0	0.0	21.0	100.0
성별	남자	46.4	26.1	8.7	0.0	18.8	100.0
	여자	35.5	29.0	9.7	0.0	25.8	100.0
전공별	경상계열	40.0	30.0	10.0	0.0	20.0	100.0
	사회계열	31.7	29.3	12.2	0.0	26.8	100.0
	보건계열	62.1	20.7	3.4	0.0	13.8	100.0
소속별	대학	42.6	29.4	10.3	0.0	17.6	100.0
	연구기관	43.8	21.9	6.3	0.0	28.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35.3	35.3	17.6	0.0	11.8	100.0
	중도	48.5	21.2	12.1	0.0	18.2	100.0
	진보	42.0	28.0	4.0	0.0	26.0	100.0

주: 1) 성별 $\chi^2=1.176$, 전공별 $\chi^2=7.223$, 소속별 $\chi^2=1.997$, 정치적 성향별 $\chi^2=5.90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4〉 귀하는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국립 교육기관 확충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고등 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 육 혁신	기타	계
전체		11.0	4.0	40.0	9.0	33.0	3.0	100.0
성별	남자	14.5	4.3	36.2	7.2	33.3	4.3	100.0
	여자	3.2	3.2	48.4	12.9	32.3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3.3	33.3	10.0	33.3	6.7	100.0
	사회계열	14.6	4.9	43.9	4.9	31.7	0.0	100.0
	보건계열	3.4	3.4	41.4	13.8	34.5	3.4	100.0
소속별	대학	13.2	5.9	36.8	7.4	35.3	1.5	100.0
	연구기관	6.3	0.0	46.9	12.5	28.1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5.9	29.4	0.0	58.8	0.0	100.0
	중도	3.0	6.1	51.5	12.1	21.2	6.1	100.0
	진보	18.0	2.0	36.0	10.0	32.0	2.0	100.0

주: 1) 성별 $\chi^2=5.442$, 전공별 $\chi^2=6.964$, 소속별 $\chi^2=6.04$, 정치적 성향별 $\chi^2=15.79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5〉 귀하는 정부가 아동 돌봄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무상보육 확대	방과 후 학교 등 가구의 취학아동 돌봄 부담 완화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장애아동 돌봄 강화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질 서비스 개선	계
전체		47.0	5.0	16.0	7.0	4.0	21.0	100.0
성별 +	남자	53.6	4.3	15.9	8.7	4.3	13.0	100.0
	여자	32.3	6.5	16.1	3.2	3.2	38.7	100.0
전공별	경상계열	40.0	0.0	26.7	3.3	3.3	26.7	100.0
	사회계열	56.1	7.3	12.2	2.4	2.4	19.5	100.0
	보건계열	41.4	6.9	10.3	17.2	6.9	17.2	100.0
소속별	대학	51.5	4.4	14.7	7.4	4.4	17.6	100.0
	연구기관	37.5	6.3	18.8	6.3	3.1	28.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5	11.8	23.5	11.8	5.9	23.5	100.0
	중도	45.5	0.0	18.2	9.1	6.1	21.2	100.0
	진보	56.0	6.0	12.0	4.0	2.0	20.0	100.0

주: 1) 성별 $\chi^2=9.959$, 전공별 $\chi^2=14.191$, 소속별 $\chi^2=2.539$, 정치적 성향별 $\chi^2=9.85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6〉 귀하는 정부가 성인 돌봄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예: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제공인력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제공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보장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연계 강화	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 강화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재가 서비스 강화	계
전체		32.0	21.0	1.0	24.0	1.0	21.0	100.0
성별 *	남자	34.8	17.4	0.0	31.9	1.4	14.5	100.0
	여자	25.8	29.0	3.2	6.5	0.0	35.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6.7	20.0	0.0	23.3	3.3	16.7	100.0
	사회계열	31.7	22.0	2.4	22.0	0.0	22.0	100.0
	보건계열	27.6	20.7	0.0	27.6	0.0	24.1	100.0
소속별	대학	32.4	19.1	0.0	26.5	1.5	20.6	100.0
	연구기관	31.3	25.0	3.1	18.8	0.0	21.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17.6	0.0	23.5	5.9	35.3	100.0
	중도	42.4	15.2	0.0	24.2	0.0	18.2	100.0
	진보	30.0	26.0	2.0	24.0	0.0	18.0	100.0

주: 1) 성별 $X^2=14.847$, 전공별 $X^2=4.842$, 소속별 $X^2=3.52$, 정치적 성향별 $X^2=11.37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7〉 귀하는 정부가 안전보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가정 내·외의 안전 유지 지원(방입·학대·폭력 등 예방 및 대응) 강화	범죄 예방 강화	안전사고 예방 (교통사고, 산업재해, 시설안전 등) 강화	식품·환경 안전 관리 강화	안전 교육 강화	계
전체		27.0	18.0	29.0	22.0	4.0	100.0
성별	남자	24.6	21.7	27.5	21.7	4.3	100.0
	여자	32.3	9.7	32.3	22.6	3.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6.7	30.0	13.3	30.0	10.0	100.0
	사회계열	36.6	9.8	34.1	19.5	0.0	100.0
	보건계열	24.1	17.2	37.9	17.2	3.4	100.0
소속별	대학	26.5	19.1	30.9	20.6	2.9	100.0
	연구기관	28.1	15.6	25.0	25.0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35.3	29.4	17.6	5.9	100.0
	중도	24.2	21.2	24.2	24.2	6.1	100.0
	진보	34.0	10.0	32.0	22.0	2.0	100.0

주: 1) 성별 $\chi^2=2.428$, 전공별 $\chi^2=15.987$, 소속별 $\chi^2=1.217$, 정치적 성향별 $\chi^2=8.8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8〉 귀하는 정부가 권익보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시설입소자 권익 보장	범죄·안전사고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사회복지·적응 지원(교정출소 자, 탈북자 등) 강화	인권 교육 강화	법률 및 재무 상담 지원 확대	계
전체		12.0	48.0	7.0	27.0	6.0	100.0
성별	남자	11.6	47.8	7.2	26.1	7.2	100.0
	여자	12.9	48.4	6.5	29.0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50.0	6.7	26.7	10.0	100.0
	사회계열	17.1	34.1	9.8	36.6	2.4	100.0
	보건계열	10.3	65.5	3.4	13.8	6.9	100.0
소속별	대학	16.2	42.6	7.4	27.9	5.9	100.0
	연구기관	3.1	59.4	6.3	25.0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70.6	5.9	11.8	5.9	100.0
	중도	12.1	54.5	6.1	15.2	12.1	100.0
	진보	14.0	36.0	8.0	40.0	2.0	100.0

주: 1) 성별 $\chi^2=0.696$, 전공별 $\chi^2=11.122$, 소속별 $\chi^2=4.47$, 정치적 성향별 $\chi^2=14.14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19〉 귀하는 정부가 문화 및 여가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문화기반 시설 (도서관, 극장 등) 확충	취약계층에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진흥(예: 지역축제 활성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시설 확충	계
전체		34.0	26.0	4.0	31.0	5.0	100.0
성별	남자	31.9	27.5	2.9	33.3	4.3	100.0
	여자	38.7	22.6	6.5	25.8	6.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26.7	30.0	6.7	30.0	6.7	100.0
	사회계열	36.6	34.1	2.4	19.5	7.3	100.0
	보건계열	37.9	10.3	3.4	48.3	0.0	100.0
소속별	대학	32.4	27.9	1.5	30.9	7.4	100.0
	연구기관	37.5	21.9	9.4	31.3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7.1	17.6	5.9	23.5	5.9	100.0
	중도	30.3	24.2	6.1	36.4	3.0	100.0
	진보	32.0	30.0	2.0	30.0	6.0	100.0

주: 1) 성별 $\chi^2=1.75$, 전공별 $\chi^2=12.061$, 소속별 $\chi^2=6.23$, 정치적 성향별 $\chi^2=3.85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0〉 귀하는 정부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개선	생활환경 오염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공해 등) 개선	유해물질 (석면, 화학물질 등) 관리체계 구축	도시공원, 도시 숲 등 산림 인프라 확충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계
전체		69.0	17.0	5.0	8.0	1.0	100.0
성별	남자	62.3	21.7	5.8	8.7	1.4	100.0
	여자	83.9	6.5	3.2	6.5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56.7	20.0	3.3	16.7	3.3	100.0
	사회계열	90.2	4.9	2.4	2.4	0.0	100.0
	보건계열	51.7	31.0	10.3	6.9	0.0	100.0
소속별	대학	72.1	19.1	2.9	4.4	1.5	100.0
	연구기관	62.5	12.5	9.4	15.6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7.1	29.4	5.9	11.8	5.9	100.0
	중도	66.7	15.2	6.1	12.1	0.0	100.0
	진보	78.0	14.0	4.0	4.0	0.0	100.0

주: 1) 성별 $\chi^2=5.247$, 전공별 $\chi^2=20.801$, 소속별 $\chi^2=6.541$, 정치적 성향별 $\chi^2=10.75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1〉 귀하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누구나 충분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역 격차 해소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의 증진	사회 서비스 제공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기타	계
전체		33.0	46.0	8.0	8.0	4.0	1.0	100.0
성별	남자	29.0	52.2	8.7	7.2	2.9	0.0	100.0
	여자	41.9	32.3	6.5	9.7	6.5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0.0	46.7	6.7	10.0	3.3	3.3	100.0
	사회계열	36.6	48.8	7.3	2.4	4.9	0.0	100.0
	보건계열	31.0	41.4	10.3	13.8	3.4	0.0	100.0
소속별	대학	30.9	51.5	5.9	7.4	4.4	0.0	100.0
	연구기관	37.5	34.4	12.5	9.4	3.1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9.4	35.3	11.8	17.6	5.9	0.0	100.0
	중도	33.3	48.5	6.1	9.1	3.0	0.0	100.0
	진보	34.0	48.0	8.0	4.0	4.0	2.0	100.0

주: 1) 성별 $\chi^2=6.125$, 전공별 $\chi^2=6.191$, 소속별 $\chi^2=5.189$, 정치적 성향별 $\chi^2=5.30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2〉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보건으로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1순위

(단위: %)

구분	건강 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 보험 재정 안정화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 확충	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 확대 (예, 돌, 담배 등 생활 습관관리)	재난응급 의료 체계 강화	감염병 등 질병 예방 사업 강화	정신 증진 사업 확대	기타	계
전체	38.0	16.0	12.0	15.0	7.0	5.0	3.0	3.0	1.0	100.0
성별										
남자	34.8	17.4	14.5	14.5	7.2	7.2	2.9	1.4	0.0	100.0
여자	45.2	12.9	6.5	16.1	6.5	0.0	3.2	6.5	3.2	100.0
연령별										
청소년	30.0	33.3	13.3	3.3	3.3	16.7	0.0	0.0	0.0	100.0
사회계층	53.7	4.9	14.6	17.1	0.0	0.0	2.4	4.9	2.4	100.0
보건계층	24.1	13.8	6.9	24.1	20.7	0.0	6.9	3.4	0.0	100.0
교육수준										
대학	36.8	16.2	8.8	17.6	7.4	4.4	4.4	2.9	1.5	100.0
연구기관	40.6	15.6	18.8	9.4	6.3	6.3	0.0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29.4	0.0	11.8	17.6	11.8	5.9	5.9	0.0	100.0
중도	33.3	24.2	3.0	15.2	12.1	6.1	0.0	6.1	0.0	100.0
진보	48.0	6.0	22.0	16.0	0.0	2.0	4.0	0.0	2.0	100.0

주: 1) 성별 $\chi^2=8.35$, 전공별 $\chi^2=47.002$, 소속별 $\chi^2=4.939$, 정치적 성향별 $\chi^2=34.015$
 2) *p<0.05, **p<0.01, ***p<0.001

〈부표 4-123〉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2순위

(단위: %)

구분	건강 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 보험 재정 안정화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 확충	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예, 술, 담배 등 생활습관 관리)	재난·응급 의료 체계 강화	감염병 등 질병 예방 사업 강화	정신 건강 증진 사업 확대	기타	계
전체	13.0	11.0	19.0	23.0	15.0	7.0	1.0	11.0	0.0	100.0
성별										
남자	13.0	11.6	18.8	21.7	17.4	5.8	1.4	10.1	0.0	100.0
여자	12.9	9.7	19.4	25.8	9.7	9.7	0.0	12.9	0.0	100.0
연령별										
경상계열	10.0	6.7	23.3	36.7	3.3	3.3	0.0	16.7	0.0	100.0
사회계열	9.8	7.3	26.8	19.5	19.5	7.3	0.0	9.8	0.0	100.0
보건계열	20.7	20.7	3.4	13.8	20.7	10.3	3.4	6.9	0.0	100.0
교육별										
대학	13.2	11.8	23.5	17.6	20.6	5.9	1.5	5.9	0.0	100.0
연구기관	12.5	9.4	9.4	34.4	3.1	9.4	0.0	21.9	0.0	100.0
직업별										
보수	11.8	5.9	5.9	41.2	11.8	5.9	0.0	17.6	0.0	100.0
중도	9.1	6.1	18.2	24.2	18.2	12.1	3.0	9.1	0.0	100.0
정보	16.0	16.0	24.0	16.0	14.0	4.0	0.0	10.0	0.0	100.0

주: 1) 성별 $\chi^2=2.134$, 전공별 $\chi^2=23.16$, 소속별 $\chi^2=15.397$, 정치적 성향별 $\chi^2=13.918$ 2) * $p<0.05$, ** $p<0.01$, *** $p<0.001$

〈부표 4-124〉 귀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신기술, 고가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액 차등 (중증질환 부담완화, 경증질환 부담강화)	기타	계
전체		12.0	22.0	8.0	18.0	39.0	1.0	100.0
성별	남자	14.5	21.7	7.2	20.3	34.8	1.4	100.0
	여자	6.5	22.6	9.7	12.9	48.4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26.7	10.0	20.0	36.7	0.0	100.0
	사회계열	12.2	17.1	12.2	19.5	36.6	2.4	100.0
	보건계열	17.2	24.1	0.0	13.8	44.8	0.0	100.0
소속별	대학	14.7	22.1	2.9	19.1	39.7	1.5	100.0
	연구기관	6.3	21.9	18.8	15.6	37.5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41.2	5.9	5.9	35.3	0.0	100.0
	중도	12.1	21.2	6.1	12.1	45.5	3.0	100.0
	진보	12.0	16.0	10.0	26.0	36.0	0.0	100.0

주: 1) 성별 $\chi^2=3.43$, 전공별 $\chi^2=7.756$, 소속별 $\chi^2=8.74$, 정치적 성향별 $\chi^2=10.52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5〉 귀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국고 지원 확대	건강 보험료 인상	의료 공급 체계의 효율화	진료비 지불 제도 개선	새로운 재원 마련 (의료 보장세 등)	환자 본인 부담 등 비용 의식 제고	기타	계
전체		16.0	11.0	29.0	22.0	9.0	11.0	2.0	100.0
성별	남자	17.4	14.5	21.7	23.2	8.7	11.6	2.9	100.0
	여자	12.9	3.2	45.2	19.4	9.7	9.7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3.3	10.0	13.3	26.7	10.0	26.7	0.0	100.0
	사회계열	22.0	9.8	39.0	19.5	7.3	0.0	2.4	100.0
	보건계열	10.3	13.8	31.0	20.7	10.3	10.3	3.4	100.0
소속별	대학	19.1	10.3	25.0	23.5	11.8	7.4	2.9	100.0
	연구기관	9.4	12.5	37.5	18.8	3.1	18.8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11.8	41.2	23.5	0.0	11.8	0.0	100.0
	중도	15.2	9.1	18.2	30.3	6.1	18.2	3.0	100.0
	진보	18.0	12.0	32.0	16.0	14.0	6.0	2.0	100.0

주: 1) 성별 $\chi^2=7.92$, 전공별 $\chi^2=18.727$, 소속별 $\chi^2=8.101$, 정치적 성향별 $\chi^2=11.16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6〉 귀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건강보험 수가 인상	공공의료체 계 확충	의료 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료 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의료전달체계 의 개편(예: 의원급 진료후 병원급 진료가능)	계
전체		8.0	10.0	34.0	14.0	25.0	9.0	100.0
성별	남자	5.8	13.0	33.3	15.9	26.1	5.8	100.0
	여자	12.9	3.2	35.5	9.7	22.6	16.1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10.0	30.0	10.0	30.0	6.7	100.0
	사회계열	7.3	9.8	36.6	14.6	24.4	7.3	100.0
	보건계열	3.4	10.3	34.5	17.2	20.7	13.8	100.0
소속별	대학	5.9	11.8	33.8	14.7	23.5	10.3	100.0
	연구기관	12.5	6.3	34.4	12.5	28.1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11.8	5.9	29.4	47.1	0.0	100.0
	중도	9.1	21.2	27.3	9.1	21.2	12.1	100.0
	진보	8.0	2.0	48.0	12.0	20.0	10.0	100.0

주: 1) 성별 $\chi^2=6.683$, 전공별 $\chi^2=4.216$, 소속별 $\chi^2=2.51$, 정치적 성향별 $\chi^2=24.35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7〉 귀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공공의료기 관의 양적 확대	공공의료기 관의 서비스 질 제고	민간의료기 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에 대한 거버넌스 일원화	기타	계
전체		25.0	44.0	12.0	5.0	13.0	1.0	100.0
성별	남자	31.9	39.1	13.0	4.3	10.1	1.4	100.0
	여자	9.7	54.8	9.7	6.5	19.4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23.3	36.7	13.3	10.0	13.3	3.3	100.0
	사회계열	26.8	46.3	9.8	2.4	14.6	0.0	100.0
	보건계열	24.1	48.3	13.8	3.4	10.3	0.0	100.0
소속별	대학	27.9	45.6	11.8	5.9	8.8	0.0	100.0
	연구기관	18.8	40.6	12.5	3.1	21.9	3.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52.9	17.6	17.6	11.8	0.0	100.0
	중도	30.3	33.3	18.2	0.0	18.2	0.0	100.0
	진보	30.0	48.0	6.0	4.0	10.0	2.0	100.0

주: 1) 성별 $\chi^2=7.655$, 전공별 $\chi^2=5.684$, 소속별 $\chi^2=6.174$, 정치적 성향별 $\chi^2=18.70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8〉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계
전체		6.0	20.0	36.0	27.0	11.0	100.0
성별	남자	5.8	20.3	31.9	31.9	10.1	100.0
	여자	6.5	19.4	45.2	16.1	12.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16.7	33.3	30.0	10.0	100.0
	사회계열	7.3	14.6	39.0	22.0	17.1	100.0
	보건계열	0.0	31.0	34.5	31.0	3.4	100.0
소속별	대학	5.9	20.6	32.4	30.9	10.3	100.0
	연구기관	6.3	18.8	43.8	18.8	12.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11.8	23.5	58.8	5.9	100.0
	중도	9.1	30.3	39.4	9.1	12.1	100.0
	진보	6.0	16.0	38.0	28.0	12.0	100.0

주: 1) 성별 $\chi^2=3.186$, 전공별 $\chi^2=8.93$, 소속별 $\chi^2=2.109$, 정치적 성향별 $\chi^2=15.97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29〉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 지원 정책	임산· 출산 의료 비용 지원 강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아이 돌보미, 초등돌봄교 실 등 보육 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양적 질적 강화	기타	계
전체		20.0	2.0	31.0	15.0	6.0	20.0	6.0	100.0
성별	남자	21.7	2.9	27.5	13.0	7.2	20.3	7.2	100.0
	여자	16.1	0.0	38.7	19.4	3.2	19.4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0.0	3.3	33.3	10.0	10.0	20.0	13.3	100.0
	사회계열	22.0	0.0	39.0	19.5	2.4	14.6	2.4	100.0
	보건계열	27.6	3.4	17.2	13.8	6.9	27.6	3.4	100.0
소속별	대학	22.1	2.9	32.4	14.7	4.4	19.1	4.4	100.0
	연구기관	15.6	0.0	28.1	15.6	9.4	21.9	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7.6	11.8	17.6	17.6	5.9	23.5	5.9	100.0
	중도	24.2	0.0	33.3	9.1	9.1	18.2	6.1	100.0
	진보	18.0	0.0	34.0	18.0	4.0	20.0	6.0	100.0

주: 1) 성별 $\chi^2=3.827$, 전공별 $\chi^2=14.563$, 소속별 $\chi^2=3.399$, 정치적 성향별 $\chi^2=13.55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0〉 귀하는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아동보호 등)	아동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 (비만, 정신건강 등)	아동 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 (학교 밖 청소년 자원 확대 등)	아동 상담 서비스 강화 (학교 사회 복지사 배치 등)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층 등 취약 가구 양육지원 강화	맞벌이 가구 등 취학아동의 돌봄강화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 센터 지원 등)	안전한 환경조성 (아동안전 환경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	기타	계
전체		13.0	7.0	17.0	10.0	8.0	32.0	12.0	1.0	100.0
성별	남자	15.9	7.2	15.9	10.1	8.7	30.4	10.1	1.4	100.0
	여자	6.5	6.5	19.4	9.7	6.5	35.5	16.1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6.7	3.3	13.3	10.0	3.3	43.3	6.7	3.3	100.0
	사회계열	4.9	9.8	22.0	14.6	14.6	24.4	9.8	0.0	100.0
	보건계열	20.7	6.9	13.8	3.4	3.4	31.0	20.7	0.0	100.0
소속별	대학	10.3	7.4	17.6	11.8	10.3	32.4	10.3	0.0	100.0
	연구기관	18.8	6.3	15.6	6.3	3.1	31.3	15.6	3.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23.5	23.5	5.9	5.9	0.0	17.6	23.5	0.0	100.0
	중도	6.1	9.1	15.2	9.1	6.1	39.4	12.1	3.0	100.0
	진보	14.0	0.0	22.0	12.0	12.0	32.0	8.0	0.0	100.0

주: 1) 성별 $\chi^2=3.045$, 전공별 $\chi^2=18.68$, 소속별 $\chi^2=5.995$, 정치적 성향별 $\chi^2=24.35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1〉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자원 봉사 또는 여가 활동 지원	차매 독거 세대 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인하)	노후 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	기타	계
전체		24.0	24.0	9.0	17.0	11.0	7.0	5.0	3.0	100.0
성별	남자	24.6	24.6	10.1	17.4	10.1	7.2	4.3	1.4	100.0
	여자	22.6	22.6	6.5	16.1	12.9	6.5	6.5	6.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6.7	13.3	16.7	13.3	0.0	10.0	3.3	6.7	100.0
	사회계열	22.0	39.0	4.9	7.3	14.6	4.9	4.9	2.4	100.0
	보건계열	13.8	13.8	6.9	34.5	17.2	6.9	6.9	0.0	100.0
소속별	대학	20.6	22.1	11.8	17.6	14.7	5.9	5.9	1.5	100.0
	연구기관	31.3	28.1	3.1	15.6	3.1	9.4	3.1	6.3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29.4	5.9	11.8	29.4	17.6	0.0	5.9	0.0	100.0
	중도	18.2	9.1	15.2	18.2	18.2	15.2	3.0	3.0	100.0
	진보	26.0	40.0	4.0	12.0	4.0	4.0	6.0	4.0	100.0

주: 1) 성별 $\chi^2=2.56$, 전공별 $\chi^2=28.565$, 소속별 $\chi^2=8.241$, 정치적 성향별 $\chi^2=27.17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2〉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수당, 장애연금 금 등)	의료, 재활, 건강 관리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 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일자리 확대 포함)	활동 지원 등 일상 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장애등급제 개편	계
전체		18.0	11.0	15.0	38.0	15.0	2.0	1.0	100.0
성별	남자	21.7	8.7	15.9	39.1	14.5	0.0	0.0	100.0
	여자	9.7	16.1	12.9	35.5	16.1	6.5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10.0	20.0	36.7	20.0	3.3	3.3	100.0
	사회계열	29.3	4.9	7.3	43.9	12.2	2.4	0.0	100.0
	보건계열	13.8	20.7	20.7	31.0	13.8	0.0	0.0	100.0
소속별	대학	20.6	10.3	14.7	36.8	16.2	1.5	0.0	100.0
	연구기관	12.5	12.5	15.6	40.6	12.5	3.1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11.8	5.9	17.6	47.1	17.6	0.0	0.0	100.0
	중도	3.0	12.1	27.3	36.4	15.2	3.0	3.0	100.0
	진보	30.0	12.0	6.0	36.0	14.0	2.0	0.0	100.0

주: 1) 성별 $\chi^2=9.725$, 전공별 $\chi^2=16.68$, 소속별 $\chi^2=3.604$, 정치적 성향별 $\chi^2=18.15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3〉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동네 의원을 통한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주민들의 지원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돌봄체계 구축	기타	계
전체		59.0	8.0	10.0	4.0	5.0	12.0	2.0	100.0
성별 *	남자	55.1	5.8	11.6	5.8	1.4	17.4	2.9	100.0
	여자	67.7	12.9	6.5	0.0	12.9	0.0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53.3	6.7	16.7	0.0	10.0	13.3	0.0	100.0
	사회계열	65.9	9.8	4.9	4.9	2.4	7.3	4.9	100.0
	보건계열	55.2	6.9	10.3	6.9	3.4	17.2	0.0	100.0
소속별 *	대학	60.3	7.4	8.8	5.9	0.0	14.7	2.9	100.0
	연구기관	56.3	9.4	12.5	0.0	15.6	6.3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76.5	0.0	11.8	0.0	0.0	11.8	0.0	100.0
	중도	54.5	12.1	6.1	0.0	9.1	18.2	0.0	100.0
	진보	56.0	8.0	12.0	8.0	4.0	8.0	4.0	100.0

주: 1) 성별 $\chi^2=16.197$, 전공별 $\chi^2=11.643$, 소속별 $\chi^2=15.211$, 정치적 성향별 $\chi^2=13.66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4〉 귀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 정책의 체감도 향상	민관 협력 체계 강화	현행 복지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유사 중복 사업조정, 부적정 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현행 복지 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복지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자원 마련	아직 도입 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기타	계
전체		19.0	2.0	34.0	22.0	8.0	11.0	1.0	3.0	100.0
성별	남자	23.2	1.4	26.1	24.6	11.6	10.1	0.0	2.9	100.0
	여자	9.7	3.2	51.6	16.1	0.0	12.9	3.2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3.3	36.7	30.0	10.0	16.7	0.0	0.0	100.0
	사회계열	24.4	0.0	31.7	9.8	12.2	12.2	2.4	7.3	100.0
	보건계열	27.6	3.4	34.5	31.0	0.0	3.4	0.0	0.0	100.0
소속별	대학	20.6	1.5	33.8	20.6	7.4	10.3	1.5	4.4	100.0
	연구기관	15.6	3.1	34.4	25.0	9.4	12.5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0.0	52.9	35.3	0.0	11.8	0.0	0.0	100.0
	중도	21.2	6.1	36.4	27.3	3.0	6.1	0.0	0.0	100.0
	진보	24.0	0.0	26.0	14.0	14.0	14.0	2.0	6.0	100.0

주: 1) 성별 $\chi^2=13.171$, 전공별 $\chi^2=23.45$, 소속별 $\chi^2=2.864$, 정치적 성향별 $\chi^2=23.83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5〉 귀하는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청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계
전체		75.0	11.0	8.0	5.0	1.0	100.0
성별	남자	76.8	10.1	8.7	2.9	1.4	100.0
	여자	71.0	12.9	6.5	9.7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3.3	10.0	13.3	10.0	3.3	100.0
	사회계열	80.5	9.8	4.9	4.9	0.0	100.0
	보건계열	79.3	13.8	6.9	0.0	0.0	100.0
소속별 *	대학	83.8	5.9	5.9	4.4	0.0	100.0
	연구기관	56.3	21.9	12.5	6.3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76.5	5.9	17.6	0.0	0.0	100.0
	중도	84.8	9.1	3.0	3.0	0.0	100.0
	진보	68.0	14.0	8.0	8.0	2.0	100.0

주: 1) 성별 $\chi^2=2.795$, 전공별 $\chi^2=7.966$, 소속별 $\chi^2=10.729$, 정치적 성향별 $\chi^2=7.68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6〉 고용정책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귀하는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계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8.0	20.0	21.0	37.0	14.0	100.0
성별	남자	10.1	17.4	24.6	34.8	13.0	100.0
	여자	3.2	25.8	12.9	41.9	16.1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20.0	23.3	40.0	13.3	100.0
	사회계열	7.3	17.1	19.5	41.5	14.6	100.0
	보건계열	13.8	24.1	20.7	27.6	13.8	100.0
소속별	대학	11.8	16.2	22.1	33.8	16.2	100.0
	연구기관	0.0	28.1	18.8	43.8	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23.5	17.6	17.6	23.5	17.6	100.0
	중도	12.1	18.2	24.2	33.3	12.1	100.0
	진보	0.0	22.0	20.0	44.0	14.0	100.0

주: 1) 성별 $\chi^2=3.881$, 전공별 $\chi^2=3.614$, 소속별 $\chi^2=6.73$, 정치적 성향별 $\chi^2=12.167$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7〉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공공 일자리 확대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예: 근로 시간 단축 및 임금피크제 등)	기타	계
전체		10.0	11.0	28.0	17.0	16.0	17.0	1.0	100.0
성별 *	남자	11.6	14.5	30.4	20.3	10.1	13.0	0.0	100.0
	여자	6.5	3.2	22.6	9.7	29.0	25.8	3.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16.7	46.7	10.0	3.3	20.0	0.0	100.0
	사회계열	17.1	9.8	19.5	12.2	17.1	22.0	2.4	100.0
	보건계열	6.9	6.9	20.7	31.0	27.6	6.9	0.0	100.0
소속별	대학	10.3	11.8	29.4	16.2	16.2	16.2	0.0	100.0
	연구기관	9.4	9.4	25.0	18.8	15.6	18.8	3.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23.5	41.2	17.6	17.6	0.0	0.0	100.0
	중도	0.0	12.1	33.3	18.2	18.2	18.2	0.0	100.0
	진보	20.0	6.0	20.0	16.0	14.0	22.0	2.0	100.0

주: 1) 성별 $\chi^2=13.967$, 전공별 $\chi^2=24.566$, 소속별 $\chi^2=2.581$, 정치적 성향별 $\chi^2=21.09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8〉 귀하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지역 차별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고용 안정성 (비 정규직의 정규화 등) 제고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강화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임금 체계 개편	일자리 알선, 교육 교실, 실직 은퇴 지원 강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기타	계
전체	7.0	35.0	21.0	0.0	1.0	11.0	8.0	16.0	1.0	100.0
성별	남자	8.7	33.3	23.2	0.0	1.4	8.7	14.5	1.4	100.0
	여자	3.2	38.7	16.1	0.0	0.0	6.5	19.4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23.3	13.3	0.0	0.0	16.7	26.7	0.0	100.0
	사회계열	7.3	43.9	26.8	0.0	0.0	9.8	9.8	0.0	100.0
	보건계열	10.3	34.5	20.7	0.0	3.4	6.9	13.8	3.4	100.0
소속별 **	대학	8.8	42.6	20.6	0.0	1.5	7.4	7.4	1.5	100.0
	연구기관	3.1	18.8	21.9	0.0	0.0	18.8	34.4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35.3	11.8	0.0	0.0	23.5	17.6	0.0	100.0
	중도	3.0	30.3	6.1	0.0	3.0	12.1	27.3	3.0	100.0
	진보	8.0	38.0	34.0	0.0	0.0	0.0	8.0	0.0	100.0

주: 1) 성별 $\chi^2=4.022$, 전공별 $\chi^2=18.588$, 소속별 $\chi^2=19.416$, 정치적 성향별 $\chi^2=30.89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39〉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1) 일할 기회의 제공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2.0	29.0	69.0	100.0
성별	남자	2.9	72.5	100.0
	여자	0.0	61.3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6.7	53.3	100.0
	사회계열	0.0	80.5	100.0
	보건계열	0.0	69.0	100.0
소속별 +	대학	0.0	73.5	100.0
	연구기관	6.3	5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70.6	100.0
	중도	3.0	54.5	100.0
	진보	2.0	78.0	100.0

주: 1) 성별 $\chi^2=2.746$, 전공별 $\chi^2=9.084$, 소속별 $\chi^2=5.351$, 정치적 성향별 $\chi^2=5.55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0〉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2)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5.0	51.0	44.0	100.0
성별 +	남자	7.2	55.1	37.7	100.0
	여자	0.0	41.9	58.1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0.0	70.0	20.0	100.0
	사회계열	0.0	31.7	68.3	100.0
	보건계열	6.9	58.6	34.5	100.0
소속별	대학	4.4	47.1	48.5	100.0
	연구기관	6.3	59.4	34.4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70.6	17.6	100.0
	중도	6.1	69.7	24.2	100.0
	진보	2.0	32.0	66.0	100.0

주: 1) 성별 $\chi^2=4.99$, 전공별 $\chi^2=19.228$, 소속별 $\chi^2=1.785$, 정치적 성향별 $\chi^2=20.72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1〉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3)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4.0	54.0	42.0	100.0
성별	남자	4.3	56.5	39.1	100.0
	여자	3.2	48.4	48.4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6.7	56.7	36.7	100.0
	사회계열	0.0	41.5	58.5	100.0
	보건계열	6.9	69.0	24.1	100.0
소속별	대학	5.9	52.9	41.2	100.0
	연구기관	0.0	56.3	43.8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1.8	82.4	5.9	100.0
	중도	0.0	60.6	39.4	100.0
	진보	4.0	40.0	56.0	100.0

주: 1) 성별 $\chi^2=0.766$, 전공별 $\chi^2=10.293$, 소속별 $\chi^2=1.961$, 정치적 성향별 $\chi^2=16.16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2〉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4)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보장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1.0	40.0	59.0	100.0
성별	남자	1.4	40.6	58.0	100.0
	여자	0.0	38.7	61.3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53.3	46.7	100.0
	사회계열	2.4	31.7	65.9	100.0
	보건계열	0.0	37.9	62.1	100.0
소속별	대학	1.5	35.3	63.2	100.0
	연구기관	0.0	50.0	5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47.1	52.9	100.0
	중도	3.0	60.6	36.4	100.0
	진보	0.0	24.0	76.0	100.0

주: 1) 성별 $\chi^2=0.508$, 전공별 $\chi^2=4.654$, 소속별 $\chi^2=2.293$, 정치적 성향별 $\chi^2=14.36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3〉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5)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1.0	57.0	42.0	100.0
성별 +	남자	1.4	63.8	34.8	100.0
	여자	0.0	41.9	58.1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70.0	30.0	100.0
	사회계열	0.0	46.3	53.7	100.0
	보건계열	3.4	58.6	37.9	100.0
소속별	대학	1.5	55.9	42.6	100.0
	연구기관	0.0	59.4	40.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76.5	23.5	100.0
	중도	3.0	54.5	42.4	100.0
	진보	0.0	52.0	48.0	100.0

주: 1) 성별 $\chi^2=4.999$, 전공별 $\chi^2=6.638$, 소속별 $\chi^2=0.538$, 정치적 성향별 $\chi^2=5.22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4〉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6) 고용상의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0.0	50.0	50.0	100.0
성별 +	남자	0.0	56.5	43.5	100.0
	여자	0.0	35.5	64.5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56.7	43.3	100.0
	사회계열	0.0	36.6	63.4	100.0
	보건계열	0.0	62.1	37.9	100.0
소속별 +	대학	0.0	44.1	55.9	100.0
	연구기관	0.0	62.5	37.5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0.0	64.7	35.3	100.0
	중도	0.0	63.6	36.4	100.0
	진보	0.0	36.0	64.0	100.0

주: 1) 성별 $\chi^2=3.787$, 전공별 $\chi^2=5.174$, 소속별 $\chi^2=2.941$, 정치적 성향별 $\chi^2=7.84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5〉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7) 산업재해 등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2.0	39.0	59.0	100.0
성별 +	남자	2.9	44.9	52.2	100.0
	여자	0.0	25.8	74.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0.0	56.7	43.3	100.0
	사회계열	0.0	29.3	70.7	100.0
	보건계열	6.9	34.5	58.6	100.0
소속별	대학	2.9	42.6	54.4	100.0
	연구기관	0.0	31.3	68.8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41.2	52.9	100.0
	중도	0.0	48.5	51.5	100.0
	진보	2.0	32.0	66.0	100.0

주: 1) 성별 $\chi^2=4.662$, 전공별 $\chi^2=10.65$, 소속별 $\chi^2=2.424$, 정치적 성향별 $\chi^2=4.18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6〉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8)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1.0	45.0	54.0	100.0
성별	남자	1.4	47.8	50.7	100.0
	여자	0.0	38.7	61.3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70.0	26.7	100.0
	사회계열	0.0	29.3	70.7	100.0
	보건계열	0.0	41.4	58.6	100.0
소속별	대학	1.5	41.2	57.4	100.0
	연구기관	0.0	53.1	46.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2.9	47.1	100.0
	중도	3.0	51.5	45.5	100.0
	진보	0.0	38.0	62.0	100.0

주: 1) 성별 $\chi^2=1.287$, 전공별 $\chi^2=15.23$, 소속별 $\chi^2=1.603$, 정치적 성향별 $\chi^2=4.31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7〉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_ 9) 노사 간의 수평적 관계와 민주적 의사소통

(단위: %)

구분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계
전체		1.0	60.0	39.0	100.0
성별	남자	1.4	59.4	39.1	100.0
	여자	0.0	61.3	38.7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66.7	30.0	100.0
	사회계열	0.0	53.7	46.3	100.0
	보건계열	0.0	62.1	37.9	100.0
소속별	대학	1.5	60.3	38.2	100.0
	연구기관	0.0	59.4	40.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82.4	17.6	100.0
	중도	3.0	57.6	39.4	100.0
	진보	0.0	54.0	46.0	100.0

주: 1) 성별 $\chi^2=0.463$, 전공별 $\chi^2=4.049$, 소속별 $\chi^2=0.506$, 정치적 성향별 $\chi^2=6.39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8〉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복지 서비스 연계 주택 확대	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	주거마련 (임대, 자가)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대출)	주거마련 (임대, 자가)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주택 유지 수선 지원 강화	계
전체		59.0	12.0	6.0	8.0	12.0	3.0	100.0
성별	남자	63.8	11.6	5.8	7.2	10.1	1.4	100.0
	여자	48.4	12.9	6.5	9.7	16.1	6.5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0.0	13.3	3.3	10.0	13.3	0.0	100.0
	사회계열	68.3	9.8	9.8	2.4	7.3	2.4	100.0
	보건계열	44.8	13.8	3.4	13.8	17.2	6.9	100.0
소속별	대학	61.8	11.8	7.4	8.8	7.4	2.9	100.0
	연구기관	53.1	12.5	3.1	6.3	21.9	3.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8.8	11.8	0.0	0.0	17.6	11.8	100.0
	중도	51.5	12.1	3.0	18.2	12.1	3.0	100.0
	진보	64.0	12.0	10.0	4.0	10.0	0.0	100.0

주: 1) 성별 $\chi^2=3.484$, 전공별 $\chi^2=10.341$, 소속별 $\chi^2=4.94$, 정치적 성향별 $\chi^2=16.47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49〉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어메니티(Amenity)

(단위: %)

구분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계
전체		5.0	34.0	50.0	11.0	100.0
성별 +	남자	7.2	39.1	42.0	11.6	100.0
	여자	0.0	22.6	67.7	9.7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3.3	53.3	33.3	0.0	100.0
	사회계열	0.0	26.8	56.1	17.1	100.0
	보건계열	3.4	24.1	58.6	13.8	100.0
소속별	대학	4.4	29.4	52.9	13.2	100.0
	연구기관	6.3	43.8	43.8	6.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35.3	64.7	0.0	100.0
	중도	6.1	39.4	42.4	12.1	100.0
	진보	6.0	30.0	50.0	14.0	100.0

주: 1) 성별 $\chi^2=6.869$, 전공별 $\chi^2=18.387$, 소속별 $\chi^2=2.796$, 정치적 성향별 $\chi^2=4.98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0〉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_

2)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단위: %)

구분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계
전체		1.0	16.0	44.0	39.0	100.0
성별 *	남자	0.0	20.3	47.8	31.9	100.0
	여자	3.2	6.5	35.5	54.8	100.0
전공별	경상계열	0.0	26.7	43.3	30.0	100.0
	사회계열	2.4	7.3	39.0	51.2	100.0
	보건계열	0.0	17.2	51.7	31.0	100.0
소속별	대학	0.0	16.2	48.5	35.3	100.0
	연구기관	3.1	15.6	34.4	46.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7.6	58.8	23.5	100.0
	중도	0.0	27.3	42.4	30.3	100.0
	진보	2.0	8.0	40.0	50.0	100.0

주: 1) 성별 $\chi^2=8.416$, 전공별 $\chi^2=8.824$, 소속별 $\chi^2=3.868$, 정치적 성향별 $\chi^2=9.934$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1〉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_

3) 안정성(Stability)

(단위: %)

구분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계
전체		2.0	18.0	47.0	33.0	100.0
성별	남자	2.9	20.3	49.3	27.5	100.0
	여자	0.0	12.9	41.9	45.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30.0	46.7	20.0	100.0
	사회계열	0.0	4.9	46.3	48.8	100.0
	보건계열	3.4	24.1	48.3	24.1	100.0
소속별	대학	2.9	17.6	44.1	35.3	100.0
	연구기관	0.0	18.8	53.1	28.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29.4	52.9	17.6	100.0
	중도	3.0	21.2	45.5	30.3	100.0
	진보	2.0	12.0	46.0	40.0	100.0

주: 1) 성별 $\chi^2=3.806$, 전공별 $\chi^2=13.655$, 소속별 $\chi^2=1.67$, 정치적 성향별 $\chi^2=5.11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2〉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_

4) 편리성(Convenience)

(단위: %)

구분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계
전체		4.0	24.0	53.0	19.0	100.0
성별	남자	5.8	24.6	53.6	15.9	100.0
	여자	0.0	22.6	51.6	25.8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36.7	50.0	6.7	100.0
	사회계열	0.0	17.1	58.5	24.4	100.0
	보건계열	6.9	20.7	48.3	24.1	100.0
소속별	대학	4.4	25.0	47.1	23.5	100.0
	연구기관	3.1	21.9	65.6	9.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29.4	52.9	11.8	100.0
	중도	6.1	27.3	36.4	30.3	100.0
	진보	2.0	20.0	64.0	14.0	100.0

주: 1) 성별 $\chi^2=2.947$, 전공별 $\chi^2=9.581$, 소속별 $\chi^2=3.888$, 정치적 성향별 $\chi^2=7.899$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3〉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_

5) 보건성(Health)

(단위: %)

구분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계
전체		2.0	25.0	50.0	23.0	100.0
성별 +	남자	2.9	27.5	53.6	15.9	100.0
	여자	0.0	19.4	41.9	38.7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	56.7	33.3	6.7	100.0
	사회계열	0.0	12.2	61.0	26.8	100.0
	보건계열	3.4	10.3	51.7	34.5	100.0
소속별	대학	2.9	19.1	54.4	23.5	100.0
	연구기관	0.0	37.5	40.6	21.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23.5	47.1	29.4	100.0
	중도	3.0	24.2	45.5	27.3	100.0
	진보	2.0	26.0	54.0	18.0	100.0

주: 1) 성별 $\chi^2=6.876$, 전공별 $\chi^2=26.68$, 소속별 $\chi^2=4.735$, 정치적 성향별 $\chi^2=1.99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4〉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_

6) 안전성(Safety)

(단위: %)

구분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계
전체		2.0	20.0	39.0	39.0	100.0
성별	남자	2.9	20.3	43.5	33.3	100.0
	여자	0.0	19.4	29.0	51.6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6.7	43.3	30.0	20.0	100.0
	사회계열	0.0	12.2	43.9	43.9	100.0
	보건계열	0.0	6.9	41.4	51.7	100.0
소속별	대학	1.5	17.6	42.6	38.2	100.0
	연구기관	3.1	25.0	31.3	40.6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17.6	41.2	41.2	100.0
	중도	3.0	18.2	39.4	39.4	100.0
	진보	2.0	22.0	38.0	38.0	100.0

주: 1) 성별 $\chi^2=3.885$, 전공별 $\chi^2=21.723$, 소속별 $\chi^2=1.643$, 정치적 성향별 $\chi^2=0.78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5〉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_

7) 커뮤니티(Community)

(단위: %)

구분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계
전체		3.0	32.0	49.0	16.0	100.0
성별 +	남자	4.3	37.7	40.6	17.4	100.0
	여자	0.0	19.4	67.7	12.9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50.0	33.3	10.0	100.0
	사회계열	2.4	19.5	58.5	19.5	100.0
	보건계열	0.0	31.0	51.7	17.2	100.0
소속별	대학	2.9	26.5	52.9	17.6	100.0
	연구기관	3.1	43.8	40.6	12.5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35.3	47.1	11.8	100.0
	중도	0.0	42.4	48.5	9.1	100.0
	진보	4.0	24.0	50.0	22.0	100.0

주: 1) 성별 $\chi^2=7.083$, 전공별 $\chi^2=10.628$, 소속별 $\chi^2=3.067$, 정치적 성향별 $\chi^2=6.13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6〉 귀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다음 항목 중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1순위

(단위: %)

구분		노인	유족	근로 무능력 자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실업	주거	기타	계
전체		29.0	1.0	5.0	11.0	5.0	28.0	14.0	7.0	0.0	100.0
성별	남자	30.4	1.4	4.3	13.0	4.3	29.0	14.5	2.9	0.0	100.0
	여자	25.8	0.0	6.5	6.5	6.5	25.8	12.9	16.1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6.7	0.0	13.3	10.0	3.3	13.3	23.3	0.0	0.0	100.0
	사회계열	19.5	2.4	2.4	2.4	7.3	43.9	9.8	12.2	0.0	100.0
	보건계열	34.5	0.0	0.0	24.1	3.4	20.7	10.3	6.9	0.0	100.0
소속별 +	대학	27.9	1.5	1.5	7.4	4.4	30.9	17.6	8.8	0.0	100.0
	연구기관	31.3	0.0	12.5	18.8	6.3	21.9	6.3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47.1	0.0	0.0	17.6	0.0	17.6	5.9	11.8	0.0	100.0
	중도	27.3	0.0	3.0	12.1	9.1	27.3	18.2	3.0	0.0	100.0
	진보	24.0	2.0	8.0	8.0	4.0	32.0	14.0	8.0	0.0	100.0

주: 1) 성별 $\chi^2=7.296$, 전공별 $\chi^2=30.744$, 소속별 $\chi^2=12.222$, 정치적 성향별 $\chi^2=12.088$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7〉 귀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다음 항목 중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 2순위

(단위: %)

구분		노인	유족	근로 무능력 자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실업	주거	기타	계
전체		18.0	2.0	9.0	21.0	11.0	12.0	16.0	10.0	1.0	100.0
성별	남자	13.0	2.9	11.6	20.3	8.7	13.0	15.9	13.0	1.4	100.0
	여자	29.0	0.0	3.2	22.6	16.1	9.7	16.1	3.2	0.0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13.3	6.7	13.3	13.3	6.7	13.3	16.7	13.3	3.3	100.0
	사회계열	24.4	0.0	9.8	9.8	17.1	9.8	17.1	12.2	0.0	100.0
	보건계열	13.8	0.0	3.4	44.8	6.9	13.8	13.8	3.4	0.0	100.0
소속별	대학	14.7	2.9	10.3	19.1	14.7	11.8	16.2	10.3	0.0	100.0
	연구기관	25.0	0.0	6.3	25.0	3.1	12.5	15.6	9.4	3.1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5.9	23.5	23.5	0.0	23.5	23.5	0.0	0.0	100.0
	중도	21.2	3.0	6.1	27.3	12.1	9.1	15.2	6.1	0.0	100.0
	진보	22.0	0.0	6.0	16.0	14.0	10.0	14.0	16.0	2.0	100.0

주: 1) 성별 $\chi^2=9.442$, 전공별 $\chi^2=25.899$, 소속별 $\chi^2=7.787$, 정치적 성향별 $\chi^2=22.573$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8〉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보장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단위: %)

구분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계
전체		22.0	78.0	100.0
성별	남자	20.3	79.7	100.0
	여자	25.8	74.2	100.0
전공별 +	경상계열	33.3	66.7	100.0
	사회계열	12.2	87.8	100.0
	보건계열	24.1	75.9	100.0
소속별	대학	25.0	75.0	100.0
	연구기관	15.6	84.4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2.9	47.1	100.0
	중도	33.3	66.7	100.0
	진보	4.0	96.0	100.0

주: 1) 성별 $\chi^2=0.379$, 전공별 $\chi^2=4.62$, 소속별 $\chi^2=1.115$, 정치적 성향별 $\chi^2=21.395$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59〉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
전체		3.0	9.0	8.0	5.0	14.0	19.0	20.0	18.0	3.0	1.0	100.0
성별	남자	2.9	8.7	10.1	7.2	10.1	14.5	24.6	17.4	2.9	1.4	100.0
	여자	3.2	9.7	3.2	0.0	22.6	29.0	9.7	19.4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3.3	10.0	13.3	6.7	20.0	20.0	13.3	13.3	0.0	0.0	100.0
	사회계열	0.0	9.8	2.4	2.4	4.9	24.4	24.4	24.4	4.9	2.4	100.0
	보건계열	6.9	6.9	10.3	6.9	20.7	10.3	20.7	13.8	3.4	0.0	100.0
소속별	대학	2.9	13.2	7.4	5.9	10.3	17.6	16.2	20.6	4.4	1.5	100.0
	연구기관	3.1	0.0	9.4	3.1	21.9	21.9	28.1	12.5	0.0	0.0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17.6	29.4	0.0	17.6	11.8	23.5	0.0	0.0	0.0	0.0	100.0
	중도	0.0	12.1	21.2	0.0	30.3	18.2	12.1	3.0	3.0	0.0	100.0
	진보	0.0	0.0	2.0	4.0	4.0	18.0	32.0	34.0	4.0	2.0	100.0

주: 1) 성별 $\chi^2=11.196$, 전공별 $\chi^2=18.084$, 소속별 $\chi^2=11.196$, 정치적 성향별 $\chi^2=79.472$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60〉 귀하는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조세 인상	국공채 발행	국가 사업간 재원 조정	복지서비스 받는 사람이 이용요금 부담	기부금 (기업, 종교단체 등)	사회 보험료 인상	기타	계
전체		46.0	1.0	31.0	8.0	2.0	8.0	4.0	100.0
성별	남자	50.7	0.0	30.4	4.3	1.4	8.7	4.3	100.0
	여자	35.5	3.2	32.3	16.1	3.2	6.5	3.2	100.0
전공별	경상계열	40.0	0.0	23.3	16.7	0.0	16.7	3.3	100.0
	사회계열	53.7	2.4	29.3	2.4	2.4	7.3	2.4	100.0
	보건계열	41.4	0.0	41.4	6.9	3.4	0.0	6.9	100.0
소속별	대학	47.1	0.0	35.3	5.9	2.9	4.4	4.4	100.0
	연구기관	43.8	3.1	21.9	12.5	0.0	15.6	3.1	100.0
정치적 성향 ***	보수	5.9	0.0	52.9	23.5	5.9	5.9	5.9	100.0
	중도	39.4	0.0	39.4	12.1	3.0	0.0	6.1	100.0
	진보	64.0	2.0	18.0	0.0	0.0	14.0	2.0	100.0

주: 1) 성별 $\chi^2=7.579$, 전공별 $\chi^2=15.389$, 소속별 $\chi^2=9.083$, 정치적 성향별 $\chi^2=35.166$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61〉 귀하는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세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근로 소득세 인상	자본 소득세 인상	부가 가치세 인상	사회 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 (경마등)에 대한 세금 인상	법인세 인상	조세 감면 제도 개선	기타	계
전체		5.0	31.0	6.0	17.0	21.0	13.0	5.0	2.0	100.0
성별	남자	7.2	31.9	8.7	15.9	15.9	11.6	5.8	2.9	100.0
	여자	0.0	29.0	0.0	19.4	32.3	16.1	3.2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6.7	23.3	10.0	16.7	30.0	13.3	0.0	0.0	100.0
	사회계열	4.9	39.0	2.4	19.5	9.8	17.1	4.9	2.4	100.0
	보건계열	3.4	27.6	6.9	13.8	27.6	6.9	10.3	3.4	100.0
소속별	대학	7.4	33.8	2.9	11.8	22.1	13.2	5.9	2.9	100.0
	연구기관	0.0	25.0	12.5	28.1	18.8	12.5	3.1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0.0	23.5	5.9	17.6	41.2	0.0	5.9	5.9	100.0
	중도	9.1	33.3	9.1	6.1	27.3	9.1	6.1	0.0	100.0
	진보	4.0	32.0	4.0	24.0	10.0	20.0	4.0	2.0	100.0

주: 1) 성별 $\chi^2=9.376$, 전공별 $\chi^2=13.555$, 소속별 $\chi^2=11.034$, 정치적 성향별 $\chi^2=20.481$

2) +p<0.1, *p<0.05, **p<0.01, ***p<0.001

〈부표 4-162〉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분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분야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저출산 대책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회간접자본)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R&D)	산업구조조정 산업 분야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비 및 관련 경비	교육의 공공성 강화	여가 있는 삶을 위한 문화 분야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미세먼지 등 환경제거를 위한 지원	기타	계
전체		22.0	39.0	2.0	5.0	6.0	1.0	10.0	1.0	2.0	11.0	1.0	100.0
성별 *	남자	24.6	44.9	2.9	7.2	5.8	1.4	5.8	0.0	0.0	5.8	1.4	100.0
	여자	16.1	25.8	0.0	0.0	6.5	0.0	19.4	3.2	6.5	22.6	0.0	100.0
전공별	경상계열	13.3	36.7	3.3	13.3	10.0	0.0	13.3	3.3	3.3	3.3	0.0	100.0
	사회계열	22.0	46.3	0.0	0.0	2.4	0.0	7.3	0.0	2.4	19.5	0.0	100.0
	보건계열	31.0	31.0	3.4	3.4	6.9	3.4	10.3	0.0	0.0	6.9	3.4	100.0
소속별	대학	17.6	41.2	2.9	4.4	7.4	1.5	8.8	1.5	1.5	11.8	1.5	100.0
	연구기관	31.3	34.4	0.0	6.3	3.1	0.0	12.5	0.0	3.1	9.4	0.0	100.0
정치적 성향	보수	5.9	35.3	5.9	11.8	11.8	5.9	5.9	0.0	5.9	11.8	0.0	100.0
	중도	21.2	36.4	3.0	6.1	12.1	0.0	15.2	0.0	0.0	3.0	3.0	100.0
	진보	28.0	42.0	0.0	2.0	0.0	0.0	8.0	2.0	2.0	16.0	0.0	100.0

주: 1) 성별 $\chi^2=22.855$, 전공별 $\chi^2=26.129$, 소속별 $\chi^2=5.941$, 정치적 성향별 $\chi^2=28.326$

2) +p<0.1, *p<0.05, **p<0.01, ***p<0.001